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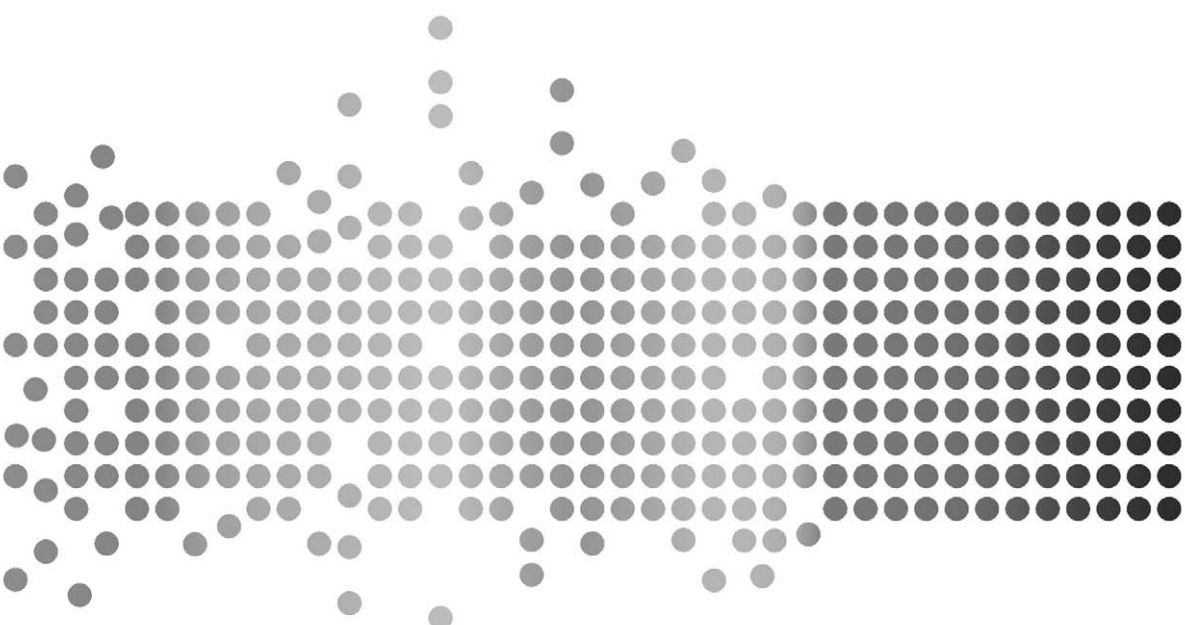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1000-000545-01

정책보고서 2009-83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이삼식 · 최효진 · 오영희 · 서문희 · 박세경 · 도세록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현상을 20년 이상 동안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명까지 근접하여,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세기 이상 긴 기간동안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천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아주 낮다.

저출산현상의 장기 지속은 장래 사회·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인구 불균형은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노동인구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되며, 더 나아가 세대간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이 손상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의 장기적 지속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를 야기하고, 내수와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은 만혼화 내지 비혼화 등 결혼행태와 함께 가족의 변화와도 연동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현상을 극복하여 활기차고 밝은 미래사회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인 환경과의 연관성을 명료히 밝혀 국가정책으로 투영화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은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정책을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본 조사의 결과는 학계와 연구계의 각종 연구에도 제공되어 학문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이상영 국장, 저출산인구정책과 김용수 과장, 저출산인구정책과 손주영 사무관 등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원의 장영식 박사와 김미숙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요약	1
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7
제2절 연구내용	38
제3절 연구방법	41
제2장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46
제1절 표본설계	46
제2절 조사결과 및 자료처리	50
제3장 조사가구 및 응답자의 일반특성	56
제1절 조사가구의 특성	56
제2절 조사응답자의 특성	60
제4장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독립 실태	71
제1절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공간적 독립 실태	71
제2절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실태	75
제5장 미혼남녀의 결혼 동향	79
제1절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태도	79
제2절 미혼남녀의 본인 결혼에 관한 태도	132
제3절 미혼남녀의 본인 결혼에 관한 경험	167

제6장 미혼남녀의 출산 동향	170
제1절 미혼남녀의 자녀에 관한 태도	170
제2절 미혼남녀 본인 출산에 관한 태도	192
제7장 미혼남녀의 정책선호도	211
제1절 미혼남녀의 저출산현상에 관한 태도	211
제2절 미혼남녀의 출산·양육지원정책에 관한 태도	216
제3절 미혼남녀의 결혼정책 선호도	222
제4절 미혼남녀의 출산정책 선호도	225
제8장 기혼여성의 결혼 동향	233
제1절 기혼여성의 결혼에 관한 태도	233
제2절 기혼여성의 결혼 실태	269
제3절 기혼여성의 결혼생활	282
제9장 기혼여성의 임신 동향	329
제1절 기혼여성의 임신실태	329
제3절 유배우여성의 불임실태	339
제3절 유배우여성의 피임실태	345
제10장 기혼여성의 출산 동향	352
제1절 기혼여성의 자녀에 관한 태도	352
제2절 기혼여성의 출산 실태	377
제3절 유배우여성의 향후 출산계획	390
제4절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410

제11장 기혼여성의 보육·교육실태	418
제1절 기혼여성의 영유아 보육·교육실태	418
제2절 기혼여성의 초등학생자녀 방과후 보육교육 실태	442
제3절 기혼여성의 자녀 사교육비 실태	456
제4절 기혼여성의 생활비 중 자녀양육지출 순위	458
제12장 기혼여성의 정책 경험 및 선호도	460
제1절 기혼여성의 저출산현상에 관한 태도	460
제2절 기혼여성의 양육지원주체 및 자원확보에 관한 태도	465
제3절 기혼여성의 결혼정책 선호도	471
제4절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경험 실태	474
제5절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선호도	489
제13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97
부록 1 주요 조사결과 부표	507
부록 2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533

표 목차

〈표 1-1〉 2005년도 및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meta data	42
〈표 1-2〉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가구조사항목	43
〈표 1-3〉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 조사항목	43
〈표 2-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총화 결과	48
〈표 2-2〉 층별 표본조사구수 배분 내역	49
〈표 2-3〉 표본조사구 추출결과 층별 내용	50
〈표 2-4〉 가구조사결과 가구수	50
〈표 2-5〉 기혼자조사결과 기혼조사자수	51
〈표 2-6〉 미혼자조사결과 미혼자수	51
〈표 3-1〉 조사가구 유형별 가구원 규모	57
〈표 3-2〉 조사가구의 일반특성	58
〈표 3-3〉 조사가구 가구주의 일반 특성	60
〈표 3-4〉 조사대상 미혼자(20~44세)의 일반 특성	61
〈표 3-5〉 조사대상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적 특성	63
〈표 3-6〉 조사대상 미혼남녀(20~44세)의 취업경력(최근 5회까지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64
〈표 3-7〉 조사대상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	65
〈표 3-8〉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	67
〈표 4-1〉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와 동거 여부	72
〈표 4-2〉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와의 비동거 시기	74
〈표 4-3〉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정도	76
〈표 4-4〉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시기	78
〈표 5-1〉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05년과 2009년 조사결과간 비교	80
〈표 5-2〉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	83
〈표 5-3〉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	84

〈표 5- 4〉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86
〈표 5- 6〉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87
〈표 5- 7〉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88
〈표 5- 8〉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90
〈표 5- 9〉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92
〈표 5-10〉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라는 결혼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	93
〈표 5-11〉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95
〈표 5-12〉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96
〈표 5-13〉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98
〈표 5-14〉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99
〈표 5-15〉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01
〈표 5-16〉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02
〈표 5-17〉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04
〈표 5-18〉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	105
〈표 5-19〉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07
〈표 5-20〉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08

〈표 5-21〉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10
〈표 5-2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11
〈표 5-23〉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13
〈표 5-2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14
〈표 5-25〉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	115
〈표 5-26〉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	116
〈표 5-27〉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17
〈표 5-28〉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18
〈표 5-29〉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혼전임신에 대한 의식	120
〈표 5-30〉	미혼남녀(20~44세)의 혼전임신의 출산여부에 대한 의식 비교	121
〈표 5-31〉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가족관련 견해에 대한 의식 (찬성태도) 종합	121
〈표 5-32〉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24
〈표 5-33〉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25
〈표 5-34〉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27
〈표 5-35〉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28

〈표 5-36〉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30
〈표 5-37〉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미혼남성(20~44세)의 태도 종합	132
〈표 5-38〉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태도 변화	133
〈표 5-39〉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의향	136
〈표 5-40〉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의향	137
〈표 5-41〉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 의향	139
〈표 5-42〉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결혼계획연령	140
〈표 5-43〉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계획연령	141
〈표 5-44〉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계획연령	142
〈표 5-45〉 취업 미혼남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계획연령	144
〈표 5-46〉 취업 미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계획연령	144
〈표 5-47〉 미혼남녀(20~44세) 배우자 조건(1순위)	146
〈표 5-48〉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조건(1순위)	147
〈표 5-49〉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조건(1순위)	148
〈표 5-50〉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150
〈표 5-51〉 미혼남성(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152
〈표 5-52〉 미혼여성(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153
〈표 5-53〉 미혼남성(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155
〈표 5-54〉 미혼여성(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156
〈표 5-55〉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사람 ...	159
〈표 5-56〉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사람 ..	160
〈표 5-57〉 미혼남성(20~44세)의 특정한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사람	161
〈표 5-58〉 미혼여성(20~44세)의 특정한 결혼태도와 이에 영향을 준 사람 ...	162
〈표 5-59〉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 ...	164
〈표 5-60〉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 ...	165
〈표 5-61〉 미혼남성(20~44세)의 특정한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 ...	166
〈표 5-62〉 미혼여성(20~44세)의 특정한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	167

〈표 5-6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경험	167
〈표 5-64〉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이유	169
〈표 6- 1〉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171
〈표 6- 2〉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173
〈표 6- 3〉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비교	174
〈표 6- 4〉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75
〈표 6- 5〉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77
〈표 6- 6〉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78
〈표 6- 7〉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80
〈표 6- 8〉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82
〈표 6- 9〉 형제·자매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183
〈표 6-10〉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자녀수	184
〈표 6-1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	185
〈표 6-12〉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자녀수	187
〈표 6-13〉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자녀성구성	188
〈표 6-14〉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자녀성구성	188
〈표 6-15〉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자녀수와 근무형태 조합	190
〈표 6-16〉 미혼남녀(20~44세)가 추구하는 인생목표와 자녀수 간의 조합 ...	191
〈표 6-17〉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	192
〈표 6-18〉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자녀출산 의향	193

〈표 6-19〉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자녀출산 의향	194
〈표 6-20〉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대자녀수	195
〈표 6-2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대자녀수	197
〈표 6-22〉 미혼남녀(20~44세)의 기대자녀수의 성별 선호 여부	198
〈표 6-23〉 미혼남녀(20~44세)의 기대자녀 성구성	199
〈표 6-24〉 미혼남녀(20~44세)의 특성별 1자녀만 출산의향 이유(1순위)	200
〈표 6-25〉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1자녀만 출산의향 이유(1순위)	201
〈표 6-26〉 미혼남녀(20~44세)의 무자녀 희망 이유(1순위)	203
〈표 6-27〉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첫자녀 출산 여건	205
〈표 6-28〉 미혼남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첫자녀 출산 여건	206
〈표 6-29〉 미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첫자녀 출산여건	207
〈표 6-30〉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향후 임신·출산 후 희망 근무 형태	208
〈표 6-31〉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향후 임신 및 출산 후 희망하는 근무형태	209
〈표 6-32〉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임신·출산 후 경력단절 이유	210
〈표 6-33〉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임신 및 출산 후 경력단절 이유	210
〈표 7- 1〉 미혼남성(20~44세)의 저출산 문제 심각성에 대한 태도	212
〈표 7- 2〉 미혼여성(20~44세)의 저출산 문제 심각성에 대한 태도	213
〈표 7- 3〉 미혼남성(20~44세)의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	214
〈표 7- 4〉 미혼여성(20~44세)의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	215
〈표 7- 5〉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의 이유에 대한 미혼남녀 (20~44세)의 태도	216
〈표 7- 6〉 국가의 자녀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미혼남성(20~44세)의 태도	217

〈표 7- 7〉 국가의 자녀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미혼여성(20~44세)의 태도	218
〈표 7- 8〉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미혼남성(20~44세)의 태도	219
〈표 7- 9〉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미혼여성(20~44세)의 태도	220
〈표 7-10〉 세금을 이용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221
〈표 7-11〉 미혼남녀의 결혼정책 필요성	222
〈표 7-12〉 미혼남녀(20~44세)가 필요로 하는 결혼정책	224
〈표 7-13〉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출산·양육시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	226
〈표 7-14〉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출산·양육시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	227
〈표 7-15〉 미혼남녀(20~44세)의 출산·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태도	229
〈표 8- 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 ...	234
〈표 8- 2〉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	235
〈표 8- 3〉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236
〈표 8- 4〉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238
〈표 8- 5〉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239
〈표 8- 6〉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240

〈표 8- 7〉 기혼여성(20~44세)의 이상적인 남성 및 여성결혼연령 비교, 2005~2009	241
〈표 8- 8〉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42
〈표 8- 9〉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43
〈표 8-10〉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20~44세)의 태도	244
〈표 8-1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45
〈표 8-1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46
〈표 8-1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47
〈표 8-14〉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48
〈표 8-15〉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49
〈표 8-16〉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50
〈표 8-17〉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및 가족관련 다양한 견해에 대한 태도 비교	251
〈표 8-18〉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	252
〈표 8-19〉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53
〈표 8-20〉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54

〈표 8-21〉 “시댁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55
〈표 8-22〉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56
〈표 8-23〉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57
〈표 8-24〉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58
〈표 8-25〉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59
〈표 8-26〉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	260
〈표 8-27〉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61
〈표 8-28〉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종합	262
〈표 8-29〉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63
〈표 8-30〉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64
〈표 8-31〉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65
〈표 8-32〉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66
〈표 8-33〉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267
〈표 8-34〉 기혼여성(20~44세)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비교	268
〈표 8-35〉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연기 경험	269
〈표 8-36〉 기혼여성(20~44세)이 결혼을 미뤘던 이유	270

〈표 8-37〉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배우자 만남 형태	271
〈표 8-38〉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태도와 배우자 만남 형태	272
〈표 8-39〉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평균 결혼비용	274
〈표 8-40〉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평균 결혼비용 및 주 부담자 ..	276
〈표 8-4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신혼집 마련형태	277
〈표 8-42〉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신혼집 마련 주 부담자	279
〈표 8-43〉 기혼여성(20~44세)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 ...	280
〈표 8-44〉 이혼·사별·별거 여성(20~44세)의 재혼 계획 여부 및 재혼 생각 없는 이유	282
〈표 8-45〉 기혼여성(20~44세) 일반특성별 초혼당시 취업 유무	283
〈표 8-46〉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초혼당시 취업 여부 ...	284
〈표 8-47〉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여부 .	285
〈표 8-48〉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 여부	286
〈표 8-49〉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전후 직장을 그만둔 이유	288
〈표 8-50〉 초혼당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유무별 자녀수	289
〈표 8-51〉 초혼당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경력단절유무 및 현 연령별 자녀수	289
〈표 8-52〉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순위별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 여부	291
〈표 8-53〉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순위별 출산전후 6개월이내 직장을 그만둔 이유	292
〈표 8-54〉 1자녀만을 둔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현재 경제활동상태	293
〈표 8-55〉 2자녀만 둔 기혼여성(20~44세)의 둘째아 출산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현재 경제활동상태	294

〈표 8-56〉 2자녀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와 둘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	296
〈표 8-57〉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기혼여성(20~44세)의 첫 번째 직업과 현 직업	296
〈표 8-58〉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기혼여성(20~44세)의 첫 번째 종사상지위와 현 종사상 지위	297
〈표 8-59〉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힘든 일	298
〈표 8-60〉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힘든 일	300
〈표 8-61〉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 희망 여부	301
〈표 8-62〉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희망 이유	303
〈표 8-63〉 취업 희망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304
〈표 8-64〉 유배우여성(20~44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 가정일의 공평분담 정도	306
〈표 8-65〉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관적인 남편과의 가정일 공평분담 정도	307
〈표 8-66〉 유배우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남편과 집안일 분담 정도 ..	308
〈표 8-67〉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남편과 집안일 분담 정도	310
〈표 8-68〉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312
〈표 8-69〉 기혼여성의 맞벌이 여부별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312
〈표 8-70〉 유배우여성(20~44세)의 가정일 투여시간	313
〈표 8-71〉 유배우여성(20~44세) 남편의 가정일 투여시간	314
〈표 8-72〉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사결정 ..	314
〈표 8-73〉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	315

〈표 8-74〉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본인 직장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316
〈표 8-75〉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남편 직장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316
〈표 8-76〉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일상생활비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317
〈표 8-77〉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주택구입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	318
〈표 8-78〉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투자 및 재산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319
〈표 8-79〉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가정일 대한 의사결정	319
〈표 8-80〉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에 대한 도움(경제적, 병수발 등) 여부	321
〈표 8-81〉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의 부담정도	322
〈표 8-82〉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도움의 부담정도	323
〈표 8-83〉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정도	325
〈표 8-84〉 1자녀 이상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로부터 자녀양육 도움 정도	326
〈표 8-85〉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로부터 집안일 도움 정도	327
〈표 9- 1〉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임신 횟수	330
〈표 9- 2〉 기혼여성(20~44세) 일반특성에 따른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331
〈표 9- 3〉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333
〈표 9- 4〉 출생자녀수 및 추가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20~44세)의 임신 종결 형태별 구성비	334
〈표 9- 5〉 시기별 기혼여성(20~44세)의 임신종결형태별 구성비	335
〈표 9- 6〉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336
〈표 9- 7〉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성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경험 비율	337

〈표 9- 8〉 기혼여성(20~44세)의 인공임신중절 회수 및 시기	338
〈표 9- 9〉 기혼여성(20~44세)의 시기별 인공임신중절 이유	339
〈표 9-10〉 유배우여성(20~44세)의 특성별 피임미실천자의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되고 있지 않은 상태 여부	340
〈표 9-11〉 기혼여성(20~44세) 부부의 불임진찰 경험 비율	341
〈표 9-12〉 기혼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불임 진찰 비율	342
〈표 9-13〉 자녀수별 불임 진찰 경험 부부의 불임 진단(판정) 여부	342
〈표 9-14〉 불임진단을 받은 부부(기혼여성 20~44세 기준)의 불임진단 시기	343
〈표 9-15〉 부부의 불임진찰 여부별 부인의 자연유산·사산횟수	343
〈표 9-16〉 부부의 불임진단 여부별 부인의 인공임신중절횟수	344
〈표 9-17〉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불임치료여부	344
〈표 9-18〉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치료중단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345
〈표 9-19〉 유배우 여성(20~44세)의 특성별 피임목적	346
〈표 9-30〉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별 피임실천자 중 출산 중단이유	348
〈표 9-21〉 유배우 여성(20~44세)의 연령별 피임실천자 중 출산중단 및 연기이유	349
〈표 9-22〉 유배우 여성(20~44세)의 가구소득수준별 피임실천자 중 출산중단이유	350
〈표 9-23〉 유배우 여성(20~44세)의 취업여부별 및 직종별 피임실천자중 출산중단이유	351
〈표 10- 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353
〈표 10- 2〉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354
〈표 10- 3〉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견해에 대한 태도	355

〈표 10- 4〉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진술에 대한 태도	356
〈표 10- 5〉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진술에 대한 태도	357
〈표 10- 6〉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술에 대한 태도	358
〈표 10- 7〉 기혼여성(20~44세)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진술에 대한 태도	359
〈표 10- 8〉 기혼여성(20~44세)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진술에 대한 태도	360
〈표 10- 9〉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진술에 대한 태도	361
〈표 10-10〉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 없다” 진술에 대한 태도	362
〈표 10-11〉 기혼여성(20~44세)의 다양한 자녀 가치에 관한 태도	363
〈표 10-12〉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364
〈표 10-13〉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365
〈표 10-14〉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366
〈표 10-15〉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367
〈표 10-16〉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368
〈표 10-17〉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의 형제·자매에 관한 태도 비교	369
〈표 10-18〉 기혼여성(20~44세)의 이상자녀수 분포 비교, 2005년과 2009년 조사 결과	369

〈표 10-19〉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	370
〈표 10-20〉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자녀수	372
〈표 10-2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자녀수의 일형태 조합	373
〈표 10-22〉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형태 조합	375
〈표 10-23〉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와 인생의 목표실현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	377
〈표 10-24〉 기혼여성(20~44세)의 혼인상태별 출생자녀수	379
〈표 10-25〉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출생아수	379
〈표 10-26〉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 및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82
〈표 10-27〉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출생아수	384
〈표 10-28〉 취업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385
〈표 10-29〉 남편의 경제활동 특성별 출생자녀수	387
〈표 10-30〉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 분포	387
〈표 10-31〉 유배우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자녀수	388
〈표 10-32〉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초혼연령과 출산간격	389
〈표 10-33〉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및 현존자녀수별 향후 출산계획	392
〈표 10-34〉 유배우여성(20~44세)의 현존자녀수 및 일반특성별 향후 출산계획	393
〈표 10-35〉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 및 남편의 경제활동특성별 추가 출산계획	394
〈표 10-36〉 유배우여성(20~44세)의 현존 자녀수 및 성구조별 추가출산 계획	395
〈표 10-37〉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의 추가출산계획 자녀수	397
〈표 10-38〉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희망시기	397

〈표 10-39〉	향후 출산계획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 보육시설 등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의 육아지원에 대한 기대	399
〈표 10-40〉	유배우여성(20~44세)의 향후 출산시 남편이 가정일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400
〈표 10-41〉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향후 임신·출산시 희망하는 근무형태	402
〈표 10-42〉	취업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 후 계속 취업시 자녀를 돌볼 사람·시설	403
〈표 10-43〉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 출산시 육아휴직 이용계획	404
〈표 10-44〉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향후 출산시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404
〈표 10-45〉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추가출산중단이유	407
〈표 10-46〉	자녀가 없는 유배우여성(20~39세)의 향후 출산중단 이유 ..	408
〈표 10-47〉	1자녀를 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	409
〈표 10-48〉	2자녀 이상을 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	410
〈표 10-49〉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대자녀수	412
〈표 10-50〉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기대자녀수 ...	414
〈표 10-51〉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출생자녀수(평균)	417
〈표 11- 1〉	기혼여성(20~44세)의 취학전 자녀를 주간에 주로 돌보는 곳 (사람)	420
〈표 11- 2〉	기혼여성(20~44세)의 취학전 자녀를 야간에 주로 돌보는 곳 (사람)	422
〈표 11- 3〉	기혼여성(20~44세)의 주간에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423
〈표 11- 4〉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여부 및 거주지별 주간에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424

〈표 11- 5〉 기혼여성(20~44세)의 야간에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425
〈표 11- 6〉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여부 및 거주지별 야간에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425
〈표 11- 7〉 기혼여성(20~44세)의 주간 영아(0~2세)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	426
〈표 11- 8〉 기혼여성(20~44세)의 야간 영아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	427
〈표 11- 9〉 기혼여성(20~44세)의 주간 유아(3세~취학전)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	427
〈표 11-10〉 기혼여성(20~44세)의 야간 유아(3세~취학전)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	428
〈표 11-11〉 기혼여성(20~44세)이 주간에 영유아보육·교육을 위한 기관을 이용한 이유	429
〈표 11-12〉 기혼여성(20~44세)의 야간 영유아보육·교육을 위한 기관 이용 이유	430
〈표 11-13〉 기혼여성(20~44세)의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기관 미이용 이유	431
〈표 11-14〉 기혼여성(20~44세)의 영유아(0~5세) 1인당 지출한 월평균 보육교육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분포	432
〈표 11-15〉 영유아(0~5세) 1인당 월평균 보육교육 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433
〈표 11-16〉 기혼여성(20~44세)의 비용지불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교육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434
〈표 11-17〉 영유아 가구(20~44세 기혼여성) 당 월평균 지출액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436
〈표 11-18〉 영유아 가구(20~44세 기혼여성)의 월평균 보육·교육서비스 지출 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437

〈표 11-19〉 비용지불 영유아가구(20~44세 기혼여성)의 보육·교육서비스 지출 평균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438
〈표 11-20〉 기혼여성(20~44세)의 영아 1인당 이용시설(사람) 별 보육교육비용 지출(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439
〈표 11-21〉 기혼여성(20~44세)의 영아 1인당 이용시설(사람) 별 보육교육관련 국가·지자체 지원수령액	440
〈표 11-22〉 기혼여성(20~44세)의 유아 1인당 이용시설(사람) 별 보육교육비용 지출(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441
〈표 11-23〉 기혼여성(20~44세)의 유아 1인당 이용시설(사람) 별 보육교육관련 국가·지자체 지원수령액	441
〈표 11-24〉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1순위	443
〈표 11-25〉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2순위	444
〈표 11-26〉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돌보기 바람직한 곳(사람): 1순위	446
〈표 11-27〉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돌보기 바람직한 곳(사람): 2순위	447
〈표 11-28〉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에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1순위)	448
〈표 11-29〉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에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2순위)	448
〈표 11-30〉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449
〈표 11-31〉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기관서비스 미이용 이유	450
〈표 11-32〉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보육교육비 지출 ...	451

〈표 11-33〉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교 자녀 1인당 평균 방과후 보육·교육비 평균(월 기준)(국가·지자체 보조금 제외)	452
〈표 11-34〉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비 지출 (국가·지자체 보조금 제외)	452
〈표 11-35〉 초등학교 이하 가구(0~5세)의 월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액 (국가·지자체 보조금 제외)	453
〈표 11-36〉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구(20~44세 기혼여성)의 보육교육비 지출액 평균(월 기준)	454
〈표 11-37〉 비용지불 초등학교이하 가구(20~44세 기혼여성)의 보육·교육비 지출액 평균	455
〈표 11-38〉 기혼여성(20~44세)의 사교육을 받는 자녀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57
〈표 11-39〉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	457
〈표 11-40〉 기혼여성(20~44세)의 월평균 지출대비 사교육비 비중	458
〈표 11-41〉 1자녀이상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1순위)	459
〈표 12- 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461
〈표 12- 2〉 기혼여성(20~44세)의 저출산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	463
〈표 12- 3〉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태도	466
〈표 12- 4〉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직장지원에 대한 태도	468
〈표 12- 5〉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세금을 통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태도	470
〈표 12- 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472
〈표 12- 7〉 기혼여성(20~44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결혼정책	473

〈표 12- 8〉 기혼여성(20~44세)의 현존자녀수별(1자녀 이상) 정책인지도	475
〈표 12- 9〉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수준 및 취업여부별 정책인지도 (0자녀 이상)	477
〈표 12-10〉 기혼여성(20~44세)의 현존자녀수별 정책경험도	479
〈표 12-11〉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수준 및 취업여부별 정책경험도(1자녀 이상)	480
〈표 12-12〉 기혼여성(20~44세)의 정책만족도(1자녀 이상을 둔 정책 유경험여성 대상)	482
〈표 12-13〉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정책만족도(1자녀 이상의 정책경험 여성 대상)	484
〈표 12-14〉 1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정책경험여부 및 정책만족도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486
〈표 12-15〉 2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정책경험여부 및 정책만족도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487
〈표 12-16〉 3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의 정책경험여부 및 정책만족도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487
〈표 12-17〉 기혼여성(20~44세)의 거주지·가구소득수준별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1순위)	490
〈표 12-18〉 기혼여성(20~44세)의 거주지·가구소득수준별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1순위)	492
〈표 12-19〉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태도	494
〈부표 1〉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부모와 동거 여부	508
〈부표 2〉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부모와 비동거 시기	509
〈부표 3〉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510
〈부표 4〉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511
〈부표 5〉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512

〈부표 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513
〈부표 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514
〈부표 8〉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515
〈부표 9〉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516
〈부표 1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517
〈부표 11〉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518
〈부표 12〉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519
〈부표 13〉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520
〈부표 14〉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1자녀만 출산의향 이유(1순위) ...	521
〈부표 15〉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 출산의향	522
〈부표 16〉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기대자녀수	523
〈부표 17〉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밥먹고 옷 입히는 것 ...	524
〈부표 18〉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함께 놀아주기 ...	525
〈부표 19〉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이플 때 돌봐주기 ...	526
〈부표 20〉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	527
〈부표 21〉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하교	528
〈부표 22〉 출산계획 유배우여성(20~44세)의 지역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9
〈부표 23〉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별 사회적지원 선호도	530

〈부표 24〉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여성(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연령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1
〈부표 25〉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여성(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취업여부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2

요약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우리나라에서 장기지속되고 있는 저출산현상은 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
 - － 저출산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최근 출산력 변화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인 규명과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급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된 가임기층인 20~44세의 기혼여성 및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양육관련 실태(행태)를 분석하고, 기 추진 중인 저출산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

□ 조사기간

- 2009.06.01~07.19(약 50일)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면접

□ 표본추출

- 200개 조사구의 10,211가구(유효가구수)
 - － 조사구는 신축아파트 규모와 행정구역별(서울시의 동,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동, 기타 시의 동, 읍, 면) 분포 고려

□ 조사내용

조사표 구분	조사내용
가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비동거가구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 거주 주택 유형 및 소유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액
기혼여성 (만20세~4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교육정도 및 상태, 결혼상태, 거주실태, 출생자녀, 사망자녀, 취업상태, 종사상 지위, 직종 등 ◦ 본인/남편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월 평균 지출비용, 생활비 순위, 평균 사교육비 ◦ 남편과 역할분담, 결혼당시 상황, 가족생활 전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 출산실태(임신, 불임, 인공유산, 피임), 근무시간 조정 여부 ◦ 자녀계획 관련사항,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보육 관련 사항, 초등학교 취학 중 자녀 방과후 교육 관련 사항
미혼자 (만20세~4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및 현재 경제활동, 경제상태 ◦ 가족 및 형제·자매 관련 사항 ◦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자신의 결혼과 관련된 사항,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 향후 출산과 관련된 사항,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II. 주요 조사 결과

1.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가.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독립실태

□ 부모와의 동거여부

- 미혼남성의 80.0%, 미혼여성의 81.1%가 부모와 동거
 - 즉, 미혼남녀의 20%정도가 부모와 비동거

□ 부모와의 비동거시기

- 미혼남성의 독립시기 : 20~24세 34.2%, 25~29세 26.4%, 30세 이상 22.7%, 20세 미만 16.7% 등(평균 25.3세)
- 미혼여성의 독립시기 : 20~24세 35.5%, 25~29세 30.8%, 20세 미만 19.4%, 30세 이상 14.3% 등(평균 24.1세)

□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정도

- 미혼남성 중 부모로부터 전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39.9%, 일부 도움 20.9%(50%이상 9.5%, 50%미만 11.4%), 전혀 도움 받지 않음 39.2%

-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정도는 전적으로 도움 39.5%, 일부 도움 22.0%(50%이상 9.5% 50%미만 12.5%), 전혀 도움 받지 않음 38.4%
-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시기
 - 미혼남성 : 25~29세 38.2%, 20~24세 35.9%, 30세이상 15.5%(평균 25.1세)
 - 미혼여성 : 20~24세 53.6%, 25~29세 28.3%, 30세이상은 6.9%(평균 23.5세)

나. 미혼남녀의 결혼동향

1)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태도

-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 미혼남성의 경우 69.8%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
 -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23.4%(‘05년 29.4%)
 - 청년층 실업, 비정규직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남성의 결혼 선호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풀이
 - 미혼여성은 63.2%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
 -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16.9%(‘05년 12.9%)
 - 여성의 결혼 선택에 경제상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데다가 최근 저출산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영향 미친 것으로 추측
- 미혼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 미혼남성 : 30~31세 40.8%, 32~34세 34.0%, 35세 이상 11.6%, 28~29세 10.5%, 27세 이하 3.1%(평균 31.8세)
 - 미혼여성 : 30~31세 39.7%, 32~34세 36.6%, 35세 이상 12.1%, 28~29세 9.9%, 27세 이하 1.8% 순(평균 31.9세)

○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 미혼남성 : 27세이하 58.4%, 28~29세 36.6%, 30~31세 10.1%
등(평균 28.9세)
- 미혼여성 : 28~29세 34.2%, 30~31세 34.0%, 27세이하 21.2%
등(평균 29.5세)

□ 미혼남녀의 만혼 및 비혼 이유에 대한 태도

-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91.3%, 미혼여성의 90.3% 찬성
-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85.2%, 미혼여성 86.1% 찬성
-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79.0%, 미혼여성 83.2% 찬성
-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62.3%, 미혼여성 71.5% 찬성
-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69.6%, 미혼여성 75.2% 찬성
-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74.8%, 미혼여성 77.6% 찬성
- “교육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63.3%, 미혼여성 68.5% 찬성
-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72.3%, 미혼여성 79.6% 찬성
-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85.2%, 미혼여성 84.9% 찬성
-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78.6%, 미혼여성 83.6% 찬성

□ 미혼남녀의 가족에 관한 태도

-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 미혼남성 78.9%, 미혼여성 74.0% 찬성
-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61.4%, 미혼여성 66.9% 찬성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53.7%, 미혼여성 61.5% 찬성
 -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53.2%, 미혼여성 60.4% 찬성
 -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36.4%, 미혼여성 36.5% 찬성
 -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54.4%, 미혼여성 57.2% 찬성
 -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73.3%, 미혼여성 73.7% 찬성
 -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58.7%, 미혼여성 51.8% 찬성
 -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61.8%, 미혼여성 52.3% 찬성
-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69.7%, 미혼여성 65.0% 찬성
 -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66.9%, 미혼여성 52.9% 찬성
 -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74.0%, 미혼여성 76.2% 찬성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3.3%, 미혼여성의 75.0%가 찬성
 -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80.1%, 미혼여성의 87.4%가 찬성

2) 미혼남녀의 본인 결혼에 관한 태도

□ 본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

- 결혼의향비율은 미혼남성 75.7%(‘05년 83.5%), 미혼여성 73.1%(‘05년 73.9%)로 유사
 -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보다 본인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남.
 - 본인의 결혼결정에 개인의 가치관 외에 사회·문화적 규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 결혼의향 없는 비율은 미혼남성은 7.6%(‘05년 5.6%), 미혼여성은 10.0%(‘05년 8.8%)로 독신의향이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 본인의 결혼연령

- 미혼남성 : 30~31세 37.0%, 32~34세 26.2%, 35세이상 17.2%(평균 32.05세)
- 미혼여성 : 30~31세 35.6%, 28~29세 27.9%, 32~34세 15.4%(평균 30.58세)

□ 배우자 조건(1순위)

- 미혼남성 : 성격 25.7%, 경제력 15.6%, 외모 등 신체적 조건 13.5% 등의 순
 - 남성도 여성의 경제력(‘05년 조사 5.5%로 7번째 순위) 등 중시
- 미혼여성은 경제력 35.0%, 성격 18.7%, 직업 10.5% 등의 순
 - ‘05년도 조사 결과 유사(단, 직업 조건이 7.1%(4순위)에서 다소 상승)
- 미혼남녀 모두 정서적 조건보다 현실적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 증가

□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 미혼남성 : ‘결혼에 이른 나이’(29.3%), ‘자아성취를 위해’(11.0%), ‘낮은 소득’(10.9%), ‘실업 및 고용불안정’(10.5%) 등의 순
 - 저연령층일수록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자아성취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실업·고용불안정,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미혼여성 : ‘결혼에 이른 나이’(32.5%), ‘자아성취를 위해’(12.1%), ‘결혼비용 때문에’(7.7%),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서’(7.2%) 등의 순
 - － 저연령층일수록 ‘결혼에 이른 나이’, ‘자아성취’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쳐서’, ‘소득이 적어서’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젊은 미혼남녀 모두 자아성취, 자기개발 등 자기발전을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으며,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불안정 문제와 함께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
-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사람
 -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모두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큼(미혼남성 45.0%, 미혼여성 44.7%)
 - － 그 다음으로 친구 또는 동료, 형제자매와 친인척 등의 순
-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정보매체
 - 미혼남성의 35.4%, 미혼여성의 31.9%가 본인의 결혼태도에 특별한 매체의 영향이 없다고 응답
 - 매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종류는 미혼남성의 경우 TV(22.9%), 신문·잡지 등 전통적 인쇄매체(20.1%), 인터넷(17.7%), 라디오(1.6%) 등
 - － 미혼여성은 TV(27.8%), 인터넷(19.6%), 인쇄매체(17.3%), 라디오(1.1%) 등

3) 미혼남녀의 본인 결혼에 관한 경험

- 결혼연기 경험
 - 미혼남성 중 6.3%, 미혼여성 중 4.7%가 결혼연기 경험
- 결혼연기 이유
 - 미혼남성 : 집안반대(22.3%), 결혼비용부담(17.5%), 실업(12.6%),

결혼 의무·역할 부담(9.7%) 등의 순

- 미혼여성 : 집안반대(27.8%), 결혼의무·역할부담(23.6%), 상대방 수입부족(18.1%), 결혼비용부담(12.5%) 등의 순

나. 미혼남녀의 출산 동향

1) 미혼남녀의 자녀에 관한 태도

□ 자녀필요성

- 미혼남성 84.1%(반드시 21.6%, 갖는 것이 좋음 62.5%)
- 미혼여성 81.8%(반드시 20.3%, 갖는 것이 좋음 61.5%)

□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

-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86.3%, 미혼여성의 87.8% 찬성
-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84.6%, 미혼여성의 85.7% 찬성
-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8.7%, 미혼여성의 78.2% 찬성
-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 50.6%, 미혼여성 50.7% 찬성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견해에 대해 찬반태도가 절반정도 찬성(미혼남성 54.7%, 미혼여성 48.9%)
-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55.3%, 미혼여성의 55.1% 찬성
-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58.0%, 미혼여성의 55.6% 찬성
-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50.3%와 미혼여성의 54.4%가 찬성

□ 형제·자매에 관한 태도

-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92.0%, 미혼여성의 92.6% 찬성
-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56.3%, 미혼여성의 56.9% 찬성
-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90.3%, 미혼여성의 91.0% 찬성
-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5.9%, 미혼여성의 66.3% 찬성
-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7.7%, 미혼여성의 80.0% 찬성

□ 이상자녀수

-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모두 2명, 1명, 3명 등 순으로 선호
 - － 무자녀 희망 비율은 미혼남성 1.4%, 미혼여성 2.5%
- 평균 이상자녀수는 미혼남성 1.87명(‘05년 2.06명), 미혼여성 1.79명(‘05년 2.05명)

□ 미혼여성의 이상적인 자녀수-근무형태 조합

- 미혼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조합은 ‘2자녀 이상+시간제취업(25.1%)’, ‘1자녀 전일제근무(17.2%)’, ‘2자녀이상 비취업(16.7%)’, ‘2자녀이상 전일제근무(15.2%)’, ‘1자녀 시간제근무(13.6%)’ 등의 순
 - － 고연령층이거나 취업 미혼여성은 자녀를 적게 두면서 전일제로 일을 하는 형태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우세

□ 이상적인 자녀수-인생목표 조합

- 미혼남녀 공히, 본인 욕구 충실, 공평한 가사분담, 소득재산 마련, 경력 축적, 좋은 집 마련,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위해 1자녀를 두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

2) 미혼남녀의 본인 출산에 관한 태도

□ 미혼남녀의 출산의향

- 미혼남성의 86.4%, 미혼여성의 84.5%가 자녀출산 희망
 - 출산의향이 없는 비율은 미혼남성 7.1%, 미혼여성 9.0%
- 자녀출산의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임을 시사

□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

- 미혼남성의 기대자녀수는 2명이 5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명(22.9%), 3명(10.9%), 4명 이상(1.9%), 무자녀(0.9%) 순(평균 1.90, '05년 2.13)
- 미혼여성의 기대자녀수도 2명이 5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명(28.5%), 3명(10.0%), 무자녀(1.7%) 순(평균 1.81, '05년 2.07)

□ 소자녀 및 무자녀 희망 이유

- 1자녀 출산 희망 이유는 미혼남성의 경우,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45.1%), 여가·자아성취(16.0%), 소득부족(10.9%), 실업·고용불안정(8.7%) 등의 순
 -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49.7%), 여가·자아성취(17.0%), 일·가정양립 곤란(12.3%), 육아인프라 부족(7.1%) 순
- 미혼남녀의 무자녀를 희망하는 이유는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외에 '여가 및 부부만의 생활을 위해(20.7%)', 자녀교육비용부담(17.7%), 자녀양육비용부담(14.8%), 일·가정 양립 곤란(12.9%) 등의 순
 - 요컨대, 미혼남녀가 1자녀만을 출산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로 경제사회적인 것이라면, 자녀를 전혀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주로 개인의 가치관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

□ 첫 자녀 출산 여건

- 미혼남성 : 고용안정(38.3%), 소득안정(26.6%), 출산적령기 내

- (9.5%), 집장만 후(9.3%), 충분한 부부생활 후(9.0%) 등의 순
 - 미혼여성 : 소득안정(30.3%), 고용안정(26.6%), 출산적령기 내 (14.2%), 충분한 부부생활 후(13.8%), 집장만 후(8.1%) 등의 순
- 미혼남녀 모두 첫자녀 출산시기로 고용, 소득, 집장만 등 경제적 여건(미혼남성의 74.2%, 미혼여성의 65.0%) 중시
- 취업 미혼여성의 자녀 출산 시 선호 근무형태
 - 근무시간 단축 43.7%, 평소대로 42.5%, 취업중단 13.8% 순
 -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 취업 미혼여성들은 임신·출산시에 직장중단이나 시간제 근무보다 전일제 근무 희망
 - 취업중단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내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56.9%)’, ‘자녀양육·일 동시 수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24.3%)’, ‘아이 맡길 사람/시설이 없어서(6.6%)’ 순
 - * 일·가정 양립 곤란의 직접적인 사유는 28.5%(’05년 6.7%)

다. 미혼남녀의 정책 선호도

1) 저출산현상에 대한 태도

- 저출산문제의 심각성
 - 미혼남성의 82.3%, 미혼여성의 83.9%가 저출산현상이 심각하다 인식
-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
 - 미혼남성의 75.3%(매우 관련 23.6%), 미혼여성의 76.7%(매우 관련 19.4%)가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 인지

2) 출산·양육지원정책에 관한 태도

- 국가 지원에 대한 태도
 - 미혼남성 94.3%, 미혼여성 94.9%가 국가지원 필요 인식

□ 직장의 지원에 대한 태도

○ 미혼남성 95.2%, 미혼여성 96.4% 직장지원 필요 인식

□ 조세에 의한 다자녀가정 지원

○ 미혼남성 87.2%, 미혼여성 89.4% 동의

3) 결혼정책 선호도

□ 국가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미혼남녀 모두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75%수준)

□ 국가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국가 결혼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혼남녀가 필요로 하는 결혼정책은 주택마련 지원,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

4) 출산정책 선호도

□ 출산·양육 지원 요구도

○ 미혼남성 : 양육교육비 지원(44.8%), 보험료 지원(23.8%), 주거지원(19.3%) 등의 순

○ 미혼여성 : 양육교육비 지원(44.4%), 보험료 지원(28.9%), 주거지원(13.7%) 등의 순

– 미혼남녀 공히 자녀양육비 지원, 출산크레딧 등 보험료 및 주거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은 정책적으로 고려 필요

□ 출산·양육 여건에 관한 태도

○ 미혼남성 : 사교육비 경감(20.3%), 경기활성화(15.1%), 공교육 강화(12.0%),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11.9%) 순

○ 미혼여성 : 사교육비 경감(20.8%),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12.6%), 공교육 강화(12.1%),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11.7%) 순

2.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가. 기혼여성의 결혼동향

1) 기혼여성의 결혼에 관한 태도

□ 결혼 필요성

- 기혼여성 중 62.5%는 결혼 필요성에 긍정적(반드시 13.8%)
 - 중립적 태도(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30.5%, 부정적 태도 4.9%, 판단 유보 2.1%

□ 이상적인 결혼연령

-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시기 : 30~31세 49.6%, 32~24세 24.2%, 28~29세 16.5% 등의 순(평균 31.1세)
-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시기 : 27세이하 35.7%, 28~29세 34.8%, 30~31세 25.6% 등의 순(평균 28.6세)

□ 가족에 관한 태도

-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견해에 대해 82.2% 찬성
-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견해에 대해 66.1% 찬성
-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견해에 대해 55.1% 찬성
-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견해에 대해 58.3% 찬성
-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견해에 대해 35.3% 찬성
-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견해에 대해 55.4% 찬성
-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견해에 대해 68.9% 찬성

○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견해에 대해 49.2% 찬성

○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견해에 대해 44.8% 찬성

□ 만혼 및 비혼 이유에 대한 태도

○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견해에 대해 89.8% 찬성

○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견해에 대해 84.4% 찬성

○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견해에 대해 77.3% 찬성

○ “시대·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견해에 대해 69.2% 찬성

○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견해에 대해 73.3% 찬성

○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견해에 대해 76.1% 찬성

○ “교육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견해에 대해 73.5% 찬성

○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견해에 대해 80.8% 찬성

○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견해에 대해 83.8% 찬성

○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견해에 대해 81.3% 찬성

□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견해에 대해 78.4% 찬성

○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견해에 대해 65.5% 찬성

○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견해에 대해 74.9% 찬성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견해에 대해 77.7% 찬성

○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견해에 대해 84.5% 찬성

2) 기혼여성의 결혼 실태

□ 기혼여성의 결혼연기 경험 및 이유

- 기혼여성의 3.2%가 결혼연기를 경험
- 그 이유로는 결혼비용이 여의치 않아서가 2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16.9%), 집안의 반대(14.4%), 실업상태(12.4%) 등의 순
 - － 집안의 반대를 제외하면 주로 경제적 이유로 결혼결정을 연기

□ 기혼여성의 배우자와 만남형태

- 기혼여성의 배우자를 타인의 소개로 만난 비율은 전체의 41.8%
 - － 주 소개자는 친구(65.2%), 부모 또는 친인척(30.6%), 기타(2.5%), 결혼정보회사(1.8%) 순

□ 기혼여성의 결혼식 비용 및 주 부담자

- 결혼식(예단 및 예물, 혼수, 약혼식, 결혼식, 피로연, 폐백, 신혼여행 등) 지출비용은 1,500만원 미만이 2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00만원 이상(22.8%), 2,000~2,500만원 미만(18.5%), 1,000만원 미만(16.2%), 1,500~2,000만원 미만(13.1%) 등의 순(평균 결혼비용 1,976만원)
 - － 결혼식 비용의 주 부담자는 신부와 신랑 반반 분담(36.6%), 친정과 시댁 반반분담(34.0%), 신랑 또는 신부 개별 부담(13.4%), 신랑과 친정 분담(8.2%) 등의 순

□ 기혼여성의 신혼집 마련

- 신혼집 마련 방법으로 무보증 전세가 66.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접 구입(12.1%), 보증부 월세(9.4%), 시댁동거(8.3%), 무보증 월세(1.9%), 친정동거(1.2%) 등의 순
- 신혼집 마련의 주 부담자는 신랑 또는 신부 개인 53.0%, 친정 또는 시댁 부담 26.0%
- 기혼여성 중 신혼집 마련 시, 대출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21.8%

- 대출금액은 1~2천만원미만이 3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3천만원미만(25.9%), 3~4천만원미만(14.3%), 1천만원미만(13.3%) 등의 순(평균 대출액 2,099만원)

□ 현재 이혼·사별·별거 상태인 기혼여성 중 향후 재혼계획이 있는 경우는 12.1%, 재혼결정을 유보한 비율은 36.9%

- 재혼계획이 없는 여성(51.0%)들이 제시하는 이유로는 ‘결혼생활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46.3%)’, ‘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념하고 싶어서(29.4%)’, ‘마땅한 배우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21.0%)’ 순

3) 기혼여성의 결혼생활

□ 초혼 전후 취업여부

- 전체 응답자 중 초혼당시에 취업상태였던 여성의 비중은 62.5%
 - 현 연령별로는 20대 초반(20~24세)층을 제외하고는 연령 증가와 함께 초혼당시 취업 비율 감소
 - 현 25~29세 기혼여성 중 초혼당시 취업 상태였던 비율은 66.0%, 현 40~44세 기혼여성 중 취업비율은 59.6%
 -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초혼당시 취업 비율은 중졸 이하 35.7%, 고졸이하 61.5%, 대졸이하 65.6%, 대학원이상 72.7%로 교육수준과 정적관계

□ 초혼전후 경력단절

- 취업 중이었던 여성의 결혼 전후 경력단절 비율 39.3%(‘05년 결혼 전후 경력단절 비율 76.3%)

* 최근 올수록 결혼하여 일을 그만두기보다 일을 계속하는 경향 증대, 이로 인해 결혼 후 바로 출산하기보다 출산을 연기 또는 축소하는 경향이 증가 가능성 존재

- 20~24세 저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혼 전후 경력단절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혼여성의 결혼 전후 경력단절 이유

-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는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가 3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정에만 전념하고 싶어서(22.2%)’, ‘일을 하고 싶지 않아(11.0%)’ 등의 순
- 20대 저연령층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이유는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 29.8%,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14.3%, ‘거리가 멀어서’ 11.9%, ‘가정일에만 전념하고 싶어서’ 11.9% 순
－ 직장에서의 해고 또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7.1%로 30~40대 연령층보다 높음.
- 30대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30.4%)’, ‘가정에만 전념하고 싶어서(21.3%)’ 순
- 40대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32.1%)’, ‘가정에만 전념하고 싶어서(27.0%)’, ‘일하고 싶지 않아서(14.0%)’, ‘힘들어서(7.5%)’ 순

□ 출산전후 경력단절 수준

-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근무형태 변경 실태
 - － 첫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 변경 실태
 - 취업 계속(52.1%): 평소대로 근무(전일제) 34.5%, 시간제로 변경 근무 9.3%, 육아휴직 8.3%
 - 취업 중단(경력단절) 47.7%(‘05년 49.9%), 새로 취업 0.2%
 - － 둘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 변경 실태
 - 취업 계속(73.4%): 평소대로 근무(전일제) 45.2%, 시간제로 변경 근무 16.5%, 육아휴직 11.8%
 - 취업 중단(경력단절) 24.5%, 새로 취업 2.1%
 - － 셋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 변경 실태
 - 취업 중단(경력단절) 15.5%
 - 취업 계속: 평소대로 근무 36.6%, 시간제로 변경 근무 29.7% (첫째아와 둘째아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출산전후 경력단절 이유

- 첫째아 출산시 중단 이유로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가 4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19.9%,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 부족’ 12.6%, ‘산전산후 조리’ 6.8%, ‘본인의 건강 때문에’ 5.7%, ‘직장생활 불이익’ 4.6% 등
- 둘째아 출산시 중단 이유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가 40.6%,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28.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 부족’도 11.0%

□ 기혼여성의 직장일과 가정일 동시 수행 시 겪는 힘든 일

- 자녀양육시간 부족(34.6%), 부부공유시간 부족(8.2%), 직장일 전념 곤란(3.9%), 직장에서의 차별(2.1%) 등의 순

□ 비취업 기혼여성 중 51.5%가 취업 희망

- 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자녀양육(교육)비용 39.2%, 소득 부족 27.5%, 자아성취 11.3%, 경제적 독립 5.0% 등
 - 자기개발 등의 이유보다 주로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희망
-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면서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38.1%, 그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곤란(30.2%)’, 자녀가 아직 어려서(22.0%)’ 등의 순
 - 자녀수별 일하지 않은 이유는 무자녀 경우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가 60.9%로 1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경우에 비해 아주 높음.

□ 부부간 가정일 분담에 대한 주관적 태도

- 유배우 여성의 47.8%가 부부간 가정일 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 52.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 부부간의 가정일 분담이 ‘매우’ 공평하다는 주관적 의식은 저연령층 일수록 높으며, 특히 20대 초반은 10%를 상회
 - 부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가정일 분담을 공평하게 인식
 - * 부인이 고졸이하인 경우 4.1%에 그친 반면, 대학원졸업 이상인 경우, 11.4%

- 취업부인의 경우 부부 가사분담 공정성을 느낀 비율이 53.9%로 비취업부인(구직활동 42.2%, 비구직활동 4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부간 실제 집안일 분담

- 유배우여성의 78.8%는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집안일을 맡아서 한다고 응답
 - 주관적 인식보다도 더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저연령층일수록 부인의 집안일 분담 비율이 낮아짐.
 -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20~24세 26.3%, 25~29세 29.9% 등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40~44세에서는 14.3%에 불과
 - 저연령층일수록 전통적인 성 역할 분업에서 탈피하여 실제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자녀수별로 부부간 집안일 분담정도는 부적관계
 -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공동분담비율은 43.1%이나, 3자녀이상인 경우에는 13.5%에 불과

□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

-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분담하는 비율은 '밥먹고 옷 입히는 것(66.0%)', '아플 때 돌봐주기(68.2%)',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70.4%)',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등하교(63.6%)' 등
 - 다만,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는 부인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분담 비율이 48.2%, 부부 공동 분담 31.1%, 남편 분담 6.2% 등으로 다른 자녀돌보기 유형에 비해 비교적 남편의 분담정도가 높음.
 - 전반적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비율 저조

□ 부부의 가정일 투여시간(평일기준)

- 기혼여성의 집안일 투여시간은 평균 350분, 남편은 평균 97분 소요
 - 기혼여성과 남편 시간 차이는 253분으로 3.6배
- 취업 기혼여성의 집안일 투여시간은 평균 236분, 취업 남편 95분

- 대체적으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부부간 차이 증가
 - 무자녀 가정의 부부간 차이 142분, 3자녀이상 292분
 -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수 증가에 따라 부부간 집안일 투여시간 차이 증가

□ 부모에 대한 지원 정도

- 기혼여성이 최근 1년간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이나 도구적 도움을 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4.7%
 - 부모에 경제적 도움을 준 기혼여성의 9.9%는 매우 부담, 52.0%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응답
 -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준 경우에는 13.8%가 매우 부담, 44.3%가 약간 부담스럽다고 응답

□ 부모로부터의 도움 정도

- 기혼여성 중 최근 1년간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17.0%(많이 받은 2.6%)
-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기혼여성 중 19.5%는 자녀양육에 대해 도움을 받음.
- 기혼여성의 16.2%(많이 받은 5.2% 포함)는 부모로부터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받음.

나. 기혼여성의 임신 동향

1) 기혼여성의 임신실태

□ 임신횟수

- 2회 임신이 43.8%, 1회 임신 22.0%, 3회 임신 19.1%, 4회 임신 6.8%, 5회 이상 임신 2.0%의 순, 6.4%는 임신 무경험(평균 임신횟수 2.05회)

□ 임신종결형태

- 평균 임신 2.19회 중 정상출생 1.77회, 현임신 0.02회, 소모 0.40회 (사산 0.02회, 자연유산 0.19회, 인공임신중절이 0.19회)로 전체 임신소모율은 18.3%
- 임신소모와 출산간 관계
 - 자녀가 없는 경우 임신소모율 59.2%, 1자녀를 둔 경우 25.8%, 2자녀를 둔 경우 16.8%, 3자녀 이상을 둔 경우 11.4%
- 인공임신중절 실태
 - 유배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13.2%(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 0.18회)
 - － 1회 경험률 9.6%, 2회 이상 반복 경험률 3.7%
 - 인공임신중절 시기는 셋째아 출산 전 37.5%, 둘째아 출산 전 30.0% 첫째아 출산 전 29.4%,
 -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로는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은 추가자녀 불원·단산(30.8%), 출산연기(14.7%), 혼전임신(14.4%), 터울조절(10.6%), 본인건강(10.5%) 등의 순
 - － 두번째 인공임신중절 이유도 추가자녀 불원·단산(3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산연기(13.3%), 터울조절(13.0%), 혼전임신(11.6%) 등

2) 불임실태

- 불임실태
 - 피임 미실천자 및 피임 중단자 중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비율은 26.2%
- 불임진찰 경험
 - 의료기관에서의 불임 진찰 경험(부인과 남편 모두 포함) 5.0%
 - － 출생이수가 적을수록 불임 진찰율 증가
 - 무자녀 16.3%, 1자녀 6.1%, 2자녀 3.0%

- 부인의 초혼연령과 정적 관계
 - 초혼연령 24세 이하 3.8%, 25~29세 5.4%, 30~34세 7.1%, 35세 이상 8.5%

□ 의료기관에서의 불임 판정률: 진찰부부 중 18.7%

- 20대의 저연령층에서 불임 판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4세이하의 경우 19.1%, 25~29세 20.9%이나 30~34세 10.7%
- 자녀수별로는 무자녀 부부의 29.2%가 불임진단
 - 1자녀 부부 12.3%, 2명이상인 경우 17.4%

다. 기혼여성의 출산 동향

1) 자녀에 관한 태도

□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

-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89.0%(24.8% 반드시 가져야 한다)
 -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비중은 9.7%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출생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

-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견해에 대해 95.6% 찬성
-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견해에 대해 91.1% 찬성
-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견해에 대해 81.5% 찬성
-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견해에 대해 48.5% 찬성
-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견해에 대해 48.0% 찬성

-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견해에 대해 55.6% 찬성
-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견해에 대해 63.6% 찬성
-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견해에 대해 56.3% 찬성
- 형제·자매에 관한 태도
 -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견해에 대해 94.8% 찬성
 -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견해에 대해 58.2% 찬성
 -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견해에 대해 93.0% 찬성
 -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견해에 대해 70.9% 찬성
 -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견해에 대해 85.7% 찬성
-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
 - 기혼여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는 2명(68.4%), 1명(16.5%), 3명(11.5%) 등의 순
 - 평균 2.0명으로 ‘05년 조사결과 2.3명에 비해 0.3명 감소
 - 저연령층일수록 무자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
 -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여성이 무자녀 및 1자녀를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이상적인 자녀수-근무형태 조합
 - 기혼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조합은 ‘2자녀 이상+시간제취업’ 39.4%, ‘2자녀이상+비취업’ 19.4%, ‘2자녀이상+전일제취업’ 13.4%, ‘1자녀+전일제취업’ 10.2%, ‘1자녀+시간제취업’ 9.9% 순

□ 이상적인 자녀수-인생목표 조합

- 본인 욕구 충실, 노후 안락, 소득재산 마련, 경력 축적, 좋은 집 마련,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위해 1자녀를 두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2) 기혼여성의 출산실태

□ 기혼여성의 출산수준

- 평균출생아수는 1.66명(2자녀 54.3%, 1자녀 26.6%, 3자녀 이상 10.0%, 무자녀 9.0% 순)
 - 동부 1.64명, 읍·면부 1.76명
 - 중졸이하 1.68명, 고졸 1.74명, 대졸 1.56명, 대학원졸 1.55명으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적음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수준의 60%미만 1.59, 60~80% 미만 1.62명, 80~100% 미만 1.69, 100~120% 1.54, 120~140% 1.60, 140~160% 미만 1.73, 160% 이상 1.66명

- 취업 중 1.60명, 비취업 1.70명

□ 기혼여성의 출산시기

-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수는 현저하게 감소
 - 초혼연령 24세 이하인 경우 1.90명, 25~29세 1.61명, 30~34세 1.20명, 35세 이상 1.05명
- 출산간격은 결혼~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1.48년, 첫째아~둘째아 출산까지 평균 3.04년, 둘째아~셋째아 출산까지 평균 4.27년 소요
 -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출산간격이 길어지는 경향

3) 향후 출산계획

□ 향후 출산계획(의향)

- 유배우여성(20~44세) 중 17.1%가 향후 출산계획
 - 없음 74.3%, 결정유보 8.6%)
- 저연령일수록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남.
 - 29세이하 48.1%, 30~34세 28.5%, 35~44세 7.1%
 - 30대 초반의 연령층에서 출산의향이 30%정도에 달하는 것은 초혼연령 상승에 기인
- 자녀수별로는 무자녀 69.8%, 1자녀 32.2%, 2자녀 4.4%, 3자녀 이상 2.6%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출산의향이 높게 나타남.
 - 다만, 결정유보 비율도 무자녀/1자녀인 경우 13.0%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출산계획 자녀수 및 시기
 - 1명 추가 희망 73.2%, 2명 이상 희망 26.8%(평균 1.30명)
 - 무자녀 부인의 경우 1명 출산계획 55.7%, 2명 이상 출산계획 44.3%(평균 1.48명)
 - 1자녀를 둔 부인 경우, 추가출산계획 자녀수는 1명 84.8%로 압도적(평균 1.17명)
 - 출산계획 시기는 1~2년 이내가 3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 이내 28.4%, 2~3년 이내 20.1% 순
 -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단기간 출산 계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향후 출산시 사적육아지원에 대한 기대
 - 부모의 육아지원 기대 비율
 - 추가출산계획 부인의 50.9%(시부모 12.4%, 친정부모 23.2%, 양가 부모 15.3%)가 부모의 도움 기대
 - 취업 여성의 부모지원 기대 비율은 64.6%로 비취업 여성 41.9%에 높게 나타남.
 - 남편의 육아지원 기대 비율
 - 향후 출산계획 여성 중 82.3%가 남편의 육아지원 기대

– 취업의 경우 91.3%, 비취업의 경우 76.6%가 남편의 육아지원 기대
 □ 향후 출산시 희망 근무형태

○ ‘평소대로 일하겠다’ 54.7%, ‘시간을 줄여 일 하겠다(시간제 근무)’ 31.7%, ‘일을 그만 두겠다(취업중단)’ 13.5%

– 향후 출산시 취업중단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69.5%, 일-자녀양육 양립 시간 부족 14.1%,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11.5% 등

– 출산시 취업중단 희망하는 부인 중 60.9%는 자녀양육 후 직장복귀 희망

• 복귀 희망 시기로는 자녀가 초등학교 취한 후인 6세 이상 50.3%, 유치원 취학이 가능한 3~5세 44.7%, 3세 이전 영아기 5.0%

○ 향후 출산시 육아휴직 사용의향은 상용직 48.5%, 임시·일용직 23.0%

–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돌봐 줄 사람이 있어서) 27.2%,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봐 17.4%, 직장 내에서 승진과 보직 등의 불이익 염려 16.3%, 상사(고용주)가 원치 않아 15.4%, 수입이 줄어서 15.0%, 복직이 어려울까봐(해고당할까봐) 5.8%, 일이 많아서 2.9% 순

□ 유배우 여성의 출산중단 이유

○ 무자녀 유배우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 자녀교육비 부담 26.6%, 자녀양육비 부담 14.3%로 40.9%가 비용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고용불안정의 경제적인 이유 23.9%, 가치관 변화 18.8% 등

○ 1자녀를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 자녀교육비 부담(26.7%), 소득고용불안정(18.0%), 자녀양육비 부담(17.0%), 가치관 변화(14.6%), 주택마련 곤란(6.9%), 일-가정양립 곤란(6.5%) 등의 순

- 취업여성의 경우 소득고용불안정(20.7%), 자녀교육비 부담(19.5%), 가치관 변화(19.5%), 일-가정양립 곤란(17.2%) 등의 순

4)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는 1.94명('05년 2.02명)으로 이상자녀수와 0.04명 정도의 gap 존재('05년 0.28명)
- 기혼여성이 자녀 출산·양육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겪는 장애요인으로 인해 이들의 출산선택이 좌절되고 있음을 시사

4. 기혼여성의 보육·교육실태

1) 기혼여성의 영유아 보육·교육실태

□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곳(사람)

- 주간 :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제도권 보육·유아교육기관 53.2%, 본인 또는 남편 37.8%, 부모 4.4%(친정부모 2.9%, 시부모 1.5%) 등
- 야간 : 본인이나 남편이 직접 89.3%, 부모 6.7%(친정부모가 3.9%, 시부모님 2.8%)

□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 주간 : 본인 또는 남편 38.2%, 다음으로 사설어린이집 18.6%, 국공립어린이집이 15.0%, 유치원 10.7% 등의 순
- 야간 : 본인 또는 남편 89.0%, 어린이집 2.9%, 친정부모 2.6%, 시부모 1.8%, 학원 1.3% 등의 순

□ 영유아 보육의 수급일치도(주간)¹⁾

- 영아(0~2세) 보육 수급일치도 :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육아지

1) 말하기 원하는 곳(사람)과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간의 일치정도

원시설인 경우 58.1%, 가정보육사인 경우 19.2%, 친척 71.4%, 부부 85.8% 등

- 유아(3~취학전) 보육 수급일치도 : 보육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육아지원시설인 경우의 92.7%, 베이비시터나 보육모 등의 경우 8.6%, 친척인 경우 25.6%, 부부 스스로 57.2%

□ 영유아의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이유

-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이유가 3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을 위해” 25.4%,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10.1%, 초등학교 준비 9.7%, “같이 놀 아이가 없어서” 5.2%, “집 근처라서 이용하기 편리하여” 6.1%, 장래학업 도움 2.7%, 특기 활동 2.6% 등의 순

□ 영유아의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미이용 이유

-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67.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 11.1%, 가까운 보육시설이 없어서 3.6%, 원하는 보육서비스가 없어서 3.0%,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0% 등

□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 영유아(0~5세)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 10~20만원미만 20.0%, 20~30만원미만 17.6%, 30~40만원미만 12.3%, 10만원미만 8.9% 등(평균 16만 3천원)

2) 기혼여성의 초등학생자녀 방과후 보육교육 실태

□ 초등학생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에 맡기는 기관은 학원이 5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교방과후프로그램(18.3%), 부모(15.3%) 등의 순

□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 (사람)은 학원이 3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27.2%), 부모(25.4%) 등의 순
- 취학자녀(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교육 수급일치도
 - 수급일치도는 방과후보육시설 95.4%, 부부 돌봄(48.4%), 친척(30.2%), 가정보육사 돌봄(26.0%) 등의 순
- 취학자녀(초등학생)의 방과후 기관서비스 이용 이유
 - 장래학업 도움이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인적 발달(15.4%), 특기교육(14.9%), 중고등학교 준비(13.7%) 등의 순
- 취학자녀(초등학생)의 방과후 기관서비스 미이용 이유
 -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가 3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25.9%)”, 서비스의 질적 수준(17.5%), 원하는 서비스 부재(12.3%), 보육시설 부재(3.0%) 등의 순
- 취학자녀(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비용
 - 초등학생 1인당 방과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비용
 - 20~30만원미만(27.5%), 30~40만원미만(21.2%), 10~20만원미만(18.3%), 50만원이상(14.4%), 40~50만원미만(12.1%) 등의 순 (평균 28만 7천원)

3) 기혼여성의 자녀 사교육비 실태

- 취학자녀 사교육비 지출실태
 - 자녀1인당 월평균사교육비 지출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미취학 순
 - 미취학 자녀 : 평균 23.7만원
 - 초등학교 취학자녀 : 평균 31.6만원
 - 중학교 취학자녀 : 평균 42.7만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 평균 55.3만원

4) 기혼여성의 생활비 중 자녀양육지출 순위

□ 기혼여성의 생활비 중 자녀양육지출 순위

- 무자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출항목은 자녀교육비
- 1자녀 : 자녀교육비 32.6%, 식료품비 30.7%, 주거비 20.7% 순
- 2자녀 : 자녀교육비가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마. 기혼여성의 정책 경험 및 선호도

1) 기혼여성의 저출산현상에 관한 태도

□ 기혼여성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 기혼여성의 88.5%가 저출산현상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매우 심각 25.8%)

□ 기혼여성의 저출산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

- 기혼여성의 77.8%가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을 인식(매우 심각 22.4%)

2) 기혼여성의 양육지원 주체 및 재원확보에 관한 태도

□ 자녀양육지원 주체 및 재원확보 방법에 대한 태도

- 기혼여성의 95.1%는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전적지원 41.3%)

□ 직장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태도

- 직장의 자녀양육지원에 대해 전체의 96.0%가 필요성을 인식(전적지원 36.6%)

□ 조세에 의한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태도

- 기혼여성의 89.5%가 조세에 의한 자녀양육지원에 긍정적(매우 34.6%)

라) 기혼여성의 결혼정책에 대한 태도

□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기혼여성의 80.1%가 국가의 결혼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

□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결혼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필요로 하는 결혼정책은 주택마련 지원(55.2%),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15.9%),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11.5%),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8.8%) 등의 순으로 미혼남녀와 동일한 패턴

4)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경험 실태

□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인지도

- 기혼여성의 정책 인지율은 정책별로 아주 다양하여 최고 83.2%에서 최저 23.3%로 큰 차이
 - 인지율이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정책 : 자녀보육·교육비 지원(83.2%), 방과후교육 지원(70.7%) 및 다자녀가정 소득공제(65.5%)에 불과
 - 인지율이 가장 낮은 정책 : 양성평등문화 조성(23.3%), 근로형태 유연화(26.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29.6%), 유사산 휴가(29.7%),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30.5%)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36.9%) 등

□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경험도

- 정책경험도의 분포는 최대 19.7%에서 최저 0.9%로
 - 세부정책별로 경험도가 10% 이상인 정책 : 자녀보육교육비지원

(19.7%), 산전진찰비용 지원(17.2%) 및 방과후교육 지원(10.1%)에 불과

– 경험도가 5%~10%미만인 정책 : 다자녀가정 소득공제(7.5%),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5.8%) 및 산전후휴가 급여지원 확대(5.0%)에 불과

– 나머지 대부분 정책들의 경험도는 5% 미만, 특히 주거지원영역의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용자지원과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의 경우에는 2% 미만

○ 정책영역 간 경험도의 차이는 정책 강도(대상범위, 지원수준) 및 지속성의 결과로 평가

□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만족도

○ 정책만족도는 정책 간 편차가 존재

- 만족도가 80% 이상인 정책 : 종일제보육·육아시설 확충(83.9%),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82.2%) 및 방과후교육 지원(80.2%)
- 50%대 만족도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산전진찰비용 지원, 불임부부 지원, 유산산 휴가,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등이 해당

5)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선호도

□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선호도

○ 자녀보육교육비 지원(53.4%), 방과후교육 지원(8.5%), 다자녀가정 특별주택공급(5.8%), 다자녀가정 소득공제(3.6%), 종일제보육시설·서비스 확충(3.6%),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3.5%)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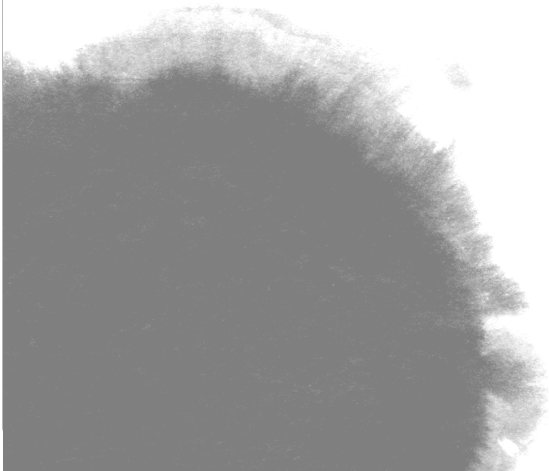
– 비취업여성들은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반면, 취업여성들은 일·가정생활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

□ 자녀양육에 있어 바람직한 사회여건

- 사교육비 경감 22.4%, 공교육 강화 13.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 13.9%,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1.7%,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10.3%,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 타파 10.0% 등의 순

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으로 급감한 후 1990년대 중반까지 1.6~1.8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 다시 급락하여 2000년대에는 1.2 내외의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초저출산현상이 장기 지속될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되어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다. 노동계층 감소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은 저축률과 생산적 자본축적 및 투자의 축소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노동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 세입기반 감소 등이 예상되는 반면, 노인층은 계속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이는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을 수립·시행하였다.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는 정책 수준에 의해 좌우될 것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이 얼마나 저출산 원인 해소에 적합한가와 정확한 표적집단(target population)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기혼여성의 결혼·출산·양육 행태와

정책만족도 및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원인과 출산 수준이 낮은 집단을 명료화하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요적합성과 효과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는 기존정책의 효율적 관리 및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그리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출산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적으로도 동 조사는 국민의 결혼, 임신, 출산 및 보육·양육 행태와 합의에 관한 기초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 도입부, 제2부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태도, 그리고 제3부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이다. 이들 각 부는 수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제4부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제1부 도입부는 총 3개의 장(1장~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본 조사의 실태조사 방법과 지난 2005년에 실시하였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와의 비교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조사에 적용한 표본설계와 모수추정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로서 모집단의 성격, 표본추출 규모 및 방법, 조사대상 가구와 인구(미혼남녀, 기혼여성)의 규모, 조사완료율, 모수추정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본 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와 미혼남녀(20~44세), 기혼여성(20~44세)의 규모 및 특성을 기술하였다. 조사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원수,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자기집 소유여부, 가구소득 등이 포함된다.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의 일반특성으로는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기혼여성만), 가구소득, 취업여부 등이 포함되며, 경제활동특성으로는 직업,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근로(사업)소득, 직장 행태 및 규모 등이 포함된다.

제2부는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총 4개의 장(4장~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의 첫 번째 장인 제4장은 한국사회에서 미혼층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결혼 및 출산 시기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이 장에서는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공간적 및 경제적 독립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기준으로는 독립 여부와 독립 시 그 정도 및 시기를 이용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혼층의 결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으로는 일반적인 결혼가치관, 본인 결혼에 관한 태도, 본인 결혼에 관한 경험 등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결혼가치관에는 결혼필요성, 이상결혼연령, 만혼 및 비혼 관련 태도, 가족가치관, 부부역할관 등 다양한 관점들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인 가치관에 이어 미혼남녀의 본인의 결혼에 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향후 결혼의향, 결혼연령, 기대하는 배우자 조건, 결혼하지 않은 이유,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사람 또는 정보매체 등 본인의 결혼과 관련한 계획이나 경험을 살펴보았다. 지난 2005년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으로서 미혼남녀의 결혼정보회사 이용 경험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혼층의 출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출산과 관련한 가치관이나 본인 자신의 출산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자녀가치관은 자녀필요성, 자녀가치, 형제자매 가치, 이상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근무형태 및 자녀수-인생목표 조합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분석되었다. 본인의 자녀출산 계획과 관련해서는 출산 의향, 기대자녀수, 소자녀 및 무자녀 희망 이유, 첫자녀 출산 여건, 임신·출산 후 희망근무형태 등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정책 욕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저출산현상에 관한 태도(심각성 인식수준, 이유 등)를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결혼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였다.

제3부는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총 5개의 장(8장~12장)으로 구성하였다.

제8장에서는 기혼여성의 결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가치관, 실제결혼실태 및 결혼 후 가족생활을 살펴보았다. 결혼가치관은 미혼층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즉, 결혼필요성, 이상적 결혼연령, 가족관, 만혼 및 비혼 이유, 부부역할관이 해당된다. 기혼여성의 결혼실태로는 결혼당시를 기준으로 결혼 연기경험 여부 및 이유, 현재의 배우자와 만남형태, 결혼시기(결혼식, 혼인신고시기, 동거시기), 결혼비용(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비용) 및 부담주체, 무배우여성의 재혼계획 등 다양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혼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분석은 외부적으로 경제활동과의 연관성, 그리고 내부적으로 부부간의 역할과 부모와의 지원관계에 대해 실시하였다. 경제활동과의 연관성은 주로 결혼전후 및 출산전후 경력단절 경험여부와 이유 및 직장복귀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남편과의 역할분담 정도는 집안일과 자녀돌보기에 대한 것으로 분담정도(4점 척도), 투여시간, 가구 내 의사결정 구조 등을 측정도구로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부모와의 자녀돌보기 및 가정일을 둘러싼 교환이론적인 분석도 시도하였다.

제9장에서는 기혼여성의 임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임실태(실천율과 목적), 임신실태(횟수, 임신소모 수준과 출산간의 관계), 불임실태(불임진찰 경험 및 치료) 등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0장에서는 기혼여성의 출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미혼층에서와 동일한 관점(자녀필요성, 자녀가치, 형제자매 가치, 이상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근무형태 및 자녀수-인생목표 조합 등)에서 자녀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조사당시까지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출생자녀수)과 출산시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기혼여성의 특성별 출산수준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표준화방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배우여성의 향후 출산계획을 파악하여 기대자녀수를 도출하고, 이를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와 비교분석하였다.

제11장에서는 기혼여성의 자녀보육·교육실태를 아동 연령 및 학년, 이용 서비스 유형, 이용희망 서비스 유형(수급일치정도), 가구 지불비용,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자녀양육 가정의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율을 산정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

제12장에서는 기혼여성의 정책 경험 및 선호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혼여성의 양육지원주체 및 재원확보에 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의 결혼정책 선호도를 파악하여, 향후 미혼층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반영토록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주요 정책(21종)에 대한 기혼여성의 정책 인지도, 경험도 및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출산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는 본 보고서와 연계되어 수행한 별도의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경험 여부 및 만족도와 추가출산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기혼여성들이 선호하는 출산정책의 유형들을 여러 특성별로 분석·제시하였다.

끝으로 제13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하나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실시·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09년도 조사결과를 200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는 제1차 조사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두 조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5개년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기본틀(framework)에 기반을 두고 실시하였다. 즉, 두 조사의 조사대상, 표본추

출, 조사방법, 조사표, 조사항목 등은 거의 동일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설정하였다. 2009년 조사의 meta data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2005년도 및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meta data

	2005년도 조사	2009년도 조사
모집단	◦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보통조사구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보통조사구
표본추출	◦ 200개 조사구(8,489가구)	◦ 206개 조사구(11,330가구)
조사대상 (조사원료 기준)	◦ 조사가구 10,095가구 ◦ 미혼남녀(20~44세) 2,670명 ◦ 기혼여성(20~44세) 3,802명	◦ 조사가구 10,211가구 ◦ 미혼남녀(20~44세) 3,314명 ◦ 기혼여성(20~44세) 3,585명
조사시점	◦ 2005.05.01	◦ 2009.06.01
조사기간	◦ 2005.05.06~06.16(42일간)	◦ 2009. 6. 1~7.17(49일간)
조사표	◦ 가구조사표 24개 ◦ 미혼자조사표 111개 ◦ 기혼자조사표 294개	◦ 가구조사표 23개 ◦ 미혼자조사표 100개 ◦ 기혼자조사표 264개
조사방법	◦ 현지가구면접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원)	◦ 현지가구면접조사 (리서치회사)

조사항목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에 따라 일부를 조정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수립(2006)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된 최초 조사로서, 조사항목은 주로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는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적을 평가하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0~2015)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그간의 저출산 원인 변동을 파악하고 정책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선정되었다. 2009년 조사에서 사용된 세 종류의 조사표(가구조사표, 기혼자조사표, 미혼자조사표)에 포함된 조사항목수와 조사항목은 <표 1-2>와 <표 1-3>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1-2〉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가구조사항목

항목	가구조사
동거가구원 사항(9)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출생년월, 교육정도 및 상태, 결혼상태, 취업여부, 원국적, 종교
비동거가구원 사항(10)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출생년월, 교육정도 및 상태, 결혼상태, 취업여부, 원국적, 종교, 거주지
가구 일반특성(4)	주택 종류, 주택 점유형태, 자기집(가족소유포함)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표 1-3〉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 조사항목

	미혼남녀	기혼여성
생애이력 (6)	<p><경제활동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시기, 종사상 지위, 직종, 근로(사업)소득, 중단시기, 중단이유 ※ 가장 최근 기준 5회까지 기입 	<p><교육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도, 교육상태 <p><혼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별거/이혼 시기 <p><거주실태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정/시부모와 동거 이력 <p><출산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출생이력, 사망자녀이력 <p><취업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직종
경제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근무시간, 직장유형, 사업체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부인의 현 취업여부, 종사상지위, 직종, 주당 근무시간, 근로(사업)소득, 직장유형, 사업체 규모 -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의 문제점 - (비취업여성) 취업 의향 및 이유, 현재 일하지 않은 이유
가족생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연령, 생존여부(사망년도) - 부모의 이혼·별거 경험 여부 - 형제자매의 이혼·별거 경험 여부 - 부모와 동거여부, 독립시기(*추가) -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정도, 독립시기(*추가) - 형제자매 수(*추가) 	<p><가족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정/시부모의 연령, 생존여부(사망년도) - 친정/시부모의 이혼·별거 경험 - 형제자매의 이혼·별거경험 - 남편/본인 형제자매수(*추가) <p><주말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과 동거여부, (주말부부) 월평균 만남 횟수(*추가) <p><가계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지출비용, (지난 3개월)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자녀 학력별 사교육비 <p><부부 역할분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역할분담 공정성 - 가사분담 정도 - 자녀돌보기 분담정도 - 가사 및 자녀돌보기 부부의 투입시간 - 가사관련 부부간 의사결정 구조(7문항) <p><부모에 대한 도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받은 시점(*추가) - 부모도움 여부 및 부담정도

		미혼남녀	기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경제적 도움, 자녀양육, 집안일 등 가사) 정도(*추가) <재혼> - 재혼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수(동거 여부, 생활비 지원 등)
결혼	가치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필요성 -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 결혼 및 가족관련 태도(9문항) -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5문항) - 만혼화 및 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10문항)(*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필요성 -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 결혼 및 가족관련 태도(9문항) - 만혼화 및 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10문항) -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5문항) <재혼> - 이혼·사별의 경우 재혼의향 및 없는 경우 이유 - 재혼시 추가출산의향 및 없는 경우 이유
	실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의향 - 배우자 조건 - 결혼계획시기 - 이성교제 여부, 교제기간, 상대방과의 결혼 의향 -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 - 결혼연기 경험 여부 및 이유 - 결혼 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이나 매체(*추가) - 결혼정보회사 이용경험 여부, 지출비용(*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연기 경험 여부 및 이유 - 결혼전후 경력단절 여부, 시기 및 주된 이유 - 남편과의 만남방법(*추가) - 결혼정보회사 이용경험 여부, 지출비용(*추가) - 남편과의 동거시점, 결혼시점, 혼인신고 시점(*추가) - 결혼에 지출한 비용, 주 부담자(*추가) - 신혼집 마련방법, 주 부담자, 집 마련 시 대출여부 및 금액(*추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정책의 필요성 및 필요한 정책의 종류(*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정책의 필요성(*추가) - 필요한 결혼정책의 종류(*추가)
자녀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필요성 - 이상자녀수 및 성 구별 여부 - 이상적인 일과 자녀양육 형태 -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8문항) - 형제자매에 대한 태도(5문항)(*추가) - 소자녀 출산이유에 대한 태도(9문항) - 인생목표에 따른 적정자녀수(8문항) - 혼전임신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필요성 - 이상자녀수 및 성 구별 여부 - 이상적인 일과 자녀양육 형태 -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8문항) - 형제자매에 대한 태도(5문항)(*추가) - 소자녀 출산이유에 대한 태도(9문항) - 인생목표에 따른 적정자녀수(8문항)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출산의향 - 기대(희망)자녀수 및 성 구별 여부 - 1자녀 출산의향 및 무자녀 이유 - 첫 자녀 출산 희망시기 - 출산 후 자녀양육을 위한 근무형태 조정 여부, 취업중단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시기별 임신회수 및 종결형태 - 총 출생자녀수 - 인공유산 횟수별 시기 및 이유 - 피임여부, 피임방법, 목적 - 피임을 통한 출산중단(연기) 이유 - 불임여부, 불임진찰여부, 불임진단여부 및 시기, 불임치료 경험 유무 및 중단 이유 - 불임시술 횟수 및 비용(*추가) - 쌍생아 출산 횟수(*추가) - 출산순위별 출산전후 경력단절 유무 및 이유 <추가출산계획> - 추가자녀 계획 여부 - 추가시 자녀수, 성구분 여부, 시기

		미혼남녀	기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시 부모/남편 도움 기대정도 - 추가출산 비희망 이유 - 추가출산에 영향 사람/매체 - 근무형태 조정여부, 중단시 시기 - 중단시 직장복귀희망 여부 및 시기 - 계속 일하는 경우 기대 양육 조력자 - 육아휴직이용 계획여부 및 없는 경우 이유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보육실태> - 만나이, 실제 맡긴곳(사람), 맡기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사람), 기관이용이유, 기관 미이용 이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액 및 받는 이유, 월평균 지출 보육료 <초등학교 취학자녀 방과후교육실태(*추가)> - 만나이, 실제 맡긴곳(사람), 맡기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사람), 기관이용이유, 기관 미이용 이유, 월평균 지출 방과후교육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심각성 인식도 - 저출산과 본인과의 연관성(*추가) - 국가·기업의 자녀출산지원에 관한 태도 - 조세방식에 의한 지원에 대한 태도 - 자녀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 선호도 - 자녀양육에 바람직한 사회여건 - 남성의 육아휴직/휴가 관련 태도(*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심각성 인식도 - 저출산과 본인과의 연관성(*추가) - 국가·기업의 자녀출산지원에 관한 태도 - 조세방식에 의한 지원에 대한 태도 - 자녀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 선호도 - 자녀양육에 바람직한 사회여건 - 출산 및 양육관련 정책의 인지여부, 이용경험유무, 도움정도 - 남성의 육아휴직/휴가 관련 태도(*삭제)

제2장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

제1 절 표본설계

1. 기획단계 결정 사항

가. 조사 규모

최근 가구수가 증가하고 출산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가구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산과 조사기간을 감안하여, 206개 표본조사구 내 총 11,330가구(조사구당 평균 55가구)를 조사대상 가구로 설정하였다.

나. 조사대상 지역

전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시·도의 섬 지역이 표본조사구로 추출될 경우 실제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므로, 각 시·도의 섬 지역은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섬 지역 가구는 전국가구의 0.4%에 불과하며, 실제 표본추출 과정에서 섬 지역이 추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대체하였다.

다. 표본조사구 추출 기초자료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통계청이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조사구 단위로 집계하여 본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 모집단을 만들었다. 본 조사의 조사구로 적합하지 않은 기숙사, 육아원, 양로원, 수녀원 등과 같은 시설단위 조사구는 표본추출 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

라. 신축아파트에 대한 조치

현지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표본조사구 내 모든 가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에 아파트가 신축되었을 경우에는 가구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여 주어진 조사기간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조사기간의 연장이다. 그러나 조사기간 연장은 그에 따른 비용의 추가와 그 다음 조사일정에 많은 지장을 주고,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해당 동·읍·면에 조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는 등 업무절차가 복잡하게 된다. 조사기간 연장을 피하는 방법으로 일부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토록 하고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지도원이 연구진의 지시를 받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표본조사구 내의 신축아파트는 조사에 포함시키고, 그 대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본조사구를 정하지 않았다.

2. 표본조사구 추출

가. 기초자료의 정리 및 총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서 시설조사구(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를 제외한 249,553개 보통조사구에 대해 조사구별로 주된 주택형태와 가구수, 가구원수, 20~44세 인구수를 집계하여 표본추출 모집단 전산화일을 구축하였다.

본 조사에서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설정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자료를 행정구역에 따라 3개 층(7대 시, 기타 시의 동, 읍·면)으로 층화하고, 조사구의 주된 주택형태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주택유형에 따른 분류로는 (1) 단독주택 조사구, (2) 아파트 조사구, (3)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조사구, (4) 기타조사구 등이 해당된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거나 군에서 시로 편입된 읍면의 조사구는 신 행정구역에 따라 층번호를 수정하였다(표 2-1 참조).

〈표 2-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층화 결과

(단위: 개, 가구, 명, %)

층	조사구수 ¹⁾	가구수	인구수 ²⁾ (20-44세)
(1) 7대 시	111,560(46.9)	6,716,532(47.1)	9,678,680(49.2)
(2) 기타 시의 동	81,916(34.5)	4,980,342(34.9)	7,081,962(36.0)
(3) 읍·면	44,206(16.8)	2,563,229(18.0)	2,905,436(14.8)
전체	237,682(100.0)	14,260,103(100.0)	19,666,078(100.0)

주: 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수.

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0~44세 인구규모.

3) ()의 수치는 구성비(%)임.

나. 층별 가구수 및 인구수에 대한 크기의 측도 부여

표본추출 모집단에서 각 층별 조사구의 가구수와 20~44세 인구수를 5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를 조사구의 가구수와 인구수에 대한 크기의 측도(MOS; Measure of size)로 설정하였다. 총 237,682개 조사구 내 총 가구수(14,260,103가구)와 20~44세 인구수(19,666,078명)에 대하여 크기의 측도를 부여한 결과, 가구수 크기의 측도 합은 2,852,019 그리고 인구수 크기의 측도 합은 3,933,215로 각각 나타났다.

다. 일반 표본조사구 추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 206개 표본조사구를 가구수 크기의 측도함에 비례하여 층별로 배분한 제1안과 가임여성수 크기의 측도함에 따라 층별로 배분한 제2안을 검토한 결과, 조사구수 배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개 안에 의하여 배분한 표본조사구수를 평균하여 층별 표본조사구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가구수와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7대 시에 92개, 기타 시의 동에 69개, 읍·면에 45개 조사구가 각각 배분되었다. 층별 표본조사구는 조사구의 주된 주택형태와 행정구역 순으로 정렬한 후 가임여성 크기의 측도에 확률비례하여 계통추출하였다(표 2-2 참조).

〈표 2-2〉 층별 표본조사구수 배분 내역

(단위: 가구, 명, 개, %)

총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수 배분		
	가구수 크기의 측도	인구수 크기의 측도	1안1)	2안2)	최종
(1) 7대 시	1,343,306(47.1)	1,935,736(49.2)	88	94	92
(2) 기타 시의 동	996,068(34.9)	1,416,392(36.0)	66	71	69
(3) 읍·면	512,645(18.0)	581,087(14.8)	52	41	45
계	2,852,019(100.0)	3,933,215(100.0)	206	206	206

- 주: 1) 가구수 크기의 측도에 의한 표본배분.
 2) 인구수 크기의 측도에 의한 표본배분.
 3) ()의 수치는 구성비(%)임.

3. 표본조사구 추출결과 및 조사규모

이와 같이 206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결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에 속한 가구수는 총 12,572가구로 나타났다. 표본조사구 안에서의 조사대상 가구는 거처번호 순으로 55가구 이상에 도달하는 거처까지를 조사대상가구로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총 11,330가구 이상이 조사되도록 하였다(표 2-3 참조).

〈표 2-3〉 표본조사구 추출결과 층별 내용

(단위: 가구, 개)

총	모집단 조사구수	표본 조사구		표본조사구 추출확률
		조사구수	가구수	
(1) 7대 시	111,560	92	5,703	1/1,212
(2) 기타 시의 동	81,916	69	4,144	1/1,187
(3) 읍·면	44,206	45	2,725	1/ 982
계	237,682	206	12,572	1/1,134

제2절 조사결과 및 자료처리

1. 조사결과

206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원이 방문한 가구 수는 11,943가구이며, 이 중 10,211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가구조사완료율은 85.5%이다(표 2-4 참조). 가구조사에서 나타난 20~44세 기혼자 수는 4,217명이며, 이 중 3,585명 기혼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기혼자조사 완료율은 85.0%이다(표 2-5 참조). 가구조사에서 나타난 20~44세 미혼자 4,046명 중 3,314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미혼자 조사완료율은 81.9%이다(표 2-6 참조).

〈표 2-4〉 가구조사결과 가구수

(단위: 개, 가구, %)

총	조사구 수	방문 가구수			
		대상가구수	조사완료	조사미완	조사완료율
인구주택총조사					
(1) 7대 시	92	5,418	4,652	766	85.9%
(2) 기타 시의 동	69	3,937	3,401	538	86.4%
(3) 읍·면	45	2,589	2,158	431	83.4%
계	206	11,943	10,211	1,732	85.5%

〈표 2-5〉 기혼자조사결과 기혼조사자수

(단위: 가구, 명, %)

총	가구조사 완료가구수	기혼자수(명)			
		대상자수	조사완료	조사미완	조사완료율
인구주택총조사					
(1) 7대 시	4,652	1,971	1,794	177	91.0
(2) 기타 시의 동	3,401	1,508	1,176	332	78.0
(3) 읍·면	2,158	738	615	123	83.3
계	10,211	4,217	3,585	632	85.0

〈표 2-6〉 미혼자조사결과 미혼자수

(단위: 가구, 명, %)

총	가구조사 완료가구수	미혼자수(명)			
		대상자수	조사완료	조사미완	조사완료율
인구주택총조사					
(1) 7대 시	4,652	2,241	1,842	399	82.2
(2) 기타 시의 동	3,401	1,326	1,129	197	85.1
(3) 읍·면	2,158	479	343	136	71.6
계	10,211	4,046	3,314	732	81.9

2. 추정방법

이 조사 결과에 의한 각종 통계치는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이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이다. 여기서 조사 결과를 그대로 합산한 단순표본합계치(simple sample total)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각 조사 구역이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고 미방문가구율 및 조사미완율이 조사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기혼자조사와 미혼자조사의 경우도 조사미완율이 조사구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추가로 고려되었다. 결과적으로 가구조사 결과의 가구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전체 조사완료가구수와 일치되도록 하였고, 기혼자조사와 미혼자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완료자수와 가중표본합계치가 일치하도록 하였다.

가. 가구조사 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가구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성 Y 를 갖는 가구수 및 인구수에 대한 가중

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 가구 총수 추정용 승수 산출

$$M_{hi} = \frac{G_h}{n_h G_{hi}} \frac{A_{hi}}{A_{hi}'} \frac{A_{hi}'}{B_{hi}} = \frac{G_h}{n_h G_{hi}} \frac{A_{hi}}{B_{hi}} \quad (1)$$

이 공식에서

M_{hi} = 가구 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dots, 6$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조사구수

G = 가구수 크기의 측도

A = 조사결과 조사구내 총가구수(미방문가구수 포함)

A' = 방문가구수

B = 조사완료 가구수

② 공식 (1)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가구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가구수를 추정

$$\widehat{B} = \sum_h \sum_i M_{hi} B_{hi} \quad (2)$$

③ 조사완료가구수를 집계

$$B = \sum_h \sum_i B_{hi} \quad (3)$$

④ 공식 (2)의 총가구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가구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기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

$$W_{hi} = M_{hi} \left(\frac{B_{hi}}{\widehat{B}_{hi}} \right) \quad (4)$$

⑤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가구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기중표본합계치 산출

$$\widehat{Y} = \sum_h \sum_i W_{hi} Y_{hi} \quad (5)$$

이 공식에서 \widehat{Y} = 어떤 특성 Y 를 갖는 가구수(인구수)의 가중표본합계
 Y = 어떤 특성 Y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가구수(인구수)

나. 기혼자조사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기혼자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성 X 를 갖는 기혼자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기혼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⑥ 기혼자 총수 추정용 승수는 가구 총수 추정 승수(M_{hi})에 기혼자조사의 무응답을 반영

$$mM_{hi} = M_{hi} \frac{C'_{hi}}{C_{hi}} \quad (6)$$

mM_{hi} = 기혼자수 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3$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C' = 조사결과 총 기혼자수(미조사 기혼자수 포함)

C = 조사완료 기혼자수

- ⑦ 공식 (6)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기혼자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 기혼자수를 추정

$$\widehat{C} = \sum_h \sum_i mM_{hi} C_{hi} \quad (7)$$

- ⑧ 조사완료 기혼자수를 집계

$$C = \sum_h \sum_i C_{hi} \quad (8)$$

- ⑨ 공식 (7)의 총 기혼자수 추정치를 (8)의 조사완료 기혼자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6)의 기혼자 총수 추정용 승수를 기혼자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

$$mW_{hi} = mM_{hi} \left(\frac{C_{hi}}{C} \right) \quad (9)$$

- ⑩ 공식 (9)의 가중치를 조사가 완료된 기혼자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

$$\widehat{X} = \sum_h \sum_i mW_{hi} X_{hi} \quad (10)$$

공식에서 \widehat{X} = 어떤 특성 X 를 갖는 기혼자수의 가중표본합계치
 X = 어떤 특성 X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기혼자수

다. 미혼자조사결과의 가중표본합계치

미혼자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성 Z 를 갖는 미혼자수의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미혼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⑪ 미혼자 총수 추정용 승수는 가구 총수 추정 승수(M_{hi})에 미혼자조사의 무응답을 반영

$$sM_{hi} = M_{hi} \frac{D'_{hi}}{D_{hi}} \quad (11)$$

sM_{hi} = 미혼자 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dots, 6$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D' = 조사 가구내 미혼자수(미조사 미혼자수 포함)

D = 조사완료 미혼자수

- ⑫ 공식 (11)의 승수를 조사구별 조사완료 미혼자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의 총미혼자수를 추정

$$\widehat{D} = \sum_h \sum_i sM_{hi} D_{hi}$$

⑬ 조사완료 미혼자수를 집계

$$D = \sum_h \sum_i D_{hi} \quad (13)$$

⑭ 공식 (12)의 총 미혼자수 추정치를 (13)의 조사완료 미혼자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1)의 미혼자수 총수 추정용 승수를 미혼자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

$$sW_{hi} = sM_{hi} \left(\frac{D_{hi}}{\widehat{D}} \right) \quad (14)$$

⑮ 공식 (14)의 가중치를 조사가 완료된 미혼자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본합계치를 산출

$$\widehat{Z} = \sum_h \sum_i sW_{hi} Z_{hi} \quad (15)$$

공식에서 \widehat{Z} = 어떤 특성 Z 를 갖는 미혼자수의 가중표본합계치
 Z = 어떤 특성 Z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미혼자수

제3장 조사가구 및 응답자의 일반특성

제1 절 조사가구의 특성

1. 가구규모

본 조사는 가구조사, 기혼여성(만 20~44세)조사 및 미혼남녀(만 20~44세)조사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에서 추출된 206개 표본조사구 내 10,21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가 실시된 후, 가구 내 기혼여성이 거주할 경우에는 기혼조사가 그리고 미혼남녀가 거주할 경우에는 미혼조사가 각각 실시되었다. <표 3-1>에는 이들 조사가구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가구 중 기혼여성만 조사된 가구는 3,833가구(37.5%) 그리고 미혼남녀만 조사된 가구는 2,854가구(28.0%)이다. 기혼여성과 미혼남녀 모두 조사된 가구는 369가구(3.6%)이며, 조사대상이 없는 가구는 3,156가구(30.9%)이다. 가구원수별로는 4인인 경우가 32.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인(23.7%), 3인(22.4%), 1인(14.1%), 5인 이상(7.7%) 순으로 비중이 크다. 가구 당 평균 가구원수는 2.97명이다.

기혼여성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규모는 4인이 절반정도(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3인(27.3%), 5인 이상(11.9%) 등의 순이다(평균 가구원수 3.63명). 미혼자만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 규모는 4인(32.8%), 3인(31.3%), 1인(17.5%), 2인(12.2%) 등의 순으로, 소규모 가구 비중이 커 평균 가구원수도 2.99명으로 비교적 적다. 기혼 여성과 미혼자가 동시 조사

된 가구의 경우에는 4인(52.6%), 5인이상(27.1%), 3인(14.6%) 등으로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구규모가 크다(평균 가구원수 4.15명).

〈표 3-1〉 조사가구 유형별 가구원 규모

(단위 : %, 가구, 명)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계 (가구)	평균 가구원수
전체	14.1	23.7	22.4	32.2	7.7	100.0 (10,211)	2.97
기혼여성만 거주 가구	1.0	10.6	27.3	49.2	11.9	100.0 (3,833)	3.63
미혼자만 거주 가구	17.5	12.2	31.3	32.8	6.1	100.0 (2,854)	2.99
기혼여성, 미혼자 거주가구	0.3	5.4	14.6	52.6	27.1	100.0 (369)	4.15
조사대상자가 없는 가구	28.5	52.0	9.3	8.6	1.6	100.0 (3,156)	2.03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조사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가. 가구의 일반특성

조사가구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표 3-2), 우선 조사가구 중 81.7%는 동부 그리고 18.3%는 읍·면부에 분포되어 있다. 가구원 규모는 동부 지역의 경우 3~4인가구가 그리고 읍·면부에서는 1~2인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읍·면부에서 소규모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노인가구(단독, 부부 등) 등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동부 3.05명, 읍·면부 2.64명으로 동부지역이 다소 많다.

조사가구의 주택종류로는 아파트가 3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단독주택 35.5%, 다세대주택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주택종류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전국 분포와 유사하나 읍면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60%정도로 많다.

조사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63.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세 25.7%, 월세 9.8%, 기타 1.4% 순이다. 동부지역의 주택점유형태는 전국 분포와 유사한 반면, 읍·면부의 경우에는 자가 비중이 76.2%로 높다.

현재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실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8.5%이며, 무주택자는 81.5%이다. 자기집 소유 비율은 동부 지역(19.2%)이 읍·면부 지역(12.8%)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조사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2009년 2/4분기)대비 60%미만인 경우가 3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80%미만(19.9%), 80~100%(16.7%), 120~140%(11.2%), 100~120%(7.9%), 140~160%(6.1%), 160%이상(5.1%) 등의 순이다. 지역별 분포는 동부지역의 경우, 전국 분포와 유사하나 읍면부의 경우에는 60%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54.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 조사가구의 일반특성

(단위: %, 명)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가구수)	100.0(10,211)	100.0(8,343)	100.0(1,868)
가구원수			
1명	14.1	12.3	22.2
2명	23.7	21.8	31.9
3명	22.4	23.8	16.2
4명	32.2	34.5	21.7
5명 이상	7.7	7.6	8.1
평균가구원수(명)	2.97	3.05	2.64
주택 종류			
단독주택	35.5	30.2	59.3
아파트	39.7	41.4	31.9
원룸	1.8	2.0	0.9
연립주택	9.2	10.9	1.6
다세대 주택	11.6	13.7	2.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	1.2	3.9
오피스텔	0.3	0.3	-
관자집, 비닐하우스, 움막	0.0	0.0	0.1
기타	0.3	0.3	0.2
주택 점유 형태			
자가	63.1	60.1	76.2
전세	25.7	28.6	12.7
월세	9.8	10.0	8.9
기타	1.4	1.2	2.2
자기집(가족소유포함) 여부 ¹⁾			
있다	18.5	19.2	12.8
없다	81.5	80.8	87.2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주택점유형태가 전세, 월세, 기타인 응답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표 3-2〉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월 평균 가구소득수준 ²⁾			
60% 미만	33.0	28.3	54.1
60~80% 미만	19.9	19.6	21.6
80~100% 미만	16.7	17.8	11.9
100~120% 미만	7.9	9.0	3.1
120~140% 미만	11.2	12.6	4.9
140~160% 미만	6.1	7.0	2.4
160%이상	5.1	5.8	2.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나. 조사가구 가구주의 일반특성

조사가구 가구주의 일반특성은 <표 3-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가구주의 83.0%가 남성이며, 여성은 17.0%에 불과하다. 동부지역 가구주의 성별 분포는 전체와 유사하나, 읍·면부 지역의 경우 전국에 비해 여성 가구주의 비율(남성 가구주 78.7%, 여성 가구주 21.3%)이 높다. 가구주 연령은 45세 이상이 60.3%로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동부에 비해 읍·면부에서 고연령층 가구주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전체 가구주 중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5.9%이며, 다음으로 사별 11.7%, 미혼 7.2%, 이혼(별거) 5.2% 순으로 나타난다. 동부지역의 혼인상태는 전국과 유사하나, 읍·면부 지역에서는 사별 가구주의 비중이 21.1%로 전국보다 다소 높다.

가구주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4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졸 30.6%, 중졸이하 26.4%, 대학원졸 이상 2.0% 순으로 나타난다. 대졸이상의 고학력 비중은 동부지역의 경우 35.9%로 읍·면부 지역의 18.2%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가구주 중 76.4%는 취업 중에 있으며, 23.6%는 비취업 상태에 있다. 읍·면부의 비취업자 비율이 동부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다.

〈표 3-3〉 조사가구 가구주의 일반 특성

(단위: %, 가구)

구분	전국	동부	읍·면부
전체(가구수)	100.0(10,205)	100.0(8,337)	100.0(1,868)
성별			
남자	83.0	84.0	78.7
여자	17.0	16.0	21.3
연령			
20세미만	0.1	0.1	0.1
20~24세	1.5	1.7	0.5
25~29세	3.9	4.3	1.9
30~34세	8.0	8.3	6.5
35~39세	12.4	12.9	10.5
40~44세	13.8	14.6	10.3
45세 이상	60.3	58.1	70.2
혼인상태			
미혼	7.2	8.0	3.7
유배우	75.9	77.2	70.0
이혼·별거	5.2	5.2	5.2
사별	11.7	9.6	21.1
교육정도			
중졸 이하	26.4	21.5	48.3
고졸	40.9	42.6	33.5
대졸	30.6	33.5	17.7
대학원졸 이상	2.0	2.4	0.5
취업여부			
취업	76.4	77.7	70.7
비취업	23.6	22.3	29.3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조사응답자의 특성

1. 조사대상 미혼남녀의 특성

조사대상 미혼남녀(만 20~44세)의 일반특성은 <표 3-4>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88.8%는 동부에 거주하며, 11.2%는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91.5%가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미혼남녀 모두 도시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사대상 미혼남녀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미혼남성은 20~24세 38.5%, 25~29세 32.5%, 30~34세 16.7%, 35~39세 7.9%, 40~44세 4.3%로 저연령층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미혼여성도 20대가 82.4%(20~24세 49.4%, 25~29세 3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0~34세 10.0%, 35~39세 5.4%, 40~44세 2.1%로 나타난다.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은 4년제 재학·중퇴·휴학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23.5%), 4년제 대학 졸업(22.5%), 전문대학 졸업(15.0%) 등의 순이다. 미혼여성은 4년제 대학 졸업이 2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년제 재학·중퇴·휴학(25.1%), 전문대학 졸업(18.0%), 고등학교 졸업(17.5%) 등의 순이다. 즉,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이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미혼남녀(20~44세)의 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50.6%는 취업 중이며, 49.4%는 비취업 상태이다. 비취업 미혼남성 중 31.6%는 학생이다. 미혼여성의 54.8%가 취업 중으로, 미혼남성에 비해 취업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미혼여성 중 45.2%는 비취업 상태이고, 이 중 30.5%는 학생, 14.8%는 기타 비취업 상태이다.

〈표 3-4〉 조사대상 미혼자(20~44세)의 일반 특성

구분	(단위: %, 명)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명)	100.0(3,314)	100.0(1,734)	100.0(1,580)
거주지			
동부	90.1	88.8	91.5
읍·면부	9.9	11.2	8.5
연령			
20~24세	43.7	38.5	49.4
25~29세	32.8	32.5	33.1
30~34세	13.5	16.7	10.0
35~39세	6.7	7.9	5.4
40~44세	3.2	4.3	2.0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4〉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교육수준			
중졸이하	1.1	1.4	0.8
고등학교			
재학·중퇴·휴학	0.4	0.6	0.1
졸업	20.7	23.5	17.6
4년제 미만 대학교			
재학·중퇴·휴학	7.2	7.1	7.4
졸업	16.4	15.0	18.0
4년제 대학교			
재학·중퇴·휴학	26.5	27.8	25.1
졸업	25.5	22.5	28.7
대학원			
재학·중퇴·휴학	1.0	1.0	1.1
졸업	1.1	1.1	1.1
취업여부			
취업	52.6	50.6	54.7
비취업	47.4	49.4	45.2
학생 ¹⁾	31.1	31.6	30.5
기타	16.4	17.8	14.8
계(명)	100.0(3,300)	100.0(1,723)	100.0(1,576)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학생은 재학, 휴학생만 해당됨.

현재 취업 중인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은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 미혼남성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34.1%), 서비스·판매직(31.0%), 고위관리직·(준)전문직(21.6%), 생산·단순노무직등(13.3%)의 순이다. 취업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50.5%)가 사무직에 종사 중이며,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28.9%), 고위관리직·(준)전문직(15.4%), 생산·단순노무직등(5.2%) 순으로 종사 비율이 높다.

취업 미혼남녀의 직장형태를 살펴보면, 미혼남성 중 88.7% 그리고 미혼여성 중 84.4%가 일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공섹터, 정부기관, 기타 등의 종사 비율은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직장규모를 살펴보면,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미혼남성(37.9%)에 비해 미혼여성(40.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미혼남녀 공히 상용직(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미혼

남성(66.9%)에 비해 미혼여성(75.4%)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미혼남성이 23.6%로 미혼여성 1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주당 근로시간별로는 45~61시간미만 비중이 가장 높는데(미혼남성 57.2%, 미혼여성 52.1%), 특히 6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비율은 미혼여성(3.3%)에 비해 미혼남성(5.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미혼남성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00만원이상이 4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50~200만원미만 29.9%, 100~150만원미만 23.7%, 100만원미만 6.1% 순이다. 미혼여성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200만원이상 33.3%, 150~200만원미만 30.0%, 100~150만원미만 28.0%, 100만원미만 8.7% 순으로 나타난다.

〈표 3-5〉 조사대상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적 특성

구분	(단위: %, 명)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직종			
고위관리·(준)전문직 ¹⁾	18.5	21.6	15.4
사무직	42.3	34.1	50.5
서비스·판매직	29.9	31.0	28.9
농업·생산·단순노무직 등	9.3	13.3	5.2
직장형태			
일반 회사	86.6	88.7	84.4
공공섹터 ²⁾	5.6	5.0	6.2
정부기관(공무원, 군인포함)	2.3	1.9	2.8
기타	5.5	4.5	6.6
직장 규모			
10인미만	39.2	37.9	40.6
10~50인	35.4	35.7	35.1
50~300인	18.9	18.5	19.3
300인이상	6.5	8.0	5.0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6.9	8.8	5.1
무급가족종사자	1.0	0.8	1.2
상용근로자	71.2	66.9	75.4
임시근로자	17.5	18.8	16.2
일용근로자	3.5	4.8	2.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고위관리직·(준)전문직에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군인 등이 해당됨.
- 2) 공공섹터에는 정부 투자기관·정부 출현기관·정부제투자기관, 국·공립 및 사립학교 등이 해당됨.

〈표 3-5〉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주당 근로시간			
36시간미만	8.5	7.8	9.3
36~45시간	32.5	29.7	35.2
45~61시간	54.7	57.2	52.1
61시간이상	4.4	5.3	3.3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100만원미만	7.3	6.1	8.7
100~150만원	25.8	23.7	28.0
150~200만원	30.0	29.9	30.0
200만원이상	36.8	40.3	33.3
계(명)	100.0(1,736)	100.0(873)	100.0(863)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조사당시 기준으로 취업 경험이 있는 미혼남녀(20~44세)의 최근 5회의 이직횟수와 총 취업기간은 <표 3-6>에 제시하였다. 1회이상 이직경험이 있는 비율은 미혼남성 37.4%, 미혼여성 34.6%로 미혼여성보다 미혼남성의 이직경험이 더 많다. 현재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5회 취업기간을 살펴보면, 5년이상이 33.3%로 가장 많고, 1~3년미만 29.5%, 3~5년미만 21.7%, 1년미만 15.5%순이다. 미혼남녀 모두 취업기간이 5년 이상, 1~3년미만, 3~5년미만, 1년미만 순으로 나타난다.

〈표 3-6〉 조사대상 미혼남녀(20~44세)의 취업경력(최근 5회까지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단위: %, 명)

구분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이직회수			
0회	64.0	62.6	65.4
1회	22.9	24.3	21.3
2회	8.2	7.8	8.6
3회 이상	5.0	5.3	4.7
취업기간			
1년미만	15.5	17.4	13.6
1~3년미만	29.5	27.6	31.4
3~5년미만	21.7	21.9	21.5
5년이상	33.3	33.1	33.6
계(명)	100.0(2,016)	100.0(1,031)	100.0(985)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특성

조사대상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은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혼여성의 85.9%는 동부, 14.1%는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다.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으로는 고졸이 5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졸(41.3%), 중졸이하(3.1%), 대학원졸업 이상(1.2%) 순이다. 아직 교육이 진행 중인 20세 초반을 제외하면 저연령층일수록 고학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로는 재혼을 포함한 유배우 비중이 94.1%로 가장 높고, 이혼·별거·사별 등인 상태는 5.9%로 나타난다. 이혼·별거·사별의 비중은 고연령층 기혼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출생이수별로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인의 비율이 5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명(26.6%), 3명이상(10.0%), 무자녀(9.0%) 등의 순이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비율은 고연령층일수록 높아진다.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대비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100~150%미만인 경우가 2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80%미만(24.5%), 80~100%미만(22.0%), 60%미만(13.7%), 150%이상(12.6%) 등의 순이다. 이들 기혼여성의 연령과 가구소득수준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형태는 남편1인소득가구가 58.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맞벌이가구는 38.2%로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높고, 부인1인소득가구의 비중도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3-7> 조사대상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기혼여성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거주지						
동부	85.9	82.9	85.9	83.8	84.6	88.6
읍·면부	14.1	17.1	14.1	16.2	15.4	11.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3-7〉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체	기혼여성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교육수준						
중졸이하	3.1	24.4	2.1	1.3	2.1	5.0
고졸	54.3	56.1	41.1	42.6	54.7	66.4
대졸	41.3	19.5	55.4	54.1	41.9	27.9
대학원졸 이상	1.2	-	1.3	2.1	1.3	0.7
혼인상태						
유배우	94.1	95.0	96.8	97.1	95.4	89.9
사별	1.1	-	0.3	0.2	0.6	2.5
이혼	3.4	2.5	1.3	1.7	2.6	6.1
별거	1.4	2.5	1.6	1.0	1.5	1.5
출산자녀 수						
0명	9.0	30.0	30.8	12.6	4.6	3.2
1명	26.6	57.5	41.4	35.4	19.9	21.2
2명	54.3	12.5	23.3	43.2	63.7	64.2
3명 이상	10.0	-	4.5	8.8	11.8	11.3
월 평균 가구소득수준 ¹⁾						
60% 미만	13.7	30.0	19.9	13.3	12.3	12.8
60~80%	24.5	40.0	29.7	33.0	22.8	18.0
80~100%	22.0	22.5	19.9	21.6	23.8	21.0
100~150%	27.2	5.0	21.0	22.8	26.9	33.4
150% 이상	12.6	2.5	9.5	9.3	14.2	14.7
가구소득원형태 ²⁾						
맞벌이가구	38.2	21.1	35.2	30.3	35.6	48.5
남편만1인소득가구	58.6	76.3	62.0	67.0	60.8	48.1
부인1인소득가구	1.4	-	0.8	0.7	2.0	1.5
부부 실업 가구	1.8	2.6	1.9	2.0	1.7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585)	(40)	(377)	(826)	(1,171)	(1,17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2) 이혼·별거·사별 제외함.

조사대상 기혼여성(20~44세)의 41.9%는 취업 중이며, 고연령층일수록 취업 비중이 높다.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표 3-8), 우선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5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29.8%), 생산·단순노무직 등(8.8%), 고위관리·(준)전문직(8.3%) 순이다. 2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고연령층일수록 서비스·판매직 비중이 높고, 저연령층일수록 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높다.

취업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51.6%), 고용주·자영업자(19.8%), 임시근로자(18.3%), 일용근로자(6.5%), 무급가족종사자(3.8%)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이들의 연령이 고연령일수록 상용근로자 비중은 낮고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 45~61시간미만을 근무하고 있는 비중이 43.3%로 가장 많고, 61시간 이상의 장시간 일을 하고 있는 비중은 6.3%이다. 이들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단시간(주당 36시간미만)과 장시간(주당 61시간이상) 근로 비중 모두 높게 나타난다.

취업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은 100~150만원미만인 경우가 32.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만원이상(26.4%), 150~200만원미만(21.3%), 100만원미만(19.6%) 순이다. 이들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이 100만원이하인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취업 기혼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직장 형태는 일반회사가 85.0%로 가장 많다. 저연령층일수록 정부기관 소속 비중이 높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10인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비율은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표 3-8〉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기혼여성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취업여부						
취업	41.9	24.4	36.6	32.1	39.4	53.6
비취업	58.1	75.6	63.4	67.9	60.6	46.4
직종						
고위관리·(준)전문직	8.3	-	9.7	10.6	9.0	6.8
사무직	29.8	22.2	51.5	46.4	29.9	18.0
서비스·판매직	53.2	66.7	37.3	38.8	49.8	65.0
생산·단순노무직 등	8.8	11.1	1.5	4.2	11.4	10.3

〈표 3-8〉 계속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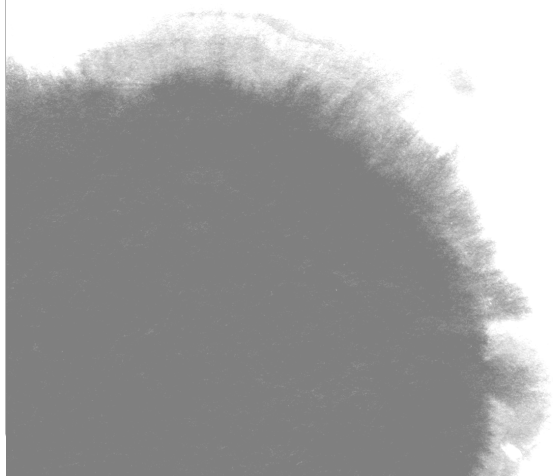
구분	전체	기혼여성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19.8	10.0	5.2	15.6	21.6	23.5
무급가족종사자	3.8	10.0	1.5	2.3	3.9	4.7
상용근로자	51.6	50.0	77.6	65.0	50.7	41.2
임시근로자	18.3	30.0	12.7	14.4	16.2	22.5
일용근로자	6.5	-	3.0	2.7	7.6	8.2
주당 근로 시간						
36시간 미만	13.1	10.0	10.4	11.3	13.9	13.9
36~45시간	37.6	40.0	54.5	38.9	37.8	33.1
45~61시간	43.0	40.0	34.3	45.1	41.6	45.1
61시간 이상	6.3	10.0	0.7	4.7	6.6	7.9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19.6	33.3	14.7	12.7	22.5	21.3
100~150만원	32.7	44.4	31.8	29.8	29.8	36.1
150~200만원	21.3	22.2	35.7	28.6	18.1	17.4
200만원 이상	26.4	-	17.8	29.0	29.6	25.2
직장형태						
일반회사	85.0	90.0	83.6	84.8	83.8	86.4
공공섹터 ¹⁾	5.8	-	6.7	5.9	6.3	5.3
정부기관	2.6	-	5.2	3.1	3.4	1.1
기타	6.6	10.0	4.5	6.3	6.5	7.2
직장규모						
10인 미만	53.9	77.8	37.3	44.3	55.1	60.5
10~50인	28.5	11.1	32.8	32.8	27.1	27.2
50~300인	12.7	-	19.4	15.3	15.0	8.6
300인 이상	4.9	11.1	10.4	7.6	2.9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502)	(10)	(138)	(265)	(461)	(628)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1) 공공섹터는 정부 투자기관·정부 출연기관·정부재투자기관, 국·공립 및 사립학교를 포함함.

2부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제4장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독립 실태

제1 절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공간적 독립 실태

1. 미혼남녀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와 동거여부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당시 미혼남성의 80.0%와 미혼여성의 81.1%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다. 환언하면, 미혼남녀의 약 20%가 부모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미혼남녀의 비율은 농어촌보다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혼남녀들이 학업이나 직업 등으로 인하여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미혼남녀 공히 고연령층일수록 부모와 비동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 미혼자일수록 학업 및 직업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자신의 경제력이 증가하여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미혼남녀 공히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고학력층일수록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혼남녀 모두 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비취업(특히 학생)시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일수록 이동요인(전근, 파견 등)이 많아지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력이 높아 부모와의 물리적(공간적) 독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4-1〉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와 동거 여부

(단위: %, 명)

	동거	비동거	전체(계)	χ^2
미혼남성	80.0	20.0	100.0(1,734)	
거주지				
동부	79.3	20.7	100.0(1,539)	4.2*
읍면부	85.6	14.4	100.0(194)	
연령				
20~24세	87.3	12.7	100.0(668)	56.0***
25~29세	78.9	21.1	100.0(563)	
30~34세	77.2	22.8	100.0(290)	
35~44세	64.5	35.5	100.0(211)	
교육수준				
중졸이하	82.4	17.6	100.0(34)	6.5*
고졸	82.0	18.0	100.0(1,012)	
대졸이상	77.0	23.0	100.0(688)	
취업여부				
취업	72.4	27.6	100.0(873)	62.6***
비취업	87.7	12.3	100.0(851)	
학생	88.1	11.9	100.0(544)	
기타	87.0	13.0	100.0(307)	
미혼여성	81.1	18.9	100.0(1,580)	
거주지				
동부	80.7	19.3	100.0(1,447)	1.5
읍면부	85.1	14.9	100.0(134)	
연령				
20~24세	89.0	11.0	100.0(781)	119.9***
25~29세	80.7	19.3	100.0(524)	
30~34세	58.5	41.5	100.0(159)	
35~44세	59.7	40.3	100.0(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86.7	13.3	100.0(15)	10.0**
고졸	84.1	15.9	100.0(791)	
대졸이상	77.9	22.1	100.0(774)	
취업여부				
취업	74.9	25.1	100.0(862)	45.8***
비취업	88.4	11.6	100.0(714)	
학생	89.6	10.4	100.0(480)	
기타	85.5	14.5	100.0(23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남녀의 부모와의 비동거기간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그 시기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미혼남성의 경우, 그 시기는 20~24세 34.2%, 25~29세 26.4%, 30세 이상 22.7%, 20세 미만 16.7% 등 평균 25.3세로 대체적으로 20대(특히 20대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미혼여성의 부모와 비동거 시기는 20~24세 35.5%, 25~29세 30.8%, 20세 미만 19.4%, 30세 이상 14.3% 등 평균 24.1세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비동거 시기는 미혼남성과 유사하게 2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이점으로는 30세 이상보다 20세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부모와 비동거 시기가 20대 전반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미혼남녀 공히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인하여 이동이 가장 심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혼남녀 간에 비교를 해보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는 미혼여성의 독립 시기가 미혼남성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입대를 경험하지 않은 미혼여성의 경우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보다 이른 나이에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혼남녀의 거주지별 부모와의 비동거 시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연령 및 취업여부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남녀 공히 저연령 층일수록, 비취업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부모와의 비동거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종의 센서효과(censor effect)로 볼 수 있는데, 모든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현재 대학 재학생들이 주로 미혼층에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력별 차이는 미혼남성에게서만 나타나며, 저학력층(고졸)일수록 독립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 중인 미혼남녀의 경제적 특성별(직종, 종사상 지위 등) 부모와의 비동거 시기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4-2〉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와의 비동거 시기

(단위: %, 명)

	19세이하	20~24세	25~29세	30세이상	전체 (계)	χ^2	평균나이
미혼남성	16.7	34.2	26.4	22.7	100.0 (330)		25.3
거주지							
동부	15.8	36.3	26.1	21.8	100.0 (293)	7.7	25.2
읍면부	25.9	11.1	29.6	33.3	100.0 (24)		26.1
연령							
20~24세	39.5	56.8	3.7	-	100.0 (81)	262.4 ***	20.2
25~29세	11.2	46.6	42.2	-	100.0 (116)		23.5
30~34세	10.0	11.7	46.7	31.7	100.0 (60)		26.9
35~44세	5.6	6.9	9.7	77.8	100.0 (72)		32.5
교육수준							
중졸이하	-	25.0	25.0	50.0	100.0 (4)	36.1 ***	31.7
고졸	23.2	42.4	15.3	19.2	100.0 (177)		24.1
대졸이상	10.0	25.3	38.7	26.0	100.0 (150)		26.5
취업여부							
취업	10.5	29.8	30.7	28.9	100.0 (228)	38.8 ***	26.7
비취업	30.4	44.1	16.7	8.8	100.0 (102)		22.1
학생	36.9	52.3	9.2	1.5	100.0 (60)		20.5
기타	18.9	29.7	29.7	21.6	100.0 (36)		24.7
미혼여성	19.4	35.5	30.8	14.3	100.0 (279)		24.1
거주지							
동부	18.8	34.5	31.8	14.9	100.0 (259)	4.9	24.3
읍면부	31.3	50.0	12.5	6.3	100.0 (16)		21.5
연령							
20~24세	38.8	60.0	1.3	-	100.0 (80)	198.7 ***	20.1
25~29세	22.9	33.3	43.8	-	100.0 (96)		22.9
30~34세	-	20.7	58.6	20.7	100.0 (58)		26.8
35~44세	4.4	13.3	20.0	62.2	100.0 (45)		30.6
교육수준							
중졸이하	-	100.0	-	-	100.0 (1)	12.2	21.5
고졸	26.7	38.3	24.2	10.8	100.0 (120)		22.9
대졸이상	14.6	32.9	35.4	17.1	100.0 (158)		25.0
취업여부							
취업	15.2	31.4	36.3	17.2	100.0 (204)	21.9 ***	24.9
비취업	30.7	46.7	16.0	6.7	100.0 (75)		21.9
학생	41.3	54.3	4.3	-	100.0 (46)		20.2
기타	13.3	36.7	33.3	16.7	100.0 (29)		24.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실태

1.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정도

미혼남녀(20~44세)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 정도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비율은 39.9%, 일부를 받고 있는 비율은 20.9%(50%이상 9.5%, 50%미만 11.4%),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은 비율은 39.2%로 각각 나타났다. 미혼여성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정도는 미혼남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여성 중 39.5%는 전적으로, 22.0%는 일부를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38.4%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거주지별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거주 미혼남성들이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공히 고연령층일수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남녀의 교육수준별이나 취업여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비해 보다 안정적 직장 근무, 근로소득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이 더 수월했을 것이다.

〈표 4-3〉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정도

(단위: %, 명)

	전적으로 도움 받음	일부(50%이상) 도움 받음	일부(50%미만) 도움 받음	전혀 도움받지 않음	전체 (계)	χ^2
미혼남성	39.9	9.5	11.4	39.2	100.0 (1,713)	
거주지						
동부	41.1	9.1	10.8	39.0	100.0 (1,522)	12.3 **
읍면부	30.2	12.5	16.7	40.6	100.0 (192)	
연령						
20~24세	65.0	10.2	7.8	17.0	100.0 (657)	372.7 ***
25~29세	29.7	11.3	16.1	42.8	100.0 (558)	
30~34세	18.8	8.4	11.5	61.3	100.0 (287)	
35~44세	17.0	3.8	10.8	68.4	100.0 (212)	
교육수준						
중졸이하	38.2	5.9	8.8	47.1	100.0 (34)	167.2 ***
고졸	51.8	10.1	9.5	28.5	100.0 (996)	
대졸이상	22.4	8.8	11.4	54.4	100.0 (682)	
취업여부						
취업	7.1	9.4	17.1	66.5	100.0 (871)	855.8 ***
비취업	73.7	9.6	5.8	10.9	100.0 (832)	
학생	77.7	9.8	5.4	7.1	100.0 (533)	
기타	66.7	9.3	6.7	17.3	100.0 (300)	
미혼여성	39.5	9.5	12.5	38.4	100.0 (1,565)	
거주지						
동부	40.1	9.1	12.4	38.4	100.0 (1,431)	4.3
읍면부	33.1	13.5	13.5	39.8	100.0 (133)	
연령						
20~24세	62.8	9.0	9.2	19.0	100.0 (769)	397.3 ***
25~29세	19.3	12.1	17.6	51.0	100.0 (522)	
30~34세	12.7	6.3	12.7	68.4	100.0 (158)	
35~44세	12.7	6.8	11.0	69.5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42.9	21.4	-	35.7	100.0 (14)	270.6 ***
고졸	59.6	7.5	8.5	24.4	100.0 (778)	
대졸이상	19.3	11.4	16.7	52.6	100.0 (772)	
취업여부						
취업	9.3	11.5	16.5	62.7	100.0 (861)	763.4 ***
비취업	76.3	7.1	7.7	8.8	100.0 (701)	
학생	86.0	5.3	5.3	3.4	100.0 (470)	
기타	57.0	10.4	12.6	20.0	100.0 (23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시기

미혼남녀(20~44세)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한 시기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녀 공히 경제적 독립시기가 20대에 집중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경제적 독립시기가 25~29세가 38.2%로 가장 높으며, 20~24세 35.9%, 30세 이상은 13.5%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시기는 20~24세가 53.6%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25~29세는 28.3%로 그리고 30세 이상은 6.9%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제적 독립시기는 평균 25.1세인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23.5세로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보다 빠르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된 이유는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에 비해 2~3세 빨라 그만큼 미혼층에 남아 있는 여성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한편,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공간적 분리(비동거)시기와 경제적 독립시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부모와의 비동거시기는 평균 25.3세인데 비해 경제적 독립시기는 평균 25.1세로 0.2세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비동거시기(24.1세)와 경제적 독립시기(23.5세) 간에 0.6세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남녀 공히 평균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먼저 발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모로부터 주거공간이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독립 이후 주거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간격은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데, 이는 미혼여성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이다.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시기는 비동거시기와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미혼남녀 공히 저연령일수록, 저학력층(고졸)일수록 그리고 비취업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센서효과(censor effect)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4-4〉 미혼남녀(20~44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 시기

(단위: %, 명)

	19세이하	20~24세	25~29세	30세이상	전체 (계)	χ^2	평균나이
미혼남성	10.4	35.9	38.2	15.5	100.0 (646)		25.1
거주지							
동부	9.6	36.3	37.9	16.1	100.0 (570)	4.2	25.2
읍면부	15.8	32.9	40.8	10.5	100.0 (76)		24.1
연령							
20~24세	28.3	66.0	5.7	-	100.0 (106)	290.3 ***	20.5
25~29세	7.0	43.0	49.6	0.4	100.0 (228)		24.2
30~34세	4.7	21.1	55.0	19.3	100.0 (171)		26.5
35~44세	8.6	20.0	24.3	47.1	100.0 (140)		28.3
교육수준							
중졸이하	18.8	25.0	43.8	12.5	100.0 (16)		25.0
고졸	15.8	46.9	23.1	14.3	100.0 (273)		23.8
대졸이상	5.9	27.7	49.6	16.8	100.0 (357)		26.1
취업여부							
취업	7.2	36.3	40.8	15.7	100.0 (559)	50.3 ***	25.5
비취업	31.8	31.8	22.4	14.1	100.0 (85)		22.7
학생	41.2	47.1	11.8	-	100.0 (34)		20.0
기타	23.5	23.5	29.4	23.5	100.0 (51)		24.4
미혼여성	11.2	53.6	28.3	6.9	100.0 (580)		23.5
거주지							
동부	10.8	53.5	28.7	7.0	100.0 (529)	1.5	23.5
읍면부	15.7	54.9	23.5	5.9	100.0 (51)		23.0
연령							
20~24세	28.3	69.6	2.2	-	100.0 (138)	207.9 ***	20.5
25~29세	7.4	55.9	36.7	-	100.0 (256)		23.5
30~34세	0.9	38.7	44.3	16.0	100.0 (106)		25.5
35~44세	8.6	38.3	24.7	28.4	100.0 (81)		26.2
교육수준							
중졸이하	20.0	40.0	20.0	20.0	100.0 (5)		25.0
고졸	22.1	53.0	20.4	4.4	100.0 (181)	38.2 ***	22.1
대졸이상	6.1	53.9	32.1	7.9	100.0 (393)		24.2
취업여부							
취업	9.9	53.5	29.0	7.6	100.0 (525)	13.7 **	23.7
비취업	24.1	53.7	22.2	-	100.0 (85)		21.7
학생	46.2	46.2	7.7	-	100.0 (13)		19.8
기타	14.6	56.1	29.3	-	100.0 (41)		2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5장 미혼남녀의 결혼 동향

제1 절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태도

1. 미혼남녀의 결혼필요성에 관한 태도

본 조사에서는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다.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 비율은 69.8%(‘반드시 해야 한다’ 23.4%, ‘하는 편이 좋다’ 46.4%)이며, 이외에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25.1%, ‘하지 않는게 낫다’ 2.4%, ‘모르겠다’ 2.8% 등이다. 미혼여성 중 63.2%(‘반드시 해야 한다’ 16.9%, ‘하는 편이 좋다’ 46.3%)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1.8%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2.8%은 ‘하지 않는게 낫다’, 2.2%는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미혼남성 23.4%와 미혼여성 16.9%로 미혼층 사이에 결혼은 더 이상 ‘의무’나 ‘숙명’으로서가 아닌 ‘선택’이라는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특히, 숙명론적인 태도가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미혼여성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2009년도 조사결과와 2005년 조사결과 간에 비교해 보면(표 5-1), 미혼남녀별로 다소 다르게 변

화하고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는 2005년 71.4%에서 2009년 69.8%로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도가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벗어난 시기였다면, 2009년도는 고유가와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불황에 따른 고용불안정 등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청년층 실업, 비정규직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혼남성의 결혼 선호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2005년 49.2%에서 2009년 63.2%로 높아져,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숙명적인 태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다만 ‘하는 편이 좋다’라는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태도의 비중이 상당 수준 높아졌다는 것이다. 요컨대, 여성의 결혼 선택에 있어 경제상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데다가 최근 저출산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표 5-1>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05년과 2009년 조사결과간 비교

(단위: %, 명)

구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계 (명)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모르겠다	
미혼 남성	2005 29.4	42.0	23.5	2.2	3.0	100.0 (1,466)
	2009 23.4	46.4	25.1	2.4	2.8	100.0 (1,732)
미혼 여성	2005 12.9	36.3	44.9	3.7	2.2	100.0 (1,205)
	2009 16.9	46.3	31.8	2.8	2.2	100.0 (1,580)

자료: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표 5-2>와 <표 5-3>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우선 거주지역별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녀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미혼남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주된 이유로는 농촌 미혼남성이 도시 미혼남성에 비해 결혼이 필요하다는 강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강하여, 도농간의 차이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즉, 농촌의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일부 고연령층 미혼남성의 경우 여성의 이혼향도 현상에 따라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도시지역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의 태도가 64.4%인데 비해, 농촌지역 미혼여성의 경우 51.5%로 상대적으로 낮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미혼여성들 사이에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이유로는 농촌의 결혼시장(marriage market)이 협소하여 선택의 폭이 좁은데다가, 농촌사회의 보다 강한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제시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고연령층일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는 20~24세 미혼남성의 경우 21.9%인데 비해 40~44세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44.3%로 두 배 이상 높다. 반대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태도는 20~24세 미혼남성의 경우 27.4%로 40~44세 미혼남성의 경우 9.4%에 비해 세 배정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강도면에서 다소 약할지라도 미혼여성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태도는 20~24세 미혼여성 30.5%, 40~44세 미혼여성 44.5%이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태도는 20~24세 미혼여성 20.8%, 40~44세 미혼여성 7.6% 등이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연령별 차이가 미혼남성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미혼여성의 경우 부정적인 결혼관이 전 연령층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반면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저연령층이 여전히 결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과 일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지 않은 편이 낫다’의 태도는 교육수준별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

도 좋다'의 태도와 '하지 않는 게 낫다'의 태도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고학력 남성은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반면, 저학력 남성은 결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강한 결혼관은 저학력층일수록, '하는 편이 낫다'라는 약한 결혼관은 고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저학력층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은 의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보다 공고한 반면, 고학력층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교육 등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구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이혼·별거 또는 재혼을 한 경험이 있는 미혼남녀는 그렇지 않은 미혼남녀에 비해 결혼 필요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가족의 이혼이나 별거 등은 자녀 등 미혼층의 결혼에 대한 기대나 매력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와의 동거여부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정도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미혼여성에게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적게 받은 미혼여성일수록 결혼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다. 이는 미혼여성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독립성이 증가하여 결혼을 연기 또는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경제활동상태는 취업과 학생을 제외한 비취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 미혼남녀 공히 취업 중인 경우 비취업상태(학생 제외)인 경우에 비해 결혼 필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 모두)의 응답비율은 취업 미혼남성 69.9%, 비취업(학생제외) 미혼남성 62.4%이며, 취업 미혼여성 62.9%, 비취업(학생제외) 미혼여성 57.7% 등이다. 취업한 미혼남녀는 경제적으로 안정됨으로써 결혼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반면, 비취업(학생 제외) 중인 미혼남녀는 능력 개발,

직장 물색, 취업 지원 등에 전념하기 때문에 또한 경제적 기반이 없는 관
 계로 결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2〉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계(명)	χ^2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 겠다		
전체	23.4	46.4	25.1	2.4	2.8	100.0 (1,732)	
거주지							
동부	23.3	46.8	25.1	2.1	2.7	100.0 (1,539)	5.6
읍·면부	24.2	43.3	24.2	4.6	3.6	100.0 (194)	
연령							
20~24세	27.4	46.2	21.9	1.6	2.8	100.0 (667)	79.7 ***
25~29세	23.8	51.1	21.5	2.1	1.4	100.0 (562)	
30~34세	23.0	44.3	25.4	3.4	3.8	100.0 (291)	
35~44세	9.4	37.3	44.3	4.2	4.7	100.0 (212)	
교육수준							
중졸이하	23.5	23.5	35.3	2.9	14.7	100.0 (34)	26.2 **
고졸	23.1	46.1	25.1	2.9	2.8	100.0 (1,011)	
대졸이상	23.6	48.0	24.5	1.7	2.2	100.0 (686)	
부모의 이혼경험							
있다	18.1	35.3	35.3	4.3	6.9	100.0 (116)	19.8 **
없다	23.8	47.1	24.3	2.3	2.4	100.0 (1,614)	
형제·자매 이혼경험							
있다	12.5	26.6	53.1	4.7	3.1	100.0 (64)	24.9 ***
없다	18.8	50.5	26.2	2.3	2.2	100.0 (778)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24.0	46.1	24.5	2.2	3.2	100.0 (1388)	7.3
비동거	20.8	47.4	27.5	3.2	1.2	100.0 (346)	
부모의 경제적 도움 정도							
전적으로 받음	25.2	46.9	23.6	1.3	3.1	100.0 (683)	20.7
50%이상 받음	31.9	41.9	19.4	3.8	3.1	100.0 (160)	
50%미만 받음	21.8	46.7	25.9	2.5	3.0	100.0 (197)	
전혀 받지않음	20.3	47.5	26.7	3.3	2.2	100.0 (671)	
취업여부							
취업	22.7	47.2	25.6	2.3	2.2	100.0 (871)	3.3
비취업	24.1	45.7	24.2	2.6	3.4	100.0 (851)	
학생	26.8	47.1	21.7	2.0	2.4	100.0 (544)	
기타	19.3	43.1	28.8	3.6	5.2	100.0 (30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3〉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계(명)	χ^2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전체	16.9	46.3	31.8	2.8	2.2	100.0 (1,579)	
거주지							
동부	17.2	47.2	31.1	2.5	2.1	100.0 (1,446)	11.7 *
읍·면부	14.2	37.3	39.6	6.0	3.0	100.0 (134)	
연령							
20~24세	20.8	45.0	30.5	1.7	2.1	100.0 (780)	96.4 *
25~29세	14.7	52.0	29.1	2.3	1.9	100.0 (525)	
30~34세	12.0	47.5	36.7	2.5	1.3	100.0 (158)	
35~44세	7.6	28.6	44.5	13.4	5.9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21.4	35.7	35.7	-	7.1	100.0 (14)	13.3
고졸	19.3	43.3	31.7	3.3	2.4	100.0 (792)	
대졸이상	14.3	49.6	31.8	2.3	1.9	100.0 (774)	
부모 이혼경험							
있다	19.4	29.0	41.1	5.6	4.8	100.0 (124)	21.1 ***
없다	16.7	47.9	30.9	2.5	2.0	100.0 (1,452)	
형제·자매 이혼경험							
있다	12.7	32.7	45.5	1.8	7.3	100.0 (55)	12.4 *
없다	13.3	51.4	30.1	2.9	2.3	100.0 (622)	
부모와 동거여부							
동거	17.4	47.0	31.1	2.0	2.4	100.0 (1,279)	17.8 **
비동거	14.4	43.8	34.4	6.0	1.3	100.0 (299)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정도							
전적으로 받음	20.0	43.2	33.3	1.3	2.3	100.0 (616)	36.4 ***
50%이상 받음	16.1	47.7	31.5	-	4.7	100.0 (149)	
50%미만 받음	14.3	52.6	29.6	2.6	1.0	100.0 (196)	
전혀 받지않음	15.3	46.8	31.1	5.1	1.7	100.0 (602)	
취업여부							
취업	15.3	47.6	31.1	3.8	2.2	100.0 (863)	11.1 *
비취업	18.8	44.8	32.5	1.5	2.4	100.0 (714)	
학생	21.3	45.3	30.3	1.3	1.9	100.0 (479)	
기타	13.7	44.0	37.2	2.1	3.0	100.0 (23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 취업 중인 미혼남녀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직종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전체와 마찬가지로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

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 않는 게 낫다’ 순이나, 직종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는 생산·단순노무직등 69.8%, 사무직 67.9%, 고위관리(준)전문직 57.7%, 서비스·판매직 56.1% 순이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의 태도만 보면, 생산·단순노무직등 23.3%, 고위관리(준)전문직 19.2%, 서비스·판매직 14.3%, 사무직 13.3% 순이다.

생산·단순노무직등 종사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데다가, 이 중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태도도 직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동 직종의 여성이 대체적으로 저소득, 고용불안정(비정규직) 등의 직업 특성으로 인하여 결혼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무직 종사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높으나, 그 중 반드시 결혼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사무직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결혼 선택을 강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 고위관리(준)전문직 종사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즉, 고위관리(준)전문직 종사 여성의 결혼관은 상대적으로 약하나, 고용 및 소득 안정성 등으로 인해 일부는 강하게 결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비스·판매직 종사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여성은 취업 욕구가 강한 반면, 고용불안정, 희망직종으로의 이직 곤란, 근로여건 열악 등으로 인해 결혼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취업 중인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종사상지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근로(사업)소득 등 경제활동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표 5-4〉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명)
미혼남성	22.7	47.2	25.6	2.3	2.2	100.0 (871)
직종($x^2=11.6$)						
고위·(준)전문직	25.9	44.9	25.4	1.1	2.7	100.0 (185)
사무직	21.6	51.5	24.1	1.7	1.0	100.0 (291)
서비스·판매직	22.6	46.4	25.3	3.4	2.3	100.0 (265)
생산·단순노무직 등	20.4	41.6	31.9	2.7	3.5	100.0 (113)
종사상 지위 ¹⁾ ($x^2=7.1$)						
비임금근로자	23.2	43.9	24.4	4.9	3.7	100.0 (82)
상용직	21.9	48.5	25.0	2.6	1.9	100.0 (575)
임시·일용직	24.3	43.6	28.7	1.0	2.5	100.0 (202)
근로(사업)소득($x^2=17.3$)						
100만원미만	30.0	30.0	36.0	2.0	2.0	100.0 (50)
100~150만원	24.6	45.6	24.6	1.0	4.1	100.0 (195)
150~200만원	24.7	47.8	24.3	1.6	1.6	100.0 (247)
200만원이상	18.4	49.8	26.3	3.3	2.1	100.0 (331)
주당 평균 근로시간($x^2=10.1$)						
36시간미만	18.5	44.6	35.4	-	1.5	100.0 (65)
36~45시간	25.3	47.0	22.5	2.8	2.4	100.0 (253)
45~61시간	22.2	48.3	24.8	2.3	2.5	100.0 (487)
61시간이상	21.7	41.3	32.6	4.3	-	100.0 (46)
미혼여성	15.3	47.6	31.1	3.8	2.2	100.0 (863)
직종($x^2=34.3^{**}$)						
고위관리·(준)전문직	19.2	38.5	30.0	7.7	4.6	100.0 (130)
사무직	13.3	54.6	29.0	2.3	0.7	100.0 (427)
서비스·판매업	14.3	41.8	36.5	4.5	2.9	100.0 (244)
생산·단순노무직 등	23.3	46.5	23.3	2.3	4.7	100.0 (43)
종사상 지위($x^2=4.7$)						
비임금근로자	15.1	47.2	28.3	3.8	5.7	100.0 (53)
상용직	15.0	47.7	31.6	3.9	1.7	100.0 (639)
임시·일용직	16.1	47.1	30.3	3.2	3.2	100.0 (155)
근로(사업)소득($x^2=10.2$)						
100만원 미만	17.1	42.9	34.3	2.9	2.9	100.0 (70)
100~150만원	19.7	44.4	30.0	3.6	2.2	100.0 (223)
150~200만원	11.7	51.0	32.6	3.8	0.8	100.0 (239)
200만원 이상	14.4	49.2	29.5	4.2	2.7	100.0 (264)
주당 평균 근로시간($x^2=12.0$)						
36시간 미만	11.5	42.3	34.6	7.7	3.8	100.0 (78)
36~45시간	15.9	48.0	29.4	3.7	3.0	100.0 (296)
45~61시간	15.9	48.3	31.2	3.2	1.4	100.0 (439)
61시간 이상	13.8	41.4	31.0	6.9	6.9	100.0 (2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2. 미혼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관한 태도

2009년 조사에서 미혼남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결혼연령은 30~31세가 4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2~34세 34.0%, 35세 이상 11.6%, 28~29세 10.5%, 27세 이하 3.1% 순으로 나타났다(표 5-6). 2009년 조사 결과는 2005년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2005년 조사에서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은 30~31세(45.3%)에 보다 집중되어 있고, 다음으로 28~29세(22.6%), 32~34세(19.3%), 27세 이하(8.4%), 35세 이상(4.3%) 순이었다. 2008년 현재 남성의 초혼연령이 31세 정도임을 감안하면, 2009년 조사에서 미혼남성의 무려 45.6%가 32세 이상을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2005년 조사에서는 23.6%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은 평균 31.8세로 2005년 조사결과 30.6세에 비해 약 1.2세 정도 높아졌다.

미혼여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결혼연령은 2009년 조사에서 30~31세 39.7%, 32~34세 36.6%, 35세 이상 12.1%, 28~29세 9.9%, 27세 이하 1.8% 순으로 나타난다. 2005년 조사에서는 30~31세 45.3%, 32~34세 31.0%, 28~29세 14.9%, 35세 이상 6.3%, 27세 이하 2.5% 순으로 나타난다. 32세 이상 비율은 2005년 37.3%에서 2009년 48.7%로 높아졌다. 즉, 미혼여성도 더 늦은 연령을 이상적인 남성결혼시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혼여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남성결혼연령은 2005년 31.3세에서 2009년 31.9세로 약 0.6세 정도 높아졌다.

〈표 5-6〉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계	평균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미혼 남성	2005	8.4	22.6	45.3	19.4	4.3	100.0 (1,460)	30.57
	2009	3.1	10.5	40.8	34.0	11.6	100.0 (1,719)	31.76
미혼 여성	2005	2.5	14.9	45.3	31.0	6.3	100.0 (1,200)	31.34
	2009	1.8	9.9	39.7	36.6	12.1	100.0 (1,573)	31.92

자료: 2005년도 조사 결과는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

미혼남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결혼연령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결혼연령은 2005년 조사에서 27세이하 58.4%, 28~29세 36.6%, 30~31세 10.1% 등인 반면, 2009년 조사에서는 28~29세 36.5%, 27세이하 29.4%, 30~31세 27.7% 등 고연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미혼남성의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 평균은 2005년 27.6세에서 2009년 28.9세로 1.3세 증가하였다.

미혼여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결혼연령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은 28~29세 36.3%, 27세이하 30.6%, 30~31세 27.0% 등인 반면, 2009년 조사에서는 28~29세 34.2%, 30~31세 34.0%, 27세이하 21.2%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의 평균은 2005년 28.9세에서 2009년 29.5세로 0.6세 증가하였다.

종합해보면, 이상적 남성결혼연령과 여성결혼연령 모두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미혼남녀 간 이상결혼연령에 대한 가치관 차이는 많이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예로 미혼남녀 간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 차이는 2005년 0.7세에서 2009년 0.1세로, 그리고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 차이는 1.3세에서 0.6세로 각각 줄어들었다. 주된 이유는 미혼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이 미혼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에 보다 근접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곤란(청년실업), 고용불안정(비정규직) 등 현실문제가 미혼남성의 결혼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남녀간 결혼연령 불균형(mismatching) 문제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라도, 만혼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 5-7〉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계(명)	평균 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미혼 남성	2005	58.4	29.9	10.1	1.2	0.5	100.0 (1,460)	27.60
	2009	29.4	36.5	27.7	5.7	0.6	100.0 (1,719)	28.94
미혼 여성	2005	30.6	36.3	27.0	5.3	0.8	100.0 (1,199)	28.94
	2009	21.2	34.2	34.0	9.0	1.7	100.0 (1,572)	29.45

자료: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은 <표 5-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거주지별 차이는 미혼남성에게서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부 미혼남성의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은 30~31세(41.2%), 32~34세(34.3%), 35세이상(11.9%), 28~29세(9.5%), 27세이하(3.1%) 순인 반면, 읍면부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30~31세(37.2%), 32~34세(31.4%), 28~29세(18.3%), 35세이상(9.4%), 27세이하(3.7%) 순이다. 결과적으로 미혼남성의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은 도시지역(평균 31.8세)이 농촌지역(평균 31.4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교육기간 연장, 취업, 능력 개발, 경력 축적 등의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미혼남성의 이상남성결혼연령은 현재 연령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즉, 조사대상 미혼남성 중 32세이상을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현 20~24세 33.2%, 25~29세 46.5%, 30~34세 59.4%, 35세 이상 64.2%로 고연령층일수록 높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에게서도 나타나는데, 현 20~24세 39.0%, 25~29세 55.1%, 30~34세 66.8%, 35세이상 60.3%이다. 다만, 35세이상 고연령층 미혼여성의 이상남성결혼연령은 30대 전반에 비해 다소 낮아, 지나치게 높은 남성결혼연령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연령이 고연령층일수록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합리화 효과(rationalization effect)도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만혼을 선호하는 가치관이 실제 결혼을 늦추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미혼남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결혼연령은 고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미혼남성의 이상남성결혼연령 평균은 중졸이하 31.6세, 고졸 31.4세, 대졸이상 32.3세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고졸이하 31.7세, 대졸이상 32.2세이다. 고학력층일수록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긴데다가 취업, 능력 개발, 직장 적응, 경력 축적 등의 후에 결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남녀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 미혼남성의 이상남성결혼연령은 평균 32.1세로, 비취업남성 평균 31.6세(학생 제외)에 비해 0.5세 많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취업 32.2세, 비취업 31.6세(학생 제외)로, 취업 미혼여성의 이상남성결혼연령이 다소 높다.

〈표 5-8〉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계 (명)	χ^2	평균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미혼남성	3.1	10.5	40.8	34.0	11.6	100.0 (1,719)		31.76
거주지								
동부	3.1	9.5	41.2	34.3	11.9	100.0 (1,530)	14.6 **	31.80
읍·면부	3.7	18.3	37.2	31.4	9.4	100.0 (191)		31.44
연령								
20~24세	4.7	15.2	46.9	27.2	6.0	100.0 (665)	151.0 ***	31.13
25~29세	1.8	9.1	42.6	38.3	8.2	100.0 (561)		31.75
30~34세	3.1	5.6	31.7	36.9	22.6	100.0 (287)		32.52
35~44세	1.0	5.9	28.9	40.7	23.5	100.0 (204)		32.77
교육수준								
중졸 이하	-	11.8	44.1	35.3	8.8	100.0 (34)	57.8 ***	31.60
고졸	4.5	12.3	44.2	30.3	8.8	100.0 (1,004)		31.42
대졸 이상	1.3	7.9	35.4	39.5	15.9	100.0 (684)		32.26
취업여부								
취업	2.3	9.2	35.8	36.6	16.1	100.0 (869)	51.6 ***	32.14
비취업	3.9	12.0	45.7	31.5	6.9	100.0 (841)		31.37
학생	3.9	14.0	48.0	27.7	6.5	100.0 (542)		31.22
기타	4.0	8.4	41.5	38.5	7.7	100.0 (299)		31.64
미혼여성	1.8	9.9	39.7	36.6	12.1	100.0 (1,573)		31.92
거주지								
동부	1.7	9.8	39.2	37.2	12.1	100.0 (1,439)	4.5	31.95
읍·면부	3.0	10.5	45.1	29.3	12.0	100.0 (133)		31.68
연령								
20~24세	1.9	14.2	44.9	32.7	6.3	100.0 (777)	140.0 ***	31.41
25~29세	1.9	6.7	36.3	43.2	11.9	100.0 (523)		32.17
30~34세	1.9	2.5	28.7	36.9	29.9	100.0 (157)		32.96
35~44세	-	5.9	33.9	33.1	27.2	100.0 (118)		32.81
교육수준								
중졸 이하	6.7	6.7	66.7	6.7	13.3	100.0 (16)	31.9 ***	31.19
고졸	2.2	11.5	43.1	33.1	10.1	100.0 (789)		31.69
대졸 이상	1.2	8.3	35.6	40.8	14.0	100.0 (769)		32.18
취업여부								
취업	1.5	8.3	35.5	39.0	15.7	100.0 (859)	36.6 ***	32.23
비취업	2.0	11.7	44.7	33.9	7.8	100.0 (709)		31.56
학생	1.9	10.9	47.0	33.2	7.1	100.0 (479)		31.52
기타	2.6	13.4	39.8	35.1	9.1	100.0 (231)		31.6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9>에는 미혼남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결혼연령이 일반특성별로 제시되어 있다. 우선 미혼남성의 지역별 이상여성결혼연령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나,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구체적으로 동부지역 미혼남성의 이상적 여성결혼연령은 평균 29.0세로 읍면지역 미혼남성(28.4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읍면지역 미혼남성 중 27세이하를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44% 정도로 높다. 이러한 차이는 농촌사회에서 결혼연령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에서 교육기간 연장(대학원 진학 등), 취업, 능력 개발, 경력축적 등의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미혼남녀의 이상적 여성결혼연령은 현 연령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 20~24세 미혼남성의 경우 28.7세, 25~29세의 경우 28.9세, 30~34세의 경우 29.3세, 35세 이상의 경우 29.6세로 고연령층일수록 높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에게서도 나타나는데, 20~24세의 경우 29.0세, 25~29세의 경우 29.8세, 30~34세의 경우 30.2세, 35세 이상의 경우 30.2세이다. 현 연령과 이상결혼연령간 정적 관계는 합리화 효과(rationalization effect)에 기인하며, 한편으로는 결혼연령에 대한 가치관으로 인해 아직까지 미혼층으로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혼남녀의 이상여성결혼연령은 고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미혼남성의 평균 이상여성결혼연령은 고졸 28.7세, 대졸 이상 29.2세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고졸 29.3세, 대졸이상 29.7세이다(중졸이하는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 곤란). 이러한 경향은 고학력층일수록 교육기간 연장, 취업, 능력 개발, 직장 적응, 경력 축적 등의 후에 결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미혼남녀의 취업여부별 평균 이상여성결혼연령은 취업 미혼남성(29.1세)이 비취업 미혼남성(28.8세)에 비해 그리고 취업 미혼여성(29.7세)이 비취업 미혼여성(29.2세)에 비해 높다. 이는 취업 미혼층이 비취업 미혼층에 비해 취업, 직장 적응, 능력 개발 등을 이유로 더 높은 연령을 이상적인 결혼시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5-9〉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계 (명)	x ²	평균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미혼남성	29.4	36.5	27.7	5.7	0.6	100.0 (1,719)		28.94
거주지								
동부	27.7	37.6	27.9	6.1	0.7	100.0 (1,532)	25.0 ***	29.01
읍·면부	43.9	28.3	25.7	2.1	-	100.0 (187)		28.36
현연령								
20~24세	33.7	36.9	26.1	2.8	0.4	100.0 (667)	67.6 ***	28.66
25~29세	31.1	37.0	26.9	4.3	0.7	100.0 (562)		28.86
30~34세	23.7	37.3	27.5	11.5	-	100.0 (287)		29.25
35~44세	18.7	33.0	35.5	10.8	2.0	100.0 (203)		29.6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2	48.5	33.3	-	-	100.0 (33)	32.7 ***	29.18
고졸	33.3	35.5	26.7	4.0	0.4	100.0 (1002)		28.73
대졸 이상	24.4	37.6	28.8	8.4	0.9	100.0 (681)		29.23
취업여부								
취업	26.8	36.7	27.7	8.2	0.6	100.0 (869)	23.9 ***	29.11
비취업	32.4	36.2	27.7	3.1	0.6	100.0 (839)		28.75
학생	33.4	38.0	25.3	2.8	0.6	100.0 (542)		28.66
기타	30.5	33.2	31.9	3.7	0.7	100.0 (298)		28.92
미혼여성	21.2	34.2	34.0	9.0	1.7	100.0 (1572)		29.45
거주지								
동부	21.2	33.6	34.3	9.2	1.7	100.0 (1439)	3.7	29.49
읍·면부	21.1	40.6	30.8	6.8	0.8	100.0 (133)		29.12
연령								
20~24세	27.2	38.5	29.2	4.9	0.3	100.0 (775)	130.2 ***	28.99
25~29세	15.5	32.1	39.4	11.7	1.3	100.0 (523)		29.75
30~34세	11.5	26.1	42.0	15.3	5.1	100.0 (157)		30.23
35~44세	19.5	25.4	31.4	16.1	7.6	100.0 (118)		30.19
교육수준								
중졸 이하	40.0	40.0	13.3	6.7	-	100.0 (15)	22.6 **	28.48
고졸	23.9	35.8	31.6	7.2	1.5	100.0 (791)		29.27
대졸 이상	18.0	32.3	36.7	11.1	2.0	100.0 (768)		29.66
취업여부								
취업	19.0	31.9	35.6	10.8	2.8	100.0 (860)	27.5 ***	29.68
비취업	23.7	37.0	31.8	7.0	0.4	100.0 (710)		29.20
학생	23.3	38.3	31.9	6.3	0.2	100.0 (480)		29.17
기타	24.3	34.8	31.7	8.3	0.9	100.0 (230)		29.2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미혼남녀의 만혼 및 비혼에 관한 태도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0>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91.3%와 미혼여성의 90.3%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이는 실업이나 고용불안정 등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미혼여성의 거주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실제 찬성 강도에서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동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동 견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10>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32.4	58.9	8.1	0.6	100.0 (1,732)	
거주지						
동부	31.8	59.5	8.1	0.6	100.0 (1,537)	2.9
읍면부	37.1	54.1	7.7	1.0	100.0 (194)	
연령						
20~24세	29.5	63.0	6.6	0.9	100.0 (668)	
25~29세	33.0	58.3	8.3	0.4	100.0 (563)	14.9
30~34세	37.9	52.1	9.7	0.3	100.0 (290)	
35~44세	32.7	56.4	10.0	0.9	100.0 (211)	
교육수준						
중졸이하	37.1	51.4	11.4	-	100.0 (35)	
고졸	31.5	60.8	7.1	0.6	100.0 (1,011)	5.6
대졸이상	33.6	56.5	9.3	0.6	100.0 (685)	
취업여부						
취업	32.8	58.2	8.3	0.8	100.0 (870)	
비취업	32.4	59.3	7.9	0.4	100.0 (851)	1.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11〉 계속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여성 거주지	27.3	63.0	8.9	0.7	100.0 (1,580)	
동부	26.3	64.0	9.0	0.7	100.0 (1,447)	8.6*
읍면부	38.1	53.0	8.2	0.7	100.0 (134)	
연령						
20~24세	27.3	63.6	8.3	0.8	100.0 (780)	7.9
25~29세	28.2	61.6	9.5	0.6	100.0 (524)	
30~34세	27.2	66.5	5.7	0.6	100.0 (158)	
35~44세	23.7	61.0	14.4	0.8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21.4	64.3	14.3	-	100.0 (14)	3.6
고졸	27.5	61.7	9.8	0.9	100.0 (792)	
대졸이상	27.3	64.3	7.9	0.5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28.4	61.8	9.2	0.6	100.0 (862)	1.5
비취업	26.2	64.2	8.8	0.8	100.0 (71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1>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85.2%, 미혼여성의 86.1%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이는 미혼남녀의 상당부분이 고가의 주택비용 등을 결혼 결정의 장애요인으로서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은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의 미혼남녀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외 연령별, 교육수준별, 취업여부별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동 견해는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1〉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34.7	50.5	13.8	1.0	100.0 (1730)	
거주지						
동부	35.0	50.9	13.5	0.7	100.0 (1535)	16.7 **
읍면부	32.5	47.9	16.0	3.6	100.0 (194)	
연령						
20~24세	32.2	54.1	12.6	1.0	100.0 (667)	15.8
25~29세	36.7	49.2	13.4	0.7	100.0 (561)	
30~34세	36.2	47.2	16.2	0.3	100.0 (290)	
35~44세	35.2	47.1	14.8	2.9	100.0 (210)	
교육수준						
중졸이하	36.4	57.6	3.0	3.0	100.0 (33)	7.6
고졸	34.2	51.9	13.0	1.0	100.0 (1010)	
대졸이상	35.6	48.3	15.3	0.9	100.0 (686)	
취업여부						
취업	35.7	48.7	14.5	1.2	100.0 (869)	2.8
비취업	33.7	52.4	13.0	0.8	100.0 (851)	
미혼여성	34.4	51.7	13.5	0.4	100.0 (1580)	
거주지						
동부	34.7	52.0	12.9	0.3	100.0 (1447)	14.4 **
읍면부	30.4	47.4	20.0	2.2	100.0 (135)	
연령						
20~24세	37.6	49.8	11.9	0.6	100.0 (781)	14.9
25~29세	29.6	54.7	15.7	-	100.0 (523)	
30~34세	32.9	53.8	12.7	0.6	100.0 (158)	
35~44세	34.7	49.2	15.3	0.8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26.7	60.0	13.3	-	100.0 (15)	4.3
고졸	34.8	52.9	11.9	0.4	100.0 (792)	
대졸이상	34.0	50.4	15.1	0.5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32.8	51.9	14.9	0.3	100.0 (863)	4.7
비취업	36.3	51.4	11.8	0.6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이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2>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9.0%, 미혼여성의 83.2%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적 이유(고용불안정,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에 대한 찬성비율보다는 다소 낮으나, 가치관 역시 젊은층의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에 대한 찬성비율은 농촌보다 도시지역 미혼남성 그리고 저학력층보다 고학력층 미혼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연령층의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외 미혼남성의 연령이나 취업여부, 미혼여성의 거주지,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이들 특성은 가치관 이유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5-12>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26.3	52.7	19.3	1.7	100.0 (1,729)	
거주지						
동부	26.3	53.9	18.3	1.5	100.0 (1,534)	13.4 **
읍면부	26.3	43.8	26.3	3.6	100.0 (194)	
연령						
20~24세	29.4	50.3	18.6	1.7	100.0 (666)	11.2
25~29세	24.7	55.3	17.8	2.1	100.0 (562)	
30~34세	23.0	51.5	23.7	1.7	100.0 (291)	
35~44세	25.2	55.2	18.6	1.0	100.0 (210)	
교육수준						
중졸이하	20.6	47.1	23.5	8.8	100.0 (34)	17.3 **
고졸	28.4	51.0	19.1	1.4	100.0 (1,009)	
대졸이상	23.3	55.5	19.2	1.9	100.0 (686)	
취업여부						
취업	24.9	52.2	20.8	2.1	100.0 (869)	5.1
비취업	27.8	53.2	17.5	1.4	100.0 (85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12〉 계속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여성 거주지	31.1	52.1	14.9	2.0	100.0 (1,581)	
동부	31.0	52.6	14.5	2.0	100.0 (1,446)	2.5
읍면부	32.8	47.0	18.7	1.5	100.0 (134)	
연령						
20~24세	29.6	52.9	15.4	2.2	100.0 (781)	17.2 *
25~29세	29.6	51.4	17.2	1.7	100.0 (523)	
30~34세	34.6	54.7	8.8	1.9	100.0 (159)	
35~44세	43.2	45.8	9.3	1.7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13.3	66.7	13.3	6.7	100.0 (15)	4.1
고졸	31.3	52.1	14.5	2.0	100.0 (792)	
대졸이상	31.3	51.7	15.2	1.8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31.6	50.9	15.5	2.0	100.0 (862)	1.1
비취업	30.7	53.4	14.1	1.8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시택·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3>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2.3%, 미혼여성의 71.5%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동 견해에 대한 비교적 높은 찬성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이거나 전통적인 결혼생활이 신세대의 생활상 및 결혼상과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태도는 미혼남성의 경우 도시지역 거주자와 취업자에게서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고연령층 및 취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고연령층 및 취업상태에 있는 조사대상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과도 연관시킬 수 있다. 한편, 미혼남성의 연령과 교육수준 별 그리고 미혼여성의 거주지와 교육수준별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5-13〉 “시택·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17.1	45.2	32.5	5.2	100.0 (1,730)	
거주지						
동부	18.0	45.7	31.8	4.4	100.0 (1,536)	28.6 ***
읍면부	9.2	41.0	37.9	11.8	100.0 (195)	
연령						
20~24세	19.3	43.6	31.6	5.4	100.0 (667)	11.6
25~29세	16.2	43.2	35.8	4.8	100.0 (562)	
30~34세	15.2	48.3	30.0	6.6	100.0 (290)	
35~44세	14.7	51.2	30.3	3.8	100.0 (211)	
교육수준						
중졸이하	11.8	52.9	29.4	5.9	100.0 (34)	3.5
고졸	17.7	46.0	31.3	5.0	100.0 (1,009)	
대졸이상	16.4	43.7	34.4	5.5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14.8	47.6	32.0	5.5	100.0 (869)	8.0 *
비취업	19.4	42.7	33.0	4.9	100.0 (851)	
미혼여성	24.3	47.2	25.9	2.6	100.0 (1,578)	
거주지						
동부	24.3	47.1	26.2	2.4	100.0 (1,445)	2.8
읍면부	24.6	48.5	22.4	4.5	100.0 (134)	
연령						
20~24세	20.9	48.5	27.8	2.8	100.0 (780)	24.9 **
25~29세	25.9	44.5	27.1	2.5	100.0 (521)	
30~34세	35.4	47.5	16.5	0.6	100.0 (158)	
35~44세	26.1	50.4	20.2	3.4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26.7	53.3	6.7	13.3	100.0 (15)	12.4
고졸	22.7	48.0	27.1	2.1	100.0 (792)	
대졸이상	25.9	46.4	24.9	2.8	100.0 (772)	
취업여부						
취업	26.0	47.9	23.1	2.9	100.0 (860)	9.3 *
비취업	22.4	46.1	29.4	2.1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4>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결과,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9.6%와 미혼여성의 75.2%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는 시대·차가 중심의 결혼생활의 부담에 관한 찬성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연령층 미혼여성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찬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결혼제도가 부담스러워 현재 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것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 미혼남성의 경우에도 농촌 미혼남성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결혼에 따른 집장만 등 비용부담, 의무 및 역할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동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다른 특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4〉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21.0	48.6	26.0	4.3	100.0 (1,730)	
거주지						
동부	21.9	48.8	25.7	3.7	100.0 (1,536)	17.6 **
읍면부	14.4	47.4	28.9	9.3	100.0 (194)	
연령						
20~24세	21.3	47.5	26.5	4.6	100.0 (667)	4.4
25~29세	21.5	48.4	26.5	3.6	100.0 (562)	
30~34세	21.7	48.3	24.8	5.2	100.0 (290)	
35~44세	17.6	53.3	24.3	4.8	100.0 (210)	
교육수준						
중졸이하	14.7	52.9	23.5	8.8	100.0 (34)	4.8
고졸	22.3	47.3	26.0	4.4	100.0 (1,010)	
대졸이상	19.5	50.3	26.1	4.1	100.0 (686)	
취업여부						
취업	20.9	49.5	24.9	4.6	100.0 (870)	1.5
비취업	21.1	47.5	27.3	4.1	100.0 (850)	

〈표 5-14〉 계속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여성	23.5	51.7	22.7	2.1	100.0 (1,580)	
거주지						
동부	23.6	52.4	21.9	2.1	100.0 (1,446)	6.6
읍면부	22.4	44.0	31.3	2.2	100.0 (134)	
연령						
20~24세	21.3	51.9	24.2	2.6	100.0 (780)	
25~29세	22.9	50.7	24.7	1.7	100.0 (523)	26.0 **
30~34세	34.0	48.4	17.0	0.6	100.0 (159)	
35~44세	26.3	59.3	11.0	3.4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21.4	42.9	28.6	7.1	100.0 (14)	
고졸	23.5	52.1	22.8	1.6	100.0 (793)	3.8
대졸이상	23.5	51.4	22.5	2.6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25.1	51.7	21.1	2.1	100.0 (863)	
비취업	21.5	51.8	24.7	2.1	100.0 (713)	4.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5>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결과,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4.8%와 미혼여성의 77.6%가 찬성하고 있다. 특히, 동 견해에 대해 찬성도는 도시 지역 거주 미혼남성과 고연령층 및 고학력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동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다른 특성별 찬성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5-15〉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19.6	55.2	22.2	2.9	100.0 (1,731)	
거주지						
동부	20.2	55.3	22.2	2.3	100.0 (1,536)	18.9 ***
읍면부	15.5	55.2	21.6	7.7	100.0 (194)	
연령						
20~24세	19.4	55.3	23.4	2.0	100.0 (666)	8.5
25~29세	19.8	55.7	21.5	3.0	100.0 (562)	
30~34세	21.7	51.7	22.4	4.1	100.0 (290)	
35~44세	17.5	58.8	19.4	4.3	100.0 (211)	
교육수준						
중졸이하	17.6	61.8	11.8	8.8	100.0 (34)	11.3
고졸	21.5	54.2	21.6	2.8	100.0 (1,011)	
대졸이상	17.1	56.4	23.6	2.9	100.0 (686)	
취업여부						
취업	19.3	55.2	21.6	3.8	100.0 (869)	4.5
비취업	20.1	54.9	22.9	2.1	100.0 (851)	
미혼여성	23.5	54.1	20.3	2.1	100.0 (1,580)	
거주지						
동부	23.9	53.3	20.7	2.1	100.0 (1,447)	4.2
읍면부	19.3	62.2	16.3	2.2	100.0 (135)	
연령						
20~24세	22.7	53.5	22.2	1.7	100.0 (781)	30.9 ***
25~29세	19.7	55.6	21.2	3.4	100.0 (523)	
30~34세	35.4	50.0	13.9	0.6	100.0 (158)	
35~44세	29.4	56.3	13.4	0.8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6.7	46.7	33.3	13.3	100.0 (15)	14.6 *
고졸	24.1	53.1	21.2	1.6	100.0 (793)	
대졸이상	23.3	55.2	19.1	2.3	100.0 (773)	
취업여부						
취업	23.2	54.3	20.0	2.6	100.0 (862)	2.2
비취업	24.1	53.5	20.9	1.5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6>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3.3%, 미혼여성의 68.5%가 찬성하고 있어, 미혼남녀들 사이에 교육기간 연장이 만혼화 내지 비혼화의 원인이란 시각이 그렇지 않은 시각에 비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교육기간과 결혼시기는 정적 상관성을 갖는데, 한국사회에서도 미혼남녀들은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해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는 도시의 미혼남녀와 고연령층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혼남녀의 교육수준별로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학력계층과 상관없이 교육기간 연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5-16>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14.5	48.8	32.0	4.7	100.0 (1,731)	
거주지						
동부	15.0	50.3	30.5	4.2	100.0 (1,535)	25.3 ***
읍면부	10.3	37.1	44.3	8.2	100.0 (194)	
연령						
20~24세	15.4	47.8	33.0	3.7	100.0 (667)	6.2
25~29세	13.0	51.6	30.6	4.8	100.0 (562)	
30~34세	15.9	47.6	31.0	5.5	100.0 (290)	
35~44세	14.2	46.0	34.1	5.7	100.0 (211)	
교육수준						
중졸이하	5.9	47.1	38.2	8.8	100.0 (34)	4.4
고졸	15.3	48.8	31.6	4.4	100.0 (1,009)	
대졸이상	13.8	49.0	32.4	4.8	100.0 (686)	
취업여부						
취업	13.4	49.2	32.2	5.2	100.0 (870)	2.7
비취업	15.8	48.5	31.6	4.1	100.0 (85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16〉 계속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여성	18.9	49.6	27.6	4.0	100.0 (1,580)	
거주지						
동부	19.2	50.1	26.6	4.1	100.0 (1,446)	8.1 *
읍면부	15.7	43.3	38.1	3.0	100.0 (134)	
연령						
20~24세	18.8	50.1	27.4	3.7	100.0 (781)	
25~29세	14.8	51.7	28.7	4.8	100.0 (522)	25.0 **
30~34세	27.2	49.4	22.2	1.3	100.0 (158)	
35~44세	26.3	37.3	31.4	5.1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7.1	42.9	42.9	7.1	100.0 (14)	
고졸	19.4	49.9	26.1	4.5	100.0 (792)	5.3
대졸이상	18.5	49.4	28.8	3.4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18.1	49.4	28.0	4.5	100.0 (861)	
비취업	19.9	49.7	27.0	3.4	100.0 (714)	2.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서”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7>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2.3%와 미혼여성의 79.6%가 찬성하고 있다. 즉, 미혼남녀의 상당수가 배우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지연되거나 비혼상태로 머무르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 거주, 고학력층 및 취업 중인 미혼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계층간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만혼화에 대한 시각 차이가 어느 정도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혼여성들 사이에는 학력 등의 특성에 불문하고 배우자 기대감으로 인한 만혼화 경향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다.

〈표 5-17〉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18.2	54.1	24.7	3.0	100.0 (1,730)	
거주지						
동부	19.3	54.3	23.8	2.6	100.0 (1,536)	21.7 ***
읍면부	9.3	52.6	32.0	6.2	100.0 (194)	
연령						
20~24세	19.0	54.6	24.3	2.1	100.0 (668)	10.8
25~29세	16.0	56.5	24.3	3.2	100.0 (563)	
30~34세	21.7	48.3	25.5	4.5	100.0 (290)	
35~44세	16.7	54.3	25.7	3.3	100.0 (210)	
교육수준						
중졸이하	8.6	62.9	17.1	11.4	100.0 (35)	13.9 *
고졸	19.4	52.8	25.1	2.7	100.0 (1,008)	
대졸이상	16.9	55.7	24.3	3.1	100.0 (686)	
취업여부						
취업	17.1	55.8	22.8	4.3	100.0 (869)	13.4 **
비취업	19.4	52.4	26.5	1.8	100.0 (850)	
미혼여성	24.1	55.5	18.4	2.1	100.0 (1,580)	
거주지						
동부	24.7	55.1	18.1	2.1	100.0 (1,447)	4.1
읍면부	17.2	59.0	21.6	2.2	100.0 (134)	
연령						
20~24세	22.5	56.0	19.5	2.0	100.0 (781)	9.8
25~29세	24.2	54.6	18.5	2.7	100.0 (524)	
30~34세	27.2	59.5	12.7	0.6	100.0 (158)	
35~44세	29.4	50.4	17.6	2.5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20.0	60.0	20.0	-	100.0 (15)	2.0
고졸	25.2	55.2	17.5	2.0	100.0 (793)	
대졸이상	23.0	55.6	19.2	2.2	100.0 (775)	
취업여부						
취업	23.5	55.5	18.4	2.5	100.0 (863)	2.2
비취업	24.8	55.7	17.9	1.5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8>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85.2%, 미혼여성의 84.9%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앞서의 고용불안정과 함께 소득부족도 만혼화·비혼화의 중요한 이유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혼남녀의 태도는 학력 등 특성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데, 이는 동 견해에 대한 의식수준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5-18>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25.3	59.9	13.2	1.5	100.0 (1,730)	
거주지						
동부	26.0	59.6	13.2	1.3	100.0 (1,536)	6.5
읍면부	20.0	62.6	14.4	3.1	100.0 (195)	
연령						
20~24세	23.1	63.7	11.7	1.5	100.0 (667)	
25~29세	25.0	59.5	13.9	1.6	100.0 (561)	10.1
30~34세	29.9	54.6	14.4	1.0	100.0 (291)	
35~44세	27.0	56.4	14.7	1.9	100.0 (211)	
교육수준						
중졸이하	23.5	58.8	11.8	5.9	100.0 (34)	8.8
고졸	25.3	61.4	12.0	1.3	100.0 (1,009)	
대졸이상	25.4	57.9	15.2	1.6	100.0 (686)	
취업여부						
취업	27.4	57.5	13.4	1.7	100.0 (870)	5.1
비취업	23.3	62.3	13.2	1.3	100.0 (85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18〉 계속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여성	24.4	60.5	13.5	1.6	100.0 (1,581)	
거주지						
동부	24.4	60.9	13.1	1.7	100.0 (1,446)	4.7
읍면부	24.8	57.1	18.0	-	100.0 (133)	
연령						
20~24세	23.8	61.2	13.2	1.8	100.0 (780)	5.2
25~29세	23.1	61.4	14.1	1.3	100.0 (523)	
30~34세	27.2	58.9	12.7	1.3	100.0 (158)	
35~44세	31.1	54.6	13.4	0.8	100.0 (119)	
교육수준						
중졸이하	14.3	78.6	7.1	-	100.0 (14)	8.5
고졸	26.5	60.2	11.7	1.6	100.0 (793)	
대졸이상	22.5	60.6	15.4	1.6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25.3	60.0	13.2	1.5	100.0 (862)	0.8
비취업	23.4	61.2	13.7	1.7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19>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8.6%, 미혼여성의 83.6%가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들 사이에 결혼보다 일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혼여성들 사이에 일·가정 양립이 곤란할 경우 일(경력관리)을 위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해 취업 미혼남성이 비취업 미혼남성에 비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고연령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 미혼남성의 다른 특성별 의식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5-19〉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라는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
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17.6	61.0	18.6	2.8	100.0 (1,730)	
거주지						
동부	17.9	61.4	18.2	2.5	100.0 (1,536)	5.4
읍면부	14.9	58.2	22.2	4.6	100.0 (194)	
연령						
20~24세	16.3	64.8	16.3	2.5	100.0 (668)	15.3
25~29세	18.3	59.1	20.1	2.5	100.0 (562)	
30~34세	19.6	53.6	22.3	4.5	100.0 (291)	
35~44세	16.7	64.3	17.1	1.9	100.0 (210)	
교육수준						
중졸이하	23.5	55.9	14.7	5.9	100.0 (34)	9.8
고졸	17.2	63.1	16.7	3.0	100.0 (1,011)	
대졸이상	17.8	58.2	21.6	2.3	100.0 (685)	
취업여부						
취업	20.1	58.6	18.4	2.9	100.0 (869)	8.1 *
비취업	15.0	63.5	18.8	2.7	100.0 (851)	
미혼여성	20.3	63.3	14.4	2.0	100.0 (1,580)	
거주지						
동부	20.7	63.0	14.2	2.1	100.0 (1,447)	3.5
읍면부	16.4	64.9	17.9	0.7	100.0 (134)	
연령						
20~24세	19.0	64.3	15.2	1.5	100.0 (781)	33.5 ***
25~29세	16.4	65.2	15.5	2.9	100.0 (523)	
30~34세	28.3	61.6	8.2	1.9	100.0 (159)	
35~44세	34.7	50.0	13.6	1.7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21.4	42.9	28.6	7.1	100.0 (14)	6.1
고졸	20.3	62.3	15.4	2.0	100.0 (793)	
대졸이상	20.1	64.5	13.3	2.1	100.0 (775)	
취업여부						
취업	22.4	61.5	13.7	2.4	100.0 (863)	7.2
비취업	17.8	65.4	15.3	1.5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미혼남녀의 가족에 관한 태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를 살펴보면(표 5-20), 미혼남성의 78.9%와 미혼여성의 74.0%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결혼에 대한 가족주의적 성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미혼남성의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한 가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연령층 남성의 가부장적인 사고관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녀의 거주지역과 교육수준별 및 미혼여성의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미혼남녀의 기본특성과 무관하게 결혼에 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20〉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26.3	52.6	19.2	1.8	100.0 (1,731)	
거주지						
동부	26.0	52.9	19.6	1.6	100.0 (1,536)	5.8
읍·면부	29.4	50.5	16.5	3.6	100.0 (194)	
연령						
20~24세	21.0	55.5	22.0	1.5	100.0 (667)	23.1 **
25~29세	28.2	52.4	17.3	2.1	100.0 (561)	
30~34세	33.7	46.9	18.1	1.4	100.0 (288)	
35~44세	28.9	51.7	17.1	2.4	100.0 (2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41.2	29.4	26.5	2.9	100.0 (34)	9.0
고졸	25.4	53.8	19.2	1.6	100.0 (1,010)	
대졸 이상	26.9	52.0	18.9	2.2	100.0 (68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20〉 계속

(단위: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여성	21.9	52.1	23.6	2.4	100.0 (1,581)	
거주지						
동부	21.9	52.2	23.6	2.3	100.0 (1,446)	0.3
읍·면부	22.4	50.7	23.9	3.0	100.0 (134)	
연령						
20~24세	21.4	51.7	23.9	2.9	100.0 (781)	
25~29세	23.1	50.9	23.3	2.7	100.0 (523)	7.5
30~34세	22.2	55.1	22.2	0.6	100.0 (158)	
35~44세	20.3	55.1	24.6	-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33.3	53.3	13.3	-	100.0 (15)	
고졸	22.7	51.3	24.1	1.9	100.0 (793)	4.6
대졸 이상	20.9	52.7	23.4	3.0	100.0 (77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21>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61.4%와 미혼여성의 66.9%가 동 견해에 대해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가 다소 긍정적(특히 미혼여성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형제자매의 이혼 경험 여부 등 일반특성별 태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혼에 관한 가치관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다만, 부모 이혼을 경험한 미혼여성은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찬성하고 있어, 부모이혼 경험에 대한 보상적인 심리가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5-21〉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16.8	44.6	32.1	6.5	100.0 (1,728)	
거주지						
동부	17.2	44.3	31.9	6.6	100.0 (1,533)	2.5
읍·면부	12.9	46.9	34.0	6.2	100.0 (194)	
연령						
20~24세	17.9	45.5	30.0	6.6	100.0 (666)	10.2
25~29세	16.0	43.0	33.2	7.8	100.0 (561)	
30~34세	17.0	44.6	31.8	6.6	100.0 (289)	
35~44세	14.6	45.8	36.8	2.8	100.0 (212)	
교육수준						
중졸 이하	8.8	41.2	44.1	5.9	100.0 (34)	11.7
고졸	19.1	43.3	30.8	6.8	100.0 (1,009)	
대졸 이상	13.8	46.5	33.5	6.1	100.0 (686)	
부모 이혼 경험						
있다	18.8	40.2	32.5	8.5	100.0 (117)	1.6
없다	16.6	44.9	32.1	6.4	100.0 (1,609)	
형제·자매이혼경험						
있다	18.8	42.2	35.9	3.1	100.0 (64)	2.0
없다	20.6	44.6	28.8	5.9	100.0 (775)	
미혼여성	18.1	48.8	27.9	5.3	100.0 (1,579)	
거주지						
동부	18.2	48.5	28.2	5.1	100.0 (1,446)	2.5
읍·면부	17.0	51.9	23.7	7.4	100.0 (135)	
연령						
20~24세	18.7	46.7	27.7	6.9	100.0 (780)	12.0
25~29세	17.4	51.6	27.0	4.0	100.0 (523)	
30~34세	18.4	50.0	27.8	3.8	100.0 (158)	
35~44세	16.9	49.2	32.2	1.7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7.1	50.0	21.4	21.4	100.0 (14)	12.9 *
고졸	18.1	47.8	27.7	6.3	100.0 (791)	
대졸 이상	18.2	49.7	28.2	3.9	100.0 (773)	
부모의 이혼경험						
있다	22.4	36.8	29.6	11.2	100.0 (125)	14.6 **
없다	17.7	49.8	27.8	4.8	100.0 (1,451)	
형제·자매이혼경험						
있다	27.8	42.6	22.2	7.4	100.0 (54)	2.3
없다	20.9	47.9	26.2	5.0	100.0 (62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22>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53.7%와 미혼여성의 61.5%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특히 미혼여성의 경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는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다소 낮다. 즉, 미혼남녀 일부는 이혼에 대해 찬성할지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남성의 거주지에 따라 보다 명료하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에서는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과 비교된다. 결국, 도시에 비해 농촌사회에서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혼남녀의 연령, 교육수준, 부모 및 형제·자매의 이혼경험별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태도가 미혼남녀 사이에 보편적임을 짐작케 해준다.

<표 5-2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11.6	42.1	35.4	10.8	100.0 (1,728)	
거주지						
동부	11.3	43.3	34.4	10.9	100.0 (1,535)	9.4 *
읍·면부	13.9	33.0	43.3	9.8	100.0 (194)	
연령						
20~24세	11.7	43.9	34.3	10.0	100.0 (667)	12.2
25~29세	9.3	43.2	35.2	12.3	100.0 (560)	
30~34세	13.8	38.6	35.5	12.1	100.0 (290)	
35~44세	14.2	38.9	39.3	7.6	100.0 (2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8.6	40.0	37.1	14.3	100.0 (35)	5.6
고졸	12.9	41.4	34.4	11.3	100.0 (1,008)	
대졸 이상	9.9	43.4	36.7	9.9	100.0 (686)	
부모 이혼 경험						
있다	11.0	38.1	34.7	16.1	100.0 (118)	3.8
없다	11.6	42.5	35.4	10.4	100.0 (1,608)	
형제·자매 이혼경험						
있다	20.6	33.3	39.7	6.3	100.0 (63)	3.8
없다	13.9	42.8	34.8	8.5	100.0 (776)	

(단위: %, 명)

〈표 5-22〉 계속

(단위: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여성	14.5	47.0	30.5	8.0	100.0 (1,578)	
거주지						
동부	14.6	46.8	30.7	8.0	100.0 (1,445)	1.1
읍·면부	12.8	48.9	28.6	9.8	100.0 (133)	
연령						
20~24세	14.1	47.1	30.6	8.2	100.0 (780)	
25~29세	14.1	47.0	30.2	8.6	100.0 (523)	2.7
30~34세	16.5	44.3	31.0	8.2	100.0 (158)	
35~44세	16.1	49.2	29.7	5.1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3	33.3	33.3	20.0	100.0 (15)	
고졸	14.8	47.0	30.3	8.0	100.0 (792)	3.4
대졸 이상	14.2	47.2	30.7	7.9	100.0 (772)	
부모의 이혼경험						
있다	18.3	43.7	25.4	12.7	100.0 (126)	6.6
없다	14.2	47.3	30.9	7.6	100.0 (1,451)	
형제·자매의 이혼경험						
있다	18.2	40.0	32.7	9.1	100.0 (55)	0.5
없다	17.4	45.0	29.3	8.4	100.0 (62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20~44세)의 53.2%와 미혼여성(20~44세)의 60.4%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표 5-23).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미혼여성에게서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 미혼여성이 한부모가족을 상대적으로 더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이 미혼남성들 사이에 그리고 농촌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편, 미혼남녀의 연령별 및 교육수준별 태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표 5-23〉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9.9	43.3	40.0	6.8	100.0 (1,729)	
거주지						
동부	9.8	44.3	39.4	6.5	100.0 (1,534)	6.3
읍·면부	11.3	35.1	44.8	8.8	100.0 (194)	
연령						
20~24세	11.1	45.3	37.8	5.8	100.0 (667)	13.1
25~29세	8.7	45.3	38.3	7.7	100.0 (561)	
30~34세	10.0	38.3	43.4	8.3	100.0 (290)	
35~44세	9.4	38.2	46.7	5.7	100.0 (212)	
교육수준						
중졸 이하	5.9	35.3	44.1	14.7	100.0 (34)	6.3
고졸	10.4	43.9	38.7	7.0	100.0 (1,009)	
대졸 이상	9.5	42.7	41.7	6.1	100.0 (686)	
미혼여성	12.5	47.9	33.9	5.7	100.0 (1,580)	
거주지						
동부	13.0	48.4	33.0	5.5	100.0 (1,447)	8.0 *
읍·면부	7.5	42.5	42.5	7.5	100.0 (134)	
연령						
20~24세	12.6	47.9	33.8	5.6	100.0 (780)	7.4
25~29세	10.7	48.3	34.9	6.1	100.0 (524)	
30~34세	13.3	48.1	32.9	5.7	100.0 (158)	
35~44세	19.5	45.8	30.5	4.2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3	35.7	42.9	7.1	100.0 (14)	4.2
고졸	14.0	47.5	32.8	5.7	100.0 (792)	
대졸 이상	11.0	48.5	34.8	5.7	100.0 (7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24>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36.4%, 미혼여성의 36.5%만이 동 견해에 대해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아직까지 혼외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도시거주 미혼남녀들이 농촌거주 미혼남녀들에 비해 혼외출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혼남녀의 다른 특성별(연령, 교육수준)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부정적인 의식이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2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9.3	27.1	43.3	20.3	100.0 (1,728)	
거주지						
동부	9.5	27.9	43.2	19.4	100.0 (1,534)	8.9 *
읍면부	8.2	20.6	43.8	27.3	100.0 (194)	
연령						
20~24세	10.3	27.9	43.6	18.1	100.0 (667)	8.7
25~29세	9.4	25.5	42.2	22.8	100.0 (561)	
30~34세	7.9	25.5	45.2	21.4	100.0 (290)	
35~44세	7.1	31.1	42.5	19.3	100.0 (212)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	24.2	45.5	27.3	100.0 (33)	9.2
고졸	10.3	28.5	42.5	18.8	100.0 (1,008)	
대졸 이상	8.0	25.2	44.5	22.3	100.0 (686)	
미혼여성	8.5	28.0	41.4	22.1	100.0 (1,580)	
거주지						
동부	9.1	28.8	40.4	21.6	100.0 (1,447)	16.6 **
읍면부	2.3	18.8	51.9	27.1	100.0 (133)	
연령						
20~24세	9.7	26.8	42.4	21.0	100.0 (780)	11.7
25~29세	6.9	30.6	39.4	23.1	100.0 (523)	
30~34세	5.7	27.7	40.3	26.4	100.0 (159)	
35~44세	11.8	24.4	44.5	19.3	100.0 (119)	
교육수준						
중졸 이하	7.1	35.7	28.6	28.6	100.0 (14)	5.3
고졸	10.0	26.9	40.9	22.3	100.0 (793)	
대졸 이상	7.2	29.0	42.0	21.7	100.0 (7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25>에 제시되어 있다. 입양아동 양육에 대해서 미혼남녀의 절반 정도(미혼남성 54.4%, 미혼여성 57.2%)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뚜렷한 찬반의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강한 혈연의식으로 인하여 입양에 대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남녀의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등 특성별로 입양관련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이러한 의식수준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25〉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11.9	42.5	36.6	9.0	100.0 (1,728)	
거주지						
동부	12.1	41.9	37.2	8.7	100.0 (1,534)	4.4
읍면부	10.3	46.9	31.4	11.3	100.0 (194)	
연령						
20~24세	12.5	46.4	32.6	8.6	100.0 (666)	
25~29세	10.9	40.6	39.1	9.4	100.0 (562)	
30~34세	13.8	37.9	40.7	7.6	100.0 (290)	13.3
35~44세	10.4	41.7	37.0	10.9	100.0 (2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1	36.4	42.4	9.1	100.0 (33)	
고졸	13.2	44.1	34.3	8.3	100.0 (1,008)	9.8
대졸 이상	10.0	40.3	39.6	10.0	100.0 (687)	
미혼여성	11.1	46.1	35.0	8.0	100.0 (1,580)	
거주지						
동부	11.5	46.1	34.7	7.6	100.0 (1,446)	5.1
읍면부	6.0	45.5	38.1	10.4	100.0 (134)	
연령						
20~24세	10.8	47.6	34.5	7.2	100.0 (780)	
25~29세	9.5	46.8	34.7	9.0	100.0 (524)	
30~34세	19.0	37.3	34.8	8.9	100.0 (158)	16.8
35~44세	10.3	44.4	40.2	5.1	100.0 (1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7.1	35.7	35.7	21.4	100.0 (14)	
고졸	10.9	46.7	34.8	7.6	100.0 (792)	4.1
대졸 이상	11.4	45.6	35.1	7.9	100.0 (77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20~44세)의 73.3%와 미혼여성(20~44세)의 73.7%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재혼에 대한 찬성태도가 이혼에

대한 찬성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을지라도 재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데에 더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성향은 미혼남녀들 사이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26>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남성	15.1	58.2	22.1	4.6	100.0 (1,728)	
거주지						
동부	14.7	58.4	22.5	4.4	100.0 (1,535)	3.4
읍면부	18.7	56.5	19.2	5.7	100.0 (193)	
연령						
20~24세	15.5	58.4	22.1	4.1	100.0 (666)	
25~29세	12.5	60.5	21.9	5.2	100.0 (562)	8.5
30~34세	18.0	55.7	20.8	5.5	100.0 (289)	
35~44세	17.0	54.7	24.5	3.8	100.0 (21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7	55.9	20.6	8.8	100.0 (34)	
고졸	15.5	59.0	21.6	3.9	100.0 (1,008)	4.6
대졸 이상	14.6	57.1	22.9	5.5	100.0 (687)	
미혼여성	15.8	57.9	23.2	3.2	100.0 (1,580)	
거주지						
동부	15.9	58.0	22.8	3.3	100.0 (1,446)	2.8
읍면부	14.2	56.7	27.6	1.5	100.0 (134)	
연령						
20~24세	15.1	58.6	22.7	3.6	100.0 (780)	
25~29세	15.3	60.1	21.2	3.4	100.0 (522)	
30~34세	17.7	57.6	23.4	1.3	100.0 (158)	16.5
35~44세	19.3	44.5	34.5	1.7	100.0 (119)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3	53.3	20.0	13.3	100.0 (15)	
고졸	14.2	58.1	24.6	3.0	100.0 (793)	8.8
대졸 이상	17.3	57.8	21.8	3.1	100.0 (77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27>에 제시되어 있다. 혼전동

거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58.7%와 미혼여성의 51.8%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즉, 젊은층 사이에 혼전동거에 대한 관용태도가 배척태도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기간 연장,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만혼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젊은층 사이에 혼전동거가 부담스럽지 않게 수용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미혼남녀의 특성별(거주지, 연령, 교육수준)로도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통해볼 때, 이러한 성향은 보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27〉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남성	10.3	48.4	30.0	11.3	100.0 (1,729)	
거주지						
동부	10.4	48.9	29.1	11.6	100.0 (1534)	5.8
읍면부	9.7	45.1	36.9	8.2	100.0 (195)	
연령						
20~24세	10.7	49.7	28.7	11.0	100.0 (666)	
25~29세	8.5	49.1	29.9	12.5	100.0 (562)	14.7
30~34세	11.8	45.0	29.4	13.8	100.0 (289)	
35~44세	11.8	47.2	35.4	5.7	100.0 (21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8	50.0	26.5	11.8	100.0 (34)	
고졸	10.3	50.3	27.8	11.6	100.0 (1,009)	6.9
대졸 이상	10.1	45.6	33.5	10.8	100.0 (686)	
미혼여성	9.0	42.8	34.9	13.3	100.0 (1,580)	
거주지						
동부	9.3	42.7	34.6	13.3	100.0 (1446)	1.9
읍면부	5.9	43.0	37.8	13.3	100.0 (135)	
연령						
20~24세	9.9	43.7	33.8	12.7	100.0 (781)	
25~29세	8.8	42.4	33.3	15.5	100.0 (523)	12.8
30~34세	6.9	44.7	39.6	8.8	100.0 (159)	
35~44세	6.8	35.6	44.1	13.6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3	21.4	35.7	28.6	100.0 (14)	
고졸	8.7	44.7	33.7	12.9	100.0 (792)	6.4
대졸 이상	9.1	41.3	36.2	13.5	100.0 (7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20~44세)의 61.8%와 미혼여성(20~44세)의 52.3%가 찬성하고 있어, 미혼여성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혼전 성관계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미혼여성이 경우에는 연령별 태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미혼남녀의 거주지와 교육수준은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8〉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8.5	53.3	24.2	13.9	100.0 (1,729)	
거주지						
동부	8.5	54.0	24.0	13.5	100.0 (1,535)	3.4
읍면부	8.8	47.9	25.8	17.5	100.0 (194)	
연령						
20~24세	8.5	55.2	23.4	12.9	100.0 (667)	
25~29세	7.3	55.3	23.5	13.9	100.0 (562)	17.7 *
30~34세	11.8	47.8	22.5	18.0	100.0 (289)	
35~44세	7.1	49.8	31.3	11.8	100.0 (2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8	50.0	20.6	17.6	100.0 (34)	
고졸	9.7	53.3	22.5	14.5	100.0 (1,009)	9.8
대졸 이상	6.6	53.6	26.9	13.0	100.0 (687)	
미혼여성	6.3	46.0	31.5	16.2	100.0 (1,580)	
거주지						
동부	6.5	45.8	31.6	16.1	100.0 (1,446)	1.2
읍면부	4.5	48.5	29.9	17.2	100.0 (134)	
연령						
20~24세	6.2	48.2	31.0	14.6	100.0 (780)	
25~29세	6.1	44.9	30.0	18.9	100.0 (523)	8.9
30~34세	8.2	39.6	35.8	16.4	100.0 (159)	
35~44세	5.9	45.4	34.5	14.3	100.0 (119)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3	21.4	28.6	35.7	100.0 (14)	
고졸	6.2	46.6	31.4	15.8	100.0 (792)	6.8
대졸 이상	6.2	45.9	31.6	16.3	100.0 (7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본 조사에서는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견해들 이외에 혼전 임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미혼남녀(20~44세)에게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29>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혼전임신의 경우 반드시 낳아야 한다’가 21.5%, ‘가능하면 낳아야 한다’는 56.6%로 나타났다. ‘절대로 낳아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은 8.8%이며, 판단을 유보한 경우는 13.0%이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가 16.6%, ‘가능하면 낳아야 한다’ 60.7%로 나타났다. 혼전임신의 출산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10.6%이며, 11.6%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미혼남녀 모두 혼전임신을 출산하여야 한다는 태도가 우세하며 특히, 미혼남성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사이에 혼전임신을 절대 출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태도는 아주 낮으며, 다만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가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미혼남성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혼전임신을 출산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나, 다만 3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찬성태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 미혼남성들이 미혼모와 자녀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혼여성의 경우 사례수가 적은 중졸이하를 제외하면, 고학력층일수록 혼전임신의 출산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과 반대하는 경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고졸학력 여성들이 혼전임신의 출산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외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혼전임신의 출산여부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5-29〉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혼전임신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낳아야 한다	가능하면 낳는다	절대 낳아서는 않된다	모르겠다	기타	계(명)	χ^2
미혼남성	21.5	56.6	8.8	13.0	0.1	100.0 (1,732)	
거주지							
동부	21.2	57.0	8.8	12.9	0.1	100.0 (1,538)	1.3
읍·면부	24.2	54.6	7.7	13.4	-	100.0 (194)	
연령							
20~24세	21.9	56.3	9.0	12.9	-	100.0 (668)	
20~29세	22.0	58.3	7.8	11.9	-	100.0 (563)	28.4 **
30~34세	21.3	60.1	9.3	9.3	-	100.0 (291)	
35~44세	19.4	48.3	10.0	21.8	0.5	100.0 (2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2	45.5	6.1	33.3	-	100.0 (33)	
고졸	21.1	56.8	9.2	13.0	-	100.0 (1,011)	15.3
대졸 이상	22.6	57.2	8.2	11.9	0.1	100.0 (687)	
미혼여성	16.6	60.7	10.6	11.6	0.5	100.0 (1,577)	
거주지							
동부	16.4	61.0	10.4	11.7	0.6	100.0 (1,446)	1.8
읍·면부	17.6	58.0	13.0	11.5	-	100.0 (131)	
연령							
20~24세	15.0	62.1	10.0	12.6	0.3	100.0 (778)	
20~29세	18.0	60.7	10.6	10.0	0.8	100.0 (521)	10.0
30~34세	17.1	60.8	11.4	10.1	0.6	100.0 (158)	
35~44세	19.5	53.4	12.7	14.4	-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8.6	35.7	7.1	28.6	-	100.0 (14)	
고졸	14.8	61.9	10.4	12.3	0.6	100.0 (790)	11.4
대졸 이상	18.1	60.2	10.9	10.6	0.3	100.0 (7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본 조사에서 나타난 혼전임신의 출산여부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표 5-30), 미혼모(부)와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큰데다가, 실제 미혼모(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오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나마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서, 혼전임신이 발생할 경우 인공유산(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30> 미혼남녀(20~44세)의 혼전임신의 출산여부에 대한 의식 비교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놓아야 한다	가능하면 놓는다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모르겠다	기타	계(명)
미혼 남성	2005 25.3	61.4	5.5	7.6	0.2	100.0 (1,463)
2009	21.5	56.6	8.8	13.0	0.1	100.0 (1,732)
미혼 여성	2005 14.5	68.6	7.7	8.6	0.5	100.0 (1,203)
2009	16.6	60.7	10.6	11.6	0.5	100.0 (1,577)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들에 대한 미혼남녀의 의식수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5-3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찬성태도는 ‘전적으로 찬성’과 ‘대체로 찬성’ 비율의 합이다.

결혼이나 가족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한 미혼남성의 찬성태도는 결혼시 가족간관계 우선 78.9%, 재혼 73.3%, 혼전성관계 61.8%, 이혼 61.4%, 혼전동거 58.7%, 입양 54.4%, 유자녀 이혼 53.7%, 한부모가족 53.2%, 미혼모(부) 36.4%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결혼시 가족간 관계 우선, 이혼, 유자녀 이혼, 혼전동거,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등에 대한 찬성태도는 높아진 반면, 재혼, 입양, 혼전성관계 등에 대한 찬성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 찬성태도는 재혼 73.7%, 이혼 66.9%, 결혼시 가족간 관계 우선 74.0%, 유자녀 이혼 61.5%, 한부모가족 60.4%, 입양 57.2%, 혼전성관계 52.3%, 혼전동거 51.8%, 미혼모(부) 36.5%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혼, 유자녀 이혼, 미혼모(부), 혼전성관계, 혼전동거 등에 대한 찬성태도가 높아진 반면, 재혼, 입양, 결혼시 가족간 관계 우선,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찬성태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가족관련 견해에 대한 의식(찬성태도) 종합

(단위 : %)

문 항	미혼남성		미혼여성	
	2005	2009	2005	2009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가족간 관계 우선)	71.9	78.9	76.1	74.0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이혼)	49.2	61.4	65.0	66.9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유자녀 이혼)	37.9	53.7	56.4	61.5

〈표 5-31〉 계속

(단위 : %)

문 항	미혼남성		미혼여성	
	2005	2009	2005	2009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재혼)	79.6	73.3	79.8	73.7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한부모가족)	45.1	53.2	61.8	60.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기질 수 있다(미혼모·부)	19.8	36.4	22.0	36.5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입양)	61.5	54.4	67.5	57.2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혼전동거)	57.5	58.7	44.7	51.8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기질 수 있다(혼전성관계)	64.2	61.8	40.9	52.3

주 : 찬성태도는 ‘매우 찬성’과 ‘대체로 찬성’ 비율의 합임.

이상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남녀 모두 미혼모(부)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할 뿐, 나머지 결혼 및 가족 관련 가치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식이 더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혼전동거나 혼전성관계에 관한 태도와 연계해보면 다소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미혼남녀들은 혼전 성관계나 동거는 수용할 수 있을지라도, ‘미혼모(부)’가 되는 것은 당사자나 출산 자녀들 모두에게 불행을 주는 무책임한 행동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2005년과 2009년 조사 간 비교에서 혼전임신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유보적인 입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만혼화 등에 따라 가족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수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실제 2005년 조사와 2009년 조사 간 비교에서 대부분 가족 관련 견해들에 대한 미혼남녀의 수용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재혼, 입양 및 혼전성관계에 대한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재혼, 입양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남녀 모두 새로운 가족성원의 추가와 관련된 재혼이나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셋째, 사회통념적으로 남성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결혼시 가족간 관

계 우선, 혼전성관계, 혼전동거 등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이혼, 재혼,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입양 등 가족 형성과 해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혼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유스러워 지려는 경향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5. 미혼남녀의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32>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9.7%와 미혼여성의 65.0%가 각각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성별역할분업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미혼남성은 물론 미혼여성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혼여성의 경우 고학력층일수록 성별역할분업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학력 미혼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양성평등관련 교육 등의 기회가 잦고, 의식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미혼남녀의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남녀 간에 다소 혼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취업남성이 비취업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찬성하고 있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경제활동상태의 입장에서 동 견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외 일반특성별로 동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5-32〉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20.4	49.3	27.2	3.1	100.0 (1,733)	
거주지						
동부	20.5	49.0	27.4	3.1	100.0 (1,539)	
읍면부	20.1	51.0	25.8	3.1	100.0 (194)	0.3
연령						
20~24세	18.6	50.3	28.0	3.1	100.0 (668)	
25~29세	22.4	47.6	27.0	3.0	100.0 (563)	
30~34세	22.0	47.1	28.2	2.7	100.0 (291)	5.9
35~44세	18.5	53.6	24.2	3.8	100.0 (2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26.5	41.2	29.4	2.9	100.0 (34)	
고졸	21.3	50.7	25.6	2.4	100.0 (1,013)	10.2
대졸 이상	18.8	47.5	29.5	4.2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23.1	48.5	25.3	3.1	100.0 (872)	
비취업	17.7	50.1	29.1	3.1	100.0 (851)	8.4 *
학생	18.2	51.6	27.3	2.9	100.0 (545)	
기타	17.0	47.4	32.4	3.3	100.0 (306)	
미혼여성	17.4	47.6	29.0	6.0	100.0 (1,579)	
거주지						
동부	17.8	47.8	28.7	5.7	100.0 (1,445)	
읍면부	13.4	46.3	32.1	8.2	100.0 (134)	3.1
연령						
20~24세	19.7	45.8	28.5	6.0	100.0 (780)	
25~29세	14.1	49.2	30.7	5.9	100.0 (524)	
30~34세	12.7	57.0	25.9	4.4	100.0 (158)	17.1 *
35~44세	23.1	41.0	28.2	7.7	100.0 (1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35.7	35.7	28.6	-	100.0 (14)	
고졸	20.7	46.2	27.5	5.7	100.0 (793)	17.3 **
대졸 이상	13.7	49.4	30.4	6.5	100.0 (773)	
취업여부						
취업	14.8	50.3	28.2	6.6	100.0 (862)	
비취업	20.6	44.4	29.8	5.2	100.0 (714)	12.0 **
학생	21.7	44.4	29.0	5.0	100.0 (480)	
기타	18.0	44.6	31.8	5.6	100.0 (2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6.9%와 미혼여성의 52.9%가 각각 찬성하고 있다(표 5-33).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녀 모두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높으나, 미혼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찬성정도가 낮아 가정 내 노부모 돌봄기능에 대한 남성의 역할 증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정내 노부모 돌봄에 대한 부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견해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혼남성의 취업여부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미혼남성이 비취업 미혼남성보다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다소 높다. 비취업 미혼남성의 경우 매우 찬성하거나 찬성하지 않은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양극단적인 경향을 보인다.

〈표 5-33〉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남성	15.0	51.9	29.1	4.0	100.0 (1,732)	
거주지						
동부	15.4	51.6	29.2	3.8	100.0 (1,537)	2.2
읍면부	12.4	54.6	27.8	5.2	100.0 (194)	
연령						
20~24세	14.9	51.6	29.0	4.5	100.0 (669)	9.4
25~29세	13.9	54.8	26.9	4.4	100.0 (562)	
30~34세	16.9	49.3	32.1	1.7	100.0 (290)	
35~44세	15.7	49.0	31.0	4.3	100.0 (210)	
교육수준						
중졸이하	17.6	61.8	14.7	5.9	100.0 (34)	4.3
고졸	15.4	51.4	29.0	4.2	100.0 (1,011)	
대졸이상	14.3	52.0	30.0	3.8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14.8	52.9	29.6	2.6	100.0 (871)	8.9 *
비취업	15.4	50.8	28.4	5.4	100.0 (852)	
학생	14.5	51.6	29.2	4.8	100.0 (545)	
기타	17.0	49.3	27.1	6.5	100.0 (30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33〉 계속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여성	12.2	40.7	38.9	8.2	100.0 (1,579)	
거주지						
동부	12.9	41.1	38.3	7.7	100.0 (1,444)	12.5 **
읍면부	6.0	35.1	45.5	13.4	100.0 (134)	
연령						
20~24세	12.4	40.6	38.8	8.1	100.0 (780)	7.1
25~29세	11.3	40.3	38.8	9.6	100.0 (523)	
30~34세	16.5	41.1	35.4	7.0	100.0 (158)	
35~44세	10.3	41.0	43.6	5.1	100.0 (11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3	57.1	21.4	7.1	100.0 (14)	2.4
고졸	12.3	41.1	38.6	8.1	100.0 (791)	
대졸 이상	12.2	39.8	39.6	8.4	100.0 (773)	
취업여부						
취업	12.2	39.4	39.3	9.2	100.0 (861)	2.9
비취업	12.3	42.3	38.2	7.1	100.0 (714)	
학생	14.2	41.9	37.7	6.3	100.0 (480)	
기타	8.5	43.2	39.3	9.0	100.0 (23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34>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4.0%와 미혼여성의 76.2%가 찬성하고 있어, 미혼남녀 공히 여성(모) 취업과 자녀관계와의 연관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고학력층 미혼여성의 경우, 동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로는, 미혼남녀들이 맞벌이인 경우에 자녀들을 보육시설 등에 맡겨 자녀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이 곤란할 경우, 미혼남녀의 기대가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미혼남녀의 일반적인 특성별(미혼여성의 교육수준 제외)로 동 견해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5-34〉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남성	13.5	60.5	24.4	1.7	100.0 (1,732)	
거주지						
동부	13.3	60.7	24.2	1.8	100.0 (1,537)	1.0
읍면부	14.4	58.8	25.8	1.0	100.0 (194)	
연령						
20~24세	16.4	59.5	22.0	2.1	100.0 (669)	14.3
25~29세	11.0	61.8	25.2	2.0	100.0 (563)	
30~34세	11.7	61.0	26.6	0.7	100.0 (290)	
35~44세	12.9	59.0	27.1	1.0	100.0 (210)	
교육수준						
중졸이하	8.8	58.8	29.4	2.9	100.0 (34)	9.2
고졸	15.3	58.9	23.9	1.9	100.0 (1,011)	
대졸이상	10.9	62.9	24.9	1.3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12.4	61.3	25.0	1.3	100.0 (871)	3.7
비취업	14.5	59.4	24.0	2.1	100.0 (850)	
학생	16.4	58.8	22.1	2.8	100.0 (544)	
기타	11.1	60.5	27.5	1.0	100.0 (306)	
미혼여성	14.5	61.7	21.6	2.2	100.0 (1,577)	
거주지						
동부	15.0	62.0	21.2	1.9	100.0 (1,443)	12.5 **
읍면부	9.8	59.4	24.8	6.0	100.0 (133)	
연령						
20~24세	15.5	61.3	21.9	1.3	100.0 (780)	14.7
25~29세	15.1	59.8	21.5	3.6	100.0 (522)	
30~34세	12.7	63.7	21.7	1.9	100.0 (157)	
35~44세	7.7	70.1	19.7	2.6	100.0 (117)	
교육수준						
중졸이하	7.1	57.1	14.3	21.4	100.0 (14)	29.1 ***
고졸	12.9	61.9	23.3	1.9	100.0 (791)	
대졸이상	16.3	61.5	19.9	2.3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14.3	61.7	21.5	2.4	100.0 (860)	0.5
비취업	14.7	61.8	21.6	2.0	100.0 (714)	
학생	13.8	62.3	22.5	1.5	100.0 (480)	
기타	16.7	60.7	19.7	3.0	100.0 (234)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5~44세)의 태도를 살펴보면(표 5-35), 미혼남성의 73.3%와 미혼여성의 75.0%가 각각 찬성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서 2인가구소득모형(맞벌이)이 1인가구소득모형(홀벌이)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남녀 중 상당 비율이 여전히 남성의 가계 책임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생활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의식이 쉽게 변화하지 않거나 또는 더디게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치관은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5-35〉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남성	18.9	54.4	24.4	2.4	100.0 (1,732)	
거주지						12.7 **
동부	19.6	54.7	23.2	2.5	100.0 (1,537)	
읍면부	13.0	52.8	33.2	1.0	100.0 (193)	
연령						8.3
20~24세	18.6	53.9	25.4	2.1	100.0 (668)	
25~29세	18.9	55.0	24.2	2.0	100.0 (562)	
30~34세	22.3	50.9	24.1	2.7	100.0 (291)	
35~44세	15.7	59.0	21.4	3.8	100.0 (210)	
교육수준						7.3
중졸이하	30.3	36.4	30.3	3.0	100.0 (33)	
고졸	18.6	56.0	22.9	2.5	100.0 (1,011)	
대졸이상	18.8	53.0	26.1	2.2	100.0 (687)	
취업여부						6.6
취업	20.8	52.8	24.6	1.8	100.0 (871)	
비취업	16.7	56.4	24.1	2.8	100.0 (850)	
학생	16.1	59.3	21.8	2.8	100.0 (545)	
기타	17.6	51.0	28.1	3.3	100.0 (306)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35〉 계속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계 (명)	χ^2
미혼여성	22.9	52.1	22.5	2.5	100.0 (1,579)	
거주지						
동부	23.8	51.1	22.5	2.6	100.0 (1,445)	12.0**
읍면부	12.7	63.4	23.1	0.7	100.0 (134)	
연령						
20~24세	24.1	51.0	22.2	2.7	100.0 (780)	
25~29세	20.1	55.4	21.8	2.7	100.0 (523)	9.5
30~34세	25.8	51.6	21.4	1.3	100.0 (159)	
35~44세	22.9	45.8	29.7	1.7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42.9	35.7	14.3	7.1	100.0 (14)	
고졸	24.4	50.1	22.9	2.7	100.0 (791)	8.8
대졸이상	20.9	54.5	22.4	2.2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23.6	53.3	20.8	2.3	100.0 (861)	3.4
비취업	22.1	50.8	24.5	2.7	100.0 (715)	
학생	23.8	51.4	23.0	1.9	100.0 (479)	
기타	18.8	49.6	27.8	3.8	100.0 (234)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5-36>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80.1%와 미혼여성의 87.4%가 각각 찬성하여, 미혼남녀 공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태도는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더욱 우세하며, 다른 일반특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5-36〉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남성	16.1	64.0	18.9	1.0	100.0 (1,732)	
거주지						
동부	16.5	63.7	18.6	1.2	100.0 (1,537)	5.0
읍면부	12.3	66.7	21.0	0.0	100.0 (195)	
연령						
20~24세	18.4	62.3	18.5	0.7	100.0 (669)	10.3
25~29세	14.6	64.9	19.6	0.9	100.0 (562)	
30~34세	16.5	62.2	19.2	2.1	100.0 (291)	
35~44세	12.3	69.2	17.5	0.9	100.0 (211)	
교육수준						
중졸이하	14.7	64.7	17.6	2.9	100.0 (34)	4.5
고졸	16.4	65.0	17.8	0.8	100.0 (1,010)	
대졸이상	15.4	62.7	20.5	1.3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14.9	65.3	18.8	0.9	100.0 (871)	1.9
비취업	17.0	62.8	19.0	1.2	100.0 (852)	
학생	18.2	61.9	18.8	1.1	100.0 (544)	
기타	14.7	64.7	19.6	1.0	100.0 (306)	
미혼여성	21.4	66.0	12.0	0.6	100.0 (1,578)	
거주지						
동부	21.0	66.2	12.2	0.6	100.0 (1,445)	2.8
읍면부	26.1	63.4	10.4	0.0	100.0 (134)	
연령						
20~24세	22.8	63.1	13.3	0.8	100.0 (780)	12.5
25~29세	20.0	69.7	9.5	0.8	100.0 (524)	
30~34세	23.4	64.6	12.0	-	100.0 (158)	
35~44세	15.3	70.3	14.4	-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14.3	71.4	14.3	-	100.0 (14)	4.1
고졸	21.7	66.1	11.3	0.9	100.0 (791)	
대졸이상	21.3	65.6	12.8	0.3	100.0 (773)	
취업여부						
취업	20.3	68.2	11.0	0.5	100.0 (861)	4.7
비취업	22.8	63.3	13.0	0.8	100.0 (714)	
학생	22.5	63.1	13.3	1.0	100.0 (480)	
기타	23.4	63.4	12.8	0.4	100.0 (235)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05, ** p<0.01, *** p<0.001

가족 내 부부역할에 관한 미혼남녀의 인식 변화는 <표 5-37>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와 함의는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들에 대한 찬성정도(매우 찬성+대체로 찬성)는 미혼남녀 공히 ‘남편의 육아 참여’, ‘여성 취업과 자녀관계 양립’, ‘맞벌이부부도 남편의 생계책임 중요’, ‘성별역할구분’, ‘여성의 노부모 돌봄기능’ 등의 순이며, 모두 반대 보다 찬성 태도가 더 우세하다. 다양한 견해들에 대한 인식수준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부역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에 따라 남편의 육아참여, 취업모-자녀간 관계유지 등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가족 내 일(노인돌봄 등 포함)은 아내가 하고 직장일(특히 생계 책임)은 남편이 하여야 한다는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아 미혼남녀들의 인식 변화와 실제 가족 생활 변화 간에 어느 정도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둘째,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미혼남녀 간 인식수준 차이에 관한 함의이다. ‘성별역할구분’과 ‘여성의 노부모 돌봄기능’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이 더 찬성하고 있으며, ‘여성 취업과 자녀관계 양립’, ‘맞벌이부부도 남편의 생계책임 중요’ 및 ‘남편의 육아 참여’에 대해서는 미혼여성이 더 찬성하고 있다. ‘성별역할구분’과 ‘여성의 노부모 돌봄기능’에 대한 미혼남녀 간 태도를 비교해 본 결과, 미혼여성보다 미혼남성들이 남편일과 아내일을 구분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남편의 육아 참여나 취업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이 더 찬성하고 있어, 여성으로서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인 경우에도 남편의 생계책임이 중요하다는 의식이 미혼남성에 비해 오히려 강하고, 성별역할구분에 대한 찬성도도 여전히 우세한 점은 미혼여성들 사이에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37〉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미혼남성(20~44세)의 태도 종합

문항	(단위 : %)	
	미혼남성	미혼여성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69.7	65.0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73.3	75.0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66.9	52.8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73.9	76.2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80.1	87.4

주: 찬성태도는 ‘매우 찬성’과 ‘대체로 찬성’ 비율의 합임.

제2절 미혼남녀의 본인 결혼에 관한 태도

1.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본 조사에서는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본인의 결혼 의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미혼남성(75.7%)보다 미혼여성(73.1%)의 결혼 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결혼 의향이 없는 비율은 미혼남성의 경우 7.6%(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5.8%,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1.8%)이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10.0%(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6.8%,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3.2%)로 상대적으로 더 높다. 과거에 결혼할 생각이었으나 지금은 의향이 없다는 이른바 결혼관의 변화는 고용 등 외부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을 유보하는 비율도 미혼남성 9.5%, 미혼여성 9.2%로 비교적 높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앞서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결혼 결정에 있어 개인의 가치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2009년도 조사결과 2005년 조사결과 간에 비교해 보면(표 5-38), 미혼남녀 공히 결혼의향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의 결혼의향 비율은 2005년 82.5%에서 2009년 75.7%로, 그리고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비율은 73.8%에서 73.1%로 낮아졌

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사회분위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결혼의향은 현실적인 문제(고용, 소득, 배우자 선택 등)에 의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최근의 사회여건이 결혼 선택에 결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38>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명)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계 (명)
미혼	2005	82.5	4.2	1.4	3.3	8.7	100.0 (1,465)
남성	2009	75.7	5.8	1.8	7.2	9.5	100.0 (1,730)
미혼	2005	73.8	5.5	3.3	5.2	12.2	100.0 (1,203)
여성	2009	73.1	6.8	3.2	7.7	9.2	100.0 (1,581)

자료: 2005년 자료는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6. 2009년도 전국 결혼 출산 동향조사.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 의향은 <표 5-39>와 <표 5-40>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특성과 연관된 많은 요인들이 결혼 의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혼남성의 연령별 결혼의향은 25~34세 80% 이상, 20~24세 77.1%, 35세 이상 51.2% 순이며, 미혼여성의 연령별 결혼의향은 20~29세 77.2%, 30~34세 65.2%, 35세 이상 39.5% 순으로 나타난다. 저연령층 미혼여성에게서 결혼 의향이 없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 향후 비혼화(생애독신)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의향이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자발적 요인(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요인(좁은 배우자선택의 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혼 의향을 변경한(결혼할 의향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5~44세 미혼남성의 19.0% 그리고 35~44세 미혼여성의 31.9%가 결혼의

향을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연령층일수록 적합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marriage market mismatching) 결혼을 포기하거나, 직업 안정,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혼 필요성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은 중졸이하 52.9%, 고졸 74.8%, 대졸이상 78.1%로 고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일종의 결혼경사현상(marriage gradient)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남성은 대개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수준 등)가 자신보다 낮은 여성들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미혼남성은 그만큼 결혼 선택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은 중졸이하 57.1%, 고졸 73.6%, 대졸이상 73.1% 등으로 나타난다.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중졸이하 저학력층 미혼여성은 배우자 선택의 폭이 좁아서 결혼의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대졸이상 고학력층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 고졸 학력층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결혼경사현상(특히 대학원 이상인 경우) 또는 경제적 지위 등 확보로 인한 결혼 필요성 감소로 설명될 수 있다.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은 부모가 이혼·별거·재혼을 경험한 경우에 63.2%로 그렇지 않은 경우 7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 다른 특징으로 부모의 이혼·별거·재혼을 경험한 미혼여성은 그렇지 않은 미혼여성에 비해 과거(성장기)부터 결혼할 의향을 갖지 않았거나 결혼 결정을 유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과거부터 결혼의향이 없는 비율은 부모의 이혼·별거·재혼 경험시 5.6%, 무경험시 2.9%이며, 결혼결정 유보 비율은 경험시 16.8%, 무경험시 8.6%로 각각 나타난다. 이러한 성향은 미혼남녀 공히 형제자매의 이혼·별거·재혼 여부에 따라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미혼남성의 경우 부모의 이혼·별거·재혼 여부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이혼·별거·재혼은 남성자녀보다 여성자녀에게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는 유추를

해볼 수 있다.

미혼남녀 공히 부모와 동거의 경우에 비해 비동거의 경우에 결혼포기의 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치관)에서 동거보다 비동거의 경우에 더 부정적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와 비동거 미혼남성의 결혼포기의향은 9.0%로 부모와 동거 미혼남녀의 5.0%에 비해 높았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결혼포기의향은 부모 동거 경우(5.2%)에 비해 부모 비동거 경우(13.7%)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남녀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정도 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을수록 결혼포기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공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남녀일수록 직업이나 소득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러한 독립성은 미혼남녀로 하여금 결혼 필요성뿐만 아니라 의향까지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혼남녀 공히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본인의 결혼의향은 대체적으로 정적 관계를 보여, 평소의 결혼가치관이 결혼 이행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를 보인 집단은 88.7%가 결혼의향이 있는 반면, 결혼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하지 않은 편이 낫다’)를 보인 집단은 4.8%만이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또는 응답을 유보한 집단의 경우에는 절반정도(49.0%)가 결혼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혼여성의 결혼의향비율도 결혼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 89.1%, 부정적인 집단 13.3%, 중립(유보)적인 집단 48.6%로 미혼남성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소 흥미로운 점은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결혼할 의향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비혼에 대한 보다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여성의 경우 사회관습적으로 본인의 비혼에 대한 의지 표명이 억

제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결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미혼남녀의 약 10%가 실제로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본인의 가치관과 달리 결혼 여건(장애요인 등) 때문에 결혼을 포기할 의향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경제활동상태는 학생을 제외한 취업과 비취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미혼남녀 공히 비취업(학생제외) 집단에 비해 취업 집단의 결혼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결혼 선택을 유보한 비율은 반대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의 결혼의향 비율은 취업시 78.2%, 비취업시 66.2%, 미혼여성의 경우 취업시 72.3%, 비취업시 70.8%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취업 상태에 따른 소득 및 고용 불확실성 등의 상황이 결혼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5-39〉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계 (명)	χ^2
전체	75.7	5.8	1.8	7.2	9.5	100.0 (1,730)	
거주지							
동부	76.0	5.6	1.6	7.6	9.3	100.0 (1,536)	8.5
읍·면부	73.7	7.2	3.6	4.1	11.3	100.0 (194)	
연령							
20~24세	77.1	3.2	1.5	9.9	8.3	100.0 (665)	136.6 ***
25~29세	80.7	3.9	1.4	5.7	8.3	100.0 (564)	
30~34세	80.4	5.8	1.0	2.7	10.0	100.0 (291)	
35~44세	51.2	19.0	4.7	8.5	16.6	100.0 (2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52.9	17.6	2.9	11.8	14.7	100.0 (34)	30.3 ***
고졸	74.8	5.8	2.3	8.8	8.3	100.0 (1,010)	
대졸 이상	78.1	5.2	1.2	4.5	11.0	100.0 (688)	
부모의 이혼·별거 유무							
있다	67.8	5.1	3.4	11.9	11.9	100.0 (118)	7.6
없다	76.2	5.9	1.7	6.8	9.4	100.0 (1,612)	
형제·자매 이혼·별거 유무							
있다	48.4	26.6	3.1	4.7	17.2	100.0 (64)	46.6 ***
없다	78.5	5.8	1.4	5.0	9.3	100.0 (77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39〉 계속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계 (명)	χ^2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76.1	5.0	1.6	7.7	9.7	100.0 (1,384)	12.4 *
비동거	74.5	9.0	2.6	4.9	9.0	100.0 (345)	
경제적 독립 정도							
전적으로 받음	74.3	3.8	1.9	9.5	10.4	100.0 (681)	34.7 **
50%이상 받음	79.0	3.1	1.2	6.8	9.9	100.0 (162)	
50%미만 받음	83.2	4.6	1.5	3.0	7.6	100.0 (197)	
전혀 받지않음	74.1	9.1	1.9	6.1	8.8	100.0 (672)	
결혼필요성 대한 태도¹⁾							
긍정적 태도	88.7	2.2	0.2	5.0	3.8	100.0 (1,207)	671.0 ***
부정적 태도	4.8	31.0	35.7	16.7	11.9	100.0 (42)	
유보적 태도	49.0	12.7	2.7	12.0	23.7	100.0 (482)	
취업여부							
취업	78.2	6.8	1.7	4.9	8.4	100.0 (872)	18.6 **
비취업	73.1	4.8	1.9	9.3	10.8	100.0 (849)	
학생	77.4	2.8	1.5	10.0	8.3	100.0 (541)	
기타	66.2	8.2	2.6	7.9	15.1	100.0 (30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긍정적 태도 : 반드시 해야 한다 + 하는 편이 좋다 / 부정적 태도 : 하지 않는 편이 낫다 / 유보적인 태도 :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 모르겠다

〈표 5-40〉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계 (명)	χ^2
전체	73.1	6.8	3.2	7.7	9.2	100.0 (1,581)	4.7
거주지							
동부	73.4	6.5	3.0	7.6	9.5	100.0 (1,447)	
읍·면부	70.9	10.4	4.5	7.5	6.7	100.0 (134)	
연령							
20~24세	77.2	2.1	3.1	9.6	8.1	100.0 (780)	217.6 ***
25~29세	77.2	4.6	2.9	6.1	9.2	100.0 (523)	
30~34세	65.2	19.0	3.2	1.3	11.4	100.0 (158)	
35~44세	39.5	31.9	5.0	9.2	14.2	100.0 (119)	
교육수준							
중졸 이하	57.1	14.3	-	28.6	-	100.0 (14)	19.4 *
고졸	73.6	5.6	2.5	8.6	9.7	100.0 (791)	
대졸 이상	73.1	7.9	3.7	6.3	8.9	100.0 (774)	

〈표 5-40〉 계속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계 (명)	χ^2
부모의 이혼·별거 유무							
있다	63.2	5.6	5.6	8.8	16.8	100.0 (125)	13.5 **
없다	74.1	6.9	2.9	7.5	8.6	100.0 (1,452)	
형제·자매 이혼·별거 유무							
있다	58.2	7.3	7.3	7.3	20.0	100.0 (55)	14.6 **
없다	73.5	9.6	1.9	6.1	8.8	100.0 (622)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73.8	5.2	3.3	8.8	8.9	100.0 (1,281)	40.4 ***
비동거	70.6	13.7	2.7	2.3	10.7	100.0 (299)	
경제적 독립 정도							
전적으로 받음	73.3	2.7	2.9	10.7	10.3	100.0 (619)	57.9 ***
50%이상 받음	73.6	6.1	2.7	10.1	7.4	100.0 (148)	
50%미만 받음	77.0	5.6	2.0	5.6	9.7	100.0 (196)	
전혀 받지않음	71.3	11.8	3.8	4.6	8.5	100.0 (603)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¹⁾							
긍정적 태도	89.1	3.2	0.6	3.4	3.7	100.0 (999)	459.7 ***
부정적 태도	13.3	37.8	24.4	17.8	6.7	100.0 (45)	
유보적 태도	48.6	11.0	6.0	14.5	19.9	100.0 (537)	
취업여부							
취업	72.3	9.6	3.1	5.7	9.3	100.0 (862)	30.9 ***
비취업	74.2	3.5	3.1	9.9	9.2	100.0 (714)	
학생	76.0	1.9	2.7	10.4	9.0	100.0 (480)	
기타	70.8	6.9	3.9	8.6	9.9	100.0 (23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긍정적 태도 : 반드시 해야 한다 + 하는 편이 좋다 / 부정적 태도 : 하지 않는 편이 낫다 / 유보적인 태도 :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 모르겠다

취업 중인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의향은 <표 5-41>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녀의 직업, 종사상지위, 주당 평균근로시간 등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다만, 미혼남성의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결혼의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 100만원이하 64.0%, 200만원이상 73.4%, 100~150만원미만 82.6%, 150~200만원미만 83.3% 순으로,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낮다. 이를 통해 남성의 소득불안정이 결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5-41〉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이직 결정 하지 못했다.	계 (명)	χ^2
미혼남성	78.2	6.8	1.7	4.9	8.4	100.0 (872)	
직종							
고위관리·(준)전문직	75.1	5.9	1.6	6.5	10.8	100.0 (185)	20.6
사무직	82.6	5.8	1.0	3.8	6.8	100.0 (293)	
서비스·판매업	78.8	5.7	1.9	4.2	9.5	100.0 (264)	
생산·단순노무직 등	70.2	13.2	3.5	7.9	5.3	100.0 (114)	
종사상 지위 ¹⁾							
비임금근로자	74.4	11.0	2.4	4.9	7.3	100.0 (82)	3.7
상용직	79.1	6.3	1.6	4.5	8.5	100.0 (575)	
임시·일용직	76.8	7.4	1.5	5.9	8.4	100.0 (203)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64.0	10.0	-	14.0	12.0	100.0 (50)	30.5 **
100~150만원	82.6	3.6	1.5	4.1	8.2	100.0 (195)	
150~200만원	83.3	7.3	0.8	4.5	4.1	100.0 (246)	
200만원이상	73.4	7.9	2.7	4.5	11.5	100.0 (331)	
주당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87.7	3.1	-	-	9.2	100.0 (65)	18.6
36~45시간	72.0	7.5	3.1	7.9	9.4	100.0 (254)	
45~61시간	79.7	7.0	1.2	4.7	7.4	100.0 (488)	
61시간 이상	80.0	8.9	-	2.2	8.9	100.0 (45)	
미혼여성	72.3	9.6	3.1	5.7	9.3	100.0 (862)	
직종($\chi^2=$)							
고위관리·(준)전문직	69.2	6.9	3.8	7.7	12.3	100.0 (130)	15.8
사무직	76.3	8.7	3.3	4.9	6.8	100.0 (427)	
서비스·판매업	68.0	12.3	2.9	5.3	11.5	100.0 (244)	
생산·단순노무직 등	66.7	6.7	2.2	11.1	13.3	100.0 (45)	
종사상 지위 ¹⁾							
비임금근로자	75.0	13.5	-	1.9	9.6	100.0 (52)	6.6
상용직	72.3	8.5	3.3	6.3	9.7	100.0 (639)	
임시·일용직	72.3	11.6	3.2	5.8	7.1	100.0 (155)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72.9	7.1	1.4	10.0	8.6	100.0 (70)	14.7
100~150만원	74.9	7.2	3.6	4.9	9.4	100.0 (223)	
150~200만원	73.8	10.0	2.9	7.5	5.8	100.0 (240)	
200만원 이상	68.3	12.8	3.0	4.5	11.3	100.0 (265)	
주당 평균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70.5	7.7	5.1	2.6	14.1	100.0 (78)	15.7
36~45시간	71.6	8.8	4.7	7.8	7.1	100.0 (296)	
45~61시간	73.5	10.5	1.6	4.8	9.6	100.0 (438)	
61시간 이상	69.0	10.3	3.4	6.9	10.3	100.0 (29)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연령

미혼남성(20~44세)이 계획하고 있는 본인의 결혼연령은 30~31세 37.0%, 32~34세 26.2%, 35세이상 17.2%로 평균 32.1세이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30~31세 35.6%, 28~29세 27.9%, 32~34세 15.4%로 평균 30.6세이다. 동 조사결과는 2005년 조사결과(미혼남성 31.8세, 미혼여성 29.7세)와 2008년도 실제(통계청 보도자료) 평균초혼연령(남성 31.4세, 여성 28.3세)에 비해 높다. 이는 향후에도 만혼화현상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표 5-42>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결혼계획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20-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계 (명)	평균연령
미혼 남성 2005	7.6	19.6	34.6	22.8	15.4	100.0 (1,188)	31.75
미혼 남성 2009	5.1	14.5	37.0	26.2	17.2	100.0 (1,230)	32.05
미혼 여성 2005	25.5	32.7	26.1	10.2	5.5	100.0 (871)	29.72
미혼 여성 2009	12.9	27.9	35.6	15.4	8.2	100.0 (1,112)	30.58

자료: 2005년도 자료는 이삼식 외,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6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계획연령은 <표 5-43>과 <표 5-44>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연령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혼남녀 공히 현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계획연령도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며, 이는 센서링(censoring) 효과로도 볼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연령은 고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의 평균결혼계획연령은 대졸이상 32.8세, 고졸 31.5세 순이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대졸이상 31.2세, 고졸 30.1세 순이다. 고학력일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교육기간 연장, 취업, 능력 개발, 경력 축적 등과 연관성이 높을 수 있다. 한편, 미혼남녀 공히 중졸이하의 집단은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연령은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미혼남녀 공히 긍정적인 결혼가치관(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낫다’)을 가진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결혼계획연령이 낮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 결혼계획연령은 31.4세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집단의 32.9세보다 낮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29.7세와 31.0세로 각각 나타나, 결혼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결혼계획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

미혼남녀의 취업여부별 결혼계획연령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취업 미혼남성의 결혼계획연령은 33.0세로 비취업 미혼남성의 31.1세에 비해 1.9세가 높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취업 여성 31.3세, 비취업 여성 29.7세로 1.6세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자일수록 교육기간 연장, 자기 개발, 경력 축적 등을 이유로 결혼을 늦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3〉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계획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미혼남성					계 (명)	평균 연령
	20-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전체	5.1	14.5	37.0	26.2	17.2	100.0 (1,230)	32.06
지역($\chi^2=6.2$)							
동부	5.5	13.9	36.9	26.0	17.7	100.0 (1,104)	32.06
읍·면부	1.6	18.4	38.4	28.0	13.6	100.0 (125)	32.03
연령($\chi^2=734.5^{***}$)							
20~24세	10.2	23.2	44.4	18.9	3.3	100.0 (509)	30.47
25~29세	2.4	13.3	46.3	31.9	6.0	100.0 (451)	31.43
30~34세	-	-	10.1	41.2	48.7	100.0 (199)	34.51
35~44세	-	-	-	-	100.0	100.0 (71)	40.53
교육수준($\chi^2=70.2^{***}$)							
중졸 이하	-	6.3	25.0	31.3	37.5	100.0 (16)	34.50
고졸	7.7	16.8	40.0	24.0	11.5	100.0 (713)	31.45
대졸 이상	1.6	11.4	33.3	29.1	24.7	100.0 (502)	32.84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chi^2=45.9^{***}$)							
반드시 해야 한다	6.2	21.4	38.9	22.5	11.0	100.0 (355)	31.42
하는 편이 좋다	5.1	12.3	37.2	27.8	17.6	100.0 (643)	32.09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2.8	9.4	35.2	26.3	26.3	100.0 (213)	32.92
모르겠다	12.5	12.5	18.8	31.3	25.0	100.0 (16)	32.82
취업여부($\chi^2=146.0^{***}$)							
취업	3.0	10.7	31.0	28.0	27.3	100.0 (633)	32.98
비취업	7.3	18.3	43.3	24.4	6.6	100.0 (589)	31.09
학생	8.5	21.5	46.1	20.3	3.6	100.0 (414)	30.65
기타 비취업	4.0	10.9	36.8	34.5	13.8	100.0 (174)	32.14

<표 5-44>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계획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미혼여성					계(명)	평균연령
	20-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전체 ¹⁾	12.9	27.9	35.6	15.4	8.2	100.0 (1,112)	30.58
지역($\chi^2=4.7$)							
동부	13.2	27.2	35.8	15.2	8.6	100.0 (1,023)	30.61
읍·면부	10.0	35.6	33.3	16.7	4.4	100.0 (90)	30.24
연령($\chi^2=743.6^{***}$)							
20~24세	21.8	36.4	33.2	6.5	2.0	100.0 (596)	29.40
25~29세	3.5	23.3	46.6	23.6	3.0	100.0 (399)	30.85
30~34세	-	-	14.1	43.5	42.4	100.0 (85)	34.20
35~44세	-	-	-	-	100.0	100.0 (31)	39.88
교육수준($\chi^2=70.3^{***}$)							
중졸 이하	28.6	42.9	14.3	14.3	-	100.0 (7)	29.00
고졸 이하	18.8	32.0	32.5	10.7	6.0	100.0 (569)	30.05
대졸 이상	6.5	23.3	39.2	20.3	10.6	100.0 (536)	31.16
결혼에 대한 태도($\chi^2=73.3^{***}$)							
반드시 해야 한다	24.9	32.0	28.1	9.5	5.5	100.0 (253)	29.69
하는 편이 좋다	9.8	29.4	35.2	17.6	8.1	100.0 (603)	30.69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9.1	20.7	44.2	16.5	9.5	100.0 (242)	31.04
모르겠다	-	12.5	50.0	-	37.5	100.0 (8)	33.84
취업여부($\chi^2=120.6^{***}$)							
취업	8.0	23.9	34.3	21.0	12.9	100.0 (591)	31.32
비취업	18.7	32.4	36.9	9.1	2.9	100.0 (518)	29.74
학생	22.3	35.4	35.2	5.5	1.6	100.0 (364)	29.39
기타 비취업	10.5	24.8	41.2	17.6	5.9	100.0 (153)	30.5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결혼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계획연령은 <표 5-45>와 <표 5-46>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여성의 결혼계획연령은 고위관리(준)전문직의 경우 32~34세(26.5%),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경우에는 30~31세(각각 38.1%, 32.1%), 그리고 생산단순노무직등의 경우에는 28~29세(44.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평균 결혼계획연령은 고위관리(준)전문직(31.5세), 서비스판매직(31.5세), 사무직(31.3세), 생산단순노무직(30.1세) 순으로 높다. 고위(준)전문직 미혼여성의 경우, 직업이나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결혼에 대한 의존이 낮고 또한

자기개발 등을 통해 직업적 성취를 높이기 위해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판매직과 사무직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을 우려하여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미혼남성의 경우 직종별 결혼계획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직종에 관계없이 결혼계획연령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취업 미혼남성의 종사상지위별 결혼계획연령은 비임금근로자 34.3세, 상용직 33.0세, 임시일용직 32.6세 순이다. 고용주나 자영업자 등 비임금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미혼남성들이 고연령층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취업 미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 결혼계획연령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미혼남녀 공히 근로(사업)소득이 높을수록 결혼계획연령도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평균 결혼계획연령은 근로(사업)소득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32.0세, 150~200만원미만 32.4세, 100~150만원미만 32.8세, 200만원이상인 경우 33.9세이다. 취업 미혼여성의 평균 결혼계획연령은 근로(사업)소득이 100~150만원미만인 경우 30.3세, 100만원미만 30.7세, 150~200만원미만 31.1세, 200만원이상인 경우가 32.5세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소득수준과 결혼계획연령 간의 정적 관계는 3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고소득층일수록 경력이 누적된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일종의 센서링(censoring)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고소득층일수록 결혼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셋째, 소득이 낮을 경우 결혼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특히 미혼여성의 경우)이 강해 결혼계획연령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표 5-45〉 취업 미혼남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계획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결혼계획연령					계(명)	평균연령
	20-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전체	3.0	10.7	31.0	28.0	27.3	100.0 (633)	32.98
직종 ¹⁾ ($\chi^2=18.0$)							
고위관리·(준)전문직	3.1	6.3	40.2	26.0	24.4	100.0 (127)	32.89
사무직	0.9	11.0	30.0	28.6	29.5	100.0 (227)	33.21
서비스·판매업	5.7	12.9	26.3	25.8	29.4	100.0 (194)	32.90
생산·단순노무직 등	2.7	10.8	31.1	31.1	24.3	100.0 (74)	32.83
종사상지위($\chi^2=21.4^{**}$)							
비임금근로자	1.7	13.8	15.5	22.4	46.6	100.0 (58)	34.31
상용직	3.2	8.8	33.9	27.8	26.2	100.0 (431)	32.95
임시·일용직	3.0	15.7	27.6	30.6	23.1	100.0 (134)	32.62
월평균 근로(사업)소득($\chi^2=43.0^{***}$)							
100만원 미만	6.5	22.6	19.4	25.8	25.8	100.0 (31)	31.96
100~150만원	3.4	11.6	32.2	30.1	22.6	100.0 (146)	32.76
150~200만원	3.1	14.4	33.8	30.8	17.9	100.0 (195)	32.36
200만원 이상	2.7	4.5	30.9	21.5	40.4	100.0 (223)	33.8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표 5-46〉 취업 미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계획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결혼계획연령					계(명)	평균연령
	20-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전체	8.0	23.9	34.3	21.0	12.9	100.0 (591)	31.32
직종($\chi^2=24.0^*$)							
고위관리·(준)전문직	10.8	22.9	25.3	26.5	14.5	100.0 (83)	31.48
사무직	5.9	22.5	38.1	22.8	10.7	100.0 (307)	31.29
서비스·판매업	10.5	24.1	32.1	16.0	17.3	100.0 (162)	31.47
생산·단순노무직 등	10.3	44.8	31.0	10.3	3.4	100.0 (29)	30.05
종사상지위($\chi^2=10.4$)							
비임금근로자	5.4	13.5	32.4	24.3	24.3	100.0 (37)	33.19
상용직	7.8	22.8	35.2	21.2	13.0	100.0 (438)	31.34
임시·일용직	10.1	30.3	31.2	19.3	9.2	100.0 (109)	30.72
근로(사업)소득($\chi^2=52.7^{***}$)							
100만원 미만	16.7	31.3	25.0	16.7	10.4	100.0 (48)	30.72
100~150만원	11.7	31.5	35.8	17.3	3.7	100.0 (162)	30.31
150~200만원	6.0	25.3	37.3	21.1	10.2	100.0 (166)	31.13
200만원 이상	4.8	14.3	32.7	25.0	23.2	100.0 (168)	32.5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3. 미혼남녀의 배우자 조건

2009년도 조사에서 미혼남녀(20~44세)가 우선시하는 배우자 조건은 경제력이 2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격(22.5%), 신뢰와 사랑(10.9%), 직업(9.9%), 외모 등 신체적 조건(9.7%), 건강(8.7%) 등의 순이다.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성격(25.7%), 경제력(15.6%), 외모 등 신체적 조건(13.5%) 등을 배우자 조건으로 중시하고 있다. 반면, 미혼여성은 경제력(35.0%), 성격(18.7%), 직업(10.5%) 등을 배우자 조건으로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조사에서 배우자 조건으로 성격(32.1%), 신뢰와 사랑(21.2%), 경제력(16.2%) 등의 순으로 중시되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즉, 2009년 조사와 2005년 조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성격보다 경제력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혼남성의 경우, 2005년 조사에서 배우자 조건은 성격, 신뢰와 사랑, 건강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경제력(5.5%)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조사에서는 배우자 조건 중 경제력이 15.6%로 성격에 이어 두 번째로 중시되고, 직업(2005년 1.4%, 2009년 9.5%)과 신체적 조건(2005년 9.4%, 2009년 13.5%)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9년 조사 결과 성격(25.7%)과 신뢰·사랑(12.4%)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조사 결과(38.2%, 22.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2009년 조사에서 나타난 배우자 조건은 200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제력, 성격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배우자 조건으로서 경제력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성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중시되고 있는 배우자 조건으로서 신뢰와 사랑의 비중은 2005년 19.5%에서 2009년 9.2%로 크게 떨어진 반면, 직업, 건강, 신체적 조건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혼남성의 배우자관은 여전히 성격을 중시하나 그 정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신뢰와 사랑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미혼남성은 배우자 조건으로서 경제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

고 있으며, 직업, 건강, 신체적 조건 등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남성들이 고용과 소득 불안정, 결혼생활에서의 가계 부담 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맞벌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직업이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혼여성의 배우자관으로는 경제력을 중시하면서 신체적 조건, 건강 등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성격, 신뢰와 사랑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고 있다. 결국 미혼남녀 모두 정서적인 조건보다 현실적 조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47〉 미혼남녀(20~44세) 배우자 조건(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미혼남성		미혼여성	
	2005	2009	2005	2009	2005	2009
신체적 조건	6.2	9.7	9.4	13.5	1.8	5.3
건강	7.9	8.7	10.1	9.0	4.8	8.3
직업	3.8	9.9	1.4	9.5	7.1	10.5
경제력	16.2	24.7	5.5	15.6	30.8	35.0
성격	32.1	22.5	38.2	25.7	23.8	18.7
신뢰와 사랑	21.2	10.9	22.5	12.4	19.5	9.2
가정환경	6.2	6.6	6.0	7.9	6.5	5.3
기타 ²⁾	6.3	7.0	6.8	6.4	5.6	7.7
계(명)	100.0 (2,095)	100.0 (2,423)	100.0 (1,208)	100.0 (1,286)	100.0 (887)	100.0 (1,13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 기타에는 연령, 학력, 학벌, 종교, 공합, 형제순위, 가정환경, 출신지역, 조건 없음 등이 포함

미혼남성의 거주지역 배우자 조건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동부지역 미혼남성은 경제력, 직업, 건강 등 현실적인 조건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반면, 읍면지역 미혼남성은 성격이나 가정환경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경우 거주지역별 배우자 조건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거주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경제력, 성격, 직업 등의 순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남녀의 배우자 조건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혼여성의 경우 20대에

서는 경제력을 배우자 조건으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30~40대에서는 성격을 가장 중요시하고 하고 있다. 3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본인의 고용이나 소득 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배우자 조건으로서 신뢰와 사랑의 비중은 20대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미혼남성이 중시하는 배우자 조건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세대 구분없이 남성의 배우자관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종별 배우자 조건의 차이는 미혼남성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나,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미혼남성의 근로(사업)소득별로는 약하나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신뢰와 사랑의 조건은 덜 중시되나, 가정환경은 더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미혼여성의 근로(사업)소득수준별 배우자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혼남녀의 교육수준별, 취업여부별, 종사상지위별 배우자 조건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요컨대, 보다 현실적인 여건들로서 결혼시장 선택 협소성(거주지), 세대 차이(연령), 소득계층(소득수준) 등 이외의 상황들은 배우자 선택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5-48〉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조건(1순위)

(단위: %, 명)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가정 환경	신뢰와 사랑	기타 ¹⁾	계 (명)
전체	13.5	9.0	9.5	15.6	25.7	7.9	12.4	6.4	100.0 (1,286)
거주지($\chi^2=19.4^{**}$)									
동부	13.7	9.7	9.7	16.0	24.3	7.4	12.6	6.6	100.0 (1,147)
읍면부	12.2	3.6	7.9	11.5	37.4	11.5	11.5	4.3	100.0 (139)
연령($\chi^2=23.9$)									
20~24세	15.5	8.3	8.9	16.1	25.8	7.0	12.7	5.6	100.0 (503)
25~29세	11.1	10.2	9.6	16.9	25.4	10.2	10.5	6.0	100.0 (449)
30~34세	15.6	6.9	10.4	14.3	23.4	6.1	15.6	7.8	100.0 (231)
35~44세	9.4	12.3	8.5	10.4	31.1	6.6	13.2	8.5	100.0 (106)
교육수준($\chi^2=10.4$)									
중졸이하	11.8	5.9	5.9	11.8	23.5	5.9	23.5	11.8	100.0 (17)
고졸	14.9	8.4	8.8	15.4	26.6	7.5	12.9	5.6	100.0 (738)
대졸이상	11.7	10.0	10.6	15.8	24.5	8.5	11.5	7.4	100.0 (530)

〈표 5-48〉 계속

(단위: %, 명)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가정 환경	신뢰와 사랑	기타 ¹⁾	계 (명)
취업여부($\chi^2=5.7$)									
취업	12.3	9.2	10.1	16.0	25.3	8.9	11.4	6.7	100.0 (673)
비취업	14.9	8.7	8.9	15.0	26.2	6.8	13.5	5.9	100.0 (606)
종사상 지위($\chi^2=10.1$)									
비임금근로자	14.8	8.2	8.2	18.0	27.9	6.6	4.9	11.5	100.0 (61)
상용직	12.7	9.8	10.5	16.5	25.4	8.2	11.1	5.8	100.0 (449)
임시일용직	11.1	7.8	10.5	13.1	25.5	11.1	14.4	6.5	100.0 (153)
직종($\chi^2=37.9^*$)									
고위관리·(준)전문직	16.8	9.5	8.0	8.8	27.0	10.2	8.8	10.9	100.0 (137)
사무직	7.1	9.5	10.4	19.5	24.9	8.7	12.9	7.1	100.0 (241)
서비스·판매업	11.7	10.2	12.1	18.9	26.2	7.3	8.7	4.9	100.0 (206)
생산·단순노무직 등	21.5	6.3	8.9	8.9	24.1	8.9	17.7	3.8	100.0 (79)
근로(사업)소득($\chi^2=31.$)									
100만원미만	30.0	3.3	6.7	16.7	26.7	6.7	10.0	0.0	100.0 (30)
100~150만원	8.9	10.8	10.1	19.6	22.8	10.1	13.3	4.4	100.0 (158)
150~200만원	9.3	8.8	9.3	18.6	30.4	7.4	10.8	5.4	100.0 (204)
200만원이상	14.0	10.3	12.4	12.4	21.5	10.3	9.9	9.1	100.0 (24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기타에는 연령, 학력, 학벌, 종교, 공합, 형제순위, 가정환경, 출신지역, 조건없음 등을 포함함.

〈표 5-49〉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 조건(1순위)

(단위: %, 명)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가정 환경	신뢰와 사랑	기타 ¹⁾	계 (명)
전체	5.3	8.3	10.5	35.0	18.7	5.3	9.2	7.7	100.0 (1,137)
거주지($\chi^2=5.1$)									
동부	5.4	8.3	10.0	35.6	18.8	5.3	9.2	7.5	100.0 (1,044)
읍면부	4.3	7.6	15.2	28.3	18.5	5.4	9.8	10.9	100.0 (92)
연령($\chi^2=44.9^{**}$)									
20~24세	7.2	8.6	12.3	34.0	17.7	5.1	8.8	6.4	100.0 (594)
25~29세	2.8	7.3	8.5	38.8	15.8	6.0	11.0	9.8	100.0 (399)
30~34세	3.0	12.1	7.1	29.3	30.3	4.0	7.1	7.1	100.0 (99)
35~44세	6.5	4.3	10.9	26.1	34.8	4.3	4.3	8.5	100.0 (46)
교육수준($\chi^2=19.2$)									
중졸이하	-	25.0	12.5	12.5	12.5	12.5	-	25.0	100.0 (8)
고졸	6.4	8.4	11.1	36.4	17.2	5.7	8.0	6.6	100.0 (574)
대졸이상	4.2	7.9	9.6	33.8	20.6	4.7	10.6	8.7	100.0 (55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49〉 계속

(단위: %, 명)

	신체적 조건	건강	직업	경제력	성격	가정 환경	신뢰와 사랑	기타 ¹⁾	계 (명)
취업여부($\chi^2=9.7$)									
취업	4.1	7.5	9.6	37.7	19.7	5.1	8.6	7.7	100.0 (613)
비취업	6.7	9.2	11.3	31.7	17.7	5.6	10.0	7.9	100.0 (521)
종사상지위($\chi^2=12.7$)									
비임금근로자	0.0	7.7	15.4	38.5	15.4	7.7	2.6	12.8	100.0 (39)
상용직	4.8	7.2	9.6	37.5	19.7	5.0	8.3	7.7	100.0 (456)
임시일용직	1.9	7.4	7.4	39.8	22.2	4.6	12.0	4.6	100.0 (108)
직종($\chi^2=20.3$)									
고위관리·(준)전문직	1.1	10.2	5.7	30.7	25.0	8.0	8.0	11.4	100.0 (88)
사무직	4.3	7.4	9.6	38.9	17.9	5.2	9.3	7.4	100.0 (324)
서비스·판매업	5.5	6.7	12.2	37.8	22.0	3.0	8.5	4.3	100.0 (164)
생산·단순노무직 등	0.0	3.4	13.8	48.3	17.2	3.4	6.9	6.9	100.0 (29)
근로소득($\chi^2=21.7$)									
100만원미만	2.1	4.2	8.3	45.8	18.8	6.3	10.4	4.2	100.0 (48)
100~150만원	4.9	10.4	11.0	40.9	17.1	3.0	7.9	4.9	100.0 (164)
150~200만원	2.8	7.4	10.8	39.8	17.6	5.1	9.7	6.8	100.0 (176)
200만원이상	5.1	6.8	8.5	29.0	27.3	4.5	8.5	10.2	100.0 (17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기타에는 연령, 학력, 학벌, 종교, 공합, 형제순위, 가정환경, 출신지역, 조건없음 등을 포함함.

4. 미혼남녀의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미혼남녀(20~44세)가 현재까지 미혼상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표 5-50>에 제시되어 있다. 2009년 조사 결과, 미혼남성이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에 이른 나이’(29.3%), ‘자아성취를 위해’(11.0%), ‘낮은 소득’(10.9%), ‘실업 및 고용불안정’(10.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결혼에 이른 나이’ 이유를 제외하면, ‘낮은 소득’과 ‘실업 및 고용불안정’의 경제적 이유들의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에 이른 나이’(32.5%), ‘자아성취를 위해’(12.1%), ‘결혼비용 때문에’(7.7%),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서’(7.2%) 등의 순으로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나타난다. 즉, 미혼여성은 미혼남성과 달리 개인적 성향 및 가치 추구 등을 위해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조사 결과를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미혼남녀들이 조사 당시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들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미혼남성의 경우, 자아성취나 자기개발 등을 위해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비율이 2005년 조사에 비해 2009년 조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5-50〉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결혼하지 않은 이유 ¹⁾														계(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미혼	2005	9.6	14.6	4.9	6.6	3.6	13.6	0.5	24.8	0.1	7.8	2.9	2.6	3.2	5.1	100.0	(1,461)
남성	2009	6.7	10.9	4.7	5.8	4.7	10.5	2.7	29.4	0.8	11.0	4.0	1.9	2.3	4.7	100.0	(1,713)
미혼	2005	14.2	4.1	1.2	6.5	1.8	4.2	3.4	34.2	1.2	13.0	1.7	5.9	4.1	4.2	100.0	(1,206)
여성	2009	7.2	6.0	2.8	7.7	4.7	4.5	4.4	32.5	2.2	12.1	3.6	3.5	4.9	4.0	100.0	(1,56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①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② 소득이 적어서 ③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④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⑤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⑥ 실업상태여서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강제 또는 권고 퇴직,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⑧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⑨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여자가 자녀양육과 집안일 대부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⑩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와 자기개발을 위해) /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⑪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⑫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⑬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⑭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의상상태 포함)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 부모님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형제·자매가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친구들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현재까지 결혼 하지 않은 이유는 미혼남녀의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이성 교제 유무, 취업여부 등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미혼여성의 거주지별과 미혼남녀의 취업여부별로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혼남성의 거주지별 현재까지 결혼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 및 고용 불안정’, ‘아직 결혼에 이른 나이’ 등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농촌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자아성취와 자기개발을 위해서’ 등 이유들의 비율은 농촌에 비해 도시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역별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농촌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 물색 곤란과 소득·고용 불안정 그리고 도시남성의 경우에는 도시의 특

성으로서 높은 주거 등의 비용과 자아성취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결혼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연령별로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자아성취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실업·고용불안정,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저연령층일수록 ‘결혼에 이른 나이’, ‘자아성취’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놓쳐서’, ‘소득이 적어서’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요컨대, 젊은 미혼남녀들은 자아성취, 자기개발 등 자기발전을 위해 결혼을 미루고 있으며,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불안정 문제와 함께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혼남녀의 교육수준별로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례수가 극히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중졸 이하의 학력층을 제외한 고졸과 대졸이 상 간만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혼남녀 공히 고학력층일수록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결혼비용부담, 실업·고용불안정 등 이유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저학력층일수록 ‘결혼에 이른 나이’, 자아성취 등 이유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과적으로, 저학력층에서는 아직 젊은 나이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학력층인 경우에는 적합한 배우자 탐색과 경제적 안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이성교제 여부와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미혼남녀 공히 이성교제를 하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소득이 적어서’,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 주로 경제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 있는 미혼남녀의 경우에는 결혼하기에 아직은 나이가 어리거나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미혼남녀의 취업여부별로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취업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소득이 적어서’,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취업 미혼남녀의 경우에는 현재 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학생들이 많아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와 ‘자아성취와 자기개발을 위해’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을 제외한 비취업 미혼남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실업 및 고용불안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51〉 미혼남성(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결혼하지 않은 이유 ¹⁾														계(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전체	6.7	10.9	4.7	5.8	4.7	10.5	2.7	29.4	0.8	11.0	4.0	1.9	2.3	4.7	100.0(1,713)
거주지($\chi^2=35.5^{**}$)															
동부	6.2	10.6	4.9	6.4	4.9	9.9	2.8	28.8	0.9	11.6	4.4	1.8	2.2	4.9	100.0(1,522)
읍·면부	10.4	13.0	3.6	1.6	2.6	16.1	2.1	33.9	-	6.3	1.0	2.6	3.1	3.6	100.0(192)
연령($\chi^2=604.9^{***}$)															
20~24세	2.9	6.2	3.2	3.5	1.8	5.0	2.0	53.5	0.3	15.0	1.2	1.7	0.9	3.0	100.0(662)
25~29세	6.4	13.2	5.5	8.8	5.7	14.1	2.7	21.3	1.4	10.7	0.9	2.5	2.1	4.5	100.0(559)
30~34세	13.5	17.0	6.9	7.6	6.9	11.1	4.5	7.6	0.7	6.9	5.2	1.7	2.8	7.6	100.0(289)
35~44세	9.7	10.7	4.4	3.4	7.3	17.5	2.9	4.4	0.5	4.4	19.9	1.0	6.8	7.3	100.0(206)
교육수준($\chi^2=210.4^{***}$)															
중졸 이하	5.7	11.4	-	-	-	34.3	8.6	8.6	-	2.9	8.6	-	2.9	17.1	100.0(35)
고졸	4.4	10.2	4.6	4.8	2.6	8.2	1.7	39.0	0.5	13.2	3.5	1.7	1.9	3.6	100.0(999)
대졸이상	10.1	11.8	5.0	7.6	7.9	12.8	4.0	16.0	1.2	8.1	4.6	2.2	2.9	5.7	100.0(680)
이성교제 유무($\chi^2=70.0^{***}$)															
애인 있다	2.3	13.0	6.1	9.9	5.0	9.5	3.4	25.9	0.7	12.3	2.0	1.8	2.3	5.6	100.0(555)
애인 없다	8.7	9.7	4.1	3.9	4.5	11.0	2.4	31.0	0.8	10.4	5.0	1.9	2.3	4.3	100.0(1,159)
취업여부($\chi^2=347.4^{***}$)															
취업	10.3	15.2	6.9	8.5	7.2	7.6	3.8	14.9	0.9	6.8	6.8	2.3	3.5	5.2	100.0(866)
비취업	3.0	6.4	2.3	3.0	2.1	13.6	1.7	43.9	0.6	15.3	1.2	1.4	1.2	4.3	100.0(838)
학생	2.2	4.8	2.0	3.0	1.1	5.2	1.1	52.3	0.4	21.3	1.1	1.7	0.7	3.0	100.0(539)
기타	4.4	9.4	2.3	3.0	4.0	28.9	2.7	28.9	1.0	4.4	1.3	1.0	2.0	6.7	100.0(29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①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② 소득이 적어서 ③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④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⑤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⑥ 실업상태여서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강제 또는 권고 퇴직,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⑧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⑨ 결혼을 하면 용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여자가 자녀양육과 집안일 대부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⑩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와 자기개발을 위해) /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⑪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⑫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⑬ 상대방에 구속되거나 싫어서 ⑭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 부모님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형제·자매가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친구들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표 5-52> 미혼여성(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결혼하지 않은 이유1)														계(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전체	7.2	6.0	2.8	7.7	4.7	4.5	4.4	32.5	2.2	12.1	3.6	3.5	4.9	4.0	100.0(1,563)
거주지($\chi^2=12.8$)															
동부	7.0	5.9	2.6	7.7	4.7	4.5	4.0	32.6	2.3	12.4	3.8	3.5	5.0	3.8	100.0(1,433)
읍·면부	8.3	6.1	4.5	7.6	3.8	4.5	8.3	31.1	1.5	8.3	1.5	3.0	5.3	6.1	100.0(132)
연령($\chi^2=681.7^{***}$)															
20~24세	3.4	4.3	1.6	6.0	3.2	3.1	1.9	54.3	1.0	14.0	0.4	1.7	2.6	2.5	100.0(771)
25~29세	8.1	7.1	4.6	11.4	6.9	6.8	7.9	15.4	3.1	12.2	1.2	4.4	5.4	5.4	100.0(518)
30~34세	12.8	7.7	4.5	7.7	4.5	3.8	5.8	3.8	3.8	7.7	10.3	6.4	14.7	6.4	100.0(156)
35~44세	20.2	9.2	-	3.4	4.2	5.0	3.4	1.7	4.2	5.0	26.9	7.6	5.9	3.4	100.0(119)
교육수준($\chi^2=175.2^{***}$)															
중졸 이하	-	13.3	13.3	20.0	6.7	6.7	-	6.7	-	6.7	13.3	-	-	13.3	100.0(15)
고졸	4.3	5.2	1.9	5.2	4.1	2.5	2.8	45.1	1.9	13.8	2.8	2.7	3.8	3.8	100.0(785)
대졸	10.3	6.5	3.4	10.0	5.2	6.5	6.1	19.8	2.7	10.6	4.4	4.3	6.1	3.9	100.0(767)
이성교제 유무($\chi^2=74.2^{***}$)															
있다	2.7	6.2	5.4	11.6	4.8	4.6	6.2	27.6	2.3	12.3	2.3	3.7	5.4	5.0	100.0(519)
없다	9.4	5.9	1.4	5.8	4.6	4.5	3.5	34.8	2.2	12.0	4.2	3.5	4.8	3.5	100.0(1,042)
취업여부($\chi^2=332.6^{***}$)															
취업	11.0	7.7	3.4	9.7	6.3	4.0	7.5	16.4	3.2	9.1	6.0	4.3	6.8	4.6	100.0(854)
비취업	2.7	3.8	2.0	5.1	2.5	5.2	0.6	52.0	1.3	15.6	0.8	2.5	2.7	3.1	100.0(706)
학생	1.3	3.1	0.6	3.1	2.5	1.7	0.4	61.6	0.8	17.4	-	1.9	2.7	2.7	100.0(477)
기타	5.2	5.7	4.8	9.1	2.6	12.6	1.3	31.7	2.2	11.7	2.6	3.9	2.6	3.9	100.0(23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①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② 소득이 적어서 ③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④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⑤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⑥ 실업상태여서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강제 또는 권고 퇴직,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⑧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⑨ 결혼을 하면 웅덩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여자가 자녀양육과 집안일 대부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⑩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와 자기계발을 위해) /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⑪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⑫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⑬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⑭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이상상태 포함)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 외에도 자신이 없어서 / 부모님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형제·자매가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친구들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취업 미혼남녀의 경제활동 특성별로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표 5-53>과 <표 5-54>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직종별로는 고위직 문직이나 사무직인 경우 ‘마땅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자아성취나 자기

개발을 위해’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생산단순노무직등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들로서 ‘소득이 적어서’, 실업·고용불안정, ‘결혼에 이른 나이’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미혼남성의 경우 고위신직업일수록 배우자 조건이 높거나 결혼관련 비용부담 때문에, 그리고 저위신 직업일수록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미혼여성의 직업별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들은 미혼남성에 비해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생산단순노무직등의 경우에 ‘마땅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에 이른 나이’,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을 이유로 결혼하지 않은 경향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종사상지위별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와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쳐서’, 상용직의 경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와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리고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소득부족과 실업·고용불안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종사상지위별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와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쳐서’, 그리고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한 직장 및 결혼 생활 불이익과 결혼일 양립 곤란과 ‘결혼에 이른 나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미혼남성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차별하는 직장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하지 않은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미혼남녀 공히 현재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소득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등 이유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어서’, 실업·고용불안정 등의 경제적 이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소득층 미혼남성들은 결혼(배우자와 물질적인 것)과 관련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리고 저소득층 미혼남성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자아성취와 자기개발을 위해’,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쳐서’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다소나마 ‘결혼 비용의 부담이 커서’, 실업·고용불안정 등 이유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 미혼여성들이 직장생활로 소득은 높아졌지만 나이가 많아지고 또는 적당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져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미혼여성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의미한다.

〈표 5-53〉 미혼남성(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결혼하지 않은 이유 ¹⁾														계(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미혼남성	10.4	15.2	6.9	8.5	7.2	7.6	3.8	14.9	0.9	6.8	6.8	2.3	3.5	5.2	100.0(867)
직종($\chi^2=99.1^{***}$)															
고위·준전문직	12.6	13.7	6.6	11.0	8.2	6.6	2.2	12.1	1.6	9.3	8.8	1.6	2.2	3.3	100.0(182)
사무직	13.1	10.4	5.9	10.0	9.0	4.2	5.9	11.4	1.0	9.7	6.6	2.4	4.2	6.2	100.0(289)
서비스·판매업	6.5	15.3	9.2	7.7	5.7	8.4	4.2	20.7	0.4	3.1	5.4	2.7	5.4	5.4	100.0(261)
생산·단순노무직 등	7.0	28.9	4.4	2.6	5.3	15.8	-	16.7	-	5.3	7.9	0.9	0.9	4.4	100.0(114)
종사상지위($\chi^2=133.1^{***}$)															
비임금근로자	8.8	16.3	12.5	5.0	2.5	3.8	5.0	12.5	2.5	3.8	12.5	6.3	6.3	2.5	100.0(80)
상용직	12.8	12.0	7.2	10.0	8.4	3.7	4.7	14.8	1.1	8.1	5.8	2.3	3.9	5.3	100.0(569)
임시일용직	4.4	24.1	3.4	4.9	5.4	20.7	0.5	16.3	-	4.9	6.9	1.0	1.5	5.9	100.0(203)
근로(사업)소득($\chi^2=104.0^{***}$)															
100만원미만	6.1	22.4	4.1	-	2.0	24.5	-	22.4	-	-	6.1	-	4.1	8.2	100.0(49)
100~150만원	4.6	21.1	4.1	7.2	9.3	9.3	3.1	19.6	1.0	7.7	7.7	1.0	2.1	2.1	100.0(194)
150~200만원	10.2	15.4	6.1	8.1	7.3	7.3	4.1	18.7	0.8	6.5	3.3	2.0	4.9	5.3	100.0(246)
200만원이상	14.7	10.4	8.3	10.1	7.0	4.3	5.2	8.6	0.9	8.6	9.2	3.7	4.0	5.2	100.0(327)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05, ** p<0.01, *** p<0.001

주: 1) ①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② 소득이 적어서 ③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④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⑤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⑥ 실업상태여서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강제 또는 권고 퇴직,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⑧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⑨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 결혼제도가 낡은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여자가 자녀양육과 집안일 대부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⑩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와 자기개발을 위해) /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⑪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⑫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⑬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⑭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 부모님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형제·자매가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친구들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표 5-54〉 미혼여성(20~44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결혼하지 않은 이유 ¹⁾														계(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미혼여성	10.9	7.7	3.4	9.7	6.3	4.0	7.5	16.4	3.2	9.3	6.0	4.3	6.8	4.6	100.0(854)
직종($\chi^2=59.4^*$)															
고위·(준)전문직	14.3	7.9	5.6	4.8	2.4	6.3	5.6	15.9	1.6	15.1	5.6	4.0	6.3	4.8	100.0(126)
사무직	10.6	5.2	3.1	11.1	9.0	2.1	7.6	15.4	3.5	9.7	5.9	5.2	7.1	4.5	100.0(423)
서비스·판매업	9.5	11.1	3.3	8.6	4.5	4.5	9.1	16.0	2.5	6.6	7.4	4.1	7.8	4.9	100.0(243)
생산·단순노무직 등	18.2	4.5		13.6	4.5	9.1	4.5	27.3	4.5	2.3	2.3		4.5	4.5	100.0(44)
종사상지위($\chi^2=45.8^{***}$)															
비임금근로자	11.1	7.4	3.7	13.0	3.7	3.7	3.7	5.6	1.9	9.3	13.0	5.6	7.4	11.1	100.0(54)
상용직	12.2	7.4	4.0	9.0	6.8	2.9	6.8	15.5	3.3	10.0	5.9	4.6	7.3	4.3	100.0(631)
임시일용직	6.4	7.1	1.3	10.9	5.8	8.3	12.2	22.4	1.9	7.1	4.5	3.2	5.8	3.2	100.0(156)
근로(사업)소득($\chi^2=78.1^{***}$)															
100만원미만	8.8	10.3	1.5	13.2	7.4	7.4	2.9	22.1	2.9	5.9	4.4	1.5	7.4	4.4	100.0(68)
100-150만원	9.5	7.2	1.8	14.0	8.1	3.2	8.1	23.9	1.8	5.9	3.6	3.6	6.8	2.7	100.0(222)
150-200만원	11.8	5.9	4.6	8.0	5.9	3.8	7.6	16.0	5.0	8.4	5.5	5.5	8.8	3.4	100.0(238)
200만원이상	12.4	8.1	3.9	5.8	5.0	3.9	8.5	7.7	3.1	13.5	10.4	4.6	5.8	7.3	100.0(25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①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② 소득이 적어서 ③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④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⑤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⑥ 실업상태여서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강제 또는 권고 퇴직,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 결혼생활과 직장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⑧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⑨ 결혼을 하면 웅덩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여자가 자녀양육과 집안일 대부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⑩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와 자기계발을 위해) /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⑪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⑫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⑬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⑭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 부모님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형제·자매가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친구들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5. 미혼남녀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사람과 정보매체

가. 미혼남녀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사람

가족과 친인척, 친구, 동료와과 같은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와 주고받은 정보는 현대인의 의식과 가치, 규범을 정립하는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하고 새로운 행동패턴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즉, 대중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생산, 공

급되는 메시지와 사회적 관계 내의 주변인들과 교류하는 정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현실을 인식하고 규범과 태도로서 생활양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여기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중매체들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재구성하기도 한다. 매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활이 자신의 경험이나 처지가 비슷할 경우 매체정보의 수용자들은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면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일상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시 말해, 대중매체는 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자녀관과 결혼관을 포함하는 가족담론에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개별 구성원의 결혼이나 출산, 가족관련 이미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으며, 그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분히 개인적인 결혼과 출산, 가족을 둘러싼 사회의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향과 가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관련 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살펴보면, <표 5-55> 및 <표 5-56>과 같다. 미혼남녀 모두 결혼태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은 부모였으며(남성 45.0%, 여성 44.7%), 다음으로 친구 또는 동료, 그리고 형제자매와 친인척(집안 또는 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혼남성의 24.6%가 친구 또는 동료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27.7%가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의 관계 지향적 특성으로 친구나 동료 등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의 영향력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혼남성은 읍면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모의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동부 44.2%, 읍면부 51.3%), 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남성들은 친구 또는 동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동부 25.5%, 읍면부 17.5%). 반면, 미혼여성은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본인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 중에서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동부 44.6%, 읍면부 45.5%). 특이한 점은 친인척 또는

집안(가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남녀 모두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이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반면,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향을 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미혼남성의 비율도 20~24세 17.7%, 40~44세 35.6% 등 연령과 정적 관계를 보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인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본인의 개인적 가치관과 의식에 따라 결혼태도를 굳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영향을 준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0~24세 17.2%, 40~44세 33.3%). 그러나 미혼남성과 달리, 미혼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여도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이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이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취업 미혼남녀에 비해 취업 미혼남녀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취업의 경우 부모에게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미혼남녀 공히 부모와 동거하고 있거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이혼·재혼 경험 여부별로 미혼남녀 본인의 결혼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무의미 하였다. 다만, 형제자매의 이혼·재혼을 경험한 미혼남성의 경우에 형제자매가 본인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일차적 관계가 미혼남녀의 결혼관련 태도에 뚜렷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55〉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사람

(단위: %, 명)

구 분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집안)	친구/ 동료	이웃/ 기타	없음	계(명)	χ^2
전 체	45.0	5.6	5.0	24.6	1.2	18.7	100.0(1,705)	
거주지								
동부	44.2	5.9	5.3	25.5	1.1	18.1	100.0(1,516)	13.4 *
읍면부	51.3	4.2	2.1	17.5	1.6	23.3	100.0(189)	
연령								
20~24세	50.6	3.6	4.5	22.1	1.4	17.7	100.0(660)	105.4 ***
25~29세	49.4	3.8	4.9	23.8	1.1	17.1	100.0(555)	
30~34세	35.8	6.7	7.7	30.5	1.1	18.2	100.0(285)	
35~39세	31.1	14.4	3.8	28.8	0.8	21.2	100.0(132)	
40~44세	20.5	19.2	1.4	23.3	-	35.6	100.0(73)	
교육수준								
중졸이하	39.4	6.1	0.0	18.2	0.0	36.4	100.0(33)	31.7 **
고졸	48.1	5.6	4.6	22.4	1.3	18.0	100.0(997)	
대졸	41.1	5.3	5.3	28.2	1.1	18.9	100.0(655)	
대학원졸이상	31.6	10.5	21.1	26.3	0.0	10.5	100.0(19)	
취업상태								
취업	39.8	6.9	5.1	28.4	0.9	18.9	100.0(859)	38.3 ***
비취업(구직활동)	41.5	6.3	7.1	22.8	1.3	21.0	100.0(224)	
비취업(비구직활동)	53.5	3.6	3.9	20.1	1.3	17.6	100.0(613)	
부모 동거여부								
동거	46.5	5.6	5.3	22.8	1.2	18.7	100.0(1,367)	13.3 *
비동거	38.7	5.9	4.1	31.7	1.2	18.5	100.0(341)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경험								
있음	50.0	4.3	5.2	19.0	1.7	19.8	100.0(116)	3.1
없음	44.6	5.7	5.0	25.0	1.1	18.5	100.0(1,587)	
형제자매 유무								
있음	44.3	6.0	4.8	25.2	1.1	18.8	100.0(1,493)	10.6
없음	50.0	2.5	7.4	20.6	2.0	17.6	100.0(204)	
형제자매의 이혼 또는 재혼경험								
있음	35.5	17.7	3.2	27.4	-	16.1	100.0(62)	11.9 *
없음	44.7	6.7	4.1	23.3	0.9	20.3	100.0(76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56〉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사람

(단위: %, 명)

구 분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집안)	친구/ 동료	이웃/ 기타	없음	계 (명)	χ^2
전 체	44.7	5.6	4.8	27.7	1.4	15.8	100.0(1,549)	
거주지								
동부	44.6	5.7	5.2	27.6	1.2	15.8	100.0(1,415)	9.9
읍면부	45.5	3.8	1.5	28.8	3.8	16.7	100.0(132)	
연령								
20~24세	48.8	4.9	5.1	21.9	2.1	17.2	100.0(768)	54.1 ***
25~29세	40.5	5.7	4.9	36.0	0.8	12.2	100.0(509)	
30~34세	38.5	5.8	5.1	35.3	0.6	14.7	100.0(156)	
35~39세	45.9	7.1	4.7	20.0	1.2	21.2	100.0(85)	
40~44세	40.0	6.7	-	20.0	-	33.3	100.0(30)	
교육수준								
중졸이하	53.3	6.7	6.7	13.3	0.0	20.0	100.0(15)	13.1
고졸	45.9	6.5	4.4	25.9	1.7	15.7	100.0(772)	
대졸	43.1	4.7	5.4	29.6	1.1	16.2	100.0(743)	
대학원졸이상	52.6	0.0	5.3	31.6	5.3	5.3	100.0(19)	
취업상태								
취업중	41.2	6.2	4.4	32.9	1.1	14.3	100.0(842)	31.4 **
비취업(구직활동)	49.7	5.8	6.5	18.1	1.3	18.7	100.0(155)	
비취업(비구직활동)	48.4	4.5	5.3	22.5	2.0	17.3	100.0(550)	
부모 동거여부								
동거	44.9	5.6	4.7	26.9	1.8	16.1	100.0(1,252)	7.4
비동거	43.8	5.4	5.7	30.6	-	14.5	100.0(297)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경험								
있음	49.2	5.8	5.0	20.0	0.8	19.2	100.0(120)	4.6
없음	44.2	5.5	4.8	28.4	1.4	15.6	100.0(1,426)	
형제자매 유무								
있음	44.3	5.8	4.9	26.9	1.5	16.6	100.0(1,394)	11.4 *
없음	47.7	3.3	4.6	35.1	0.7	8.6	100.0(151)	
형제자매의 이혼 또는 재혼경험								
있음	58.5	7.5	3.8	15.1	-	15.1	100.0(53)	5.4
없음	44.1	7.4	4.9	26.0	1.3	16.3	100.0(61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어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향후 결혼의향 및 계획에 따라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상이하게 분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미혼남성과 미혼여성 모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들의 결혼태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미혼남성의 54.0%와 미혼여성의 47.7%가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 부모를 꼽았으며,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미혼남성의 24.4%와 미혼여성의 29.5%만이 부모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반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미혼남성의 26.8%와 미혼여성의 29.5%가 친구나 동료가 결혼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독신을 선호하는 미혼남성의 34.1%와 미혼여성의 29.5%는 특별한 타인의 영향력 없이 결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태도와 달리, 향후 본인의 결혼의향 및 계획이 있는 미혼남녀 공히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이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에는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여성의 44.1% 그리고 ‘과거에도 결혼의향이 없었고 현재에도 없는’ 미혼여성의 34.2%가 친구와 동료가 본인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5-57〉 미혼남성(20~44세)의 특정한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

(단위: %, 명)

구 분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집안)	친구/ 동료	이웃/ 기타	없음	계 (명)
전 체	45.0	5.6	5.0	24.6	1.2	18.7	100.0(1,705)
결혼에 대한 생각 ($\chi^2=89.6^{***}$)							
반드시 해야 한다	54.0	4.0	5.0	21.4	0.5	15.1	100.0(398)
하는 편이 좋다	47.1	6.0	5.0	25.5	0.6	15.8	100.0(787)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35.6	6.3	5.8	26.3	1.9	24.2	100.0(430)
하지 않는 게 낫다	24.4	2.4	2.4	26.8	9.8	34.1	100.0(41)
모르겠다	36.2	8.5	0.0	17.0	2.1	36.2	100.0(47)
결혼 의향·계획 ($\chi^2=143.0^{***}$)							
결혼할 생각이 있다	50.7	5.1	5.4	23.8	0.6	14.3	100.0(1,292)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18.4	13.3	5.1	23.5	3.1	36.7	100.0(98)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12.9	6.5	6.5	16.1	6.5	51.6	100.0(31)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2.8	5.7	3.3	32.0	3.3	23.0	100.0(122)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31.3	5.0	3.1	27.5	1.9	31.3	100.0(16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58〉 미혼여성(20~44세)의 특정한 결혼태도와 이에 영향을 준 사람

(단위: %, 명)

구 분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집안)	친구/ 동료	이웃/ 기타	없음	계 (명)
전 체	44.7	5.5	4.9	27.6	1.4	15.8	100.0(1,544)
결혼에 대한 생각 ($\chi^2=36.9^*$)							
반드시 해야 한다	47.7	3.5	7.4	26.4	1.2	14.0	100.0(258)
하는 편이 좋다	45.7	6.2	5.7	28.6	1.3	12.6	100.0(714)
경우에 따라	42.8	5.4	2.8	26.7	2.0	20.3	100.0(498)
하지 않는 게 낫다	29.5	9.1	2.3	29.5	0.0	29.5	100.0(44)
모르겠다	51.5	6.1	3.0	27.3	0.0	12.1	100.0(33)
결혼 의향·계획 ($\chi^2=91.1^{***}$)							
결혼할 생각이 있다	49.6	5.6	5.3	25.8	1.3	12.3	100.0(1,126)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21.7	10.4	4.7	44.3	0.9	17.9	100.0(106)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28.0	0.0	6.0	34.0	2.0	30.0	100.0(50)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4.2	5.0	2.5	27.5	2.5	28.3	100.0(120)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37.2	3.4	3.4	28.3	0.7	26.9	100.0(14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미혼남녀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정보매체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등 매체 중에서 미혼남녀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미혼남성의 35.4%와 미혼여성의 31.9%가 특별한 매체의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신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로는 미혼남성의 경우 TV(22.9%), 신문·잡지 등 전통적 인쇄매체(20.1%), 인터넷(17.7%), 라디오(1.6%) 등의 순이었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TV(27.8%), 인터넷(19.6%), 인쇄매체(17.3%), 라디오(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매체종류 중 TV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는 메시지에 따라 본인의 결혼태도가 영향 받고 있다고 더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혼남녀의 일반 특성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남성이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본인의 결혼

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로 인쇄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20.7%와 15.4%). 반면, TV라고 응답한 비율은 읍면부 지역이 26.1%인데 비해,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2.6%였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경우 매체별 영향력의 거주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남녀 모두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는 매체로 TV라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시기에는 TV 시청시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TV가 이들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상태에 영향을 덜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이 자신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미혼남녀의 비율도 저연령층일수록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IT기술의 급속한 성장·발전과정에서 on-line 이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세대들이 그를 통한 정보와 메시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쇄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 미혼남성 15.8%와 대학원 졸업 이상의 미혼여성 23.5%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가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취업상태에 따라서 인쇄매체와 TV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영향력을 달리 수용하고 있었다. 취업 중인 미혼남성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자에 비하여 자신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로 인쇄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TV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취업 중인 미혼남성의 21.5%와 20.3%가 각각 인쇄매체와 TV를 본인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라고 응답하였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비취업자의 18.7%가 인쇄매체를, 26.2%가 TV라고 각각 응답하였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취업 중인 미혼여성의 18.4%가 인쇄매체를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매체라고 응답한 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취업자의 경우 16.6%였다. 또한 비취업(비구직 활동) 미혼여성의 29.5%가 TV라고 응답하였으나 취업 중인 경우 27.0%로 나타났다.

〈표 5-59〉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

(단위: %, 명)

구 분	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없음	기타	계 (명)	χ^2
전 체	20.1	1.6	22.9	17.7	35.4	2.3	100.0(1,701)	
거주지								
동부	20.7	1.5	22.6	17.7	35.6	1.9	100.0(1,512)	15.1 *
읍면부	15.4	1.6	26.1	17.6	33.5	5.9	100.0(188)	
연령								
20~24세	17.2	1.7	26.2	21.3	31.4	2.2	100.0(656)	55.7 ***
25~29세	23.5	0.9	21.8	15.9	36.1	1.8	100.0(554)	
30~34세	21.1	2.8	20.7	17.5	36.1	1.8	100.0(285)	
35~39세	17.4	2.3	21.2	15.9	40.2	3.0	100.0(132)	
40~44세	22.0	-	12.5	2.8	55.6	6.9	100.0(72)	
교육수준								
중졸이하	8.8	-	14.7	11.8	61.8	2.9	100.0(34)	21.2
고졸	20.2	1.7	23.1	18.4	34.2	2.3	100.0(993)	
대졸	20.5	1.5	23.2	16.4	36.1	2.3	100.0(654)	
대학원졸이상	15.8	-	21.1	42.1	21.1	-	100.0(19)	
취업상태								
취업중	21.5	2.1	20.3	17.2	36.6	2.3	100.0(859)	16.3
비취업(구직활동)	17.9	0.9	24.2	14.8	39.0	3.1	100.0(223)	
비취업(비구직활동)	18.7	1.1	26.2	19.5	32.6	2.0	100.0(611)	
부모동거 여부								
동거	20.0	1.8	22.9	18.5	34.4	2.4	100.0(1,362)	6.4
비동거	20.4	0.9	23.0	14.5	39.5	1.8	100.0(339)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경험								
있음	14.7	1.7	18.1	18.1	43.1	4.3	100.0(116)	7.4
없음	20.5	1.5	23.3	17.6	34.9	2.1	100.0(1,583)	
형제자매 유무								
있음	19.9	1.5	22.6	18.1	35.6	2.3	100.0(1,489)	2.3
없음	21.7	1.5	25.6	14.8	34.0	2.5	100.0(203)	
형제자매의 이혼 또는 재혼경험								
있음	15.9	3.2	15.9	17.5	47.6	-	100.0(63)	8.0
없음	18.2	2.2	25.3	17.8	33.2	3.2	100.0(75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60〉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

(단위: %, 명)

구 분	인쇄 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없음	기타	계 (명)	χ^2
전 체	17.3	1.1	27.8	19.6	31.9	2.3	100.0(1,544)	
거주지								
동부	17.1	1.2	27.7	19.3	32.4	2.3	100.0(1,408)	4.1
읍면부	19.3	-	28.9	22.2	26.7	3.0	100.0(135)	
연령								
20~25세	15.8	1.2	30.0	21.1	29.5	2.3	100.0(766)	36.0*
25~30세	19.6	1.2	25.3	20.2	32.6	1.2	100.0(506)	
30~35세	20.8	0.6	26.6	16.2	30.5	5.2	100.0(154)	
35~40세	12.8	1.2	27.9	11.6	41.9	4.7	100.0(86)	
40~45세	12.5	-	18.8	12.5	56.3	-	100.0(32)	
교육수준								
중졸이하	13.3	-	26.7	6.7	53.3	-	100.0(15)	16.8
고졸	16.5	0.6	29.8	20.8	29.7	2.6	100.0(771)	
대졸	18.2	1.6	25.8	18.8	33.3	2.3	100.0(741)	
대학원졸이상	23.5	-	23.5	5.9	47.1	-	100.0(17)	
취업상태								
취업중	18.4	1.2	27.0	19.1	32.1	2.3	100.0(838)	9.8
비취업(구직활동)	14.4	2.0	26.1	19.0	34.0	4.6	100.0(153)	
비취업(비구직활동)	16.6	0.5	29.5	20.6	31.0	1.8	100.0(549)	
부모 동거여부								
동거	17.9	1.0	26.8	20.4	31.7	2.2	100.0(1,247)	6.7
비동거	14.9	1.4	32.2	15.9	32.9	2.7	100.0(295)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경험								
있음	18.6	0.8	28.0	17.8	31.4	3.4	100.0(118)	1.0
없음	17.2	1.1	27.7	19.7	32.0	2.3	100.0(1,422)	
형제자매 유무								
있음	16.6	1.1	27.5	19.7	32.7	2.4	100.0(1,390)	7.1
없음	23.3	1.3	30.7	18.0	24.7	2.0	100.0(150)	
형제자매의 이혼 또는 재혼경험								
있음	28.3	-	13.2	9.4	45.3	3.8	100.0(53)	19.0**
없음	14.0	1.3	29.6	21.5	31.9	1.8	100.0(60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향후 본인의 결혼의향 또는 결혼계획에 따른 매체 영향력의 인식수준은 미혼남녀의 성별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태를 보였다(표 5-61, 표 5-62).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가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쇄

매체를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8%로 가장 높았던 반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TV가 영향을 준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TV를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5%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혼남성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1%).

〈표 5-61〉 미혼남성(20~44세)의 특정한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

(단위: %, 명)

구분	인쇄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없음	기타	계 (명)	χ^2
전체	20.1	1.6	22.9	17.7	35.4	2.3	100.0(1,700)	
결혼에 대한 생각								
반드시 해야 한다	22.8	1.3	18.5	15.7	39.7	2.0	100.0(395)	40.5 **
하는 편이 좋다	21.1	2.0	24.3	20.1	30.7	1.8	100.0(786)	
경우에 따라	17.1	1.2	24.5	16.1	37.9	3.3	100.0(428)	
하지 않는 게 낫다	11.9	0.0	31.0	9.5	40.5	7.1	100.0(42)	
모르겠다	17.0	0.0	17.0	14.9	51.1	0.0	100.0(47)	
결혼의향·계획								
결혼할 생각이 있다	22.0	1.9	23.2	19.2	32.3	1.5	100.0(1,288)	66.2 ***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19.4	1.0	21.4	11.2	40.8	6.1	100.0(98)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6.9	0.0	10.3	13.8	62.1	6.9	100.0(29)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1.5	0.0	30.3	11.5	41.8	4.9	100.0(122)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4.6	0.6	17.8	15.3	47.8	3.8	100.0(15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미혼여성의 경우 영향을 준 매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상관없이 TV를 본인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향후 본인의 결혼의향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로 TV가 영향을 준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미혼여성의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로 라디오의 영향력은 미혼남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인쇄매체나 TV, 인터넷과 비교하여 매우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62〉 미혼여성(20~44세)의 특정한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친 매체

(단위: %, 명)

구분	인쇄 매체	라디오	TV	인터넷	없음	기타	계(명)	χ^2
전체	17.3	1.1	27.8	19.5	31.9	2.4	100.0(1,544)	
결혼에 대한 생각								
반드시 해야 한다	18.4	2.0	29.7	13.7	34.8	1.6	100.0(256)	21.7
하는 편이 좋다	18.1	1.0	27.4	21.5	29.8	2.1	100.0(711)	
경우에 따라	15.9	1.0	27.4	20.7	32.0	3.0	100.0(497)	
하지 않는 게 낫다	13.6	0.0	29.5	13.6	43.2	0.0	100.0(44)	
모르겠다	14.7	0.0	26.5	11.8	41.2	5.9	100.0(34)	
결혼 의향·계획								
결혼할 생각이 있다	18.2	1.3	28.6	20.2	29.5	2.1	100.0(1,121)	34.8*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16.8	0.9	33.6	21.5	26.2	0.9	100.0(107)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11.8	0.0	21.6	13.7	45.1	7.8	100.0(51)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6.7	0.0	22.5	17.5	40.8	2.5	100.0(120)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3.2	0.7	23.6	16.7	42.4	3.5	100.0(144)	

주: 1) 무응답 사례는 분석제의 하였으며, 미혼조사자에 대한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p<.05, **p<.01, ***p<.001

제3절 미혼남녀의 본인 결혼에 관한 경험

미혼남녀(20~44세) 중 실제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경험과 그 이유는 <표 5-63>에 제시되어 있다. 실제 미혼남성의 6.3%와 미혼여성의 4.7%가 결혼을 연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6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경험

(단위: %, 명)

구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결혼연기 경험 여부		
있다	6.3	4.7
없다	93.7	95.3
계(명)	100.0(1,722)	100.0(1,569)

이들 미혼남녀의 결혼연기 이유는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미혼남성의 결혼연기이유는 집안반대(22.3%), 결혼비용부담(17.5%), 실업(12.6%), 결혼의무·역할부담(9.7%), 집 마련 곤란(8.7%), 소득부족(8.7%) 등의 순이다.

미혼여성의 결혼연기이유는 집안반대(27.8%), 결혼의무·역할부담(23.6%), 상대방 수입부족(18.1%), 결혼비용부담(12.5%) 등의 순이다. 미혼남녀 공히 집안 반대로 인한 결혼 연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 개인의 결혼선택에 대한 가족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 외의 주된 결혼연기 사유는 미혼남성의 경우 고용·소득과 결혼비용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생활에서 감당해야 하는 다양한 의무와 역할로 요약할 수 있다.

2009년 조사와 2005년 조사 간 미혼남녀의 결혼연기이유를 비교해 보면, 미혼남녀 모두에서 결혼을 연기한 이유로 집안반대나 결혼비용(집마련 비용 제외) 부족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상대방의 수입이 적어서 결혼을 연기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실업이나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의 결혼연기이유 비율은 미혼남녀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연도 간 비교에서 나타난 주된 특징은 집안 반대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중매결혼이 줄어들고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결혼문화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중의 하나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배우자의 소개와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정보회사는 배우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맞선을 주선하는 등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 손쉽게 다양한 교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통적인 중매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회사이다. 본 조사에서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한 경험과 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미혼남녀의 0.6%에 불과한 20명으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5-64〉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이유

(단위 : %, 명)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이유	미혼남성		미혼여성	
	2005	2009	2005	2009
실업상태이어서(사업실패)	15.0	12.6	5.3	4.2
비정규직이어서	2.7	1.0	-	-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10.9	8.7	7.9	2.8
직장일이 바빠서	8.2	2.9	2.6	-
상대방의 수입이 적어서	-	-	7.9	18.1
나의 수입이 적어서	12.9	8.7	-	1.4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0.7	-	1.3	-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8.8	9.7	22.4	23.6
집장만 이외의 결혼비용이 여의치 않아서	8.8	17.5	7.9	12.5
학업 때문에	2.0	4.9	6.6	-
집안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에	16.3	22.3	17.1	27.8
사택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	-	3.9	2.8
건강문제 때문에	1.4	3.9	3.9	2.8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0.7	2.9	-	-
기타	11.6	4.9	13.2	4.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47)	(103)	(76)	(7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6장 미혼남녀의 출산 동향

제1 절 미혼남녀의 자녀에 관한 태도

1. 미혼남녀의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자녀 필요성에 대해 21.6%가 매우 찬성 그리고 62.5%가 대체로 찬성하여 총 84.1%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자녀 필요성에 대해 매우 찬성 20.3% 그리고 대체로 찬성 61.5%로 81.7%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남녀간 비교에서 미혼여성은 미혼남성보다 자녀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거주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해 더 찬성하고 있었다. 다만 35세 이상 미혼남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찬성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고연령으로서 늦어질 출산에 대한 부담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응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연령과 자녀필요성 간에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미혼여성들이 고연령층일수록 늦어질 출산에 대한 부담이 크거나 혹은 자아실현 욕구 등이 커, 자녀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필요성도 높은 반면, 미혼여

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필요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미혼남성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자녀 필요성을 더 느끼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자녀 출산·양육을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나 향후 기대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1〉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명)	χ^2
미혼남성	21.6	62.5	12.9	3.1	100.0 (1,734)	
거주지						
동부	21.3	62.9	12.5	3.3	100.0 (1,538)	6.0
읍·면부	24.6	58.5	15.9	1.0	100.0 (195)	
연령						
20~24세	22.9	62.3	11.5	3.3	100.0 (669)	31.0 ***
20~29세	21.5	64.7	11.9	2.0	100.0 (563)	
30~34세	22.7	63.9	10.3	3.1	100.0 (291)	
35~44세	17.0	54.7	23.1	5.2	100.0 (21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6	47.1	14.7	20.6	100.0 (34)	38.4 ***
고졸	22.2	61.3	13.3	3.2	100.0 (1,013)	
대졸 이상	20.9	64.7	12.2	2.2	100.0 (688)	
미혼여성	20.3	61.5	14.6	3.7	100.0 (1,580)	
거주지						
동부	20.7	61.2	14.2	3.8	100.0 (1,446)	4.6
읍·면부	14.2	64.2	18.7	3.0	100.0 (134)	
연령						
20~24세	23.8	61.3	11.7	3.2	100.0 (781)	83.3 ***
20~29세	17.6	65.4	13.6	3.4	100.0 (523)	
30~34세	16.6	63.7	13.4	6.4	100.0 (157)	
35~44세	12.7	42.4	40.7	4.2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8.6	35.7	21.4	14.3	100.0 (14)	11.6
고졸	21.8	61.7	13.0	3.5	100.0 (793)	
대졸 이상	18.5	61.7	16.2	3.6	100.0 (7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남녀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자녀 가치(효용)와 관련한 일반적인 진술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6-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아주 긍정적으로, 남녀 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미혼남성의 86.3%와 미혼여성의 87.8%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였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진술에 대해서는 미혼여성의 85.7%와 미혼남성의 84.6%가 찬성하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진술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78.7%와 미혼여성의 78.2%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미혼남녀들 사이에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다소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술에 대한 찬반 태도는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미혼남성 50.6%, 미혼여성 50.7% 찬성).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진술에 대해서도 찬반태도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미혼남성 54.7%, 미혼여성 48.9% 찬성). 특히, 가문계승이라는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미혼여성의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하였다. 자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미혼남녀의 태도도 찬성과 반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진술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55.3%와 미혼여성의 55.1%가 찬성하였다.

부모와 연관한 자녀의 가치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도 다소 혼재되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진술에 대해 미혼남성의 58.0%와 미혼여성의 55.6%가 찬성하였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진술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의 50.3%와 미혼여성의 54.4%가 찬성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미혼남녀의 자녀가치관으로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의 도구적 가치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다소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국가와 사회 및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한 자녀의 가치에 관한 미혼남녀의 태도도 혼재되어 있다. 결국, 자녀 가치에 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사회현상의 급속한 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가치에 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부록]을 참조하도록 한다.

〈표 6-2〉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단위: %)

자녀 가치(효용)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
미혼남성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30.0	56.3	13.0	0.7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29.2	55.4	14.7	0.8	10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24.3	54.4	18.0	3.4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3	39.3	38.1	11.3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13.7	41.0	33.0	12.4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11.9	43.4	34.5	10.1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9.5	48.5	34.3	7.7	100.0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6.9	43.4	36.9	12.8	100.0
미혼여성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28.8	59.0	11.3	1.0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30.8	54.9	13.4	0.9	10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23.6	54.6	18.0	3.7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3	40.4	38.5	10.8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10.4	38.5	37.3	13.8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10.7	44.4	34.1	10.8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8.1	47.5	36.1	8.2	100.0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7.0	47.4	36.5	9.1	10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일반적으로 인간의 가치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현상과 주변의 인적·물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동일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야 보다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른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2005년 조사 결과와 2009년도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6-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긍정적인 태도(매우 찬성+대체로 찬성)는 2005년 조사결과에 비해 2009년 조사결과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도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2005년 조사결과에 비해 2009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태도는 미혼남성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줄 수 있는 함의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녀의 정서적 가치마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혼남녀들 사이에 자녀 양육에서의 보람과 부부관계의 공고화 역할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높으나,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미혼남녀의 자녀의 도구적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나,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저출산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과로 자녀 가치에 대한 다양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자녀 가치관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계속 변화할 것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변화에 따라 자녀가치관은 변화를 거듭할 것이며, 이에 대해 장기적인 조사와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6-3>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비교

자녀 가치(효용)	(단위: %)			
	미혼남성		미혼여성	
	2005	2009	2005	2009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95.0	86.2	92.5	87.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93.8	84.5	90.7	85.6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80.6	78.7	79.2	78.3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3.9	50.5	43.2	50.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48.5	54.7	29.9	48.9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40.7	55.4	35.5	55.1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60.3	58.0	50.6	55.6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¹⁾	-	50.3	-	54.5

주: 1) 2009년 조사에서 신규로 포함된 질문항목임.

3. 미혼남녀의 형제자매에 관한 태도

미혼남녀(20~44세)의 형제자매에 관한 태도를 통해 자녀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볼 수 있다. 우선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라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표 6-4>에 제시하였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92.0%와 미혼여성의 92.6%가 긍정적인 태도(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를 보여,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간 태도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거주지별로 농촌거주 미혼여성보다 도시거주 미혼여성이 동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생활에서 사회성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경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6-4>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구분	(단위: %, 명)				계(명)	χ^2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미혼남성	37.3	54.7	7.2	0.8	100.0 (1,733)	
거주지						
동부	37.0	55.0	7.1	0.9	100.0 (1,539)	2.5
읍·면부	40.0	52.3	7.7	-	100.0 (195)	
연령						
20~24세	38.7	53.2	7.0	1.0	100.0 (669)	13.8
25~29세	39.1	54.2	6.4	0.4	100.0 (563)	
30~34세	36.8	54.6	8.2	0.3	100.0 (291)	
35~44세	28.9	60.7	8.5	1.9	100.0 (211)	
교육수준						
중졸 이하	44.1	44.1	8.8	2.9	100.0 (34)	4.4
고졸	37.0	55.4	6.7	0.9	100.0 (1,011)	
대졸 이상	37.5	54.2	7.7	0.6	100.0 (688)	
취업여부						
취업	37.7	53.9	7.5	0.9	100.0 (872)	0.8
비취업	36.9	55.6	6.8	0.7	100.0 (85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6-4〉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여성	38.7	53.9	6.5	0.9	100.0 (1,581)	
거주지						
동부	39.5	53.4	6.1	1.0	100.0 (1,447)	8.0*
읍·면부	29.9	60.4	9.7	0.0	100.0 (134)	
연령						
20~24세	40.8	52.7	5.6	0.9	100.0 (780)	9.7
25~29세	37.4	54.2	6.9	1.5	100.0 (524)	
30~34세	38.0	55.1	7.0	-	100.0 (158)	
35~44세	31.9	59.7	8.4	-	100.0 (119)	
교육수준						
중졸 이하	50.0	42.9	7.1	-	100.0 (14)	1.9
고졸	37.8	55.2	6.2	0.9	100.0 (792)	
대졸 이상	39.4	52.8	6.7	1.0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37.1	55.0	6.8	1.0	100.0 (863)	2.6
비취업	40.9	52.2	5.9	1.0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6-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56.3%와 미혼여성의 56.9%가 긍정적인 태도(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를 보여, 찬반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남녀 간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도 아주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들 사이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자녀수에 정비례한다는 생각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혼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동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거주지, 연령 및 교육수준별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보다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취업 중인 미혼여성이 비취업 미혼여성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취업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녀수를 늘리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표 6-5〉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남성	16.9	39.4	36.7	6.9	100.0 (1,730)	
거주지						
동부	17.1	40.0	35.7	7.2	100.0 (1,537)	6.8
읍·면부	15.5	34.2	45.1	5.2	100.0 (193)	
연령						
20~24세	18.0	37.1	39.1	5.8	100.0 (668)	10.6
25~29세	16.2	41.0	34.8	8.0	100.0 (563)	
30~34세	15.2	44.5	33.1	7.2	100.0 (290)	
35~44세	18.1	35.2	39.5	7.1	100.0 (21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8	29.4	50.0	8.8	100.0 (34)	7.3
고졸	17.6	37.6	37.5	7.2	100.0 (1,010)	
대졸 이상	16.1	42.4	34.9	6.5	100.0 (688)	
취업여부						
취업	18.5	40.5	33.9	7.1	100.0 (870)	6.5
비취업	15.5	38.3	39.4	6.8	100.0 (852)	
미혼여성	16.4	40.5	36.4	6.6	100.0 (1,579)	
거주지						
동부	16.4	39.8	36.7	7.1	100.0 (1,446)	6.5
읍·면부	16.4	47.8	33.6	2.2	100.0 (134)	
연령						
20~24세	17.0	37.4	38.2	7.4	100.0 (781)	11.5
25~29세	15.9	41.4	36.2	6.5	100.0 (522)	
30~34세	13.9	50.0	31.0	5.1	100.0 (157)	
35~44세	18.5	43.7	33.6	4.2	100.0 (119)	
교육수준						
중졸 이하	20.0	33.3	33.3	13.3	100.0 (15)	4.7
고졸	16.2	39.8	36.3	7.7	100.0 (791)	
대졸 이상	16.5	41.3	36.7	5.4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14.5	44.4	35.9	5.2	100.0 (861)	16.8 **
비취업	18.6	36.0	37.0	8.4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6-6>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90.3%와 미혼여성의 91.0%가 긍정적인 태도(전적으로 찬성 + 대체로 찬성)를 보여,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간 태도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일반특성별(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이러한 가치관이 미혼남성들 사이에 보다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거주지, 연령 및 취업상태별 동 견해에 대한 태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농촌거주, 저학력 및 취업 중인 미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미혼여성들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6>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남성	32.8	57.5	8.9	0.9	100.0 (1,731)	
거주지						
동부	32.8	57.6	8.7	0.9	100.0 (1,537)	1.0
읍·면부	32.8	56.3	10.4	0.5	100.0 (192)	
연령						
20~24세	34.2	56.4	8.5	0.9	100.0 (667)	
25~29세	33.4	57.2	8.2	1.2	100.0 (563)	8.1
30~34세	33.7	56.0	10.0	0.3	100.0 (291)	
35~44세	25.7	63.3	10.0	1.0	100.0 (210)	
교육수준						
중졸 이하	47.1	47.1	2.9	2.9	100.0 (34)	
고졸	32.8	56.7	9.5	1.0	100.0 (1,009)	7.4
대졸 이상	32.0	59.1	8.2	0.7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32.1	58.3	9.0	0.7	100.0 (870)	
비취업	33.8	56.6	8.5	1.2	100.0 (852)	1.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6-6〉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여성	37.1	53.9	8.2	0.8	100.0 (1,580)	
거주지						
동부	38.0	53.5	7.7	0.8	100.0 (1,446)	12.2 **
읍·면부	26.9	59.0	14.2	-	100.0 (134)	
연령						
20~24세	42.7	49.0	7.8	0.5	100.0 (782)	31.7 ***
25~29세	31.2	58.7	8.8	1.3	100.0 (523)	
30~34세	39.0	54.1	6.3	0.6	100.0 (159)	
35~44세	22.9	65.3	11.0	0.8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33.3	46.7	13.3	6.7	100.0 (15)	10.9
고졸	39.3	51.9	8.2	0.6	100.0 (792)	
대졸 이상	35.0	56.1	8.1	0.8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32.6	57.7	9.0	0.7	100.0 (862)	17.7 **
비취업	42.7	49.3	7.1	0.8	100.0 (71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p <0.05, **p <0.01, ***p <0.001.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6-7>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5.9%와 미혼여성의 66.3%가 긍정적인 태도(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를 보였다. 미혼남녀 공히 동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상당한 비율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기대자녀수가 크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녀수 증가가 부모의 관심이나 자원의 배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이러한 가치관이 미혼남녀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농촌거주 미혼여성들이 도시미혼여성들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견해에 대한 미혼남
 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남성	14.5	51.4	29.3	4.8	100.0 (1,730)	
거주지						
동부	14.6	51.3	29.0	5.1	100.0 (1,537)	2.6
읍·면부	14.0	51.8	31.6	2.6	100.0 (193)	
연령						
20~24세	14.1	52.4	29.3	4.2	100.0 (668)	5.3
25~29세	13.7	50.8	29.8	5.7	100.0 (561)	
30~34세	17.6	50.3	26.9	5.2	100.0 (290)	
35~44세	13.8	51.4	31.0	3.8	100.0 (21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9	57.1	17.1	2.9	100.0 (35)	4.5
고졸	14.3	50.8	30.1	4.8	100.0 (1,009)	
대졸 이상	14.4	52.0	28.7	4.9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16.2	50.9	27.7	5.3	100.0 (871)	5.9
비취업	12.8	51.8	31.1	4.4	100.0 (850)	
미혼여성	16.7	49.6	29.8	3.8	100.0 (1,578)	
거주지						
동부	17.1	50.5	28.5	3.9	100.0 (1,447)	15.2 **
읍·면부	12.9	39.4	44.7	3.0	100.0 (132)	
연령						
20~24세	17.3	49.6	29.9	3.2	100.0 (779)	10.7
25~29세	16.7	47.5	30.5	5.4	100.0 (522)	
30~34세	13.2	58.5	25.8	2.5	100.0 (159)	
35~44세	17.8	48.3	31.4	2.5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	57.1	28.6	14.3	100.0 (14)	7.1
고졸	17.1	49.4	30.1	3.4	100.0 (790)	
대졸 이상	16.7	49.7	29.6	4.0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16.4	48.6	30.6	4.4	100.0 (862)	2.7
비취업	17.1	50.8	28.9	3.1	100.0 (71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6-8>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77.7%와 미혼여성의 80.0%가 긍정적인 태도(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를 보였다. 미혼남녀의 상당비율이 동 견해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미혼여성의 동의정도가 미혼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지원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에서 형제자매 간 일정한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미혼남성의 일반특성별(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동 견해에 대한 태도 차이는 무의미하며, 이는 남성들이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또는 인식)이 아주 낮은 경향과도 연관성이 높다. 다만, 저연령층 미혼남성의 경우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고연령층 미혼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한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비취업 중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결혼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만 하는 미혼여성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또는 직면할) 상황에서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다만, 현재 취업 미혼여성들에 비해 비취업 미혼여성이 동 견해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비취업 미혼여성들 중 상당수가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6-8〉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미혼남성	20.5	57.2	16.9	5.4	100.0 (1,730)	
거주지						
동부	20.8	57.4	16.3	5.6	100.0 (1,537)	5.0
읍·면부	18.2	56.3	21.9	3.6	100.0 (192)	
연령						
20~24세	19.9	59.8	13.9	6.3	100.0 (667)	18.8 *
25~29세	21.4	57.6	16.0	5.0	100.0 (561)	
30~34세	22.7	51.9	20.3	5.2	100.0 (291)	
35~44세	16.7	55.7	23.8	3.8	100.0 (21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8	61.8	20.6	5.9	100.0 (34)	7.8
고졸	21.5	57.5	15.2	5.8	100.0 (1,008)	
대졸 이상	19.4	56.6	19.4	4.7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21.7	55.3	17.8	5.2	100.0 (870)	3.3
비취업	19.4	59.2	15.9	5.5	100.0 (850)	
미혼여성	22.5	57.5	16.2	3.8	100.0 (1,578)	
거주지						
동부	23.1	57.5	15.4	3.9	100.0 (1,446)	8.9 *
읍·면부	16.5	57.1	24.1	2.3	100.0 (133)	
연령						
20~24세	26.3	55.3	14.2	4.1	100.0 (779)	41.2 ***
25~29세	18.8	60.5	16.3	4.4	100.0 (522)	
30~34세	22.8	62.0	13.3	1.9	100.0 (158)	
35~44세	13.6	53.4	32.2	0.8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8.6	57.1	14.3	-	100.0 (14)	9.2
고졸	24.3	56.4	16.6	2.7	100.0 (789)	
대졸 이상	20.5	58.8	15.8	4.9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19.6	58.4	17.2	4.9	100.0 (862)	14.4 **
비취업	26.1	56.3	15.0	2.5	100.0 (71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금까지 살펴본 미혼남녀의 형제자매에 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표 6-9), 모든 견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보다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제자매를 돕으로써 기대되는 장점으로서 자녀들의 사

회성 함양과 자녀들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 미혼남녀의 90% 이상이 동의하였으며, 맞벌이 도움에도 80% 수준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제자매 간 관심과 자원의 분산(65% 수준)이나 형제자매보다 외동이 양육의 용이성(55% 수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비교적 낮아, 부정적인 태도도 상당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혼남녀들 사이에 한자녀를 두는 것보다 두 자녀 이상 형제자매를 두는 것이 자녀 성장이나 부모 활동에 유익하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 형제자매를 두는 데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9〉 형제·자매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전혀 찬성않음	계
미혼남성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37.4	54.7	7.2	0.8	100.0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16.9	39.5	36.7	6.9	100.0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32.8	57.4	8.9	0.9	100.0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14.5	51.4	29.3	4.8	100.0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20.6	57.2	16.9	5.4	100.0
미혼여성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38.7	53.9	6.5	0.9	100.0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16.4	40.5	36.4	6.7	100.0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37.0	54.0	8.2	0.8	100.0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16.7	49.6	29.9	3.8	100.0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22.4	57.6	16.2	3.8	100.0

4.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

‘이상 자녀관’은 자녀수에 관한 가치관과 자녀성구성에 관한 가치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미혼남녀의 자녀수에 관한 가치관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상적인 자녀성구성에 관한 가치관을 분석하도록 한다. 미혼남녀(20~44세)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이상자녀수)는 <표 6-10>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이상자녀수로는 2명이 58.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명(22.8%), 3명(10.7%), 0명(1.4%) 4명 이상(1.3%)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이상자녀수도 2명(54.2%), 1명(26.9%), 3명(9.4%), 0명(2.5%), 4명 이상(1.2%) 등의 순으로 미혼남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미혼남성의 경우 이상자녀수로 2자녀 혹은 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1자녀나 무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평균 이상자녀수는 미혼남성의 경우 1.87명으로 미혼여성의 1.79명에 비해 0.08명 더 많게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 조사결과를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았다.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 모두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이상자녀수는 2005년 2.06명에서 2009년 1.87명으로 0.19명이 감소하였으며, 미혼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005년 2.05명에서 2009년 1.79명으로 무려 0.26명이나 감소하였다. 주된 이유로 2자녀 이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대신, 1자녀 또는 무자녀에 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자녀관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표 6-10〉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미혼 남성 2005	1.2	12.0	67.2	16.4	1.8	1.4	100.0 (1,466)	2.06
미혼 남성 2009	1.4	22.8	58.8	10.7	1.3	5.1	100.0 (1,714)	1.87
미혼 여성 2005	1.4	14.5	63.7	15.9	2.9	1.6	100.0 (1,206)	2.05
미혼 여성 2009	2.5	26.9	54.2	9.4	1.2	5.8	100.0 (1,566)	1.79

자료: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는 <표 6-11>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는 거주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 교육수준별 및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는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에서 2자녀 비율이 높은 반면, 3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무자녀 혹은 1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령별 이상자녀수는 세대간 자녀수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연령층일수록 가임기간 축소로 다출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응답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미혼남성의 평균 이상자녀수가 20~24세 1.89명과 35~44세 1.72명으로 두 연령계층 간 0.17명 차이가 있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1.87명과 1.41명으로 무려 0.46명의 차이가 있다.

미혼남녀의 교육수준별 및 취업여부별 이상자녀수를 살펴보면, 고학력층일수록 또는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무자녀 또는 1자녀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연령층으로서 가임기간이 축소되어 있거나, 자녀의 질적 측면을 중시하고, 자녀를 기회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취업자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평균 이상자녀수 차이도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졸과 대졸이상 간 평균 이상자녀수 차이는 미혼남성은 거의 없으나,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0.1명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별 평균 이상자녀수 차이도 미혼남성의 경우 거의 없으나, 미혼여성의 경우 0.22명(비취업 1.91명, 취업 1.69명)으로 나타났다.

〈표 6-1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

구분	(단위: %, 명)							계 (명)	평균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모르겠음			
미혼남성	1.4	22.8	58.8	10.7	1.3	5.1	100.0 (1,714)	1.87	
거주지($\chi^2=8.8$)									
동부	1.4	23.6	58.3	10.2	1.2	5.2	100.0 (1,524)	1.86	
읍·면부	1.6	15.8	63.2	14.2	1.6	3.7	100.0 (190)	1.99	
연령($\chi^2=30.6^*$)									
20~24세	1.4	19.9	62.4	10.4	0.6	5.3	100.0 (663)	1.89	
25~29세	1.1	24.2	58.2	10.4	1.8	4.3	100.0 (558)	1.87	
30~34세	0.7	21.7	58.0	13.6	1.7	4.2	100.0 (286)	1.94	
35~44세	3.3	29.7	50.2	8.1	1.0	7.7	100.0 (209)	1.72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6-11〉 계속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교육수준($\chi^2=30.5^{**}$)									
중졸이하	-	15.2	51.5	9.1	-	24.2	100.0	(33)	1.90
고졸	1.8	22.4	59.7	10.3	1.3	4.5	100.0	(1,001)	1.87
대졸이상	0.9	23.8	57.8	11.3	1.3	4.9	100.0	(680)	1.88
취업여부($\chi^2=21.4^{**}$)									
취업	1.4	25.8	54.1	12.5	1.6	4.6	100.0	(864)	1.87
비취업	1.4	19.6	63.5	8.7	1.1	5.7	100.0	(842)	1.88
학생	1.7	18.2	63.3	10.4	1.1	5.4	100.0	(539)	1.91
기타	1.0	22.1	64.0	5.9	1.0	5.9	100.0	(303)	1.83
미혼여성									
거주지($\chi^2=3.3$)	2.5	26.9	54.2	9.4	1.1	5.8	100.0	(1,566)	1.79
동부	2.4	27.1	54.3	9.3	1.3	5.7	100.0	(1,437)	1.79
읍·면부	3.1	25.0	53.1	10.9	-	7.8	100.0	(128)	1.78
연령($\chi^2=60.3^{***}$)									
20~24세	1.7	23.0	58.0	11.0	1.0	5.3	100.0	(773)	1.87
25~29세	2.3	26.8	55.4	8.3	1.4	5.8	100.0	(518)	1.78
30~34세	4.4	30.4	49.4	8.9	0.6	6.3	100.0	(158)	1.69
35~44세	6.0	48.7	30.8	4.3	0.9	9.4	100.0	(117)	1.41
교육수준($\chi^2=19.6^*$)									
중졸이하	-	7.1	78.6	-	7.1	7.1	100.0	(14)	1.96
고졸	2.4	24.5	55.5	10.1	1.7	5.9	100.0	(785)	1.84
대졸이상	2.5	29.9	52.4	8.9	0.5	5.9	100.0	(767)	1.74
취업여부($\chi^2=45.0^{***}$)									
취업	2.8	33.0	50.6	8.2	0.4	5.0	100.0	(852)	1.69
비취업	2.0	19.9	58.5	10.7	2.1	6.8	100.0	(708)	1.91
학생	1.7	21.1	59.2	10.7	2.1	5.3	100.0	(475)	1.90
기타	2.6	17.6	57.1	10.7	2.1	9.1	100.0	(233)	1.9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자녀수는 <표 6-12>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녀의 이상자녀수는 직종별, 종사상지위별 그리고 근로(사업)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혼남녀의 경제적 상황이 이상자녀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12>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자녀수

(단위: %, 명)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모르겠음	전체	계	평균
미혼남성	1.4	25.8	54.1	12.5	1.6	4.6	100.0	(864)	1.87
직종($\chi^2=16.4$)									
고위·(준)전문직	0.5	22.4	53.0	15.8	1.1	7.1	100.0	(183)	1.94
사무직	1.7	28.5	56.0	8.2	2.1	3.4	100.0	(291)	1.79
서비스·판매업	1.5	25.9	51.7	15.1	1.9	3.9	100.0	(259)	1.90
생산·단순노무직 등	1.8	25.4	55.3	10.5	0.9	6.1	100.0	(114)	1.82
종사상지위($\chi^2=13.9$)									
비임금근로자	1.3	27.5	48.8	17.5	2.5	2.5	100.0	(80)	1.91
상용직	1.9	27.4	53.3	11.4	1.8	4.2	100.0	(569)	1.83
임시일용직	-	21.6	57.3	14.1	0.5	6.5	100.0	(199)	1.94
근로소득($\chi^2=22.3$)									
100만원미만	-	20.0	56.0	20.0	0.0	4.0	100.0	(50)	2.02
100-150만원	1.6	17.1	61.7	13.0	1.6	5.2	100.0	(193)	1.97
150-200만원	2.1	26.7	55.1	10.3	1.2	4.5	100.0	(243)	1.81
200만원이상	1.5	32.6	47.6	12.8	1.5	4.0	100.0	(328)	1.80
미혼여성	2.8	33.0	50.6	8.2	0.4	5.0	100.0	(852)	1.69
직종($\chi^2=16.8$)									
고위·(준)전문직	2.3	30.5	49.2	11.7	0.8	5.5	100.0	(128)	1.77
사무직	3.8	34.7	49.8	6.8	0.2	4.7	100.0	(425)	1.64
서비스·판매업	2.1	34.4	49.8	8.3	-	5.4	100.0	(241)	1.68
생산·단순노무직 등	2.3	14.0	72.1	7.0	-	4.7	100.0	(43)	1.89
종사상지위($\chi^2=10.1$)									
비임금근로자	1.9	37.7	50.9	5.7	-	3.8	100.0	(53)	1.64
상용직	2.9	34.5	48.8	8.6	0.5	4.8	100.0	(631)	1.68
임시일용직	3.9	24.0	57.1	7.8	-	7.1	100.0	(154)	1.74
근로소득($\chi^2=18.9$)									
100만원미만	1.4	17.1	68.6	7.1	-	5.7	100.0	(70)	1.88
100-150만원	2.8	29.4	54.6	8.3	0.5	4.6	100.0	(218)	1.73
150-200만원	3.8	37.0	47.5	5.0	0.4	6.3	100.0	(238)	1.59
200만원이상	3.0	35.0	48.7	8.4	-	4.9	100.0	(263)	1.66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음으로 이상적인 자녀성구성에 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6-13>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32.9%와 미혼여성의 29.0%가 이상자녀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나머지는 성별과 상관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혼남성의 경우 이상자녀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향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고연령층일수록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자녀성구성

(단위: %, 명)

구분	딸·아들 구별없이	딸·아들 구별해서	모르겠음	계(명)
미혼남성	61.5	32.9	5.5	100.0 (1,685)
연령($\chi^2=7.9$)				
20~24세	60.4	33.5	6.1	100.0 (651)
25~29세	62.6	33.0	4.4	100.0 (551)
30~34세	61.7	34.4	3.9	100.0 (282)
35~44세	62.5	29.0	8.5	100.0 (200)
미혼여성	64.8	29.0	6.2	100.0 (1,524)
연령($\chi^2=24.6^{***}$)				
20~24세	63.4	31.0	5.5	100.0 (757)
25~29세	66.0	28.9	5.1	100.0 (506)
30~34세	62.7	31.3	6.0	100.0 (150)
35~44세	73.4	12.8	13.8	100.0 (109)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자녀성을 조합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아들 1+딸 1(77.1%)’, ‘아들 1+딸 2(7.7%)’, ‘아들 2+딸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아들 1+딸 1(76.0%)’, ‘아들 1+딸 2(7.4%)’, ‘아들 2+딸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자녀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응답한 미혼남녀는 대체적으로 어느 한 성으로 편향되지 않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다소 나타났다. 예를 들어, 1자녀를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생각할 경우, 그 자녀의 성이 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여성의 경우 4.8%로 미혼남성의 1.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4〉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적 자녀성구성¹⁾

(단위: %, 명)

구분	1자녀		2자녀			3자녀				4명 이상	계(명)
	아들1	딸1	아들2	아들1 딸1	딸2	아들3	아들2 딸1	아들1 딸2	딸3		
미혼남성	2.1	1.3	1.3	77.1	0.8	-	7.7	7.7	-	2.1	100.0(532)
미혼여성	2.1	4.8	1.0	76.0	0.7	0.2	5.2	7.4	-	2.6	100.0(42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1명 이상의 자녀를 딸·아들을 구분하여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5. 미혼여성의 이상적인 자녀수-근무형태 조합

미혼여성(20~44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와 직장근무형태의 조합은 <표 6-15>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여성의 25.1%가 2자녀이상을 두면서 시간제(2자녀 시간제근무)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1자녀 전일제근무(17.2%)’, ‘2자녀이상 비취업(16.7%)’, ‘2자녀이상 전일제근무(15.2%)’, ‘1자녀 시간제근무(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거주지별로도 이상적인 자녀수와 근무형태의 조합은 전체적인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2자녀 이상 시간제근무’, ‘2자녀 이상 비취업’, ‘2자녀 이상 전일제근무’ 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1자녀 전일제근무’, ‘1자녀 시간제근무’ 및 ‘무자녀 전일제근무’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자녀수와 근무형태로서 ‘1자녀 전일제근무’의 비율이 ‘2자녀 이상 시간제근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5세 이상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자녀수와 근무형태의 비율이 ‘1자녀 전일제근무’, ‘무자녀 전일제근무’, ‘2자녀 이상 시간제근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 이상적인 자녀수와 근무형태는 사례수가 적은 중졸이하를 제외하면 ‘2자녀 이상 비취업’의 비율이 고졸학력 미혼여성에게서 높을 뿐, 나머지 대부분 조합들의 비율은 대졸 이상 고학력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이상적인 자녀수와 근무형태는 취업시 ‘1자녀 전일제근무’, ‘무자녀 전일제근무’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취업시에는 ‘2자녀 이상 비취업’, ‘2자녀 이상 시간제근무’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고연령층이거나 취업 미혼여성은 자녀를 적게 두면서 전일제로 일을 하는 형태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반면, 저연령층이거나 비취업 미혼여성은 일을 시간제로 하거나 전혀 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15〉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자녀수와 근무형태 조합

(단위: %, 명)

구분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비취업			계(명)	x ²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전체	6.2	17.2	15.2	2.5	13.6	25.1	0.6	2.9	16.7	100.0 (1,573)	
거주지											
동부	5.5	17.0	15.2	2.6	13.7	25.6	0.6	3.0	16.8	100.0 (1,441)	22.4 **
읍·면부	15.0	18.8	15.8	1.5	12.0	19.5	-	1.5	15.8	100.0 (133)	
연령											
20~24세	5.0	15.2	15.7	2.3	11.9	26.0	-	2.7	21.1	100.0 (776)	107.9 ***
25~29세	6.1	17.1	17.1	2.3	15.4	27.4	0.4	2.9	11.3	100.0 (521)	
30~34세	5.7	20.3	15.2	1.9	12.7	19.6	1.9	3.2	19.6	100.0 (158)	
35~44세	15.4	26.5	4.3	6.0	17.9	15.4	3.4	4.3	6.8	100.0 (117)	
교육수준											
중졸이하	13.3	6.7	13.3	-	-	33.3	-	6.7	26.7	100.0 (15)	47.1 ***
고졸	6.4	14.2	14.6	2.5	13.2	23.4	0.5	2.9	22.2	100.0 (787)	
대졸이상	6.1	20.3	15.8	2.6	14.2	26.6	0.6	2.8	11.0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7.7	19.8	14.8	2.8	14.6	23.3	0.3	3.0	13.6	100.0 (858)	30.4 ***
비취업	4.6	14.1	15.7	2.2	12.5	27.0	1.0	2.5	20.3	100.0 (714)	
학생	4.4	15.2	15.4	2.5	11.7	23.4	0.2	2.3	24.8	100.0 (479)	
기타	5.1	11.9	16.2	1.7	14.0	34.5	2.6	3.0	11.1	100.0 (23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미혼남녀의 이상적인 자녀수 인생목표 조합

미혼남녀(20~44세)가 추구하는 인생목표와 자녀수 간의 조합에 관한 태도는 <표 6-16>에 제시되어 있다. 인생목표로서 ‘본인이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녀수는 1자녀가 미혼남성 42.2%와 미혼여성 49.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무자녀로 나타났다. ‘노후에 안락하기 살기 위해서’는 미혼남성의 경우 2자녀(30.5%), 1자녀 등의 순으로,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1자녀(28.6%), 2자녀 등의 순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부간 가사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자녀수는 1자녀(미혼남성 34.5%, 미혼여성 30.1%), 2자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적절한 자녀수도 미혼남녀 모두 1자

녀(미혼남성 40.0%, 미혼여성 39.9%), 2자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의 실현(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에 따라 사는 것)을 위해’ 적절한 자녀수는 미혼남녀 모두 1자녀(미혼남성 30.1%, 미혼여성 29.9%), 2자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로서 경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미혼남녀 모두 1자녀(미혼남성 31.8%, 미혼여성 35.3%), 무자녀 등의 순으로 적절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미혼남녀 모두 1자녀(미혼남성 34.2%, 미혼여성 36.2%), 2자녀 등의 순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자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미혼남녀 모두 아주 높게 나타났다(미혼남성 60.1%, 미혼여성 60.2%). 이는 교육비용이 지나치게 높음을 감안한 응답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미혼남녀들은 인생목표가 무엇이던가에 1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미혼남성의 경우 ‘노후에 안락하기 살기 위해서’ 2자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제 영역에서 1자녀관이 아주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6-16〉 미혼남녀(20~44세)가 추구하는 인생목표와 자녀수 간의 조합

(단위: %, 명)

인생목표 달성과 자녀수의 관계	미혼남성						미혼여성					
	0명	1명	2명	3명 이상	관계 없음	계	0명	1명	2명	3명 이상	관계 없음	계
본인 욕구 충실	25.1	42.2	17.1	0.5	15.1	100.0	25.9	49.1	13.3	0.7	11.0	100.0
안락한 노후	12.4	29.5	30.5	5.1	22.5	100.0	13.8	28.6	28.1	5.7	23.8	100.0
공평한 가사분담	11.3	34.5	27.7	4.1	22.3	100.0	12.5	30.1	28.0	3.7	25.6	100.0
소득재산 마련	18.6	40.0	20.1	2.2	19.1	100.0	17.4	39.9	18.6	2.2	21.8	100.0
대의의 실현	14.6	30.1	19.5	3.0	32.7	100.0	14.1	29.9	19.7	2.9	33.4	100.0
경력 축적	23.1	31.8	16.8	1.7	26.7	100.0	25.2	35.3	14.8	1.8	23.0	100.0
좋은 집 마련	12.7	34.2	19.4	3.1	30.5	100.0	12.4	36.2	18.1	4.2	29.1	100.0
교육 기회 제공	-	60.1	21.6	1.8	16.5	100.0	-	60.2	21.2	2.2	16.4	100.0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제2절 미혼남녀 본인 출산에 관한 태도

1. 미혼남녀의 출산 의향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출산 의향은 <표 6-18>과 <표 6-19>에 제시되었다. 미혼남성 중 24.3%는 반드시 그리고 62.2%는 가능하면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으며, 7.1%는 자녀를 가지고 싶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24.0%가 반드시 그리고 60.5% 가능하면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으며, 9.0%는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간 비교해 보면,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자녀출산의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출산의향을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2005년 93.1%에서 2009년 86.5%로, 미혼여성의 경우 88.7%에서 84.5%로 각각 감소하였다. 특히,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의향은 미혼남녀 모두 2005년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출산의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표 6-17>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자녀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지고 싶다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가지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계(명)
미혼 남성	2005 54.4	38.7	3.5	0.7	2.8	100.0 (1,449)
	2009 24.2	62.2	6.3	0.8	6.4	100.0 (1,734)
미혼 여성	2005 42.1	46.6	6.6	1.0	3.6	100.0 (1,188)
	2009 24.1	60.4	7.5	1.5	6.5	100.0 (1,580)

자료: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이삼석 외, 2006.

이와 같은 자녀출산 의향은 미혼남성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거주지역 및 취업여부별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혼남성

의 연령별 자녀출산 의향은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고연령층 미혼남성일수록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대신 자녀를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는 비율과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4세 미혼남성의 경우 6.0%가 자녀출산의향이 없는 반면, 35세 이상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16.1%가 자녀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 차이는 약 10%p에 이른다. 미혼남성의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저학력층에서 자녀출산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고졸과 대졸 이상 학력계층들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요컨대, 고연령층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비혼이나 만혼에 따른 가임기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저학력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적합한 배우자를 만날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등으로 인하여 자녀출산 의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6-18〉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자녀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지고싶다	가능하면 가지고싶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가지고 싶은 생각 전혀없다	생각해 본적이 없다	계(명)	χ^2
전체	24.2	62.2	6.3	0.8	6.4	100.0 (1,734)	
거주지							
동부	24.2	62.4	5.9	0.8	6.6	100.0 (1,539)	5.0
읍·면부	24.2	60.3	9.8	0.5	5.2	100.0 (194)	
연령							
20~24세	26.9	60.8	5.4	0.6	6.3	100.0 (669)	54.2 ***
20~29세	25.5	62.7	5.8	0.7	5.3	100.0 (565)	
30~34세	24.4	65.6	4.1	0.3	5.5	100.0 (291)	
35~44세	12.3	60.4	13.7	2.4	11.3	100.0 (212)	
교육수준							
중졸이하	17.6	41.2	14.7	2.9	23.5	100.0 (34)	27.0 **
고졸	25.0	61.4	6.7	0.8	6.1	100.0 (1,012)	
대졸이상	23.4	64.5	5.4	0.7	6.0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22.6	64.1	6.9	0.8	5.6	100.0 (872)	5.3
비취업	25.9	60.4	5.8	0.8	7.2	100.0 (851)	
학생	28.6	60.4	4.8	0.6	5.7	100.0 (545)	
기타	20.9	60.5	7.5	1.3	9.8	100.0 (30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여성의 자녀출산의향은 연령과 취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거주지와 교육수준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혼여성의 연령별로는 ‘반드시 가지고 싶다’와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비율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 반대로, 자녀를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는 의향은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혼여성의 자녀출산의향 비율(반드시+가능하면 가지고 싶다)은 20~24세 87.1%, 25~29세 86.8%, 30~34세 83.4%, 35~44세 59.1%로 특히 3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미혼 여성에 비해 취업미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반드시 출산하려는 의향이 낮고, 대신 자녀를 별로 가지고 싶지 않거나 전혀 생각이 없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가임기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취업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기회비용 증대 등으로 인하여 자녀출산 의향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19〉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자녀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지고싶다	가능하면 가지고싶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가지고 싶은 생각 전혀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계(명)	χ^2
전체	24.1	60.4	7.5	1.5	6.5	100.0 (1,580)	
거주지							
동부	24.5	60.3	7.3	1.5	6.5	100.0 (1,446)	3.6
읍·면부	19.4	61.9	10.4	2.2	6.0	100.0 (134)	
연령							
20~24세	28.5	58.6	5.0	1.4	6.5	100.0 (780)	
20~29세	20.4	66.4	7.1	1.5	4.6	100.0 (524)	92.3***
30~34세	19.9	63.5	8.3	0.6	7.7	100.0 (156)	
40~44세	16.1	42.4	24.6	3.4	13.6	100.0 (118)	
교육수준							
중졸 이하	20.0	53.3	13.3	-	13.3	100.0 (15)	
고졸	25.5	59.9	6.4	1.5	6.7	100.0 (793)	6.3
대졸 이상	22.7	61.0	8.7	1.6	6.1	100.0 (774)	
취업여부							
취업	21.1	61.3	9.9	1.6	6.0	100.0 (861)	21.0***
비취업	27.3	59.6	4.8	1.3	7.1	100.0 (715)	
학생	27.6	61.2	3.5	1.7	6.1	100.0 (479)	
기타	27.0	56.7	6.9	0.4	9.0	100.0 (23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

미혼남녀(20~44세) 본인이 낳고 싶어 하는 자녀수(기대자녀수)는 <표 6-20>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기대자녀수는 2명이 58.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명 22.9%, 3명 10.9%, 4명 이상 1.9%, 무자녀 0.9%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기대자녀수도 2명이 5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명 28.5%, 3명 10.0%, 무자녀 1.7%, 4명 이상 1.6%,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간 기대자녀수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2자녀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1자녀 이하(무자녀 포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1.90명으로 미혼남성의 1.81명 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에 대해 2005년 조사와 2009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미혼남녀 모두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무자녀나 2명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1명의 비율은 다소 큰 폭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평균 기대자녀수는 미혼남성의 경우 2005년 2.13명에서 2009년 1.90명으로,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2.07명에서 1.81명으로 모두 2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들 사이에 2자녀관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대신 1자녀관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시사해 준다.

<표 6-20>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모르겠음	계	평균
미혼	2005	1.5	12.5	61.8	19.5	3.6	1.0	100.0	(1,465) 2.13
남성	2009	0.9	22.9	58.1	10.8	1.9	5.4	100.0	(1,739) 1.90
미혼	2005	2.4	15.5	58.7	17.9	4.2	1.2	100.0	(1,203) 2.07
여성	2009	1.7	28.4	52.9	10.0	1.6	5.4	100.0	(1,568) 1.81

자료: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이삼식 외, 2006.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대자녀수는 <표 6-21>에 제시되어 있다. 거주지별로 기대자녀수 차이는 미혼남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거주지별 기대자녀수 분포는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나나, 도시거주자일수록 1자녀의 비율이 그리고 농촌거주자일수록 3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도시 거주 미혼남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1.88명으로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2.03명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서 생활비용,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가 이들 남성의 자녀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는 고연령층일수록 2자녀와 3자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1자녀와 무자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연령층일수록 가임기간 단축, 자녀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기회비용 증가, 적합한 배우자 물색 곤란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상대적으로 덜 출산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기대자녀수는 미혼남성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교육수준이 고학력일수록 1자녀 이상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저학력일수록 무자녀나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 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자녀출산을 기피하거나 망설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취업여부별 기대자녀수는 남녀 모두 비취업의 경우에 비해 취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 미혼남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1.89명으로 비취업 미혼남성의 1.91명에 비해 적다. 취업 미혼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도 1.72명으로 비취업 미혼여성의 1.91명에 비해 약 0.2명 적다. 미혼남녀의 경우에도 취업시 향후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는 인식 하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출산을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2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모르겠음	계 (명)	평균
미혼남성(전체)	0.9	22.9	58.1	10.8	1.9	5.4	100.0 (1,729)	1.90
거주지($x^2=12.6^*$)								
동부	0.9	23.7	58.3	10.2	1.9	5.1	100.0 (1,536)	1.88
읍·면부	1.0	16.4	56.4	16.4	2.1	7.7	100.0 (195)	2.03
연령($x^2=34.9^{**}$)								
20~24세	1.0	21.3	60.0	10.2	1.5	6.0	100.0 (668)	1.90
25~29세	0.4	22.8	60.2	11.1	2.1	3.4	100.0 (561)	1.92
30~34세	0.7	21.0	57.0	13.7	2.7	4.8	100.0 (291)	1.97
35~44세	2.4	31.0	47.6	8.6	1.4	9.0	100.0 (210)	1.74
교육수준($x^2=20.4^*$)								
중졸 이하	-	17.6	52.9	8.8	-	20.6	100.0 (34)	1.88
고졸	1.1	22.7	58.1	10.5	1.9	5.7	100.0 (1,011)	1.89
대졸 이상	0.6	23.4	58.3	11.5	2.0	4.1	100.0 (684)	1.91
취업여부($x^2=24.7^{***}$)								
취업	0.9	26.1	53.8	12.8	2.1	4.2	100.0 (873)	1.89
비취업	0.9	19.6	62.3	8.7	1.8	6.6	100.0 (847)	1.91
학생	0.9	18.6	63.2	9.9	1.8	5.5	100.0 (544)	1.93
기타	1.0	21.1	60.7	6.9	1.7	8.6	100.0 (303)	1.86
미혼여성(전체)	1.7	28.4	52.9	10.0	1.6	5.4	100.0 (1,568)	1.81
거주지($x^2=3.3$)								
동부	1.8	28.3	52.8	10.0	1.7	5.3	100.0 (1,440)	1.81
읍·면부	0.8	31.0	52.7	10.1	-	5.4	100.0 (129)	1.76
연령($x^2=107.9^{***}$)								
20~24세	1.7	23.8	55.9	12.1	1.9	4.5	100.0 (776)	1.90
25~29세	0.6	29.7	55.2	8.7	1.4	4.4	100.0 (518)	1.80
30~34세	0.6	35.7	49.7	8.3	0.6	5.1	100.0 (157)	1.71
35~44세	8.6	44.0	26.7	4.3	0.9	15.5	100.0 (116)	1.34
교육수준($x^2=16.5$)								
중졸 이하	0.0	15.4	46.2	23.1	-	15.4	100.0 (13)	1.94
고졸	1.8	26.3	53.1	11.2	2.3	5.4	100.0 (784)	1.86
대졸 이상	1.7	30.9	52.9	8.6	0.9	5.1	100.0 (770)	1.75
취업여부($x^2=32.7^{***}$)								
취업	1.8	34.1	49.5	9.0	0.8	4.8	100.0 (851)	1.72
비취업	1.7	22.0	56.9	11.1	2.4	5.9	100.0 (709)	1.91
학생	1.5	22.4	56.6	11.1	2.7	5.7	100.0 (477)	1.92
기타	2.1	20.9	57.7	11.1	1.7	6.4	100.0 (234)	1.90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20~44세)가 희망하는 자녀 성구성은 <표 6-22>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60.6%와 미혼여성의 66.1%는 희망하는 자녀수만을 중시

하고, 이들 자녀의 성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혼남성의 경우 연령별 자녀성선호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고연령층일수록 기대자녀수의 성에 무관하다는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22〉 미혼남녀(20~44세)의 기대자녀수의 성별 선호 여부¹⁾

				(단위: %, 명)
구분	딸·아들 구별없이	딸·아들 구별해서	모르겠음	계(명)
미혼남성	60.6	36.2	3.2	100.0 (1,617)
연령($\chi^2=6.2$)				
20~24세	59.9	37.2	2.9	100.0 (618)
25~29세	60.6	36.4	3.0	100.0 (541)
30~34세	58.6	38.2	2.9	100.0 (272)
35~44세	66.1	29.0	4.8	100.0 (186)
미혼여성	66.1	31.3	2.6	100.0 (1,452)
연령($\chi^2=12.1$)				
20~24세	64.1	33.4	2.5	100.0 (727)
25~29세	66.9	30.8	2.4	100.0 (490)
30~34세	66.7	31.1	2.7	100.0 (147)
35~44세	77.3	17.0	5.7	100.0 (88)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중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향후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싶다고 응답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이들 미혼남녀들이 선호하는 자녀의 성구성은 미혼남녀 모두 ‘아들1+딸1’의 비율(미혼남성 74.3%, 미혼여성 72.7%)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아들2명+딸1명(7.7%)’, ‘아들1명+딸2명(7.3%)’, 딸1명(3.5%), 아들1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아들1명+딸1명(72.7%)’, ‘아들1명+딸2명(7.4%)’, 딸1명(6.5%) 등의 순으로 미혼남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미혼남녀들은 자녀 성구성의 조화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며, 1자녀만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혼남녀 모두 아들 1명 보다는 딸1명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3〉 미혼남녀(20~44세)의 기대자녀 성구성¹⁾

(단위: %, 명)

구분	아들1	딸1	아들2	아들1 딸1	딸2	아들3	아들2 딸1	아들1 딸2	딸3	4명 이상	계(명)
미혼남자	2.8	3.5	1.2	74.3	1.0	-	7.7	7.3	-	2.1	100.0 (572)
미혼여자	2.3	6.5	0.7	72.7	2.0	0.2	5.6	7.4	-	2.5	100.0 (44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1) 향후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싶다고 응답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미혼남녀의 소자녀 및 무자녀 희망 이유

앞서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에 관한 조사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본 조사에서는 자녀를 전혀 두지 않거나 1명만을 두고자 하는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우선 미혼남성이 1자녀만을 출산하려는 이유는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45.1%), 여가·자아성취(16.0%), 소득부족(10.9%), 실업·고용불안정(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1자녀만을 출산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49.7%), 여가·자아성취(17.0%), 일·가정양립 곤란(12.3%), 육아인프라 부족(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간 1자녀 출산의향 이유를 비교해 보면,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과 여가·자아성취를 가장 주된 이유들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외 이유들은 미혼남녀간 상이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정 등 주로 경제적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어, 남성으로서 가족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책임 부담이 기대자녀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일·가정양립 곤란과 육아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으로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기대자녀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조사 결과로서 미혼남녀가 1자녀만을 출산하겠다고 응답한 이유를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과 고용불안정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소득부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과 여가·자아성

취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일·가정양립 곤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1자녀만 출산하겠다는 경향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자녀양육의 고비용 사회구조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미혼층에게도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혼여성의 경우, 여가 및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결혼 시 자녀출산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혼여성의 출산 축소의 이유로 일가정양립 곤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실제 양육·직장생활을 동시에 경험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거나 육아 인프라 부족의 이유로 분산되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표 6-24〉 미혼남녀(20~44세)의 특성별 1자녀만 출산의향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소득·고용 불안정 ¹⁾		주택마련 곤란 ²⁾	자녀 교육·양육비용 부담 ³⁾		육아 인프라 부족 ⁴⁾	일·가정 양립 곤란 ⁵⁾	여가 및 자아성취 ⁶⁾	건강문제 ⁷⁾	기타 ⁸⁾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미혼 남성	2005	17.5	4.9	3.3	22.4	18.0	2.2	5.5	16.4	-	9.8	100.0 (183)
	2009	10.9	8.7	4.9	25.8	19.3	4.3	6.8	16.0	1.4	1.9	100.0 (368)
미혼 여성	2005	4.3	4.3	1.1	24.5	22.3	4.8	17.6	12.2	4.8	4.3	100.0 (188)
	2009	5.0	5.7	2.8	27.8	21.9	7.1	12.3	17.0	0.2	0.2	100.0 (42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 2) ③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마련이 어려워서
- 3) ④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⑤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 4) ⑥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 5) ⑦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 불이익/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 6) ⑧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 자아성취에 시간이 부족해서/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 7) ⑨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 8) ⑩ 본인이 애를 싫어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겪는 가족의 간호 때문에/ 기타

향후 1자녀만을 출산하려는 이유는 미혼남성의 연령별로 그리고 미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미혼남성의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소득부족 이유의 비율이 높으며, 저연령층일수록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이유들은 연령계층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고연령층 미혼남성은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1자

녀만을 출산하려는 의향이 강하나, 저연령층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교육비용 부담에 관한 사회심리적 분위기 혹은 자신의 부모세대를 통한 간접적 경험이 향후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 취업자는 일가정양립 곤란, 여가·자아성취,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1자녀만을 출산하려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비취업자(학생 제외)는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육아인프라 부족, 소득부족 등을 이유로 1자녀만을 출산하려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표 6-25〉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1자녀만 출산의향 이유(1순위)¹⁾

(단위: %, 명)

구분	소득고용 불안정 ¹⁾		주택 마련 ²⁾ 곤란	자녀 교육·양육비용 부담 ³⁾		육아 인프라 부족 ⁴⁾	일·가정 양립 ⁵⁾ 곤란	여가 및 자아성취 ⁶⁾	건강 문제 ⁷⁾	기타 ⁸⁾	계 (명)	x ²
	①	②		④	⑤							
미혼남성	10.9	8.7	4.9	25.8	19.3	4.3	6.8	16.0	1.4	1.9	100.0 (368)	
거주지												
동부	11.5	9.1	3.8	26.2	19.4	4.7	6.5	15.6	1.5	1.8	100.0 (340)	16.5
읍·면부	3.6	3.6	17.9	21.4	17.9	-	10.7	21.4	-	3.6	100.0 (28)	
연령												
20~24세	8.3	4.5	5.3	25.6	21.8	4.5	7.5	21.8	-	0.8	100.0 (133)	56.1 **
25~29세	11.4	14.0	1.8	32.5	19.3	5.3	7.0	7.0	0.9	0.9	100.0 (114)	
30~34세	13.8	12.1	10.3	17.2	22.4	1.7	8.6	10.3	3.4	-	100.0 (58)	
35~44세	14.1	4.7	4.7	23.4	12.5	4.7	3.1	23.4	1.6	7.8	100.0 (64)	
취업여부												
취업	14.8	9.7	4.2	23.6	17.6	5.1	7.9	14.8	0.9	1.4	100.0 (216)	10.8
비취업	6.0	7.9	6.0	27.8	21.2	3.3	6.0	17.9	1.3	2.6	100.0 (151)	
학생	6.6	3.3	3.3	27.5	25.3	4.4	6.6	22.0	-	1.1	100.0 (91)	
기타	3.4	15.5	8.6	31.0	15.5	1.7	3.4	12.1	3.4	5.2	100.0 (5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 2) ③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마련이 어려워서
- 3) ④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⑤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 4) ⑥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 5) ⑦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 불이익/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 6) ⑧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 자아성취에 시간이 부족해서/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 7) ⑨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 8) ⑩ 본인이 애를 싫어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겪는 가족의 간호 때문에/ 기타

〈표 6-25〉 계속

(단위: %, 명)

구분	소득·고용 불안정 ¹⁾		주택 마련 곤란 ²⁾	자녀 교육·양육비용 부담 ³⁾		육아 인프라 부족 ⁴⁾	일·가정 양립 곤란 ⁵⁾	여가 및 자아성취 ⁶⁾	건강문제 ⁷⁾	기타 ⁸⁾	계 (명)	χ 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미혼여성	5.0	5.7	2.8	27.8	21.9	7.1	12.3	17.0	0.2	0.2	100.0 (424)	
거주지												
동부	4.6	5.4	2.8	28.5	22.4	7.7	11.3	16.7	0.3	0.3	100.0 (389)	8.1
읍·면부	5.7	8.6	2.9	20.0	20.0	-	22.9	20.0	-	-	100.0 (35)	
연령												
20~24세	2.9	7.5	2.9	30.1	18.5	10.4	13.3	13.9	0.6	-	100.0 (173)	30.6
25~29세	4.8	6.2	3.4	30.8	21.2	5.5	11.0	16.4	-	0.7	100.0 (146)	
30~34세	9.3	-	3.7	18.5	22.2	3.7	14.8	27.8	-	-	100.0 (54)	
35~44세	6.0	4.0	-	24.0	34.0	4.0	10.0	18.0	-	-	100.0 (50)	
취업여부												
취업	5.7	7.2	2.9	26.2	22.2	4.3	11.5	19.4	0.4	0.4	100.0 (279)	18.0 *
비취업	3.5	2.8	2.8	30.6	21.5	12.5	13.9	12.5	-	-	100.0 (144)	
학생	1.0	2.0	3.0	30.0	18.0	14.0	17.0	15.0	-	-	100.0 (100)	
기타	7.1	4.8	2.4	33.3	31.0	7.1	7.1	7.1	-	-	100.0 (4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에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 ③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마련이 어려워서
- ④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⑤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 ⑥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 ⑦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 불이익/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 ⑧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 자아성취에 시간이 부족해서/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 ⑨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 ⑩ 본인이 애를 싫어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겪는 가족의 간호 때문에/ 기타

미혼남녀(20~44세)가 향후 자녀를 전혀 두지 않으려는 이유는 〈표 6-26〉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자녀 이유는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외에 ‘여가 및 부부만의 생활을 위해(20.7%)’, 자녀교육비용 부담(17.7%), 자녀양육비용 부담(14.8%), 일·가정 양립 곤란(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미혼남녀가 1자녀만을 출산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로 경제사회적인 것이라면, 자녀를 전혀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주로 개인의 가치관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최근에 올수록 미혼남녀들 사이에 자

녀출산을 통해 얻은 기회나 보상보다 개인이나 부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은 기회(예로 삶의 질 제고 등)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자녀교육비용에 대한 부담도 미혼남녀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주된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6> 미혼남녀(20~44세)의 무자녀 희망 이유(1순위)

(단위: %, 명)

자녀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2005			2009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전체	미혼남성	미혼여성
소득부족	6.1	9.5	3.6	2.8	7.1	-
실업 및 고용불안정	10.2	19.0	3.6	-	-	-
자녀양육을 위한 주택마련 어려움	2.0	-	3.6	2.8	-	3.8
자녀 양육비용 부담	12.2	19.0	7.1	14.8	14.3	15.4
자녀 교육비용 부담	4.1	-	7.1	17.7	28.6	11.5
육아 인프라 부족	2.0	4.8	-	1.6	-	3.8
일가정양립곤란	16.3	4.8	25.0	12.9	-	19.2
여가 및 부부만의 생활을 위해	12.2	14.3	10.7	20.7	35.7	15.4
건강문제	4.1	-	7.1	-	-	-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22.4	17.7	26.0	24.0	14.3	26.9
가족 수발 때문에	8.2	10.9	6.1	2.6	-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9)	(21)	(28)	(41)	(14)	(2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 불이익/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가정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 2)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4. 미혼남녀의 첫자녀 출산 여건

미혼남녀(20~44세)가 언제(어떠한 여건 하에서) 첫 자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응답 내용은 <표 6-27>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첫자녀 출산 시기(조건)는 고용안정(38.3%), 소득안정(26.6%), 출산적령기 내(9.5%), 집장만 후(9.3%), 충분한 부부생활 후(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첫자녀 출산시기(조건)는 소득안정(30.3%), 고용안정(26.6%), 출산적령기 내(14.2%), 충분한 부부생활 후(13.8%), 집장만 후(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첫자녀 출산시기로 고용, 소득, 집장만 등

경제적 여건(미혼남성의 74.2%, 미혼여성의 65.0%)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은 출산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혼남녀의 일반적인 특성들 중 미혼여성의 거주지와 미혼남녀의 취업여부의 경우에만 첫자녀를 가질 여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여성 중 도시 거주자들은 첫자녀 출산조건으로 고용안정, 소득안정 및 집장만 후 등 경제적 여건들을, 그리고 농어촌 거주자들은 충분한 부부생활 후와 출산적령기 내 등 비경제적 여건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공히 취업여부별로 첫 자녀 출산 여건들의 우선순위는 전체적인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첫 자녀 출산 여건으로서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을 중시하는 비율은 미혼남녀 공히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자의 경우 고용과 소득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장만 이후를 제외하면, 미혼남녀 공히 충분한 부부생활 후, 출산 적령기 내, 배우자 희망 등 첫 자녀 출산의 비경제적 여건들에 대해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었다. 집장만 후 첫 자녀를 출산하여야 한다는 비율은 미혼남성의 경우 비취업자보다 취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경제적인 여건들에 대한 중요 정도는 고용과 소득에 대한 중요 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취업 미혼남녀들이 비취업 미혼남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그만큼 비경제적인 여건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표 6-27〉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첫자녀 출산 여건(1순위)

(단위: %, 명)

구분	고용 안정	소득 안정	집장만 후	충분한 부부 생활후	출산 적령기 내	배우자 희망시	부모 희망시 등	계 (명)
미혼남성	38.3	26.6	9.3	9.0	9.5	5.3	2.1	100.0 (1,596)
거주지($x^2=7.8$)								
동부	38.7	26.9	9.1	9.2	9.0	5.0	2.0	100.0 (1,426)
읍·면부	34.9	23.8	10.5	7.0	13.4	7.6	2.9	100.0 (172)
연령($x^2=27.2$)								
20~24세	42.3	27.0	7.6	9.4	8.9	3.8	1.2	100.0 (608)
20~29세	38.6	26.1	10.7	7.1	9.6	5.1	2.8	100.0 (533)
30~34세	33.2	26.9	10.3	8.9	11.1	7.0	2.6	100.0 (271)
35~44세	31.4	26.5	9.2	12.4	9.7	8.1	2.7	100.0 (185)
교육수준($x^2=12.2$)								
중졸 이하	42.9	17.9	3.6	10.7	17.9	3.6	3.6	100.0 (28)
고졸	40.2	26.2	9.7	8.9	8.4	4.6	2.1	100.0 (922)
대졸 이상	35.3	27.4	9.0	9.0	10.8	6.3	2.2	100.0 (646)
취업여부($x^2=44.1^{***}$)								
취업	31.4	27.0	11.8	10.2	10.7	6.0	2.8	100.0 (821)
비취업	45.7	26.2	6.5	7.5	8.1	4.6	1.4	100.0 (764)
학생	46.1	27.5	7.5	7.3	7.3	3.4	1.0	100.0 (495)
기타	45.0	23.8	4.8	8.2	9.7	6.7	1.8	100.0 (269)
미혼여성	26.6	30.3	8.1	13.8	14.1	5.3	1.7	100.0 (1,441)
거주지($x^2=15.4^*$)								
동부	26.9	30.7	8.5	13.0	13.7	5.3	1.8	100.0 (1,322)
읍·면부	24.2	25.0	3.3	22.5	19.2	5.0	0.8	100.0 (120)
연령($x^2=26.7$)								
20~24세	30.3	26.7	8.7	13.4	14.8	4.4	1.5	100.0 (722)
20~29세	24.5	31.6	7.6	15.1	13.7	5.7	1.8	100.0 (490)
30~34세	21.1	34.7	8.2	13.6	13.6	6.8	2.0	100.0 (147)
35~44세	17.2	43.7	6.9	9.2	11.5	8.0	3.4	100.0 (87)
교육수준($x^2=17.8$)								
중졸 이하	45.5	9.1	9.1	-	27.3	9.1	-	100.0 (11)
고졸	27.8	29.3	9.2	13.4	14.7	4.6	1.0	100.0 (718)
대졸 이상	25.1	31.6	7.0	14.4	13.3	5.9	2.7	100.0 (713)
취업여부($x^2=13.9^*$)								
취업	23.1	32.0	7.8	15.0	14.2	5.9	1.9	100.0 (791)
비취업	31.1	28.1	8.5	12.4	13.9	4.5	1.5	100.0 (647)
학생	31.8	28.2	8.9	12.3	13.9	4.3	0.7	100.0 (440)
기타	29.0	27.6	7.6	12.4	14.3	5.2	3.9	100.0 (21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로 첫 자녀 출산 여건은 <표 6-28> 과 <표 6-29>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활동특성들 중 미혼남성의 근로(사업) 소득수준별로만 첫자녀 출산 여건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미혼남성 중 개인소득(근로·사업소득)이 낮을수록 고용안정을 첫 자녀 출산의 여건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집 장만 후와 출산 적령기 내의 비경제적 연건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태가 미혼남성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이유로는, 출산과 관련하여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여건이 경제적 안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6-28> 미혼남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첫자녀 출산 여건(1순위)

(단위: %, 명)

구분	고용 안정	소득 안정	집장만 후	충분한 부부 생활후	출산 적령기 내	배우자 희망시	부모 희망시 등	계(명)
직종($\chi^2=26.3$)								
고위·(준)전문직	33.1	21.5	9.9	12.2	15.1	5.2	2.9	100.0 (172)
사무직	28.8	24.6	12.5	12.5	11.4	7.8	2.5	100.0 (281)
서비스·판매업	32.0	33.6	13.2	7.6	7.6	3.2	2.8	100.0 (250)
생산·단순노무직 등	35.6	25.7	10.9	6.9	8.9	8.9	3.0	100.0 (101)
종사상 지위($\chi^2=7.6$)								
비임금근로자1)	32.1	21.8	12.8	11.5	12.8	5.1	3.8	100.0 (78)
상용직	29.5	28.4	12.0	10.9	10.9	5.9	2.4	100.0 (542)
임시·일용직	37.0	25.9	11.1	7.4	9.0	6.3	3.2	100.0 (189)
근로(사업)소득($\chi^2=34.0^*$)								
100만원 미만	37.5	25.0	14.6	6.3	6.3	10.4	-	100.0 (48)
100~150만원	36.7	31.1	9.4	8.9	6.1	4.4	3.3	100.0 (180)
150~200만원	30.4	31.7	13.0	8.3	8.7	5.2	2.6	100.0 (230)
200만원 이상	27.5	21.8	12.0	13.3	16.1	6.0	3.2	100.0 (316)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1)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함.

〈표 6-29〉 미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첫자녀 출산 여건(1순위)

(단위: %, 명)

구분	고용 안정	소득 안정	집장만 후	충분한 부부 생활후	출산 적령기 내	배우자 희망시	부모 희망시 등	계(명)
직종($\chi^2=15.5$)								
고위관리·(준)전문직	18.1	34.5	5.2	17.2	16.4	6.0	2.6	100.0 (116)
사무직	25.8	29.5	9.3	15.2	12.4	6.1	1.8	100.0 (396)
서비스·판매업	21.5	37.2	6.7	13.0	15.7	4.5	1.3	100.0 (223)
생산·단순노무직 등	18.4	26.3	5.3	23.7	15.8	7.9	2.6	100.0 (38)
종사상 지위($\chi^2=12.3$)								
비임금근로자	26.0	26.0	10.0	6.0	20.0	8.0	4.0	100.0 (50)
상용직	21.8	31.6	8.0	17.0	14.1	5.6	1.9	100.0 (588)
임시·일용직	27.0	36.2	7.1	11.3	12.1	5.0	1.4	100.0 (141)
근로(사업)소득($\chi^2=21.7$)								
100만원 미만	21.0	41.9	3.2	9.7	16.1	8.1	-	100.0 (62)
100~150만원	29.2	30.7	7.9	12.9	13.9	3.5	2.0	100.0 (202)
150~200만원	21.7	27.1	10.0	17.6	15.8	6.8	0.9	100.0 (221)
200만원 이상	18.8	33.5	7.3	16.7	14.7	6.5	2.4	100.0 (24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5. 취업 미혼여성의 임신·출산 후 희망근무형태

현재 취업 미혼여성(20~44세)이 추후 임신 또는 출산시 희망하는 근무 형태는 <표 6-30>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근무형태로는 ‘시간을 줄여서 일 하겠다(43.7%)’, ‘평소대로 일 하겠다(42.5%)’, ‘그만 두겠다(13.8%)’ 등의 순이다. 본 조사 결과를 2005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취업 미혼여성들이 임신·출산시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비율은 33.2%에서 42.5%로 높아진 반면, 그만 두겠다는 비율은 14.4%에서 13.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제도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미혼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시간제로 근무하겠다는 태도는 2005년 52.4%에서 2009년 43.7%로 감소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 취업 중인 미혼여성들은 임신·출산시에 일을 그만두거나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기보다 계속 전일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30〉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향후 임신·출산 후 희망 근무형태

구분	(단위: %, 명)			
	평소대로 일하겠다	시간줄여 일하겠다	그만두겠다	계(명)
2005	33.2	52.4	14.4	100.0 (722)
2009	42.5	43.7	13.8	100.0 (1,063)

자료: 2005년도는 조사결과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이삼식 외, 2006)자료임.

미혼여성이 임신·출산시 희망하는 근무형태는 거주지, 교육수준 및 직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연령, 종사상지위 및 근로(사업)소득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고연령일수록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시간을 줄여 일하겠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경력단절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35세 이상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것과 그만 두겠다는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반면, 시간을 줄여 일하겠다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아주 고연령층인 미혼여성들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연령규범의 압박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대신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간을 줄여 일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 있다.

취업 중인 미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순으로 임신·출산시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시간을 줄여 일하겠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비임금근로자는 직업적 특성 상 근무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상용직은 시간제로 전환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취업미혼여성의 근로(사업)소득 수준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회비용이 커 임신·출산시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비율이 높고, 시간을 줄여 일하겠다거나 일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6-31〉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향후 임신 및 출산 후 희망하는 근무형태

(단위: %, 명)

	평소대로 일하겠음	시간을 줄여서 일하겠음	그만 두겠음	전체 (계)	χ^2
전체	40.4	44.4	15.2	100.0 (791)	
거주지					
동부	40.7	44.0	15.3	100.0 (712)	0.5
읍면부	38.0	48.1	13.9	100.0 (79)	
연령					
20~24세	34.4	46.9	18.7	100.0 (209)	20.2 **
25~29세	40.0	48.2	11.8	100.0 (380)	
30~34세	51.1	29.3	19.5	100.0 (133)	
35~44세	39.1	46.4	14.5	100.0 (69)	
교육수준					
고졸이하	36.4	43.1	20.4	100.0 (225)	7.1 *
대졸이상	42.0	44.9	13.1	100.0 (566)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	53.8	42.3	3.8	100.0 (52)	16.3 **
상용직	41.5	42.2	16.2	100.0 (585)	
임시일용직	28.9	54.9	16.2	100.0 (142)	
직종					
고위·(준)전문직	47.0	38.3	14.8	100.0 (115)	11.5
사무직	42.7	43.5	13.8	100.0 (398)	
서비스·판매업	35.7	46.9	17.4	100.0 (224)	
생산·단순노무직 등	21.1	57.9	21.1	100.0 (38)	
근로시간					
36시간미만	42.6	45.6	11.8	100.0 (68)	4.7
36~45시간	42.7	44.5	12.8	100.0 (274)	
45~61시간	37.6	44.8	17.6	100.0 (404)	
61시간이상	38.5	50.0	11.5	100.0 (26)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21.9	54.7	23.4	100.0 (64)	21.1 **
100~150만원	32.2	49.5	18.3	100.0 (202)	
150~200만원	45.7	41.3	13.0	100.0 (223)	
200만원이상	44.9	42.8	12.3	100.0 (24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미혼여성들 중 임신 또는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는 <표 6-32>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58.1%)’,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수행할 시간 부족(19.2%)’, ‘아이를 맡길 시설이나 사람이 없어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결과를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취업 중인 미혼여성들이 임신·출산 후에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2005년 79.8%에서 2009년 58.2%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발적인 이유 대신 일·가정 양립 곤란과 육아인프라 미흡 등 사회적 여건의 이유들은 2005년 6.7%에서 2009년 28.1%로 크게 높아졌다. 일·가정 양립 곤란이나 육아인프라 미흡은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환경의 열악함을 의미하며, 이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은 물론 결혼 및 출산 포기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32〉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임신·출산 후 경력단절 이유

구분	(단위: %, 명)	
	2005	2009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79.8	56.9
아이를 맡길 시설이나 사람이 없어서	4.8	6.6
본인의 건강문제	1.0	1.0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수행할 시간부족	1.9	24.3
기타 ²⁾	12.5	11.1
계	100.0	100.0
(명)	(104)	(118)

주: 1) 임신 및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현재 취업중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아이를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등을 포함.

〈표 6-33〉 취업미혼여성(20~44세)의 임신 및 출산 후 경력단절 이유¹⁾

구분	(단위: %, 명)		
	연령($\chi^2=6.0$)		
	20~24세	25~29세	30세 이상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64.9	52.3	55.6
아이를 맡길 시설이나 사람이 없어서	2.7	11.4	5.6
본인의 건강문제	-	-	2.8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수행할 시간부족	21.6	22.7	27.8
기타 ²⁾	10.8	13.6	8.3
계	100.0	100.0	100.0
(명)	(37)	(44)	(36)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임신 및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현재 취업중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아이를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등을 포함.

제 7장 미혼남녀의 정책선호도

제1 절 미혼남녀의 저출산현상에 관한 태도

1. 미혼남녀의 저출산현상 인식도

미혼남녀(20~44세)의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는 <표 7-1>과 <표 7-2>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82.3%와 미혼여성의 83.9%가 저출산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매우 심각 + 다소 심각)하여,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다소나마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남녀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일부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도시보다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학력인 경우에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저연령층일수록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차이가 있다. 심각성 정도와 상관없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매우 심각 + 다소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체 비율은 2자녀를 기대하는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기대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인과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수록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향후 더 많은 자녀수를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혼남성의 연령 및 취업여부별, 그리고 미혼여성의 거

주지,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1〉 미혼남성(20~44세)의 저출산 문제 심각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25.3	57.0	11.5	1.2	5.0	100.0 (1,727)	
거주지							
동부	24.4	58.0	11.0	1.2	5.4	100.0 (1,531)	14.1 **
읍·면부	32.6	49.7	15.0	1.0	1.6	100.0 (193)	
연령							
20~24세	25.7	56.8	10.8	1.1	5.7	100.0 (666)	
25~29세	26.4	58.6	10.5	1.1	3.4	100.0 (560)	21.7
30~34세	26.5	56.4	10.8	1.7	4.5	100.0 (288)	
35~39세	21.3	57.4	14.0	-	7.4	100.0 (136)	
40~44세	17.6	51.4	21.6	2.7	6.8	100.0 (74)	
교육 정도							
중졸 이하	29.4	32.4	17.6	2.9	17.6	100.0 (34)	
고졸	25.7	57.9	10.6	1.0	4.8	100.0 (1008)	19.6 *
대졸 이상	24.6	57.0	12.4	1.5	4.5	100.0 (683)	
기대자녀수							
0명	37.5	31.3	25.0	-	6.3	100.0 (16)	
1명	21.3	62.4	9.1	2.0	5.1	100.0 (394)	
2명	26.0	59.2	10.5	0.7	3.6	100.0 (1001)	33.9 **
3명 이상	33.9	46.3	15.1	1.8	2.7	100.0 (218)	
취업여부							
취업	26.4	56.4	11.5	1.5	4.2	100.0 (867)	
비취업	24.1	57.5	11.5	0.9	5.9	100.0 (849)	
학생	24.5	59.1	10.1	0.4	5.9	100.0 (543)	4.6
기타	23.8	54.4	14.0	2.0	5.9	100.0 (307)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7-2> 미혼여성(20~44세)의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22.0	61.9	10.5	0.7	4.9	100.0 (1,577)	
거주지							
동부	21.8	61.9	10.4	0.8	5.0	100.0 (1,447)	1.9
읍·면부	23.5	60.6	12.1	-	3.8	100.0 (132)	
연령							
20~24세	21.1	63.8	8.6	0.5	6.0	100.0 (778)	36.2 **
25~29세	23.8	60.8	11.1	0.8	3.5	100.0 (521)	
30~34세	20.8	61.6	14.5	0.6	2.5	100.0 (159)	
35~39세	24.1	54.0	17.2	1.1	3.4	100.0 (87)	
40~44세	12.9	54.8	9.7	3.2	19.4	100.0 (31)	
교육 정도							
중졸 이하	28.6	42.9	21.4	-	7.1	100.0 (16)	6.4
고졸	22.3	61.3	9.9	0.8	5.8	100.0 (790)	
대졸 이상	21.6	62.7	11.1	0.6	4.0	100.0 (774)	
기대자녀수							
0명	3.7	59.3	22.2	7.4	7.4	100.0 (27)	75.0 ***
1명	15.0	68.4	11.2	0.4	4.9	100.0 (446)	
2명	24.4	62.9	9.4	0.6	2.7	100.0 (827)	
3명 이상	38.7	48.1	8.3	0.6	4.4	100.0 (181)	
취업여부							
취업	22.9	59.8	11.4	0.8	5.1	100.0 (861)	3.8
비취업	20.8	64.4	9.5	0.6	4.8	100.0 (713)	
학생	19.9	66.1	7.7	0.8	5.4	100.0 (478)	
기타	22.6	60.9	13.2	-	3.4	100.0 (235)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미혼남녀(20~44세)의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는 <표 7-3>과 <표 7-4>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75.4%(매우 관련 23.6% 포함)가 관련 있는 것으로, 20.2%(전혀 관련없음 2.2% 포함)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각각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76.7%(매우 관련 19.4% 포함)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18.4%(전혀 관련없음 1.6% 포함)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각각 인식하고 있었다. 미혼여성의 경우 저출산문제와 본인이 연관이 있다는 인식은 미혼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강도(매우 연관) 측면에서는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저출산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출산현상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저출산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에 관한 인식 정도는 미혼남녀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 대졸이상보다 고졸 학력자에게서, 그리고 미혼여성의 경우 고졸보다 대졸이상 학력자에게서 연관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졸이하인 경우에는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한편, 미혼남녀의 거주지나 취업여부 그리고 미혼여성의 연령 별로 저출산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7-3〉 미혼남성(20~44세)의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 하지 않음	전혀 심각 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23.6	51.8	18.0	2.2	4.4	100.0 (1,726)	
거주지							
동부	23.3	52.3	17.8	2.2	4.4	100.0 (1,534)	1.3
읍·면부	25.9	48.2	19.2	2.1	4.7	100.0 (193)	
연령							
20~24세	24.0	50.8	18.9	2.3	4.1	100.0 (666)	
25~29세	25.4	52.8	16.2	2.0	3.6	100.0 (562)	26.7 *
30~34세	22.5	55.0	16.6	1.0	4.8	100.0 (289)	
35~39세	19.9	53.7	16.2	3.7	6.6	100.0 (136)	
40~44세	18.7	37.3	30.7	5.3	8.0	100.0 (75)	
교육 정도							
중졸 이하	14.7	47.1	14.7	2.9	20.6	100.0 (34)	
고졸	24.3	52.2	17.5	2.0	4.1	100.0 (1,008)	23.2 **
대졸 이상	23.1	51.5	18.9	2.3	4.1	100.0 (683)	
취업여부							
취업	24.9	52.4	17.0	1.8	3.9	100.0 (867)	
비취업	22.4	51.0	19.1	2.6	4.9	100.0 (849)	4.5
학생	23.4	53.6	16.9	1.8	4.2	100.0 (543)	
기타	20.6	46.4	22.9	3.9	6.2	100.0 (306)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7-4〉 미혼여성(20~44세)의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관련	대체로 관련	별로 관련없음	전혀 관련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19.4	57.4	16.8	1.6	4.9	100.0 (1,578)	
거주지							
동부	19.4	57.8	16.4	1.4	5.1	100.0 (1,445)	4.9
읍·면부	19.2	53.8	20.8	3.1	3.1	100.0 (130)	
연령							
20~24세	19.0	59.4	15.9	0.9	4.8	100.0 (778)	
25~29세	19.0	56.4	17.7	1.9	5.0	100.0 (521)	14.0
30~34세	22.3	55.4	15.9	2.5	3.8	100.0 (157)	
35~39세	18.6	54.7	19.8	2.3	4.7	100.0 (86)	
40~44세	21.9	43.8	18.8	6.3	9.4	100.0 (32)	
교육 정도							
중졸 이하	21.4	35.7	21.4	7.1	14.3	100.0 (14)	
고졸	19.4	56.7	16.1	1.3	6.6	100.0 (790)	18.4 *
대졸 이상	19.4	58.5	17.3	1.8	3.0	100.0 (772)	
취업여부							
취업	19.3	56.8	17.2	1.9	4.9	100.0 (861)	
비취업	19.4	58.1	16.3	1.3	4.9	100.0 (712)	
학생	18.8	61.4	14.4	0.8	4.6	100.0 (479)	1.2
기타	20.5	51.7	20.1	2.1	5.6	100.0 (234)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남녀의 저출산원인에 관한 태도

오늘날 부부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의 이유들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7-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에 대해 미혼남녀의 90% 이상이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여성의 증가’,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 부족’,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의 확산’,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의 확산’,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의 증가’ 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미혼남녀의 80~90%가 찬성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저출산 경향의 주된 이유가 ‘이혼부부의 증가’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혼남녀의 60~70% 정도만 찬성하여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5〉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의 이유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않음	전혀찬성 하지않음	계
미혼남성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40.7	52.6	6.3	0.3	100.0
취업여성의 증가	31.6	54.3	13.4	0.6	100.0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47.4	45.8	6.3	0.5	100.0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30.6	50.0	17.9	1.5	100.0
주택미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 부족	39.6	44.8	13.9	1.6	100.0
이혼한 부부의 증가	20.2	48.2	28.0	3.6	100.0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의 확산	27.0	57.9	13.3	1.8	100.0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 확산	28.2	56.3	14.1	1.4	100.0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의 증가	25.4	58.5	14.4	1.7	100.0
미혼여성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40.1	54.5	4.9	0.5	100.0
취업여성의 증가	38.6	49.8	11.1	0.5	100.0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53.3	41.4	4.9	0.3	100.0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37.7	48.4	12.7	1.3	100.0
주택미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 부족	43.5	43.9	11.8	0.9	100.0
이혼한 부부의 증가	24.4	49.9	23.0	2.7	100.0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의 확산	27.6	56.7	14.1	1.6	100.0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 확산	29.2	56.1	13.6	1.1	100.0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의 증가	30.5	58.7	9.7	1.1	100.0

제2절 미혼남녀의 출산·양육지원정책에 관한 태도

1. 미혼남녀의 출산·양육지원주체에 관한 태도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표 7-6>과 <표 7-7>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녀 대부분(미혼남성 94.3%, 미혼여성 94.9%)이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전적 지원+다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원의 정도에 대해서는 미혼남녀 공히 41.6%가 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미혼남성의 52.7%와 미혼여성의 53.3%는 다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미혼남녀들 사이에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은 거의

공감(consensus)하고 있으나,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하는 범위와 폭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남녀의 일부 특성별로 나타났다. 도시거주 미혼남성은 농촌거주 미혼남성에 비해 국가 지원(전적 지원+ 다소 지원)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인식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농촌거주 미혼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이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국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으며, 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인식 정도도 20~24세를 제외하면 저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연령층의 경우 남아있는 가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에 따라 국가 지원에 대한 욕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인식 정도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혼남녀의 취업여부와 미혼여성의 거주지 및 교육수준별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표 7-6〉 국가의 자녀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미혼남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 지원	다소 지원	별로 지원 필요 없음	전혀 지원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41.6	52.7	3.2	0.7	1.7	100.0 (1,727)	
거주지							
동부	40.7	53.7	3.4	0.7	1.5	100.0 (1,535)	10.5 *
읍·면부	48.7	45.1	2.1	0.5	3.6	100.0 (193)	
연령							
20~24세	40.3	55.0	2.9	0.6	1.2	100.0 (665)	
25~29세	45.2	49.6	3.7	0.7	0.7	100.0 (562)	
30~34세	41.7	53.1	2.4	-	2.8	100.0 (288)	
35~39세	40.9	49.6	5.1	-	4.4	100.0 (137)	
40~44세	28.4	59.5	1.4	4.1	6.8	100.0 (74)	49.4 ***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7-6〉 계속

구분	전적 지원	다소 지원	별로 지원 필요 없음	전혀 지원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기대자녀수							
0명	18.8	50.0	25.0	-	6.3	100.0 (16)	59.8 ***
1명	42.2	51.0	3.5	1.0	2.3	100.0 (396)	
2명	40.7	55.8	2.3	0.4	0.8	100.0 (1001)	
3명 이상	53.9	41.1	1.8	1.4	1.8	100.0 (219)	
취업여부							
취업	43.5	50.9	3.0	0.6	2.0	100.0 (868)	4.2
비취업	39.6	54.8	3.4	0.8	1.4	100.0 (849)	
학생	39.2	56.4	2.8	0.4	1.3	100.0 (543)	
기타	40.1	51.8	4.6	1.6	2.0	100.0 (307)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7-7〉 국가의 자녀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미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 지원	다소 지원	별로 지원 필요 없음	전혀 지원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41.6	53.3	2.8	0.6	1.8	100.0 (1,580)	0.8
거주지							
동부	41.4	53.6	2.8	0.6	1.6	100.0 (1,447)	4.5
읍·면부	43.3	50.7	2.2	-	3.7	100.0 (134)	
연령							
20~24세	42.3	52.9	2.1	0.9	1.8	100.0 (780)	21.1
25~29세	43.6	51.6	3.3	0.2	1.3	100.0 (523)	
30~34세	37.3	57.0	3.8	-	1.9	100.0 (158)	
35~39세	34.9	59.3	3.5	-	2.3	100.0 (86)	
40~44세	28.1	56.3	6.3	3.1	6.3	100.0 (32)	
기대자녀수							
0명	29.6	44.4	25.9	-	-	100.0 (27)	88.8 ***
1명	33.8	60.2	3.4	0.4	2.2	100.0 (447)	
2명	44.8	51.7	2.4	0.5	0.6	100.0 (828)	
3명 이상	56.4	41.1	0.6	0.6	1.1	100.0 (181)	
취업여부							
취업	42.5	52.3	3.0	0.2	2.0	100.0 (861)	5.6
비취업	40.6	54.5	2.4	1.0	1.5	100.0 (715)	
학생	37.3	57.9	2.5	1.0	1.3	100.0 (480)	
기타	47.0	47.9	2.1	0.9	2.1	100.0 (234)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직장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미혼남녀의 태도는 <표 7-8>과 <표 7-9>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미혼남녀 대부분(미혼 남성 95.2%, 미혼여성 96.4%)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직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 정도가 국가 지원의 경우보다 직장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미혼남녀 간의 태도 차이는 거의 없으나, 직장 지원의 경우에는 미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미혼남녀들 특히 미혼여성들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직장의 지원 없이는 쉽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원은 금전적인 것보다는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혼남녀의 일반적인 특성(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기대 자녀수, 취업여부)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남성의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직장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미혼남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 지원	다소 지원	별로 지원 필요 없음	전혀 지원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37.4	57.8	2.4	0.6	1.7	100.0 (1,727)	
거주지							
동부	37.5	58.0	2.3	0.7	1.6	100.0 (1,533)	3.7
읍·면부	36.8	57.0	3.6	-	2.6	100.0 (193)	
연령							
20~24세	37.4	58.8	2.3	0.3	1.2	100.0 (665)	
25~29세	36.9	59.0	2.5	0.9	0.7	100.0 (563)	
30~34세	39.6	56.3	1.7	0.3	2.1	100.0 (288)	39.7 **
35~39세	39.0	52.9	2.9	-	5.1	100.0 (136)	
40~44세	28.4	56.8	5.4	2.7	6.8	100.0 (74)	
기대자녀수							
0명	26.7	53.3	6.7	6.7	6.7	100.0 (15)	
1명	37.1	57.1	3.3	0.5	2.0	100.0 (396)	
2명	36.7	60.7	1.4	0.5	0.7	100.0 (1,002)	45.9 ***
3명 이상	50.9	43.6	3.2	0.5	1.8	100.0 (218)	

〈표 7-8〉 계속

구분	전적 지원	다소 지원	별로 지원 필요 없음	전혀 지원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취업여부							
취업	39.4	55.6	2.3	0.7	2.0	100.0 (868)	4.6
비취업	35.1	60.3	2.6	0.5	1.5	100.0 (848)	
학생	35.9	60.8	1.8	0.4	1.1	100.0 (541)	
기타	34.0	59.5	3.6	0.7	2.3	100.0 (306)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7-9〉 직장의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미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 지원	다소 지원	별로 지원 필요 없음	전혀 지원 필요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39.0	57.3	1.8	0.4	1.5	100.0 (1,579)	
거주지							
동부	39.6	57.0	1.6	0.4	1.5	100.0 (1,446)	6.0
읍·면부	32.8	61.2	3.7	-	2.2	100.0 (134)	
연령							
20~24세	40.6	56.4	1.0	0.4	1.7	100.0 (779)	21.7
25~29세	36.5	59.7	2.3	0.2	1.3	100.0 (523)	
30~34세	41.8	53.8	3.2	0.6	0.6	100.0 (158)	
35~39세	41.2	54.1	2.4	-	2.4	100.0 (85)	
40~44세	21.9	71.9	-	3.1	3.1	100.0 (32)	
기대자녀수							
0명	28.6	57.1	14.3	-	-	100.0 (28)	69.4 ***
1명	31.4	63.0	2.9	0.7	2.0	100.0 (446)	
2명	42.4	55.9	1.0	0.4	0.4	100.0 (828)	
3명 이상	51.9	47.0	-	-	1.1	100.0 (181)	
취업여부							
취업	39.5	56.2	2.0	0.6	1.7	100.0 (861)	3.8
비취업	38.5	58.7	1.4	0.1	1.3	100.0 (714)	
학생	38.5	58.8	1.3	-	1.5	100.0 (480)	
기타	38.5	58.5	1.7	0.4	0.9	100.0 (234)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남녀의 세금활용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태도

국가가 세금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7-10>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녀대부분(미혼남성

87.2%, 미혼여성 89.4%)이 세금을 통한 다자녀가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매우 찬성 + 대체로 찬성)하고 있었다. 미혼남녀의 거주지와 취업여부 별로 세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태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고연령층 미혼여성들이 저연령층에 비해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조세 이용을 상대적으로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 조세 이용방법에 대해 20~39세 미혼여성의 90% 정도가 찬성한 반면, 40세 이상 고연령층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76%만이 찬성하였다.

〈표 7-10〉 세금을 이용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χ^2
미혼남성	31.7	55.4	7.5	1.7	3.7	100.0 (1,728)	
거주지							
동부	30.5	56.9	7.2	1.6	3.7	100.0 (1,533)	11.3 *
읍·면부	40.9	44.6	8.8	1.6	4.1	100.0 (193)	
연령							
20~24세	32.1	56.1	6.6	1.6	3.6	100.0 (667)	15.5
25~29세	32.0	55.8	8.2	1.8	2.3	100.0 (563)	
30~34세	29.5	55.2	9.0	1.7	4.5	100.0 (288)	
35~39세	30.9	56.6	4.4	1.5	6.6	100.0 (136)	
40~44세	36.0	45.3	10.7	1.3	6.7	100.0 (75)	
취업여부							
취업	33.3	54.3	6.9	1.7	3.8	100.0 (868)	2.3
비취업	30.4	56.6	7.9	1.5	3.6	100.0 (850)	
학생	31.3	56.8	7.2	1.3	3.5	100.0 (544)	
기타	28.8	55.9	9.2	2.3	3.9	100.0 (306)	
미혼여성	30.1	59.3	6.7	1.1	2.9	100.0 (1,576)	
거주지							
동부	30.5	59.3	6.2	1.2	2.8	100.0 (1,445)	7.6
읍·면부	25.2	59.5	10.7	-	4.6	100.0 (131)	
연령							
20~24세	32.9	57.5	5.9	0.5	3.2	100.0 (778)	28.4 *
25~29세	27.8	61.2	7.9	1.3	1.7	100.0 (521)	
30~34세	25.3	64.6	5.7	1.3	3.2	100.0 (158)	
35~39세	31.8	57.6	4.7	1.2	4.7	100.0 (85)	
40~44세	15.6	59.4	12.5	6.3	6.3	100.0 (32)	
취업여부							
취업	28.3	61.2	6.7	1.2	2.7	100.0 (860)	3.7
비취업	32.4	56.9	6.5	1.1	3.1	100.0 (713)	
학생	32.2	58.0	6.5	0.2	3.1	100.0 (479)	
기타	32.9	54.7	6.4	3.0	3.0	100.0 (234)	

* p <0.05, ** p <0.01, *** p <0.001

제3절 미혼남녀의 결혼정책 선호도

1. 미혼남녀의 결혼정책 필요성

미혼남녀(20~44세)에게 결혼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는 <표 7-11>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의 각각 76.3%가 결혼정책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 다소 필요)고 응답하였다. 거주지별로 결혼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읍면부 미혼남녀(각 64.4%)에 비해 동부 미혼남녀(남성 77.7%, 여성 77.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결혼정책에 대한 필요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인 경우에 비해 비취업인 경우에 결혼정책의 필요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혼남성의 취업여부별로는 결혼정책의 필요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표 7-11> 미혼남녀의 결혼정책 필요성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계 (명)	χ^2
미혼남성	20.4	55.9	20.1	3.6	100.0 (1,733)	
거주지						
동부	20.5	57.3	19.4	2.9	100.0 (1,540)	28.1 ***
읍면부	19.6	44.8	26.3	9.3	100.0 (194)	
연령						
20-24세	19.0	57.8	19.8	3.4	100.0 (668)	12.1
25-29세	19.3	53.7	23.4	3.5	100.0 (564)	
30-34세	24.1	57.0	14.8	4.1	100.0 (291)	
35-44세	22.3	54.0	19.4	4.3	100.0 (211)	
교육수준						
중졸이하	17.6	52.9	20.6	8.8	100.0 (34)	4.0
고졸	19.4	56.8	20.2	3.6	100.0 (1,013)	
대졸이상	21.7	54.9	19.8	3.6	100.0 (687)	
취업여부						
취업	21.7	54.1	19.8	4.4	100.0 (872)	5.1
비취업	18.9	57.8	20.3	2.9	100.0 (85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7-11〉 계속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계 (명)	χ^2
미혼여성	21.6	54.6	20.6	3.1	100.0 (1,580)	
거주지						
동부	21.8	55.6	19.7	3.0	100.0 (1,445)	11.7 **
읍면부	20.0	44.4	31.1	4.4	100.0 (135)	
연령						
20~24세	23.3	55.6	19.1	2.0	100.0 (781)	15.9
25~29세	20.9	55.5	19.8	3.8	100.0 (521)	
30~34세	17.7	52.5	25.3	4.4	100.0 (158)	
35~44세	19.5	47.5	28.0	5.1	100.0 (118)	
교육수준						
중졸이하	21.4	50.0	14.3	14.3	100.0 (14)	10.5
고졸	20.0	57.3	20.0	2.8	100.0 (791)	
대졸이상	23.3	52.1	21.3	3.2	100.0 (773)	
취업여부						
취업	23.6	52.1	20.3	3.9	100.0 (861)	10.7 *
비취업	19.3	57.8	20.9	2.0	100.0 (71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미혼남녀의 결혼정책 요구도

결혼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필요한 결혼정책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는 <표 7-12>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이 필요로 하는 결혼정책으로는 주택마련지원(45.2%), 결혼비용 등 용자지원(23.4%),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제공(11.6%),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8.3%),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이 필요로 하는 결혼정책도 주택마련지원(40.9%), 결혼비용 등 용자지원(25.6%),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제공(13.8%),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11.0%),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5.0%) 등으로 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순위가 미혼남성과 일치하였다. 즉, 미혼남녀 모두 주택이나 결혼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정책 필요도는 미혼남녀의 일반특성(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별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미혼여성의 결혼정책 필요도는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미혼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택이

나 결혼비용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도가 낮고, 대신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이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결혼관련 정보 및 상담 등에 관한 정책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표 7-12〉 미혼남녀(20~44세)가 필요로 하는 결혼정책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명)	χ^2
미혼남성	8.3	7.9	11.6	45.2	3.5	23.4	0.2	100.0 (1,289)	
거주지									
동부	8.2	8.1	11.1	45.7	3.3	23.4	0.2	100.0 (1,171)	4.9
읍·면부	9.9	6.6	15.7	38.8	5.0	24.0	-	100.0 (121)	
연령									
20~24세	8.0	7.2	14.3	43.4	4.0	23.1	-	100.0 (498)	27.9
25~29세	8.1	5.4	9.9	50.2	3.0	23.2	0.2	100.0 (406)	
30~34세	7.8	10.3	12.1	42.7	3.0	24.1	-	100.0 (232)	
35~44세	10.2	13.4	7.0	40.1	4.5	24.2	0.6	100.0 (157)	
교육수준									
중졸 이하	8.7	17.4	17.4	17.4	4.3	34.8	-	100.0 (23)	20.9
고졸	7.7	7.9	12.7	45.9	4.4	21.5	-	100.0 (750)	
대졸 이상	9.1	7.5	9.7	45.3	2.3	25.7	0.4	100.0 (517)	
취업여부									
취업	7.9	9.1	11.1	44.8	3.4	23.6	0.2	100.0 (648)	2.6
비취업	8.8	6.9	12.1	45.4	3.5	23.1	0.2	100.0 (636)	
미혼여성	11.0	5.0	13.7	41.0	3.2	25.6	0.4	100.0 (1,171)	
거주지									
동부	10.9	5.0	13.1	41.4	3.4	25.8	0.5	100.0 (1,083)	7.3
읍·면부	12.8	4.7	22.1	36.0	1.2	23.3	-	100.0 (86)	
연령									
20~24세	10.0	4.6	13.8	41.8	3.3	26.4	0.2	100.0 (603)	50.9 ***
25~29세	9.3	4.7	13.2	42.5	4.1	26.1	-	100.0 (387)	
30~34세	12.5	5.8	11.5	43.3	-	26.0	1.0	100.0 (104)	
35~44세	26.9	7.7	19.2	24.4	2.6	16.7	2.6	100.0 (7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	-	10.0	40.0	10.0	30.0	-	100.0 (10)	6.6
고졸	10.1	4.9	14.1	41.9	3.9	25.1	0.2	100.0 (597)	
대졸 이상	12.1	5.3	13.3	40.2	2.5	26.0	0.5	100.0 (562)	
취업여부									
취업	12.9	5.5	13.0	40.0	2.7	25.6	0.3	100.0 (637)	8.2
비취업	8.8	4.3	14.6	41.9	4.1	25.7	0.6	100.0 (53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① 결혼관련 정보 및 상담, ② 이성 간 만남의 장, ③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④ 주택마련 지원, ⑤ 결혼준비 휴가 제도, ⑥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 ⑦ 기타

제4절 미혼남녀의 출산정책 선호도

1. 미혼남녀의 출산·양육지원 요구도

미혼남녀(20~44세) 본인이 향후 자녀 출산 및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은 <표 7-13>과 <표 7-14>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 본인이 자녀출산 및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은 양육교육비 지원(44.8%), 보험료 지원(23.8%), 주거지원(19.3%) 등의 순으로 집중(87.9%)되어 있으며, 방과후돌봄 지원(3.9%), 일-가정양립 지원(3.6%), 세금감면(2.5%), 난임 및 출산 지원(2.1%)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양육교육비 지원(44.4%), 보험료 지원(28.9%), 주거지원(13.7%) 등의 순으로 사회적 지원을 선호하였으며, 방과후돌봄 지원(4.4%), 세금감면(3.3%), 일-가정양립 지원(2.8%), 난임 및 출산 지원(2.5%)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래 가임세대인 미혼남녀의 정책 선호도는 실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할 경우에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자녀양육비 지원, 출산크레딧 등 보험료 지원 및 주거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미혼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선호하는 사회적 지원은 전체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특히, 미혼여성의 거주지와 연령, 그리고 미혼남녀의 기대 자녀수, 취업여부, 종사상지위, 직업 등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 선호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이들 특성 사이에서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도시거주 미혼남성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으로 보험료 지원과 주거지원 등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는 반면,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방과후돌봄 지원 등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을 더 선호하는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주거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었다.

〈표 7-13〉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출산·양육시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

(단위 : %, 명)

	양육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난임출 산지원	방과후 돌봄	세금 감면	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기타	계 (명)
전체	44.8	19.3	2.1	3.9	2.5	3.6	23.7	0.1	100.0 (1,706)
지역($x^2=22.5$)									
동부	43.1	19.5	2.2	3.8	2.4	3.8	25.0	0.1	100.0 (1,512)
읍·면부	58.2	17.5	1.0	4.6	3.1	1.5	13.9	-	100.0 (194)
연령($x^2=49.7$)									
20~24세	47.2	14.7	2.0	4.9	2.4	2.9	25.7	0.2	100.0 (654)
25~29세	42.6	21.9	2.5	3.8	1.8	4.9	22.5	-	100.0 (556)
30~34세	48.6	22.2	1.4	2.4	2.1	3.5	19.8	-	100.0 (288)
35~39세	40.6	20.3	1.5	1.5	3.8	2.3	30.1	-	100.0 (133)
40~44세	35.1	27.0	2.7	4.1	5.4	2.7	21.6	1.4	100.0 (74)
기대자녀수($x^2=71.5$)									
0명	50.0	-	7.1	-	7.1	-	35.7	-	100.0 (14)
1명	39.0	21.2	2.8	4.3	2.6	3.6	26.5	-	100.0 (392)
2명	47.7	18.3	2.0	4.3	2.2	3.6	21.7	-	100.0 (989)
3명 이상	47.0	21.7	-	2.3	2.8	4.1	22.1	-	100.0 (217)
모름	33.0	21.6	2.3	1.1	2.3	3.4	34.1	2.3	100.0 (88)
취업여부($x^2=11.7$)									
취업	43.5	22.0	1.8	3.4	3.0	3.7	22.5	0.1	100.0 (856)
비취업	46.4	16.9	2.3	4.4	1.8	3.5	24.7	0.1	100.0 (839)
학생	45.2	15.9	2.2	5.0	2.6	2.4	26.4	0.2	100.0 (535)
기타	48.2	18.7	2.6	3.6	0.3	5.2	21.3	-	100.0 (305)
직종($x^2=20.5$)									
고위·(준)전문직	41.8	23.9	2.2	2.7	2.2	2.7	23.9	0.5	100.0 (184)
사무직	40.7	19.3	2.8	3.9	2.8	3.9	26.7	-	100.0 (285)
서비스·판매업	43.8	23.3	1.2	3.1	4.3	5.0	19.4	-	100.0 (258)
생산·단순노무직 등	50.5	22.9	-	3.7	2.8	1.8	18.3	-	100.0 (109)
종사상지위($x^2=11.5$)									
비임금근로자	48.1	22.8	1.3	1.3	6.3	2.5	17.7	-	100.0 (79)
상용직	41.5	22.7	2.1	3.4	2.5	3.9	23.6	0.2	100.0 (559)
임시일용직	47.5	20.0	0.5	4.0	3.5	3.5	21.0	-	100.0 (20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순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양육교육비지원 :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 자금지원

난임및출산지원 : 산전진찰비용 지원, 불임부부 지원,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방과후 돌봄 : 아동의 방과후 학교 지원

조세지원 : 다자녀 가정 소득 공제(세금감면)

보험료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출산 크레딧)

일가정양립지원 : 종일제운영 유치원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 직장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도입, 장려) /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출퇴근 등) / 유사 산 휴가(급여지원) /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양성평등 문화조성

〈표 7-14〉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출산·양육시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지원

(단위 : %, 명)

	양육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난임출 산지원	방과후 돌봄	조세 지원	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기타	계 명
전체	44.4	13.7	2.5	4.4	3.3	2.8	28.9	0.1	100.0 (1,561)
지역($\chi^2=14.0$)									
동부	43.9	14.3	2.6	4.4	3.5	2.6	28.5	0.1	100.0 (1,427)
읍·면부	49.6	7.6	0.8	3.8	0.0	4.6	33.6	-	100.0 (131)
연령($\chi^2=24.8$)									
20~24세	45.8	13.6	1.9	4.4	3.8	3.0	27.3	0.1	100.0 (770)
25~29세	40.5	13.5	2.7	4.6	3.7	3.1	31.7	0.2	100.0 (518)
30~34세	46.2	14.7	1.9	3.2	0.6	1.3	32.1	-	100.0 (156)
35~39세	52.9	14.1	4.7	3.5	2.4	-	22.4	-	100.0 (85)
40~44세	40.6	12.5	6.3	6.3	-	6.3	28.1	-	100.0 (32)
기대자녀수($\chi^2=38.3$)									
0명	46.4	7.1	3.6	7.1	3.6	7.1	25.0	-	100.0 (28)
1명	40.4	12.6	2.3	6.2	3.2	3.2	32.2	-	100.0 (438)
2명	45.9	15.2	2.7	3.5	3.6	2.2	26.9	-	100.0 (822)
3명 이상	46.6	14.6	1.7	3.9	2.8	3.9	25.8	0.6	100.0 (178)
모름	43.2	4.9	3.7	3.7	1.2	1.2	42.0	-	100.0 (81)
취업여부($\chi^2=10.2$)									
취업	42.7	13.3	2.6	4.9	2.9	2.7	30.9	-	100.0 (855)
비취업	46.3	14.1	2.4	3.7	3.7	2.8	26.6	0.3	100.0 (702)
학생	45.9	13.4	2.5	4.0	3.8	2.8	27.4	0.2	100.0 (471)
기타 비취업	47.2	15.6	2.2	3.0	3.5	3.0	25.1	0.4	100.0 (231)
직종($\chi^2=19.1$)									
고위·(준)전문직	40.2	12.6	1.6	6.3	2.4	4.7	32.3	-	100.0 (127)
사무직	41.8	14.4	2.4	4.0	2.6	3.1	31.7	-	100.0 (423)
서비스·판매업	43.2	13.6	3.7	6.2	3.7	1.6	28.0	-	100.0 (243)
생산·단순노무직 등	56.8	2.3	2.3	-	2.3	-	36.4	-	100.0 (44)
층상상지위($\chi^2=10.6$)									
비임금근로자	40.4	11.5	3.8	7.7	1.9	-	34.6	-	100.0 (52)
상용직	41.4	14.0	2.2	5.6	3.3	2.9	30.6	-	100.0 (630)
임시일용직	48.1	10.3	3.2	1.9	1.9	3.2	31.4	-	100.0 (156)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순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양육교육비지원 : 자녀 교육·교육비 지원, 교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 자금지원

난임및출산지원 : 산전진찰비용 지원, 불임부부 지원,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방과후 돌봄 : 아동의 방과후 학교 지원

조세지원 : 다자녀 가정 소득 공제(세금감면)

보험료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출산 크레딧)

일가정양립지원 : 종일제운영 유치원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 직장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도입, 장려) /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출퇴근 등) / 유사 산 휴가(급여지원) /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양성평등 문화조성

2. 미혼남녀의 출산·양육여건에 관한 태도

자녀출산 및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는 <표 7-15>에 제시되어 있다.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은 사교육비 경감(20.3%), 경기 활성화(15.1%), 공교육 강화(12.0%),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11.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9.6%),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9.1%), 양성평등 구현(8.7%)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경감(20.8%),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2.6%), 공교육 강화(12.1%),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11.7%), 경기 활성화(11.0%), 양성평등 구현(8.8%),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8.7%) 등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출산 및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은 전체적인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립,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양성평등 구현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40~44세 고연령층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학벌주의문화 타파, 경기활성화 등을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사교육비 경감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다.

기대자녀수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1명을 출산할 의향이 있는 경우, 사교육비 경감(17.1%), 양성평등 구현(14.5%), 경기 활성화(14.0%), 학벌 위주의 사회문화 타파(11.5%),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10.7%) 순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대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는 사교육비 경감(22.3%), 경기활성화(15.5%), 공교육 강화(13.6%),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11.7%) 등의 순이며, 기대자녀수가 3명인 경우에는 사교육비 경감(18.3%),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4.6%),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14.2%) 등으로 우선시하고 있다. 거주지나 취업여부 등의 일반특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7-15〉 미혼남녀(20~44세)의 출산·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¹⁾					저렴·균등한 보육·교육기회 제공 ²⁾			출산·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³⁾			기타 ⁴⁾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미혼남성	8.7	9.1	2.6	2.0	3.4	12.0	20.3	9.6	15.1	11.8	5.2	0.1	100.0 (1,710)
거주지($x^2=12.5$)													
동부	8.6	9.5	2.8	2.2	3.1	12.0	20.0	9.7	14.6	12.2	5.2	0.1	100.0 (1,518)
읍면부	9.3	6.2	2.1	0.5	5.7	11.9	22.2	8.8	19.1	9.3	5.2	-	100.0 (194)
연령($x^2=69.0^{**}$)													
20~24세	6.8	9.7	3.8	2.4	2.0	12.3	22.3	9.1	13.7	12.9	4.9	0.2	100.0 (659)
25~29세	8.3	8.6	2.2	0.9	3.8	12.9	20.1	10.4	16.0	12.8	4.0	-	100.0 (556)
30~34세	11.4	9.0	2.1	3.5	3.8	11.4	19.4	8.3	16.3	9.3	5.5	-	100.0 (289)
35~39세	11.5	8.4	1.5	0.8	7.6	11.5	19.1	11.5	9.9	7.6	10.7	-	100.0 (131)
40~44세	12.9	10.0	0.0	2.9	4.3	5.7	10.0	10.0	25.7	12.9	5.7	-	100.0 (70)
취업여부($x^2=14.0$)													
취업	9.4	9.6	2.0	2.3	4.5	11.8	19.2	9.9	14.8	11.5	4.9	-	100.0 (858)
비취업	7.9	8.7	3.3	1.7	2.4	12.2	21.2	9.3	15.4	12.1	5.7	0.1	100.0 (843)
학생	7.5	9.7	3.7	1.7	2.2	12.9	22.0	9.0	14.0	12.1	5.0	0.2	100.0 (536)
기타비취업	8.9	6.9	2.3	1.6	2.6	10.9	20.1	9.9	18.1	12.2	6.6	-	100.0 (304)
직종($x^2=44.5^*$)													
고위·(준)전문직	8.2	11.5	0.0	3.3	6.0	12.6	10.9	13.1	14.2	13.7	6.6	-	100.0 (183)
사무직	10.1	8.4	2.1	2.8	3.8	12.2	24.5	8.4	12.2	11.5	3.8	-	100.0 (286)
서비스·판매업	11.6	9.7	2.7	0.8	3.9	9.7	21.7	8.9	15.5	10.5	5.0	-	100.0 (258)
생산·단순·무직 등	4.5	9.0	3.6	1.8	6.3	11.7	13.5	12.6	22.5	9.0	5.4	-	100.0 (111)
종사상지위($x^2=47.4^{**}$)													
비임금근로자	24.7	3.7	1.2	3.7	2.5	9.9	18.5	9.9	13.6	9.9	2.5	-	100.0 (81)
상용직	8.0	10.9	2.0	2.7	5.0	10.9	21.6	9.4	13.5	11.8	4.3	-	100.0 (561)
임시일용직	6.9	8.9	2.5	1.0	3.9	13.8	12.8	12.3	18.7	11.3	7.9	-	100.0 (20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①양성평등 구현, ②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립 ④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등 ⑤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 2) 저렴·균등한 보육·교육기회 제공-⑥공교육 강화, ⑦사교육비 경감, ⑧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 3) 출산·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⑨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⑩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⑪복지수준의 향상
- 4) 기타-⑫기타.

〈표 7-15〉 계속

구분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¹⁾					저렴·균등한 보육·교육기회 제공 ²⁾			출산·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³⁾			기타 ⁴⁾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미혼여성	8.8	8.7	2.7	2.6	2.6	12.1	20.8	12.6	11.0	11.8	6.3	0.1	100.0 (1,560)
거주지($\chi^2=7.1$)													
동부	8.9	8.3	2.7	2.7	2.5	12.0	20.9	12.9	10.9	11.8	6.3	0.1	100.0 (1,425)
읍면부	8.3	13.6	3.0	1.5	3.8	12.9	19.7	9.8	11.4	10.6	5.3	-	100.0 (194)
연령($\chi^2=82.8^{***}$)													
20~24세	8.2	11.6	2.7	2.9	2.0	12.2	20.5	10.4	11.1	12.5	5.7	0.3	100.0 (769)
25~29세	9.9	6.4	2.5	1.4	3.5	11.0	21.1	14.7	12.6	10.8	6.2	-	100.0 (517)
30~34세	10.2	4.5	1.9	3.2	2.5	14.0	21.7	15.9	7.6	14.6	3.8	-	100.0 (157)
35~39세	6.0	4.8	4.8	2.4	4.8	13.1	25.0	14.3	4.8	6.0	14.3	-	100.0 (84)
40~44세	9.1	12.1	3.0	15.2	-	12.1	6.1	9.1	12.1	12.1	9.1	-	100.0 (33)
취업여부($\chi^2=15.5$)													
취업	9.6	7.1	3.4	2.5	3.0	11.9	20.8	13.3	10.9	11.2	6.1	-	100.0 (854)
비취업	7.8	10.6	1.9	2.9	2.0	12.3	20.5	11.8	11.0	12.4	6.6	0.3	100.0 (701)
학생	8.7	12.1	1.5	1.9	1.5	11.8	21.6	11.4	10.1	12.7	6.3	0.4	100.0 (473)
기타	6.1	7.9	2.6	4.8	2.6	13.2	18.4	12.7	12.7	11.8	7.0	-	100.0 (228)
직종($\chi^2=15.5$)													
고위·(준)전문직	10.4	3.2	4.0	0.8	9.6	8.8	16.0	18.4	8.8	10.4	9.6	-	100.0 (125)
사무직	11.8	6.6	2.8	2.1	2.1	12.0	23.1	13.2	10.6	10.6	5.0	-	100.0 (424)
서비스·판매업	6.6	10.3	3.7	3.3	2.5	14.4	18.9	9.5	12.8	12.3	5.8	-	100.0 (243)
생산·단순노무직 등	6.7	4.4	4.4	2.2	0.0	6.7	24.4	20.0	13.3	11.1	6.7	-	100.0 (45)
중사상지위($\chi^2=15.4$)													
비임금근로자	7.5	7.5	3.8	1.9	5.7	17.0	17.0	7.5	15.1	15.1	1.9	-	100.0 (53)
상용직	9.8	7.0	3.2	2.5	3.2	11.6	22.7	12.8	10.9	10.5	5.9	-	100.0 (631)
임시일용직	9.6	9.0	4.5	1.3	2.6	11.5	15.4	16.0	9.6	13.5	7.1	-	100.0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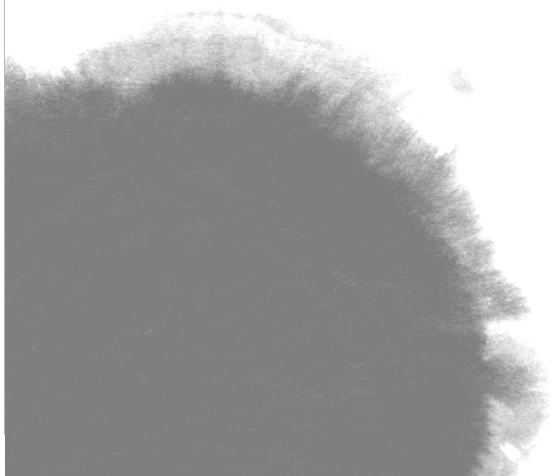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①양성평등 구현, ②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립 ④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등 ⑤자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 2) 저렴·균등한 보육·교육기회 제공-⑥공교육 강화, ⑦사교육비 경감, ⑧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 3) 출산·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⑨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⑩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⑪복지수준의 향상
- 4) 기타-⑫기타.

3부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제8장 기혼여성의 결혼 동향

제1 절 기혼여성의 결혼에 관한 태도

1. 기혼여성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응답자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13.8%, ‘하는 것이 좋다’가 48.7%로 전체적으로 62.5%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응답여성 중 30.5%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중립적인 태도를, 그리고 4.9%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머지 2.1%의 기혼여성들은 판단을 유보하였다.

기혼여성의 결혼필요성에 관한 태도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거주지별로는 도시거주 기혼여성들에 비해 농촌거주 기혼여성에게서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고연령층 기혼여성일수록 생활고나 기회비용 상실 등을 더 경험함으로써,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이혼·별거 또는 사별 중인 기혼 여성들이 결혼 필요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혼여성의 교육 수준별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 여부별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비취업 기

혼여성에 비해 취업 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중인 기혼여성이 직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일-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어렵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 겠다	계(명)	χ^2
전체	13.8	48.7	30.5	4.9	2.1	100.0 (3,570)	
거주지							
동부	14.5	49.5	29.9	4.0	2.2	100.0 (3,065)	47.8 ***
읍·면부	9.9	43.9	34.2	10.3	1.8	100.0 (506)	
연령							
20~24세	25.0	57.5	17.5	-	-	100.0 (40)	35.7 **
25~29세	12.2	51.9	27.7	4.8	3.5	100.0 (376)	
30~34세	12.6	48.7	32.4	4.0	2.3	100.0 (825)	
35~39세	11.6	49.3	32.1	5.2	1.9	100.0 (1,165)	
40~44세	17.1	46.7	28.9	5.4	1.9	100.0 (1,165)	
혼인상태							
유배우	14.3	49.6	29.9	4.1	2.1	100.0 (3,362)	130.7 ***
사별	5.1	59.0	28.2	5.1	2.6	100.0 (39)	
이혼	7.4	27.9	39.3	23.8	1.6	100.0 (122)	
별거	6.3	31.3	47.9	12.5	2.1	100.0 (48)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3	43.1	30.3	7.3	0.9	100.0 (109)	12.9
고졸	14.5	47.4	30.5	5.4	2.2	100.0 (1,937)	
대졸	12.6	50.8	30.4	4.1	2.0	100.0 (1,478)	
대학원졸이상	15.6	44.4	31.1	4.4	4.4	100.0 (45)	
취업여부							
취업	15.7	47.2	28.5	6.3	2.3	100.0 (1,493)	22.3 ***
비취업	12.5	49.7	32.0	3.8	2.0	100.0 (2,07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표 8-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혼여성의 직종별로 결혼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는 사무직(68.6%), 관리직·전문직(64.8%), 서비스·판매직(60.5%) 생산직·노무직등(57.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의 종사상지위별로 결혼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상용직(66.1%), 임시·일용직(62.9%), 비임금근로자(56.9%) 등의 순으로 고용안정성과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이 정(+)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시간이 길수록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61시간 장시간 근로 기혼여성의 15.2%가 결혼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45~61시간미만 근로 기혼여성의 5.1%에 비해 3배정도 높은 것이다. 한편, 기혼여성의 근로(사업)소득수준별로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좋고 하지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 겠다	계(명)	χ^2
전체	15.7	47.2	28.5	6.3	2.3	100.0 (1,493)	
직종							
고위·(준)전문직	14.8	50.0	23.8	9.0	2.5	100.0 (122)	33.6 **
사무직	15.8	52.8	25.3	2.7	3.4	100.0 (443)	
서비스·판매업	17.0	43.5	30.1	7.5	1.9	100.0 (787)	
생산·단순노무직등	8.5	48.8	31.8	10.1	0.8	100.0 (129)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	10.3	46.6	33.0	8.9	1.1	100.0 (348)	38.2 ***
상용직	15.4	50.7	26.6	4.3	3.0	100.0 (766)	
임시·일용직	21.9	41.0	27.6	7.9	1.6	100.0 (366)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13.4	44.4	32.9	7.2	2.2	100.0 (277)	20.1
100~150만원	18.9	44.3	29.3	5.4	2.0	100.0 (460)	
150~200만원	16.4	50.5	27.1	4.7	1.3	100.0 (299)	
200만원 이상	14.2	50.8	23.4	8.6	3.0	100.0 (372)	
근로시간							
36시간미만	14.0	42.5	33.2	8.8	1.6	100.0 (193)	41.5 ***
36~45시간	18.9	48.9	23.6	5.6	2.9	100.0 (550)	
45~61시간	14.7	48.4	29.4	5.1	2.4	100.0 (632)	
61시간이상	9.8	33.7	41.3	15.2	-	100.0 (9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기혼여성(20~44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시기는 <표 8-3>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결혼연령은 30~31세 49.6%, 32~34세 24.2%, 28~29세 16.5% 등의 순으로 평균 31.1세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이상적 남성결혼연령은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이상적 남성결혼연령을 30세 미만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30~31세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현 연령과 비슷한 연령층을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으로 간주하되, 그 상한선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은 저학력층일수록 30세 미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학력층일수록 32~34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혼여성들 사이에 학력별로 교육연한 증가,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결혼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학력별 결혼연령규범’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나 취업여부별로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8-3>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					계 (명)	평균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44세		
전체	3.6	16.5	49.6	24.2	6.1	100.0 (3,560)	31.06
거주지($\chi^2=6.4$)							
동부	3.4	16.8	49.9	24.1	5.9	100.0 (3,057)	31.01
읍·면부	5.1	15.0	47.5	25.1	7.1	100.0 (505)	31.09
연령($\chi^2=62.7^{***}$)							
20~24세	12.2	34.1	48.8	4.9	-	100.0 (41)	29.42
25~29세	4.0	16.6	46.4	26.5	6.4	100.0 (373)	31.12
30~34세	2.3	13.0	49.7	28.4	6.7	100.0 (825)	31.30
35~39세	4.4	15.7	48.2	25.3	6.4	100.0 (1,165)	31.08
40~44세	3.3	19.3	51.9	20.1	5.4	100.0 (1,158)	30.91

〈표 8-3〉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					계 (명)	평균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44세		
교육수준($\chi^2=39.9^{***}$)							
중졸 이하	8.3	23.9	49.5	13.8	4.6	100.0 (109)	30.28
고졸	3.8	17.5	48.7	23.1	6.9	100.0 (1,932)	31.06
대졸	3.1	14.9	50.8	26.3	4.8	100.0 (1,475)	31.09
대학원졸 이상	-	11.4	45.5	27.3	15.9	100.0 (44)	31.84
취업여부($\chi^2=2.9$)							
취업	3.6	16.1	48.7	25.7	6.0	100.0 (1,489)	31.13
비취업	3.7	16.8	50.2	23.2	6.1	100.0 (2,072)	31.0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은 직종, 종사상지위 및 근로(사업)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기혼여성의 직종별로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은 관리직·전문직(31.5세), 사무직(31.3세), 서비스·판매직(31.1세), 생산직·단순노무직(30.6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고위신 혹은 화이트칼라(white-collar)일수록 저위신 혹은 블루칼라(blue-collar)에 비해 자신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결혼연령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개인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을 높게 간주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혼여성의 개인소득계층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의 평균치는 월100만원 미만 계층의 경우 30.9세, 100~150만원미만 계층의 경우 30.8세, 150~200만원미만 계층의 경우 31.2세, 200만원이상 계층의 경우 31.7세로 각각 나타났다.

〈표 8-4〉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단위: %, 명, 세)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전체 (명)	평균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44세		
전체	3.6	16.1	48.7	25.7	6.0	100.0 (1,489)	31.13
직종 ($\chi^2=43.5^{***}$)							
고위·(준)전문직	3.3	13.1	43.4	30.3	9.8	100.0 (122)	31.45
사무직	3.0	10.2	52.0	30.5	4.3	100.0 (440)	31.27
서비스·판매업	3.4	19.6	45.8	24.3	6.9	100.0 (786)	31.08
생산·단순노무직 등	6.2	16.3	58.9	14.7	3.9	100.0 (129)	30.63
종사상지위($\chi^2=31.8^{***}$)							
비임금근로자	3.2	16.1	46.3	28.4	6.0	100.0 (348)	31.26
상용근로자	3.9	12.5	50.6	27.4	5.6	100.0 (763)	31.01
임시일용근로자	3.0	24.2	46.4	19.2	7.1	100.0 (364)	30.93
근로소득($\chi^2=58.5^{***}$)							
100만원미만	4.0	22.7	46.6	20.2	6.5	100.0 (277)	30.89
100~150만원	5.2	18.3	50.9	21.6	3.9	100.0 (458)	30.83
150~200만원	1.7	13.4	52.3	27.5	5.0	100.0 (298)	31.21
200만원이상	2.4	9.7	44.2	34.8	8.9	100.0 (371)	31.66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기혼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기혼여성(20~44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은 27세 이하(35.7%), 28~29세(34.8%), 30~31세(25.6%), 32~34세(3.3%) 순으로, 평균 28.6세로 나타났다(표 8-5). 이는 2008년도 여성평균초혼연령 28.3세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은 흥미롭게 아주 저연령층과 아주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저연령층 기혼여성들이 일찍이 결혼한 세대이며, 고연령층도 이미 과거 세대로서 현재보다 빠른 나이에 결혼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결혼연령을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경향(rationalization effect)을 엿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은 이들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여성결혼연령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상적 여성결

혼연령도 높아져 30세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기혼여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결혼연령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평균 29.5세, 중졸이하 저학력 집단에서 평균 27.7세로 약 2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학력수준에 따라 교육 연한 증가, 취업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을 생각하는 일종의 ‘학력별 결혼연령규범’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8-5〉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계 (명)	평균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44세		
전체	35.7	34.8	25.6	3.3	0.6	100.0 (3,561)	28.56
거주지($\chi^2=2.2$)							
동부	35.6	34.8	25.8	3.2	0.5	100.0 (3,056)	28.56
읍·면부	35.9	34.5	24.8	3.8	1.0	100.0 (504)	28.54
연령($\chi^2=84.5^{***}$)							
20~24세	80.0	15.0	2.5	2.5	-	100.0 (40)	26.47
25~29세	37.4	33.2	26.2	1.6	1.6	100.0 (374)	28.47
30~34세	29.0	35.8	30.9	3.5	0.7	100.0 (824)	28.80
35~39세	33.4	35.9	26.3	3.8	0.6	100.0 (1,163)	28.65
40~44세	40.5	34.2	21.8	3.3	0.3	100.0 (1,159)	28.40
교육수준($\chi^2=37.0^{***}$)							
중졸 이하	49.5	29.7	19.8	0.9	-	100.0 (111)	27.67
고졸	37.4	34.6	23.6	3.7	0.6	100.0 (1,932)	28.49
대졸	32.7	35.6	28.1	2.9	0.6	100.0 (1,475)	28.69
대학원졸 이상	20.5	27.3	45.5	6.8	-	100.0 (44)	29.50
취업여부($\chi^2=11.3^*$)							
취업	33.9	34.8	26.3	4.4	0.6	100.0 (1,488)	28.69
비취업	36.9	34.8	25.1	2.6	0.6	100.0 (2,072)	28.4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은 자신의 취업준비 등 직장경험이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실증적으로 취업 중인 기혼여성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결혼연령은 28.7세로 비취업여성의 28.5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 기혼여성의 직종별로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은 관리(준)전문직의 경우 30세 이상 연령의 비율이, 사무직의

경우에는 28~29세의 비율이, 그리고 서비스·판매직과 생산·단순노무직등의 경우에는 27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의 평균은 관리(준)전문직과 사무직의 경우 각 28.9세,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28.6세, 생산·단순노무직등의 경우 28.1세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직종간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의 차이는 본인의 교육기간, 입직연령 등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은 이상적 여성결혼연령과 정적관계를 보인다. 근로소득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28.4세, 200만원이상인 경우 29.1세로 이들 집단 간 차이는 1세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상지위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6>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단위: %, 명, 세)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전체 (명)	평균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44세		
전체	33.9	34.8	26.3	4.4	0.6	100.0 (1,488)	28.69
직종($\chi^2=47.4^{***}$)							
관리·(준)전문직	32.8	25.4	34.4	7.4	-	100.0 (122)	28.88
사무직	25.7	38.4	33.2	2.0	0.7	100.0 (440)	28.92
서비스·판매업	37.2	34.5	22.0	5.5	0.8	100.0 (785)	28.63
생산·단순노무직 등	41.1	34.1	20.9	3.1	0.8	100.0 (129)	28.13
종사상지위($\chi^2=12.3$)							
비임금근로자	33.0	34.5	25.3	6.0	1.1	100.0 (348)	28.72
상용근로자	32.4	34.4	28.9	3.9	0.4	100.0 (765)	28.75
임시일용근로자	37.5	36.2	21.6	3.8	0.8	100.0 (365)	28.53
근로소득($\chi^2=32.7^{**}$)							
100만원미만	41.4	32.0	21.9	3.6	1.1	100.0 (278)	28.44
100~150만원	36.0	37.1	23.1	3.7	-	100.0 (458)	28.48
150~200만원	29.9	35.9	29.6	4.0	0.7	100.0 (301)	28.88
200만원이상	26.5	34.6	31.6	6.8	0.5	100.0 (370)	29.09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시기를 2005년 조사와 비교한 결과는 <표 8-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혼여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결혼연령은 2005년에 비해 31세 이하의 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32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졌다. 기혼여성의 이상적인 남성결혼연

령은 2005년 평균 30.6세에서 2009년 31.1세로 약 0.5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여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결혼연령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05년 조사에 비해 2009년 조사에서는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으로서 27세 이하 비율이 낮고, 대신 28세 이상(특히 30~31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혼여성의 이상적인 여성결혼연령은 2005년 27.6세에서 2009년 28.6세로 1세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연한 증가, 취업 곤란 및 고용불안정, 결혼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이 실제 본인의 결혼을 늦추었거나 일반적으로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설명될 수 있겠다.

〈표 8-7〉 기혼여성(20~44세)의 이상적인 남성 및 여성결혼연령 비교, 2005~2009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인 결혼연령					계 (명)	평균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44세		
남성 결혼시기							
2005년	6.0	20.1	51.3	18.8	3.7	100.0 (3,779)	30.6
2009년	3.6	16.5	49.6	24.2	6.1	100.0 (3,560)	31.1
여성 결혼시기							
2005년	48.3	30.7	18.1	2.4	0.5	100.0 (3,779)	27.6
2009년	35.7	34.8	25.6	3.3	0.6	100.0 (3,561)	28.6

3. 기혼여성의 가족에 관한 태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8>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82.2%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결혼생활에 있어 가족주의적 특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기혼여성의 일반특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8〉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 않음	전혀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24.3	57.9	16.1	1.6	100.0 (3,559)	
거주지						
동부	24.8	57.3	16.1	1.8	100.0 (3,055)	6.9
읍·면부	21.1	62.2	15.9	0.8	100.0 (503)	
연령						
20~24세	26.8	63.4	9.8	-	100.0 (41)	12.1
25~29세	23.5	62.0	13.5	1.1	100.0 (371)	
30~34세	25.2	55.7	17.5	1.7	100.0 (823)	
35~39세	23.1	60.0	15.5	1.5	100.0 (1,162)	
40~44세	25.0	56.1	16.9	2.1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26.4	57.3	15.5	0.9	100.0 (110)	7.6
고졸	25.2	56.9	16.0	1.9	100.0 (1,932)	
대졸	22.7	59.4	16.5	1.4	100.0 (1,474)	
대학원졸 이상	34.1	52.3	11.4	2.3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5.6	56.6	16.3	1.5	100.0 (1,486)	2.6
비취업	23.4	58.9	16.0	1.7	100.0 (2,074)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9>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66.1%가 찬성(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하여, 이혼을 금기시하던 태도가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의 반대정도도 33.9%로 나타나,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나 연령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다만,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 견해에 찬성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졸 기혼여성의 69.3%가 그리고 중졸이하의 경우에는 59.1%가 이혼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고학력층 여성들이 이혼을 금기시 하는 관습을 타파하는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8-9〉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하지 않음	전혀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17.1	49.0	29.1	4.8	100.0 (3,560)	
거주지						
동부	17.3	48.7	29.1	4.9	100.0 (3,056)	1.8
읍·면부	15.9	51.1	29.0	4.0	100.0 (503)	
연령						
20~24세	17.1	43.9	24.4	14.6	100.0 (41)	15.0
25~29세	18.2	50.3	25.9	5.6	100.0 (374)	
30~34세	18.1	49.5	27.9	4.5	100.0 (821)	
35~39세	16.2	50.0	29.4	4.4	100.0 (1,161)	
40~44세	16.9	47.5	30.8	4.8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6	45.5	32.7	8.2	100.0 (110)	18.9*
고졸	16.5	47.5	31.2	4.8	100.0 (1,931)	
대졸	18.0	51.3	26.0	4.7	100.0 (1,475)	
대학원졸 이상	22.7	45.5	31.8	-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8.3	48.6	28.6	4.5	100.0 (1,487)	2.9
비취업	16.2	49.3	29.4	5.0	100.0 (2,074)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10>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55.1%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앞서의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증가하였을지라도,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는 농촌거주 기혼여성보다 도시거주 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자녀시 이혼을 죄악시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농촌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찬성하고 있어, 교육이 가치관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과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8-10〉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 않음	전혀찬성 하지않음	계(명)	χ^2
전체	13.1	42.0	33.5	11.4	100.0 (3,560)	
거주지						
동부	13.3	42.3	32.4	12.0	100.0 (3,055)	13.8 **
읍·면부	11.9	40.2	39.8	8.1	100.0 (505)	
연령						
20~24세	20.0	30.0	30.0	20.0	100.0 (40)	11.6
25~29세	13.7	43.4	30.3	12.6	100.0 (373)	
30~34세	13.4	40.1	35.4	11.2	100.0 (823)	
35~39세	13.5	41.7	34.1	10.7	100.0 (1,162)	
40~44세	12.1	43.4	32.7	11.7	100.0 (1,16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2	33.6	31.8	16.4	100.0 (110)	31.2 ***
고졸	11.7	44.0	33.2	11.2	100.0 (1,931)	
대졸	14.2	40.8	33.6	11.4	100.0 (1,475)	
대학원졸 이상	27.3	13.6	47.7	11.4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4.7	41.5	32.5	11.3	100.0 (1,487)	5.5
비취업	12.0	42.3	34.2	11.6	100.0 (2,0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11>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58.3%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혼여성의 가치관은 다소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과도기에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거주 기혼여성(59.4%)이 농촌거주 기혼여성(52.3%)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사회보다 도시사회가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8-1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 않음	전혀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10.5	47.8	34.4	7.3	100.0 (3,559)	
거주지						
동부	11.0	48.4	33.1	7.6	100.0 (3,054)	19.6 ***
읍·면부	7.7	44.6	42.4	5.3	100.0 (505)	
연령						
20~24세	4.9	34.1	41.5	19.5	100.0 (41)	15.6
25~29세	11.8	44.4	36.6	7.3	100.0 (372)	
30~34세	10.1	47.5	35.0	7.4	100.0 (823)	
35~39세	10.2	49.0	33.7	7.1	100.0 (1,161)	
40~44세	10.9	48.5	33.7	6.9	100.0 (1,162)	
교육수준						
중졸 이하	8.2	45.5	35.5	10.9	100.0 (110)	10.9
고졸	10.1	47.6	34.7	7.6	100.0 (1,933)	
대졸	11.0	48.2	34.3	6.5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18.2	50.0	20.5	11.4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1.1	48.5	32.8	7.6	100.0 (1,487)	3.3
비취업	10.1	47.3	35.5	7.0	100.0 (2,07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12>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35.3%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혼외출산(동거부부 출산, 미혼모 출산 등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는 사례수가 적은 20~24세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 찬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세대교체가 거듭되면서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8-1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하지 않음	전혀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8.0	27.3	37.3	27.4	100.0 (3,560)	
거주지						
동부	8.2	27.3	37.4	27.1	100.0 (3,055)	1.7
읍·면부	6.9	27.1	36.6	29.3	100.0 (505)	
연령						
20~24세	2.5	27.5	37.5	32.5	100.0 (40)	22.4 *
25~29세	11.0	30.6	34.0	24.4	100.0 (373)	
30~34세	8.6	26.4	34.8	30.2	100.0 (822)	
35~39세	6.5	28.8	38.3	26.4	100.0 (1,162)	
40~44세	8.4	25.2	39.0	27.3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8.2	20.9	36.4	34.5	100.0 (110)	6.7
고졸	8.0	27.8	36.5	27.7	100.0 (1,933)	
대졸	8.1	27.2	38.4	26.3	100.0 (1,474)	
대학원졸 이상	9.1	22.7	34.1	34.1	100.0 (44)	
취업여부						
취업	7.5	27.6	37.5	27.5	100.0 (1,486)	1.2
비취업	8.4	27.0	37.1	27.4	100.0 (2,073)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13>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55.4%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비율은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국사회에서 혈연의식이 여전히 강하며, 이에 따라 입양에 대한 태도도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는 농촌 거주에 비해 도시 거주 의 경우 입양에 대한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입양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보다 보편화되어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1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11.0	44.4	33.6	11.1	100.0 (3,559)	
거주지						
동부	11.2	44.7	32.4	11.6	100.0 (3,053)	15.0 **
읍·면부	9.3	42.2	40.4	8.1	100.0 (505)	
연령						
20~24세	22.5	32.5	25.0	20.0	100.0 (40)	18.6
25~29세	12.9	45.8	30.0	11.3	100.0 (373)	
30~34세	10.3	42.5	37.1	10.1	100.0 (822)	
35~39세	10.5	44.5	33.6	11.4	100.0 (1,163)	
40~44세	10.9	45.6	32.5	11.0	100.0 (1,16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6	46.8	26.1	14.4	100.0 (111)	15.3
고졸	10.5	43.0	34.8	11.7	100.0 (1,931)	
대졸	11.4	46.4	32.4	9.8	100.0 (1,474)	
대학원졸 이상	14.0	30.2	37.2	18.6	100.0 (43)	
취업여부						
취업	10.4	44.8	34.5	10.4	100.0 (1,487)	2.8
비취업	11.4	44.1	32.9	11.6	100.0 (2,072)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14>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68.9%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사별이나 이혼 후 재혼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의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 별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의 재혼에 관한 태도가 일반적인 특성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8-14〉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 않음	전혀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15.3	53.6	24.4	6.7	100.0 (3,558)	
거주지						
동부	15.9	53.6	23.9	6.6	100.0 (3,053)	5.7
읍·면부	12.3	53.7	27.3	6.7	100.0 (505)	
연령						
20~24세	15.0	50.0	20.0	15.0	100.0 (40)	13.5
25~29세	13.7	56.7	22.0	7.5	100.0 (372)	
30~34세	15.5	55.1	24.7	4.7	100.0 (822)	
35~39세	15.1	53.2	24.8	6.9	100.0 (1,161)	
40~44세	16.0	52.3	24.5	7.1	100.0 (1,161)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5	56.9	17.4	9.2	100.0 (109)	12.5
고졸	15.2	53.0	24.7	7.1	100.0 (1,932)	
대졸	15.1	54.7	24.4	5.9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27.3	43.2	27.3	2.3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4.3	54.4	24.8	6.5	100.0 (1,486)	2.2
비취업	16.0	53.1	24.1	6.8	100.0 (2,070)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15>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49.2%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혼전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특성별로는 도시거주에 비해 농촌거주의 경우에,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비취업의 경우에 혼전동거에 대해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8-15〉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하지 않음	전혀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8.6	40.6	33.0	17.9	100.0 (3,558)	
거주지						
동부	8.4	40.2	32.6	18.7	100.0 (3,054)	10.8 *
읍·면부	9.5	42.7	35.1	12.7	100.0 (504)	
연령						
20~24세	22.5	32.5	22.5	22.5	100.0 (40)	51.7 ***
25~29세	13.7	44.2	25.2	16.9	100.0 (373)	
30~34세	9.1	41.5	33.7	15.6	100.0 (821)	
35~39세	7.0	41.7	35.0	16.3	100.0 (1,162)	
40~44세	7.7	37.8	33.2	21.3	100.0 (1,162)	
교육수준						
중졸 이하	9.2	40.4	31.2	19.3	100.0 (109)	25.1 **
고졸	8.2	39.3	34.4	18.1	100.0 (1,931)	
대졸	8.6	43.0	31.2	17.2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22.7	15.9	36.4	25.0	100.0 (44)	
취업여부						
취업	7.9	37.7	35.5	18.9	100.0 (1,486)	13.3 **
비취업	9.1	42.6	31.2	17.1	100.0 (2,0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16>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44.8%가 찬성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40%이상이 혼전성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는 점은 과거 결혼과 성간의 관계에 대한 엄격한 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동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거주지역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기혼여성의 혼전성관계에 대한 수용성은 저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나, 세대간 의식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 중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비취업인 경우에 혼전성관계에 대한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의 성에 대한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취업 기혼여성에 비해 비취업 기혼여성이 혼전성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수용하고 있다는 점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8-16〉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6.1	38.7	34.1	21.2	100.0 (3,559)	
거주지						
동부	6.2	38.3	33.9	21.7	100.0 (3,055)	3.4
읍·면부	5.5	41.0	35.0	18.4	100.0 (505)	
연령						
20~24세	15.0	42.5	17.5	25.0	100.0 (40)	48.1 ***
25~29세	6.4	46.9	26.5	20.1	100.0 (373)	
30~34세	7.3	40.4	33.8	18.5	100.0 (822)	
35~39세	6.2	37.9	36.5	19.3	100.0 (1,163)	
40~44세	4.6	35.5	34.7	25.3	100.0 (1,160)	
교육수준						
중졸 이하	6.4	33.0	33.0	27.5	100.0 (109)	20.9 *
고졸	6.2	36.8	35.2	21.8	100.0 (1,931)	
대졸	5.6	42.0	32.6	19.8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13.6	22.7	36.4	27.3	100.0 (44)	
취업여부						
취업	5.7	36.1	35.3	22.9	100.0 (1,486)	9.6 *
비취업	6.3	40.5	33.2	20.0	100.0 (2,072)	

* p<0.05, ** p<0.01, *** p<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를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한 결과는 <표 8-17>에 제시되어 있다. 동 조사에 포함된 모든 견해들에서 찬성정도(매우 찬성+대체로 찬성)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 사이에 문화 변화나 다양한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는 아주 우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의 경우에는 반대정도가 오히려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등 여러 관점의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는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났다.

2009년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재혼, 이혼, 한부모가족, 입양, 자녀가 있는 이혼 등에 대한 찬성정도는 50%정도로 수용도가 비교적 높으나, 혼전동거, 혼전성관계, 미혼모·부 등의 경우에는 찬성정도가 50% 미만으로

으로 수용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는 2005년에 비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7〉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및 가족관련 다양한 견해에 대한 태도 비교

문항	(단위 : %, 점)		
	찬성태도(매우 찬성+대체로 찬성)	2005	2009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76.8	82.2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50.8	66.1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45.9	55.1	
사별이나 이혼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60.3	68.9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43.9	58.3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기질 수 있다	13.6	35.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51.9	55.4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36.3	49.2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31.6	44.8	

주: 평균점수는 ‘매우 찬성’=4점, ‘대체로 찬성’=3점, ‘찬성안함’=2점, ‘전혀 찬성안함’=1점을 각각 부과하여 산출한 평균치임.

4. 기혼여성의 만혼 및 비혼에 관한 태도

최근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비혼화) 늦게 하는(만혼화) 경향의 이유들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는 <표 8-1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최근 비혼화나 만혼화 경향의 이유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라는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89.8%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농촌보다 도시거주 기혼여성이,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8〉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26.3	63.5	9.0	1.2	100.0 (3,566)	
거주지						
동부	25.2	64.9	8.9	1.1	100.0 (3,059)	17.6 **
읍·면부	33.1	55.6	9.7	1.6	100.0 (507)	
연령						
20~24세	26.8	51.2	12.2	9.8	100.0 (41)	33.6 **
25~29세	25.8	65.3	7.3	1.6	100.0 (372)	
30~34세	26.7	63.8	8.7	0.7	100.0 (823)	
35~39세	24.9	64.4	9.4	1.3	100.0 (1,166)	
40~44세	27.6	62.4	9.1	0.9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34.5	53.6	9.1	2.7	100.0 (110)	16.6
고졸	27.3	62.2	9.1	1.4	100.0 (1,939)	
대졸	24.6	65.7	9.0	0.7	100.0 (1,474)	
대학원졸 이상	20.5	72.7	4.5	2.3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7.7	62.7	8.9	0.7	100.0 (1,492)	6.0
비취업	25.3	64.2	9.0	1.4	100.0 (2,0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19>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28.9%가 전적으로 찬성, 55.5%가 대체로 찬성하여 대부분(84.4%) 과도한 결혼비용 부담이 만혼화 및 비혼의 주된 원인임에 동의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거주지, 연령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다만, 기혼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대체적으로 동 이유에 대한 찬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19〉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28.9	55.5	14.7	0.9	100.0 (3,563)	
거주지						
동부	28.8	55.6	14.7	0.9	100.0 (3,057)	0.7
읍·면부	29.4	54.7	14.6	1.2	100.0 (506)	
연령						
20~24세	29.3	53.7	14.6	2.4	100.0 (41)	12.0
25~29세	26.9	59.1	12.9	1.1	100.0 (372)	
30~34세	30.2	56.3	12.9	0.6	100.0 (821)	
35~39세	27.6	54.6	16.8	1.0	100.0 (1,165)	
40~44세	30.0	54.8	14.3	0.9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3	52.3	13.8	3.7	100.0 (109)	17.2*
고졸	29.3	56.1	13.6	0.9	100.0 (1,937)	
대졸	28.5	54.9	15.9	0.7	100.0 (1,474)	
대학원졸 이상	18.2	59.1	22.7	-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8.6	55.6	15.1	0.7	100.0 (1,492)	1.2
비취업	29.2	55.5	14.3	1.0	100.0 (2,0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의 만혼화 및 비혼의 이유가 사람들이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라는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77.3%가 찬성하고 있다. 앞서의 경제적 이유들(고용 불안정, 결혼비용 등)에 대한 찬성정도보다는 다소 낮지만,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 역시 만혼화나 비혼화의 주된 이유라는 것에 대해 기혼여성의 상당비율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표 8-20〉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26.2	51.1	20.4	2.2	100.0 (3,564)	
거주지						
동부	25.5	51.6	20.6	2.3	100.0 (3,059)	5.6
읍·면부	30.5	48.3	19.2	2.0	100.0 (505)	
연령						
20~24세	14.6	56.1	24.4	4.9	100.0 (41)	20.7
25~29세	25.5	52.7	19.4	2.4	100.0 (372)	
30~34세	27.4	49.8	20.8	1.9	100.0 (821)	
35~39세	22.6	53.6	21.5	2.3	100.0 (1,167)	
40~44세	29.7	48.8	19.2	2.2	100.0 (1,165)	
교육수준						
중졸 이하	30.3	47.7	18.3	3.7	100.0 (109)	15.2
고졸	27.1	50.3	20.0	2.7	100.0 (1,937)	
대졸	25.0	52.8	20.8	1.5	100.0 (1,474)	
대학원졸 이상	22.7	40.9	31.8	4.5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7.5	51.4	19.1	1.9	100.0 (1,492)	4.9
비취업	25.3	50.9	21.3	2.5	100.0 (2,07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시댁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라는 만혼화 및 비혼화의 이유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는 <표 8-21>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 여성의 69.2%(전적으로 19.8%, 대체로 49.4%)가 찬성하고 있다. 거주지별로는 농촌거주 기혼여성(21.3%)이 도시거주 기혼여성(19.5%)에 비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이 강한테다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들이 많아, 그만큼 농촌의 기혼여성들 사이에 동 이유를 만혼화나 비혼화의 주된 원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원 이상 고학력층을 제외하면,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연령이나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1〉 “시댁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19.8	49.4	24.8	6.0	100.0 (3,560)	
거주지						
동부	19.5	49.8	24.3	6.4	100.0 (3,054)	10.8*
읍·면부	21.3	47.0	28.3	3.4	100.0 (506)	
연령						
20~24세	17.5	52.5	15.0	15.0	100.0 (40)	13.6
25~29세	19.2	49.5	24.9	6.5	100.0 (370)	
30~34세	19.9	50.0	24.4	5.7	100.0 (820)	
35~39세	19.2	47.9	27.3	5.6	100.0 (1,165)	
40~44세	20.6	50.4	23.0	6.0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0	47.7	22.5	11.7	100.0 (111)	18.3*
고졸	20.9	48.6	25.1	5.4	100.0 (1,935)	
대졸	18.4	51.0	24.5	6.1	100.0 (1,472)	
대학원졸 이상	22.7	31.8	34.1	11.4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8.8	51.0	24.6	5.5	100.0 (1,489)	3.6
비취업	20.5	48.2	25.0	6.3	100.0 (2,07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22>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73.3%가 찬성하였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혼자들에게도 결혼 후 수행하게 되는 아내(혹은 남편), 며느리(혹은 사위), 어머니(혹은 아버지) 등으로서의 각종 역할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혼 연기나 포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찬성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2〉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20.2	53.1	22.5	4.3	100.0 (3,563)	
거주지						
동부	20.1	53.4	22.0	4.5	100.0 (3,056)	6.3
읍·면부	20.6	51.0	25.7	2.8	100.0 (506)	
연령						
20~24세	4.9	53.7	29.3	12.2	100.0 (41)	22.2*
25~29세	22.6	52.3	20.5	4.6	100.0 (371)	
30~34세	20.8	52.9	22.0	4.3	100.0 (821)	
35~39세	19.8	51.8	25.0	3.4	100.0 (1,166)	
40~44세	19.8	54.8	20.7	4.7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4	48.6	25.7	8.3	100.0 (109)	12.3
고졸	21.1	53.5	21.5	3.9	100.0 (1,937)	
대졸	19.2	52.7	23.6	4.4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15.9	54.5	20.5	9.1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9.1	55.1	22.1	3.8	100.0 (1,490)	5.2
비취업	20.9	51.7	22.8	4.6	100.0 (2,0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23>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 중 76.1%(전적으로 22.5%, 대체로 53.6%)가 동 견해에 대해 찬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최근 사람들이 독신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 특성별로는 도시거주 기혼여성보다 농촌거주 기혼여성이,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 차이는 결혼 연기가 결혼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취업 기혼여성이 비취업 기혼여성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경제적 독립이 결혼필요성에 관한 인식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동 견해에 대한 태도 차이는 무의미하다.

〈표 8-23〉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22.5	53.6	21.5	2.4	100.0 (3,564)	
거주지						
동부	22.0	53.3	22.2	2.5	100.0 (3,059)	9.1 *
읍·면부	25.7	55.3	16.8	2.2	100.0 (506)	
연령						
20~24세	17.1	41.5	34.1	7.3	100.0 (41)	33.8 **
25~29세	24.7	53.0	20.2	2.2	100.0 (372)	
30~34세	23.9	49.3	23.4	3.4	100.0 (820)	
35~39세	19.4	56.6	22.4	1.6	100.0 (1,166)	
40~44세	24.3	54.3	19.1	2.3	100.0 (1,166)	
교육수준						
중졸 이하	25.7	44.0	26.6	3.7	100.0 (109)	6.3
고졸	22.4	54.0	21.4	2.3	100.0 (1,938)	
대졸	22.7	53.8	21.0	2.4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15.9	54.5	27.3	2.3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3.6	52.9	22.1	1.5	100.0 (1,492)	11.3 *
비취업	21.8	54.1	21.0	3.1	100.0 (2,07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 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24>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73.5%가 찬성하였다. 기혼여성의 특성별로는 농촌 거주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학력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기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기혼여성들에 비해 보다 많은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교육경험을 반영하여 응답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다.

〈표 8-24〉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 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17.8	55.7	23.5	3.0	100.0 (3,563)	
거주지						
동부	18.2	56.6	22.6	2.7	100.0 (3,058)	20.6 ***
읍·면부	15.2	50.6	29.2	4.9	100.0 (506)	
연령						
20~24세	19.5	41.5	31.7	7.3	100.0 (41)	19.6
25~29세	20.8	51.8	24.0	3.5	100.0 (371)	
30~34세	17.8	55.9	23.2	3.2	100.0 (820)	
35~39세	15.8	55.5	25.3	3.4	100.0 (1,166)	
40~44세	18.7	57.6	21.6	2.1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4	44.4	29.6	6.5	100.0 (108)	19.4 *
고졸	17.8	55.1	23.7	3.4	100.0 (1,938)	
대졸	17.7	56.9	23.2	2.3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13.6	72.7	9.1	4.5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7.3	57.4	23.2	2.1	100.0 (1,492)	7.9 *
비취업	18.1	54.6	23.7	3.6	100.0 (2,07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25>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80.8%가 찬성하였다(전적으로 찬성 23.4%, 대체로 찬성 57.4%).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는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도 높아지나,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고학력화와 고위신직업 추구 경향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져, 결과적으로 적절한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 만혼화와 비혼화가 촉진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 연령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5〉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23.4	57.4	17.6	1.6	100.0 (3,563)	
거주지						
동부	23.3	57.7	17.3	1.6	100.0 (3,057)	1.8
읍·면부	23.7	55.1	19.6	1.6	100.0 (506)	
연령						
20~24세	26.2	54.8	14.3	4.8	100.0 (42)	14.6
25~29세	27.5	53.4	17.0	2.2	100.0 (371)	
30~34세	22.2	58.9	17.6	1.3	100.0 (820)	
35~39세	21.6	57.9	18.5	2.0	100.0 (1,166)	
40~44세	24.7	57.1	17.1	1.1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5	48.6	22.9	0.9	100.0 (109)	27.3 **
고졸	24.1	56.8	17.0	2.1	100.0 (1,937)	
대졸	21.9	59.5	17.6	1.1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36.4	31.8	31.8	-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2.3	57.9	18.4	1.3	100.0 (1,492)	3.7
비취업	24.2	56.9	17.0	1.8	100.0 (2,07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26>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 중 83.8%가 동 견해에 찬성(전적으로 찬성 27.0%, 대체로 찬성 56.8%)하고 있어, 소득불안정이 결혼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6〉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전체(명)	χ^2
전체	27.0	56.8	14.9	1.3	100.0 (3,563)	
거주지						
동부	27.0	56.8	14.8	1.4	100.0 (3,057)	1.4
읍·면부	27.1	56.6	15.4	0.8	100.0 (505)	
연령						
20~24세	14.6	65.9	17.1	2.4	100.0 (41)	18.4
25~29세	25.0	58.9	14.2	1.9	100.0 (372)	
30~34세	28.2	56.8	14.1	0.9	100.0 (820)	
35~39세	24.5	57.3	16.8	1.4	100.0 (1,167)	
40~44세	29.8	55.2	13.6	1.5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37.0	49.1	13.0	0.9	100.0 (108)	14.5
고졸	27.7	56.3	14.6	1.3	100.0 (1,938)	
대졸	25.1	58.4	15.2	1.4	100.0 (1,472)	
대학원졸 이상	38.6	40.9	20.5	-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6.3	58.5	14.1	1.1	100.0 (1,493)	3.9
비취업	27.5	55.6	15.4	1.5	100.0 (2,070)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27>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81.3%가 찬성하고 있다(전적으로 찬성 21.7%, 대체로 찬성 59.6%).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8-27〉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라는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전체(명)	χ^2
전체	21.7	59.6	16.1	2.6	100.0 (3,563)	
거주지						
동부	21.4	59.7	16.0	2.8	100.0 (3,057)	4.3
읍·면부	23.3	58.6	16.8	1.4	100.0 (507)	
연령						
20~24세	12.2	68.3	14.6	4.9	100.0 (41)	15.3
25~29세	19.4	58.5	18.6	3.5	100.0 (371)	
30~34세	21.8	60.0	15.5	2.7	100.0 (821)	
35~39세	20.6	59.2	17.9	2.3	100.0 (1,164)	
40~44세	23.7	59.7	14.1	2.5	100.0 (1,165)	
교육수준						
중졸 이하	32.7	50.9	13.6	2.7	100.0 (110)	16.9
고졸	22.1	59.0	16.3	2.6	100.0 (1,936)	
대졸	20.1	61.5	16.0	2.4	100.0 (1,472)	
대학원졸 이상	29.5	45.5	18.2	6.8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2.5	59.6	15.6	2.3	100.0 (1,491)	2.5
비취업	21.0	59.6	16.6	2.8	100.0 (2,07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 비혼화 및 만혼화 이유들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를 종합해보면(표 8-28), 모든 이유들에 대해 찬성정도(매우 찬성+대체로 찬성)가 반대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성정도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89.8%)”,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84.4%)”,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83.8%)” 등 경제적 이유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81.3%)”와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80.8%)”에 대한 기혼여성의 찬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일 중심의 생활패턴에 따른 일-가정 양립 곤란과 마땅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운 일종의 mis-matching 문제가 만혼화와 비혼화의 주범 중 하나가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나머지 이유들은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77.3%)”,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76.1%)”,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73.3%)”,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73.5%)”, “시댁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69.2%)” 등의 순으로, 주로 사회문화적 또는 가치관에 관련한 이유들로서 찬성정도는 여전히 반대정도보다 높다.

〈표 8-28〉 결혼 연기 및 비혼 이유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종합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하지않음	계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26.3	63.5	9.0	1.2	100.0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28.9	55.5	14.7	0.9	100.0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26.2	51.1	20.4	2.2	100.0
시댁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19.8	49.4	24.8	6.0	100.0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20.2	53.1	22.5	4.3	100.0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22.5	53.6	21.5	2.4	100.0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17.8	55.7	23.5	3.0	100.0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23.4	57.4	17.6	1.6	100.0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27.0	56.8	14.9	1.3	100.0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	21.7	59.6	16.1	2.6	100.0

5. 기혼여성의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이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29>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78.4%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기혼여성들 사이에 전통적인 성분업가치관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분업가치관은 고연령층 기혼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업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혼여성의 가구소득형태별로는 맞벌이부부보다는 남편1인소득가구와 무소득가구인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이 자신의 가구경제패턴을 반영하여 응답한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거주지 및 교육수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9〉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23.1	55.3	19.6	2.0	100.0 (3,560)	
거주지						
동부	23.6	55.3	19.1	2.0	100.0 (3,060)	4.9
읍·면부	20.2	55.2	22.6	2.0	100.0 (500)	
연령						
20~24세	30.8	48.7	12.8	7.7	100.0 (39)	33.8 **
25~29세	19.6	57.4	21.2	1.9	100.0 (373)	
30~34세	20.3	54.4	23.2	2.1	100.0 (822)	
35~39세	23.6	55.0	20.1	1.4	100.0 (1,162)	
40~44세	25.5	56.0	16.1	2.4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26.4	55.5	15.5	2.7	100.0 (110)	14.2
고졸	23.6	56.4	18.0	1.9	100.0 (1,934)	
대졸	22.1	54.4	21.4	2.1	100.0 (1,472)	
대학원졸 이상	27.3	38.6	31.8	2.3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2.1	51.5	23.4	2.9	100.0 (1,486)	36.8 ***
비취업	23.8	58.0	16.8	1.4	100.0 (2,075)	
가구소득모형 ¹⁾						
맞벌이 가구	20.4	52.7	24.2	2.7	100.0 (1,275)	46.3 ***
남편인소득가구	23.4	58.5	16.7	1.4	100.0 (1,972)	
여성인소득가구	33.3	41.7	20.8	4.2	100.0 (48)	
무소득자가구	32.3	51.6	16.1	-	100.0 (6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이혼·별거·사별 202명을 제외함.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30>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65.5%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나머지 35% 정도는 가정 내 노인부양이 부인의 책임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농촌거주보다 도시거주, 저학력층 그리고 비취업 기혼여성일수록 가정 내 노인부양이 부인의 책임이라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동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은 20대와 40대에서 높고,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유형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부부인 경우보다 비맞벌이부부인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의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고학력층, 30대 및 맞벌이 기혼여성들은 일이 바쁘거나 가치관 변화로 인하여 동 견해에 대한 찬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8-30〉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15.8	49.7	29.4	5.1	100.0 (3,560)	
거주지						
동부	16.4	50.6	28.4	4.6	100.0 (3,061)	26.8 ***
읍·면부	12.0	44.1	35.9	8.0	100.0 (501)	
연령						
20~24세	10.0	67.5	15.0	7.5	100.0 (40)	27.2 **
25~29세	18.5	47.6	28.0	5.9	100.0 (372)	
30~34세	13.2	47.5	33.3	6.0	100.0 (823)	
35~39세	14.8	50.3	29.6	5.2	100.0 (1,162)	
40~44세	17.8	50.7	27.5	4.0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3	62.4	16.5	2.8	100.0 (109)	18.9 *
고졸	15.7	50.1	28.5	5.6	100.0 (1,933)	
대졸	15.8	48.2	31.3	4.8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13.6	50.0	36.4	-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5.8	46.2	32.0	6.1	100.0 (1,486)	16.9 **
비취업	15.8	52.3	27.6	4.4	100.0 (2,074)	
가구소득모형 ¹⁾						
맞벌이 가구	15.7	46.5	32.2	5.6	100.0 (1,275)	22.0 **
남편인소득가구	15.7	52.1	27.8	4.4	100.0 (1,972)	
여성인소득가구	29.8	42.6	23.4	4.3	100.0 (47)	
무소득자가구	14.5	58.1	21.0	6.5	100.0 (6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이혼·별거·사별 202명을 제외함.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31>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74.9%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긍정적

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가정 간의 양립에 대한 욕구 수준으로도 간주할 수 있겠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태도는 농촌보다 도시 거주 또는 고연령층 기혼여성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취업여부 및 가구소득모형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1〉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14.4	60.5	23.0	2.1	100.0 (3,561)	
거주지						
동부	14.8	60.9	22.0	2.2	100.0 (3,060)	13.5 **
읍·면부	11.8	58.4	28.6	1.2	100.0 (500)	
연령						
20~24세	15.0	37.5	40.0	7.5	100.0 (40)	33.7 **
25~29세	15.6	56.7	23.7	4.0	100.0 (372)	
30~34세	14.1	61.3	23.1	1.5	100.0 (822)	
35~39세	13.3	61.0	24.3	1.3	100.0 (1,163)	
40~44세	15.3	61.6	20.7	2.4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0	58.7	25.7	4.6	100.0 (109)	11.2
고졸	13.7	61.1	23.0	2.3	100.0 (1,933)	
대졸	15.8	59.8	22.7	1.7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9.1	68.2	22.7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4.5	62.1	21.6	1.9	100.0 (1,487)	3.6
비취업	14.4	59.4	24.0	2.2	100.0 (2,075)	
가구소득모형 ¹⁾						
맞벌이 가구	14.4	62.7	21.1	1.8	100.0 (1,275)	8.9
남편인소득가구	14.0	59.8	23.9	2.3	100.0 (1,972)	
여성인소득가구	19.1	59.6	17.0	4.3	100.0 (47)	
무소득자가구	17.7	53.2	27.4	1.6	100.0 (6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이혼·별거·사별 202명을 제외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32>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77.7%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남편의 가계책임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의 찬성정도는 앞서의 성분업가치관에 관한 찬성도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기혼여성들 사이에는 맞벌이든 비맞벌이든지 가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의 찬성정도는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취업 중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는 저연령층 기혼여성들 사이에 전통적 성역할 분업에 대한 가치관이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취업 여성 일지라도 임금수준이 낮은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가계의 상당부분을 남편소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일수록 찬성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 및 가구소득모형별 동 견해에 대한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8-32〉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22.5	55.2	21.0	1.3	100.0 (3,561)	
거주지						1.3
동부	22.5	55.2	20.9	1.4	100.0 (3,060)	
읍·면부	23.0	54.8	21.4	0.8	100.0 (500)	
연령						38.0 ***
20~24세	29.3	51.2	19.5	-	100.0 (41)	
25~29세	19.6	55.2	23.1	2.1	100.0 (373)	
30~34세	19.0	57.4	22.1	1.6	100.0 (823)	
35~39세	20.4	55.8	22.3	1.5	100.0 (1,164)	
40~44세	27.9	53.1	18.1	0.9	100.0 (1,164)	
교육수준						30.6 ***
중졸 이하	25.5	56.4	18.2	-	100.0 (110)	
고졸	24.0	55.6	19.2	1.2	100.0 (1,934)	
대졸	20.4	55.3	22.7	1.6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20.5	31.8	45.5	2.3	100.0 (4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이혼·별거·사별 202명을 제외함.

〈표 8-32〉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취업여부						
취업	24.9	53.5	20.2	1.4	100.0 (1,487)	8.8*
비취업	20.8	56.4	21.5	1.3	100.0 (2,074)	
가구소득모형 ¹⁾						
맞벌이 가구	23.2	54.4	20.9	1.6	100.0 (1,275)	10.4
남편인소득가구	20.5	56.9	21.4	1.2	100.0 (1,972)	
여성인소득가구	25.0	60.4	14.6	-	100.0 (48)	
무소득자가구	25.8	45.2	25.8	3.2	100.0 (6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이혼·별거·사별 202명을 제외함.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8-33>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대해 기혼여성의 84.5%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남편의 육아참여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일반특성 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남편의 육아참여에 대한 가치관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8-33〉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하지 않음	전혀 찬성 하지 않음	계(명)	χ^2
전체	16.3	68.2	14.1	1.4	100.0 (3,561)	
거주지						
동부	16.4	68.6	13.6	1.4	100.0 (3,060)	6.0
읍·면부	15.6	65.9	17.6	1.0	100.0 (501)	
연령						
20~24세	22.0	61.0	14.6	2.4	100.0 (41)	9.8
25~29세	17.2	66.7	14.2	1.9	100.0 (372)	
30~34세	15.3	70.7	12.9	1.1	100.0 (822)	
35~39세	15.7	69.5	13.3	1.5	100.0 (1,162)	
40~44세	16.9	66.0	15.8	1.3	100.0 (1,16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이혼·별거·사별 202명을 제외함.

<표 8-33>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계(명)	χ^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1.8	67.3	17.3	3.6	100.0 (110)	15.9
고졸	16.1	67.7	14.5	1.8	100.0 (1,933)	
대졸	16.6	69.1	13.6	0.7	100.0 (1,474)	
대학원졸 이상	22.7	68.2	9.1		100.0 (44)	
취업여부						
취업	16.6	67.6	14.5	1.3	100.0 (1,487)	0.8
비취업	16.0	68.7	13.9	1.4	100.0 (2,075)	
가구소득모형¹⁾						
맞벌이 가구	16.1	67.8	14.9	1.2	100.0 (1,275)	5.3
남편인소득가구	15.9	68.8	13.8	1.5	100.0 (1,972)	
여성인소득가구	25.5	63.8	10.6	-	100.0 (47)	
무소득자가구	17.5	68.3	12.7	1.6	100.0 (6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이혼·별거·사별 202명을 제외함.

기혼여성의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종합한 결과는 <표 8-34>에 제시되어 있다. 2009년 조사 결과, 가족 내 부부역할 관련 다양한 견해들 모두에 대해 기혼여성의 찬성정도가 2005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성역할분업, 남편의 가계책임, 가족 내 노인부양의 부인 책임 등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도 찬성정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남편의 육아참여, 취업모의 일-자녀관계 양립 등의 현대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도 찬성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들 사이에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최근의 양성평등 가족문화가 혼재되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8-34> 기혼여성(20~44세)의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비교

(단위 : %, 점)

문 항	찬성태도(매우+대체로)	
	2005	2009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65.8	78.4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72.2	77.7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57.4	65.5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65.9	74.9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80.8	84.5

제2절 기혼여성의 결혼 실태

1. 기혼여성의 결혼연기 경험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연기 경험은 <표 8-35>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3.2%(총 3,585명 중 115명)가 결혼연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초혼연령, 결혼전후 취업여부 및 취업중단 경험별로 결혼연기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5>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연기 경험

(단위: %, 명)

구분	결혼연기경험		계 (명)	χ^2
	있다	없다		
전체	3.2	96.8	100.0 (3,585)	
초혼연령				
19세 이하	3.1	96.9	100.0 (98)	
20~24세	3.6	96.4	100.0 (1,152)	7.1
25~26세	2.0	98.0	100.0 (831)	
27~29세	3.4	96.6	100.0 (802)	
30세 이상	4.6	95.4	100.0 (478)	
결혼전후 1년간 취업 여부				
취업중	3.5	96.5	100.0 (2,242)	1.4
비취업중	2.8	97.2	100.0 (1,344)	
결혼전후 1년간 취업 중단 경험				
있다	3.2	96.8	100.0 (880)	0.4
없다	3.7	96.3	100.0 (1,362)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연기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표 8-36>에 제시되어 있다. 결혼연기 이유로는 결혼비용이 여의치 않아서가 2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업상태(18.4%),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16.9%), 집안반대(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안반대를 제외하면,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기 이유에 대한 일반특성별 분석은 사례수 한계성으로 인해 생략하였다.

〈표 8-36〉 기혼여성(20~44세)이 결혼을 미뤘던 이유

(단위: %, 명)

구분	실업상태/ 비정규직	결혼 후 살집을 마련 못해	상대방의 수입이 적어서	결혼에 따른 의무·역할 부담스러워	결혼비용이 여의치 않아서	집안의 반대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기타 ¹⁾	계
	18.4	16.9	5.6	6.7	22.1	14.4	1.2	14.8	100.0

주: 1) 기타에는 직장일이 바빠서(2),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1), 학업 때문에(3), 시댁의 부당한 요구(8), 건강이 나빠서(3) 등이 포함됨.

2. 기혼여성의 배우자와 만남형태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의 여파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결혼의례와 관련하여 상업주의적 요소가 더해지면서 결혼에 따르는 물질적 부담은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혼인을 앞둔 미혼남녀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기혼여성(20~44세)이 남편을 만난 방법은 <표 8-37>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이 배우자를 만난 방법으로는 타인의 소개가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로 고연령층일수록 타인의 소개에 의해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저학력층일수록 타인의 소개를 통해서 남편을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결혼당시 취업 중인 경우에 소개에 의해 만난 경우가 많았다. 결혼식을 기준으로 결혼기간을 산정했을 때,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소개에 의한 만남의 비율이 50% 이상인 반면, 결혼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기간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경우, 소개자로는 친구가 6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또는 친인척(30.6%)이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배우자 만남은 1.8%에 불과하였다.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소개자는 친구보다는 부모 또는 친인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결혼기간 5년 미만의 경우 소개자는 친구가 75.2%, 부모 또는 친인척이 17.4%였다. 이와 달리 결혼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소개자는 친구가 55.0%, 부모 또는 친인척이 42.5%로 나타났다.

〈표 8-37〉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배우자 만남 형태

(단위: %, 명)

	타인 소개 아님	타인 소개	소개해준 사람				계(명)
			친구	부모/ 친인척	결혼정보 회사	기타	
전체	58.2(2,079)	41.8(1,494)	65.2	30.6	1.8	2.5	100.0 (1,479)
지역($x^2=0.3$)					($x^2=11.5^{**}$)		
동부	58.4(1,791)	41.6(1,277)	66.3	30.0	1.3	2.4	100.0
읍면부	57.0(288)	43.0(216)	58.9	33.6	4.2	3.3	100.0
연령($x^2=28.1^{***}$)					($x^2=125.9^{***}$)		
20~24	57.9(22)	42.1(16)	62.5	6.3	31.3	-	100.0
25~29	63.1(236)	36.9(138)	73.7	19.0	2.9	4.4	100.0
30~34	61.4(507)	38.6(319)	74.1	21.5	1.9	2.5	100.0
35~39	60.5(706)	39.5(460)	65.2	31.3	0.9	2.6	100.0
40~44	52.0(607)	48.0(560)	57.9	38.8	1.3	2.0	100.0
교육수준($x^2=9.8^*$)					($x^2=81.6^{***}$)		
중졸 이하	50.9(110)	49.1(54)	49.1	32.1	17.0	1.9	100.0
고등학교 졸	56.4(1,940)	43.6(845)	64.8	31.5	1.3	2.4	100.0
대학 졸	60.9(1,478)	39.1(578)	67.5	28.8	0.9	2.8	100.0
대학원 졸업 이상	63.6(44)	36.4(16)	56.3	37.5	-	6.3	100.0
취업상태($x^2=1.5$)					($x^2=2.5$)		
취업	59.3(887)	40.7(609)	66.4	29.4	1.7	2.3	100.0
비취업(구직활동)	58.3(315)	41.7(225)	61.5	34.8	1.4	2.5	100.0
비취업(비구직 활동)	57.1(877)	42.9(659)	65.4	30.3	1.8	2.3	100.0
결혼당시 취업여부($x^2=14.1^{***}$)					($x^2=7.4$)		
취업 중	58.0(1,296)	42.0(937)	66.1	29.3	1.5	3.1	100.0
비취업	58.5(783)	41.5(556)	63.8	32.8	2.2	1.3	100.0
혼인기간 ($x^2=9.6^*$)					($x^2=66.5^{***}$)		
5년 미만	59.9(655)	40.1(259)	75.2	17.4	5.0	2.3	100.0
5~10년 미만	58.7(800)	41.3(332)	71.6	24.4	1.5	2.4	100.0
10~15년 미만	58.6(974)	41.4(396)	63.8	32.9	0.3	3.0	100.0
15~20년 미만	59.5(800)	40.5(327)	57.9	37.7	1.6	2.8	100.0
20년 이상	48.6(153)	51.4(162)	55.0	42.5	1.9	0.6	100.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결혼당시 취업여부'는 결혼 전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여부를 확인하였고, '혼인기간'은 실제 동거를 시작한 시거나 혼인신고의 시기와 상관없이 결혼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기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이들의 배우자 만남형태를 살펴 보았다. 물론 현재의 조사시점에서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 이들의 혼인 당시 결혼에 대한 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상에 주의를 요하

는 바이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타인의 소개에 의해 배우자를 만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배우자를 소개해준 사람은 결혼에 대한 생각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결혼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가 실제 결혼과정에서 구체적인 행동양식, 즉 배우자의 만남과 선택, 결정의 과정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표 8-38〉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태도와 배우자 만남 형태

(단위: %, 명)

	타인소개 이름	타인소개	소개해준 사람				계(명)
			친구	부모/ 친인척	결혼정 보회사	기타	
전체	58.2(2,079)	41.8(1,494)	65.2	30.6	1.8	2.4	100.0 (1,475)
결혼에 대한 생각 ($\chi^2=8.13$)			($\chi^2=15.7$)				
반드시 해야 한다	56.7(276)	43.7(214)	64.5	32.2	1.4	1.9	100.0
하는 편이 좋다	59.5(1,030)	40.7(708)	68.3	27.8	1.9	2.0	100.0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58.3(632)	41.9(456)	62.3	32.0	2.2	3.5	100.0
하지 않는 게 낫다	54.3(87)	50.0(87)	62.8	36.0	-	1.2	100.0
모르겠다	64.9(50)	34.2(26)	45.8	50.0	-	4.2	100.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여 남편을 만났다고 한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의 1.8%(26명)에 불과하였으며, 이들의 결혼정보회사 이용 비용은 평균 939만원(SD=938)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 이용비용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천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인데, 결혼정보회사 일반적 이용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극단치(outlier)의 가능성이 의심되며, 분석 유효 사례수도 충족되지 않아 추가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3. 기혼여성의 결혼비용

가. 기혼여성의 결혼식 비용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관련 비용 지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 비용을 조사하였다. 결혼비용은 예단과 예물, 신혼살림 마련에 드는 혼수비용, 약혼식, 결혼식, 피로연, 폐백, 신혼여행 등 혼인 의례 및 의식에 드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신혼기 주거를 위한 주택비용은 별도로 고려하였다.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당시 결혼비용은 <표 8-39>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평균 결혼비용은 1,976만원(SD=1,715)이었다. 1,000~1,500만원 미만인 2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0만원 이상(22.8%), 2,000~2,500만원 미만(18.5%), 1,000만원 미만(16.2%), 1,500~2,000만원 미만(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결혼비용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많았으며, 이들의 평균은 동부와 읍면부가 각각 2,020만원(SD=1,862)과 1,794만원(SD=1,2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25~39세의 평균 결혼비용이 2,321만원(SD=1,432)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2,287만원(SD=1,390)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결혼당시 비취업 여성의 평균 결혼비용이 1,700만원(SD=1,298)이었고, 취업 중이었던 여성의 평균 결혼비용은 2,155만원(SD=2,001)으로 나타났다. 결혼당시 비취업에 비해 취업 중인 경우 결혼비용이 평균 400만원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을 본인의 결혼비용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결혼기간이 길수록(오래전에 결혼했을수록) 결혼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결혼식을 치른지 5년 미만의 기혼여성이 지출한 평균 결혼비용은 2,404만원(SD=1,542)이었고,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기혼여성의 평균 결혼비용은 1,310만원(SD=1,061)로 1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

타났다. 실제로 결혼 5년미만의 기혼여성 가운데 결혼비용을 1천만원미만을 지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1%에 불과한 반면, 20년이상된 기혼여성의 35.5%가 1천만원미만 지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3천만원이상 지출한 경우는 5년미만이 37.7%에 이르는데 비해, 20년이상인 경우 8.6%에 불과하였다. 이는 기혼여성의 연령코호트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불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결혼관련 지출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혼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90년대 이후 예단범위의 확대, 혼수물품의 항목 증가와 고가화 등으로 결혼비용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표 8-39〉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평균 결혼비용

(단위: %, 명, 만원)

	1,000 만원 미만	1,000~ 1,500만원	1,500~ 2,000만원	2,000~ 2,500만원	2,500~ 3,000만원	3,000 만원이상	계(명)	평균 결혼비용(SD)
전체	16.2	22.9	13.1	18.5	6.5	22.8	100.0(3,353)	1,976(1,715)
거주지($\chi^2=17.2^{**}$)								
동부	16.4	22.2	12.6	18.5	6.6	23.7	100.0(2,896)	2,020(1,862)
읍면부	14.9	27.4	16.2	18.6	6.1	16.8	100.0(457)	1,794(1,220)
연령($\chi^2=170.2^{***}$)								
20~24세	31.6	23.7	-	13.2	7.9	23.7	100.0(38)	1,913(2,103)
25~29세	9.5	18.3	9.8	19.2	8.6	34.6	100.0(338)	2,321(1,432)
30~34세	12.0	18.0	12.2	21.0	7.0	29.9	100.0(773)	2,179(1,340)
35~39세	14.3	23.4	13.8	19.2	7.6	21.8	100.0(1,112)	2,058(2,147)
40~44세	22.5	27.4	14.6	16.0	4.4	15.1	100.0(1,093)	1,685(1,714)
교육수준($\chi^2=225.1^{***}$)								
중졸 이하	46.2	32.3	8.6	6.5	2.2	4.3	100.0(93)	1,052(94)
고졸	18.9	25.9	14.2	18.2	6.2	16.5	100.0(1,825)	1,804(1,826)
대졸	10.8	18.6	11.9	19.7	7.1	31.9	100.0(1,390)	2,287(1,390)
대학원졸이상	9.3	18.6	16.3	18.6	4.7	32.6	100.0(43)	2,283(42)
결혼당시 취업여부($\chi^2=92.4^{***}$)								
취업	12.6	21.5	13.8	19.0	6.5	26.7	100.0(2,129)	2,155(2,001)
비취업	22.4	25.3	12.0	17.7	6.6	16.0	100.0(1,225)	1,700(1,298)
혼인기간($\chi^2=304.8^{***}$)								
5년 미만	11.1	17.4	8.4	17.4	8.1	37.7	100.0(605)	2,404(1,542)
5~10년	11.2	18.4	13.8	21.2	8.3	27.2	100.0(761)	2,188(1,800)
10~15년	13.0	23.6	15.6	21.0	7.0	19.9	100.0(900)	1,977(1,865)
15~20년	20.6	28.1	13.5	16.7	5.1	15.9	100.0(761)	1,758(1,994)
20년 이상	35.5	30.9	12.5	11.5	1.0	8.6	100.0(304)	1,310(1,06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결혼당시 취업여부 : 결혼 전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여부

3) 혼인기간 : 실제 동거를 시작한 시거나 혼인신고의 시기와 상관없이 결혼식 기준으로 산출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비용 부담자는 <표 8-40>에 제시되어 있다. 신부와 신랑이 반반씩 분담한 경우가 전체의 36.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정과 시댁 반반분담 34.0%, 신랑 또는 신부의 개별 부담 13.4%, 신랑과 친정 분담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결혼비용을 신랑·신부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한 비율은 50.0%인데 반해, 시댁·친정 집안에서 전적으로 부담한 비율은 38.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결혼비용의 마련에 있어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부모에게 전적으로 또는 일부 경제적 의존의 경향도 엿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는 신랑·신부 당사자들이나 시댁·친정 집안에서 전적으로 부담한 비율은 읍면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신랑 혹은 신부와 상대방 집안에 함께 분담하는 비율은 동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시댁·친정 집안에서 반반 부담한 비율이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신랑·신부 당사자들이 반반 부담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저연령층일수록(사례수가 적은 20~24세 제외)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올수록 시댁·친정 반반분담 경향이 점차 약해지고, 대신 신랑·신부 반반분담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하면, 최근에 올수록 미혼층의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시댁·친정 반반분담 비율이 높고, 저학력층일수록 대체적으로 신랑·신부 반반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학력층에서 신랑·신부 반반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이들이 보다 일찍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결혼비용을 스스로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높게 때문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는 결혼당시 비취업시 시댁·친정 반반분담 비율이 높고, 결혼당시 취업시 신랑·신부 반반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당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결혼비용을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대신 신랑·신부 스스로 결혼비용을 마련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40〉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평균 결혼비용 및 주 부담자

(단위: %, 명)

	신랑또는 신부 (개인)	신부와 신랑반반 분담	친정또는 시댁 (단독)	양가 반반분담	신랑과 친정반반 분담	신부와 시댁반반 분담	계(명)
전체	13.4	36.6	4.2	34.0	8.2	3.6	100.0(3,542)
거주지($\chi^2=15.6^{**}$)							
동부	13.5	36.3	3.8	33.9	8.5	3.9	100.0(3,041)
읍면부	12.4	38.2	6.6	34.2	6.8	1.8	100.0(500)
연령($\chi^2=59.5^{***}$)							
20~24세	42.5	17.5	7.5	27.5	5.0	-	100.0(40)
25~29세	13.5	39.6	4.9	30.8	7.4	3.8	100.0(364)
30~34세	11.5	40.2	3.4	31.6	8.8	4.5	100.0(820)
35~39세	13.1	38.0	4.5	33.8	7.1	3.5	100.0(1,162)
40~44세	14.0	32.3	4.2	37.1	9.3	3.2	100.0(1,154)
교육수준($\chi^2=60.6^{***}$)							
중졸 이하	35.9	28.2	5.8	23.3	5.8	1.0	100.0(103)
고졸	13.5	35.0	4.3	34.5	8.6	4.2	100.0(1,925)
대졸	11.7	39.4	4.0	33.9	7.9	3.1	100.0(1,468)
대학원졸 이상	13.3	31.1	2.2	40.0	11.1	2.2	100.0(45)
결혼당시 취업여부($\chi^2=22.7^{***}$)							
취업 중	12.5	38.5	3.4	33.7	7.9	4.0	100.0(2,224)
비취업	14.9	33.4	5.5	34.4	8.8	3.0	100.0(1,316)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기혼여성의 신혼집 마련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신혼집 마련은 많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혼집 마련 때문에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이후에도 출산을 연기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신혼집의 마련과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았다.

기혼여성(20~44세)의 신혼집 마련 방법은 <표 8-41>에 제시되어 있다. 신혼집을 직접 구입한 경우는 전체의 12.1%에 불과하였으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월세가 없는 전세형태로 마련하는 것이었다(66.3%). 이어서 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 9.4%, 시댁동거 8.3%, 보증금이 없는 월세(사글세) 1.9%, 친정동거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부 거주 기혼여성의 경우 13.4%가 시택에 동거하는 형태로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혼례풍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택가격이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입한 경우가 동부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동부 11.7%, 읍면부 14.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혼집을 구입한 사례가 많으며, 결혼당시 취업 중인 경우가 비취업인 경우에 비해 신혼집 구입 비율이 4.5% 포인트 더 높았다.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령 코호트효과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되지만, 결혼 후 20년이상 지난 여성의 12.7%가 시택에 동거하는 형태로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미만의 기혼여성은 5.4%만이 시택과 동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대에 따른 핵가족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8-4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신혼집 마련형태

(단위: %, 명)

구 분	구입	전세 (무월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친정 동거	시택 동거	기타	계(명)
전 체	12.1	66.3	9.4	1.9	1.2	8.3	0.8	100.0(3,582)
거주지($\chi^2=36.6^{***}$)								
동부	11.7	67.9	9.2	1.8	1.2	7.4	0.7	100.0(3,076)
읍면부	14.4	55.9	10.7	3.0	1.4	13.4	1.2	100.0(506)
연령($\chi^2=90.8^{***}$)								
20~24세	5.0	62.5	17.5	2.5	2.5	7.5	2.5	100.0(40)
25~29세	13.3	64.7	6.9	1.6	3.2	7.7	2.5	100.0(377)
30~34세	14.9	65.7	8.8	1.3	1.5	7.2	0.6	100.0(825)
35~39세	13.1	68.6	7.5	1.5	0.9	7.8	0.7	100.0(1,170)
40~44세	9.0	65.0	12.2	3.0	0.7	9.7	0.4	100.0(1,169)
교육수준($\chi^2=142.1^{***}$)								
중졸 이하	8.0	43.8	22.3	8.9	0.9	15.2	0.9	100.0(112)
고졸	9.7	66.1	11.6	2.3	0.9	8.8	0.7	100.0(1,945)
대졸	15.3	68.2	5.9	1.0	1.6	7.0	1.0	100.0(1,481)
대학원졸 이상	22.2	64.4	2.2	0.0	0.0	8.9	2.2	100.0(45)
결혼당시 취업여부($\chi^2=28.2^{***}$)								
취업 중	13.8	66.3	8.0	1.7	1.1	8.1	0.9	100.0(2,240)
비취업	9.3	66.2	11.7	2.2	1.4	8.5	0.7	100.0(1,342)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송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결혼당시 취업여부’는 결혼 전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여부를 확인하였고, ‘혼인기간’은 실제 동거를 시작한 시거나 혼인신고의 시기와 상관없이 결혼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표 8-41> 계속

(단위: %, 명)

구 분	구입	전세 (무월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친정 동거	시댁 동거	기타	계(명)
혼인기간($\chi^2=156.73^{***}$)								
5년 미만	17.7	64.2	8.0	1.4	2.3	5.4	1.1	100.0(651)
5~10년	14.3	63.6	8.3	1.7	1.7	9.0	1.4	100.0(804)
10~15년	11.7	72.3	6.7	1.4	0.8	6.5	0.6	100.0(957)
15~20년	8.3	67.8	9.9	2.4	0.6	10.4	0.6	100.0(808)
20년 이상	5.7	58.1	21.3	2.2	-	12.7	-	100.0(31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결혼당시 취업여부'는 결혼 전후 6개월 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여부를 확인하였고, '혼인기간'은 실제 동거를 시작한 시거나 혼인신고의 시기와 상관없이 결혼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기혼여성(20~44세)의 신혼집 마련시 주 부담자는 <표 8-42>에 제시되어 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 주 부담자가 신랑 또는 신부 개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3.0%를 차지하였으며, 친정 또는 시댁에서 부담한 경우는 26.0%였다. 이는 혼수는 신부측에서 준비하고 신혼집은 신랑측에서 마련한다는 풍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신랑 또는 신부 개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실제 신부가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는 전체의 2.2%에 불과하고 50.8%는 신랑측에서 마련하였다. 또한 친정 또는 시댁에서 마련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시댁에서 마련한 경우가 전체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반반 부담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도 1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 비용을 전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마련한 비율을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거주자의 경우 그리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결혼당시 비취업시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 비교에서는 주택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촌에서 결혼당사자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용이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기간별 차이는 최근에 올수록 결혼당사자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신혼집을 신랑과 신부가 반반 부담하여 마련한 비율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기혼여성의 경우 신랑과

신부가 반반 분담하여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는 9.2%에 불과하나, 결혼 5년 미만의 경우 13.9%로 나타났다. 결혼당시 비취업여성의 당사자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남편의 경제력과 여성의 결혼 전 취업경력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기혼여성의 현 연령이나 교육수준별로 신혼집 마련 주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2〉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신혼집 마련의 주 부담자

(단위: %, 명)

구 분	신랑또는 신부 (개인)	신부와 신랑반반 분담	친정또는 시댁 (단독)	양가 반반분담	신랑과 친정반반 분담	신부와 시댁반반 분담	기타	계 (명)
전 체	53.0	11.4	26.0	6.5	2.3	0.5	0.2	100.0(3,188)
거주지($\chi^2=15.99^*$)								
동부	52.7	11.2	26.0	7.0	2.5	0.4	0.3	100.0(2,763)
읍면부	55.0	13.0	25.9	3.5	1.2	1.2	0.2	100.0(424)
연령($\chi^2=34.75$)								
20~24세	55.9	8.8	17.6	17.6	-	-	-	100.0(34)
25~29세	52.3	13.9	23.8	6.8	2.5	0.6	-	100.0(323)
30~34세	54.6	10.1	26.4	5.2	2.6	0.7	0.4	100.0(743)
35~39세	52.1	12.0	25.7	6.1	2.9	0.8	0.5	100.0(1,056)
40~44세	53.0	11.1	26.9	7.5	1.6	-	-	100.0(1,031)
교육수준($\chi^2=26.4$)								
중졸 이하	65.2	12.4	11.2	9.0	2.2	0.0	0.0	100.0(89)
고졸	54.0	11.2	25.1	6.5	2.5	0.4	0.3	100.0(1,729)
대졸	51.4	11.7	28.0	6.2	2.0	0.6	0.2	100.0(1,328)
대학원졸 이상	42.5	10.0	27.5	12.5	7.5	0.0	0.0	100.0(40)
결혼기간($\chi^2=38.07^*$)								
5년 미만	52.2	13.9	24.4	7.3	1.7	0.5	-	100.0(590)
5~10년	52.6	12.2	25.6	5.3	2.4	1.3	0.6	100.0(703)
10~15년	54.3	10.9	26.3	5.1	2.7	0.2	0.3	100.0(878)
15~20년	52.8	10.2	26.4	7.9	2.5	0.1	0.1	100.0(709)
20년 이상	51.8	9.2	28.3	8.8	1.8	-	-	100.0(272)
결혼당시 취업여부($\chi^2=22.84^{**}$)								
취업 중	50.6	12.2	26.6	7.1	2.4	0.7	0.4	100.0(1,997)
비취업	57.0	10.1	24.8	5.7	2.3	0.1	-	100.0(1,192)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결혼당시 취업여부'는 결혼 전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여부를 확인하였고, '혼인기간'은 실제 동거를 시작한 시거나 혼인신고의 시기와 상관없이 결혼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고, 이는 가계의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혼여성(20~44세)이 결혼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경험율과 금액은 <표 8-43>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21.8%가 결혼 당시 신혼집의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대출액은 2,099만원(SD=1,891)로 나타났다. 1~2천만원 미만을 대출한 경우가 3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3천만원 미만 25.9%, 3~4천만원 미만 14.3%, 1천만원 미만 13.3% 등의 순이었으며, 5천만원 이상을 대출한 경우도 6.6%에 이르렀다. 동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혼집 마련을 위한 평균 대출액도 읍면부에 비해 높았다(동부 2,139만원, SD=1,973만원 읍면부 1,890만원, SD=1,357만원).

<표 8-43> 기혼여성(20~44세)의 신혼집 마련을 위한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

(단위: 만원, %, 명)

대출 이용률	대출금액						계(명)	평균 대출액 (SD)	
	1천 만원 미만	1~2 천만원 미만	2~3 천만원 미만	3~4 천만원 미만	4~5 천만원 미만	5천 만원 이상			
전체	21.8	13.3	34.4	25.9	14.3	5.5	6.6	100.0(685)	2,099(1,891)
거주지($\chi^2=3.76$)									
동부	22.4	13.1	33.9	25.2	15.4	5.9	6.5	100.0(611)	2,139(1,973)
읍면부	18.2	14.9	37.8	31.1	6.8	2.7	6.8	100.0(74)	1,890(1,357)
연령($\chi^2=16.36^{**}$)									
20~24세	21.2	28.6	14.3	14.3	-	28.6	14.3	100.0(7)	3,969(5,661)
25~29세	20.4	6.2	30.8	20.0	20.0	9.2	13.8	100.0(65)	2,650(1,823)
30~34세	26.1	7.9	27.5	27.0	19.6	10.1	7.9	100.0(189)	2,563(2,642)
35~39세	22.7	14.9	34.0	29.8	10.2	4.7	6.4	100.0(235)	1,979(1,416)
40~44세	18.3	18.7	43.9	21.9	12.8	-	2.7	100.0(187)	1,570(980)
교육수준($\chi^2=18.7^{***}$)									
중졸 이하	10.1	11.1	55.6	22.2	11.1	0.0	0.0	100.0(9)	1,642(819)
고졸	20.0	18.3	34.8	26.3	11.2	4.7	4.7	100.0(339)	1,862(1,361)
대졸	25.0	8.5	33.7	25.8	17.3	6.1	8.5	100.0(329)	2,368(2,353)
대학원졸이상	20.0	0.0	28.6	28.6	14.3	14.3	14.3	100.0(7)	2,717(1,389)
결혼당시취업여부($\chi^2=17.9^{***}$)									
취업 중	24.2	10.1	31.3	27.1	17.0	6.5	8.0	100.0(476)	2,305(2,134)
비취업	17.8	21.1	41.1	23.0	8.1	2.9	3.8	100.0(209)	1,675(1,187)

〈표 8-43〉 계속

(단위: 만원, %, 명)

대출 이용률	대출금액						계(명)	평균 대출액 (SD)	
	1천 만원 미만	1~2천 만원 미만	2~3천 만원 미만	3~4천 만원 미만	4~5천 만원 미만	5천 만원 이상			
혼인기간($\chi^2=29.2^{***}$)									
5년 미만	25.8	4.0	26.2	22.8	20.1	12.1	14.8	100.0(149)	3,041(3,119)
5~10년 미만	26.6	6.1	24.3	32.6	18.8	8.8	9.4	100.0(181)	2,492(1,632)
10~15년 미만	21.8	16.9	41.8	28.0	9.5	1.6	2.2	100.0(189)	1,613(960)
15~20년 미만	16.5	20.0	44.3	22.6	12.2	-	0.9	100.0(115)	1,516(879)
20년 이상	17.5	37.5	41.7	12.5	6.3	-	2.1	100.0(48)	1,189(854)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결혼당시 취업여부’는 결혼 전후 6개월 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여부를 확인하였고, ‘결혼기간’은 실제 동거 시기나 혼인신고의 시기와 상관없이 결혼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5. 무배우여성의 재혼계획

기혼여성(20~44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9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혼 3.4%, 별거 1.4%, 사별 1.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혼·사별·별거 상태인 기혼여성(20~44세)의 향후 재혼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재혼계획이 있는 경우는 12.1%, 재혼결정을 유보한 비율은 36.9%로 나타났다(표 8-46). 재혼계획이 없는 여성(51.0%)들이 제시하는 이유로는 ‘결혼생활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46.3%)’, ‘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념하고 있어서(29.4%)’, ‘마땅한 배우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21.0%)’ 순이다. 재혼계획이 없는 경우 결혼생활 자체에 대한 실망 때문만 아니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건이 충분치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2)

2) 한편, 본 조사에서는 무배우여성(20~44세)의 재혼 시 추가출산계획과 추가출산이 없는 경우 그 이유, 재혼부부의 자녀출산 및 양육비 지원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시키는데 한계성이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 생략하였다.

〈표 8-44〉 이혼·사별·별거 여성(20~44세)의 재혼 계획 여부 및 재혼 생각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재혼 계획 여부	
있다	12.1(24)
없다	51.0(102)
모르겠다	36.9(74)
계(명)	100.0(201)
재혼 생각 없는 이유	
사회적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아서	2.4(2)
결혼생활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46.3(45)
마땅한 배우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21.0(20)
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념하고 싶어서	29.4(28)
기타	0.8(1)
계(명)	100.0(96)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기혼여성의 결혼생활

1. 기혼여성의 결혼생활과 경제활동

가.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

결혼 전후로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20~44세)의 경력단절 여부는 <표 8-4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초혼당시 취업 중이었던 여성의 비중은 62.5%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 연령별로 결혼 당시 취업비율은 20~24세를 제외하고는 고연령층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초혼당시 취업비율은 현재 25~29세 기혼여성의 경우 66.0%, 30~34세 65.1%, 35~39세 63.5%로 나타나며, 40~44세 기혼여성은 59.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과거에는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취업 특히, 결혼 후 여성이 계속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비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 초혼당시 취업 비율은 중졸 이하 35.7%, 고졸 61.5%, 대졸 65.6%, 대학원이상 72.7%로 교육수준과 정적관계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결혼 후 고용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 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45> 기혼여성(20~44세) 일반특성별 초혼당시 취업 유무

(단위: %, 명)

구분	초혼당시 취업여부		계 (명)	χ^2
	취업	비취업		
전체	62.5	37.5	100.0 (3585)	
연령별				
20~24세	35.0	65.0	100.0 (40)	21.9***
25~29세	66.0	34.0	100.0 (377)	
30~34세	65.1	34.9	100.0 (826)	
35~39세	63.5	36.5	100.0 (1171)	
40~44세	59.6	40.4	100.0 (1172)	
교육수준				
중졸이하	35.7	64.3	100.0 (112)	43.3***
고졸	61.5	38.5	100.0 (1948)	
대졸	65.6	34.4	100.0 (1481)	
대학원졸 이상	72.7	27.3	100.0 (44)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의 초혼당시의 취업여부와 현재의 취업여부를 비교한 결과는 <표 8-46>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 중 41.9%가 조사당시 취업 중이었으며, 58.1%는 비취업 상태이다(비구직활동 15.1% 포함). 조사당시 취업 기혼여성 중 초혼 당시에도 취업 중인 비율은 46.2%로 나타났다. 초혼 당시에는 취업 중이었으나, 현재는 비취업 상태에 있는 비율은 53.8%이며, 이 중 14.5%는 구직활동 중이다. 즉 생애기준(lifetime)으로 보면, 50% 이상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초혼 당시에는 비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조사당시 취업 중인 비율은 34.7%이다.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취업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비율은 65.3%에 이르며, 이들 중 16.0%는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위해 구직활동 중이었다.

<표 8-46>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초혼당시 취업 여부

(단위: %, 명)

조사당시 취업여부	초혼당시 취업여부($\chi^2=47.5^{***}$)		전체
	취업	비취업	
취업	46.2	34.7	41.9
비취업(구직활동)	14.5	16.0	15.1
비취업(비구직활동)	39.3	49.3	43.0
계(명)	100.0(2,242)	100.0(1,343)	100.0(3,58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 당시 취업 중이었던 여성의 결혼 전후 경력단절 여부는 <표 8-47>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 중이었던 여성이 결혼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비율은 40%정도이다. 이러한 비율은 20~24세 저연령층을 제외하고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과거일수록 결혼 후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를 제외하고는 저학력층일수록 그리고 조사당시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결혼 전후 경력단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나 현재의 가구소득수준이 직업 안정성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에 자의에 의한 노동시장이탈이 적고, 또한 그러한 직장의 조직문화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에게 제약을 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조사 당시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경우 과거 결혼 전후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9.4%로 낮는데 반해, 비취업상태(구직활동, 비구직활동)인 경우에는 40% 수준을 상회(구직활동의 경우 46.3%, 비구직활동의 경우 48.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당시 비취업상태인 여성들의 절반 정도가 결혼 또는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생활을 중단하였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8-47〉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경력단절 경험		계	(명)	x ²
	있다	없다			
전체	39.3	60.7	100.0	(2242)	
연령별					
20~24세	42.9	57.1	100.0	(14)	
25~29세	31.7	68.3	100.0	(249)	11.0*
30~34세	36.9	63.1	100.0	(537)	
35~39세	40.1	59.9	100.0	(743)	
40~44세	42.7	57.3	100.0	(698)	
교육수준					
중졸이하	35.0	65.0	100.0	(40)	
고졸	43.2	56.8	100.0	(1198)	19.4***
대졸	35.1	64.9	100.0	(972)	
대학원졸 이상	21.9	78.1	100.0	(32)	
가구소득					
60%미만	43.5	56.5	100.0	(269)	
60-80%	46.0	54.0	100.0	(502)	
80-100%	43.4	56.6	100.0	(463)	45.8***
100-120%	40.3	59.7	100.0	(268)	
120-140%	31.9	68.1	100.0	(357)	
140-160%	28.6	71.4	100.0	(182)	
160%이상	23.9	76.1	100.0	(142)	
취업여부					
취업	29.4	70.6	100.0	(1,036)	78.1***
비취업(구직활동)	46.3	53.7	100.0	(326)	
비취업(비구직활동)	48.2	51.8	100.0	(88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재의 경제활동특성이 과거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전후 경력단절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8-48). 현재 취업 기혼여성의 29.4%는 결혼 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전후 경력단절 비율은 전문직 종사 여성의 경우 11.3%, 사무직 종사 여성의 경우 18.1% 등으로 낮다. 기혼여성의 현재 직종이 준전문가(27.3%), 농임업 종사자(28.6%) 또는 기능원종사자(29.4%)인 경우에는 결혼전후 경력단절 비율이 25~30%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장치조립직, 단순노무 및 기타직의 경우 결혼전후 경력단절 비율은 30~50%로 높게 나타났다. 요

컨대, 고위신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일수록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동등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저위신 직업들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의 안정성 등 때문에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거나 경력단절 이후 현 저위신 직종들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여성의 현 종사상지위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현재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의 기혼여성이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3.9%로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임금근로자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30%대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이 높은 여성들이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낮으며, 현재 공공섹터에 근무하는 경우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이 16.0%로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의 29.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도 현재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비율이 20.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동시장에서 저위신직업에 종사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결혼전후 경력단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8-48〉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경력단절 경험		계 (명)	χ^2
	있다	없다		
전체	29.4	70.6	100.0 (1,036)	
직업				
전문가	11.3	88.7	100.0 (62)	
준전문가	27.3	72.7	100.0 (33)	
사무종사자	18.1	81.9	100.0 (354)	
서비스종사자	37.5	62.5	100.0 (275)	53.7***
판매종사자	38.6	61.4	100.0 (223)	
농림어업	28.6	71.4	100.0 (7)	
기능원종사자	29.4	70.6	100.0 (17)	
장치조립	40.0	60.0	100.0 (5)	
단순노무 및 기타	42.0	58.0	100.0 (5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함.

〈표 8-48〉 계속

(단위: %, 명)

구분	경력단절 경험		계 (명)	χ^2
	있다	없다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 ¹⁾	37.9	62.1	100.0 (232)	18.0***
상용근로자	23.9	76.1	100.0 (564)	
임시일용직근로자	33.3	66.7	100.0 (231)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47.0	53.0	100.0 (168)	41.9***
100~150만원	30.8	69.2	100.0 (299)	
150~200만원	26.0	74.0	100.0 (227)	
200만원 이상	19.0	81.0	100.0 (289)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46.2	53.8	100.0 (104)	19.7***
36~45시간	28.5	71.5	100.0 (410)	
45~61시간	24.9	75.1	100.0 (437)	
61시간 이상	36.1	63.9	100.0 (61)	
직장유형				
일반회사	29.6	70.4	100.0 (852)	11.5**
공공섹터 ²⁾	16.0	84.0	100.0 (94)	
기타	40.4	59.6	100.0 (57)	
사업체규모				
10인 미만	33.5	66.5	100.0 (510)	10.6*
10~100인	26.0	74.0	100.0 (393)	
100~300인	22.0	78.0	100.0 (59)	
300인 이상	20.0	80.0	100.0 (6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공섹터는 정부 투자기관·정부 출연기관·정부계투자기관, 국·공립 및 사립학교를 포함함.

기혼여성(20~44세) 중 결혼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경우 그 이유는 <표 8-4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결혼 전후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는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30.9%)’ ‘가정에만 전념하고 싶어서(22.2%)’, ‘일을 하고 싶지 않아(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 연령별 결혼 전후 경력 단절 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간접적으로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20대인 기혼여성들이 결혼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 수행 시간 없어서(29.8%)’,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14.3%)’, ‘거리가 멀어서

(11.9%)', '가정일에만 전념하고 싶어서(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연령층에서 직장에서의 해고 또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7.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30대인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이유로는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30.4%)', '가정에만 전념하고 싶어서(21.3%)', '힘들어서(9.3%)' 순이었다. 현재 40대인 기혼여성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이유도 30대 기혼여성과 유사하게 '가정일과 직장일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32.1%)', '가정에만 전념하고 싶어서(27.0%)', '일하고 싶지 않아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20~40대 모든 연령층에서 거의 유사한 비율의 여성들이 결혼 전후 일-가정 양립의 곤란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중단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사회적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8-49〉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전후 직장을 그만둔 이유

(단위: %)

구분	결혼전후 직장을 그만 둔 이유($\chi^2=44.0^{**}$)										계(명)
	일하고 싶지 않아서	가정·직장일 동시수행 시간없어	해고·인사상 불이익	가정일만 전념희망	남편·시댁 반대	일자리가 맘에 안들어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기타	
전체	11.0	30.9	3.6	22.2	5.2	2.6	2.4	8.3	7.7	6.0	100.0(860)
20대	14.3	29.8	7.1	11.9	3.6	2.4	6.0	6.0	11.9	7.1	100.0(84)
30대	8.5	30.4	3.9	21.3	5.0	2.9	2.5	9.3	7.7	8.5	100.0(483)
40대	14.0	32.1	2.0	27.0	6.1	1.7	1.4	7.5	6.5	1.7	100.0(29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50>는 결혼 전후 모(母)의 경력단절 경험이 출생자녀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물론, 경력단절 경험과 출생자녀수 간 관계는 초혼당시의 경력단절 경험 외에 전 생애에 걸쳐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혼 당시의 경력단절 경험 여부로 출생자녀수와 여성의 경력단절 간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초혼 당시 취업 중이었으나 결혼 전후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기

혼여성(20~44세)의 출생아수는 2명(58.6%), 1명(23.9%), 3명 이상(10.0%), 0명(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혼당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2명(49.9%), 1명(29.7%), 0명(13.3%), 3명 이상(7.2%)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71명으로 그렇지 않은 기혼여성의 1.51명에 비해 약 0.2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은 이들이 경제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출산을 축소 혹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표 8-50〉 초혼당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유무별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출생 자녀수 ($\chi^2=35.4^{***}$)				계 (명)	평균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11.0	27.4	53.3	8.3	100.0 (2,242)	1.59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	7.5	23.9	58.6	10.0	100.0 (879)	1.71
결혼전후 경력단절 비경험	13.3	29.7	49.9	7.2	100.0 (1,362)	1.51

* p<.05, ** p<.01.

기혼여성의 연령별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예외 없이 경력단절 경험 여성에 비해 비경험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할 25~34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유무 간에 약 0.2명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8-51〉 초혼당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경력단절유무 및 현 연령별 자녀수

(단위: 명)

구분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¹⁾	1.59	0.67	0.91	1.40	1.79	1.80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	1.71	0.70	1.04	1.54	1.88	1.86
결혼전후 경력단절 비경험	1.51	0.64	0.84	1.32	1.72	1.75

나. 기혼여성의 출산전후 경력단절 경험

(1) 경력단절 수준

출산 전 6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기간동안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근무형태를 질문한 결과는 <표 8-5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첫째아 출산 전후로 절반 정도(47.7%)가 취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34.5%는 평소대로 근무, 9.3%는 시간제로 전환,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둘째아 출산을 전후로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취업 중단 비율은 24.5%로 첫째아 출산시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대신 평소대로 일을 하거나(45.2%), 시간제 근무로 변경(16.5%)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11.8%)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아 출산을 전후로 취업을 중단한 기혼여성들의 비율은 15.5%로 더욱 낮았다. 평소대로 일한 비율(36.6%)은 줄어드는 반면, 시간제로 근무한 비율(29.7%)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대신, 탄력근무제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한 사실은 현 취업여부별 근무형태의 차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출산순위에서 현재 취업 중인 기혼여성들이 출산전후 계속 혹은 시간을 줄여서 일했거나 육아휴직을 이용한 비율이 현재 비취업 기혼여성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 중인 기혼여성들의 근무형태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시간제로 근무를 전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연령층일수록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이용한 일-가정 양립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표 8-52〉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순위별 출산 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 여부

(단위: %, 명)

구분	평소대로 일함	시간줄여 일함	중단	육아휴직	새로 취업	계 (명)
첫째아	34.5	9.3	47.7	8.3	0.2	100.0 (1,167)
연령($x^2=42.6^{***}$)						
20~24세	25.0	12.5	50.0	12.5	-	100.0 (8)
25~29세	20.0	10.5	47.4	22.1	-	100.0 (95)
30~34세	34.3	10.4	47.1	8.3	-	100.0 (289)
35~39세	35.9	8.2	46.2	9.2	0.5	100.0 (426)
40~44세	37.0	9.5	49.9	3.4	0.3	100.0 (349)
취업여부($x^2=169.4^{***}$)						
취업	46.4	11.8	29.7	11.8	0.3	100.0 (610)
비취업	21.4	6.5	67.6	4.3	0.2	100.0 (556)
둘째아	45.2	16.5	24.5	11.8	2.1	100.0 (366)
연령($x^2=21.4$)						
20~24세	-	-	100.0	-	-	100.0 (1)
25~29세	21.4	28.6	21.4	28.6	-	100.0 (14)
30~34세	42.1	19.3	24.6	12.3	1.8	100.0 (57)
35~39세	41.4	14.2	25.9	15.4	3.1	100.0 (162)
40~44세	54.2	16.8	22.1	5.3	1.5	100.0 (131)
취업여부($x^2=84.5^{***}$)						
취업	53.2	17.9	11.8	14.8	2.3	100.0 (263)
비취업	25.2	12.6	57.3	3.9	1.0	100.0 (103)
셋째아	36.6	29.7	15.5	16.5	1.7	100.0 (49)
연령($x^2=9.0$)						
20~24세	-	-	-	-	-	
25~29세	50.0	-	-	50.0	-	100.0 (2)
30~34세	14.3	57.1	14.3	14.3	-	100.0 (7)
35~39세	40.0	20.0	10.0	25.0	5.0	100.0 (20)
40~44세	36.8	31.6	21.1	10.5	-	100.0 (19)
취업여부($x^2=19.6^{**}$)						
취업	29.4	41.2	2.9	23.5	2.9	100.0 (34)
비취업	53.3	6.7	40.0	-	-	100.0 (1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경력단절 이유

〈표 8-53〉에서는 기혼여성들이 출산 전후로 일을 중단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아 출산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일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44.7%)’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아

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19.9%)’,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서(12.6%)’ 등이 직장을 그만 둔 주된 이유로 나타나며, 6.2%는 직장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 출산시 일을 중단한 이유로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가 40.6%,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28.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 부족’도 1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를 제외하면, 워킹맘이 자녀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미흡이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연령 및 취업여부별로 출산전후 이직한 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3〉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순위별 출산전후 6개월 이내 직장을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직접 키우고 싶어서	아이맡길 사람시 설부족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직장 해고	인사상 불이익	직장 눈치	본인의 건강 문제	일-가정 양립시간 부족	산전 산후 조리	기타	계 (명)
첫째아	44.7	19.9	4.1	6.2	1.2	2.9	4.9	12.6	2.8	0.8	100.0 (525)
연령($\chi^2=48.7$)											
20~24세	100.0	-	-	-	-	-	-	-	-	-	100.0 (2)
25~29세	47.6	19.0	-	4.8	-	7.1	11.9	2.4	7.1	-	100.0 (42)
30~34세	42.9	21.4	7.1	7.9	1.6	2.4	4.0	8.7	2.4	1.6	100.0 (126)
35~39세	47.9	12.2	2.7	5.9	2.1	2.1	5.9	17.6	3.2	0.5	100.0 (188)
40~44세	40.7	28.1	4.2	5.4	-	3.0	3.0	13.2	1.8	0.6	100.0 (167)
취업여부($\chi^2=10.6$)											
취업	38.1	23.3	4.0	5.7	1.7	4.0	3.4	16.5	2.8	0.6	100.0 (176)
비취업	48.0	18.0	4.3	6.6	0.9	2.6	5.7	10.6	2.6	0.9	100.0 (350)
둘째아	40.6	28.5	6.5	0.9	1.3	5.2	2.8	11.0	2.0	1.2	100.0 (88)
연령($\chi^2=25.9$)											
20~24세	-	100.0	-	-	-	-	-	-	-	-	100.0 (1)
25~29세	33.3	33.3	-	-	-	33.3	-	-	-	-	100.0 (3)
30~34세	35.7	35.7	-	7.1	-	7.1	-	7.1	7.1	-	100.0 (14)
35~39세	37.5	30.0	7.5	-	-	2.5	5.0	15.0	-	2.5	100.0 (40)
40~44세	51.9	22.2	7.4	-	3.7	3.7	-	7.4	3.7	-	100.0 (27)
취업여부($\chi^2=9.7$)											
취업	30.0	26.7	13.3	-	3.3	6.7	3.3	13.3	3.3	-	100.0 (30)
비취업	46.4	30.4	1.8	1.8	-	3.6	1.8	10.7	1.8	1.8	100.0 (56)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직장복귀 실태

1명의 자녀를 출산한 취업기혼여성의 출산 전후 근무형태와 현재의 경제 활동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8-54>에 제시되어 있다. 출산 당시 평소대로 일을 하였거나 시간을 줄여서 일한 기혼여성의 80%정도가 현재도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출산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기혼여성의 대부분(73.7%)이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으며, 26.3%만이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 연령을 기준으로 경력단절 후 직장복귀 형태는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35~44세 고연령층에서 출산전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현재 비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비율이나, 출산 전후 직장을 그만 두었더라도 현재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녀 성장에 따라 자녀교육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등을 이유로, 후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다 성장하여 직장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각각 설명될 수 있다.

<표 8-54> 1자녀만을 둔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현재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구분	현재 경제활동상태			계 (명)
	취업	구직활동	비구직활동	
전체($\chi^2=102.6^{***}$)				
첫째아 출산 전후 근무형태				
평소대로 일함	78.3	3.9	17.8	100.0 (129)
시간줄여 일함	76.5	11.8	11.8	100.0 (34)
중단	26.3	19.9	53.8	100.0 (186)
육아휴직	71.1	11.1	17.8	100.0 (45)
새로 취업	100.0	-	-	100.0 (1)
20~34세($\chi^2=100.2^{***}$)				
첫째아 출산 전후 근무형태				
평소대로 일함	90.5	1.6	7.9	100.0 (63)
시간줄여 일함	63.6	18.2	18.2	100.0 (22)
중단	11.7	25.5	62.8	100.0 (94)
육아휴직	58.1	16.1	25.8	100.0 (3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54〉 계속

(단위: %, 명)

구분	현재 경제활동상태			계 (명)
	취업	구직활동	비구직활동	
35~44세($\chi^2=28.4^{***}$)				
첫째아 출산 전후 근무형태				
평소대로 일함	67.7	6.2	26.2	100.0 (65)
시간줄여 일함	100.0	-	-	100.0 (11)
중단	41.9	14.0	44.1	100.0 (93)
육아휴직	92.9	-	7.1	100.0 (14)
새로 취업	100.0	-	-	100.0 (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의 경우 둘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와 현재의 경제활동상태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8-55), 앞서 살펴본 1자녀 출산 여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둘째아 출산 전후로 직장을 계속 다닌 기혼여성이 현재 취업 중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당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경우에는 비취업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두자녀 출산 기혼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8-55〉 2자녀만 둔 기혼여성(20~44세)의 둘째아 출산전후 6개월 이내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현재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구분	현재 경제활동상태			계 (명)
	취업	구직활동	비구직활동	
전체				
둘째아 출산 전후 근무형태($\chi^2=76.5^{***}$)				
평소대로 일함	85.9	1.3	12.8	100.0 (149)
시간줄여 일함	75.5	10.2	14.3	100.0 (49)
중단	37.0	21.0	42.0	100.0 (81)
육아휴직	89.2	-	10.8	100.0 (37)
새로 취업	80.0	20.0	-	100.0 (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55〉 계속

(단위: %, 명)

구분	현재 경제활동상태			계 (명)
	취업	구직활동	비구직활동	
20~34세				
둘째아 출산 전후 근무형태($\chi^2=18.6^*$)				
평소대로 일함	72.0	4.0	24.0	100.0 (25)
시간줄여 일함	66.7	8.3	25.0	100.0 (12)
중단	22.2	-	77.8	100.0 (18)
육아휴직	80.0	-	20.0	100.0 (10)
새로 취업	100.0	-	-	100.0 (1)
35~44세				
둘째아 출산 전후 근무형태($\chi^2=64.6^{***}$)				
평소대로 일함	88.7	0.8	10.5	100.0 (124)
시간줄여 일함	78.4	8.1	13.5	100.0 (37)
중단	41.3	27.0	31.7	100.0 (63)
육아휴직	92.3	-	7.7	100.0 (26)
새로 취업	75.0	25.0	-	100.0 (4)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명을 출산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첫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와 둘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를 비교한 결과는 <표 8-56>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아 출산 당시 평소대로 일한 여성 중 66.2%는 둘째아 출산 전후에도 평소대로 근무하였으며, 15.4%는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출산 전후로 시간제 근무로 전환한 기혼여성 중 64.0%는 둘째아 출산 시기에도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였다. 첫째아 출산전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대부분(81.5%)은 현재에도 계속 비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78.4%는 둘째아 출산시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첫째아 출산 당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둘째아 출산전후에도 비취업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는 81.5%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들이 중사하는 직종 또는 직장의 속성(환경)이나 종사상지위와도 상관이 있을 것이나, 대체적으로 첫째아 출산시 선택한 근무형태가 둘째아 출산시에도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56〉 2자녀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와 둘째아 출산전후 근무형태

(단위: %, 명)

구분	둘째아 출산 당시						계 (명)
	평소대로	시간단축	중단	육아휴직	새로취업	비취업	
전체($\chi^2=890.0^{***}$)	25.0	8.8	13.8	6.7	0.5	45.2	100.0 (624)
첫째아 출산 전후 근무형태							
평소대로 일함	66.2	4.5	15.4	1.0	0.5	12.4	100.0 (201)
시간줄여 일함	8.0	64.0	8.0	2.0	2.0	16.0	100.0 (50)
중단	1.6	0.4	15.7	0.8	-	81.5	100.0 (249)
육아휴직	-	2.7	10.8	78.4	-	8.1	100.0 (37)
새로 취업	-	-	-	50.0	-	50.0	100.0 (2)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현 직업과 첫 번째 직업을 비교한 결과는 <표 8-57>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여성의 첫 번째 직장의 직종이 고위관리직·(준)전문직인 경우, 현재에도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비율은 75.0%이며, 25.0%는 사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 등 하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직종이 사무직인 경우, 현재에도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은 47.1%이며, 나머지는 서비스·판매직(45.6%), 생산·노무직 등(5.9%)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직종이 서비스·판매직과 생산·노무직등인 경우에는 일부가 사무직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출산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재취업시에는 하방향 이동이 뚜렷하며, 그러한 경향성은 전문직보다는 사무직에서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8-57〉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기혼여성(20~44세)의 첫 번째 직업과 현 직업

(단위: %, 명)

구분	현 직장의 직종				계 (명)
	고위관리·(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노무직등	
전체	4.6	28.8	58.9	7.6	100.0 (178)
첫 번째 직장의 직종($\chi^2=132.5^{***}$)					
고위관리·(준)전문직	75.0	12.5	12.5	-	100.0 (8)
사무직	1.5	47.1	45.6	5.9	100.0 (68)
서비스·판매직	1.3	10.5	82.9	5.3	100.0 (76)
생산·노무직 등	-	22.2	33.3	44.4	100.0 (9)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기혼여성(20~44세)의 첫번째 종사상지위와 현 종사상 지위 간의 관계는 <표 8-58>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여성의 첫 번째 종사상지위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 현재에도 비임금근로자인 비율은 72.7%로 높으나, 18.2%는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이었으나 현재 상용직인 비율은 55.0%이고, 나머지는 비임금근로자(15.3%)나 임시·일용직(29.7%)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첫 번째 종사상지위가 임시일용직이었으나, 현재 상용직으로는 13.3% 그리고 비임금근로자로는 17.8%가 각각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출산 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재취업시에는 직종과 마찬가지로 종사상지위도 하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성은 상용직에서 특히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58>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기혼여성(20~44세)의 첫번째 종사상지위와 현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현 직장의 종사상지위($\chi^2=47.1^{***}$)			계 (명)
	비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전체	18.9	43.5	37.7	100.0 (179)
첫 번째 직장의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72.7	9.1	18.2	100.0 (11)
상용직	15.3	55.0	29.7	100.0 (111)
임시·일용직	17.8	13.3	68.9	100.0 (4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혼여성의 일가정생활의 애로점

(1)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힘든 일

취업 기혼여성(20~44세)들이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일은 일-가사의 병행 곤란(39.9%)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녀양육시간 부족(34.6%), 부부공유시간 부족(8.2%), 직장일 전념 곤란(3.9%), 직장에서의

차별(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취업 중인 많은 기혼여성들이 부부관계에서부터 자녀양육 등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취업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일은 전체 패턴과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젊은 여성일수록 직장일과 가정일을 동시 수행함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아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거나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 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공유시간 부족을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직장에서의 차별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저임금층일수록 종사하고 있는 직장의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출생이수가 적을수록 직장일과 가정일 병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이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그 비율은 3.6%로 큰 차이가 있다. 자녀수에 비례하여 일-가정 병행 곤란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가 자칫하면 자녀수를 축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와 교육수준별로 직장일-가정일 병행곤란 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9〉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힘든 일

(단위: %, 명)

구분	자녀 양육, 대화 시간부족	부부간 함께하는 시간부족	일-가사 병행 어려움	직장일 전념 어려움	직장에서 차별	문제 없음	기타	전체 (명)
전체	34.6	8.2	39.9	3.9	2.1	10.9	0.4	100.0 (1,334)
지역 ($\chi^2=11.1$)								
동부	34.3	8.8	39.4	4.1	2.3	10.9	0.3	100.0 (1,128)
읍·면부	35.9	4.9	42.7	3.4	1.0	10.7	1.5	100.0 (206)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59〉 계속

(단위: %, 명)

구분	자녀 양육, 대화 시간부족	부부간 함께하는 시간부족	일-가사 병행 어려움	직장일 전념 어려움	직장에서 차별	문제 없음	기타	전체 (명)
연령($\chi^2=39.0^*$)								
20~24세	20.0	20.0	30.0	10.0	-	20.0	-	100.0 (10)
25~29세	24.1	7.8	35.3	6.9	3.4	21.6	0.9	100.0 (116)
30~34세	35.1	7.8	39.4	3.0	3.0	11.3	0.4	100.0 (231)
35~39세	40.2	6.1	39.2	3.4	2.0	8.8	0.2	100.0 (408)
40~44세	32.7	9.9	41.7	3.9	1.6	9.9	0.4	100.0 (568)
교육수준($\chi^2=18.8$)								
중졸이하	28.9	2.6	47.4	2.6	5.3	10.5	2.6	100.0 (38)
고졸	34.5	7.2	41.6	3.4	2.0	10.9	0.4	100.0 (760)
대졸	34.7	10.1	36.8	4.9	2.1	11.1	0.2	100.0 (513)
대학원졸이상	45.5	9.1	36.4	4.5	-	4.5	-	100.0 (22)
가구소득수준($\chi^2=58.7^*$)								
60% 미만	29.4	4.4	41.9	5.9	5.9	12.5	-	100.0 (136)
60~80%	38.8	7.7	35.4	3.8	2.4	11.0	1.0	100.0 (209)
80~100%	34.8	4.9	45.1	3.1	2.2	9.4	0.4	100.0 (224)
100~120%	29.9	8.1	45.2	1.5	1.5	13.2	0.5	100.0 (197)
120~140%	37.7	11.3	36.6	2.1	2.5	9.9	-	100.0 (284)
140~160%	29.6	13.8	40.8	6.6	0.7	8.6	-	100.0 (152)
160% 이상	39.8	7.4	35.2	6.5	-	11.1	-	100.0 (108)
자녀수($\chi^2=217.5^{***}$)								
0명	1.7	12.0	38.3	8.6	5.1	33.7	0.6	100.0 (175)
1명	40.9	7.9	31.4	3.4	3.0	12.8	0.6	100.0 (328)
2명	38.8	7.8	43.6	2.9	1.3	5.6	0.1	100.0 (720)
3명이상	40.2	6.3	42.9	5.4	-	3.6	1.8	100.0 (112)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취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로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점은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고위(준)전문직이나 생산·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일-가사 병행의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차별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장유형별로는 공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가사병행시간 부족이나 자녀 양육 및 대화시간 부족을 주된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60〉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힘든 일

(단위: %, 명)

구분	자녀 양육, 대화 시간 부족	부부간 함께하는 시간부족	가사 병행 어려움	직장일 전념 어려움	직장의 차별	문제 없음	기타	계 (명)
전체	34.6	8.2	39.9	3.9	2.1	10.9	0.4	100.0 (1,334)
직종 ($\chi^2=29.8^*$)								
고위관리직·(준)전문직	37.5	0.8	43.3	3.3	4.2	10.0	0.8	100.0 (120)
사무직	32.3	11.0	36.5	5.8	1.8	12.6	-	100.0 (381)
서비스·판매직	35.7	8.6	40.3	3.2	1.8	9.9	0.4	100.0 (717)
생산·노무직등	32.8	4.3	44.0	3.4	3.4	11.2	0.9	100.0 (116)
종사상 지위($\chi^2=24.2$)								
고용주·자영업자	36.8	4.9	40.6	3.4	0.4	13.2	0.8	100.0 (266)
무급가족종사자	27.1	12.5	45.8	-	2.1	10.4	2.1	100.0 (48)
상용근로자	35.8	8.8	38.3	4.4	2.1	10.4	0.3	100.0 (682)
임시일용근로자	31.5	9.2	41.4	4.2	3.6	9.8	0.3	100.0 (336)
직장유형($\chi^2=21.4^*$)								
일반회사	32.8	8.8	40.1	4.0	2.4	11.6	0.3	100.0 (1,122)
공공섹터	49.5	4.9	34.0	3.9	1.0	6.8	-	100.0 (103)
기타	36.1	6.0	47.0	3.6	-	6.0	1.2	100.0 (83)
근무시간($\chi^2=35.9^{**}$)								
36시간 미만	33.7	5.3	42.6	2.4	1.2	14.2	0.6	100.0 (169)
36~45시간 미만	36.8	9.7	35.1	6.0	2.5	9.7	0.4	100.0 (487)
45~61시간 미만	31.1	8.8	42.3	3.3	2.5	11.8	0.4	100.0 (570)
61시간 이상	44.1	4.3	46.2	-	-	4.3	1.1	100.0 (9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비취업 기혼여성의 향후 경제활동 의향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절반 정도(51.5%)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취업 욕구는 30~34세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동 연령대는 사회활동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등과 관련한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자녀 수별 취업희망 여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현재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36.4%이나, 3명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5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 교육

수준 및 가구소득수준별로 비취업여성의 향후 취업희망 비율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1>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 희망 여부

구분	취업희망여부		계 (명)	χ^2
	희망	비희망		
전체	51.1	48.9	100.0 (1,951)	
지역				
동부	51.7	48.3	100.0 (1,691)	1.7
읍·면부	47.3	52.7	100.0 (260)	
연령				
20~24세	38.7	61.3	100.0 (31)	
25~29세	52.7	47.3	100.0 (226)	
30~34세	54.1	45.9	100.0 (529)	12.5*
35~39세	53.4	46.6	100.0 (657)	
40~44세	45.2	54.8	100.0 (507)	
교육수준				
중졸이하	41.5	58.5	100.0 (65)	
고졸	53.0	47.0	100.0 (1,034)	5.2
대졸	49.4	50.6	100.0 (834)	
대학원졸 이상	58.8	41.2	100.0 (17)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57.1	42.9	100.0 (317)	
60~80%	49.7	50.3	100.0 (590)	
80~100%	48.4	51.6	100.0 (467)	
100~120%	54.0	46.0	100.0 (174)	9.0
120~140%	48.2	51.8	100.0 (199)	
140~160%	46.2	53.8	100.0 (78)	
160% 이상	55.6	44.4	100.0 (72)	
자녀수				
0명	36.4	63.6	100.0 (132)	
1명	52.3	47.7	100.0 (564)	12.7**
2명	51.8	48.2	100.0 (1,037)	
3명 이상	53.9	46.1	100.0 (219)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표 8-62>는 현재는 비취업 상태이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이다. 비취업여성이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자녀양육·교육비용(39.2%)’, ‘남편의 수입부족(27.5%)’, ‘자아

성취(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취업희망 이유는 고연령층일수록 자아성취 그리고 저연령층일수록 남편의 소득부족 등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연령의 비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그 동안 자녀양육이나 가사일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인 현재 자아성취를 위한 취업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는(대학원이상 졸업자는 사례수가 적어 제외) 고학력층일수록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이나 자아성취를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층일수록 자녀교육이나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남편의 수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60%미만인 경우에 이들 기혼여성의 44.9%가 ‘남편소득 부족’을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동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10%대로 낮게 나타났다.

현존 자녀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남편의 수입부족이나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취업하고자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수가 적은 비취업여성일수록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거나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 등을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취업 기혼여성의 거주지별 취업희망 이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2〉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돈 벌고있는 사람없음	남편 수입 부족	자녀양육 ·교육비 때문에	집에 있는것이 답답해서	자아 성취	가족 인정	경제적 독립	노후 대책	사회 참여	기타	계 (명)
전체	4.8	27.5	39.2	4.6	11.3	0.5	5.0	4.2	2.7	0.2	100.0 (993)
지역 ($\chi^2=10.9$)											
동부	4.6	27.0	39.7	4.3	11.4	0.6	5.4	4.4	2.5	0.1	100.0 (869)
읍·면부	6.5	30.6	35.5	7.3	11.3	-	1.6	3.2	3.2	0.8	100.0 (124)
연령($\chi^2=53.8^*$)											
20~24세	-	50.0	25.0	-	25.0	-	-	-	-	-	100.0 (12)
25~29세	5.1	34.7	25.4	8.5	8.5	2.5	5.9	5.1	3.4	0.8	100.0 (118)
30~34세	4.2	26.4	44.0	5.6	10.2	-	4.6	2.5	2.5	-	100.0 (284)
35~39세	4.3	27.1	42.5	3.1	10.0	0.6	4.0	5.4	3.1	-	100.0 (351)
40~44세	6.6	24.9	35.8	3.5	15.3	0.4	7.0	3.9	2.2	0.4	100.0 (229)
교육수준($\chi^2=70.7^{***}$)											
중졸이하	18.5	37.0	29.6	-	7.4	3.7	-	-	3.7	-	100.0 (27)
고졸	5.3	30.8	38.3	4.8	8.6	0.7	4.2	5.5	1.3	0.4	100.0 (545)
대졸	3.1	22.3	41.2	4.6	15.0	0.2	6.5	2.9	4.1	-	100.0 (413)
대학원졸이상	10.0	30.0	10.0	10.0	20.0	-	-	-	20.0	-	100.0 (10)
가구소득수준($\chi^2=219.9^{***}$)											
60% 미만	12.4	44.9	32.6	2.8	2.8	-	2.2	0.6	1.1	0.6	100.0 (178)
60~80%	2.1	31.8	38.7	6.8	9.2	0.7	2.7	5.8	2.1	-	100.0 (292)
80~100%	1.8	22.5	48.9	2.6	12.8	0.4	5.7	3.5	1.8	-	100.0 (227)
100~120%	3.2	14.9	36.2	3.2	19.1	2.1	9.6	7.4	3.2	1.1	100.0 (94)
120~140%	3.1	15.6	43.8	5.2	17.7	1.0	8.3	4.2	1.0	-	100.0 (96)
140~160%	-	10.8	29.7	2.7	24.3	-	18.9	2.7	10.8	-	100.0 (37)
160% 이상	-	17.1	26.8	9.8	19.5	-	2.4	7.3	17.1	-	100.0 (41)
자녀수($\chi^2=119.6^{***}$)											
0명	4.3	25.5	2.1	27.7	12.8	4.3	8.5	6.4	8.5	-	100.0 (47)
1명	5.1	25.4	34.2	5.1	13.6	-	5.8	6.4	4.1	0.3	100.0 (295)
2명	4.5	27.8	43.8	3.0	10.4	0.7	4.5	3.4	1.7	0.2	100.0 (536)
3명 이상	6.0	31.6	44.4	1.7	9.4	-	4.3	0.9	1.7	-	100.0 (117)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비취업 기혼여성들(20~44세)이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표 8-63)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38.1%)’, ‘일·가정 양립 곤란(30.2%)’, ‘자녀가 아직 어려서(22.0%)’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비취업 이유는 고연령층일수록 ‘적당한 일자리의 부족’을 그리고 저연령층일수록 ‘자녀가 어려서’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연령층일수록 어린 자녀들의 돌봄에 대한 사적·공적 지원 부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좌절되고, 고연령층일수록 자녀성장 후에 단절된 경력이나 연령 등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저학력층일수록 적당한 일자리 부족을 그리고 고학력층일수록 일-가정양립 곤란이나 자녀의 어린 나이로 인해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남편이나 가족의 반대로 취업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 기혼여성의 현존 자녀수별로는 다자녀일수록 일-가정 양립 곤란의 이유로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현재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63〉 취업 희망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남편, 가족의 반대	일-가정 양립 곤란	적당한 일자리 없어서	자녀가 아직 어려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의 병수발 때문에	기타	계 (명)
전체	4.6	30.2	38.1	22.0	3.2	0.3	1.5	100.0 (985)
지역($\chi^2=9.9$)								
동부	4.9	30.3	39.1	20.9	3.2	0.3	1.3	100.0 (862)
읍·면부	2.5	30.3	32.0	29.5	2.5	-	3.3	100.0 (122)
연령($\chi^2=147.1^{***}$)								
20~24세	-	16.7	41.7	41.7	-	-	-	100.0 (12)
25~29세	5.1	29.7	29.7	29.7	0.8	0.8	4.2	100.0 (118)
30~34세	2.1	42.8	21.9	30.0	2.1	0.4	0.7	100.0 (283)
35~39세	5.2	31.3	38.3	20.3	3.8	-	1.2	100.0 (345)
40~44세	7.0	13.6	62.3	9.6	4.8	0.9	1.8	100.0 (228)
교육수준($\chi^2=48.9^{***}$)								
중졸이하	7.4	14.8	44.4	14.8	11.1	3.7	3.7	100.0 (27)
고졸	4.2	28.8	42.6	19.0	3.3	0.2	1.8	100.0 (542)
대졸	4.7	33.6	31.9	26.5	2.2	0.5	0.7	100.0 (408)
대학원졸 이상	20.0	10.0	30.0	20.0	10.0	-	10.0	100.0 (1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기타에는 가족의 병수발 때문에 및 기타를 포함.

〈표 8-63〉 계속

구분	남편, 가족의 반대	일-가정 양립 곤란	적당한 일자리 없어서	자녀가 아직 어려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의 병수발 때문에	기타 ¹⁾	계 (명)
가구소득($\chi^2=63.7^{**}$)								
60% 미만	1.1	34.8	31.5	23.8	5.5	1.1	2.2	100.0 (181)
60~80%	4.1	34.4	36.4	20.6	2.4	-	2.1	100.0 (291)
80~100%	3.6	27.1	40.0	25.8	2.2	0.4	0.9	100.0 (225)
100~120%	2.2	19.4	53.8	21.5	2.2	0.0	1.1	100.0 (93)
120~140%	10.6	25.5	39.4	19.1	5.3	0.0	0.0	100.0 (94)
140~160%	11.8	29.4	32.4	20.6	5.9	0.0	0.0	100.0 (34)
160% 이상	15.4	28.2	30.8	20.5	2.6	0.0	2.6	100.0 (39)
자녀수($\chi^2=84.6^{***}$)								
0명	10.9	10.9	60.9	-	8.7	-	8.7	100.0 (46)
1명	3.1	30.0	31.7	29.4	3.4	0.3	2.0	100.0 (293)
2명	5.1	29.6	41.9	19.0	3.2	0.2	0.9	100.0 (527)
3명 이상	3.4	41.5	28.0	25.4	-	1.7	-	100.0 (118)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기타에는 가족의 병수발 때문에 및 기타를 포함.

2)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2.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역할분담

가.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가정일 분담에 관한 태도

남편과의 가정일 분담정도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주관적인 태도는 <표 8-64>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47.8%가 남편과 가정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매우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에 불과하였다. 기혼여성의 절반이 넘는 52.2%는 남편과의 집안일 분담정도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12.0%는 아주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부부간 가정일 분담이 매우 공평하다는 주관적 의식은 저연령층 기혼여성일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20대 초반에서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동 연령대의 경우, 양성평등 교육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부부간 가정일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교육수준별 차이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즉, 고학력층일수록 남편과의 가정일 분

답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자녀를 둔 기혼여성일수록 가정일에 대해 남편과 공평하게 분담하고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남편과 가정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인식하는 비율은 무자녀(73.5%), 1자녀(46.7%), 2자녀(45.8%), 3자녀 이상(38.9%)로 순으로 자녀수를 많이 둔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 기혼여성(구직활동 42.2%, 비구직활동 44.4%)에 비해 취업 기혼여성(53.9%)이 남편과의 가정일 분담을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어느 정도 가정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8-64〉 유배우여성(20~44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 가정일의 공평분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χ^2
전체	5.3	42.5	40.2	12.0	100.0 (3,349)	
연령별						
20~24세	10.3	56.4	28.2	5.1	100.0 (39)	68.2***
25~29세	9.4	51.2	31.0	8.3	100.0 (361)	
30~34세	5.4	47.8	35.9	11.0	100.0 (802)	
35~39세	4.4	40.9	42.5	12.1	100.0 (1,105)	
40~44세	4.6	36.7	44.5	14.3	100.0 (1,045)	
교육수준						
중졸이하	5.2	37.1	39.2	18.6	100.0 (97)	51.6***
고졸	4.1	38.9	43.4	13.5	100.0 (1,786)	
대졸	6.6	47.1	36.6	9.8	100.0 (1,424)	
대학원졸 이상	11.4	54.5	25.0	9.1	100.0 (44)	
자녀수						
0명	8.5	65.0	21.1	5.4	100.0 (294)	95.0***
1명	5.0	41.7	41.7	11.5	100.0 (872)	
2명	4.8	41.0	41.4	12.7	100.0 (1,836)	
3명 이상	5.8	33.1	45.8	15.3	100.0 (347)	
부인의 취업여부						
취업	7.0	46.9	36.5	9.6	100.0 (1,324)	40.0***
비취업	4.2	39.6	42.6	13.6	100.0 (2,026)	
구직활동	4.3	37.9	44.9	13.0	100.0 (515)	
비구직활동	4.1	40.3	41.9	13.8	100.0 (1,51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로 남편과의 가정일 분담에 관한 인식은 <표 8-65>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직종별로는 고위(준)전문직(65.8%), 사무직(59.8%), 서비스판매직(50.9%), 기타(40.0%) 등의 순으로 남편과 가정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 기혼여성이 남편과 가정일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용직인 경우 59.4%로 임시일용직의 46.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취업 기혼여성의 근로(사업)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일을 남편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월평균 근로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서비스 구매 등이 가능하여 공평분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8-65>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관적인 남편과의 가정일 공평분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χ^2
전체	7.0	46.9	36.5	9.6	100.0 (1,324)	
직종						
고위관리·(준)전문직	9.3	56.5	23.1	11.1	100.0 (108)	
사무직	7.5	52.3	33.7	6.5	100.0 (413)	27.5**
서비스·판매업	6.8	44.1	38.3	10.9	100.0 (681)	
생산·단순노무직 등	5.7	34.3	48.6	11.4	100.0 (105)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¹⁾	5.2	43.8	37.6	13.4	100.0 (306)	26.1***
상용근로자	7.7	51.7	33.6	7.0	100.0 (688)	
임시·일용직근로자	7.6	38.6	42.4	11.4	100.0 (316)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5.6	31.9	47.0	15.5	100.0 (251)	
100~150만원	6.7	48.6	36.2	8.4	100.0 (403)	45.9***
150~200만원	9.0	54.1	32.1	4.9	100.0 (268)	
200만원 이상	6.9	51.1	31.9	10.1	100.0 (32)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나.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집안일 및 자녀돌보기 분담정도

(1) 집안일 분담정도

기혼여성(20~44세)이 실제로 남편과 집안일(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시장보기, 집안청소 등)을 분담하는 정도는 <표 8-6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기혼여성의 78.8%가 본인이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집안일을 맡아서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전히 가정 내의 일은 여성들이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이 집안일을 분담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20~24세 26.3%, 25~29세 29.9% 등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40~44세에서는 14.3%에 불과하였다. 저연령층일수록 전통적인 성 역할 분업에서 탈피하여 실제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일수록 집안일을 남편과 분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부인전담비율이 낮고, 부부공동 분담비율과 타인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자녀수별로 부부간 집안일 분담정도는 부적관계로,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공동분담비율은 43.1%이나, 3자녀이상인 경우에는 13.5%에 불과하였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여성에 비해 취업 기혼여성에게서 부부공동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66> 유배우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남편과 집안일 분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외 다른사람	계 (명)	χ^2
전체	24.3	54.5	18.6	0.9	0.2	1.5	100.0 (3,344)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66>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이외 다른사람	계 (명)	χ^2
연령별								
20~24세	23.7	42.1	26.3	5.3	-	2.6	100.0 (38)	89.4***
25~29세	12.7	54.8	29.9	0.8	0.6	1.1	100.0 (361)	
30~34세	22.1	53.8	21.2	0.8	0.1	2.1	100.0 (798)	
35~39세	26.2	54.2	16.8	1.0	0.1	1.6	100.0 (1,101)	
40~44세	27.9	55.8	14.3	0.8	0.3	0.9	100.0 (1,046)	
교육수준								
중졸이하	34.0	49.5	13.4	2.1	-	1.0	100.0 (97)	53.5***
고졸	26.9	55.6	15.3	0.6	0.3	1.4	100.0 (1,777)	
대졸	20.7	53.4	22.8	1.3	0.1	1.6	100.0 (1,427)	
대학원졸 이상	13.6	59.1	25.0	-	-	2.3	100.0 (44)	
가구소득								
60% 미만	29.5	51.2	16.1	2.9	0.3	-	100.0 (373)	100.9***
60~80% 미만	26.1	54.8	17.6	0.6	0.2	0.6	100.0 (807)	
80~100% 미만	24.9	58.0	15.5	0.4	-	1.2	100.0 (724)	
100~120% 미만	23.9	56.9	17.8	0.5	0.3	0.5	100.0 (376)	
120~140%	19.9	54.6	21.4	1.0	0.2	2.9	100.0 (518)	
140~160%	16.7	55.0	24.9	0.4	0.4	2.6	100.0 (269)	
160% 이상	26.2	44.1	24.6	0.5	0.0	4.6	100.0 (195)	
자녀수								
0명	13.2	41.4	43.1	1.4	-	1.0	100.0 (295)	150.4***
1명	22.9	55.6	18.0	1.4	0.5	1.6	100.0 (872)	
2명	25.8	56.2	15.9	0.8	0.2	1.2	100.0 (1,831)	
3명 이상	29.3	54.0	13.5	0.6	-	2.6	100.0 (348)	
취업여부								
취업	16.8	50.0	27.7	1.5	0.4	3.6	100.0 (1,323)	239.2***
비취업(구직활동)	29.3	58.8	10.9	0.6	0.2	0.2	100.0 (515)	
비취업(비구직활동)	29.1	57.0	13.2	0.6	0.1	-	100.0 (1,508)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표 8-67>은 취업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 집안일 분담정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취업 기혼여성의 직종별로는 고위(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타 순으로 부인전적분담 비율이 낮고, 부부공동분담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부공동분담비율은 고위(준)전문직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2.2%이나, 단순노무직 등이 포함된 기타 직종에서는 15.9%에 불과하여 두 집단 간 차이는 26.3%p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로 부부공동분담비율은 상용직 33.8%, 임시·일용직 21.5%, 비임금근로자 20.6%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 등은 교육수준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양성평등의식 정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혹은 이들의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소득이 가정 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부부간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근로(사업)소득별 차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근로(사업)소득이 많을수록 집안일의 부부공동분담비율도 높게 나타나는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부부공동분담비율은 15.0%이나,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직장형태별로 살펴보면, 집안일 부부공동분담비율은 일반회사(28.7%), 공공섹터(24.3%), 기타(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여성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집안일의 부부공동분담 비율은 사업체규모와 선형관계에 있으나,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공동분담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 기혼여성의 근로시간별로 집안일의 부부간 분담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7〉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남편과 집안일 분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 외 다른 사람이	계 (명)	χ^2
전체	16.8	50.0	27.7	1.5	0.4	3.6	100.0 (1,323)	
직종								
고위·(준)전문직	13.8	36.7	42.2	0.9	-	6.4	100.0 (109)	
사무직	10.7	48.7	34.1	1.7	0.2	4.6	100.0 (411)	54.2***
서비스·판매업	19.2	52.2	23.8	1.5	0.6	2.8	100.0 (682)	
생산·단순노무직 등	27.1	52.3	15.9	0.9	0.9	2.8	100.0 (107)	
종사상 지위 ¹⁾								
비임금근로자	21.2	52.3	20.6	1.6	1.0	3.3	100.0 (306)	
상용근로자	12.5	48.1	33.8	1.2	0.3	4.1	100.0 (686)	40.0***
임시·일용직근로자	21.5	51.4	21.5	2.2	0.3	3.2	100.0 (317)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67〉 계속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부부 외 다른사람	계 (명)	χ^2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23.6	57.1	15.0	-	0.4	3.9	100.0 (254)	65.7***
100~150만원	16.7	52.9	26.2	2.0	0.2	2.0	100.0 (401)	
150~200만원	12.0	48.1	34.6	1.5	0.8	3.0	100.0 (266)	
200만원 이상	13.6	42.0	36.3	1.6	-	6.6	100.0 (317)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23.8	47.1	25.6	0.6	-	2.9	100.0 (172)	17.2
36~45시간	17.2	49.1	28.8	1.4	0.6	3.0	100.0 (507)	
45~61시간	13.5	50.7	28.8	1.8	0.4	4.8	100.0 (542)	
61시간 이상	17.8	53.4	23.3	2.7	-	2.7	100.0 (73)	
직장유형								
일반회사	15.5	50.5	28.7	1.7	0.3	3.3	100.0 (1,079)	18.7*
공공섹터	15.3	53.2	24.3	-	-	7.2	100.0 (111)	
기타	27.1	45.9	23.5	-	1.2	2.4	100.0 (85)	
사업체규모								
10인미만	18.0	52.8	23.7	1.6	0.7	3.1	100.0 (687)	27.9*
10-50인미만	15.0	47.2	32.2	0.8	-	4.8	100.0 (373)	
50-300인미만	12.9	44.1	37.1	2.4	-	3.5	100.0 (170)	
300인이상	14.5	52.2	26.1	2.9	1.4	2.9	100.0 (69)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녀돌보기 분담정도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남편과 자녀돌보기를 분담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표 8-68>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특성별 자녀돌보기 각각에 대한 남편과의 분담 정도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녀돌보기의 6가지 유형 대부분을 주로 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분담하는 비율은 밥먹고 옷 입히는 것 66.0%, 이플 때 돌봐주기 68.2%,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70.4%,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등하교 63.6% 등이다. 다만,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분담하는 비율이 48.2%, 부부 공동 분담 31.1%, 남편 분담 6.2% 등으로 다른 자녀돌보기 유형에 비해 비교적 남편의 분담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비율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 8-68〉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단위: %)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 공동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다른 사람도움	자녀 스스로	전체
밥먹고 옷 입히는 것	23.7	42.3	11.7	1.7	0.1	2.5	18.0	100.0
함께 놀아주기	11.2	37.0	31.1	5.9	0.3	3.0	11.5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22.9	45.3	25.9	1.8	0.2	2.3	1.6	100.0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23.3	47.1	16.8	3.8	0.4	2.6	5.9	100.0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등학교	22.4	41.2	12.7	3.3	0.4	2.8	17.3	100.0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의 맞벌이여부별 남편과의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를 살펴보면(표 8-69), 우선 비맞벌이가구에서 자녀돌보기는 주로 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도 자녀돌보기에 대해 주로 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하거나 남편이 담당하는 비율은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참여비율은 10% 이내로 맞벌이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의 육아참여는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맞벌이가구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가 스스로 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69〉 기혼여성의 맞벌이 여부별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단위: %)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 공동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다른 사람도움	자녀 스스로	전체
비맞벌이								
밥먹고 옷 입히는 것	27.6	45.1	10.9	1.7	0.1	0.4	14.2	100.0
함께 놀아주기	13.0	41.7	30.6	5.4	0.2	0.8	8.4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25.8	46.2	24.9	1.7	0.2	0.3	0.9	100.0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26.6	49.8	15.5	2.9	0.4	1.2	3.7	100.0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등학교	26.9	45.8	10.3	3.0	0.1	0.6	13.4	100.0
맞벌이								
밥먹고 옷 입히는 것	14.9	36.1	13.5	1.6	-	7.2	26.7	100.0
함께 놀아주기	7.0	26.7	32.1	7.0	0.4	8.2	18.5	100.0
아플 때 돌봐주기	16.3	43.1	28.1	2.3	0.1	6.7	3.3	100.0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16.3	41.0	19.8	5.7	0.6	5.9	10.7	100.0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등학교	13.0	31.5	17.7	4.2	0.8	7.3	25.5	100.0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부부의 가정일 투여시간

유배우여성(20~44세)과 남편이 평일과 일요일에 집안일을 위해 투여하는 시간은 <표 8-70>에 제시되어 있다. 평일 기준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5시간이상이 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4시간(15.5%), 4~5시간(14.1%), 2~3시간(11.8%), 2시간미만(4.1%) 등의 순이다. 취업여성의 가사노동시간대 분포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나, 그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가사노동시간이 5시간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그 수준은 29.1%로 전체 기혼여성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3~4시간(24.0%), 2~3시간(21.0%), 4~5시간(17.6%), 2시간미만(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요일 기준으로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전체의 70% 이상이 5시간이상을 가정일에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77.1%, 취업 70.0%). 전반적으로 취업여성의 휴일 가사노동시간대 분포는 전체 기혼여성의 그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8-70> 유배우여성(20~44세)의 가정일 투여시간

구분	(단위: %, 명, 분)					계 (명)
	2시간미만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이상	
부인 평일(전체)	4.1	11.8	15.5	14.1	54.5	100.0 (3,310)
부인 평일(취업)	8.1	21.2	24.0	17.6	29.1	100.0 (1,304)
부인 일요일(전체)	1.3	4.3	7.4	9.9	77.1	100.0 (3,305)
부인 일요일(취업)	1.9	5.4	11.5	11.1	70.0	100.0 (1,303)

유배우여성(20~44세) 남편의 가정일 투여시간을 살펴보면(표 8-71), 평일 기준 1~2시간이 3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시간미만(22.9%), 2~3시간(19.6%), 3시간이상(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기준 가정일 투여시간은 3시간이상이 55.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3시간(18.2%), 1~2시간(17.4%), 1시간미만(8.5%) 등의 순이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취업 남성에게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8-71〉 유배우여성(20~44세) 남편의 가정일 투여시간

구분	(단위: %, 명, 시간)				계 (명)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시간이상	
남편 평일(전체)	22.9	38.0	19.6	19.5	100.0 (3,145)
남편 평일(취업)	23.2	38.3	19.5	19.0	100.0 (3,045)
남편 일요일(전체)	8.5	17.4	18.2	55.9	100.0 (3,313)
남편 일요일(취업)	8.5	17.7	18.3	55.6	100.0 (3,210)

라. 가정일에 대한 부부간 의사결정 구조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및 취업여부별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는 <표 8-72>에 제시되어 있다. 유배우여성의 63.0%(전적으로 결정 19.5%)가 자녀양육과 관련한 것을 본인이 결정(전적으로 결정+대체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유배우여성 본인이 자녀양육에 대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비율은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비취업(비구직활동) 중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72〉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사결정

구분	(단위: %, 명)							계 (명)	x ²
	전적으로 부인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부부 공동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전적으로 남편결정	다른 사람 결정			
전체	19.5	43.5	34.3	1.4	0.4	0.9	100.0 (2,918)		
연령									
20~24세	33.3	23.3	33.3	3.3	6.7	-	100.0 (30)	51.3 ***	
25~29세	23.9	37.0	37.9	0.8	-	0.4	100.0 (243)		
30~34세	19.8	45.9	31.5	0.7	0.4	1.6	100.0 (676)		
35~39세	18.2	43.8	35.1	1.5	0.5	0.9	100.0 (1,034)		
40~44세	19.0	43.9	34.4	1.6	0.3	0.7	100.0 (935)		
취업여부									
취업	14.0	40.9	40.3	1.9	0.5	2.4	100.0 (1,103)	104.8 ***	
비취업(구직활동)	20.1	49.7	28.3	1.3	0.6	-	100.0 (463)		
비취업(비구직활동)	23.7	43.6	31.5	1.0	0.3	-	100.0 (1,354)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및 취업여부별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는 <표 8-73>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은 유배우여성 본인 57.0%, 부부 공동 40.1%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과 비교해, 자녀교육문제에 관한 부인단독 결정 비율은 다소 낮고, 부부공동 결정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유배우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해 부부공동 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45.6%)의 경우 비취업(구직 36.6%, 비구직 36.8%)의 경우 비해 자녀교육에 관한 부부공동 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73>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부부 공동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전적으로 남편결정	다른 사람결정	계	(명)	χ^2
전체	16.1	40.9	40.1	2.1	0.4	0.3	100.0	(2,929)	
연령									
20~24세	26.7	20.0	46.7	-	6.7	-	100.0	(30)	
25~29세	20.3	35.1	42.4	2.2	-	-	100.0	(231)	64.3 ...
30~34세	17.5	41.6	39.3	0.8	0.2	0.8	100.0	(659)	
35~39세	15.7	42.3	38.8	2.7	0.4	0.1	100.0	(1,037)	
40~44세	14.1	41.0	41.6	2.6	0.4	0.3	100.0	(972)	
취업여부									
취업	12.2	38.7	45.6	2.5	0.4	0.6	100.0	(1,114)	43.0 ...
비취업(구직활동)	16.3	44.7	36.6	1.7	0.6	-	100.0	(465)	
비취업(비구직활동)	19.1	41.5	36.8	2.0	0.4	0.1	100.0	(1,349)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및 취업여부별로 부인의 직장이동(전직)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는 <표 8-74>에 제시되어 있다. 직장이동(전직)에 대해 유배우여성 스스로 결정하기(40.7%)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47.3%)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 본인의 직장이동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 유배우여성(44.9%)이 비취업 유배우여성(구직활동 37.2%, 비구직활동 36.5%)에 비해 본인 스스로 직장이동(전직)을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74〉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본인 직장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부부 공동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전적으로 남편결정	전적으로 남편결정	계 (명)	χ^2
전체	12.6	28.1	47.3	7.9	4.0	0.1	100.0 (2,577)	
연령								
20~24세	14.3	10.7	57.1	17.9	-	-	100.0 (28)	26.3
25~29세	13.2	25.6	51.3	7.3	2.2	0.4	100.0 (273)	
30~34세	11.5	31.1	46.0	6.7	4.4	0.3	100.0 (585)	
35~39세	12.4	27.0	48.2	7.7	4.7	-	100.0 (866)	
40~44세	13.5	28.4	45.8	8.7	3.5	-	100.0 (823)	
취업여부								
취업	12.2	32.7	47.5	4.6	2.8	0.2	100.0 (1,255)	66.5 ***
비취업(구직)	13.8	23.4	45.9	9.9	7.0	-	100.0 (355)	
비취업(비구직)	12.7	23.8	47.6	11.3	4.5	0.1	100.0 (966)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및 취업여부별로 남편의 직장이동(전직)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는 <표 8-75>에 제시되어 있다. 남편의 직장이동과 관련해서는 남편 스스로 결정하거나(47.1%),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47.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는 20~24세를 제외하면 저연령층일수록 부부공동 결정 비율이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대체로 남편 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취업여부별 남편의 직장이동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8-75〉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남편 직장이동에 대한 의사결정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부부 공동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전적으로 남편결정	다른 사람결정	계 (명)	χ^2
전체	1.5	4.3	47.0	36.5	10.6	0.1	100.0 (3,290)	
연령								
20~24세	5.4	2.7	37.8	45.9	8.1	-	100.0 (37)	53.2 ***
25~29세	2.3	5.9	53.4	26.8	11.3	0.3	100.0 (354)	
30~34세	1.4	5.8	48.9	34.5	9.1	0.3	100.0 (788)	
35~39세	1.0	3.1	48.1	38.1	9.6	-	100.0 (1,081)	
40~44세	1.7	3.7	42.7	39.3	12.6	-	100.0 (1,030)	
취업여부								
취업	1.2	3.6	49.3	35.4	10.4	0.1	100.0 (1,312)	12.9
비취업(구직)	1.4	5.2	41.6	39.6	12.3	-	100.0 (503)	
비취업(비구직)	1.8	4.5	46.8	36.4	10.3	0.1	100.0 (1,476)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및 취업여부별로 일상생활비 관리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는 <표 8-76>에 제시되어 있다. 일상생활비 관리를 부인이 결정한다는 비율(전적으로 결정+대체로 결정)은 59.7%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응답비율(3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여성 본인이 일상생활비 관리를 결정하는 비율이 낮고,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취업여부별로 여성 본인이 일상생활비 관리를 결정하는 비율은 취업(56.7%)의 경우에 비해 비취업(구직활동 61.4%, 비구직활동 61.7%)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일상생활비 관리를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비취업여성(구직활동 33.1%, 비구직활동 33.4%)에 비해 취업여성(38.8%)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76>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일상생활비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부부 공동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전적으로 남편결정	다른 사람결정	계 (명)	χ^2
전체	19.1	40.6	35.5	3.3	1.3	0.2	100.0 (3,343)	
연령								
20~24세	26.3	18.4	34.2	15.8	5.3	-	100.0 (38)	64.5 ***
25~29세	16.6	36.3	42.9	1.7	2.5	-	100.0 (361)	
30~34세	18.7	39.8	36.3	2.9	1.8	0.6	100.0 (797)	
35~39세	19.1	41.5	34.5	3.6	1.0	0.2	100.0 (1,103)	
40~44세	20.2	42.4	33.3	3.4	0.6	-	100.0 (1,044)	
취업여부								
취업	16.1	40.6	38.8	3.3	0.7	0.5	100.0 (1,318)	34.7 ***
비취업(구직)	20.3	41.1	33.1	3.9	1.6	-	100.0 (516)	
비취업(비구직)	21.4	40.3	33.4	3.2	1.7	-	100.0 (1,51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및 취업여부별로 주택구입 및 이사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는 <표 8-77>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구입 및 이사를 결정하는 비율은 78.3%로 다른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 주택구입 및 이사

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24세와 25세 이상 연령층간의 차이만 뚜렷할 뿐이다. 즉, 20~24세 저연령층의 경우 부부공동 결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남편 결정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은 편으로 이러한 특징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비취업 중인 경우(구직활동 75.7%, 비구직활동 77.3%)에 비해 취업 중인 유배우여성(80.4%)에게서 주택구입 및 이사에 대한 부부공동 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취업 유배우여성보다 비취업유배우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77>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주택구입 및 이사에 대한 의사결정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결정	대체로 부인 결정	부부 공동 결정	대체로 남편 결정	전적으로 남편 결정	다른 사람결정	계 (명)	χ^2
전체 연령	3.0	9.3	78.3	7.7	1.5	0.2	100.0 (3,325)	
20~24세	7.9	5.3	60.5	26.3	-	-	100.0 (38)	57.5 ***
25~29세	3.1	7.6	79.8	6.2	3.1	0.3	100.0 (357)	
30~34세	2.7	9.7	78.6	7.1	1.4	0.5	100.0 (790)	
35~39세	2.4	9.7	79.6	6.2	1.9	0.2	100.0 (1,098)	
40~44세	3.7	9.3	76.8	9.6	0.6	-	100.0 (1,042)	
취업여부								
취업	2.9	8.8	80.4	6.3	1.2	0.4	100.0 (1,313)	21.4 *
비취업(구직)	3.1	11.7	75.7	8.2	0.8	0.4	100.0 (511)	
비취업(비구직)	3.1	8.9	77.3	8.7	2.0	-	100.0 (1,502)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및 취업여부별로 투자와 재산관리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는 <표 8-78>에 제시되어 있다. 유배우여성 중 부부 공동으로 투자와 재산관리를 결정하는 비율이 69.9%이며,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은 15.5%, 그리고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14.3%로 각각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이 고연령층일수록 투자와 재산관리에 대한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고, 대신 부인 전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취업 여성에 비해 취업 여성에게서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

이 높고, 대신 대체로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8-78〉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투자 및 재산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부부 공동 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전적으로 남편 결정	각자 관리	다른 사람결정	계 (명)	χ^2
전체	5.0	10.5	69.9	11.5	2.8	0.4	0.1	100.0 (3,288)	
연령									
20~24세	8.3	11.1	44.4	33.3	2.8	-	-	100.0 (36)	
25~29세	6.2	8.8	71.2	9.3	3.7	0.8	-	100.0 (354)	49.2 **
30~34세	5.4	11.5	70.8	9.0	2.8	0.3	0.3	100.0 (777)	
35~39세	4.9	11.0	70.5	10.4	2.9	0.2	0.1	100.0 (1,092)	
40~44세	4.2	9.8	68.8	14.4	2.2	0.6	-	100.0 (1,030)	
취업여부									
취업	4.8	10.1	72.0	10.2	2.1	0.8	0.1	100.0 (1,303)	
비취업(구직)	4.8	15.9	64.7	12.4	1.8	0.2	0.2	100.0 (502)	44.2 ***
비취업(비구직)	5.3	9.0	69.6	12.3	3.7	0.1	0.1	100.0 (1,485)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양육, 자녀교육 및 일상생활비 관리는 부부 공동으로 결정하기보다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유배우여성 본인의 직장이동과 남편의 직장이동 모두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부인 또는 남편 각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구입 및 이사, 투자 및 재산관리 등 재산에 관한 사항들은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70% 내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79〉 유배우여성(20~44세)의 남편과의 가정일 대한 의사결정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결정	대체로 부인결정	부부 공동결정	대체로 남편결정	전적으로 남편결정	각자, 다른 사람	계 (명)
자녀양육	19.5	43.5	34.3	1.4	0.4	0.9	100.0 (2,918)
자녀교육	16.1	40.9	40.1	2.1	0.4	0.3	100.0 (2,929)
본인 직장이동	12.6	28.1	47.3	7.9	4.0	0.1	100.0 (2,577)
남편 직장이동	1.5	4.3	47.0	36.5	10.6	0.1	100.0 (3,290)
일상생활비 관리	19.1	40.6	35.5	3.3	1.3	0.2	100.0 (3,343)
주택구입 및 이사	3.0	9.3	78.3	7.7	1.5	0.2	100.0 (3,325)
투자 및 재산관리	5.0	10.5	69.9	11.5	2.8	0.5	100.0 (3,288)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혼여성의 부모와의 지원관계

가. 부모에 대한 지원 정도

기혼여성(20~44세)이 최근 1년간 친정부모나 시부모(지난 1년간 생존 경우)에게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이나 도구적 도움(보살핌, 병수발 등)을 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8-80>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기혼여성의 34.7%가 부모에 생활비나 용돈 등 경제적인 도움이나 도구적 도움을 준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혼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 도움을 준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생활이 길고,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연령도 높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과 부모에 도움을 준 비율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미만인 경우에는 22.2%만이 부모에게 도움을 준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60%이상인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도움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소득층일수록 경제적으로나 도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존 자녀수는 자녀부양부담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부양부담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혼여성의 출생자녀수별로 부모에 도움을 준 비율은 2명(35.8%), 1명(35.4%), 3명이상(34.6%), 0명(25.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에 도움을 준 비율이 자녀수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무자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에 도움을 준 비율은 자녀수보다는 결혼기간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37.8%)이 비취업(비구직 활동) 기혼여성(33.4%)이나 비취업(구직활동) 기혼여성(29.8%)보다 부모에게 도움을 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 기혼여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경제적 여력 등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별로 부모에게 도움을 준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0>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에 대한 도움(경제적, 병수발 등) 여부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단위: %, 명)	
				χ^2	
전체 ¹⁾	34.7	65.3	100.0 (3,527)		
연령					
20~24세	25.0	75.0	100.0 (40)	22.1***	
25~29세	26.9	73.1	100.0 (375)		
30~34세	33.2	66.8	100.0 (825)		
35~39세	34.3	65.7	100.0 (1,153)		
40~44세	39.1	60.9	100.0 (1,134)		
가구소득					
60% 미만	22.2	77.8	100.0 (469)	93.0***	
60~80%	29.5	70.5	100.0 (842)		
80~100%	33.6	66.4	100.0 (753)		
100~120%	42.2	57.8	100.0 (384)		
120~140%	41.3	58.7	100.0 (520)		
140~160%	45.7	54.3	100.0 (269)		
160% 이상	48.5	51.5	100.0 (433)		
출생자녀수					
0명	25.4	74.6	100.0 (315)	13.3**	
1명	35.4	64.6	100.0 (936)		
2명	35.8	64.2	100.0 (1,920)		
3명 이상	34.6	65.4	100.0 (356)		
취업여부					
취업	37.8	62.2	100.0 (1,466)	10.7**	
비취업	32.5	67.5	100.0 (2,061)		
구직활동	29.8	70.2	100.0 (533)		
비구직활동	33.4	66.6	100.0 (1,528)		
종사상지위 ²⁾					
비임금근로자	36.4	63.6	100.0 (341)	1.1	
상용근로자	39.0	61.0	100.0 (754)		
임시·일용직근로자	36.4	63.6	100.0 (36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는 경우를 제외함.

2)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함.

3)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로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도움의 부담 정도는 <표 8-81>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에 경제적 도움을 준 기혼여성의

9.9%는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52.0%도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미만(70.1%)과 100~120%(69.4%)인 경우 부모에 준 경제적 도움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의 저소득계층의 경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이었다. 한편, 기혼여성의 연령 및 출생이수별로 부모도움 부담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1>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의 부담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별로 부담 되지 않음	전혀 부담 되지 않음	계 (명)	χ^2
전체 ¹⁾	9.9	52.0	30.9	7.1	100.0 (1,194)	
연령						
20~24세	33.3	33.3	33.3	-	100.0 (9)	20.9
25~29세	4.0	60.6	29.3	6.1	100.0 (99)	
30~34세	12.6	50.0	28.9	8.5	100.0 (270)	
35~39세	8.8	50.1	31.9	9.1	100.0 (385)	
40~44세	10.0	53.6	31.6	4.9	100.0 (431)	
자녀수						
0명	5.1	45.6	39.2	10.1	100.0 (79)	9.8
1명	10.0	55.1	29.3	5.6	100.0 (321)	
2명	11.0	51.6	30.0	7.3	100.0 (670)	
3명 이상	7.4	50.0	34.4	8.2	100.0 (122)	
가구소득						
60% 미만	21.0	50.0	24.0	5.0	100.0 (100)	41.9**
60~80%	9.5	49.8	35.4	5.3	100.0 (243)	
80~100%	8.9	51.8	28.3	10.9	100.0 (247)	
100~120%	10.0	59.4	25.6	5.0	100.0 (160)	
120~140%	10.0	54.5	29.4	6.2	100.0 (211)	
140~160%	6.7	57.1	29.4	6.7	100.0 (119)	
160% 이상	8.5	36.2	44.7	10.6	100.0 (94)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거나 경제적 도움을 드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함.
- 2)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표 8-82>은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에 따라 부모에 제공한 도구적 도움(병수발, 보살핌 등)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기혼여성의 58.1%는 도구적 도움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매

우 부담 13.8%, 약간 부담 44.3%). 기혼여성의 연령별 및 직종별 부담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기혼여성 중 도구적 도움을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58.7%로 나타났다(매우 부담 8.1%, 약간 부담 50.6%). 종사상 지위별로 부모에 제공한 도구적 도움의 부담정도는 임시·일용직(79.4%), 비임금근로자(63.8%), 상용근로자(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수록 보살핌이나 병수발 등 도구적 도움에 대해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집단에서 부모에 대한 도구적 도움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낮은 집단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해 병수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부담스럽고, 근로소득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등으로 도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대체적으로 취업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부모님 보살핌이나 병수발 등에 대한 부담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부모님 보살핌 등에 소요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8-82〉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도움의 부담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별로 부담 되지 않음	전혀 부담 되지 않음	계 (명)	χ^2
전체 ¹⁾	13.8	44.3	26.0	15.9	100.0 (519)	
연령						
20~24세	-	75.0	25.0	-	100.0 (4)	20.9
25~29세	8.3	52.8	30.6	8.3	100.0 (36)	
30~34세	19.1	34.0	22.3	24.5	100.0 (94)	
35~39세	10.3	41.3	31.6	16.8	100.0 (155)	
40~44세	15.2	48.7	23.0	13.0	100.0 (230)	
취업(전체) ¹⁾	8.1	50.6	26.0	15.3	100.0 (235)	
직종						
고위관리·(준)전문직	6.3	50.0	25.0	18.8	100.0 (16)	15.7
사무직	6.3	46.0	20.6	27.0	100.0 (63)	
서비스·판매업	8.2	53.7	28.4	9.7	100.0 (134)	
생산·단순노무직 등	22.2	50.0	11.1	16.7	100.0 (18)	

〈표 8-82〉 계속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별로 부담 되지 않음	전혀 부담 되지 않음	계 (명)	χ^2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0.6	53.2	12.8	23.4	100.0 (47)	25.7 ^{***}
상용근로자	5.1	41.9	34.2	18.8	100.0 (117)	
임시·일용직근로자	13.2	66.2	16.2	4.4	100.0 (68)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18.9	45.9	27.0	8.1	100.0 (37)	19.3 [*]
100~150만원	3.9	63.6	19.5	13.0	100.0 (77)	
150~200만원	5.4	55.4	25.0	14.3	100.0 (56)	
200만원 이상	10.0	34.0	32.0	24.0	100.0 (50)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	67.6	23.5	8.8	100.0 (34)	10.2
36~45시간	12.7	50.6	22.8	13.9	100.0 (79)	
45~61시간	8.8	42.9	30.8	17.6	100.0 (91)	
61시간 이상	10.0	55.0	20.0	15.0	100.0 (2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거나 도구적 도움을 드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함.

나. 부모로부터의 도움 정도

기혼여성(20~44세)이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 정도는 <표 8-83>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17.0%(많이 받음 2.6%)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많이 받음+약간 받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의 정도는 기혼여성이 저연령층일수록(특히 많이 받음의 비율이 높음),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비취업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존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없거나 적을수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계층이 주로 결혼생활 초기의 젊은층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83>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정도

(단위: %, 명)

	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않음	전혀 받지않음	전체 (계)	χ^2
전체	2.6	14.4	17.8	65.3	100.0 (3,303)	
거주지						
동부	2.7	14.0	17.5	65.8	100.0 (2,836)	4.5
읍면부	2.1	16.7	19.5	61.7	100.0 (467)	
연령						
20~24세	17.1	19.5	14.6	48.8	100.0 (41)	83.7***
25~29세	4.0	19.1	20.6	56.3	100.0 (350)	
30~34세	2.8	17.0	19.8	60.5	100.0 (759)	
35~39세	2.1	14.1	18.9	64.9	100.0 (1,087)	
40~44세	2.1	11.0	14.5	72.4	100.0 (1,067)	
가구소득수준						
60%미만	3.8	21.8	16.2	58.2	100.0 (445)	51.1***
60~80%	3.3	15.9	17.8	63.0	100.0 (787)	
80~100%	2.7	12.3	18.4	66.6	100.0 (701)	
100%~120%	0.5	12.9	17.8	68.8	100.0 (365)	
120%~140%	1.4	11.1	17.8	69.7	100.0 (488)	
140%~160%	1.2	12.3	18.3	68.3	100.0 (252)	
160%이상	4.4	12.2	16.0	67.4	100.0 (181)	
출생아수						
0명	3.4	13.9	16.7	66.0	100.0 (294)	21.9**
1명	2.8	17.7	15.7	63.8	100.0 (881)	
2명	2.5	12.3	18.5	66.7	100.0 (1,798)	
3명이상	1.5	16.7	20.7	61.1	100.0 (329)	
취업여부						
취업	2.5	12.0	19.2	66.3	100.0 (1,375)	12.2**
비취업	2.7	16.0	16.8	64.5	100.0 (1,929)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이 부모로부터 받는 자녀양육도움 정도는 <표 8-84>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를 적어도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기혼여성 중 19.5%(많이 받음 7.1% 포함)가 부모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은 비율은 기혼여성의 연령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저연령층일수록 자녀양육 경험이 없거나 맞벌이 부부일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이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은 비율은 고소득층일수록, 약간 받은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층인 경우에는 부모에 일정한 지분을 통해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일시적이거나 일부 시간에 한정해 맡기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기혼여성의 자녀수별로는 1자녀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2자녀를 둔 경우보다 부모로부터 자녀양육관련 도움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젊고 자녀를 둔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3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은 다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 부모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의 경우보다 취업의 경우에 시간적 부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4〉 1자녀 이상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로부터 자녀양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않음	전혀 받지않음	전체 (계)	χ^2
전체	7.1	12.4	16.1	64.4	100.0 (2,990)	
거주지						
동부	7.6	11.5	15.7	65.1	100.0 (2,566)	21.8***
읍면부	3.5	17.5	18.4	60.5	100.0 (423)	
연령						
20~24세	21.4	10.7	21.4	46.4	100.0 (28)	99.5***
25~29세	11.1	16.0	19.8	53.1	100.0 (243)	
30~34세	10.9	17.1	16.6	55.4	100.0 (661)	
35~39세	6.8	12.1	16.3	64.8	100.0 (1,034)	
40~44세	3.6	8.9	14.7	72.8	100.0 (1,026)	
가구소득수준						
60%미만	5.1	15.8	18.8	60.3	100.0 (393)	46.4***
60~80%	5.9	14.4	15.6	64.1	100.0 (699)	
80~100%	6.2	10.8	15.6	67.4	100.0 (648)	
100%~120%	5.6	10.6	16.8	67.1	100.0 (322)	
120%~140%	8.6	9.5	16.7	65.3	100.0 (444)	
140%~160%	8.5	9.8	15.8	65.8	100.0 (234)	
160%이상	16.0	12.4	11.8	59.8	100.0 (169)	

〈표 8-84〉 계속

(단위: %, 명)

	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않음	전혀 받지않음	전체 (계)	χ^2
출생아수						
1명	9.5	15.3	14.9	60.2	100.0 (880)	
2명	6.1	10.9	16.5	66.6	100.0 (1,781)	25.7***
3명이상	5.8	12.5	17.9	63.8	100.0 (329)	
취업여부						
취업	11.2	14.1	13.0	61.7	100.0 (1,201)	
비취업	4.2	11.2	18.3	66.2	100.0 (1,789)	69.2***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이 부모로부터 집안일에 대해 도움을 받은 정도는 <표 8-85>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16.2%(많이 받은 5.2% 포함)만이 부모로부터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특성별로는 읍면부지역 보다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부모로부터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맞벌이 등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한 도시지역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경험이 적은 젊은층들이,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여성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집안일에 대한 도움을 비취업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5〉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로부터 집안일 도움 정도

(단위: %, 명)

	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않음	전혀 받지않음	전체 (계)	χ^2
전체 거주지	5.2	11.0	15.6	68.2	100.0 (3,291)	
동부	5.7	10.6	15.2	68.5	100.0 (2,829)	
읍면부	2.6	13.4	17.9	66.1	100.0 (463)	12.4**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85〉 계속

(단위: %, 명)

	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않음	전혀 받지않음	전체 (계)	χ^2
연령						
20~24세	12.2	19.5	9.8	58.5	100.0 (41)	51.8***
25~29세	7.7	14.2	15.9	62.2	100.0 (352)	
30~34세	7.3	12.6	17.7	62.4	100.0 (755)	
35~39세	4.5	11.1	15.6	68.8	100.0 (1,088)	
40~44세	3.5	8.3	14.1	74.1	100.0 (1,057)	
가구소득수준						
60%미만	4.8	10.7	17.5	67.0	100.0 (439)	50.8***
60~80%	4.1	10.3	14.5	71.1	100.0 (786)	
80~100%	3.9	10.4	14.6	71.1	100.0 (699)	
100%~120%	3.9	8.6	16.1	71.4	100.0 (360)	
120%~140%	5.9	10.6	17.4	66.1	100.0 (489)	
140%~160%	8.4	13.6	16.8	61.2	100.0 (250)	
160%이상	10.9	19.0	10.3	59.8	100.0 (184)	
출생아수						
0명	5.8	12.3	16.0	65.9	100.0 (293)	16.8
1명	6.6	12.7	13.9	66.8	100.0 (880)	
2명	4.8	9.6	15.8	69.9	100.0 (1,789)	
3명이상	3.9	12.7	18.2	65.2	100.0 (330)	
취업여부						
취업	8.7	13.7	14.2	63.4	100.0 (1,370)	80.3***
비취업	2.8	9.1	16.5	71.7	100.0 (1,92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제9장 기혼여성의 임신 동향

개인이나 부부가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갖거나 자녀 출산시기 및 간격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생식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된 바 있다. 피임은 사전에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의미하며, 인공임신중절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의도적으로 출산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임신상태가 중단되는 자연유산 또는 임신 28주가 지나서 태아가 사망하는 사산 등과 같은 자연적·인위적 임신소모현상은 인구자질 측면에서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저출산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기혼여성의 임신실패, 불임실패, 피임실패 등의 파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1절 기혼여성의 임신실패

1. 기혼여성의 임신횟수

기혼여성(20~44)세의 임신횟수 분포는 <표 9-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2회 임신이 4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회 임신(22.0%), 3회 임신(19.1%), 4회 임신(6.8%), 5회 이상 임신(2.0%) 순이며, 6.4%는 임신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횟수는 2.05회로 2005년 조사의 2.62회보다 약 0.6회가 적은 수준이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평균 임신횟수를 살펴보면, 20~24세 0.95회, 25~29세 1.25회, 30~34세 1.83회 40~44세 2.30회 등 고연령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 임신실태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부인 중 2회 이상 임신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6.3%이며, 자녀가 2명인 부인 중 3회 이상 임신 비율은 28.2%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회 이상 임신을 경험한 비율이 24.1%(평균 임신횟수 0.31회)로 나타났다.

추가희망 자녀수별로는 추가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임신횟수는 평균 2.29회로 가장 높고, 1명 희망 1.24회, 2명이상 희망 0.81회로 추가희망 자녀수가 많을수록 임신횟수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1〉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임신 횟수

(단위: %, 명, 회)

구 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계 (명)	평균	χ^2
전체	6.4	22.0	43.8	19.1	6.8	2.0	100.0 (3,561)	2.05	
연령별									
20~24세	26.8	56.1	12.2	2.4	2.4	0.0	100.0 (41)	0.95	569.1***
25~29세	22.5	43.1	24.4	7.6	1.6	0.8	100.0 (369)	1.25	
30~34세	8.6	30.9	37.7	15.8	6.0	1.0	100.0 (816)	1.83	
35~39세	2.9	16.3	48.8	21.5	8.5	2.0	100.0 (1,166)	2.23	
40~44세	2.5	13.5	50.3	23.2	7.4	3.2	100.0 (1,170)	2.30	
출생자녀수									
0명	75.9	18.4	5.0	0.3	0.3	0.0	100.0 (299)	0.31	5674.4***
1명	0.0	73.8	17.0	7.7	1.4	0.2	100.0 (953)	1.37	
2명	0.0	1.1	70.7	18.7	7.4	2.1	100.0 (1,948)	2.39	
3명 이상	0.0	0.8	1.4	66.6	23.2	8.0	100.0 (362)	3.40	
추가희망자녀수									
0명	1.2	14.6	51.1	22.8	8.0	2.3	100.0 (2,502)	2.29	1083.1***
1명	17.7	53.2	20.1	6.2	2.3	0.5	100.0 (389)	1.24	
2명 이상	47.6	29.9	16.3	4.8	1.4	0.0	100.0 (147)	0.81	
모르겠음	10.7	31.4	33.8	16.6	5.5	2.1	100.0 (290)	1.83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임신종결형태

가. 임신소모 수준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20~44세)의 임신종결형태를 살펴보면(표 9-2), 전체적으로 평균 임신 2.19회 중 정상출생 1.77회, 현임신 0.02회, 소모 0.40회(사산 0.02회, 자연유산 0.19회, 인공임신중절이 0.19회)로 전체 임신소모율이 18.3%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신소모율은 읍·면부(16.1%)에 비해 동부(18.4%)에서 다소 높다. 인공임신중절과 자연유산 모두 읍면부에 비해 동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생활 및 환경과 임신소모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25세이상) 임신소모율이 높게 나타났다. 각 연령층에서 자연유산에 의한 임신소모율이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인공임신중절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의 염려와 더불어 원하는 임신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임신 전 관리와 산전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초혼연령과 자연유산에 의한 임신소모율은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초혼연령이 25~29세인 기혼여성의 임신소모율은 17.1%이나, 30~34세인 경우에는 25.4%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기혼여성의 임신소모율이 20.2%로 비취업 부인의 16.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 임신소모율은 전국가구소득 80%미만 계층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임신소모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기혼여성(20~44세) 일반특성에 따른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구분	정상출생	임신소모				현임신	총임신	총임신 (평균)	대상자
		사산	자연유산	인공유산	소계				
전체	80.8	0.9	8.7	8.7	18.3	0.9	100.0	2.19	(3,335)
(평균)	1.77	0.02	0.19	0.19	0.40	0.02	2.19		

(단위: %, 회, 명)

〈표 9-2〉 계속

(단위: %, 회, 명)

구분	정상출생	임신소모				현임신	총임신	총임신 (평균)	(대상자)
		사산	자연유산	인공유산	소계				
지역									
동부	80.8	0.8	8.7	8.9	18.4	0.8	100.0	2.17	(2,860)
읍·면부	82.9	1.1	7.7	7.2	16.1	1.1	100.0	2.25	(475)
연령									
20~24세	83.4	0.0	11.4	3.2	14.6	2.0	100.0	1.30	(30)
25~29세	82.6	0.7	6.1	5.8	12.6	4.8	100.0	1.62	(286)
30~34세	81.9	0.7	8.4	7.3	16.4	1.7	100.0	2.00	(747)
35~39세	81.6	0.7	8.6	8.6	17.9	0.6	100.0	2.30	(1,132)
40~44세	79.9	1.0	9.0	10.0	20.0	0.1	100.0	2.36	(1,141)
초혼연령									
24세 이하	81.3	0.6	8.1	9.6	18.3	0.4	100.0	2.38	(1,219)
25~29세	81.9	0.9	7.6	8.5	17.1	1.1	100.0	2.10	(1,513)
30~34세	72.8	1.0	15.2	9.3	25.5	1.6	100.0	1.93	(343)
35세 이상	72.9	-	14.5	6.1	20.6	6.5	100.0	1.83	(56)
취업여부									
취업	79.4	0.8	9.0	10.2	20.1	0.4	100.0	2.23	(1,350)
비취업	82.3	0.8	8.2	7.6	16.6	1.1	100.0	2.15	(1,985)
가구소득									
60% 미만	78.5	1.0	8.8	10.8	20.7	0.8	100.0	2.19	(442)
60~80%	82.3	1.0	6.7	8.8	16.4	1.3	100.0	2.19	(794)
80~100%	83.5	0.8	7.9	7.0	15.7	0.8	100.0	2.11	(722)
100~120%	79.9	0.7	11.2	7.4	19.2	0.9	100.0	2.15	(354)
120~140%	81.3	0.4	9.8	8.0	18.2	0.5	100.0	2.13	(488)
140~160%	80.2	0.6	9.0	9.8	19.4	0.4	100.0	2.22	(261)
160% 이상	77.2	1.0	10.1	10.3	21.5	1.4	100.0	2.34	(185)

주: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3,3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취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 임신종결형태는 <표 9-3>에 제시되어 있다. 직종별 임신소모율은 서비스·판매직(21.8%), 생산·단순노무직 등(19.8%), 사무직(17.5%), 고위·(준)전문직(1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임신소모율이 높은 서비스·판매직과 생산·단순노무직 등의 직종에서 인공유산에 의한 임신소모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임신소모율이 2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횟수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소모율은 고용주·자영업자(18.3%)보다 임시·일용직(24.6%)에 종사한 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높은

임신소모율은 자연유산(10.8%)과 인공유산(13.1%)에 기인한다. 근로시간별로는 대체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수록 임신소모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당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여성의 임신소모율이 19.0%인 반면, 6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여성의 임신소모율은 25.7%로 이들 간 차이는 6.7%p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표 9-3〉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임신종결 형태별 구성비

(단위: %, 회, 명)

구분	정상 출생	임신소모				현임신	총임신	총임신 (평균)	(대상자)
		사산	자연유산	인공유산	소계				
전체	79.4	0.8	9.0	10.2	20.2	0.4	100.0	2.23	(1,350)
(평균)	1.77	0.02	0.20	0.23	0.45	0.01	2.23		
직종별									
고위·(준)전문직	80.7	1.0	7.3	8.6	16.9	2.4	100.0	2.07	(111)
사무직	81.6	0.7	10.0	6.9	17.5	0.8	100.0	2.03	(372)
서비스·판매직	77.9	0.9	9.1	11.8	21.8	0.3	100.0	2.34	(732)
생산·단순노무직 등	80.0	0.8	7.4	11.6	19.8	0.2	100.0	2.32	(124)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81.7	0.8	8.4	9.1	18.3	-	100.0	2.36	(273)
무급가족종사자	82.7	-	4.6	12.7	17.3	-	100.0	2.25	(54)
상용근로자	80.3	1.0	8.7	8.9	18.5	1.1	100.0	2.10	(667)
임시·일용근로자	75.3	0.7	10.8	13.1	24.6	0.1	100.0	2.38	(345)
근무시간									
36시간 미만	80.7	0.7	7.9	10.4	19.0	0.3	100.0	2.31	(182)
36~45시간	78.6	1.0	9.9	9.5	20.3	1.1	100.0	2.20	(489)
45~61시간	80.1	0.4	8.7	10.6	19.7	0.2	100.0	2.21	(563)
61시간 이상	74.3	3.0	10.1	12.5	25.7	-	100.0	2.50	(89)

주: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3,3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나. 임신소모와 출산간의 관계

출생자녀수 및 추가희망자녀수별 임신종결형태는 <표 9-4>에 제시되어 있다. 출생자녀수와 임신소모율은 부적관계를 보인다. 즉, 임신소모율은 무자녀인 경우 59.2%, 1자녀를 둔 경우 25.8%, 2자녀를 둔 경우 16.8%, 3자녀 이상을 둔 경우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신소모율은 인공유산(12.6%)보다 자연유산

(41.6%)에 기인한 것으로 생식보건문제로 인해 자녀출산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희망 자녀수별로 임신종결형태를 살펴보면, 추가희망자녀수와 평균 임신횟수간 뚜렷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추가희망자녀수가 많을수록 자연유산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9-4〉 출생자녀수 및 추가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20~44세)의 임신종결형태별 구성비

(단위: %, 회, 명)

구분	정상출생	임신소모				현임신	총임신	총임신 (평균)	(대상자)
		사산	자연유산	인공유산	소계				
전체	80.8	0.9	8.7	8.7	18.3	0.9	100.0	2.19	(3,335)
(평균)	1.77	0.02	0.19	0.19	0.40	0.02	2.19		
출생자녀수									
0명	-	4.9	41.6	12.6	59.2	40.8	100.0	1.29	(73)
1명	72.8	1.2	15.6	9.0	25.8	1.4	100.0	1.37	(953)
2명	83.1	0.8	6.8	9.2	16.8	0.1	100.0	2.39	(1,948)
3명 이상	88.5	0.4	5.2	5.7	11.4	0.1	100.0	3.40	(361)
추가희망자녀수									
0명	82.4	0.7	7.8	8.6	17.1	0.5	100.0	2.32	(2,472)
1명	75.5	1.6	12.6	6.2	20.4	4.1	100.0	1.50	(320)
2명 이상	74.5	2.4	13.7	2.8	18.9	6.6	100.0	1.55	(77)
모르겠음	76.2	0.8	11.2	10.2	22.2	1.6	100.0	2.05	(259)

주: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3,3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출산순위를 기준으로 임신종결 형태를 살펴보면(표 9-5), 전체적으로 출산간격 내 발생한 임신이 정상출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첫째아~둘째아 출산전 87.9%, 둘째아~셋째아 출산전 87.4%, 셋째아~넷째아 출산전 91.6%로 나타났다. 둘째아~셋째아 출산전의 임신이 정상출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인공유산에 의한 임신소모율(9.1%)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편, 첫째아 출산 전의 임신(0.17회) 모두는 정상출생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55.4%는 자연유산에 의해 그리고 33.0%는 인공유산에 의해 소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보건문제로 자녀 출산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순위별 임신종결형태를 20~34세 연령층과 35~44세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34세 연령층에 비해 35~44세 연령층의 정상출생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5〉 시기별 기혼여성(20~44세)의 임신종결형태별 구성비

(단위: %, 명)

구분	전체	첫째아 출산 전	첫째아- 둘째아출산전	둘째아- 셋째아출산전	셋째아- 넷째아출산전	넷째아-다섯 째아출산전	다섯째아 출산이후-현재
전체							
정상출생	81.1	-	87.9	87.4	91.6	85.7	100.0
사산	0.8	4.8	0.6	0.4	0.3	5.8	-
자연유산	8.5	55.4	5.9	2.9	3.2	-	-
인공유산	8.7	33.0	5.1	9.1	4.6	8.5	-
현임신	0.9	6.8	0.5	0.2	0.3	0.0	-
총임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임신)	2.19	0.17	1.14	1.14	1.09	1.17	1.00
(분석대상수)	(3,335)	(3,335)	(3,262)	(2,282)	(350)	(15)	(2)
20~34세							
정상출생	82.1	-	90.4	90.3	92.5	100.0	100.0
사산	0.7	3.0	0.8	-	-	-	-
자연유산	7.9	47.2	4.4	3.3	2.1	-	-
인공유산	6.9	32.8	3.3	6.0	5.4	-	-
현임신	2.4	17.0	1.2	0.5	-	-	-
총임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임신)	1.88	0.17	1.11	1.11	1.08	1.00	1.00
(분석대상수)	(1,062)	(1,062)	(1,011)	(533)	(88)	(2)	(2)
35~44세							
정상출생	80.7	-	86.8	86.5	91.3	83.6	100.0
사산	0.9	5.7	0.5	0.5	0.3	6.6	-
자연유산	8.8	59.4	6.6	2.9	3.5	-	-
인공유산	9.3	33.1	5.9	10.0	4.3	9.8	-
현임신	0.3	1.8	0.2	0.1	0.5	-	-
총임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임신)	2.33	0.17	1.15	1.16	1.09	1.20	1.00
(분석대상수)	(2,273)	(2,273)	(2,251)	(1,748)	(262)	(13)	(2)

주: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3,3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다. 인공임신중절 실태

(1) 인공임신중절경험 경험

기혼여성(20~44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실태를 살펴보면(표 9-6), 기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13.2%이며, 평균 인공임신중절 횟수는 0.18 회로 나타났다. 1회 경험은 9.6%, 2회 이상 반복 경험은 3.6%로 나타났다 (평균 0.18회). 2005년 조사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37.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인공임신중절 경험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별로도 상대적으로 가임기간이 길수록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출생아수별 인공임신중절 경험 횟수는 무자녀 기혼여성이 0.04회로 가장 낮고, 출생자녀가 2명인 경우가 0.22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명의 자녀를 출산 후 원치 않은 임신들을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취업 기혼여성에 비해 취업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이 높으며, 2회 이상 반복 경험률도 취업부인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기혼 여성의 직종별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서비스·판매직 및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각각 0.26회로 고위관리직·(준)전문직(0.16회), 사무직(0.12회)에서 종사하는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근로자가 0.2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무급가족종사자(0.27회), 고용주·자영업자(0.20회), 상용근로자(0.1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 기혼여성의 고용환경 등이 불안정한 경우의 인공임신중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6〉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인공임신중절 경험횟수 분포

(단위: %, 명, 회)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계 (명)	평균
전체	86.8	9.6	2.9	0.5	0.2	100.0 (3,561)	0.18
연령별							
20~24세	97.5	2.5	-	-	-	100.0 (40)	0.03
25~29세	94.3	4.3	1.1	0.3	-	100.0 (369)	0.07
30~34세	90.0	7.0	2.7	0.4	-	100.0 (817)	0.13
35~39세	85.4	11.0	2.9	0.4	0.3	100.0 (1,166)	0.19
40~44세	83.2	12.0	3.7	0.9	0.3	100.0 (1,170)	0.23
초혼연령별							
24세 이하	83.9	11.4	3.6	0.8	0.3	100.0 (1,247)	0.22
25~29세	87.4	9.3	2.7	0.5	0.1	100.0 (1,621)	0.17
30~34세	87.5	9.8	2.8	-	-	100.0 (399)	0.15
35세 이상	94.5	4.1	-	1.4	-	100.0 (73)	0.08
출생자녀수							
0명	96.7	2.7	0.7	-	-	100.0 (300)	0.04
1명	91.0	6.4	2.1	0.3	0.2	100.0 (953)	0.12
2명	83.4	12.2	3.6	0.6	0.2	100.0 (1,948)	0.22
3명이상	85.9	9.9	2.8	1.4	-	100.0 (362)	0.19

〈표 9-6〉 계속

(단위: %, 명, 회)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이상	계 (명)	평균
취업여부							
취업	84.4	11.3	3.7	0.5	0.1	100.0 (1,483)	0.21
비취업	88.5	8.4	2.4	0.6	0.2	100.0 (2,079)	0.16
직종별							
고위(준전문직)	87.0	10.6	2.4	-	-	100.0 (123)	0.16
사무직	90.4	7.6	1.8	0.2	-	100.0 (436)	0.12
서비스·판매직	81.0	13.1	5.0	0.6	0.3	100.0 (779)	0.26
생산·단순노무직 등	80.8	14.6	3.1	1.5	-	100.0 (130)	0.26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84.8	11.4	2.4	1.4	-	100.0 (289)	0.20
무급가족종사자	80.7	12.3	7.0	-	-	100.0 (57)	0.27
상용근로자	87.6	8.9	3.3	0.3	-	100.0 (757)	0.16
임시·일용근로자	78.1	16.2	4.9	0.3	0.5	100.0 (365)	0.29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례수 5 미만인 셀이 20%이상으로 χ^2 검증 제시하지 않음

기혼여성의 출생자녀 성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경험 비율은 <표 9-7>에 제시하였다. 1자녀를 둔 경우, 아들 1명만 둔 기혼여성의 경험률(10.1%)은 딸 1명만을 둔 부인(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아들만 2명을 둔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19.6%)이 아들1명과 딸1명(16.2%)을 두거나 딸2명(13.3%)만을 두고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9-7〉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성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경험 비율

(단위: %, 명)

구분	없음	1회	2회	3회이상	계 (명)
아들0명, 딸0명	96.7	2.7	0.7	0.0	100.0 (300)
아들1명, 딸0명	89.9	7.1	2.4	0.7	100.0 (552)
아들0명, 딸1명	93.1	5.4	1.5	0.0	100.0 (389)
아들2명, 딸0명	80.4	13.1	5.3	1.2	100.0 (510)
아들0명, 딸2명	86.7	10.5	1.8	0.9	100.0 (332)
아들1명, 딸1명	83.8	12.1	3.4	0.6	100.0 (1,103)
3명이상	85.9	9.9	2.8	1.4	100.0 (362)
계	86.8	9.6	2.9	0.7	100.0 (3,56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례수 5 미만인 셀이 20%이상으로 χ^2 검증 제시하지 않음

(2) 인공임신중절 시기 및 이유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순위를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 시기를 보면(표 9-8), 둘째아 출산부터 셋째아 출산 전에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첫째아 출산부터 둘째아 출산 전 30.0%로 나타났다. 1명 또는 2명의 자녀 출산 후 출산중단이나 연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첫째아 출산 전 시기에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비율도 29.4%로 높는데, 이는 여러 이유로 초산 시기를 늦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첫째아 출산 전에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한 비율은 33.3%이며, 둘째아 출산 전에는 35.8%, 셋째아 출산 전에 54.4%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아 출산 전까지는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인공임신중절 경험률도 증가한다.

〈표 9-8〉 기혼여성(20~44세)의 인공임신중절 회수 및 시기

(단위: %, 명)

인공임신중절 회수	인공임신중절시기					전체 ¹⁾
	첫째아 출산전	첫째아출산부터 ~ 둘째아출산전	둘째아출산부터 ~ 셋째아출산전	셋째아출산부터 ~ 넷째아출산전	넷째아출산부터 ~ 다섯째아출산전	
전체 ¹⁾	29.4	30.0	37.5	2.8	0.3	100.0
없음	66.7	64.2	45.6	65.8	65.3	85.9
1회	27.9	31.2	46.2	32.2	-	10.2
2회	4.6	4.0	7.2	2.0	34.7	3.1
3회	0.6	0.5	0.8	-	-	0.6
4회	0.0	0.1	0.2	-	-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²⁾	(470)	(460)	(371)	(17)	(2)	(3,335)

주:1) 전체는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율임.

2)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1회 이상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함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인공임신중절 횟수별 그 이유를 살펴보면(표 9-9),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의 이유로는 추가자녀 불원·단산이 3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산연기(14.7%), 혼전임신(14.4%), 터울조절(10.6%), 본인건강(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두 번째 인공임신중절 이유 중 혼전임신 이유는 미혼 여성의 성경험 증가 및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혼전임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혼전임신 대부분은 사회적 냉대가 심하고 보호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인공임신중절 이유도 추가자녀 불원·단산(3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산연기(13.3%), 터울조절(13.0%), 혼전임신(11.6%) 등으로 첫 번째 인공임신중절 이유와 비슷한 경향이다.

종합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이유는 추가자녀 불원·단산이 3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산연기(14.5%), 혼전임신(13.8%), 터울조절(10.7%), 본인건강(10.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혼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이 이전 조사결과 보다 많이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원치 않은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9〉 기혼여성(20~44세)의 시기별 인공임신중절 이유

(단위: %, 명)

인공임신중절 이유	인공임신중절 횟수					전체
	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	네번째	마지막	
추가자녀 불원·단산	30.8	36.7	51.7	-	-	32.4
출산연기	14.7	13.3	12.5	20.8	43.9	14.5
터울조절	10.6	13.0	3.6	-	-	10.7
본인건강	10.5	9.1	9.5	26.6	56.1	10.4
태아이상 판명·염려	7.5	5.4	-	-	-	6.8
유전전염병	0.2	-	-	-	-	0.2
태아 딸	0.5	0.7	-	-	-	0.5
혼전임신	14.4	11.6	10.0	28.2	-	13.8
경제적 이유	8.2	7.9	12.7	24.4	-	8.3
기타	2.6	2.2	-	-	-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49)	(114)	(19)	(3)	(2)	(587)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유배우여성의 불임실태

1. 피임미실천 여성의 임신 여부

피임은 사전에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임

을 실천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임미실 천 여성의 26.2%는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피임 중단 후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37.4%로 동부의 24.5%보다 12.9%p가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 여성보다는 30세 이상의 경우 비임신률이 더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출생자녀수별로는 무자녀의 경우 45.3%, 1명인 경우 27.0%가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집단은 임신 전 관리를 통해 원하는 시기에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임신조치로 태아의 발생에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표 9-10〉 유배우 여성(20~44세)의 특성별 피임미실천자의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되고 있지 않은 상태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χ^2
전체	26.2	73.8	100.0 (1,399)	
거주지				
동부	24.5	75.5	100.0 (1,212)	14.0***
읍·면부	37.4	62.6	100.0 (187)	
연령				
20~24세	20.8	79.2	100.0 (24)	5.1
25~29세	20.3	79.7	100.0 (182)	
30~34세	29.0	71.0	100.0 (348)	
35~39세	26.3	73.7	100.0 (411)	
40~44세	26.8	73.2	100.0 (433)	
출생자녀수				
0명	45.3	54.7	100.0 (179)	43.5***
1명	27.0	73.0	100.0 (459)	
2명	21.6	78.4	100.0 (647)	
3명이상	19.3	80.7	100.0 (114)	
추가희망자녀수				
0명	20.2	79.8	100.0 (898)	63.3***
1명	43.3	56.7	100.0 (247)	
2명이상	38.1	61.9	100.0 (105)	
모르겠음	22.6	77.4	100.0 (124)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 부부의 불임진찰 경험

1년 이상 임신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불임 진찰 경험비율(경험률)을 살펴보면(표 9-11), 기혼여성(20~44세)의 5.0%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경험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불임진찰 경험률은 20~39세까지 고연령층일수록 높으나, 출산 완료 연령층인 40~44세는 오히려 약간 낮게 나타났다. 35~39세 기혼여성 부부의 경험률은 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30~34세 5.5%로 비교적 고연령층 기혼여성 부부의 불임 진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불임진찰 경험여부를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무자녀의 경우 16.3%, 1자녀의 경우 6.1%, 2자녀의 경우 3.0% 등으로 무자녀 부부의 경험률이 가장 높다.

〈표 9-11〉 기혼여성(20~44세) 부부의 불임진찰 경험 비율

(단위: %, 명)

구 분	경험	미경험	계 (명)	χ^2
전체	5.0	95.0	100.0 (3,530)	
부인 연령				
20~24세	2.5	97.5	100.0 (40)	5.8
25~29세	3.8	96.2	100.0 (372)	
30~34세	5.5	94.5	100.0 (816)	
35~39세	5.9	94.1	100.0 (1,152)	
40~44세	4.2	95.8	100.0 (1,149)	
자녀수				
없음	16.3	83.7	100.0 (312)	105.2***
1명	6.1	93.9	100.0 (940)	
2명 이상	3.0	97.0	100.0 (2,279)	

* p <0.05, ** p <0.01, *** p <0.001

주: '불임 진찰'은 부인 또는 남편이 진찰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함.

<표 9-12>에서는 불임진찰 경험과 기혼여성의 초혼연령 간 관계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기혼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불임 진찰 비율이 높게 나타나, 초혼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3.8%, 30~34세인 경우 7.3%, 그리고 35세 이상인 경우 8.5%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 연령별 패턴도 전체적인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현재 20~34세 부인의 경우, 초혼연

령이 24세이하인 경우의 불임 진찰율은 4.1%인데 반해, 30~34세인 경우에는 7.9%로 약 2배정도 차이가 있다. 현재 35~44세 부인의 경우 초혼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의 불임진찰율은 8.6%로 24세 이하인 경우의 3.7%에 비해 4.9%p 높게 나타났다.

〈표 9-12〉 기혼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불임 진찰 비율

(단위: %, 명)

구 분	전체($\chi^2=10.0^*$)				20~34세($\chi^2=3.1$)				35~44세($\chi^2=7.3$)			
	있음	없음	계	(명)	있음	없음	계	(명)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5.0	95.0	100.0	(3,317)	4.9	95.1	100.0	(1,229)	5.0	95.0	100.0	(2,301)
초혼연령												
24세 이하	3.8	96.2	100.0	(1,230)	4.1	95.9	100.0	(395)	3.7	96.3	100.0	(835)
25~29세	5.4	94.6	100.0	(1,616)	5.1	94.9	100.0	(629)	5.6	94.4	100.0	(987)
30~34세	7.3	92.8	100.0	(400)	7.9	92.1	100.0	(126)	6.9	93.1	100.0	(275)
35세 이상	8.5	91.5	100.0	(71)	0.0	100.0	100.0	(1)	8.6	91.4	100.0	(7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불임 진찰'은 부인 또는 남편이 진찰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함.

불임 진찰을 받은 부부 중 18.7%(전체 기혼여성 기준 0.9%)는 의료기관에서 불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13). 불임 진찰을 받은 부부 중 현재 자녀가 없는 부부의 29.2%(전체 기혼여성 기준 4.5%), 1자녀가 있는 부부의 12.3%(전체 기혼여성 기준 0.7%)가 불임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3〉 자녀수별 불임 진찰 경험 부부의 불임 진단(판정) 여부

(단위: %, 명)

구 분	(불임진찰 경험률)	불임진찰부부의 불임진단(판정)여부			χ^2
		있음 ¹⁾	없음	계 (명)	
전체	(5.0)	18.7	81.3	100.0 (174)	
무자녀	(16.3)	29.2	70.8	100.0 (48)	5.0
1자녀	(6.1)	12.3	87.7	100.0 (57)	
2자녀 이상	(3.0)	17.4	82.6	100.0 (69)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불임 진찰'은 부인 또는 남편이 진찰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함.

의료기관에서 불임관정을 받은 부부들의 불임진단 시기는 <표 9-14>에 제시되어 있다. 불임관정 시기가 첫째아 출산 전인 경우는 84.3%, 첫째아 출산후~둘째아 출산전 기간인 경우는 15.7% 등으로 불임진단 시기는 첫째아 출산 전에 집중되어 있다.

<표 9-14> 불임진단을 받은 부부(기혼여성 20~44세 기준)의 불임진단 시기

구 분	비율	(명)
첫째아 출산전	84.3	(27)
첫째아 출산부터 둘째아출산전	15.7	(5)
계	100.0	(32)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불임 진단’은 부인 또는 남편이 진단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함.

3. 불임진단 경험여성의 임신소모 실태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부인의 임신소모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9-15>에 제시되어 있다(불임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결과에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부가 불임 진단을 받은 경우 부인의 21.9%, 부부가 불임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부인의 20.5%가 자연유산·사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9-15> 부부의 불임진찰 여부별 부인의 자연유산·사산횟수

구 분	없음	있음			소계	계 (명)	χ^2
		1회	2회	3회 이상			
전체	79.2	11.6	7.5	1.7	20.8	100.0 (173)	
불임진단 경험	78.1	12.5	9.4	0.0	21.9	100.0 (32)	0.9
불임진단 미경험	79.4	11.3	7.1	2.1	20.5	100.0 (14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부가 불임 진단을 받은 부인의 15.1%가 1회 이상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부부가 불임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부인의 6.4%가 인공임신중

절을 경험하였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표 9-16). 기존연구에서 불임 진단을 경험한 경우 부인의 임신소모 경험이 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제시되고 있으나 본연구의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하였다.

〈표 9-16〉 부부의 불임진단 여부별 부인의 인공임신중절횟수

(단위: %, 명)

구 분	없음	있음			계 (명)	χ^2
		1회	2회	소계		
전체	91.9	6.4	1.7	8.1	100.0 (175)	
불임진단경험	84.8	12.1	3.0	15.1	100.0 (33)	2.7
불임진단미경험	93.5	5.0	1.4	6.4	100.0 (139)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불임진단부부의 치료실태

불임진단을 받은 부부(부인기준 33명)의 불임치료여부를 살펴보면(표 9-17), 불임치료 중인 경우가 12.4%,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경우가 65.6%,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21.2%로 나타났다.

〈표 9-17〉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불임치료여부

(단위: %, 명)

구 분	비율	(명)
치료중이다	12.4	(4)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다	66.6	(22)
치료를 받지 않았다	21.2	(7)
계	100.0	(33)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불임 치료를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면(표 9-18), ‘경제적 부담’이 31.7%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치료에 성공해서’가 25.1%,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 22.9%, ‘영구불임판정을 받아서’ 10.2%, ‘시간이 없어서’가 5.6% 등으로 나타났다. 영구 불임 판정을 받은 불임 진단자 10.2%와 치료

에 성공해서 불임 치료를 중단한 경우 25.1%를 제외하면, 불임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중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불임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시도 횟수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유효사례수가 적어(시험관 아기 21명, 체외 인공수정 19명) 분석하지 않았다.

한편, 본 조사에서는 기혼여성(20~44세)의 쌍생아 등 다태아 출산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전체 기혼부인 중 1.1%가 1회의 출산에서 쌍생아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9-18〉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치료중단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 분	치료중단		미치료	
	비율	(명)	비율	(명)
경제적 부담	31.7	(7)	-	-
영구불임판정을 받아서	10.2	(2)	22.7	(1)
자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4.5	(1)	17.2	(1)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서	22.9	(5)	41.0	(2)
시간이 없어서	5.6	(1)	-	-
치료에 성공해서	25.1	(5)	19.1	(1)
계	100.0	(21)	100.0	(5)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유배우여성의 피임실태

본 절에서는 가임기에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의 피임실태를 파악하고, 피임실천 여성에게는 피임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하여, 피임미실천 여성에게는 피임을 전혀 하지 않거나 피임 중단 후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배우여성의 피임 목적

현재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유배우 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피임실천

목적은 살펴본 결과는 <표 9-19>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유배우 여성이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이유는 출산 중단이 85.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출산 연기(8.5%), 터울조절(3.0%), 본인건강(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는 출산 중단(88.5%)의 비율이 그리고 동부는 출산 연기(8.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 중단을 피임의 목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고(40~44세 93.6%, 35~39세 91.7%, 30~34세 77.2% 등), 연령이 적을수록 출산연기 및 터울조절을 위해 피임을 하고 있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배우여성의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자녀불원·출산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출생자녀수가 2명이상인 경우 출산중단을 위해 피임을 하고 있는 경우는 95%이상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추가자녀불원·출산중단 목적의 피임 비율은 20.3%로 비교적 높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 63.4%,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약 95% 이상이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실천하고 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출산연기 목적의 피임율은 19.6%이며, 터울조절 12.5%로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의 피임실천은 출산 중단(86.7%)을 이유로, 취업여성은 출산연기(10.4%) 이유가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직종별 피임실천 목적을 살펴보면, 출산중단의 비율이 생산·단순노무직(91.4%), 서비스·판매직(88.8%), 고위·(준)전문직(79.0%), 사무직(74.7%) 순이고, 출산연기 비율은 사무직(19.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위관리직·(준)전문직(11.3%), 서비스·판매직(6.3%)로 나타났다.

<표 9-19> 유배우 여성(20~44세)의 특성별 피임목적

(단위: %, 명)

구 분	피임이유					계 (명)	x ²
	출산중단	출산연기	터울조절	본인건강	기타		
전체	85.4	8.5	3.0	2.1	0.9	100.0 (1,830)	
지역							
동부	84.9	8.9	3.2	2.0	1.0	100.0 (1,569)	4.2
읍·면부	88.5	5.7	2.3	2.7	0.8	100.0 (262)	

〈표 9-19〉 계속

(단위: %, 명)

구 분	피임이유					계 (명)	χ^2
	출산중단	출산연기	터울조절	본인건강	기타		
연령							
20~24세	38.5	30.8	15.4	7.7	7.7	100.0 (13)	337.1***
25~29세	52.3	34.8	11.6	1.3	0.0	100.0 (155)	
30~34세	77.2	14.7	6.6	0.5	1.0	100.0 (408)	
35~39세	91.7	3.9	1.1	2.3	1.1	100.0 (665)	
40~44세	93.6	2.0	0.2	3.2	1.0	100.0 (590)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81.4	9.9	3.5	3.5	1.7	100.0 (172)	33.2
60~80% 미만	86.4	6.7	3.3	2.2	1.4	100.0 (418)	
80~100% 미만	86.1	6.3	3.9	2.2	1.5	100.0 (410)	
100%-120%	83.9	12.4	2.3	0.9	0.5	100.0 (217)	
120%-140%	89.2	6.7	1.7	2.4	-	100.0 (297)	
140%-160%	83.5	12.0	2.5	1.9	-	100.0 (158)	
160%이상	81.0	13.8	3.4	1.7	-	100.0 (116)	
출생자녀수							
0명	20.3	76.6	-	1.6	1.6	100.0 (64)	686.3***
1명	63.4	19.6	12.5	3.1	1.3	100.0 (383)	
2명	94.3	2.5	0.6	2.0	0.6	100.0 (1,158)	
3명이상	96.9	1.3	-	0.4	1.3	100.0 (223)	
취업여부							
취업	83.6	10.4	2.5	2.5	1.0	100.0 (768)	8.2
비취업	86.7	7.2	3.4	1.9	0.8	100.0 (1,062)	
직종별							
고위(준전문직)	79.0	11.3	4.8	4.8	-	100.0 (62)	42.1***
사무직	74.7	19.3	3.9	1.7	0.4	100.0 (233)	
서비스·판매직	88.8	6.3	1.3	2.3	1.3	100.0 (394)	
생산·단순노무직 등	91.4	2.9	1.4	2.9	1.4	100.0 (7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피임실천 여성의 피임 목적이 출산 중단 또는 출산 연기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표 9-20>에 제시하였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여가 즐기기 및 자아성취를 위해 자녀를 두지 않거나 출산을 연기하려는 이유가 2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소득이 적어서 17.0%,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12.8%,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 또는 사회활동의 지장 10.6% 등의 순이다.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 20.8%, 계획한 만큼 아이를 낳아서 14.3%, 소득이 적

어서 13.3%,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 12.5% 등의 순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획한 만큼 아이를 낳아서가 3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교육비용 때문 26.2%, 자녀양육비용 때문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출산 중단 또는 출산 연기 이유로는 계획한 수의 자녀 출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이 가장 많고, 무자녀 여성의 경우는 자아성취 또는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교육 및 양육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0〉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별 피임실천자 중 출산 중단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출생자녀수(Fisher's exact test)		
		0명	1명	2명 이상
소득이 적어서	7.4	17.0	13.3	5.9
실업 및 고용상태 불안정	2.6	6.4	2.5	2.5
주택미련이 어려워서	2.1	4.3	5.0	1.5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11.9	8.5	12.5	11.8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24.6	2.1	20.8	26.2
아이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2.4	6.4	6.5	1.4
직장차별, 사회활동 지장	2.1	10.6	4.7	1.2
자녀들의 장애 염려	3.7	4.3	3.9	3.6
여가 및 자아성취	2.4	23.4	4.7	1.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아이를 싫어해서	1.4	12.8	2.2	0.8
계획한만큼 아이를 낳아서	29.6	-	14.3	33.9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하거나 아이가 많아서	3.6	-	0.4	4.5
가족수발, 부부관계 불화, 부부불공평 분담	0.6	-	0.4	0.6
불임, 본인 또는 배우자 건강문제 때문에	0.6	-	1.4	0.5
나이가 많아서	4.6	-	7.5	4.2
기타	0.3	4.3	0.0	0.2
계(명)	100.0(1,625)	100.0(47)	100.0(279)	100.0(1,30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수 5 미만인 셀이 20%이상으로 χ^2 검증 제시하지 않음

유배우여성의 현 연령별로 출산 중단 및 연기 이유를 살펴보면(표 9-21), 25~29세의 경우, 자녀교육비용 때문(22.6%)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계획한 만큼 아이를 낳아서(15.7%), 자녀양육비용 때문(13.9%), 소득부족(12.2%)등의 순이다. 30세~34세의 경우에는 자녀교육비용 때문(23.4%), 계획한 만큼 아이를 낳아서(23.1%), 자녀양육비용 때문(17.3%) 등이 그리고 35~39세의 경우에는 계획한 만큼 자녀를 낳아서(35.7%), 자녀교육비

용 때문(23.4%), 자녀양육비용 때문(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0~44세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나이가 많아서의 이유가 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저연령층에서는 소득부족이나 양육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고연령층에서는 이미 계획한 만큼 자녀를 낳았거나 교육 비용 등을 이유로 출산을 중단 혹은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표 9-21〉 유배우 여성(20~44세)의 연령별 피임실천자 중 출산중단 및 연기이유

(단위: %, 명)

구 분	전체	유배우 여성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소득이 적어서	7.4	30.0	12.2	9.4	7.4	4.9
실업 및 고용상태 불안정	2.6	-	4.3	3.2	2.3	2.2
주택마련이 어려워서	2.2	20.0	3.5	4.4	1.1	1.3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11.9	20.0	13.9	17.3	11.3	8.6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24.6	10.0	22.6	23.4	23.4	27.4
아이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2.4	-	7.0	3.8	2.1	1.3
직장차별, 사회활동 지장	2.1	-	3.5	4.4	1.3	1.5
자녀들의 장래 염려	3.7	-	2.6	2.9	3.8	4.2
여가 및 자아성취	2.4	-	7.8	3.2	1.8	1.5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 아이를 싫어해서	1.4	10.0	2.6	0.6	1.1	2.0
계획한만큼 아이를 낳아서	29.6	-	15.7	23.1	35.7	30.3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하거나 아이가 많아서	3.6	-	1.7	2.9	3.4	4.6
가족수발, 부부관계 불화, 부부불공평 분담	0.6	-	0.9	0.3	0.7	0.4
불임, 본인 또는 배우자 건강문제 때문에	0.6	-	0.9	0.3	1.0	0.4
나이가 많아서	4.6	-	-	0.9	3.3	9.5
기타	0.3	10.0	0.9	-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625)	(10)	(115)	(342)	(611)	(548)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수 5 미만인 셀이 20%이상으로 χ^2 검증 제시하지 않음

가구소득수준별 피임실천자 중 출산 중단 및 연기 이유는 <표 9-22>에 제시되어 있다. 주로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 높게 나타나는데, 자녀교육비용부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결혼생활이 오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녀의 연령이 아직 어리기 때문일 것이다. 고소득층일수록 계획한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22〉 유배우 여성(20~44세)의 가구소득수준별 피임실천자 중 출산중단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국가구 평균소득						
		60%미만	60~80%	80~100%	100~120%	120~140%	140~160%	160%이상
소득이 적어서	7.4	16.8	13.4	4.4	6.2	2.2	1.5	6.1
실업 및 고용상태 불안정	2.6	8.1	3.4	2.2	1.0	0.7	0.8	3.1
주택마련이 어려워서	2.2	3.4	2.9	1.4	2.1	1.8	1.5	2.0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11.9	16.8	13.4	12.6	9.8	9.5	10.7	7.1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24.6	16.8	22.4	26.8	28.9	23.3	29.0	28.6
아이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2.4	2.0	2.1	2.2	3.1	3.6	1.5	-
직장차별, 사회활동 지장	2.1	1.3	1.6	2.5	0.5	3.3	3.8	4.1
자녀들의 장래 염려	3.7	2.0	2.4	2.5	6.7	4.7	6.1	2.0
여가 및 자아성취	2.4	1.3	1.1	2.2	3.6	3.6	2.3	4.1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 아이를 싫어해서	1.4	1.3	1.3	0.8	1.0	2.5	2.3	1.0
계획한 만큼 아이를 낳아서	29.6	20.1	28.4	30.6	31.4	31.6	32.1	32.7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하거나 아이가 많아서	3.6	3.4	2.4	4.6	3.6	4.7	2.3	1.0
가족수발, 부부관계 불화, 부부불공평 분담	0.6	-	1.1	-	0.5	1.5	-	1.0
불임, 본인 또는 배우자 건강문제 때문에	0.6	1.3	0.5	0.5	-	1.1	0.8	1.0
나이가 많아서	4.6	4.7	3.4	6.3	1.5	5.5	5.3	6.1
기타	0.3	0.7	0.3	0.5	-	0.4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625)	(149)	(380)	(366)	(194)	(275)	(131)	(98)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사례수 5 미만인 셀이 20%이상으로 χ^2 검증 제시하지 않음

취업 여부별 출산 중단 및 연기 이유(표 9-23)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에서 공통적으로 출산완료, 자녀교육비용, 자녀양육비, 소득부족, 나이가 많아서 순으로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취업 여성의 경우 아이 돌볼 사람·시설 부족, 직장차별 및 사회활동 지장, 여가 및 자아성취 이유가, 비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비부담, 소득부족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직종별로는 대체적으로 출산완료, 자녀 교육비용, 자녀 양육비용, 소득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무직의 경우 직장차별 및 사회활동 지장, 여가 및 자아성취를 위하여가 그리고 생산·단순노무직의 경우 소득부족, 아이 돌볼 사람·시설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희망출산완료, 자녀 교육 및 양육 비용 부담, 소득부족 등이 출산 중단 또는 연기의 주된 이유들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출산완료(40.0%)가 매우 높으며,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 직장 차별 및 사회활동의 지장, 여가 및 자아성취 출산 중단·연기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9-23〉 유배우 여성(20~44세)의 취업여부별 및 직종별 피임실천자중 출산중단이유

(단위: %, 명)

구 분	취업($\chi^2=32.40^{**}$)		직 종($\chi^2=61.72^*$)				종사상 지위($\chi^2=50.67$)			
	취업	비취업	고위·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단순노무직등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직
①	6.1	8.4	7.5	3.6	5.8	11.1	7.8	2.9	5.1	7.0
②	2.4	2.7	1.9	1.6	3.1	1.6	2.6	2.9	1.2	3.8
③	1.8	2.3	1.9	1.0	2.5	0.0	2.6	0.0	2.4	0.5
④	9.7	13.4	11.3	9.4	10.3	7.9	11.3	14.3	6.9	13.0
⑤	24.7	24.5	13.2	21.9	27.3	25.4	22.6	28.6	24.7	23.8
⑥	4.0	1.4	3.8	4.7	2.8	9.5	3.5	5.7	3.9	4.9
⑦	3.1	1.5	5.7	6.3	1.4	0.0	2.6	0.0	4.8	1.1
⑧	3.4	4.0	0.0	2.6	4.7	0.0	4.3	0.0	4.2	2.2
⑨	3.1	1.9	1.9	6.3	2.2	0.0	1.7	0.0	3.9	3.2
⑩	2.1	1.0	3.8	2.1	1.7	1.6	0.9	0.0	1.8	3.2
⑪	30.5	28.8	39.6	32.8	28.1	31.7	29.6	40.0	32.8	25.4
⑫	3.1	4.0	1.9	3.6	3.1	4.8	3.5	0.0	3.6	2.7
⑬	0.6	0.5	0.0	0.5	0.8	0.0	0.0	2.9	0.3	1.1
⑭	0.4	0.7	0.0	0.5	0.6	0.0	1.7	0.0	0.3	0.0
⑮	4.8	4.5	5.7	3.1	5.3	6.3	5.2	2.9	3.6	7.6
⑯	0.1	0.3	1.9	0.0	0.3	0.0	0.0	0.0	0.3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72)	(954)	(53)	(192)	(359)	(63)	(115)	(35)	(332)	(18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①소득이 적어서, ②실업 및 고용상태 불안정, ③주택마련이 어려워서, ④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⑤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⑥아이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⑦직장차별, 사회활동 지장, ⑧자녀들의 장애 염려, ⑨여가 및 자아성취, ⑩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아이를 싫어해서, ⑪계획한만큼 아이를 낳아서, ⑫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하거나 아이가 많아서, ⑬가족수발, 부부관계 불화, 부부불공평 분담, ⑭불임, 본인 또는 배우자 건강문제 때문에, ⑮나이가 많아서, ⑯기타

제10장 기혼여성의 출산 동향

제1 절 기혼여성의 자녀에 관한 태도

1. 기혼여성의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자녀필요성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1>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89.0%가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가져야 함+갖는 것이 좋음)를 나타냈으며, 특히 24.8%는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기혼여성은 9.7%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원졸업 이상 고학력집단과 중졸 이하의 저학력집단에서 고졸과 대졸 학력집단에 비해 자녀필요성에 대해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이 자녀양육·교육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현존 자녀수별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취업 중인 기혼여성이 비취업 기혼여성에 비해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취업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자녀양육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와 연령별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10-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특 성						(단위: %)
	반드시 가져야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 겠음	계 (명)	χ^2
전체	24.8	64.2	9.7	1.3	100.0 (3,574)	
거주지						
동부	24.4	64.9	9.4	1.2	100.0 (3,069)	4.4
읍·면부	27.4	60.1	11.1	1.4	100.0 (504)	
연령별						
20~24세	35.0	52.5	10.0	2.5	100.0 (40)	
25~29세	21.8	64.9	11.2	2.1	100.0 (376)	
30~34세	24.1	65.3	9.5	1.1	100.0 (825)	10.5
35~39세	25.8	63.9	9.4	0.9	100.0 (1,167)	
40~44세	25.0	63.9	9.7	1.5	100.0 (1,166)	
교육수준						
중졸 이하	24.5	60.9	13.6	0.9	100.0 (110)	
고졸	26.6	62.1	10.1	1.2	100.0 (1,943)	19.8*
대졸	22.7	67.5	8.5	1.3	100.0 (1,476)	
대학원졸 이상	17.8	60.0	20.0	2.2	100.0 (45)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24.1	61.4	13.6	0.8	100.0 (477)	
60~80%	21.5	66.2	11.2	1.1	100.0 (854)	
80~100%	25.8	63.0	9.8	1.4	100.0 (765)	43.9**
100~120%	23.6	67.4	7.8	1.3	100.0 (386)	
120~140%	25.8	65.1	7.2	1.9	100.0 (527)	
140~160%	23.1	67.4	8.8	0.7	100.0 (273)	
160% 이상	36.2	59.2	4.1	0.5	100.0 (196)	
출생자녀수						
0명	19.9	59.0	18.9	2.2	100.0 (317)	
1명	24.0	65.2	9.8	1.1	100.0 (951)	43.1***
2명	25.3	65.2	8.3	1.2	100.0 (1,943)	
3명이상	28.8	61.2	8.9	1.1	100.0 (361)	
취업여부						
취업	25.8	61.5	11.0	1.7	100.0 (1,497)	12.1**
비취업	24.2	66.2	8.7	1.0	100.0 (2,077)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취업 중인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로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는 <표 10-2>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직종, 종사상지위 및 근로소득별로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표 10-2〉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전체 (계)	χ^2
전체	25.8	61.5	11.0	1.7	100.0 (1,497)	
직종						
고위·(준)전문직	31.1	59.8	8.2	0.8	100.0 (122)	10.1
사무직	24.7	62.2	10.2	2.9	100.0 (442)	
서비스·판매업	25.8	60.8	12.2	1.3	100.0 (790)	
생산·단순노무직 등	24.4	63.4	11.5	0.8	100.0 (131)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23.9	62.4	12.3	1.4	100.0 (351)	6.2
상용근로자	25.2	63.0	9.8	2.0	100.0 (765)	
임시일용근로자	29.1	57.3	12.2	1.4	100.0 (368)	
근로(사업)소득						
100만원미만	28.4	59.7	11.2	0.7	100.0 (278)	10.1
100~150만원	24.2	61.7	11.5	2.6	100.0 (462)	
150~200만원	28.7	61.0	9.0	1.3	100.0 (300)	
200만원이상	23.4	63.4	12.1	1.1	100.0 (372)	
근로시간						
36시간미만	32.3	56.8	10.4	0.5	100.0 (192)	17.5*
36~45시간	29.2	58.6	10.3	1.8	100.0 (551)	
45~61시간	20.9	65.2	12.0	1.9	100.0 (632)	
61시간이상	23.9	64.1	10.9	1.1	100.0 (92)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3>에 제시되어 있다. 동 진술에 대해 기혼여성의 95.6%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였다. 동 진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동 진술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0-3〉 기혼여성(20~44세)의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 성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찬성 않음	계 (명)	χ^2
전체	40.6	55.0	4.0	0.4	100.0 (3,564)	
거주지						
동부	39.1	56.6	3.9	0.4	100.0 (3,059)	22.9***
읍·면부	49.6	45.3	4.7	0.4	100.0 (506)	
연령별						
20~24세	61.0	31.7	2.4	4.9	100.0 (41)	32.8**
25~29세	42.2	52.4	4.8	0.5	100.0 (374)	
30~34세	40.9	54.1	4.6	0.4	100.0 (822)	
35~39세	39.9	55.8	4.0	0.4	100.0 (1,164)	
40~44세	39.8	56.5	3.4	0.3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44.0	49.5	4.6	1.8	100.0 (109)	8.9
고졸 이하	40.7	54.9	4.1	0.3	100.0 (1,936)	
대졸 이하	40.0	55.9	3.7	0.5	100.0 (1,475)	
대학원졸 이상	47.7	47.7	4.5	-	100.0 (44)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44.5	50.6	4.0	0.8	100.0 (474)	56.2***
60~80%	43.7	51.2	4.7	0.4	100.0 (853)	
80~100%	42.2	53.9	2.9	1.1	100.0 (761)	
100~120%	35.2	60.9	3.9	-	100.0 (386)	
120~140%	33.3	62.7	4.0	-	100.0 (525)	
140~160%	33.2	63.5	3.3	-	100.0 (274)	
160% 이상	48.2	47.7	4.1	-	100.0 (195)	
출생자녀수						
0명	35.9	54.0	8.6	1.6	100.0 (315)	40.0***
1명	41.4	54.7	3.7	0.2	100.0 (951)	
2명	39.7	56.4	3.5	0.4	100.0 (1,939)	
3명이상	47.1	49.0	3.9	-	100.0 (361)	
취업여부						
취업	41.3	54.9	3.6	0.3	100.0 (1,492)	3.1
비취업	40.0	55.1	4.3	0.5	100.0 (2,073)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라는 진술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4>에 제시되어 있다. 동 진술에 대해 기혼 여성의 91.1%가 찬성하였다.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 동 진술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보편적인 경향으로 간주될 수 있다.

〈표 10-4〉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진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 성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찬성않음	계 (명)	χ^2
전체	42.0	49.1	8.4	0.5	100.0 (3,563)	
거주지						
동부	41.6	49.8	8.1	0.5	100.0 (3,058)	6.1
읍·면부	44.0	45.0	10.3	0.8	100.0 (505)	
연령별						
20~24세	55.0	40.0	5.0	-	100.0 (40)	16.7
25~29세	42.0	49.2	7.8	1.1	100.0 (374)	
30~34세	43.4	49.3	7.1	0.2	100.0 (822)	
35~39세	40.5	50.2	9.1	0.2	100.0 (1,164)	
40~44세	41.8	48.2	9.1	0.9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41.3	50.5	5.5	2.8	100.0 (109)	15.9
고졸	41.1	49.8	8.6	0.5	100.0 (1,937)	
대졸	42.9	48.4	8.2	0.4	100.0 (1,474)	
대학원졸 이상	45.5	40.9	13.6		100.0 (44)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41.5	46.3	11.4	0.8	100.0 (475)	23.3
60~80%	41.8	50.4	7.5	0.4	100.0 (852)	
80~100%	42.9	48.7	7.5	0.9	100.0 (760)	
100~120%	41.7	47.9	10.4	-	100.0 (386)	
120~140%	42.0	49.4	8.4	0.2	100.0 (526)	
140~160%	39.3	53.1	7.6	-	100.0 (275)	
160% 이상	46.4	46.4	6.1	1.0	100.0 (196)	
출생자녀수						
0명	41.0	48.3	9.2	1.6	100.0 (315)	15.5
1명	44.9	46.4	8.4	0.2	100.0 (950)	
2명	41.0	50.1	8.5	0.4	100.0 (1,939)	
3명이상	40.2	51.8	7.5	0.6	100.0 (361)	
취업여부						
취업	42.7	48.5	8.1	0.7	100.0 (1,491)	2.2
비취업	41.4	49.6	8.6	0.4	100.0 (2,072)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라는 진술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5>에 제시되어 있다. 동 진술에 대해 기혼여성의 81.5%가 찬성하였다. 동 진술에 대한 찬성태도는 도시거주 기혼여성

이 농촌거주 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출생자녀수 및 취업여부별 동 진술에 대한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10-5〉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진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 성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찬성 않음	계 (명)	χ^2
전체	28.2	53.3	16.2	2.3	100.0 (3,562)	
거주지						
동부	27.5	54.5	16.3	1.7	100.0 (3,056)	43.9***
읍·면부	32.6	45.8	15.6	5.9	100.0 (506)	
연령별						
20~24세	24.4	58.5	17.1	-	100.0 (41)	9.6
25~29세	28.6	50.5	18.2	2.7	100.0 (374)	
30~34세	26.7	55.8	14.8	2.7	100.0 (823)	
35~39세	28.8	51.8	17.5	1.9	100.0 (1,162)	
40~44세	28.7	53.7	15.2	2.4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33.3	48.1	18.5	-	100.0 (108)	14.8
고졸	28.3	52.9	15.9	2.9	100.0 (1,936)	
대졸	28.2	53.7	16.4	1.7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15.9	65.9	18.2	-	100.0 (44)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30.1	51.8	15.6	2.5	100.0 (475)	12.4
60~80%	28.4	52.9	16.0	2.7	100.0 (852)	
80~100%	28.4	52.8	17.0	1.8	100.0 (760)	
100~120%	29.5	53.4	13.5	3.6	100.0 (386)	
120~140%	26.0	53.8	18.3	1.9	100.0 (524)	
140~160%	28.0	53.5	16.0	2.5	100.0 (275)	
160% 이상	31.1	50.0	17.3	1.0	100.0 (196)	
출생자녀수						
0명	26.3	51.1	19.0	3.5	100.0 (315)	12.1
1명	30.1	52.9	14.6	2.3	100.0 (950)	
2명	27.2	54.6	16.1	2.1	100.0 (1,937)	
3명이상	30.9	48.5	18.4	2.2	100.0 (59)	
취업여부						
취업	30.2	51.4	15.8	2.6	100.0 (1,491)	6.6
비취업	26.9	54.6	16.5	2.0	100.0 (2,07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진술에 대해 기혼여성의 48.5%만 찬성하여 찬반 태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6).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출생자녀수 및 취업여부별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다만, 농촌 보다 도시에서 그리고 저소득층 기혼여성일 수록 자녀의 노후 경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6〉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 성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찬성 않음	계 (명)	χ^2
전체	11.9	36.6	39.5	12.0	100.0 (3558)	
거주지						
동부	12.1	37.5	38.6	11.8	100.0 (3054)	11.1*
읍·면부	10.5	31.2	44.6	13.7	100.0 (504)	
연령별						
20~24세	19.5	39.0	31.7	9.8	100.0 (41)	15.8
25~29세	9.7	34.2	42.6	13.5	100.0 (371)	
30~34세	11.1	35.2	40.3	13.4	100.0 (823)	
35~39세	11.3	36.5	40.2	12.0	100.0 (1161)	
40~44세	13.6	38.3	37.4	10.7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0	38.0	38.9	11.1	100.0 (108)	11.0
고졸	11.2	38.1	38.9	11.9	100.0 (1935)	
대졸	13.0	34.6	40.4	12.0	100.0 (1472)	
대학원졸 이상	9.3	30.2	37.2	23.3	100.0 (43)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11.2	33.5	42.9	12.4	100.0 (475)	41.8**
60~80%	9.7	35.6	42.7	12.0	100.0 (852)	
80~100%	12.4	38.0	37.3	12.3	100.0 (757)	
100~120%	18.2	39.2	34.0	8.6	100.0 (385)	
120~140%	13.3	36.2	40.2	10.3	100.0 (525)	
140~160%	9.5	43.4	36.1	10.9	100.0 (274)	
160% 이상	9.7	34.2	40.3	15.8	100.0 (196)	
출생자녀수						
0명	11.1	34.7	39.2	15.0	100.0 (314)	8.4
1명	12.9	34.5	40.7	12.0	100.0 (949)	
2명	11.8	37.8	39.0	11.3	100.0 (1934)	
3명이상	10.3	36.9	39.2	13.6	100.0 (360)	
취업여부						
취업	12.4	36.3	38.8	12.6	100.0 (1488)	1.4
비취업	11.6	36.8	40.0	11.6	100.0 (207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진술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7>에 제시되어 있다. 동 진술에 대해 기혼여성의 48.0%만 찬성하여,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문계승을 위한 자녀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는 고연령층과 고소득층 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 교육수준, 출생자녀 수 및 취업여부별로 동 진술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10-7> 기혼여성(20~44세)의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진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 성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찬성 않음	계 (명)	χ^2
전체	11.5	36.5	37.4	14.6	100.0 (3,562)	
거주지						
동부	11.6	37.4	36.8	14.3	100.0 (3,059)	7.7
읍·면부	11.3	31.3	40.9	16.5	100.0 (504)	
연령별						
20~24세	15.0	30.0	30.0	25.0	100.0 (40)	28.8**
25~29세	11.8	33.7	34.8	19.8	100.0 (374)	
30~34세	10.6	35.4	37.8	16.2	100.0 (822)	
35~39세	10.7	35.5	40.3	13.4	100.0 (1,163)	
40~44세	12.8	39.4	35.2	12.6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7	22.2	45.4	16.7	100.0 (108)	15.5
고졸	11.6	36.4	36.9	15.1	100.0 (1,937)	
대졸	11.2	38.0	37.0	13.8	100.0 (1,475)	
대학원졸 이상	11.4	25.0	50.0	13.6	100.0 (44)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11.8	29.8	38.9	19.5	100.0 (473)	64.4***
60~80%	10.9	32.2	38.4	18.5	100.0 (852)	
80~100%	12.1	37.2	36.4	14.2	100.0 (760)	
100~120%	14.5	41.6	33.0	10.9	100.0 (385)	
120~140%	12.4	40.8	36.2	10.7	100.0 (525)	
140~160%	9.5	42.5	38.9	9.1	100.0 (275)	
160% 이상	7.2	44.1	35.9	12.8	100.0 (195)	
출생자녀수						
0명	7.0	34.3	40.6	18.1	100.0 (315)	16.9
1명	12.9	36.0	35.9	15.2	100.0 (950)	
2명	12.0	37.3	37.1	13.6	100.0 (1,938)	
3명이상	8.9	36.0	39.7	15.4	100.0 (358)	
취업여부						
취업	11.5	37.4	38.2	12.9	100.0 (1,491)	6.2
비취업	11.5	35.8	36.8	15.8	100.0 (2,07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진술에 대한 기혼 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8>에 제시되어 있다. 동 진술에 대해 기혼여성의 55.6%가 찬성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진술에 대한 기혼여성의 긍정적인 태도는 고연령층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그리고 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와 교육 수준, 자녀수별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10-8> 기혼여성(20~44세)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진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 성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찬성 않음	계 (명)	χ^2
전체	11.9	43.7	34.6	9.8	100.0 (3,562)	
거주지						
동부	12.2	44.2	34.0	9.6	100.0 (3,058)	6.3
읍·면부	9.9	40.8	38.2	11.1	100.0 (503)	
연령별						
20~24세	17.1	36.6	31.7	14.6	100.0 (41)	32.6**
25~29세	11.7	37.9	34.9	15.5	100.0 (375)	
30~34세	10.3	42.9	35.6	11.1	100.0 (822)	
35~39세	12.2	43.0	35.9	8.9	100.0 (1,163)	
40~44세	12.6	47.1	32.4	7.8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3	43.9	41.1	4.7	100.0 (107)	12.8
고졸	10.7	44.1	34.8	10.3	100.0 (1,937)	
대졸	13.6	43.0	33.7	9.7	100.0 (1,474)	
대학원졸 이상	14.0	46.5	34.9	4.7	100.0 (43)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11.6	36.5	39.0	12.9	100.0 (474)	70.5***
60~80%	10.6	39.8	37.1	12.6	100.0 (852)	
80~100%	12.9	44.2	33.8	9.1	100.0 (760)	
100~120%	14.3	54.0	24.2	7.5	100.0 (385)	
120~140%	12.0	45.1	36.9	6.1	100.0 (526)	
140~160%	11.7	51.5	30.3	6.6	100.0 (274)	
160% 이상	11.8	46.7	34.4	7.2	100.0 (438)	
출생자녀수						
0명	11.4	38.9	38.3	11.4	100.0 (316)	16.4
1명	10.5	43.4	35.3	10.8	100.0 (950)	
2명	13.0	44.7	33.8	8.6	100.0 (1,939)	
3명이상	10.3	43.2	33.7	12.8	100.0 (359)	
취업여부						
취업	11.9	45.7	34.3	8.1	100.0 (1,493)	10.3*
비취업	11.9	42.3	34.8	11.1	100.0 (2,07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라는 진술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9>에 제시되어 있다. 동 진술에 대해 기혼여성의 63.6%가 찬성하여, 약 40%는 자녀양육의 시간적 부담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연령층 및 저소득층 기혼여성에게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활동이 활발하고, 저소득일수록 자녀양육의 경제적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혼여성의 연령과 취업여부별 동 진술에 대한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미하다.

<표 10-9>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진술에 대한 태도

특 성	태도				계 (명)	χ^2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찬성 않음		
전체	11.3	52.3	29.9	6.4	100.0 (3,564)	
거주지						
동부	11.7	52.6	29.4	6.2	100.0 (3,058)	5.7
읍·면부	9.1	50.5	33.1	7.3	100.0 (505)	
연령별						
20~24세	24.4	41.5	24.4	9.8	100.0 (41)	22.2*
25~29세	9.6	52.9	29.4	8.0	100.0 (374)	
30~34세	11.1	52.3	29.1	7.5	100.0 (822)	
35~39세	11.4	53.3	28.5	6.8	100.0 (1,163)	
40~44세	11.5	51.5	32.4	4.6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5	52.3	24.8	6.4	100.0 (109)	9.3
고졸	11.6	50.9	30.6	6.9	100.0 (1,937)	
대졸	10.6	54.4	29.3	5.7	100.0 (1,475)	
대학원졸 이상	11.6	46.5	34.9	7.0	100.0 (43)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14.6	44.3	33.5	7.6	100.0 (474)	60.4***
60~80%	11.9	51.2	28.6	8.3	100.0 (852)	
80~100%	12.4	53.7	28.9	5.0	100.0 (760)	
100~120%	13.2	55.3	27.9	3.6	100.0 (387)	
120~140%	7.6	56.1	30.6	5.7	100.0 (526)	
140~160%	6.5	60.0	30.9	2.5	100.0 (275)	
160% 이상	10.2	48.0	31.1	10.7	100.0 (196)	
출생자녀수						
0명	14.6	49.0	30.3	6.1	100.0 (314)	16.7
1명	10.6	51.7	30.7	6.9	100.0 (950)	
2명	11.0	54.1	29.3	5.6	100.0 (1,939)	
3명이상	12.2	47.5	30.6	9.7	100.0 (360)	
취업여부						
취업	11.2	51.2	30.6	7.0	100.0 (1,492)	2.3
비취업	11.4	53.1	29.4	6.0	100.0 (2,073)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진술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10>에 제시되어 있다. 동 진술에 대해 기혼여성의 56.3%가 찬성하여, 결혼과 자녀출산을 연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낮음을 엿볼 수 있다. 동 진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농촌거주, 고학력층, 고소득층, 다출산 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과 취업여부별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표 10-10>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 없다” 진술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 성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않음	찬성 않음	계 (명)	χ^2
전체	11.0	45.3	34.8	8.9	100.0 (3,562)	
지역						
동부	11.3	46.7	33.2	8.8	100.0 (3,055)	25.2***
읍·면부	9.1	37.2	44.0	9.7	100.0 (505)	
연령별						
20~24세	17.1	39.0	29.3	14.6	100.0 (41)	7.0
25~29세	10.7	47.7	32.2	9.4	100.0 (373)	
30~34세	11.1	45.6	33.8	9.6	100.0 (823)	
35~39세	10.9	44.8	36.1	8.2	100.0 (1,164)	
40~44세	10.8	45.2	35.2	8.8	100.0 (1,16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5.0	41.1	31.8	12.1	100.0 (107)	22.6**
고졸	10.7	44.6	35.3	9.4	100.0 (1,936)	
대졸	10.5	47.2	34.0	8.3	100.0 (1,473)	
대학원졸 이상	27.3	29.5	40.9	2.3	100.0 (44)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12.0	42.7	36.0	9.3	100.0 (475)	76.0***
60~80%	10.8	42.5	36.3	10.4	100.0 (852)	
80~100%	13.9	44.1	31.7	10.3	100.0 (760)	
100~120% 미만	11.1	52.3	29.0	7.5	100.0 (386)	
120~140%	7.2	52.4	35.8	4.6	100.0 (525)	
140~160%	8.4	50.4	34.3	6.9	100.0 (274)	
160% 이상	5.1	34.9	46.2	13.8	100.0 (195)	
출생자녀수						
0명	16.5	45.4	29.8	8.3	100.0 (315)	21.7*
1명	10.3	46.7	34.4	8.6	100.0 (949)	
2명	10.7	45.7	35.0	8.6	100.0 (1,938)	
3명이상	9.2	40.0	38.6	12.2	100.0 (360)	
취업여부						
취업	11.3	44.8	36.4	7.6	100.0 (1,492)	7.6
비취업	10.8	45.7	33.6	9.9	100.0 (2,070)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녀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진술들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11>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기혼여성들이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경향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생에 가치, 부부관계 공고화, 노후 소외감 감소 등과 관련한 자녀 가치들에 80~100% 찬성하고 있다. 반면, 기혼여성들 사이에 노후 경제적 지원과 가문계승이라는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은 낮아, 절반이하만이 찬성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사회적 의무로 간주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하여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절반이상의 기혼여성들이 찬성하고 있다.

<표 10-11> 기혼여성(20~44세)의 다양한 자녀 가치에 관한 태도

하고 있다. (단위: %)

진술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않음	찬성 않음	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40.6	55.0	4.0	0.4	100.0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	42.0	49.1	8.4	0.5	100.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28.2	53.3	16.2	2.3	100.0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9	36.6	39.5	12.0	100.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11.5	36.5	37.4	14.6	100.0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11.9	43.7	34.6	9.8	100.0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11.3	52.3	29.9	6.4	100.0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 없다	11.0	45.3	34.8	8.9	100.0

3.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에 관한 태도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라는 자녀의 형제자매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12>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기혼여성의 94.8%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동 견해에 대한 찬성 비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농촌 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2〉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 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않음	전혀찬성 하지않음	계(명)	χ^2
전체	40.4	54.4	4.8	0.3	100.0 (3,565)	
거주지						
동부	39.5	55.4	4.8	0.3	100.0 (3,060)	11.5**
읍·면부	45.8	48.6	4.7	0.8	100.0 (506)	
연령						
20~24세	48.8	46.3	4.9		100.0 (41)	16.5
25~29세	38.2	59.4	1.9	0.5	100.0 (374)	
30~34세	40.7	53.1	5.7	0.5	100.0 (825)	
35~39세	39.8	54.8	5.3	0.1	100.0 (1,163)	
40~44세	41.3	53.7	4.6	0.4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43.5	52.8	3.7		100.0 (108)	2.1
고졸	40.2	54.6	4.9	0.4	100.0 (1,937)	
대졸	40.3	54.6	4.7	0.3	100.0 (1,475)	
대학원 이상	47.7	47.7	4.5		100.0 (44)	
취업여부						
취업	40.1	54.7	5.0	0.3	100.0 (1,493)	1.1
비취업	40.7	54.3	4.6	0.4	100.0 (2,073)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라는 자녀의 형제자매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13>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기혼여성의 58.2%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다소 찬반의 태도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물리적(돌봄) 부담 간의 비교적인 관점에서 태도가 양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혼여성의 동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농촌 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3〉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않음	전혀찬성 하지않음	계(명)	χ^2
전체	18.7	39.5	33.3	8.6	100.0 (3,564)	
거주지						
동부	19.5	39.5	32.9	8.2	100.0 (3,058)	13.1**
읍·면부	13.8	39.3	35.6	11.3	100.0 (506)	
연령						
20~24세	22.5	32.5	32.5	12.5	100.0 (40)	13.4
25~29세	21.4	34.6	36.2	7.8	100.0 (373)	
30~34세	17.8	40.8	33.6	7.8	100.0 (824)	
35~39세	17.0	39.4	34.3	9.2	100.0 (1,162)	
40~44세	19.8	40.5	31.0	8.7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5	41.7	26.9	13.0	100.0 (108)	11.2
고졸	18.3	39.5	32.7	9.5	100.0 (1,936)	
대졸	19.2	39.1	34.6	7.1	100.0 (1,475)	
대학원 이상	18.6	44.2	27.9	9.3	100.0 (43)	
취업여부						
취업	19.7	38.1	33.9	8.2	100.0 (1,491)	3.4
비취업	17.9	40.5	32.8	8.8	100.0 (2,07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라는 자녀의 형제자매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14>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기혼여성의 93.0%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대부분 기혼여성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동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은 고연령층이나 저학력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4〉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 (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않음	전혀찬성 하지않음	계(명)	χ^2
전체	44.3	48.7	6.3	0.7	100.0 (3,565)	
거주지						
동부	43.5	49.2	6.4	0.8	100.0 (3,060)	7.2
읍·면부	49.0	45.3	5.5	0.2	100.0 (506)	
연령						
20~24세	56.1	34.1	7.3	2.4	100.0 (41)	26.3*
25~29세	47.6	44.4	5.9	2.1	100.0 (374)	
30~34세	44.8	48.3	6.2	0.7	100.0 (824)	
35~39세	41.7	51.9	6.1	0.3	100.0 (1,165)	
40~44세	45.1	47.5	6.7	0.7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51.9	41.7	3.7	2.8	100.0 (108)	21.0*
고졸	41.9	50.5	6.9	0.7	100.0 (1,937)	
대졸	46.7	47.1	5.5	0.7	100.0 (1,476)	
대학원 이상	50.0	40.9	9.1	-	100.0 (44)	
취업여부						
취업	42.9	49.2	7.2	0.7	100.0 (1,491)	5.3
비취업	45.3	48.4	5.5	0.7	100.0 (2,07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라는 자녀의 형제 자매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15>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기혼여성의 70.9%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30% 정도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가족 보유자원의 크기와 자녀양육부담의 정도 간의 차이를 고려한 응답 결과로도 간주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동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농촌 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5〉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않음	전혀찬성 하지않음	계(명)	χ^2
전체	19.4	51.5	24.7	4.5	100.0 (3,565)	
거주지						
동부	18.1	53.1	24.2	4.6	100.0 (3,060)	31.3***
읍·면부	26.9	41.8	27.7	3.6	100.0 (505)	
연령						
20~24세	23.1	41.0	30.8	5.1	100.0 (39)	12.1
25~29세	16.8	51.1	28.1	4.0	100.0 (374)	
30~34세	22.2	49.4	23.8	4.6	100.0 (824)	
35~39세	18.1	53.7	24.0	4.2	100.0 (1,164)	
40~44세	19.2	51.2	24.7	4.8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18.3	50.5	24.8	6.4	100.0 (109)	2.7
고졸	19.3	51.1	24.9	4.7	100.0 (1,937)	
대졸	19.4	52.1	24.3	4.1	100.0 (1,476)	
대학원 이상	23.3	51.2	23.3	2.3	100.0 (43)	
취업여부						
취업	19.4	51.0	24.9	4.7	100.0 (1,492)	0.5
비취업	19.4	51.8	24.5	4.3	100.0 (2,073)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라는 자녀의 형제자매에 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0-16>에 제시되어 있다. 동 견해에 기혼여성의 85.7%가 찬성(전적으로 찬성+대체로 찬성)하여,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15% 정도는 고연령 형제자매로부터 사적육아지원인프라로서 기능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한 찬성비율은 도시거주, 고연령층 및 비취업 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6〉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라는 견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성 하지않음	전혀찬성 하지않음	계(명)	χ^2
전체	26.4	59.3	11.2	3.1	100.0 (3,565)	
지역						
동부	25.0	61.0	10.9	3.2	100.0 (3,059)	27.9***
읍·면부	34.9	49.5	13.1	2.6	100.0 (505)	
연령						
20~24세	32.5	42.5	15.0	10.0	100.0 (40)	26.7**
25~29세	23.8	55.9	16.0	4.3	100.0 (374)	
30~34세	27.5	60.1	9.5	2.9	100.0 (823)	
35~39세	25.8	60.9	11.0	2.3	100.0 (1,163)	
40~44세	26.8	58.9	10.8	3.4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36.1	48.1	11.1	4.6	100.0 (108)	14.9
고졸	25.8	59.2	11.4	3.6	100.0 (1,936)	
대졸	26.6	60.2	10.6	2.5	100.0 (1,476)	
대학원 이상	20.5	61.4	18.2	-	100.0 (44)	
취업여부						
취업	28.5	57.0	11.7	2.7	100.0 (1,491)	8.6*
비취업	24.8	61.0	10.8	3.4	100.0 (2,07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금까지 살펴 본 자녀의 형제·자매에 관한 기혼여성의 태도들을 종합해 보면, 형제자매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형제자매의 사회성 기능, 상호의존성 기능, 육아지원기능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형제자매를 둬으로써 발생하는 양육비용이나 자원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부정적 혹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혼 여성 자녀의 형제자매의 정서적 가치와 양육비용 간의 상충정도(trade-off)는 자녀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형제자매의 정서적 가치는 쉽게 측정할 수 없는데 반해, 양육비용은 쉽게 계량화할 수 있다는 속성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형제자매의 정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은 양육비용을 더 크게 의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녀수를 줄이게 될 것이다.

〈표 10-17〉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의 형제·자매에 관한 태도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직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찬 성않음	전혀찬 성않음	계(명)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40.4	54.4	4.8	0.3	100.0 (3,565)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18.7	39.5	33.3	8.6	100.0 (3,564)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44.3	48.7	6.3	0.7	100.0 (3,565)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19.4	51.5	24.7	4.5	100.0 (3,565)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26.4	59.3	11.2	3.1	100.0 (3,565)

4.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

기혼여성(20~44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이하 이상자녀수)는 <표 10-18>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명(68.4%), 1명(16.5%), 3명(11.5%), 4명 이상(2.4%), 0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 결과로서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005년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상자녀수 3명의 비율은 2005년 25.6%에서 2009년 11.5%로, 이상자녀수 4명 이상의 비율은 6.7%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대신 이상자녀수 2명의 비율은 2005년 58.8%에서 2009년 68.4%로, 그리고 이상자녀수 1명의 비율은 8.4%에서 16.5%로 각각 높아졌다.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가 소자녀화 방향으로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이상자녀수의 평균은 2005년 2.3명에 비해 2009년에 2.0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록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가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우나, 자녀수에 관한 가치관의 하방향 이동은 향후 출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10-18〉 기혼여성(20~44세)의 이상자녀수 분포 비교, 2005년과 2009년 조사 결과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명)	평균
2005	0.5	8.4	58.8	25.6	6.7	100.0 (3,792)	2.30
2009	1.1	16.5	68.4	11.5	2.4	100.0 (3,523)	1.98

자료: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는 <표 10-19>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 여성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는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과 이상자녀수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젊은 층의 이상자녀수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 이상자녀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0명, 1명 및 2명의 비율이 높은 반면, 중간소득계층에서는 3명과 4명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상자녀수의 평균은 U자형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고 중간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학력, 맞벌이 등의 특성이 강한 중간소득계층에서 가치관이나 일·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인해 2명, 3명 및 4명 이상의 자녀수를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는 현존자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현존자녀수에 대한 합리화(rationalization) 효과나 실제 자녀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 등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은 이상자녀수로 0명과 1명의 비율은 취업 기혼여성에게서 그리고 2명과 4명 이상의 비율은 비취업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이상자녀수는 취업여성(1.94명)이 비취업여성(2.01명)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경우 직장일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이 이상자녀수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와 교육수준별로 이상자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10-19>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자녀수

구분						(단위: %, 명)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 (명)	평균	χ^2
전체	1.1	16.5	68.4	11.5	2.4	100.0 (3,523)	1.98	
지역								
동부	1.0	16.4	68.9	11.4	2.3	100.0 (3,027)	1.98	7.6
읍·면부	2.2	17.3	65.4	12.3	2.8	100.0 (496)	1.97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0-19〉 계속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 (명)	평균	χ^2
연령별								
20~24세	4.9	14.6	68.3	12.2	-	100.0 (41)	1.87	36.6**
25~29세	2.2	17.0	69.3	9.6	1.9	100.0 (365)	1.93	
30~34세	0.5	20.8	66.3	9.9	2.6	100.0 (818)	1.93	
35~39세	0.9	14.8	70.2	11.3	2.9	100.0 (1,157)	2.01	
40~44세	1.4	15.1	67.9	13.5	2.1	100.0 (1,143)	2.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	18.7	62.6	13.1	3.7	100.0 (107)	2.01	13.4
고졸	1.2	16.1	67.6	12.8	2.4	100.0 (1,914)	1.99	
대졸	1.0	16.7	70.0	9.7	2.5	100.0 (1,459)	1.96	
대학원졸 이상	-	23.8	66.7	9.5	-	100.0 (42)	1.84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0.6	17.9	64.0	14.1	3.4	100.0 (475)	2.03	36.8*
60~80%	1.6	16.9	67.8	11.6	2.1	100.0 (838)	1.96	
80~100%	1.5	14.7	69.7	12.3	1.9	100.0 (749)	1.99	
100~120%	0.8	17.5	71.2	8.4	2.1	100.0 (382)	1.94	
120~140%	0.4	18.9	69.7	8.8	2.3	100.0 (524)	1.94	
140~160%	1.8	16.4	66.8	12.8	2.2	100.0 (274)	1.98	
160% 이상	1.0	10.3	68.6	16.5	3.6	100.0 (194)	2.12	
출생자녀수								
0명	3.2	33.3	55.9	6.7	1.0	100.0 (315)	1.69	326.5***
1명	0.6	25.2	63.5	9.5	1.2	100.0 (940)	1.85	
2명	0.9	10.9	75.3	10.8	2.1	100.0 (1,915)	2.03	
3명이상	2.0	9.0	55.4	25.1	8.5	100.0 (354)	2.32	
취업여부								
취업	1.6	19.4	65.1	11.8	2.2	100.0 (1,468)	1.94	21.7***
비취업	0.8	14.5	70.8	11.3	2.6	100.0 (2,055)	2.0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로 이상자녀수의 분포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며, 특히 직종과 종사상지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2명을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 0명과 1명을 이상자녀수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수준별 이상자녀수 평균은 고소득층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가구소득수준별 이상자녀수와 다소 상이한 것이다. 가구소득수준별 이상자녀수의 평균은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에

비해 중간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개인근로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과 반비례적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 이상자녀수는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능력(양육비용, 일·가정양립 정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반면, 개인소득수준별 이상자녀수는 자녀출산·양육 관련 기회비용(개인소득 상실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이 아주 길거나 아주 짧은 경우 중간정도 근로시간에 비해 이상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짧은 기혼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서 또는 이들 여성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고연령층으로서 현존자녀수를 반영하여 이상자녀수를 확대·제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0-20〉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 (명)	평균	χ^2
전체	1.6	19.4	65.1	11.8	2.2	100.0 (1,468)	1.94	
직종별								
고위·준전문직	0.0	13.3	70.0	14.2	2.5	100.0 (120)	2.07	
사무직	1.6	22.6	64.1	10.5	1.2	100.0 (429)	1.87	12.9
서비스·판매직	1.8	18.7	65.2	11.8	2.5	100.0 (774)	1.95	
생산·단순노무직 등	1.5	19.2	62.3	13.1	3.8	100.0 (130)	1.99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3.5	19.4	62.2	12.5	2.4	100.0 (288)	1.91	
무급가족종사자	-	11.1	64.8	22.2	1.9	100.0 (54)	2.16	20.1
상용근로자	1.5	20.0	64.6	11.6	2.4	100.0 (751)	1.94	
임시·일용근로자	0.6	20.2	68.0	9.7	1.7	100.0 (362)	1.92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1.1	14.8	66.4	14.1	3.6	100.0 (277)	2.05	
100~150만원	2.0	18.9	66.4	9.6	3.1	100.0 (450)	1.93	21.3*
150~200만원	1.0	22.4	65.0	10.9	0.7	100.0 (294)	1.87	
200만원이상	1.9	22.0	62.1	12.9	1.1	100.0 (364)	1.90	
근로시간								
36시간미만	0.5	15.7	65.4	15.7	2.7	100.0 (185)	2.05	
36~45시간	2.4	14.2	67.7	12.7	3.0	100.0 (542)	2.00	46.1***
45~61시간	1.1	26.9	61.4	9.3	1.3	100.0 (621)	1.83	
61시간이상	2.2	12.0	70.7	12.0	3.3	100.0 (92)	2.03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기혼여성의 이상적인 자녀수-근무형태 조합

기혼여성(20~44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와 일형태’의 조합은 <표 10-2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2자녀+시간제취업’이 3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자녀이상+비취업’ 19.4%, ‘2자녀이상+전일제취업’ 13.4%, ‘1자녀+전일제취업’ 10.2%, ‘1자녀+시간제취업’ 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특징으로는 2자녀 이상은 시간제와 조화되며, 1자녀는 전일제와 조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혼여성의 특성별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 형태’ 조합은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다. 다만, 도시거주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2자녀이상+시간제취업’과 ‘2자녀이상+비취업’ 다음으로 ‘2자녀이상+전일제취업’, ‘1자녀+전일제취업’, ‘1자녀+시간제취업’ 등의 순인 반면, 농촌거주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1자녀+시간제취업’, ‘2자녀이상+전일제취업’, ‘1자녀+전일제취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은 고소득층일수록 ‘2자녀이상+전일제취업’의 비율이,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1자녀+시간제취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자녀수와 일형태’ 조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10-2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자녀수의 일형태’ 조합

(단위: %, 명)

구 분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비취업			계 (명)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전체	2.7	10.2	13.4	1.2	9.9	39.4	0.6	3.2	19.4	100.0 (3,430)
지역 ($\chi^2=17.0^*$)										
동부	2.5	10.3	13.8	1.1	9.5	39.5	0.5	3.0	19.7	100.0 (2,936)
읍·면부	4.0	9.9	10.9	2.2	11.9	38.5	0.8	4.0	17.6	100.0 (494)
연령 ($\chi^2=38.8$)										
20~24세	4.9	7.3	9.8	-	17.1	36.6	-	2.4	22.0	100.0 (41)
25~29세	3.5	12.0	14.1	2.2	9.2	36.4	0.8	2.2	19.6	100.0 (368)
30~34세	2.4	11.8	14.8	0.8	11.0	37.4	0.8	4.4	16.8	100.0 (799)
35~39세	2.8	8.6	12.1	1.3	10.3	40.7	0.7	2.6	20.9	100.0 (1,118)
40~44세	2.6	10.3	13.7	1.2	8.7	40.5	0.2	3.3	19.6	100.0 (1,10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0-21〉 계속

구 분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비취업			계 (명)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교육수준 ($\chi^2=29.7$)										
중졸	2.7	10.9	15.5	1.8	8.2	40.9	-	3.6	16.4	100.0 (110)
고졸	2.4	9.1	12.8	1.2	9.6	40.3	0.5	3.2	20.9	100.0 (1,864)
대졸	3.1	11.2	14.1	1.2	10.5	38.1	0.6	3.1	18.1	100.0 (1,416)
대학원졸 이상	5.0	27.5	10.0	-	7.5	35.0	-	5.0	10.0	100.0 (40)
가구소득수준별($\chi^2=72.7$)										
60%미만	4.3	11.7	14.1	1.1	9.1	38.3	1.1	2.8	17.4	100.0 (460)
60~80%	2.8	9.3	11.5	1.1	10.5	39.0	0.4	4.4	21.1	100.0 (836)
80~100%	3.2	8.7	12.4	2.4	10.7	38.9	0.8	3.2	19.8	100.0 (723)
100~120%	2.1	9.9	17.6	0.5	8.6	40.4	0.3	4.0	16.6	100.0 (374)
120~140%	1.8	13.1	11.7	1.2	10.3	40.4	0.2	2.2	19.2	100.0 (505)
140~160%	1.9	10.9	17.1	-	7.0	37.6	0.4	1.6	23.6	100.0 (258)
160% 이상	2.7	10.2	18.3	0.5	9.7	39.8	-	1.1	17.7	100.0 (186)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직종별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형태’ 조합은 전체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다만, ‘2자녀이상+시간제취업’과 ‘2자녀이상+비취업’의 비율은 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 서비스판매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자녀이상+전일제취업’과 ‘1자녀+전일제취업’의 비율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2자녀이상+시간제취업’과 ‘2자녀이상+비취업’의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반면 ‘2자녀이상+전일제취업’과 ‘1자녀+전일제취업’의 비율은 고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서비스판매직 등에 종사하거나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경우 다자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그리고 전문직·사무직에 종사하거나 고소득층 기혼여성의 경우 전일제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종과 소득수준간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자녀수+일형태’ 조합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자녀이상+시간제취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36시간미만 근로여성의 경우 ‘2자녀이상+비취업’, 36~45시간미만 근로여성의 경우 ‘2자녀이상+전일제취업’, 45~61시간미만 근로여성의 경우 ‘1자녀+전일제취업’,

61시간 이상 근로여성의 경우 ‘2자녀이상+전일제취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중인 기혼여성들은 대체적으로 2자녀를 두되, 그 경우 적합한 경제활동형태로는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제와 비취업,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제와 전일제를 각각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로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형태’ 조합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2〉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형태’ 조합

(단위: %, 명)

구 분	전일제 취업			시간제 취업			비취업			계 (명)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전체	2.7	10.2	13.4	1.2	9.9	39.4	0.6	3.2	19.4	100.0 (3,585)
직종 ($\chi^2=36.6^*$)										
고위·(준)전문직	2.5	15.7	15.7	-	12.4	37.2	0.8	1.7	14.0	100.0 (121)
사무직	2.9	15.6	22.1	1.7	10.8	32.1	0.7	1.7	12.5	100.0 (417)
서비스·판매업	3.3	12.6	15.5	0.7	10.8	39.2	0.1	2.9	15.0	100.0 (761)
생산·단순노무직 등	1.6	10.7	9.8	2.5	13.1	43.4	-	0.8	18.0	100.0 (122)
종사상지위 ($\chi^2=20.9$)										
비임금근로자	3.0	11.1	16.5	0.6	12.9	38.9	0.6	2.1	14.4	100.0 (334)
상용근로자	3.0	14.6	19.0	1.5	10.1	35.2	0.3	1.5	14.8	100.0 (725)
임시일용근로자	2.5	13.9	13.3	0.6	11.6	40.4	0.3	3.9	13.6	100.0 (361)
근로소득 ($\chi^2=40.4^*$)										
100만원미만	1.1	11.3	11.3	0.8	11.7	42.5	0.4	1.9	19.2	100.0 (266)
100-150만원	4.1	11.6	18.4	1.6	11.8	36.1	0.9	3.2	12.3	100.0 (440)
150-200만원	3.8	13.2	18.8	0.3	11.8	35.2	-	2.4	14.3	100.0 (287)
200만원이상	2.5	17.7	18.0	0.6	9.7	35.5	-	1.7	14.4	100.0 (361)
근로시간 ($\chi^2=41.5^*$)										
36시간미만	1.1	9.7	14.0	1.6	11.8	42.5	-	1.1	18.3	100.0 (186)
36-45시간	3.6	12.7	20.3	1.1	9.3	38.6	0.4	0.8	13.3	100.0 (528)
45-61시간	2.3	16.1	14.9	0.7	12.4	34.4	0.7	3.6	14.9	100.0 (604)
61시간이상	5.1	11.1	16.2	0.9	10.3	38.5	-	3.4	14.5	100.0 (117)

*p<0.05, **p<0.01,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기혼여성의 이상적인 자녀수 인생목표 조합

기혼여성(20~44세)이 일정한 인생목표를 실행하는데 걱정한 것으로 생각

하는 자녀수는 <표 10-2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나 자신과 관심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인생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적정한 자녀수로는 1명이 4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0명 23.2%, 2명 16.0%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들이 본인의 시간과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시간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견해로 이해될 수 있다.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인생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적정한 자녀수로는 1명이 3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명 28.5%, 관계없음 23.7%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들 사이에 노후 안락은 적어도 1~2명의 자녀를 돕으로써 정서적이든 물리적이든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간 가사일을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인생을 목표로 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혼여성은 적정자녀수로 1명, 2명, 관계없음 등을 선호하였다. 기혼여성들 사이에 부부간 공평한 가사분담을 위해서는 1자녀든 2자녀든 큰 차이가 없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자녀수와 무관하다는 태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을 인생목표로 추구하는 추구하기 위해서는 1자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9.5%로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2자녀, 무자녀 또는 자녀수와 상관없다는 태도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대의를 실현하는 것’을 인생목표로 추구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와 무관하다는 응답 비율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를 두는 경우에는 1자녀를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자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을 인생목표로 추구하는 경우에는 1자녀를 두거나 아예 자녀를 두지 않은 것이 적정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부담이 장애가 될 것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인생목표로 추구하는 경우에는 1자녀가 적정하다는 태도와 자녀수와 상관없다는 태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을 인생목표로

추구하는 경우에는 1자녀가 적절하다는 태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수를 1명으로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상의 다양한 인생목표들을 추구하는 데에 적절한 자녀수에 대한 기혼 여성의 태도를 종합하면, 공통적으로 1자녀가 가장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인생목표의 경우에는 무자녀가 적절하다는 비율이 1자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기혼여성들 사이에 인생목표를 추구하는데 자녀수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팽배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 자체가 고비용적이고, 다른 일들과 함께 병행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10-23〉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와 인생의 목표실현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추구하는 인생 목표	인생목표 추구시 적정 자녀수					계 (명)
	0명	1명	2명	3명이상	관계없음	
나 자신과 관심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23.2	47.8	16.0	1.1	11.9	100.0 (3,562)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	10.2	31.0	28.5	6.6	23.7	100.0 (3,563)
부부간 가사일을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	10.9	29.5	29.2	3.8	26.6	100.0 (3,559)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18.6	39.5	19.9	3.6	18.3	100.0 (3,558)
대의를 실현하는 것	16.7	26.7	22.1	3.9	30.7	100.0 (3,559)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	27.6	32.4	16.4	2.3	21.3	100.0 (3,557)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16.8	34.6	20.4	3.9	24.4	100.0 (3,556)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	-	60.8	23.4	2.7	13.1	100.0 (3,533)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기혼여성의 출산 실태

1. 기혼여성의 출산수준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출생자녀수 분포를 <표 10-24>에서 보면, 2자녀 비율이 5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자녀 26.6%, 3자녀 이상

10.1%, 그리고 무자녀 9.0% 순이며,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동부와 읍·면부 모두 2자녀, 1자녀 순이다. 동부의 경우 1자녀(27.2%) 및 무자녀(9.2%) 비율이, 읍·면부의 경우 3자녀 이상(14.2%)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 출생아수가 동부(1.64명)에 비해 읍·면부(1.76명)가 0.12명 더 많다.

연령별로는 20~24세와 25~29세 기혼여성의 경우 1자녀, 무자녀, 2자녀, 3자녀이상 순이며, 30~34세는 2자녀, 1자녀, 무자녀, 3자녀 이상의 순이다. 출산 완결 연령 집단인 35~39세와 40~44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2자녀, 1자녀, 3자녀 이상, 무자녀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출생아수는 20~24세 기혼여성의 경우 0.83명에서, 40~44세 기혼여성의 경우 1.85명으로 증가한다.

결혼상태별 출생자녀수를 살펴보면, 유배우(초혼+재혼)의 경우 출생자녀수가 2명인 비율(54.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명(26.0%), 3명 이상(10.3%), 무자녀(8.8%) 순으로 평균 자녀수는 1.67명이다.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평균 출생자녀수는 1.82명으로 가장 많고, 유배우(초혼+재혼) 1.67명, 별거 1.62명, 이혼 1.26명 순이다. 사별인 경우 출생자녀수가 많은 것은 결혼기간 및 연령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혼의 경우 출생자녀수가 적은 것은 이혼으로 인한 단절된 기간이 출산가능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자녀 및 1자녀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반해, 2자녀와 3자녀 이상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한다. 고졸 여성의 자녀수가 1.74명으로 가장 많고 대학원졸 여성의 자녀수가 1.55명으로 가장 적어 대체로 고학력 여성일수록 출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취업중인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1.60명, 비취업인 경우 1.70명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일 경우 출생자녀수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출생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자녀, 3녀 이상, 무자녀 순이다. 소득수준이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수준의 60%미만인 경우 평균 출생아수가 1.59명으로 가장 적고, 150%이상에서 1.79명으로 가장 많다.

주택 점유형태별로 평균 출생아수는 자가인 경우 1.79명, 전세의 경우는 1.47명, 월세 1.58명으로 주택이 안정되어 있을 경우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타(1.83명)인 경우를 포함하면 그 경향이 뚜렷하지 않다.

이상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평균출생아수는 각 특성별 여성집단의 연령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연령구조를 가진 집단 간의 출산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표준화가 필요하다. 물론 연령표준화된 평균출생아수는 그 집단의 출생아수를 의미하지는 않고, 다만 비교관점에서 산정된 수치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표준화 결과 기혼여성 특성 간의 평균출생아수 차이는 연령구조와 상관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0-24〉 기혼여성(20~44세)의 혼인상태별 출생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출생자녀수 ($\chi^2=38.4^{***}$)					평균 출생자녀수
	무자녀	1명	2명	3명 이상	계 (명)	
전체	9.0	26.6	54.3	10.1	100.0 (3,585)	1.66
유배우	8.8	26.0	54.9	10.3	100.0 (3,376)	1.67
사별	10.5	13.2	65.8	10.5	100.0 (38)	1.82
이혼	16.4	42.6	38.5	2.5	100.0 (122)	1.26
별거	8.0	34.0	46.0	12.0	100.0 (50)	1.62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0-25〉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출생아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 (명)	평균 (연령비표준화)	평균 (연령표준화)	χ^2
전체	9.0	26.6	54.3	10.1	100.0 (3,585)	1.66	-	
지역								
동부	9.2	27.2	54.3	9.4	100.0 (3,078)	1.64	1.64	13.1**
읍·면부	8.3	23.1	54.4	14.2	100.0 (507)	1.76	1.78	
연령별								
20~24세	30.0	57.5	12.5	0.0	100.0 (40)	0.83	-	
25~29세	30.8	41.4	23.3	4.5	100.0 (377)	1.02	-	
30~34세	12.6	35.4	43.1	9.0	100.0 (826)	1.49	-	560.9***
35~39세	4.6	19.9	63.7	11.8	100.0 (1,170)	1.83	-	
40~44세	3.2	21.3	64.3	11.3	100.0 (1,171)	1.85	-	

〈표 10-25〉 계속

구 분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 (명)	평균 (연령비표준화)	평균 (연령표준화)	χ^2
결혼상태								
유배우	8.8	26.0	54.9	10.3	100.0 (3,376)	1.67	1.68	
사별	10.5	13.2	65.8	10.5	100.0 (38)	1.82	1.86	38.9***
이혼	16.4	42.6	38.5	2.5	100.0 (122)	1.26	1.19	
별거	8.0	34.0	46.0	12.0	100.0 (50)	1.62	1.6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4	23.2	47.3	16.1	100.0 (112)	1.68	1.66	
고졸	7.2	24.5	56.2	12.2	100.0 (1,948)	1.74	1.71	56.4***
대졸	11.1	29.4	52.6	6.9	100.0 (1,480)	1.56	1.61	
대학원졸 이상	11.4	31.8	50.0	6.8	100.0 (44)	1.55	1.60	
취업여부								
취업	12.6	24.1	54.9	8.5	100.0 (1,501)	1.60	1.55	49.8***
비취업	6.4	28.4	53.9	11.2	100.0 (2,083)	1.70	1.72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10.2	31.3	47.9	10.6	100.0 (480)	1.59	1.63	
60~80%	10.3	29.3	49.3	11.1	100.0 (856)	1.62	1.66	
80~100%	7.4	25.7	57.1	9.8	100.0 (767)	1.70	1.69	47.6***
100~120%	10.9	28.0	54.7	6.5	100.0 (386)	1.57	1.54	
120~140%	9.1	22.3	60.2	8.5	100.0 (530)	1.68	1.60	
140~160%	5.8	21.9	60.6	11.7	100.0 (274)	1.79	1.73	
160% 이상	8.7	25.0	52.0	14.3	100.0 (196)	1.73	1.66	
점유형태별								
자가	5.4	22.1	61.3	11.2	100.0 (1,956)	1.79	1.75	
전세	14.0	32.6	45.9	7.5	100.0 (1,275)	1.47	1.54	161.3***
월세	11.4	31.3	46.3	11.1	100.0 (307)	1.58	1.62	
기타	10.6	19.1	44.7	25.5	100.0 (47)	1.87	2.04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산행위는 결혼 시기와 가임능력 등에 의해 좌우되며, 그에 따라 연령 별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연령별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어느 특 성별로 출산수준을 비교하는 경우 자칫 잘못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10-26>에는 기혼여성의 현재 연령별 출산수준(평균 출생아수)을 제시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수는 많으며, 특히 25~29세(1.02명)와 30~34세(1.49명)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에 경제 활동 참가, 소득 부족 등을 이유로 결혼 및 출산을 연기하였다가, 30대 초 짧은 시간에 원하는 자녀수를 출산하는 이른바 캐치업(catch-up)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젊은 여성들의 출산행태가 반드시 앞선 세대의 경험을 따른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한편, 35~39세부터 평균출생이수의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는데, 이는 35~39세에 대부분 출산을 완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출산행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혼여성의 대부분 특성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기혼여성의 특성에 따른 출산행태의 특이점에 중점을 둔다.

동부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이수는 25세 연령층에서 읍·면부여성의 출생이수에 비해 일관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부인에 비해 무배우여성의 출생이수가 30대 이후에서는 일관되게 적게 나타나며, 출산완결 연령층에서도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 가임기간 중 해혼이 전체 출산수준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29세이하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30세이상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다. 그러나 대졸이상의 경우 25~29세와 30~34세간의 변동폭(비율 측면)이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4년제 대졸의 학력층에서는 25~29세와 30~34세의 두 인접 연령층간 평균 출생이수의 차이는 약 두 배, 대학원졸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취업여성의 출생이수는 연령계층간 큰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25~29세 여성의 평균 출생이수가 0.73명, 30~34세 여성의 경우 1.24명, 35~39세 여성의 경우 1.78명 등 고연령층일수록 비교적 많다. 반면,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연령계층간 출생이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 출산이 완결된 40~44세 연령층에서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소득계층별로는 29세이하의 저연령층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고, 30~34세 연령층은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출생이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35~39세 연령층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이수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별로는 전세인 경우에 전 연령층에서 출생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와 월세간의 관계는 일관되

지 않다. 출산이 거의 완결된 40~44세 연령층을 기준으로 평균 출생아수는 자가, 전세, 월세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26>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 및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구 분							(단위: 명)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분석대상수)
전체	1.66	0.83	1.02	1.49	1.83	1.85	(3,585)
지역							
등부	1.64	0.84	0.97	1.47	1.82	1.83	(3,078)
읍·면부	1.76	0.76	1.32	1.61	1.88	1.97	(507)
결혼상태							
유배우	1.67	0.81	1.01	1.49	1.86	1.88	(3,375)
무배우	1.45	1.00	1.10	1.42	1.27	1.58	(210)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8	0.90	1.48	1.18	1.92	1.83	(111)
고졸	1.74	1.00	1.15	1.60	1.86	1.85	(1,948)
대졸	1.56	0.21	0.91	1.41	1.80	1.85	(1,481)
대학원졸 이상	1.55	-	0.54	1.58	1.64	1.96	(45)
취업여부							
취업	1.60	0.70	0.73	1.24	1.78	1.83	(1,502)
비취업	1.70	0.86	1.18	1.61	1.86	1.87	(2,083)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1.59	1.05	1.19	1.67	1.70	1.69	(480)
60~80% 미만	1.62	0.85	1.09	1.54	1.81	1.81	(856)
80~100% 미만	1.70	0.41	1.04	1.52	1.79	1.97	(767)
100~120% 미만	1.57	-	0.58	1.19	1.92	1.76	(387)
120~140% 미만	1.68	1.00	0.66	1.44	1.83	1.83	(530)
140~160% 미만	1.79	-	1.08	1.52	1.90	1.97	(275)
160% 이상	1.73	2.00	1.03	1.18	2.00	1.84	(196)
점유형태							
자가	1.79	0.92	1.20	1.62	1.89	1.90	(1,956)
전세	1.47	0.86	0.88	1.34	1.70	1.76	(1,276)
월세	1.58	0.81	0.97	1.50	1.85	1.72	(307)
기타	1.87	0.00	1.53	1.94	2.05	2.34	(47)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취업중인 부인의 경제활동 특성별 출생자녀수 분포와 평균 출생아수는 <표 10-27>와 <표 10-28>에 각각 제시되었다. 직종별로는 고위관리직·(준)전문직인 경우 2자녀 비율이 51.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자녀(28.5%), 무자녀(14.6%), 3자녀 이상(5.7%) 순으로 1자녀의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전문직 종사 여성과

유사한 경향이나 타 직종에 비하여 무자녀 비율이 매우 높다. 서비스·판매직 및 생산노무직의 경우 2자녀 및 3자녀 비율이 전문직이나 사무직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출생아수는 고위관리직(준)전문직 1.50명, 사무직 1.40명, 서비스·판매직 1.70명, 생산·단순노무직 1.78명으로 직종별 차이가 나타났다. 부인의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평균 출생아수가 1.47명으로 무급가족종사자 1.78명, 고용주·자영업자 1.80명, 임시·일용근로자 1.68명 등보다 낮다. 이러한 패턴 차이는 종사상지위간 출산 및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이나 일·가정의 양립 용이성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사업)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 평균 출생아수가 1.86명으로 가장 많으며, 100~150만원 미만인 경우 1.62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 1.56명, 150~200만원 미만인 경우 1.34명의 순으로 대체적으로 근로(사업)소득 수준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을 받은 부인의 경우 전일제 근로가 아닌 시간제 근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근무시간별 출생아수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근무시간별로는 주당 61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출생자녀수가 1.7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6시간 미만인 경우 1.76명, 45~61시간 미만인 경우 1.58명, 36~45시간 미만인 경우 1.54명으로 나타났다. 36시간 미만인 경우는 파트타임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61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는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가정 양립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이들 집단의 평균 출생아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취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 평균출생아수의 차이도 연령 표준화한 결과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직종별 평균출생아수의 경우 연령비표준화시 사무직 여성의 출생아수가 고위관리직·(준)전문직 여성의 출생아수보다 적었으나, 연령 표준화 후에는 고위관리직·(준)전문직 여성의 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근무시간별로도 36~45시간미만 근무여성의 평균출생아수가 45~61시간미만 근무여성에 비해 적으나, 연령표준화 후에는 반대로 나타났다.

<표 10-27>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출생아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명)	평균	연령표준화	χ^2
전체	12.6	24.1	54.9	8.5	100.0	(1,501)	1.60	1.55	
직종별									
고위·(준)전문직	14.6	28.5	51.2	5.7	100.0	(123)	1.50	1.47	50.8***
사무직	20.1	26.0	48.0	5.9	100.0	(442)	1.40	1.48	
서비스·판매직	9.1	22.6	58.5	9.7	100.0	(791)	1.70	1.61	
생산·단순노무직 등	5.3	22.1	61.1	11.5	100.0	(131)	1.78	1.65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8.2	18.0	61.6	12.2	100.0	(294)	1.80	1.70	52.6***
무급가족종사자	5.3	15.8	71.9	7.0	100.0	(57)	1.78	1.68	
상용근로자	17.1	25.7	50.8	6.5	100.0	(768)	1.47	1.50	
임시·일용근로자	7.3	26.9	56.3	9.5	100.0	(368)	1.68	1.63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5.0	18.7	63.3	12.9	100.0	(278)	1.86	1.81	61.5***
100~150만원	11.0	25.6	53.9	9.5	100.0	(464)	1.62	1.56	
150~200만원	22.3	25.9	47.5	4.3	100.0	(301)	1.34	1.41	
200만원 이상	13.1	25.7	54.4	6.7	100.0	(373)	1.56	1.48	
근무시간									
36시간 미만	6.3	23.4	59.9	10.4	100.0	(192)	1.76	1.71	19.1*
36~45시간	14.6	25.1	52.3	8.0	100.0	(553)	1.54	1.54	
45~61시간	13.9	23.2	55.0	7.9	100.0	(633)	1.58	1.49	
61시간 이상	4.3	21.7	65.2	8.7	100.0	(92)	1.78	1.72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 출산수준을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는 <표 10-28>에 제시하였다. 직종별로 출생아수는 일정한 경향성은 없고 동일 직종에서 연령계층간 출생아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생아수가 일정하게 증가하지만, 타직종의 경우 35~39세와 40~44세간의 출생아는 큰 차이가 없다. 전문직의 경우 44세까지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즉, 캐치업현상이 전문직에서는 가장 심하게 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 직종에서 출산수준은 연령 진행에 따라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연령계층간 출생아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 25~29세 연령층에서 고용주·자영업종사여성의 출생아수는 1.25명으로 상용직 여성의 0.63명보다 약 2배 많다. 30~34세 연령층에서도 상용직 여성의 출생아

수는 타직종의 여성보다 출생아수가 적으나 35세 이후는 직종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상용직 등에서의 케치업현상의 정도가 보다 높기 때문이나, 여전히 종사상지위간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현재 고연령층에서 종사상지위간의 차이는 크게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패턴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보다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추이에서 저연령층에서의 차이는 연령이 경과된 후에도 나타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근로(사업)소득 수준별 출생아수는 많은 연령층에서 대체적으로 월평균 150~200만원의 경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득수준과 출생아수간의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 근무시간과 출생아수간의 관계도 뚜렷하지는 않다.

〈표 10-28〉 취업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구 분							(단위: 명)
	전체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분석대상수)
전체	1.60	0.70	0.73	1.24	1.78	1.83	(1,502)
직종별							
고위관리직·준전문직	1.50	-	0.89	1.10	1.52	1.92	(123)
사무직	1.40	0.00	0.59	1.11	1.80	1.76	(442)
서비스·판매직	1.70	0.85	0.86	1.37	1.81	1.84	(791)
생산·단순노무직 등	1.78	1.00	0.67	1.63	1.80	1.84	(131)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1.80	1.00	1.25	1.48	1.76	1.95	(294)
무급가족종사자	1.78	2.00	0.53	1.74	1.82	1.87	(57)
상용근로자	1.47	0.61	0.63	1.06	1.79	1.81	(768)
임시·일용근로자	1.68	0.41	1.08	1.58	1.76	1.75	(368)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1.86	1.30	1.06	1.82	1.89	1.98	(278)
100~150만원	1.62	0.50	0.82	1.23	1.80	1.82	(463)
150~200만원	1.34	0.58	0.41	0.91	1.79	1.73	(301)
200만원 이상	1.56	-	0.82	1.22	1.63	1.78	(373)
근무시간							
36시간 미만	1.76	1.00	0.99	1.62	1.86	1.88	(193)
36~45시간	1.54	0.56	0.65	1.25	1.83	1.77	(553)
45~61시간	1.58	0.51	0.75	1.07	1.70	1.85	(633)
61시간 이상	1.78	2.00	2.00	1.60	1.74	1.85	(93)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 가구의 출생아수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감안한 부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생아수는 부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구 전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표 10-29>에 남편의 경제활동 특성별 출생아수를 제시하였다. 남편이 취업중일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1.67명, 비취업 경우에는 1.69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의 경우 비취업의 경우보다 1자녀와 2자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인의 취업여부별로 출생아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미루어볼 때, 부인의 취업여부가 생애경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지라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그 영향력을 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편의 경우에는 비취업(실업상태)은 출생아수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면, 이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및 근로(사업)소득 별로 출생아수 차이가 취업여성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편의 직종별로는 생산직·노무직(1.73명), 서비스·판매직(1.73명), 고위관리직·(준)전문직(1.73명), 사무직(1.57명) 순으로 사무직의 경우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고 기타 직종은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위 직종 순으로 출생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범위는 1.40~1.78명으로 보다 크다. 종사상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2.18명), 고용주·자영업자(1.85명), 임시·일용직(1.66명), 상용직(1.6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와 출생수 차이 범위는 취업여성과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취업 부인의 경우에는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임시·일용직, 상용직 순으로 높으며, 그 범위는 1.47~1.80명으로 적게 나타났다.

남편의 근로(사업)소득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일정한 경향이 없고, 소득계층별 최대와 최소간의 차이는 취업부인의 근로(사업)소득수준별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즉, 출산력 차이에 관한 분석은 부인의 일반적 특성이나 경제활동 특성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0-29〉 남편의 경제활동 특성별 출생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명)	평균	χ^2
전체	8.7	26.0	54.9	10.3	100.0 (3,375)	1.67	
취업여부							
취업	8.7	26.1	55.0	10.2	100.0 (3,265)	1.67	1.7
비취업	10.0	24.5	51.8	13.6	100.0 (110)	1.69	
직종별							
고위관리직·(준)전문직	6.6	25.7	56.1	11.6	100.0 (604)	1.73	36.8***
사무직	11.7	28.2	52.6	7.5	100.0 (1,182)	1.57	
서비스·판매직	7.6	24.1	56.4	11.8	100.0 (854)	1.73	
생산직·노무직 등	6.6	25.8	56.4	11.5	100.0 (590)	1.73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자	4.2	21.7	60.3	13.7	100.0 (875)	1.85	67.0***
무급가족종사자	-	-	83.3	16.7	100.0 (6)	2.18	
상용근로자	10.6	27.8	53.2	8.3	100.0 (2,077)	1.60	
임시, 일용근로자	9.4	27.7	50.4	12.5	100.0 (256)	1.66	
근로(사업)소득							
100만원 미만	7.8	14.1	65.6	12.5	100.0 (64)	1.87	26.7**
100~150만원 미만	10.2	22.0	54.2	13.6	100.0 (236)	1.71	
150~200만원 미만	12.7	30.0	46.7	10.7	100.0 (403)	1.56	
200만원 이상	7.9	26.5	55.7	9.9	100.0 (2,442)	1.68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20~44세 유배우 여성의 출생자녀수를 2005년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본조사에서 무자녀, 1자녀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 2자녀 3자녀 이상 비율은 더 낮아져 평균자녀수는 0.1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0〉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 분포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명)	평균
2009년	9.0	26.6	54.3	10.1	100.0 (3,585)	1.66
2005년	7.2	20.8	61.0	11.0	100.0 (3,8020)	1.77

자료: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12장 유배우여성의 향후 출산계획

2. 기혼여성의 출산시기

결혼연령이 높아지면 가임기간은 짧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생아수도 적어지므로 결혼연령의 상승은 출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배우

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표 10-31), 전체적으로 초혼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1.90명, 25~29세인 경우 1.61명, 30~34세인 경우 1.20명, 35세 이상인 경우 1.05명으로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현저하게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인의 현재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출산을 완결한 40~44세 유배우 부인의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24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 1.95명, 25~29세에 결혼한 경우 1.88명, 30~34세에 결혼한 경우 1.55명, 35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1.12명으로 나타났다. 35~39세 유배우 부인의 예를 들어보아도, 24세 이하에서 결혼시 평균 출생아수는 2.08명, 25~29세 결혼시 1.84명, 30~34세 결혼시 1.38명, 35세 이상 결혼시 0.98명으로 나타났다.

〈표 10-31〉 유배우 여성(20~44세)의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자녀수

(단위: 명)

초혼연령	부인의 현재 연령					전체 (20~44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전체	0.82	0.99	1.47	1.82	1.85	1.65
24세 이하	0.82	1.54	1.89	2.08	1.95	1.90
16세	-	-	3.00	2.00	-	2.53
17세	1.00	2.35	-	2.34	1.88	2.12
18세	1.23	2.67	1.60	2.18	1.88	1.81
19세	1.04	1.66	1.84	2.05	1.87	1.79
20세	0.86	1.79	1.99	2.21	2.03	1.95
21세	0.98	2.13	1.96	2.14	2.07	2.01
22세	0.53	1.41	2.13	1.93	1.89	1.84
23세	0.59	1.24	1.80	2.01	1.94	1.86
24세	0.47	1.41	1.80	2.16	1.93	1.91
25~29세		0.67	1.49	1.84	1.88	1.61
25세		1.16	1.83	1.87	1.99	1.80
26세		0.70	1.63	1.89	1.95	1.69
27세		0.50	1.63	1.80	1.82	1.58
28세		0.40	1.23	1.91	1.69	1.44
29세		0.17	0.96	1.65	1.80	1.30
30~34세		0.00	0.64	1.38	1.55	1.20
30세		0.00	0.81	1.55	1.59	1.27
31세			0.62	1.53	1.58	1.27
32세			0.30	1.17	1.64	1.00
33세			0.70	1.19	1.31	1.17
34세			0.31	0.94	1.34	1.00
35세 이상			0.00	0.98	1.12	1.05

다음으로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로 출산간격을 살펴보면(표 10-32), 전체적으로 결혼~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1.48년, 첫째아~둘째아 출산까지 평균 3.04년, 둘째아~셋째아 출산까지 평균 4.27년이 소요되어,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출산간격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혼여성의 일부 특성별로 출산간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법률혼에서 대부분 출산이 발생하는 한국사회에서 초혼시기는 적어도 첫째아 출산시기(초산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에 틀림없다. 초혼연령은 읍·면부보다 동부에서, 최근의 코호트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취업자, 사무직 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 가구소득 수준과는 뚜렷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는다.

결혼 후 초산까지 간격은 동부와 읍·면부가 비슷한 수준이고, 첫째아 출산부터~둘째아 출산 기간은 동부가, 둘째아 출산부터~셋째아 출산 기간은 읍면부가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경향성은 없다.

현 연령별로는 최근의 코호트일수록 결혼 후 초산까지 및 이후 출산순위 간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의 세대는 결혼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나, 일단 결혼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출산을 완료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늦게 하면서 이후 자녀출산도 보다 늦게 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결혼 후 초산까지의 간격은 대학원졸 여성에서 1.76년으로 가장 길다. 취업상태별로는 비취업 여성의 경우 취업여성보다 출산간격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 한편 소득수준별 또는 직종별로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사무직의 경우 결혼부터 첫째아 출산 기간은 가장 길고, 첫째아 출산에서 둘째아 출산 기간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2〉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초혼연령과 출산간격

(단위: 세, 년)

구 분	초혼연령	첫째아 출산연령 ~초혼연령1)	둘째아 출산연령 ~첫째아출산연령	셋째아 출산연령 ~둘째아출산연령	넷째아 출산연령 ~셋째아출산연령
전체	26.31	1.48	3.04	4.27	4.08
(분석대상지수)	(3,362)	(2,927)	(1,991)	(288)	(14)

〈표 10-32〉 계속

구 분	초혼연령	첫째아 출산연령 ~초혼연령 ¹⁾	둘째아 출산연령 ~첫째아출산연령	셋째아 출산연령 ~둘째아출산연령	넷째아 출산연령 ~셋째아출산연령
지역					
동부	26.34	1.48	3.02	4.34	3.55
읍·면부	26.18	1.49	3.14	4.01	5.08
연령별					
20~24세	21.38	0.92	2.20	-	-
25~29세	25.45	1.27	2.76	2.62	-
30~34세	26.61	1.57	2.99	3.37	3.34
35~39세	26.79	1.50	3.11	4.58	3.62
40~44세	26.08	1.46	3.04	4.67	4.42
교육수준					
중졸 이하	24.89	1.54	2.64	5.79	4.00
고졸	25.73	1.44	3.10	4.31	3.83
대졸	27.17	1.45	3.06	3.60	6.10
대학원졸 이상	27.79	1.76	3.19	2.82	-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26.37	1.58	3.13	4.24	3.04
60~80% 미만	26.39	1.48	2.94	4.32	4.00
80~100% 미만	26.35	1.47	3.05	4.05	4.64
100~120% 미만	26.41	-	-	-	-
120~140% 미만	25.97	-	-	-	-
140~160% 미만	26.18	-	-	-	-
160% 이상	26.50	-	-	-	-
취업여부					
취업	26.08	1.38	2.97	3.92	4.09
비취업	26.49	1.54	3.10	4.46	4.08
직종별					
고위관리직·전문직	26.63	1.24	3.23	2.79	4.00
사무직	26.97	1.49	2.91	3.86	2.35
서비스판매직	25.51	1.34	2.96	3.90	4.78
생산·단순노무직 등	25.91	1.44	3.01	4.97	-

주: 1) 생애 임신및출산 이력에 모두 응답을 하고,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부인 2,956명중 첫째아 출산 당시 연령이 초혼 연령보다 2세 이상 더 작은 30명은 제외하고 분석함.

제3절 유배우여성의 향후 출산계획

1. 유배우여성의 향후 출산의향

유배우여성(20~44세) 중 17.1%가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74.3%는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10-33).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배우여성은 8.6%로 나타났다.

향후 출산여부는 현재 연령(남아 있는 가임기간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과 현존자녀수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29세 유배우여성 중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비율(출산계획비율)은 48.1%이다. 이후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계획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져 30~34세에서 28.6%, 35~44세에서 7.1%로 각각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현존자녀수별로 출산계획비율은 무자녀인 경우 69.8%, 1자녀의 경우 32.2%, 2자녀의 경우 4.4%, 3자녀 이상의 경우 2.6%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 및 현존자녀수별로 출산계획비율은 고연령층이면서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아주 낮다. 무자녀 여성의 연령별 출산계획비율은 20~29세의 경우 71.4%, 30~34세의 경우에 80.0%이나 35~44세에서는 절반 수준(50.7%)으로 낮다. 현존자녀수가 1명인 여성의 추가출산계획비율은 20대 54.1%에서 30대 초반 42.4%, 30~44세 16.5%로 연령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2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의 추가출산계획비율도 20대 13.3%, 30대 초반 7.5%, 35~44세 3.1%로 고연령층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현존자녀수가 3명 이상인 여성의 추가출산계획비율은 20대에서 0%, 30대 초반에서 5.6%, 35세 이상의 경우 1.9%로 극히 낮다.

종합하면, 동일 연령층이라도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출산계획비율은 아주 낮으며, 현존자녀수가 같더라도 고연령층일수록 추가출산계획비율은 아주 낮다. 즉, 추가출산에 대한 자녀수규범과 연령규범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무자녀인 경우에도 고연령층에서의 추가출산계획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늦어질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생리적·신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33〉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및 현존자녀수별 향후 출산계획

(단위: %, 명)

구 분	전체				20~29세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전체	17.1	74.3	8.6	100.0(3,375)	48.1	38.0	13.9	100.0(403)
현존자녀수	$(x^2=1100.2^{***})$				$(x^2=128.1^{***})$			
0명	69.8	16.9	13.2	100.0(295)	71.4	12.7	15.9	100.0(126)
1명	32.2	54.8	13.0	100.0(879)	54.1	29.7	16.3	100.0(172)
2명	4.4	89.3	6.4	100.0(1,853)	13.3	76.7	10.0	100.0(90)
3명이상	2.6	92.0	5.5	100.0(348)	-	100.0	-	100.0(17)

〈표 10-33〉 계속

(단위: %, 명)

구 분	30~34세				35~44세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전체	28.5	60.8	10.7	100.0(803)	7.1	86.0	6.9	100.0(2,170)
현존자녀수	$(x^2=270.4^{***})$				$(x^2=363.3^{***})$			
0명	80.0	15.0	5.0	100.0(100)	50.7	28.2	21.1	100.0(71)
1명	42.4	43.1	14.5	100.0(283)	16.5	72.6	10.8	100.0(424)
2명	7.5	83.0	9.5	100.0(348)	3.1	91.5	5.4	100.0(1,416)
3명이상	5.6	84.7	9.7	100.0(72)	1.9	93.4	4.6	100.0(259)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향후 출산계획은 <표 10-3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거주지별로 보면, 2자녀이상을 둔 유배우여성의 경우 읍면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서 추가출산계획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 추가출산계획비율은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유배우여성의 교육수준별로는 무자녀 또는 1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해, 대체적으로 고학력층일수록 추가출산계획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층이 더 출산할 계획이기보다 만혼 등으로 인해 아직 희망하는 자녀수까지 출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배우여성의 취업여부별로는 현존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취업 유배우여성의 추가출산계획비율이 비취업 유배우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정양립 곤란 등의 어려움이 추가자녀출산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외의 특성별 추가출산계획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0-34> 유배우여성(20~44세)의 현존자녀수 및 일반특성별 향후 출산계획

(단위: %, 명)

구 분	자녀없음				현존자녀 1명				현존자녀 2명이상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전체	69.8	16.9	13.2	100.0(295)	32.2	54.8	13.0	100.0(879)	4.1	89.7	6.2	100.0(2201)
지역	$(x^2=0.4)$				$(x^2=0.8)$				$(x^2=6.0)$			
동부	69.1	17.8	13.1	100.0(259)	31.9	55.3	12.8	100.0(772)	3.7	90.4	5.9	100.0(1869)
읍·면부	73.0	13.5	13.5	100.0(37)	34.3	50.9	14.8	100.0(108)	6.0	86.1	7.9	100.0(331)
연령별	$(x^2=46.0^{***})$				$(x^2=146.0^{***})$				$(x^2=59.7^{***})$			
20~24세	50.0	16.7	33.3	100.0(12)	60.0	20.0	20.0	100.0(20)	16.7	83.3	-	100.0(6)
25~29세	74.1	12.5	13.4	100.0(112)	53.3	30.9	15.8	100.0(152)	10.9	80.2	8.9	100.0(101)
30~34세	80.0	15.0	5.0	100.0(100)	42.4	43.1	14.5	100.0(283)	6.9	83.6	9.5	100.0(420)
35~39세	68.3	12.2	19.5	100.0(41)	25.7	62.6	11.7	100.0(214)	4.3	88.9	6.9	100.0(861)
40~44세	24.1	51.7	24.1	100.0(29)	6.7	83.7	9.6	100.0(209)	1.5	95.0	3.6	100.0(814)
교육수준	$(x^2=15.2^*)$				$(x^2=18.3^{**})$				$(x^2=12.1)$			
중졸이하	35.7	28.6	35.7	100.0(14)	20.8	70.8	8.3	100.0(24)	6.6	85.2	8.2	100.0(61)
고졸	66.4	22.1	11.5	100.0(122)	29.5	60.2	10.2	100.0(420)	3.5	90.6	5.9	100.0(1250)
대졸	75.3	11.7	13.0	100.0(154)	35.8	47.9	16.4	100.0(422)	4.6	89.3	6.0	100.0(863)
대학원이상	80.0	20.0	-	100.0(5)	23.1	69.2	7.7	100.0(13)	7.7	73.1	19.2	100.0(26)
취업여부	$(x^2=5.8)$				$(x^2=3.3)$				$(x^2=10.9^{**})$			
취업	74.3	16.2	9.6	100.0(167)	28.2	57.7	14.1	100.0(298)	2.8	89.7	7.6	100.0(871)
비취업	63.1	18.5	18.5	100.0(130)	34.1	53.4	12.4	100.0(580)	5.0	89.7	5.3	100.0(133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 추가출산계획비율은 <표 10-35>에 제시되어 있다. 취업여성의 직종별로 살펴보면, 현존자녀수가 1명인 경우 추가출산 계획비율은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직·단순노무직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추가출산계획비율은 상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유배우부인의 근로(사업)소득 수준별로는 무자녀 경우에만 추가출산계획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근로소득수준별 추가출산계획비율은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에서 낮고, 중소득층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근로·사업소득수준별로는 1자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고소득층일수록 추가출산계획비율이 낮다. 저소득층(근로·사업 소득)은 자녀양육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그리고 고소득층(근로·사업소득)은 기회비용(경력단절 등)을 우려하여 출산을 중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자녀 혹은 2자녀 이상을 둔 유배우여성의 특성별로 추가출산계획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무자녀인 경우에는 특성과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향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특성과 상관없이 단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10-35>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 및 남편의 경제활동특성별 추가 출산계획

(단위: %, 명)

구 분	자녀없음				1명				2명이상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있음	없음	모름	계(명)
부인 직종별	$(\chi^2=6.1)$				$(\chi^2=21.9^{**})$				$(\chi^2=1.8)$			
고위·(준)전문직	87.5	12.5	0.0	100.0(16)	42.9	42.9	14.3	100.0(28)	1.6	90.6	7.8	100.0(64)
사무직	80.2	14.0	5.8	100.0(86)	29.4	47.7	22.9	100.0(109)	2.2	88.4	9.3	100.0(225)
서비스·판매업	67.9	19.6	12.5	100.0(56)	26.5	64.7	8.8	100.0(136)	2.9	90.2	6.9	100.0(491)
생산·단순노무직 등	60.0	20.0	20.0	100.0(5)	15.0	85.0	0.0	100.0(20)	2.4	89.0	8.5	100.0(82)
부인 종사상지위 ¹⁾	$(\chi^2=5.7)$				$(\chi^2=20.1^{***})$				$(\chi^2=4.7)$			
비임금근로자	72.2	16.7	11.1	100.0(18)	29.8	57.4	12.8	100.0(47)	2.9	90.9	6.2	100.0(241)
상용근로자	77.4	16.9	5.6	100.0(124)	36.7	50.3	13.0	100.0(169)	2.5	90.8	6.7	100.0(401)
임시·일용근로자	68.4	10.5	21.1	100.0(19)	9.1	74.0	16.9	100.0(77)	2.3	86.8	11.0	100.0(2190)
부인 근로(사업)소득	$(\chi^2=15.5^*)$				$(\chi^2=7.5)$				$(\chi^2=3.3)$			
100만원미만	61.5	7.7	30.8	100.0(13)	19.1	63.8	17.0	100.0(47)	1.5	91.4	7.1	100.0(197)
100~150만원	73.3	20.0	6.7	100.0(45)	22.9	57.3	19.8	100.0(96)	3.7	86.9	9.3	100.0(268)
150~200만원	83.9	12.9	3.2	100.0(62)	30.8	58.5	10.8	100.0(65)	2.8	90.2	7.0	100.0(143)
200만원이상	71.1	23.7	5.3	100.0(38)	35.1	54.1	10.8	100.0(74)	2.9	89.8	7.3	100.0(205)
남편 취업여부	$(\chi^2=3.7)$				$(\chi^2=2.2)$				$(\chi^2=3.5)$			
취업	70.4	16.2	13.4	100.0(284)	31.9	54.7	13.4	100.0(852)	40	89.9	6.1	100.0(2130)
비취업	45.5	36.4	18.2	100.0(11)	37.0	59.3	3.7	100.0(27)	70	83.1	9.9	100.0(71)
남편근로(사업)소득	$(\chi^2=3.9)$				$(\chi^2=18.8^*)$				$(\chi^2=13.8)$			
100만원 미만	80.0	-	20.0	100.0(5)	44.4	33.3	22.2	100.0(9)	41	91.8	4.1	100.0(49)
100~150만원	58.3	25.0	16.7	100.0(24)	42.3	44.2	13.5	100.0(52)	38	86.3	10.0	100.0(160)
150~200만원	72.5	15.7	11.8	100.0(51)	42.5	43.3	14.2	100.0(120)	56	87.9	6.5	100.0(231)
200~300만원	72.0	16.1	11.9	100.0(148)	31.6	53.6	14.8	100.0(358)	50	88.2	6.8	100.0(755)
300만원 이상	68.9	15.6	15.6	100.0(45)	26.5	62.2	11.3	100.0(291)	30	92.2	4.8	100.0(846)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배우여성(20~44세)의 현존자녀수 및 이들의 성구조에 따른 추가출산계획은 <표 10-3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현존자녀의 성구조와 무관하게 2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여성들 중 80% 이상이 출산을 중단할 계

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선호가 자녀성선호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들 1명만을 두고 있는 여성의 추가출산 계획 비율은 29.6%로 낮으며, 추가 자녀로는 ‘성구별 없이’ 17.8%, 딸 1명 8.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딸 1명만을 두고 있는 여성의 추가계획비율은 34.7%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추가 자녀로는 ‘성구별 없이’ 22.0%, 아들 1명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34세 여성들 중 아들 1명만을 두고 있는 경우 추가출산계획은 41.9%이며, 이 중 11.8%는 딸 1명의 추가를 희망하고 있었다. 딸 1명만을 두고 있는 여성의 추가출산계획은 53.2%로 아들 1명만을 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이 중 12.8%가 추가로 아들 1명만을 희망하고 있었다. 현재 동일한 자녀수를 두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자녀의 성구조에 불만족한 경우(특히, 딸로만 구성)에는 추가출산계획 비율이 높고, 추가희망 자녀의 성도 현 자녀와 다른 성(性)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표 10-36〉 유배우여성(20~44세)의 현존 자녀수 및 성구조별 추가출산 계획

(단위: %, 명)

구 분	추가 계획 없음	구별 없이 추가	이들딸 구별하여 추가출산 계획						모름	계	(명)
			아들1	딸1	아들1 딸1	아들2	딸2	3명 이상			
전체($\chi^2=1404.9^{***}$)	74.6	11.0	1.7	1.9	2.0	-	-	0.2	8.6	100.0	(3,360)
자녀없음	17.2	51.4	2.1	1.7	12.8	0.3	-	1.0	13.4	100.0	(290)
아들1명	56.2	17.8	1.2	8.3	2.2	-	-	0.2	14.2	100.0	(507)
딸1명	53.4	22.0	8.2	2.0	2.3	-	-	0.3	11.9	100.0	(354)
아들2명	91.0	1.6	0.2	1.2	0.4	-	0.2	0.2	5.1	100.0	(491)
딸2명	86.5	1.6	3.1	-	0.6	-	-	0.3	7.9	100.0	(318)
아들1명, 딸1명	89.3	3.1	0.3	0.5	0.4	-	-	-	6.4	100.0	(1,041)
3명이상	92.0	1.7	0.3	-	0.6	-	-	-	5.5	100.0	(348)
20~34세($\chi^2=595.8^{***}$)	53.6	22.5	3.4	3.9	4.3	0.1	0.1	0.3	11.9	100.0	(1,194)
자녀없음	14.0	55.7	1.4	1.8	14.5	0.5	-	1.4	10.9	100.0	(221)
아들1명	41.6	25.1	2.0	11.8	2.7	-	-	0.4	16.5	100.0	(255)
딸1명	33.0	33.5	12.8	3.7	2.7	-	-	0.5	13.8	100.0	(188)
아들2명	83.8	1.8	-	1.8	0.9	-	0.9	-	10.8	100.0	(111)
딸2명	80.0	4.7	8.2	-	2.4	-	-	-	4.7	100.0	(85)
아들1명, 딸1명	81.7	5.4	0.4	1.2	0.8	-	-	-	10.4	100.0	(241)
3명이상	87.6	1.1	1.1	-	2.2	-	-	-	7.9	100.0	(89)

〈표 10-36〉 계속

(단위: %, 명)

구 분	추가 계획 없음	구별 없이 추가	아들딸 구별하여 추가출산 계획						모름	계 (명)
			아들1	딸1	아들1 딸1	아들2	딸2	3명 이상		
35~44세($\chi^2=445.1^{***}$)	86.1	4.7	0.7	0.8	0.7	-	-	0.1	6.9	100.0 (2,166)
자녀없음	28.6	37.1	4.3	1.4	7.1	-	-	-	21.4	100.0 (70)
아들1명	70.9	10.8	0.4	4.8	1.2	-	-	-	12.0	100.0 (251)
딸1명	76.5	9.0	3.0	-	1.8	-	-	-	9.6	100.0 (166)
아들2명	93.4	1.6	0.3	0.8	0.3	-	-	0.3	3.4	100.0 (379)
딸2명	88.5	0.9	1.3	-	-	-	-	0.4	9.0	100.0 (234)
아들1명, 딸1명	91.5	2.5	0.1	0.2	0.4	-	-	-	5.2	100.0 (801)
3명이상	93.1	1.9	0.4	-	-	-	-	-	4.6	100.0 (26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유배우여성의 향후 출산자녀수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들이 추가로 낳고자 하는 자녀수는 <표 10-3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이들 여성의 추가계획자녀수로 는 1명 73.2% 그리고 2명이상 26.8%로 평균 1.30명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의 향후 출산계획자녀수는 1명 55.7%, 2명 이상 44.3%로 평균 1.48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1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의 추가출산 자녀수는 1명 84.8%, 2명 이상 15.2%로 평균 1.17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2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의 추가출산 자녀수는 1명 78.5%, 2명 이상 21.5%로 평균 1.23명으로 나타났다. 1자녀 여성들이 2자녀 여성에 비해 추가출산자녀수가 평균적으로 적다는 점은 그만큼 추가 출산을 하더라도 2자녀에서 중단하겠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표 10-37〉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의 추가출산계획 자녀수

(단위: %, 명)

구 분	출산계획 자녀수			평균 기대자녀수
	1명	2명이상	계 (명)	
전체	73.2	26.8	100.0 (549)	1.30
현존자녀수($\chi^2=51.8^{***}$)				
0명	55.7	44.3	100.0 (192)	1.48
1명	84.8	15.2	100.0 (270)	1.17
2명	78.5	21.5	100.0 (79)	1.23
3명이상	50.0	50.0	100.0 (8)	1.52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평균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를 제외한 수치임.

3. 유배우여성의 향후 출산시기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희망시기는 <표 10-38>에 제시되어 있다. 출산희망시기는 1~2년 이내가 3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년 이내 28.4%, 2~3년 이내 20.1% 순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단기간(2년 이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 계획에 가임기간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자녀수별로도 자녀수가 적은 여성일수록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10-38〉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희망시기

(단위: %, 명)

구 분	1년 이내 (현임신중포함)	1-2년이내	2-3년이내	3년이후	기타	미결정	계 (명)
전체	28.4	35.0	20.1	4.9	1.0	10.5	100.0 (577)
연령($\chi^2=36.7^*$)							
20~24세	15.0	35.0	25.0	15.0	-	10.0	100.0 (20)
25~29세	29.3	28.7	27.0	7.5	0.6	6.9	100.0 (174)
30~34세	26.2	41.5	17.9	3.9	0.9	9.6	100.0 (229)
35~39세	31.1	32.8	16.4	2.5	2.5	14.8	100.0 (122)
40~44세	32.4	32.4	8.8	2.9	0.0	23.5	100.0 (34)
현존자녀수($\chi^2=32.9^{**}$)							
0명	39.3	25.7	18.4	4.4	0.5	11.7	100.0 (206)
1명	23.6	39.6	22.1	5.7	0.7	8.2	100.0 (280)
2명	18.5	40.7	19.8	3.7	2.5	14.8	100.0 (81)
3명이상	11.1	55.6	11.1	0.0	0.0	22.2	100.0 (9)

4. 유배우여성의 향후 출산시 육아계획

가. 향후 출산시 사적육아지원에 대한 기대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로 자녀가 보육시설 등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친정, 시댁)가 양육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는 <표 10-3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향후 출산계획 여성의 50.9%가 부모(시부모 12.4%, 친정부모 23.2%, 양가부모 15.3%)의 육아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부모의 육아지원 기대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서 높아 꺾(∩)형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모의 육아지원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과 기출산 자녀수 간의 정적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여성 중 부모의 육아지원을 기대하는 비율은 64.6%로 비취업여성의 4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직종별로 부모의 육아지원을 기대하는 비율은 사무직 75.5%, 서비스·판매직 59.3%, 고위관리직·(준)전문직 51.9%, 생산·단순노무직 37.5%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들이 부모의 육아지원을 기대하는 정도를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70.8%, 임시·일용직 64.0%, 비임금근로자 36.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역이나 가구소득수준별로 부모의 육아지원 기대여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20~44세 여성들이 향후 출산시 부모의 육아지원을 기대하는 정도는 반절 수준이나, 여성의 특성별로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 저연령층 여성일수록 초산인 경우가 많아 그리고 고연령층 여성일수록 기출산 자녀수가 많아 부모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추가자녀의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여, 부모의 육아지원에 대한 기대도 높게 나타난다.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취업여성에 비해 부모의 육아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으

며, 특히 일·가정양립이 곤란하면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무직, 상용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표 10-39〉 향후 출산계획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가 보육시설 등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의 육아지원에 대한 기대

(단위: %, 명)

	시부모님지원	친정부모님지원	모두지원	기대 안함	계 (명)
전체	12.4	23.2	15.3	49.1	100.0 (573)
지역($\chi^2=6.7$)					
동부	13.5	23.7	15.7	47.0	100.0 (489)
읍·면부	6.0	20.2	13.1	60.7	100.0 (84)
연령별($\chi^2=21.4^*$)					
20~24세	16.7	5.6	22.2	55.6	100.0 (18)
25~29세	13.1	18.9	17.1	50.9	100.0 (175)
30~34세	13.2	29.8	16.2	40.8	100.0 (228)
35~39세	10.1	22.7	9.2	58.0	100.0 (119)
40~44세	9.4	12.5	15.6	62.5	100.0 (32)
가구소득수준($\chi^2=24.3$)					
60% 미만	15.1	18.3	11.8	54.8	100.0 (93)
60~80%	7.8	22.9	15.0	54.2	100.0 (153)
80~100%	13.0	18.5	12.0	56.5	100.0 (108)
100~120%	12.3	26.0	15.1	46.6	100.0 (73)
120~140%	12.9	33.9	22.6	30.6	100.0 (62)
140~160%	17.9	23.1	17.9	41.0	100.0 (39)
160% 이상	14.3	34.3	17.1	34.3	100.0 (35)
자녀수($\chi^2=30.0^{***}$)					
0명	13.7	27.3	20.5	38.5	100.0 (205)
1명	12.6	21.2	10.8	55.4	100.0 (278)
2명	9.9	19.8	13.6	56.8	100.0 (81)
3명이상	0.0	11.1	55.6	33.3	100.0 (9)
취업여부($\chi^2=29.7^{***}$)					
취업	16.2	27.5	21.0	35.4	100.0 (229)
비취업	9.9	20.3	11.6	58.1	100.0 (344)
직종($\chi^2=22.5^{**}$)					
고위·(준)전문직	11.1	25.9	14.8	48.1	100.0 (27)
사무직	13.2	29.2	33.0	24.5	100.0 (106)
서비스·판매업	20.9	27.9	10.5	40.7	100.0 (86)
생산·단순노무직 등	12.5	12.5	12.5	62.5	100.0 (8)
종사상 지위($\chi^2=16.5^*$)					
비임금근로자	15.2	15.2	6.1	63.6	100.0 (33)
상용근로자	16.1	30.4	24.4	29.2	100.0 (168)
임시·일용근로자	20.0	24.0	20.0	36.0	100.0 (2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이 향후 출산시 남편이 가정일을 많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는 매우 그렇다 12.1%, 대체로 그렇다 70.2%, 별로 그렇지 않다 15.7%, 전혀 그렇지 않다 2.0% 등으로 총 82.3%가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40). 향후 출산계획 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남편의 가정일 도움을 기대(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하는 비율이 높으나,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기대는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와 3명 이상인 경우 남편의 가정일 도움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의 경우 육아 경험이 없어, 남편의 가정일 도움에 대한 욕구가 높을 것이다. 이와 달리,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다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남편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인의 취업여부별로 남편의 가정일 도움에 대한 기대 정도를 살펴보면, 취업의 경우 91.3%로 비취업의 7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향후 출산계획 여성의 거주지역, 연령별, 직종별 및 종사상지위별로 향후 출산시 남편의 가정일 도움에 대한 기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0〉 유배우여성(20~44세)의 향후 출산시 남편이 가정일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2.1	70.2	15.7	2.0	100.0 (577)
거주지($\chi^2=3.4$)					
동부	13.0	70.2	15.0	1.8	100.0 (494)
읍·면부	7.1	70.2	20.2	2.4	100.0 (84)
연령($\chi^2=8.3$)					
20~24세	15.8	57.9	26.3	0.0	100.0 (19)
25~29세	14.4	71.3	13.2	1.1	100.0 (174)
30~34세	10.0	70.4	17.4	2.2	100.0 (230)
35~39세	13.2	69.4	14.0	3.3	100.0 (121)
40~44세	8.8	73.5	17.6	0.0	100.0 (34)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0-40〉 계속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가구소득수준($\chi^2=37.0^{**}$)					
60% 미만	15.8	61.1	17.9	5.3	100.0 (95)
60~80%	8.4	71.4	17.5	2.6	100.0 (154)
80~100%	14.8	61.1	23.1	0.9	100.0 (108)
100~120%	11.0	82.2	6.8		100.0 (73)
120~140%	18.8	71.9	7.8	1.6	100.0 (64)
140~160%	7.7	87.2	5.1		100.0 (39)
160% 이상	5.9	70.6	23.5		100.0 (34)
자녀수($\chi^2= 32.9^{***}$)					
0명	18.9	72.8	7.8	0.5	100.0 (206)
1명	9.3	68.3	19.9	2.5	100.0 (281)
2명	4.9	69.1	21.0	4.9	100.0 (81)
3명이상	11.1	77.8	11.1	-	100.0 (9)
취업여부($\chi^2=24.0^{***}$)					
취업	16.0	75.3	8.2	0.4	100.0 (231)
비취업	9.6	67.0	20.6	2.9	100.0 (345)
직종별($\chi^2=7.5$)					
고위·(준)전문직	25.9	59.3	14.8	-	100.0 (27)
사무직	17.0	76.4	6.6	-	100.0 (106)
서비스·판매업	13.6	77.3	8.0	1.1	100.0 (88)
생산·단순노무직 등	11.1	88.9	-	-	100.0 (9)
종사상 지위 ¹⁾ ($\chi^2=2.6$)					
비임금근로자	17.6	76.5	5.9	-	100.0 (34)
상용근로자	16.6	75.1	7.7	0.6	100.0 (169)
임시·일용근로자	11.1	74.1	14.8	-	100.0 (27)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나. 향후 출산시 근무형태 변경계획

취업 중인 유배우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향후 임신·출산 후 양육을 위하여 근무형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평소대로 일함 54.7%, 시간을 줄여 일함 31.7%, 직장(일) 중단 13.5%로 나타났다. 동부지역 거주 여성의 58.9%가 평소대로 일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읍면부 지역 거주여성의 경우에는 23.1%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여성의 직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고위관리직·(준)전문직 등의 순으로 향후 출산시 평소대로

일하겠다고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간을 줄여 일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고위관리직·(준)전문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들 여성의 연령, 현존자녀수, 가구소득수준, 종사상지위 등의 특성별로 향후 출산시 희망하는 근무형태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0-41〉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향후 임신·출산시 희망하는 근무형태

(단위: %, 명)

구분	평소대로 일함	시간을 줄여 일함	직업(일) 중단	계 (명)
전체	54.7	31.7	13.5	100.0 (211)
지역($\chi^2=11.8^{**}$)				
동부	58.9	28.6	12.4	100.0 (185)
읍·면부	23.1	53.8	23.1	100.0 (26)
연령($\chi^2=12.4$)				
20~24세	20.0	40.0	40.0	100.0 (5)
25~29세	56.1	28.8	15.2	100.0 (66)
30~34세	62.1	27.4	10.5	100.0 (95)
35~39세	45.9	43.2	10.8	100.0 (37)
40~44세	22.2	55.6	22.2	100.0 (9)
가구소득수준($\chi^2=17.6$)				
60% 미만	71.4	-	28.6	100.0 (7)
60~80%	29.6	59.3	11.1	100.0 (27)
80~100%	48.5	33.3	18.2	100.0 (33)
100~120%	52.9	31.4	15.7	100.0 (51)
120~140%	58.3	31.3	10.4	100.0 (48)
140~160%	64.0	24.0	12.0	100.0 (25)
160% 이상	68.2	18.2	13.6	100.0 (22)
출생자녀수($\chi^2=2.0$)				
0명	57.9	31.6	10.5	100.0 (114)
1명	51.9	31.2	16.9	100.0 (77)
2명이상	50.0	33.3	16.7	100.0 (18)
직종($\chi^2=27.9^{***}$)				
고위·(준)전문직	38.5	46.2	15.4	100.0 (26)
사무직	70.7	22.2	7.1	100.0 (99)
서비스·판매업	40.3	41.6	18.2	100.0 (77)
생산·단순노무직 등	50.0	-	50.0	100.0 (6)
종사상 지위 ¹⁾ ($\chi^2=9.4$)				
비임금근로자	32.3	41.9	25.8	100.0 (31)
상용근로자	59.7	28.9	11.3	100.0 (159)
임시·일용근로자	47.6	38.1	14.3	100.0 (2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함.

향후 출산 후에도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유배우부인(20~44세)이 자녀를 돌봐주길 희망하는 사람이나 시설(표 10-42)로는 친정·시부모 58.8%, 놀이방 등 육아시설 21.1%, 본인 또는 남편 10.9%, 파출부·베이비시터 등 5.9%, 기타 가족·친인척 2.4%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 여성이 읍면부지역 여성보다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존자녀수가 적은 여성일수록 부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지원시설, 본인·남편, 기타 친인척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에는 육아경험이 없거나 적어서,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부모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여성의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일용직)인 경우에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직종별, 근무시간별 및 근로소득별로 희망하는 사람 또는 시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42〉 취업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 후 계속 취업시 자녀를 돌볼 사람·시설

(단위: %, 명)

구 분	본인 / 남편	친정부모 / 시부모	기타 가족 / 친인척	파출부/베이비 시터 등	놀이방, 육아시설	기타	계 (명)
전체	10.9	58.8	2.4	5.9	21.1	0.9	100.0 (159)
지역($x^2=12.9^*$)							
동부	9.9	59.9	2.8	4.9	22.5	0.0	100.0 (142)
읍·면부	22.2	50.0	0.0	11.1	11.1	5.6	100.0 (18)
출생자녀수($x^2=29.8^*$)							
0명	5.5	69.2	2.2	4.4	17.6	1.1	100.0 (91)
1명	13.6	49.2	3.4	10.2	23.7	0.0	100.0 (59)
2명	41.7	16.7	0.0	0.0	33.3	8.3	100.0 (12)
직종($x^2=23.3$)							
고위·(준)전문직	22.2	50.0	5.6	11.1	11.1	0.0	100.0 (18)
사무직	4.9	65.9	1.2	4.9	22.0	1.2	100.0 (82)
서비스·판매업	16.1	55.4	3.6	7.1	17.9	0.0	100.0 (56)
생산·단순노무직 등	0.0	0.0	0.0	0.0	100.0	0.0	100.0 (3)
종사상 지위 ¹⁾ ($x^2=23.8^*$)							
비임금근로자	33.3	33.3	0.0	19.0	14.3	0.0	100.0 (21)
상용근로자	8.0	63.2	2.4	4.0	21.6	0.8	100.0 (125)
임시·일용근로자	7.7	61.5	7.7	0.0	23.1	0.0	100.0 (13)

향후 출산 후에도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임금근로 유배우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이용계획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있다 45.8%, 없다 21.9%, 결정유보 32.3%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사례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표 10-43〉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 출산시 육아휴직 이용계획

(단위: %, 명)

구 분	있음						없음	미결정	계 (명)
	6개월 이하	6개월~1년이하	1년~1년6개월이하	1년6개월~2년이하	2~3년	소계			
전체	20.8	6.3	11.5	4.3	2.9	45.8	21.9	32.3	100.0 (147)
종사상지위($\chi^2=5.7$)									
상용근로자	22.4	6.0	12.7	4.5	3.0	48.5	20.9	30.6	100.0 (134)
임시·일용근로자	7.7	7.7	0.0	0.0	7.7	23.0	30.8	46.2	100.0 (1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향후 출산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없는 이유(응답 사례수 30명)로는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돌봐 줄 사람이 있어서) 27.2%,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봐 17.4%, 직장 내에서 승진과 보직 등의 불이익 염려 16.3%, 이용하고 싶지만 상사(고용주)가 원치 않아서 15.4%, 수입이 줄어서 15.0%, 복직이 어려울까봐(해고당할까봐) 5.8%, 일이 많아서 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44〉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향후 출산시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직장내에서 승진과 보직등의 불이익 염려	16.3
수입이 줄어서	15.0
이용하고 싶지만 상사(고용주)가 원치 않아서	15.4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봐	17.4
일이 많아서	2.9
복직이 어려울까봐(해고당할까봐)	5.8
사용할 필요성을 못느껴서(돌봐줄사람이 있어서)	27.2
계	100.0
(명)	(30)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이 향후 출산시 취업중단을 희망하는 사례수(26명)가 너무 적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로 이들이 희망하는 취업중단 시기는 출산 전 9~12개월 3.1%, 출산전 5~8개월 47.0%, 출산 전 1~4개월 42.7%, 출산 후 7.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중단을 희망하는 이유(28명 응답)로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69.5%, 일-자녀양육 양립시간 부족 14.1%, 맡길 곳이 없어서 11.5% 등의 순이다. 이들 취업중단 희망여성들 중 자녀양육 후 직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비율은 58.6%(6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후 29.4%, 3~5세의 유치원 이용가능시기 26.2%, 3세 이전 2.9%)로 나타났다.

5. 유배우여성의 향후 출산중단 이유

향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유배우여성(20~44세)이 출산을 중단한 이유를 현존자녀수별로 제시하면 <표 10-45>와 같다. 전체적으로 출산중단 이유는 자녀교육비용 부담 25.1%, 계획자녀수 달성 24.1%, 자녀양육비용 부담 12.3%, 소득부족 9.8%, 나이가 많아서 8.0% 등의 순이며, 나머지 이유들 각각은 2%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기 유배우여성의 출산중단이유는 현존자녀수 간에 차이가 있다. 무자녀 여성의 출산중단 이유로는 자녀교육비용 부담 22.4%, 자녀양육비용 부담 14.3%, 소득부족 14.3%,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8.2%,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8.2%, 고용불안정 6.1%, 나이가 많아서 6.1%, 주택마련 곤란 4.1%, 본인 건강문제 4.1% 등이며, 나머지 이유들 각각은 3%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미세하였다. 이들 여성은 현재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은 양육을 위한 고비용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인하여 무자녀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부족과 고용불안정 및 주택마련 곤란의 경제적인 이유도 무자녀 경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가임기 유배우여성의 거의 10%에 이르는 비율이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출산

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점은 우리사회에서 불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비율이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점은 순수하게 가치관 변화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가임기에 있으면서도 고연령을 이유로 자녀를 아예 두지 않겠다는 비율도 6%에 이르러, 만혼화가 무자녀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1자녀를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들의 추가출산 중단이유로는 자녀교육비용부담(24.2%), 소득부족(12.5%), 자녀양육비용부담(12.1%), 계획자녀수 달성(11.2%), 고연령(9.5%), 본인의 건강문제(5.3%), 주택마련곤란(5.1%), 마땅한 육아지원 부재(4.4%),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3.4%),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3.2%) 등의 순이며, 나머지 이유들 각각은 3%미만으로 미세하였다. 무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 부담이 가장 주된 이유이며, 소득부족도 추가출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계획자녀수 달성의 이유가 10%이상인 점은 우리사회에서 한자녀관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임이라든가 가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한자녀 출산에서 추가출산을 이행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현재 가임기에 있으면서도 고연령으로 인한 추가출산 중단 경향은 10%에 육박하여 만혼화가 출산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2자녀를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의 추가출산 중단이유로는 계획자녀수 달성 27.7%, 자녀교육비용 부담 25.6%, 자녀양육비용 부담 13.3%, 소득부족 9.1%, 고연령 7.8% 등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이유들 각각은 3%미만으로 미세하였다. 2자녀 유배우여성의 추가출산 중단이유로서 가장 부각되는 점은 계획자녀수 달성으로서 두자녀관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녀교육·양육부담과 소득부족은 상관성이 있는 이유들로 3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의 추가출산 중단이유로는 2자녀를 둔 유배우여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계획자녀수 달성(28.8%), 자녀교육비용 부담(24.3%), 소득부족(9.3%), 자녀양육부담(7.7%) 등이 주된 원인이며, 아이가 많아서는 이유도 14.7%에 이르고 있다.

〈표 10-45〉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수별 추가출산중단이유

(단위 : %, 명)

추가출산중단이유	전체	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소득이 적어서	9.8	14.3	12.5	9.1	9.3
실업상태여서	0.2	-	0.2	0.2	-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2.8	6.1	2.3	2.9	2.2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2.8	4.1	5.1	2.4	1.9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12.3	14.3	12.1	13.3	7.7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5.1	22.4	24.2	25.6	24.3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1.9	-	4.4	1.4	0.6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0.4	-	0.6	0.4	0.3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0.4	-	0.6	0.4	-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0.3	2.0	0.4	0.2	0.3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1.8	8.2	3.4	1.3	1.0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0.2	2.0	-	0.2	0.3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0.5	2.0	1.1	0.3	0.3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0.3	2.0	0.2	0.3	-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24.1	-	11.2	27.7	28.8
남들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0.7	-	0.4	0.9	-
아이가 많아서	2.3	-	-	0.6	14.7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0.9	8.2	3.2	0.2	-
나이가 많아서	8.0	6.1	9.5	7.8	6.7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2.4	2.0	2.3	2.8	0.3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0.1	-	0.2	0.1	-
신체적정신적장애또는만성질환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0.1	-	0.6	0.1	-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등)때문에	2.1	4.1	5.3	1.4	0.6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등)때문에	-	-	-	0.1	-
기타	0.4	2.0	-	0.3	0.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2,467)	(49)	(472)	(1,634)	(313)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상의 추가출산 중단이유들은 임신·출산이 가능한 집단으로서 20~30대 유배우여성들에 한정하여 특성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출산중단이유들은 그 특성에 따라 몇몇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무자녀 유배우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는 <표 10-4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출산중단이유를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부담 26.6%, 자녀양육비 부담 14.3%로 40.9%가 비용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고용불안정의 경제적인 이유 23.9%, 가치관 변화 18.8% 등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를 전혀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

· 양육비용 부담은 출산의욕을 좌절시키고 있는 주된 요소임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여성 중 7.2%는 불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산을 중단하고 있다. 무자녀 여성에게 일-가정양립 곤란은 출산중단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여성의 취업여부나 가구소득수준별 출산중단 이유는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10-46〉 자녀가 없는 유배우여성(20~39세)의 향후 출산중단 이유

(단위: %, 명)

	전체	취업여부($\chi^2=10.9$)		가구소득수준($\chi^2=25.9$)			
		취업중	비취업중	60%미만	60-100%	100-140%	
소득고용불안정	23.9	15.8	29.4	20.0	36.8	11.1	-
주택마련 곤란	2.0	-	5.9	20.0	-	-	-
자녀양육비부담	14.3	5.3	23.5	-	21.1	-	33.3
자녀교육비부담	26.6	36.8	11.8	20.0	10.5	44.4	33.3
일-가정양립곤란	2.0	-	5.9	-	5.3	-	-
가치관변화	18.8	31.6	5.9	-	10.5	44.4	33.3
불임	7.2	5.3	11.8	20.0	10.5	-	-
고연령	-	-	-	-	-	-	-
기타	5.3	5.3	5.3	20.0	5.3	-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5)	(19)	(17)	(5)	(19)	(9)	(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소득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등
- 2) 일-가정양립곤란: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본인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가정 내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 3) 가치관변화: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를 위해, 본인과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자아성취에 시간이 부족해서,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편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
- 4) 기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아이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겪는 가족의 간호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에, 배우자의 건강문제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등

1자녀를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 중단이유로는 무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교육비 부담(26.7%), 소득고용불안정(18.0%), 자녀양육비 부담(17.0%), 가치관 변화(14.6%), 주택마련 곤란(6.9%), 일-가정양립 곤란(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된 특징으로서는 일-가정양립 곤란으로 인하여 추가출산을 중단하겠다는 비율이 6.5%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미 1자녀를 출산한 유배우여성인 만큼 불임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전히 후천성불임으로 인한 추가출산좌절이 존재하고 있다.

1자녀 유배우여성(20~39세)의 취업여부에 따른 추가출산중단 이유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 중인 경우 추가출산 중단이유로는 소득고용불안정(20.7%), 자녀교육비 부담(19.5%), 가치관 변화(19.5%), 일-가정양립 곤란(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1자녀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소득고용불안정과 일-가정양립 곤란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이유들과 가치관 변화가 추가출산을 좌절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비취업여성의 추가출산 중단 이유로 일-가정양립 곤란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고용불안정과 가치관 변화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대신, 자녀교육-양육비 부담은 이들 여성에 중요한 출산중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추가출산 중단이유로서 불임의 중요성은 비취업여성(1.9%)보다 취업여성(3.4%)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며, 주택마련 곤란은 취업여성(3.4%)보다 비취업여성(8.5%)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1자녀를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 중단이유를 가구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고용불안정과 자녀양육비용 부담 및 주택마련 곤란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반면, 일-가정양립 곤란은 고소득층일수록 높다. 자녀교육비용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가치관 변화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높으며, 특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140% 미만인 중산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47〉 1자녀를 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단위: %, 명)

	전체	취업여부($\chi^2=35.5^{***}$)		가구소득수준($\chi^2=71.7^{***}$)			
		취업중	비취업중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소득고용불안정	18.0	20.7	17.0	39.3	18.4	11.0	6.7
주택마련곤란	6.9	3.4	8.5	3.6	9.8	5.5	-
자녀양육비부담	17.0	9.2	20.3	21.4	20.2	15.1	3.3
자녀교육비부담	26.7	19.5	29.7	14.3	28.2	21.9	40.0
일가정양립곤란	6.5	17.2	1.9	3.6	1.2	12.3	23.3
가치관변화	14.6	19.5	12.7	7.1	9.8	27.4	20.0
불임	2.4	3.4	1.9	-	2.5	4.1	-
고연령	3.1	3.4	2.8	-	4.9	-	3.3
기타	4.8	3.4	5.2	10.7	4.9	2.7	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301)	(87)	(212)	(28)	(163)	(73)	(30)

2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의 추가출산 중단이유로는 가치관 변화(주로 계획자녀수 달성, 아이가 많아서 등)가 32.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교육비 부담(24.6%), 자녀양육비 부담(14.6%), 소득고용 불안정(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곤란, 주택마련 곤란, 불임 등의 이유는 아주 미세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취업여부별 및 가구소득 수준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취업여부별 추가출산 중단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가치관 변화의 이유가 두드러지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고용불안정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교육비 부담과 자녀양육비 부담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100% 미만의 소득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표 10-48〉 2자녀 이상을 둔 유배우여성(20~39세)의 추가출산중단 이유

(단위: %, 명)

	전체	취업여부($\chi^2=10.5$)		가구소득수준($\chi^2=70.4^{***}$)			
		취업중	비취업중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소득고용불안정	14.5	13.6	14.9	26.9	15.2	8.9	10.6
주택마련곤란	2.4	3.1	2.0	3.0	2.9	2.1	
자녀양육비부담	14.6	11.5	16.0	13.4	15.7	14.9	11.3
자녀교육비부담	24.6	24.6	24.6	18.7	28.5	22.1	21.2
일·가정양립곤란	2.5	2.9	2.3	3.0	2.2	2.8	2.6
가치관변화	32.2	36.4	30.2	26.9	26.5	37.4	47.7
불임	0.1	-	0.1	0.7	-	-	-
고연령	5.1	4.5	5.5	6.0	5.3	6.0	3.3
기타	4.1	3.4	4.4	1.5	3.8	5.7	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181)	(382)	(798)	(134)	(586)	(281)	(15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영역별 분류는 앞의 표 참조

제4절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1. 유배우여성의 기대자녀수

기대자녀수는 지금까지 실제 출산한 자녀수에다가 향후 출산계획인 자녀

수를 합한 것으로 완결출산력(가임기간 종료 후 최종적인 출생이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기혼여성(20~44세)의 기대자녀수는 <표 10-4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는 2명(64.2%), 1명(19.3%), 3명(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94명으로 2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자녀관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1자녀관의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로 기대자녀수 분포를 살펴보면, 읍면부 지역 거주 여성에 비해 동부지역 거주 여성의 경우 2자녀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부 거주 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가 1.92명으로 읍면부 거주 여성의 2.09명보다 0.17명 낮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 1명 이하의 비율이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2명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저연령층 여성일수록 평균 기대자녀수가 낮아, 향후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기대자녀수는 1명과 3명 이상에서 좀 더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다. 대학 이상 고학력층에서 1명의 기대자녀수 비율이 높고, 3명 이상의 기대자녀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기대자녀수는 교육수준과 부적관계를 보여, 학력간 최대 0.1명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제활동 참가, 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보다 적은수의 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 기대자녀수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2명 내외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00~120%의 중간소득층의 평균기대자녀수는 1.8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득효과(income effect)로서 가구소득수준과 출생이수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출생이수와 마찬가지로 중간소득계층에서 기대자녀수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산층에서의 맞벌이,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 등의 경향이 높은 반면, 일·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인

해 자녀가치에 비해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는 현존자녀수와 강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점은 현재 무자녀인 여성의 20.6%에게서 기대자녀수가 0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현재 1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35.9%가 추가출산을 계획하여, 평균 기대자녀수는 1.42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2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4.6%만이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어,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 비율 6.7%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는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증가하나, 모든 패리티(parity)에서 추가되는 자녀수는 평균 1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존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 기대자녀수는 0.06명 증가한데 그쳐 가장 증가폭이 낮았다. 요컨대, 현재 자녀수가 적은 여성들의 경우 가임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최종자녀수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기대자녀수를 살펴보면, 취업의 경우 2명 이하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취업의 경우 3명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취업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1.90명으로 비취업여성의 1.97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10-49〉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기대자녀수 분포					계 (명)	평균 기대자녀수	χ^2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전체	1.6	19.3	64.2	13.4	1.5	100.0 (3,055)	1.94	
지역								
동부	1.7	20.0	64.6	12.3	1.3	100.0 (2,631)	1.92	29.2***
읍·면부	1.2	14.6	61.2	20.5	2.6	100.0 (425)	2.09	
연령별								
20~24세	6.9	27.6	55.2	6.9	3.4	100.0 (29)	1.71	
25~29세	4.6	26.4	55.0	12.4	1.6	100.0 (307)	1.80	
30~34세	2.1	23.8	58.4	13.8	1.8	100.0 (709)	1.90	77.4***
35~39세	0.5	14.7	68.4	15.2	1.2	100.0 (1,019)	2.02	
40~44세	1.5	18.1	67.0	12.0	1.4	100.0 (993)	1.94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0-49〉 계속

구분	기대자녀수 분포					평균 기대자녀수	χ^2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교육수준							
중졸 이하	4.7	20.0	50.6	22.4	2.4	100.0 (85)	1.98
고졸	1.6	18.0	63.4	15.6	1.3	100.0 (1,647)	1.97
대졸	1.4	20.4	66.3	10.2	1.8	100.0 (1,286)	1.91
대학원졸 이상	2.7	35.1	51.4	10.8	-	100.0 (37)	1.70
가구소득수준별							
60% 미만	1.8	17.4	61.7	16.8	2.4	100.0 (334)	2.01
60~80%	2.3	19.5	62.3	14.1	1.8	100.0 (711)	1.94
80~100%	1.0	18.5	66.1	13.2	1.2	100.0 (676)	1.95
100~120%	1.1	23.3	66.0	9.3	0.3	100.0 (356)	1.84
120~140%	2.3	19.7	65.8	11.8	0.4	100.0 (476)	1.88
140~160%	1.2	15.4	65.2	15.4	2.8	100.0 (247)	2.03
160% 이상	0.6	22.5	56.7	18.0	2.2	100.0 (398)	1.98
출생자녀수							
0명	20.7	44.2	31.8	3.3	-	100.0 (242)	1.17
1명	-	64.1	30.5	4.7	0.8	100.0 (752)	1.42
2명	-	-	95.4	3.6	1.0	100.0 (1,733)	2.06
3명이상	-	-	-	93.3	6.7	100.0 (329)	3.09
취업여부							
취업	2.3	20.3	64.7	11.6	1.3	100.0 (1,198)	1.90
비취업	1.3	18.6	63.8	14.6	1.6	100.0 (1,858)	1.97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기대자녀수는 <표 10-50>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취업여성의 직종별 기대자녀수는 사무직과 고위·관리직·(준)전문직의 경우 1명 이하의 비율이 높고, 서비스·판매직과 생산·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기대자녀수는 고위·관리직·(준)전문직 1.87명, 사무직 1.80명, 서비스·판매직과 생산·단순노무직 각 1.95명 등의 순이었다.

취업여성의 종사상지위별 기대자녀수는 고용주·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의 경우 2명 이상의 비율이 높고,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1명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평균 기대자녀수는 고용주·자영업자 2.07명, 무급가족종사 1.97명, 임시·일용근로자 1.87명, 상용근로자 1.84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취업여성의 근로소득별 기대자녀수

는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1명 이하의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2명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평균 기대자녀수는 근로소득수준과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력 등의 여건 때문에 기대자녀수가 많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여성의 근무시간별 기대자녀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임금손실 등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일한 취업여성일지라도 직종별로는 사무직이나 고위관리직·(준)전문직,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그리고 근로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사무직이나 고위관리직·(준)전문직의 경우 그리고 근로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지속성이 경력이나 임금수준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자녀를 출산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일·가정 양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50〉 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기대자녀수 분포					계 (명)	평균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전체	2.3	20.3	64.7	11.4	1.3	100.0 (1,198)	1.90
직종($\chi^2=21.6^*$)							
고위·(준)전문직	2.1	22.7	63.9	8.2	3.1	100.0 (97)	1.87
사무직	3.3	24.0	63.7	7.4	1.6	100.0 (366)	1.80
서비스·판매직	1.8	18.2	64.8	14.2	1.0	100.0 (625)	1.95
생산·단순노무직 등	1.0	17.3	68.4	12.2	1.0	100.0 (98)	1.96
종사상 지위($\chi^2=34.0^{**}$)							
고용주·자영업자	0.9	12.5	68.1	16.4	2.2	100.0 (232)	2.07
무급가족종사자	2.0	14.0	70.0	12.0	2.0	100.0 (50)	1.97
상용근로자	3.3	21.7	64.3	9.0	1.6	100.0 (631)	1.84
임시·일용근로자	0.7	24.5	61.9	12.8	-	100.0 (273)	1.87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0-50〉 계속

(단위: %, 명)

구분	기대자녀수 분포					계 (명)	평균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근로(사업)소득($\chi^2=30.7^{**}$)							
100만원 미만	0.4	15.7	69.1	13.9	0.9	100.0 (230)	2.00
100~150만원	2.5	19.7	62.9	13.5	1.4	100.0 (356)	1.92
150~200만원	3.2	27.3	61.4	8.0	-	100.0 (249)	1.75
200만원 이상	3.1	20.2	64.1	9.4	3.1	100.0 (287)	1.89
근무시간($\chi^2=16.5$)							
36시간 미만	-	18.1	67.1	14.1	0.7	100.0 (149)	1.97
36~45시간	3.5	22.8	62.8	9.6	1.3	100.0 (457)	1.83
45~61시간	2.0	20.0	65.3	11.3	1.4	100.0 (496)	1.91
61시간 이상	1.4	11.4	68.6	17.1	1.4	100.0 (70)	2.07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 출생자녀수, 기대자녀수 비교

기혼여성(20~44세)의 기대자녀수를 이상자녀수 및 출생아수와 비교한 결과는 <표 10-51>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 기대자녀수(1.94명)는 평균 출생아수 1.66명에 비해 많아, 현재 20~44세 여성 1인당 평균적으로 0.28명이 더 출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평균 1.94명)가 이상자녀수(평균 1.97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기혼여성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마저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기대자녀수와 출생아수 간의 차이와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 간의 차이는 기혼여성의 특성별로 상이하다. 우선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는 20~29세의 경우 1.79명과 1.91명, 30~34세의 경우 1.90명과 1.93명, 35~39세의 경우 2.02명과 2.00명, 40~44세의 경우 1.94명과 1.99명으로 나타났다.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는 현 연령과 상관없이 가임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종적인 출생아수(완결출산력)를 의미하는데, 이들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는 저연령층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게다가 35~39세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평균적으로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보다

적게 나타났다. 즉, 저연령층일수록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 모두 감소하며,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 간의 차이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임기간 초기에는 출생이수가 기대자녀수나 이상자녀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점차 가임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거의 가임기간(출산행위)이 완료된 시기로서 완결출산력에 근접한 40~44세 여성의 출생이수가 1.85명으로 이상자녀수(1.99명)와 기대자녀수(1.9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거주지역별로 보면,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경우 평균 기대자녀수는 연령과 무관하게 유사하며, 이상자녀수는 오히려 고연령층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 및 실제출생이수보다 많고, 특히 40~44세에서는 실제출생이수가 이상자녀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전국 패턴과 유사하나, 저연령층일수록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가 더 적고,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도 더 크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을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모두 전국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학력층에 비해 고학력층에서 저연령층일수록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40~44세의 고연령층에서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중간소득층(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150%)의 경우 저연령층일수록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 모두 낮게 나타나며,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에 미치지 못한 정도도 저연령층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소득층의 기대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기대자녀수와 실제출생아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 모두 저연령층일수록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보다 아주 작은 편이 아니며 일부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에서 실제출생이수와 기대자녀수간의 차이는 작으나, 저소득층에서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여성의 경우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 모두 낮게 나타나며,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에 미치지 못한 정도도 저연령층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상이 보이나,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40~44세 여성의 경우 기대자녀수와 실제출생아수 간의 차이는 비취업여성보다 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를 종합하면, 저연령층일수록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가 감소하고,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에 도달하지 못한 정도가 저연령층일수록 크며, 고연령층에서 실제 출생아수가 기대자녀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은 향후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학력층, 취업여성 및 중산층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계층에서 출산욕구가 좌절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표 10-51〉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출생자녀수(평균)

(단위: 명)

구분	전체			20~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이상	기대	실제	이상	기대	실제	이상	기대	실제	이상	기대	실제	이상	기대	실제
전체	1.97	1.94	1.66	1.91	1.79	1.00	1.93	1.90	1.49	2.00	2.02	1.83	1.95	1.94	1.85
지역															
동부	1.97	1.92	1.64	1.89	1.75	0.95	1.92	1.86	1.47	2.00	2.00	1.82	2.01	1.92	1.83
읍·면부	1.95	2.09	1.76	2.05	2.08	1.26	2.01	2.09	1.61	1.98	2.12	1.88	1.82	2.08	1.97
교육수준															
중졸이하	1.95	1.98	1.68	1.86	1.99	1.16	1.73	1.97	1.18	1.84	2.02	1.92	2.08	1.96	1.83
고졸	1.99	1.97	1.74	1.93	1.82	1.13	1.99	1.94	1.60	2.02	2.06	1.86	1.97	1.95	1.85
대졸	1.95	1.91	1.56	1.89	1.77	0.89	1.90	1.87	1.41	1.99	1.98	1.80	2.01	1.93	1.85
대학원졸이상	1.84	1.70	1.55	2.03	1.39	0.54	1.64	1.80	1.58	1.83	1.69	1.64	2.16	1.78	1.96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1.99	2.01	1.59	1.99	1.96	1.17	2.09	2.14	1.67	1.94	2.03	1.70	1.98	1.89	1.69
60~80%	1.96	1.94	1.62	1.89	1.69	1.06	1.94	1.91	1.54	1.99	2.06	1.81	1.98	1.97	1.81
80~100%	1.98	1.95	1.70	1.87	1.82	0.97	1.94	1.83	1.52	2.02	1.96	1.79	2.00	2.06	1.97
100~150%	1.93	1.87	1.63	1.91	1.62	0.62	1.83	1.81	1.32	1.97	1.98	1.86	1.96	1.84	1.80
150% 이상	2.03	2.02	1.79	1.93	2.02	1.12	1.86	1.92	1.42	2.08	2.12	1.96	2.08	1.97	1.93
취업여부															
취업	1.93	1.90	1.60	1.86	1.63	0.72	1.84	1.79	1.24	1.97	1.98	1.78	1.96	1.94	1.83
비취업	2.00	1.97	1.70	1.94	1.88	1.15	1.97	1.94	1.61	2.01	2.04	1.86	2.02	1.94	1.87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제11장 기혼여성의 보육·교육실태

제1 절 기혼여성의 영유아 보육·교육실태

1.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곳(사람)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0세아에서 5세아까지를 의미하며, 넓게는 취학 전인 6세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중 영아는 0~2세를 그리고 유아는 3~5세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영유아를 주간에 주로 돌보는 기관 및 사람을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는 <표 11-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기관 및 사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제도권 보육·유아교육기관³⁾ 53.2%, 본인 또는 남편 37.8%, 부모 4.4%(친정부모 2.9%, 시부모 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성은 영유아 자녀의 보육을 위해 시부모보다는 친정부모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었다.

영유아 자녀의 연령별⁴⁾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0세아의 경우 74.3%가 부모가 직접 돌보며, 기관(어린이집) 이용은 13.0%, 개별 서비스 이용은 11.1%(조부모 7.9%, 기타 개인 3.2%)로 나타났다. 1세아의 경우, 66.3%가 부모가 직접 돌보며, 대부분이 어린이집인 기관 이용은 20.0%로 나타났다. 2세아의 경우, 51.8%가 부모가 직접 돌보고, 어린이집 등 기관

3) 응답자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통합하여 제시하였음.

4) 연령 산정 기준일이 조사시점이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보육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이용은 41.1%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연령에 따라 높게 나타나는데, 3세아의 경우 63.5%, 4세아의 경우 78.0%, 5세아의 경우 80.4% 등이었다. 한편, 6세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75.0%로 4~5세아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아동 연령의 증가에 따라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낮아지고, 대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다만, 6세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부모나 친정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다소 높아진 이유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 차이를 보면 읍·면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서 본인 또는 남편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비율이 낮고,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읍·면부지역(48.3%)보다 동부지역(54.3%)에서 높고, 본인 또는 남편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비율은 동부지역(37.1%)에 비해 읍·면부지역(4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거주지 간 큰 차이가 없다.

취업여부별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65.8%로 미취업모 49.0%에 비하여 17%p정도 높고, 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취업모(15.2%)에 비해 미취업모(45.4%)에게서 훨씬 높다. 취업모가 기타 개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10% 이상이 부모(친정부모 6.5%, 시부모 4.0%)에 의존하며, 3.4%는 비혈연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15% 정도가 비공식 부분의 개인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60%미만)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비율이 48.7%로 다른 소득계층들보다 낮고, 고소득층일수록 비혈연 서비스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다. 기타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중간소득층(가구소득 264~330만원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는 비율도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과 수준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친정부모에 대한 의존 비율이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하다가 고소득층에서는 낮아지고 대신 비혈연 서비스 이용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는 충분한 보육비용 지불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산층까지는 저렴한 비용을 친정부모에게 지불하면서 자녀 양육을 맡기나, 고소득층은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고 비혈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1-1〉 기혼여성(20~44세)의 취학전 자녀를 주간에 주로 돌보는 곳(사람)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등 기타기관	베이비 시터 등 비혈연	친정부모	시부모	친인척	본인/ 남편	계 (수)
전체	53.2	1.9	2.0	2.9	1.5	0.6	37.8	100.0 (1,892)
아동연령($\chi^2=603.5^{***}$)								
0세아	13.0	1.6	1.6	4.3	3.6	1.6	74.3	100.0 (253)
1세아	20.0	0.4	3.0	6.3	3.0	1.1	66.3	100.0 (270)
2세아	41.1	0.7	0.7	3.9	0.7	1.1	51.8	100.0 (282)
3세아	63.5	0.7	2.5	1.4	1.8	0.4	29.6	100.0 (277)
4세아	78.0	3.7	1.4	1.7	0.3	-	14.9	100.0 (296)
5세아	80.4	4.6	2.5	0.4	0.7	-	11.6	100.0 (285)
6세아	75.0	0.9	2.7	2.7	0.9	0.5	17.3	100.0 (220)
거주지역($\chi^2=8.0$)								
동부지역	54.3	1.7	2.1	2.9	1.4	0.5	37.1	100.0 (1,548)
읍·면부지역	48.3	2.6	2.0	2.6	2.3	1.2	41.0	100.0 (344)
취업여부($\chi^2=182.1^{***}$)								
취업	65.8	3.8	3.4	6.5	4.0	1.3	15.2	100.0 (474)
비취업	49.0	1.2	1.6	1.7	0.6	0.5	45.4	100.0 (1,419)
가구소득($\chi^2=92.6^{***}$)								
60% 미만	48.7	1.6	0.3	1.0	1.0	-	47.4	100.0 (304)
60~80%	51.7	1.3	1.8	2.3	1.2	0.3	41.4	100.0 (602)
80~100%	56.4	2.9	1.6	2.6	1.6	-	34.9	100.0 (381)
100~120%	53.6	1.3	2.6	5.2	0.7	2.0	34.6	100.0 (153)
120~140%	58.7	2.3	2.3	4.1	2.8	2.3	27.5	100.0 (218)
140~160%	52.9	2.9	3.8	3.8	1.0	1.0	34.6	100.0 (104)
160% 이상	53.4	1.1	8.0	4.5	5.7	1.1	26.1	100.0 (88)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기혼여성(20~24세)을 대상으로 야간에 영유아를 돌보는 기관이나 사람을 질문한 결과는 <표 11-2>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야간에 본인이나 남편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 비율이 89.3%로 압도적으로 높고, 부모가 돌보는 비율도 6.7%(친정부모가 3.9%, 시부모님 2.8%)로 나타났다. 야간에도 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보다는 친정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은 아동의 연령이 고연령층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보육시설·유치원·기타학원 등 기관 이용 비율은 낮은 수준이나 대체로 아동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의 혈연 및 비혈연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연령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도시와 농촌 간 야간에 자녀를 돌보는 곳(사람)의 차이를 살펴보면,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돌보는 비율은 동부지역(88.6%)에 비해 읍·면부지역(94.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친정부모의 경우 동부지역에서 그리고 시부모의 경우에는 읍·면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야간 돌봄서비스 이용 형태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취업시 75.3%로 비취업시 94.0%에 비해 상당 수준 낮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이 취업시 자녀의 돌봄형태는 부모 17.6%(친정부모 9.6%, 시부모 8.0%), 기관 5.6%,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인 1.1%로 나타났다. 즉, 야간보호가 필요한 취업여성의 자녀는 기관보다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조부모, 특히 친정부모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표 11-2> 기혼여성(20~44세)의 취학전 자녀를 야간에 주로 돌보는 곳(사람)

단위: %(명)

구 분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등 기타기관	베이비시터 비혈연	친정 부모	시부모	친인척	본인 /남편	계 (수)
전체	2.2	1.2	0.5	3.9	2.8	0.1	89.3	100.0 (1,792)
아동연령($x^2=78.2^{***}$)								
0세아	1.3	-	-	4.2	1.3	-	93.3	100.0 (240)
1세아	0.4	-	0.8	2.7	2.3	0.4	93.5	100.0 (262)
2세아	0.7	0.4	0.4	4.1	-	-	94.4	100.0 (270)
3세아	2.0	0.4	0.8	3.1	3.5	0.4	89.8	100.0 (255)
4세아	2.5	2.5	0.4	3.2	3.6	-	87.7	100.0 (277)
5세아	4.5	1.1	0.4	5.6	4.1	-	84.3	100.0 (267)
6세아	4.3	3.8	1.0	4.3	5.3	-	81.3	100.0 (209)
거주지($x^2=8.5$)								
동부	2.4	1.2	0.5	4.4	2.7	0.1	88.6	100.0 (1,470)
읍·면부	1.2	0.9	0.6	1.6	3.1	-	92.5	100.0 (322)
취업여부($x^2=140.0^{***}$)								
취업	3.8	1.8	1.1	9.6	8.0	0.4	75.3	100.0 (450)
비취업	1.6	1.0	0.3	2.0	1.0	-	94.0	100.0 (1,341)
가구소득($x^2=100.6^{***}$)								
60% 미만	1.1	0.4	-	2.5	0.7	-	95.4	100.0 (284)
60~80%	0.3	1.4	0.3	2.4	2.8	-	92.8	100.0 (581)
80~100%	4.5	1.1	0.3	2.0	2.8	-	89.4	100.0 (358)
100~120%	3.4	0.7	-	8.1	4.1	-	83.8	100.0 (148)
120~140%	3.5	2.0	2.0	7.9	3.5	0.5	80.7	100.0 (202)
140~160%	1.0	-	-	7.2	4.1	1.0	86.6	100.0 (97)
160% 이상	5.0	2.5	2.5	6.3	5.0	-	78.8	100.0 (8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2. 영유아를 돌보기 바람직한 곳(사람)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영유아 자녀를 주간에 어디(누가)에서 돌보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1-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설어린이집 18.6%, 국공립어린이집이 15.0%, 유치원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놀이방과 직장보육시설까지 포함하면 40.8%를 차지한다.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겨야 한다는 비율은 실제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보다 친정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바람직한 곳(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남편의 비율은 줄어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0세아 65.9%, 1세아 63.2%, 2세아 45.2%, 3세아 35.3%, 4세아 이상 20% 내외 등으로 낮아진다. 바람직한 곳(사람)이 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세아의 경우 20.3%이고 이후 아동 연령이 많아지면서 증가하여 4세아의 경우 53.3%로 최고에 달한다. 유치원을 바람직한 곳으로 응답한 비율은 3세아부터 높아지고 있다.

〈표 11-3〉 기혼여성(20~44세)의 주간에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단위: %, 명)

구 분	영유아 연령($\chi^2=497.1^{***}$)							전체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보육시설								
국공립	5.6	8.5	13.2	16.0	18.5	21.1	22.2	15.0
사설어린이집	7.1	8.1	23.9	22.9	26.8	20.1	20.3	18.6
놀이방	5.6	6.2	5.9	8.0	5.9	4.3	2.4	5.7
직장보육시설	2.0	0.4	0.7	1.5	2.1	2.5	1.4	1.5
유치원	1.6	1.6	1.5	8.0	16.4	24.4	22.6	10.7
학원(반일제)	0.8	0.4	1.5	0.4	2.1	4.7	0.5	1.5
기타 기관	-	-	-	-	0.7	-	-	0.1
베이비시터	2.4	1.6	1.8	0.7	1.0	1.8	1.4	1.5
보육모	0.8	3.9	1.5	2.9	2.8	1.1	2.8	2.3
친정부모	4.8	3.9	3.7	2.5	1.7	2.5	2.8	3.1
시부모	3.2	1.6	1.1	1.5	0.7	1.1	1.4	1.5
친가친척	-	0.4	-	-	-	-	-	0.1
외가친척	0.4	0.4	-	-	0.3	-	-	0.1
본인 또는 남편	65.9	63.2	45.2	35.3	20.9	16.1	22.2	38.2
기타 개인	-	-	-	0.4	-	0.4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52)	(268)	(272)	(275)	(287)	(279)	(212)	(1,84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도시·농촌별로 주간에 영유아를 돌보는 바람직한 곳(사람)의 분포를 살펴보면, 본인 또는 남편의 직접 돌봄은 동부지역(37.4%)에 비해 읍·면부지역(41.9%)에서 높고, 어린이집은 읍·면부지역(34.1%)에 비해 동부지역(4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노동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는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돌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율이 취업여성(27.4%)에 비해 비취업여성(41.7%)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고, 유치원과 친정부모·시부모의 비율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특히 친정부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취업여성 6.6%로 비취업여성(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4>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여부 및 거주지별 주간에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단위: %, 명)

구 분	취업여부($\chi^2=108.9^{***}$)		거주지($\chi^2=23.4$)	
	취업	비취업	동부	읍·면부
보육시설				
국공립	12.9	15.7	15.3	13.6
사설어린이집	17.1	19.1	19.2	16.0
놀이방	7.7	5.1	5.9	4.5
직장보육시설	2.0	1.3	1.8	-
유치원	13.1	9.8	10.8	10.2
학원(반일제)	3.5	0.9	1.5	1.8
기타 기관	0.4	-	0.1	-
가정에파견된베이비시터	2.4	1.2	1.3	2.7
집에서아동들을돌보는보육모	2.2	2.2	1.9	4.2
친정부모	6.6	2.0	3.0	3.3
시부모	3.7	0.8	1.4	1.8
친가친척	0.2	-	0.1	-
외가친척	0.4	0.1	0.2	-
본인 또는 남편	27.4	41.7	37.4	41.9
기타 개인	0.4	-	0.1	-
계(수)	100.0(457)	100.0(1,391)	100.0(1,513)	100.0(332)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야간에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기관 및 사람을 질문한 결과는 <표 11-5>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89.0%가 본인 또는 남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외에 어린이집 2.9%, 친정부모 2.6%, 시부모 1.8%, 학원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별로는 본인 또는 남편의 직접 돌봄이 모두 90% 내외로 차이가 거의 없고, 이외 서비스도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나 취업여부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기혼여성(20~44세)의 아간에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단위: %, 명)

구 분	영유아 연령($\chi^2=135.1^{***}$)							전체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보육시설								
국공립	-	0.4	0.4	1.6	0.4	2.3	0.5	0.8
민간어린이집	0.4	-	-	0.4	-	2.3	1.5	0.6
놀이방	-	0.4	0.4	1.2	0.4	0.8	0.5	0.5
직장보육시설	1.7	1.6	0.8	2.0	0.4	0.4	0.5	1.0
유치원	-	-	-	-	1.1	0.4	-	0.2
학원(반일제이상)	0.4	0.4	1.2	0.8	4.0	0.4	2.0	1.3
베이비시터	-	0.8	0.4	1.6	0.7	0.4	1.5	0.7
보육모	1.3	1.2	1.2	-	0.4	1.5	1.0	0.9
친정부모	4.2	2.4	2.7	2.0	1.8	4.5	-	2.6
시부모	1.3	1.6	-	2.4	1.5	2.6	3.5	1.8
외가친척	-	-	-	-	-	-	1.0	0.1
본인 또는 남편	90.7	91.3	92.2	88.1	89.4	84.2	86.9	89.0
기타	-	-	0.8	-	-	0.4	1.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37)	(253)	(257)	(252)	(274)	(266)	(199)	(1,738)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6〉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여부 및 거주지별 아간에 영유아를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단위: %, 명)

구 분	취업여부($\chi^2=56.6^{***}$)		거주지($\chi^2=23.3^*$)		전체
	취업	비취업	동부	읍·면부	
보육시설					
국공립	1.6	0.6	1.1	-	0.9
사설어린이집	0.5	0.7	0.8	-	0.6
놀이방	-	0.7	0.5	0.6	0.5
직장보육시설	1.6	0.8	1.3	-	1.0
유치원	-	0.3	0.3	-	0.2
학원(반일제)	1.6	1.2	1.1	2.2	1.3
베이비시터	0.5	0.8	0.8	0.3	0.7
보육모	1.6	0.7	0.8	1.6	0.9
친정부모	3.7	2.2	2.7	1.6	2.6
시부모	4.8	0.8	1.5	3.1	1.8
외가친척	0.2	0.1	0.1	-	0.1
본인 또는 남편	82.9	90.9	88.6	90.6	88.9
기타(개인)	0.9	0.2	0.4	-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33)	(1,314)	(1,427)	(319)	(1,76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영유아 보육의 수급일치도

기혼여성(20~44세)이 주간에 영아를 돌보기 위해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사람) 간의 일치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7>에 제시되어 있다. 영아를 맡기기에 육아지원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혼여성 중 실제로도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58.1%로 나타났다. 이러한 희망과 현실 간의 일치정도는 바람직한 곳(사람)이 가정보육사인 경우 19.2%, 친척 71.4%, 부부 85.8%로 나타났다. 요컨대,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일부 영아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은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차선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11-7> 기혼여성(20~44세)의 주간 영아(0~2세)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

(단위: %, 명)

구분	실제이용한 사람/시설(주간)				계	(명)	χ^2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부부(기타)			
바람직한 사람/시설(주간)							
전체	26.0	1.8	8.5	63.7	100.0	(805)	
육아지원시설 ¹⁾	58.1	2.4	3.7	35.8	100.0	(246)	
가정보육사	15.4	19.2	7.7	57.7	100.0	(26)	529.8***
친척 ²⁾	20.4	-	71.4	8.2	100.0	(49)	
부부(기타)	9.1	0.7	4.4	85.8	100.0	(45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육아지원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원, 직장보육시설을 포함.

2) 친척은 친정부모, 시부모, 친가 및 외가 친척을 포함.

기혼여성(20~44세)이 야간에 영아를 맡기기를 희망하는 곳(사람)과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간의 일치정도는 <표 11-8>에 제시되어 있다. 부부 스스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부부가 보육하고 있는 비율은 98.0%로 압도적으로 높다. 친척(친정부모, 시부모, 친가 및 외가 친척)의 경우 수급일치정도는 80.8%로 높으나,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표 11-8〉 기혼여성(20~44세)의 야간 영아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

(단위: %, 명)

구분	실제이용한 사람/시설(야간)				계 (명)	x ²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부부(기타)		
바람직한 사람/시설(야간)						
전체	1.0	0.4	5.0	93.7	100.0 (772)	
육아지원시설 ¹⁾	23.5	5.9	-	70.6	100.0 (17)	
가정보육사	-	8.3	-	91.7	100.0 (12)	535.7***
친척 ²⁾	-	-	80.8	19.2	100.0 (26)	
부부(기타)	0.1	0.1	1.8	98.0	100.0 (684)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육아지원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원, 직장보육시설을 포함.
- 2) 친척은 친정부모, 시부모, 친가 및 외가 친척을 포함.

기혼여성(20~44세)의 유아(3세~취학 전) 보육에 대한 수급일치도는 <표 11-9>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사람)과 실제 이용하는 곳(사람) 간의 일치정도를 살펴보면, 육아지원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의 92.7%가 실제로도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베이비시터나 보육모 등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의 8.6%만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65.7%는 육아지원시설을 그리고 25.7%는 부부 스스로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바람직한 곳(사람)으로 친척을 응답한 여성의 25.6%, 부부 스스로라고 응답한 여성의 57.2%가 희망하는 곳(사람)을 실제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9〉 기혼여성(20~44세)의 주간 유아(3세~취학전)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

(단위: %, 명)

구분	실제이용한 사람/시설(주간)				계 (명)	x ²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부부(기타)		
바람직한 사람/시설(주간)						
전체	77.0	2.3	2.5	18.3	100.0 (1,078)	
육아지원시설 ¹⁾	92.7	2.6	0.7	4.0	100.0 (725)	
가정보육사	65.7	8.6	-	25.7	100.0 (35)	479.1***
친척 ²⁾	59.0	-	25.6	15.4	100.0 (39)	
부부(기타)	37.2	0.8	4.8	57.2	100.0 (250)	

기혼여성(20~44세)이 야간에 유아를 맡기기를 원하는 곳(사람과 실제 맡기는 곳(사람) 간의 일치정도는 <표 11-10>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의 야간 보육을 위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여성의 64.9%는 실제로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26.3%는 부인이나 남편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부모나 시부모 등 친척이 자녀의 야간보육을 맡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여성의 88.4% 그리고 부부(본인 또는 남편)가 맡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여성의 93.5%는 실제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있었다.

<표 11-10> 기혼여성(20~44세)의 야간 유아(3세~취학전)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

(단위: %, 명)

구분	실제이용한 사람/시설(야간)				계 (명)	x ²
	육아지원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부부(기타)		
바람직한 사람/시설(야간)						
전체	5.2	0.6	8.3	85.8	100.0 (1,011)	
육아지원시설 ¹⁾	64.9	3.5	5.3	26.3	100.0 (57)	
가정보육사	-	-	6.7	93.3	100.0 (15)	824.6***
친척 ²⁾	4.7	-	88.4	7.0	100.0 (43)	
부부(기타)	1.5	0.5	4.5	93.5	100.0 (86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육아지원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원, 직장보육시설을 포함.
- 2) 친척은 친정부모, 시부모, 친가 및 외가 친척을 포함.

4. 영유아의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및 미이용 이유

기혼여성(20~44세)이 주간에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해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표 11-1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이유가 3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을 위해” 25.8%,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10.1%, 초등학교 준비 10.1%, “같이 놀 아이가 없어서” 5.0%, “집 근처라서 이용하기 편리하여” 6.3%, 장래학업 도움 2.3%, 특기활동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가 큰 이유로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로, 0세아의 경우 28.1%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져 6세아의 경우에는 6.9%에 불과하였다. 지역별로 주간에 자녀보육·교육을 위해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의 차이를 살펴보면, 읍·면부지역에서 보육사회성 발달 이유의 비율이 높고, 동부지역에서 전인적 발달 이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취업여성의 경우 부모 대리보호가 26.0%로 비취업여성의 2.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라는 이유는 취업여성(31.4%)에 비해 비취업여성(41.8%)이, 그리고 사회성 발달의 이유도 취업여성(19.7%)에 비해 비취업여성(27.1%)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11> 기혼여성(20~44세)이 주간에 영유아보육·교육을 위한 기관을 이용한 이유

단위: %(명)

구 분	전인적 발달	초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아이들 없어서	장래 학업 도움	집근처로 이용이 편리	기타	전체(수)	χ^2
전체	38.5	10.1	2.7	10.1	24.8	5.0	2.3	6.3	0.2	100.0(991)	
연령											
0세아	43.8	-	-	28.1	18.8	-	-	6.3	3.1	100.0(32)	107.9***
1세아	31.4	9.8	-	15.7	19.6	7.8	-	15.7	-	100.0(51)	
2세아	45.7	3.8	1.0	14.3	23.8	4.8	1.9	4.8	-	100.0(105)	
3세아	38.5	6.5	3.6	7.7	26.6	3.0	3.0	11.2	-	100.0(169)	
4세아	37.8	7.3	3.0	10.3	29.2	6.4	2.6	3.4	-	100.0(233)	
5세아	36.3	13.2	3.4	7.7	26.1	4.3	3.4	5.6	-	100.0(234)	
6세아	40.6	20.0	3.1	6.9	18.8	6.3	0.6	3.1	0.6	100.0(160)	
거주지											
동부	39.9	10.3	3.3	10.4	23.4	5.0	1.8	5.6	0.2	100.0(824)	22.0**
읍·면부	31.1	9.6	-	8.4	31.7	4.8	4.8	9.6	-	100.0(167)	
취업여부											
취업	31.4	10.2	1.3	26.0	19.7	4.8	1.3	5.4	-	100.0(315)	134.2***
비취업	41.8	10.2	3.4	2.7	27.1	5.0	2.8	6.7	0.3	100.0(67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12>는 야간에 영유아를 기관에 맡긴 이유인데, 그 사례수가 매우 적다는 한계가 있다. 여러 이유들 중 전인적 발달이 37.7%로 가장 높

으며,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 19.0%,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14.4%, 장래 학업 도움 8.5%,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8.3%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상태별로 보면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대리보호 이유는 비취업여성(4.0%)에 비해 취업여성(10.5%)에게서, 전인적 발달 이유도 비취업여성(32.0%)보다 취업여성(47.4%)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12> 기혼여성(20~44세)의 야간 영유아보육·교육을 위한 기관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장래 학업 도움	집근처로 이용이 편리	기타	전체(수)	χ^2
전체	37.7	5.3	5.1	8.3	19.0	14.4	8.5	-	1.7	100.0(45)	
거주지											
등부	35.1	5.4	2.7	10.8	21.6	16.2	5.4	-	2.7	100.0(37)	7.9
읍·면부	42.9	-	14.3	-	14.3	-	28.6	-	-	100.0(7)	
취업여부											
취업	47.4	-	-	10.5	15.8	21.1	-	-	5.3	100.0(19)	10.4
비취업	32.0	8.0	8.0	4.0	24.0	8.0	16.0	-	0.0	100.0(2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13>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66.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 10.9%, 가까운 보육시설이 없어서 3.5%, 원하는 보육서비스가 없어서 3.2%,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2% 등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 미이용 부모 중 10%는 비용지원 측면에서, 10%는 서비스의 배치 및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 된다. 아동의 연령별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는 아이 연령이 많아지면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이외에는 별 차이가 없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에서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는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고, 기혼여성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모가 경제적 이유를 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13〉 기혼여성(20~44세)의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 분	경제적 여유 없어서	가까운 보육시설 없어서	원하는 보육서비스 가 없어서	질적수준이 마음에 들지않아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타	전체(수)	χ^2
전체	10.9	3.5	3.2	3.2	11.8	66.8	0.5	100.0(738)	
연령									
0세아	6.6	1.5	2.0	2.0	8.6	79.3	-	100.0(198)	82.5***
1세아	6.9	1.6	2.6	2.6	9.5	76.7	-	100.0(189)	
2세아	14.3	6.5	1.9	4.5	13.0	57.8	1.9	100.0(154)	
3세아	15.3	4.7	5.9	5.9	17.6	49.4	1.2	100.0(85)	
4세아	16.7	8.3	8.3	-	20.8	45.8	-	100.0(48)	
5세아	32.0	4.0	4.0	4.0	12.0	44.0	-	100.0(25)	
6세아	8.8	5.9	2.9	5.9	14.7	61.8	-	100.0(34)	
거주지									
동부	11.3	3.7	3.4	3.4	12.4	65.6	0.3	100.0(595)	5.4
읍·면부	9.8	2.8	2.1	2.8	9.1	72.0	1.4	100.0(143)	
모취업									
취업	5.0	5.0	4.2	6.7	12.5	66.7	-	100.0(120)	12.0
비취업	12.1	3.2	2.9	2.6	11.7	66.8	0.6	100.0(618)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가.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비용

기혼여성(20~44세)의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은 <표 11-1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영유아의 30.2%는 별도 보육이나 교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10만원 미만을 지불한 비율은 8.9%로 나타났다. 다수는 영유아 1인당 10~30만원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비용으로 지불하였으며, 특히 10% 이상은 40만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이 전체 아동의 50%를 넘고 있으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보다는 동부지역 기혼여성들이 영유아의 보육교육을 위해 더 지불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1-14〉 기혼여성(20~44세)의 영유아(0~5세) 1인당 지출한 월평균 보육교육비용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분포

(단위: %, 명)

구분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 원미만	20-30만 원미만	30-40만 원미만	40-50만 원미만	50만원 이상	계(수)
전체	30.2	8.9	20.0	17.6	12.3	4.6	6.5	100(1,385)
거주지($\chi^2=26.7^{***}$)								
동부	29.2	7.4	20.2	18.2	13.2	5.1	6.8	100(1,125)
읍면부	34.5	15.3	19.2	14.9	8.4	2.3	5.4	100(26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의 전체 영유아(실제 보육교육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아동들도 분모에 포함)를 대상으로 산정한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월 평균 16만6천원이며 표준편차가 18만4천원이다. 영유아 1인당 평균보육비용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데, 구체적으로 0세아의 경우 6,100원인데 비하여 4세 이상의 경우에는 23만원 수준으로 많다(표 11-15 참조).

지역별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읍면부지역(13.5만원)에 비해 동부지역(17.3만원)에서 많게 나타났다. 아동 연령별 보육비용의 도농간 차이는 5세이에 한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읍면부지역(17.5만원)에 비해 동부지역(25.2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보육비용도 증가하는데, 아동 연령별로는 0세아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1~5세아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육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편, 월평균가구소득이 60% 미만인 저소득층에서도 평균 11.3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저소득층인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이외의 보육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가구 인정소득액 234만원까지 보육료와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고 만5세아는 498만원까지 무상보육·교육이지만, 특히 민간기관의 지원단가와 실제 비용간의 차이나 많게는 월 15만원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특기활동 등 기타 필요 경비 때문에 실제 부모는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다.

모의 취업별로는 전반적으로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영유아의 보육교육

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취업모가 평균 23만원 그리고 비취업모가 평균 14만6천원을 보육교육비용으로 지불하여 7만 7천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의 차이는 유아(3~5세)보다는 영아(0~2세)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 취업모가 15만8천원 그리고 비취업모가 4만1천원을 보육교육비용으로 지불하여 10만원 이상 차이가 있다. 유아의 경우에는 만4세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모가 26만3천원 그리고 비취업모가 22만6천원을 보육교육비용으로 지불하여 3만7천원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모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표 11-15〉 영유아(0~5세) 1인당 월평균 보육교육 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만원, 명)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전체
전체	평균(SD) (수)	6.1(12.9) (188)	10.7(23.2) (194)	12.6(16.0) (236)	17.7(16.3) (236)	23.5(18.2) (266)	24.0(15.9) (265)	16.6(18.4) (1,385)
거주지								
동부	평균(수)	6.6(151)	10.4(141)	13.2(197)	18.4(193)	24.0(218)	25.2(225)	17.3(1,125)
읍·면부	평균(수)	4.1(37)	11.6(52)	9.9(39)	14.7(43)	21.3(48)	17.5(41)	13.5(260)
월평균소득								
60%미만	평균(수)	4.5(35)	6.5(36)	11.5(38)	11.0(34)	16.9(40)	16.5(39)	11.3(222)
60~80%	평균(수)	4.9(68)	6.5(63)	10.4(91)	13.8(72)	20.6(82)	22.2(78)	13.5(455)
80~100%	평균(수)	6.5(36)	8.1(41)	10.1(40)	20.3(51)	23.0(62)	23.1(53)	16.4(283)
100~120%	평균(수)	12.6(11)	7.6(15)	18.5(18)	22.3(23)	21.3(18)	31.5(20)	20.1(105)
120~140%	평균(수)	6.9(16)	23.6(22)	16.4(16)	24.3(30)	33.2(31)	28.2(38)	24.4(153)
140~160%	평균(수)	12.8(9)	19.3(8)	20.9(12)	23.9(6)	31.8(17)	28.5(18)	24.5(70)
160%이상	평균(수)	5.6(7)	43.8(7)	18.1(13)	22.4(12)	33.4(13)	27.9(15)	25.5(67)
취업여부								
취업	평균(수)	15.8(32)	24.1(42)	16.7(47)	22.6(58)	26.3(65)	26.7(82)	23.0(326)
비취업	평균(수)	4.1(156)	7.0(152)	11.6(188)	16.1(178)	22.6(201)	22.8(183)	14.6(1,059)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다음은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에 대한 비용 통계이다. 이는 비용 비지불 아동이 제외되므로 실제 부모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에 근접한다. 먼저 <표 11-16>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경우 아동1인당 보육교육비용으로 지출한 평균액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1인당 월 평균은 23만8천원이며 표준편차가 17만8천원이다.

아동의 연령별로 비용지불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교육비용은 0세아에서 가장 낮으나 차이가 크지는 않고, 일관성도 보이지 않는다.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 간 비용지불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교육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부지역(20.6만원)에 비해 동부지역(24.8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는 2세, 4세 및 5세 아동에서도 나타나며, 모두 읍면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에서 지불아동의 월평균 보육교육비용이 5~7만원 정도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보육교육비용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별로는 4세와 5세아에서 가구소득수준 간 비용지불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교육비용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의 취업별로 비용지불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교육비용은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약 5만원 정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모가 평균 27만9천원 지출한데 반해, 비취업모는 평균 22만2천원을 지출하였다. 취업모와 미취업모 간의 비용지불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교육비용 차이는 0세, 1세 및 5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1-16> 기혼여성(20~44세)의 비용지불 영유아의 월평균 보육교육비용(국가 및 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만원, 명)

구분	월 평균 지출 보육료						전체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평균(SE)	19.2(16.5)	26.3(30.4)	20.7(16.0)	22.2(15.3)	25.9(17.4)	25.0(15.4)	23.8(17.8)
전체 (수)	(60)	(79)	(144)	(188)	(242)	(254)	(967)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16〉 계속

(단위: 만원, 명)

구분		월 평균 지출 보육료					전체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도시농촌								
동부	평균(수)	19.7(50)	25.5(57)	21.7(120)	23.2(153)	26.2(200)	26.1(217)	24.8(940)
읍면부	평균(수)	16.3(9)	28.5(21)	15.7(24)	17.7(36)	24.3(42)	19.1(38)	20.6(200)
월평균소득								
60%미만	평균(수)	12.8(12)	19.6(12)	17.0(26)	13.8(27)	18.6(36)	18.5(34)	17.0(148)
60~80%	평균(수)	20.1(17)	21.5(19)	20.4(46)	18.8(53)	23.3(72)	23.2(75)	21.6(283)
80~100%	평균(수)	18.9(12)	18.7(18)	16.9(24)	25.9(40)	24.3(59)	23.8(51)	22.8(204)
100~120%	평균(수)	30.9(5)	17.5(7)	22.6(15)	25.9(20)	24.1(16)	31.5(20)	25.9(81)
120~140%	평균(수)	16.9(6)	39.8(13)	23.7(11)	28.5(26)	36.8(28)	29.1(37)	30.7(121)
140~160%	평균(수)	43.9(3)	49.1(3)	40.0(6)	23.9(6)	34.5(15)	29.8(17)	33.7(51)
160%미만	평균(수)	12.0(3)	47.9(6)	24.2(10)	27.2(10)	37.2(12)	27.9(15)	30.4(56)
취업별								
취업	평균(수)	27.7(18)	42.6(24)	21.4(37)	24.3(54)	28.9(59)	28.4(77)	27.9(269)
미취업	평균(수)	15.5(42)	19.3(55)	20.4(107)	21.3(134)	24.9(183)	23.5(177)	22.2(698)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나. 가구 당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소요된 가구당월평균지출액의) 분포는 <표 11-17>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5.0%이며, 이 비율은 읍면부지역보다 동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교육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가구 가운데에는 20~30만원 미만을 지불하는 비율이 17.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10~20만원 미만 13.8%, 30~40만원 미만 12.8%, 40~50만원 미만 6.2%, 60만원 이상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보육교육 지출액 분포는 대체적으로 읍면부지역에서 적은 쪽(2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동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쪽(10~40만원)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5) 초등학교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으나 고려하지 않았음. .

〈표 11-17〉 영유아 가구(20~44세 기혼여성) 당 월평균 지출액(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 명)

구분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60만원	60만원 이상	계(수)
전체($\chi^2=22.6^{**}$)	35.0	6.4	13.8	17.0	12.8	6.2	3.6	5.2	100.0(1,496)
등	35.3	5.2	13.4	17.4	13.6	6.0	3.8	5.3	100.0(1,242)
읍면	34.0	12.3	15.8	15.0	9.1	6.7	2.4	4.7	100.0(253)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 보육비용 월평균 지출액은 <표 11-1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18만3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표준편차는 21만7천원이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출을 가구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해 보면 전체 평균은 6.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영유아가구당 월평균 보육교육지출액은 동부지역 18만7천원과 읍·면부지역 16만2천원으로 동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차이가 없다. 가구의 영유아 자녀수별로 월평균 보육교육지출액은 1명인 경우 15만2천원, 2명인 경우 24만6천원, 3명인 경우 37만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각각 5.5%, 9.3%, 15.6%로,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모의 취업 상태별로 월평균 보육교육지출액은 취업모 23만원, 미취업모 16만7천원으로 6만 3천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수준은 월평균 보육교육지출액과 정적관계를, 그리고 가구소득대비 보육교육지출비율과 부적관계를 보여준다. 요컨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출로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8〉 영유아 가구(20~44세 기혼여성)의 월평균 보육·교육서비스 지출 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만원(명)

구분	가구 지출액					소득대비 비율			
	평균	(수)	SD	최소값	최대값	F/t	평균	SD	F/t
전체	18.3	(1,496)	21.7	0	200		6.8	8.3	
영유아수									
1명	15.2	(1043)	19.3	0	200		5.5	7.3	
2명	24.6	(423)	23.2	0	140	41.2***	9.3	8.9	50.3***
3명	37.2	(30)	40.7	0	150		15.6	15.9	
모취업									
취업	23.0	(395)	25.6	0	200	25.0***	6.7	7.4	0.1
비취업	16.7	(1101)	19.8	0	150		6.8	8.6	
지역									
동	18.7	(1,242)	22.1	0	200		6.9	8.5	
읍·면	16.2	(254)	19.3	0	100	3.0	6.6	7.4	0.8
가구소득									
60% 미만	12.4	(243)	15.0	0	80		9.5	12.1	
60~80%	16.7	(442)	19.8	0	150		7.6	8.7	
80~100%	17.8	(315)	18.8	0	100		6.0	6.4	
100~120%	20.4	(124)	21.3	0	100	8.6***	5.8	6.0	8.9***
120~140%	23.9	(175)	27.3	0	200		5.8	6.7	
140~160%	24.6	(91)	28.2	0	100		5.0	5.7	
160% 이상	26.0	(74)	31.8	0	160		3.7	4.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영유아 가구 중 보육교육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의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출상황은 <표 11-19>에 제시되어 있다. 비용지불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28만2천원이고 표준편차는 22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출액이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은 월평균 기준으로 10.5%이다.

기혼여성의 특성별 실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유사하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24만5천원)에 비해 동부지역(29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동부 10.7%, 읍면부 9.7%로 동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영유아 자녀수별로 월평균 지출액은 1명인 경우 25만8천원, 2명인 경우

31만2천원, 3명인 경우 48만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각각 9.5%, 11.8%, 20.3%로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높아져 다자녀일 수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녀수별 지출액이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을 시사해 준다.

모의 취업상태별 월평균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은 취업모 32만2천원, 미취업모 26만6천원으로 취업모가 평균적으로 5만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가구소득대비비율도 취업모인 경우에 비취업모에 비해 0.5%p 더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영유아 가구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나타나, 고소득층일수록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은 높으나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198만원 미만 계층의 경우 가구당 20만원을 지출하고,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 계층의 경우 26~27만원을 지출하며, 가구소득 330만원 이상인 계층의 경우에는 평균 3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대비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의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198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15.5%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9〉 비용지불 영유아가구(20~44세 기혼여성)의 보육·교육서비스 지출 평균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만원(명)

구분	가구 지출액					소득대비 비율	
	평균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2	(972)	28.2	1	200	10.5	8.2
영유아수							
1명	25.8	(615)	18.9	1	200	9.5	7.4
2명	31.2	(333)	21.9	2	140	11.8	8.5
3명	48.4	(23)	40.2	3	150	20.3	15.2
모취업							
취업	32.2	(282)	24.9	1	200	9.4	7.2
비취업	26.6	(690)	19.1	1	150	11.0	8.6
거주지							
동부	29.0	(804)	21.4	3	200	10.7	8.4
읍·면부	24.5	(167)	19.0	1	100	9.7	7.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19〉 계속

구분	가구 지출액					소득대비 비율	
	평균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60% 미만	20.2	(149)	14.5	1	80	15.5	12.0
60~80%	26.9	(274)	18.8	1	150	12.2	8.1
80~100%	26.4	(212)	17.3	1	100	8.9	5.9
100~120%	28.7	(88)	20.0	3	100	8.1	5.6
120~140%	36.3	(115)	26.2	3	200	8.8	6.5
140~160%	38.6	(58)	26.6	3	100	7.8	5.4
160% 이상	37.3	(51)	32.0	4	160	5.2	4.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다. 이용서비스별 보육·교육비용과 국가·지자체 지원

영아 가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사람)별로 월평균 보육교육비용 지출 실태는 <표 11-20>에 제시되어 있다. 월평균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은 가정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60.9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 외에 육아지원시설(19.6만원), 친척(11.9만원), 부부(2.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영아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일정한 보육교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가 영아를 주로 돌보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타인(시설) 등에 맡긴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1-20〉 기혼여성(20~44세)의 영아 1인당 이용시설(사람)별 보육교육비용 지출(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 명, 만원)

구분	0~2세 자녀 월평균 보육료($\chi^2=355.9^{***}$)						계 (명)	평균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전체	54.3	8.5	15.3	9.2	8.6	4.1	100.0 (617)	10.0
이용시설(주간)								
육아지원시설	9.8	9.8	32.8	19.1	22.4	6.0	100.0 (183)	19.6
가정보육사	-	7.1	35.7	-	7.1	50.0	100.0 (14)	60.9
친척	54.5	13.6	11.4	4.5	4.5	11.4	100.0 (44)	11.9
본인(기타)	78.8	7.1	6.5	4.9	2.2	0.5	100.0 (368)	2.9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영아를 둔 가구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교육비용을 지원 받았던 비율(기본보조금 제외)은 18.4%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으로는 20만원 이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만원 미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48.7%의 비교적 많은 가정에서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보육사를 이용한 가정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친척 또는 본인이 직접 보육하는 경우에는 9.4%와 6.9%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관련 지원은 주로 시설 이용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21〉 기혼여성(20~44세)의 영아 1인당 이용시설(사람)별 보육교육관련 국가·지자체 지원수령액(기본보조금 제외)

(단위: %, 명)

구분	0~2세 자녀의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chi^2=186.2^{***}$)					계 (명)
	없음	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81.6	5.3	4.5	2.4	6.1	100.0 (768)
이용시설(주간)						
육아지원시설	51.3	10.7	21.3	12.2	17.2	100.0 (198)
가정보육사	100.0	-	-	-	-	100.0 (11)
친척	90.6	3.1	-	-	6.3	100.0 (64)
본인(기타)	93.1	2.4	2.0	0.2	2.2	100.0 (49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아 가정의 월평균 지출 보육교육비용(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은 20~30만원 미만과 30~50만원 미만이 각각 24.2%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10~20만원(23.6%), 지출 없음(11.0%), 10만원 미만(8.8%), 50만원 이상(8.2%) 등의 순으로 높다(월평균 보육료 21.9천원). 월평균 보육료는 주간에 자녀를 육아지원시설에 맡기는 경우 24.3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18.3만원,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 11.5만원 순으로 많다. 부부가 직접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 월평균 보육료는 8.4만원으로 가장 적다.

〈표 11-22〉 기혼여성(20~44세)의 유아 1인당 이용시설(사람)별 보육교육비용 지출(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 명, 만원)

구분	3세~5세 자녀 월평균 보육료($\chi^2=347.5^{***}$)						계 (명)	평균
	없음	10만원	10-20만원	20-30만원	30-50만원	50만원이상		
전체	11.0	8.8	23.6	24.2	24.2	8.2	100.0 (963)	21.9
이용시설(주간)								
육아지원시설	2.6	9.0	25.6	26.6	27.0	9.3	100.0 (625)	24.3
가정보육사	-	17.6	64.7	5.9	5.9	5.9	100.0 (17)	18.3
친척	36.4	27.3	18.2	-	9.1	9.1	100.0 (11)	11.5
본인(기타)	60.6	9.6	6.7	12.5	6.7	3.8	100.0 (104)	8.4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유아가 있는 가구의 29.8%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육비용 일부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으로는 10~15만원(전체 가구 중 9.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만원 미만(8.1%), 15~20만원 미만(7.9%), 20만원 이상(5.5%) 순으로 높다. 이들 가구 중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6.4%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보육사(7.1%)를 이용하였거나 본인(9.5%)이 직접 돌본 경우에는 10% 이하만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 가구의 보육교육도 주로 시설 이용을 전제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23〉 기혼여성(20~44세)의 유아 1인당 이용시설(사람)별 보육교육관련 국가·지자체 지원수령액(기본보조금 제외)

(단위: %, 명)

구분	3세~5세 자녀의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chi^2=49.3^{***}$)					계 (명)
	없음	10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만원이상	
전체	69.1	8.1	9.4	7.9	5.5	100.0 (820)
이용시설(주간)						
육아지원시설	63.6	8.5	11.3	9.9	6.7	100.0 (626)
가정보육사	92.9	-	7.1	-	-	100.0 (14)
친척	100.0	-	-	-	-	100.0 (13)
본인(기타)	90.5	3.6	2.9	1.5	1.5	100.0 (137)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기혼여성의 초등학생자녀 방과후 보육교육 실태

1. 초등학생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에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1순위)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2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에 맡기는 기관은 학원이 5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교방과후프로그램(18.3%), 부모(15.3%)⁶⁾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관이나 혈연 또는 비혈연 개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각 2% 미만으로 매우 낮다.

자녀의 학년별로 이용 서비스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 1학년의 경우 학원 이용률이 55.6%로 다른 학년에 비하여 다소 낮은 반면, 방과후이카데미와 친정부모를 이용하는 비율은 약간 높다. 그러나 대체로 학년별로 이용 형태가 유사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도시·농촌별로 방과 후에 자녀를 돌보아 준 곳(사람)을 살펴보면, 학원 이용은 도시의 동 60.0%, 읍·면 55.0%로 도시가 읍·면에 비하여 비율이 높고,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각각 17.2%, 24.8%로 읍·면이 도시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학원 이용비율 차이는 없으며(모두 59%), 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이용비율의 차이도 크지 않다. 친정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취업모가 3.7%로 비취업모의 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 차이는 몇 가지 정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고 학원 이용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부모와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

6) 본인이나 남편이 본다는 비율 중 일부는 방과후에 혼자 집에 있는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로 본인 또는 남편이 돌본다는 응답 비율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아무 곳도 안 다니고 방과후에 집에 있는 이동이 많기 때문이고, 고소득층은 개별적 과외 등 고급화된 방과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이카데미의 이용 비율이 가구소득 60%미만의 저소득층에서 각각 2.7%, 2.3%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으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방과후보육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1-24〉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1순위

단위: %(명)

구 분	지역 아동 센터	방과후 아카 데미	보육시 설방과 후보육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등 기타 기관	베이비 시터등 비혈연	친정 부모	시 부모	외가 친척	본인/ 남편	계 (수)
전체	0.9	1.0	1.5	18.3	59.3	1.2	1.9	0.6	0.1	15.3	100.0 (1,830)
아동 학년($x^2=47.5$)											
1학년	0.6	2.5	1.6	20.5	55.6	0.3	3.4	0.3	-	15.2	100.0 (322)
2학년	0.7	1.0	1.7	15.4	62.1	1.0	1.0	0.3	-	16.8	100.0 (298)
3학년	0.9	-	2.3	20.3	58.0	1.1	1.7	0.9	-	14.9	100.0 (350)
4학년	1.5	0.6	0.9	16.3	61.7	0.6	2.1	1.2	-	15.0	100.0 (326)
5학년	1.5	0.7	1.1	19.8	60.1	1.5	1.5	-	-	13.9	100.0 (273)
6학년	0.4	1.2	0.8	17.6	59.6	2.0	1.2	0.8	0.4	16.1	100.0 (255)
거주지($x^2=17.1^*$)											
동부	1.1	0.8	1.5	17.2	60.0	1.1	1.8	0.7	0.1	15.7	100.0 (1,569)
읍·면부	-	1.9	1.5	24.8	55.0	1.5	2.7	0.4	-	12.2	100.0 (262)
모 취업여부($x^2=51.9^{***}$)											
취업	1.2	0.8	2.6	17.4	59.0	2.1	3.7	1.0	-	12.2	100.0 (730)
비취업	0.7	1.1	0.6	18.9	59.5	0.5	0.8	0.4	0.1	17.3	100.0 (1,099)
가구소득($x^2=128.1^{***}$)											
60% 미만	2.7	2.3	1.8	26.1	47.7	0.5	1.8	0.5	-	16.7	100.0 (222)
60~80%	0.5	0.3	1.8	23.6	57.1	1.3	1.0	0.3	-	14.0	100.0 (385)
80~100%	1.4	1.4	1.6	19.3	61.2	0.5	0.7	0.5	-	13.4	100.0 (425)
100~120%	-	0.5	1.0	10.2	71.4	-	4.9	1.0	-	11.2	100.0 (206)
120~140%	0.7	1.4	1.0	13.9	59.9	2.4	3.1	0.7	-	16.7	100.0 (287)
140~160%	0.7	-	2.0	11.3	59.6	1.3	4.0	-	-	21.2	100.0 (151)
160% 이상	-	0.9	0.9	15.2	58.0	0.9	-	2.7	0.9	20.5	100.0 (112)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자녀가 방과 후에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2순위)을 질문한 결과는 <표 11-25>에 제시되어 있다. 2순위의 서비스 이용 행태는 1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비율이 5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원(19.1%), 초등학교 방과 후프로그램(11.9%), 친정부모(3.3%), 시부모(2.1%) 등의 순이다. 1순위와 연계해 보면 다수가 1순위로는 학원 등 기관을 다니고, 2순위로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음(혹은 홀로 지냄)을 알 수 있다.

자녀 학년별 차이는 6학년이 되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친정부모의 보호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거주별 학원 이용비율은 읍·면부지역(19.7%)에 비해 동부지역(19.0%)에서 다소 높고,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이용 비율은 동부지역(11.6%)에 비해 읍면부지역(13.6%)에서 높다.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동부지역(60.0%)과 읍면부지역(58.3%)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학원 이용비율과 학교방과후프로그램 이용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친정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취업모 4.0%, 비취업모 2.9%로 다소 차이가 있다.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취업모(55.1%)에 비해 비취업모(62.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별 초등학교생의 방과후 이용 서비스 기관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표 11-25>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교생을 주로 돌보는 곳(사람): 2순위

단위: %(명)

구 분	지역 아동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육시설방과후 보육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등 기타 기관	베이비시터등 비혈연	친정부모	시부모	친인척	본인/남편	계 (수)
전체	0.1	1.0	1.0	11.9	19.1	1.1	3.3	2.1	0.6	59.8	100.0 (1,660)
아동학년($\chi^2=42.2$)											
1학년	-	0.7	0.4	11.3	20.1	1.8	3.2	2.8	0.7	59.2	100.0 (284)
2학년	-	0.7	1.4	12.5	16.8	1.4	2.5	2.9	1.4	60.2	100.0 (279)
3학년	0.6	0.9	0.9	9.7	20.9	0.3	3.1	1.6	0.3	61.6	100.0 (320)
4학년	-	0.7	1.4	10.8	18.0	1.0	4.1	1.7	-	62.4	100.0 (295)
5학년	-	0.4	0.4	13.1	19.9	1.2	4.8	0.8	0.4	59.0	100.0 (251)
6학년	0.4	2.7	0.9	14.6	18.6	0.9	2.2	3.1	0.9	55.8	100.0 (226)

〈표 11-25〉 계속

(단위: %, 명)

구분	지역 아동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육시설방과후 보육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등 기타 기관	베이비시터등 비혈연	친정 부모	시 부모	친인척	본인/ 남편	계 (수)
거주지($\chi^2=25.6^{**}$)											
동부	0.1	1.2	0.6	11.6	19.0	1.3	3.6	2.0	0.7	60.0	100.0 (1,432)
읍·면부	0.4	-	3.1	13.6	19.7	-	1.8	3.1	-	58.3	100.0 (228)
모취업여부($\chi^2=47.8^{***}$)											
취업	0.2	0.9	1.1	12.9	18.6	1.4	4.0	4.6	1.4	55.1	100.0 (652)
비취업	0.1	1.0	0.9	11.2	19.5	0.9	2.9	0.6	0.1	62.8	100.0 (1,008)
가구소득($\chi^2=94.4^{**}$)											
60% 미만	-	2.1	1.0	8.4	19.4	1.6	4.2	1.0	-	62.3	100.0 (191)
60~80%	0.3	-	2.0	12.3	17.9	1.7	1.1	1.7	0.8	62.2	100.0 (357)
80~100%	0.3	1.5	0.3	7.9	19.6	-	2.3	2.5	0.5	65.1	100.0 (393)
100~120%	-	1.1	1.6	10.6	18.1	-	3.2	0.5	1.1	63.8	100.0 (188)
120~140%	0.4	0.8	0.8	15.1	16.6	2.3	6.9	4.2	0.4	52.5	100.0 (259)
140~160%	-	0.7	0.7	14.5	24.6	0.7	3.6	2.2	-	52.9	100.0 (138)
160% 이상	-	1.0	-	23.3	20.4	1.9	1.9	1.9	1.0	48.5	100.0 (10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2.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돌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곳(사람)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에 맡기기 가장 바람직한 곳(1순위)이 어디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1-2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자녀를 맡기는 바람직한 기관(1순위)으로 학원이 3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27.2%), 부모(2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4% 수준으로 비교적 선호도가 높으며, 혈연 및 비혈연 개인서비스를 선택한 비율은 매우 낮다.

자녀의 학년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선호 비율이 1학년과 5학년의 경우 30.1%로 높고, 4학년의 경우 15.6%로 낮으나 일관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외 항목도 대체로 학년별로 이용비율이 유사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을 실제 이용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과 학원이다. 즉,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비율은 희망

하는 비율이 실제보다 높고, 학원은 희망보다는 실제 이용률이 훨씬 높다. 이는 부모들이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나, 현실적으로 그 질적 수준이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이용률이 소득층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원을 선호한 비율은 읍면부지역(31.0%)에 비해 동부지역(34.6%)에서 3%포인트 가량 높고,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호한 비율은 동부지역(26.8%)에 비해 읍·면부지역(29.5%)에서 약간 높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취업모가 보육시설 이용을 다소 더 선호하였다. 친정부모가 돌본다는 비율은 취업모 3.2%, 비취업모 1.4%로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표 11-26>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돌보기 바람직한 곳(시람): 1순위

(단위: %, 명)

구 분	지역 아동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등 기타 기관	베이비시터 등 비혈연	친정 부모	시부모	친가 친척	외가 친척	본인/ 남편	계 (수)
전체	1.4	4.1	2.2	27.2	34.1	2.8	2.1	0.4	0.1	0.3	25.4	100.0 (1,806)
아동학년($\chi^2=54.0$)												
1학년	1.6	3.1	1.2	30.2	33.3	1.9	1.9	0.3	0.3	0.6	25.2	100.0 (321)
2학년	1.0	4.1	3.1	22.8	39.1	3.4	1.7	1.0	-	0.7	23.1	100.0 (294)
3학년	1.2	4.3	2.9	28.3	32.1	2.9	2.3	0.3	-	-	25.7	100.0 (346)
4학년	2.5	2.8	0.9	25.8	39.3	1.5	2.8	0.6	0.3	-	23.6	100.0 (326)
5학년	1.8	5.9	2.2	29.5	28.4	2.6	1.8	-	-	-	27.7	100.0 (271)
6학년	0.4	4.7	3.2	25.7	31.6	5.1	2.0	0.4	-	0.8	26.1	100.0 (253)
거주지($\chi^2=13.1$)												
동부	1.4	4.1	2.3	26.8	34.6	2.5	2.2	0.5	-	0.4	25.4	100.0 (1,550)
읍·면부	1.2	4.3	1.6	29.5	31.0	4.7	1.9	0.4	0.4	-	25.2	100.0 (258)
모 취업여부($\chi^2=35.1^{***}$)												
취업	0.4	4.1	3.3	26.1	35.2	3.5	3.2	0.8	0.1	0.3	22.9	100.0 (724)
비취업	1.9	4.0	1.4	28.1	33.5	2.3	1.4	0.1	-	0.3	27.1	100.0 (1,079)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 바람직한 곳 2순위에 대한 질문 결과는 <표 11-27>에 제시되어 있다. 2순위로 부모의 비

율이 단연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과 학원이 19% 수준으로 유사하다. 자녀의 학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일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로는 읍·면지역에 비하여 동부지역에서 학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로는 취업모가 초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그리고 비취업모가 학원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7〉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 돌보기 바람직한 곳(사람): 2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육시설방과후보육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학원	베이비시터	친정 부모	시 부모	친가 친척	외가 친척	본인/ 남편	계 (수)
전체	0.8	2.7	0.9	18.4	19.9	2.8	4.1	1.7	0.2	0.3	48.3	100.0 (1,599)
이동학년($\chi^2=83.3^{**}$)												
1학년	0.4	1.1	0.7	18.2	25.0	2.9	4.3	1.8	0.4	0.7	44.6	100.0 (280)
2학년	1.1	1.1	0.4	15.7	11.5	3.8	1.9	3.1	0.4	0.4	60.5	100.0 (261)
3학년	0.6	1.9	1.9	21.2	18.6	2.9	5.8	1.6	-	0.3	45.0	100.0 (311)
4학년	0.3	5.5	0.7	15.8	19.2	2.1	4.5	1.0	-	-	51.0	100.0 (292)
5학년	0.8	3.0	0.4	16.1	25.0	3.0	5.9	1.3	-	-	44.5	100.0 (236)
6학년	1.8	3.7	0.9	23.4	20.2	1.8	1.8	1.4	0.5	0.5	44.0	100.0 (218)
거주지($\chi^2=11.5$)												
동	0.8	2.8	1.0	18.2	20.6	2.5	4.1	1.9	0.2	0.2	47.7	100.0 (1,381)
읍·면	0.9	2.3	0.5	18.8	15.6	5.0	4.1	0.5	-	0.5	51.8	100.0 (218)
취업여부($\chi^2=16.8$)												
취업	0.9	2.1	1.6	19.1	18.0	3.6	4.6	2.5	0.2	0.3	47.0	100.0 (632)
비취업	0.6	3.1	0.5	17.8	21.1	2.3	3.8	1.1	0.2	0.3	49.1	100.0 (967)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취학자녀(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교육 수급일치도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보육을 위해 실제 이용하고 있는 곳(사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사람)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는 <표 11-28>에 제시되어 있다. 수급일치도는 방과후보육시설의 경우 9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 돌봄(48.4%), 친척(30.2%), 가정보육사 돌봄(2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28〉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에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1순위)

(단위: %, 명)

구분	실제 이용한 곳·사람(1순위)				계 (명)	χ^2
	방과후보육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부부(기타)		
바람직한 곳·사람(1순위)						
전체	81.0	1.2	2.6	15.3	100.0 (1,830)	
방과후보육시설 ¹⁾	95.4	0.1	1.4	3.1	100.0 (1,241)	
가정보육사	70.0	26.0	-	4.0	100.0 (50)	1028.8***
친척 ²⁾	54.7	-	30.2	15.1	100.0 (53)	
부부(기타)	47.3	1.1	3.3	48.4	100.0 (459)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방과후보육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보육시설 방과후보육, 초등학교 방과후보육,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실, 학원, 기타 등을 포함.
- 2) 친척은 친정부모, 시부모, 친가 및 외가 친척을 포함.

2순위로 기혼여성의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에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곳(사람)과 기혼여성(20~44세)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곳(사람) 간의 일치정도는 <표 11-29>에 제시되어 있다. 이용 유형 중 수급일치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부부가 직접 돌보는 것으로 85.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방과후보육시설(59.1%), 친척(37.0%), 가정보육사(4.5%) 등의 순으로 수급일치도가 높다.

〈표 11-29〉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에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사람)과 실제 이용 곳(사람)(2순위)

(단위: %, 명)

구분	실제이용한 사람/시설(2순위)				계 (명)	χ^2
	방과후보육시설	가정보육사	친척	부부(기타)		
바람직한 사람/시설(2순위)						
전체	33.1	1.1	6.0	59.8	100.0 (1,660)	
방과후보육시설 ¹⁾	59.1	0.6	3.5	36.8	100.0 (655)	
가정보육사	54.5	4.5	6.8	34.1	100.0 (44)	597.9***
친척 ²⁾	32.6	-	37.0	30.4	100.0 (92)	
부부(기타)	9.6	1.3	3.8	85.2	100.0 (759)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육아지원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원, 직장보육시설을 포함.
- 2) 친척은 친정부모, 시부모, 친가 및 외가 친척을 포함.

4. 취학자녀(초등학생)의 방과후 기관서비스 이용 및 미이용 이유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들이 방과 후에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표 11-30>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방과 후 기관서비스 이용 이유는 장래학업 도움이 4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인적 발달(15.4%), 특기교육(14.9%), 중고등학교 준비(13.7%) 등의 순으로 높다. 자녀의 학년별로 방과 후 기관서비스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장래학업 도움 비율은 1학년의 경우 32.8%로 2~6학년의 40~44%에 비하여 다소 낮고, 대신 전인적 발달과 특기교육의 비율은 다소 높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는 응답 비율이 취업모 8.8%, 비취업모 1.5%로 차이가 있으며, 특기교육 비율은 취업모(12.8%)에 비하여 비취업모(16.3%)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30>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 후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아이의 전인적 발달	중고등 학교 준비	특기 교육	부모 대신 돌보기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아이들 없어서	장래학업 도움	집근처로 편리	기타	전체(수)
전체	15.4	13.7	14.9	4.4	7.2	1.3	40.1	2.1	0.8	100.0(1,621)
학년($\chi^2=130.4^{***}$)										
1학년	20.3	7.6	21.0	5.5	9.3	1.0	32.8	2.4	-	100.0(290)
2학년	18.9	6.4	15.8	6.8	4.2	1.9	42.3	1.9	1.9	100.0(265)
3학년	16.3	9.6	15.7	3.2	8.6	1.9	41.5	2.2	1.0	100.0(313)
4학년	13.4	15.5	14.8	4.1	9.3	1.0	39.5	1.4	1.0	100.0(291)
5학년	14.1	19.1	11.2	4.1	5.4	0.8	41.5	3.3	0.4	100.0(241)
6학년	7.7	28.4	9.0	2.3	5.4	0.9	44.6	1.4	0.5	100.0(222)
거주지($\chi^2=11.5$)										
동부	15.3	14.2	15.0	4.2	7.8	1.2	39.6	1.8	0.9	100.0(1,390)
읍·면부	15.9	10.8	14.2	5.6	4.3	1.3	43.5	3.9	0.4	100.0(232)
취업여부($\chi^2=63.4^{***}$)										
취업	14.8	13.7	12.8	8.8	4.7	1.4	40.1	2.8	0.6	100.0(633)
비취업	15.9	13.7	16.3	1.5	8.9	1.1	40.1	1.6	0.9	100.0(988)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들이 방과 후 기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표 11-3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적으로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가 3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25.9%)”, 서비스의 질적 수준(17.5%), 원하는 서비스 부재(12.3%), 보육시설 부재(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의 25.9%는 비용 때문에, 32.8%는 서비스 공급이나 질이 부적절하여 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영유아보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녀 학년별 방과 후 기관 미이용 이유는 사례수가 적어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로는 읍·면부지역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동부지역에서는 원하는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없어서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들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로 원하는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없어서 이유는 비취업모(9.4%)에 비해 취업모(17.2%)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라는 이유는 취업모(30.6%)에 비해 비취업모(39.7%)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경제적 이유도 비취업모가 28.2%로 취업모의 22.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31〉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 후 기관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보육시설 없어서	원하는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없어서	교육서비스 질적수준이마 음에들지않아	굳이맡길 이유가없 어서	아이가 너무어려 서	기타	전체(수)
전체	25.9	3.0	12.3	17.5	34.5	3.6	3.0	100.0(144)
학년($\chi^2=37.0$)								
1학년	32.0	-	8.0	28.0	28.0	4.0	-	100.0(25)
2학년	28.0	4.0	28.0	4.0	36.0	-	-	100.0(25)
3학년	21.4	-	3.6	25.0	50.0	-	-	100.0(28)
4학년	35.0	-	5.0	10.0	40.0	5.0	5.0	100.0(20)
5학년	23.8	9.5	19.0	23.8	14.3	4.8	4.8	100.0(21)
6학년	22.7	4.5	13.6	13.6	27.3	9.1	9.1	100.0(22)
거주지($\chi^2=10.0$)								
동부	23.3	1.7	14.2	20.0	33.3	4.2	3.3	100.0(120)
읍·면부	39.1	8.7	4.3	8.7	39.1	-	-	100.0(23)
취업여부($\chi^2=7.0$)								
취업	22.4	-	17.2	17.2	39.7	1.7	1.7	100.0(58)
비취업	28.2	4.7	9.4	18.8	30.6	4.7	3.5	100.0(8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취학자녀(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비용

가. 초등학생 1인당 방과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비용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의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은 <표 11-32>에 제시되어 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0.8%에 불과하고, 47.7%가 30만원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보다는 동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불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11-32>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보육교육비 지출

구분	단위: %(명)							계(수)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전체	0.8	5.7	18.3	27.5	21.2	12.1	14.4	100.0(1,748)
거주지($\chi^2=27.7^{***}$)								
동부	0.6	5.5	17.5	27.0	21.3	12.4	15.7	100.0(1,500)
읍면부	2.4	7.3	23.1	30.4	20.6	9.7	6.5	100.0(247)

전체 초등학생의 아동1인당 방과후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은 <표 11-3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28만7천원(표준편차 18.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24만원)에 비해 동부지역(29만5천원)에서 더 지출하였다. 자녀의 학년별로는 1학년의 경우 25만6천원으로 가장 낮고 4학년의 경우 31만4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지출액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1인당 방과후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은 가구소득수준과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1-33〉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자녀 1인당 평균 방과후 보육·교육비 평균
(월 기준)(국가·지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만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8.7	18.8	(1,748)	전체	28.8	19.0	(1,744)
거주지				취업여부			
도시	29.5	19.4	(1,501)	취업	28.2	21.1	(691)
농촌	24.0	14.6	(247)	비취업	29.0	17.2	(1,057)
학년				가구소득수준			
1학년	25.6	14.5	(304)	60% 미만	20.5	13.3	(202)
2학년	27.8	15.6	(287)	60~80%	22.9	13.3	(369)
3학년	28.9	24.5	(334)	80~100%	28.2	14.3	(414)
4학년	31.4	19.9	(322)	100~120%	31.4	17.7	(200)
5학년	29.8	18.9	(257)	120~140%	33.2	26.8	(266)
6학년	28.5	16.1	(243)	140~160%	35.6	19.3	(145)
				160% 이상	41.0	24.0	(11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 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초등학교 자녀의 방과후 보육교육비 지출액을 이용하는 곳(사람)별로 살펴보면, 가정보육사의 경우 월평균 34.7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관 이용(월평균 28.9만원), 부부가 스스로 돌보는 경우(월평균 27.5만원), 친척 돌봄(월평균 20.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4〉 기혼여성(20~44세)의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교육비 지출(국가·지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 명, 만원)

구분	초등학교 취학 자녀 월평균 방과후교육료($\chi^2=51.1^{***}$)						계 (명)	평균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전체	0.8	5.7	18.3	27.5	33.3	14.3	100.0 (1,747)	28.7
이용시설(1순위)								
방과후보육기관	0.4	5.4	19.2	27.0	33.8	14.3	100.0 (1,424)	28.9
가정보육사	-	-	12.5	12.5	56.3	18.8	100.0 (16)	34.7
친척	2.7	5.4	35.1	32.4	16.2	8.1	100.0 (37)	20.5
부부등	3.5	7.9	12.2	29.5	32.3	14.6	100.0 (254)	27.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초등학교 이하의 가구 당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비용

<표 11-35>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구(20~44세 기혼여성 기준)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평균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에 대해 보육교육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전체 가구의 19.6%로 나타났다. 월 20~30만원 미만을 지불한 비율은 1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40만원 미만 13.9%, 40~50만원 미만 11.1%, 10~20만원 미만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00만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비율은 3.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부지역 보다는 동부지역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1-35〉 초등학교 이하 가구(0~5세)의 월 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액(국가·지자체 보조금 제외)

구분	단위: %(명)												계수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60만원	60-70만원	70-80만원	80-90만원	90-100만원	100만원 이상	
전체	19.6	4.4	11.0	14.6	13.9	11.1	9.5	4.6	3.7	3.4	0.6	3.5	100.0(2,462)
거주지($\chi^2=28.3^{**}$)													
동부	19.8	3.9	10.1	14.3	14.2	11.2	9.9	4.7	3.8	3.6	0.6	3.8	100.0(2,088)
읍면부	18.9	7.2	16.0	16.2	12.0	10.9	7.4	3.7	2.9	2.4	0.5	1.9	100.0(376)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전체 아동(초등학교이하) 가구의 평균 보육교육비용지출액은 <표 11-36>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 가구의 평균 보육교육비지출액은 월 31만5천원(표준편차 29만2천원)이며, 최대액은 406만원이다. 이러한 지출액을 가구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해 보면, 전체 평균 12.5%(표준편차 15.4%)를 차지한다.

아동수별 가구평균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은 1명의 경우 21만6천원, 2명의 경우 39만5천원, 3명의 경우 50만1천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동수가 4명인 경우에는 평균 75만7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26만8천원)에 비해 동부지역(32만3천원)의 가구에서 더 지출하였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비취업

모 가구(30만원)에 비해 취업모 가구(34만4천원)에서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지출액이 많아지는 정적관계를 보인다. 가구소득이 60%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20.7만원을 그리고 160%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평균 49.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6〉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구(20~44세 기혼여성)의 보육교육비 지출액
평균(월 기준)(국가·지자체 보조금 제외)

단위: 만원(명)

구분	가구 지출액				
	평균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31.5	(2,462)	29.2	0	406
자녀수					
1명	21.6	(1,196)	24.2	0	406
2명	39.5	(1,112)	29.3	0	235
3명	50.1	(149)	36.0	0	180
4명	75.7	(4)	48.0	27	130
취업					
취업	34.4	(831)	31.8	0	406
비취업	30.0	(1,631)	27.7	0	230
거주지					
동부	32.3	(2,087)	29.8	0	406
읍·면부	26.8	(375)	25.4	0	160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20.7	(345)	20.2	0	120
60~80%	24.8	(638)	22.9	0	150
80~100%	32.1	(539)	25.9	0	130
100~120%	36.7	(240)	28.3	0	150
120~140%	39.3	(331)	35.9	0	406
140~160%	41.5	(178)	34.2	0	180
160% 이상	49.6	(130)	44.2	0	23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표 11-37〉에는 보육·교육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가구(20~44세 기혼여성 기준)를 제외한 비용지불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교육비용 월평균 지출액을 제시하였다. 비용지불 아동 가구의 월평균 보육교육비 지출액은 39만2천원(표준편차 27만6천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4.1%(표준편차 1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별로는 1명의 경우 30만8천원이지만 3명의 경우에는 53만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교육비용 지출액의 가구 소득대비 비율은 1자녀의 경우 10.8%, 2자녀의 경우 16.0%, 3자녀의 경우 19.7%, 4자녀 이상의 경우 26.2%이다. 자녀수가 1명에서 2명이 되면 가구소득대비 부담액 비율은 50%가 증가하고, 4명이 되면 160%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초등학생 이하 자녀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자녀수별 부모 부담의 차이는 영유아나 또는 기관 이용이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다자녀가구 지원보다 출생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가구 지원이 더욱 타당함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의 보육교육비 지출액은 읍·면부지역(33만원)에 비해 동부지역(40만3천원)에서 더 많고, 가구소득대비 비율도 읍면부지역(12.7%)에 비해 동부지역(14.3%)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보육교육비 지출액은 비취업모 가구(38만5천원)에 비해 취업모 가구(40만5천원)에서 약간 더 많으며, 소득대비 비율은 취업모 가구보다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더 높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보육교육비 지출액은 많으나,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낮다. 구체적으로 전국가구 소득 60%미만의 저소득층에서 27만5천원을 지출한 반면, 160%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평균 57만원을 지출하였다.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저소득층 23.4%, 고소득층 8.1%로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실질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37〉 비용지불 초등학생이하 가구(20~44세 기혼여성)의 보육·교육비 지출액 평균

단위: 만원(명)

구분	가구 지출액					소득대비 비율	
	평균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39.2	(1,978)	27.6	1	406	14.1	15.7
자녀수							
1명	30.8	(839)	23.5	1	406	10.8	8.4
2명	44.1	(995)	27.4	2	235	16.0	19.8
3명	53.8	(139)	34.5	3	180	19.7	12.1
4명	75.7	(4)	48.0	27	130	26.2	8.7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37〉 계속

(단위: 만원, 명)

구분	가구 지출액				소득대비 비율		
	평균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취업여부							
취업	40.5	(707)	30.8	1	406	12.4	9.5
비취업	38.5	(1,271)	25.6	1	230	15.0	18.1
거주지							
동	40.3	(1,674)	28.0	2	406	14.3	16.5
읍·면	33.0	(304)	24.3	1	160	12.7	9.3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27.5	(261)	18.8	1	120	23.4	35.7
60~80%	32.4	(489)	21.0	1	150	14.7	9.3
80~100%	38.7	(446)	23.4	1	130	13.0	7.8
100~120%	43.0	(205)	25.8	4	150	12.1	7.3
120~140%	48.1	(271)	34.0	2	406	11.6	8.4
140~160%	51.4	(144)	30.7	3	180	10.3	6.1
160% 이상	57.0	(113)	42.7	8	235	8.1	6.2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제3절 기혼여성의 자녀 사교육비 실태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은 경우,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표 11-3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을 받은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은 자녀 1인당 월평균 35.6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혼여성의 연령이 20~44세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동 조사 결과로서 사교육비는 전 국민이 지출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많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55.3만원, 중학교 42.7만원, 초등학교 31.6만원, 미취학시 23.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미만 가구에서 지출한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21.6만원인데 비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상인 경우에는 52.9만원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

과 가장 높은 계층간에 약 30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도 예외 없이 고소득층일수록 많게 나타났다.

〈표 11-38〉 기혼여성(20~44세)의 사교육을 받는 자녀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구 분	자녀 취학상태				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3.7	31.6	42.7	55.3	35.6
가구소득 수준					
60% 미만	17.0	19.8	26.8	32.0	21.6
60~80%	22.3	25.8	30.7	36.1	27.2
80~100%	22.5	30.0	35.6	49.7	32.3
100~120%	24.7	33.5	45.3	61.5	39.6
120~140%	30.7	39.7	51.7	62.4	45.7
140~160%	30.5	45.2	60.2	75.6	53.3
160% 이상	33.3	44.4	68.7	86.2	54.6

주: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가구는 제외, 현존자녀수는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은 <표 11-3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17.7%이다. 현존자녀수별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1자녀 13.3%, 2자녀 18.9%, 3자녀 이상 20.0%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동일자녀수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11-39〉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

(단위: %)

구 분	현존자녀수			전체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13.3	18.9	20.0	17.7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19.9	25.6	25.7	24.1
60~80%	14.2	18.5	21.8	17.9
80~100%	11.2	18.6	18.9	17.1
100~120%	12.3	18.7	18.2	19.3
120~140%	12.3	17.8	19.3	16.8
140~160%	10.6	16.9	16.7	15.7
160% 이상	8.8	13.9	14.6	13.0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지출대비 사교육비 비중(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가구는 제외, 현존자녀수는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은 <표 11-40>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가구지출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23.2%로 가구소득대비 비율에 비해 높다. 그 이유로 가구지출은 가구소득에서 저축 등을 뺀 나머지로 일반적으로 소득보다 적기 때문이다. 현존자녀수별로 가구지출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1자녀의 경우 18.1%, 2자녀의 경우 24.7%, 3자녀 이상의 경우 25.2%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다. 소득계층별로 가구지출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동일자녀수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높다.

<표 11-40> 기혼여성(20~44세)의 월평균 지출대비 사교육비 비중

(단위: %)

	현존자녀수			전체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18.1	24.7	25.2	23.2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22.3	26.1	26.6	25.2
60~80%	18.2	22.8	26.4	22.2
80~100%	16.2	23.8	24.1	22.2
100~120%	17.5	25.7	22.6	23.3
120~140%	18.8	25.4	24.9	24.0
140~160%	17.5	26.0	25.9	24.3
160% 이상	16.5	27.4	26.2	25.0

주: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제4절 기혼여성의 생활비 중 자녀양육지출 순위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 항목을 질문한 결과는 <표 11-41>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로 전체의 절반정도(54.3%)가 자녀교육비를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비(21.0%), 주거비(13.6%) 등의 순으로 비용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출생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체 생활비 중 자녀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 생활비 중 자녀교육비 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응답비율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자녀교육비가 지출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출생자녀수가 1명인 경우 32.6%이나, 2명인 경우 63.0%, 3명이상인 경우 64.5%로 높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자녀교육비가 생활비 중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1-41〉 1자녀이상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1순위)

(단위: %)

구분	자녀교육비	본인/남편교육비	식료품비	의료비	비동거가족지원	의복및가사용품	주거비	보험료	기타	계	(명)
전체	54.3	0.8	21.0	1.6	0.6	2.3	13.6	5.3	0.6	100.0	(3,231)
자녀수($\chi^2=277.2^{***}$)											
1명	32.6	1.5	30.7	2.3	0.9	4.2	20.7	6.6	0.4	100.0	(948)
2명	63.0	0.5	16.6	1.1	0.6	1.6	11.3	4.7	0.5	100.0	(1,923)
3명 이상	64.5	1.1	18.8	1.7	-	0.8	6.9	5.0	1.1	100.0	(361)
가구소득수준 ¹⁾ ($\chi^2=146.8^{***}$)											
60% 미만	41.9	0.2	29.4	4.0	0.2	1.4	16.2	6.1	0.5	100.0	(425)
60~80%	46.3	1.1	25.5	2.4	0.8	3.3	15.1	4.9	0.7	100.0	(760)
80~100%	53.6	0.7	22.9	0.9	0.7	2.6	12.8	5.7	0.3	100.0	(704)
100~120%	63.2	1.2	13.5	0.9	0.0	2.6	12.6	5.3	0.9	100.0	(342)
120~140%	64.9	1.0	14.6	0.6	1.0	0.4	11.7	5.4	0.2	100.0	(478)
140~160%	65.5	1.6	14.7	0.4	0.8	2.8	10.7	3.2	0.4	100.0	(252)
160% 이상	61.2	0.0	14.6	0.0	0.0	2.8	14.0	5.6	1.7	100.0	(178)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제12장 기혼여성의 정책 경험 및 선호도

제1 절 기혼여성의 저출산현상에 관한 태도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는 <표 12-1>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88.5%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매우 심각하다 25.8%). 대체적으로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매우 심각+다소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젊은 층일수록 소자녀관이 강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가 낮으나, 매우 심각하다는 비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일수록 저출산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다소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과거 출산억제를 지향하는 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거나 자녀가치 등에 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다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혼여성의 현존 자녀수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매우 심각+다소 심각) 인식수준은 무자녀인 경우 90.2%, 1자녀 86.3%, 2자녀 89.2%, 3자녀이상 88.7%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 비율은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으며, ‘다소 심각’하다는 인식 비율은 현존자녀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출산 여성들이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 정도가 더 크다는 사실은 사회 유지 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현존자녀수가 적은 여성들 사이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은 자신들의 소자녀 출산을 어느 정도 감안한 응답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기혼여성(91.3%)이 계획이 없거나(87.9%), 유보상태(87.2%)인 기혼여성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추가출산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거주지,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인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로는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89.5% 그리고 비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87.7%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매우 심각다소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만 보아도 취업여성(27.1%)이 비취업여성(24.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곤란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만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기혼여성의 직업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뚜렷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1〉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25.8	62.7	7.5	1.0	3.0	100.0 (3,571)	
거주지							
동부	25.5	63.2	7.2	1.1	3.0	100.0 (3,065)	6.3
읍·면부	27.3	59.3	9.7	0.6	3.2	100.0 (506)	
연령							
20~24세	26.8	48.8	14.6	4.9	4.9	100.0 (41)	28.6*
25~29세	25.9	60.5	6.9	1.6	5.1	100.0 (375)	
30~34세	23.2	65.7	7.6	0.8	2.7	100.0 (825)	
35~39세	27.8	60.2	7.5	1.2	3.3	100.0 (1,169)	
40~44세	25.5	64.1	7.5	0.8	2.1	100.0 (1,16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표 12-1〉 계속

(단위: %, 명)

구분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모르 겠음	계 (명)	χ^2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3	55.5	9.1	0.9	7.3	100.0 (110)	16.5
고졸	25.3	62.5	7.7	1.2	3.3	100.0 (1,941)	
대졸	26.2	63.4	7.3	0.8	2.2	100.0 (1,476)	
대학원졸 이상	26.7	62.2	4.4	0.0	6.7	100.0 (45)	
출생자녀수							
0명	24.5	65.7	6.0	0.9	2.8	100.0 (318)	27.8**
1명	22.1	64.2	9.1	0.9	3.7	100.0 (949)	
2명	27.2	62.0	7.5	0.8	2.5	100.0 (1,942)	
3명 이상	29.0	59.7	5.2	2.5	3.6	100.0 (362)	
추가출산계획							
있다	29.5	61.8	5.2	0.7	2.8	100.0 (579)	22.9**
없다	25.5	62.4	8.2	1.1	2.8	100.0 (2,503)	
모르겠음	28.1	59.1	5.0	2.1	5.7	100.0 (281)	
가구소득수준							
60% 미만	25.8	60.0	9.6	0.4	4.2	100.0 (477)	39.5*
60~80%	27.3	61.5	6.2	1.4	3.5	100.0 (852)	
80~100%	25.3	63.2	7.6	0.7	3.3	100.0 (764)	
100~120%	25.0	66.7	7.0	0.3	1.0	100.0 (384)	
120~140%	22.8	63.9	9.5	1.3	2.5	100.0 (527)	
140~160%	22.3	65.9	7.0	1.8	2.9	100.0 (273)	
160% 이상	31.3	62.6	3.1	1.0	2.1	100.0 (439)	
취업여부							
취업	27.1	62.4	7.8	0.6	2.1	100.0 (1,492)	13.5**
비취업	24.8	62.9	7.3	1.3	3.7	100.0 (2,077)	
직종							
고위·(준)전문직	25.2	66.7	4.1	-	4.1	100.0 (123)	12.7
사무직	26.8	62.6	8.2	0.2	2.3	100.0 (441)	
서비스·판매직	26.8	61.9	8.5	1.0	1.8	100.0 (785)	
생산·단순노무직 등	32.3	59.2	6.9	-	1.5	100.0 (13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로 저출산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2-2>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77.8%가 저출산 현상이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혼여성 중 고연령층일수록 저출산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을 더욱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 고연령층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노인부

양부담 증가 등 사회보장지출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에 의한 영향을 실제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풀이된다.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졸업 78.5%, 고졸 78.0%, 중졸이하 69.1% 순으로 저출산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학력층 여성일수록 사회 참여도가 높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출산현상이 본인의 경제활동이나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더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추가출산계획여부에 따라서는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저출산 현상과 본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 비율이 79.8%로 계획이 없는 경우의 7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으로 저출산 현상이 본인과 연관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추가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출산 문제를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나, 고소득층(150%이상)에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저출산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와 현존자녀수별로 저출산현상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나 직종에 따른 저출산과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정도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2〉 기혼여성(20~44세)의 저출산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관련	다소 관련	별로 관련없음	전혀 관련없음	모르 겠음	계 (명)	χ^2
전체	22.4	55.4	16.7	1.7	3.8	100.0 (3,571)	
거주지							
동부	22.2	55.5	16.9	1.7	3.7	100.0 (3,064)	1.7
읍·면부	23.7	55.0	15.6	1.4	4.3	100.0 (507)	

〈표 12-2〉 계속

(단위: %, 명)

구분	매우 관련	다소 관련	별로 관련없음	전혀 관련없음	모르 겠음	계 (명)	χ^2
연령							
20~24세	19.5	41.5	22.0	9.8	7.3	100.0 (41)	29.2*
25~29세	24.7	51.6	17.6	2.9	3.2	100.0 (376)	
30~34세	22.4	54.8	17.0	1.3	4.5	100.0 (825)	
35~39세	21.9	56.2	16.9	1.5	3.5	100.0 (1,167)	
40~44세	22.0	56.8	15.9	1.5	3.7	100.0 (1,161)	
교육수준							
중졸 이하	25.5	43.6	18.2	4.5	8.2	100.0 (110)	23.4*
고졸	22.6	55.4	16.3	1.9	3.8	100.0 (1,941)	
대졸	21.9	56.6	16.9	1.3	3.4	100.0 (1,477)	
대학원졸이상	22.7	43.2	27.3	0.0	6.8	100.0 (44)	
현존자녀수							
0명	24.3	52.7	18.0	0.9	4.1	100.0 (317)	18.1
1명	19.9	56.5	18.0	2.2	3.4	100.0 (949)	
2명	22.1	56.2	16.3	1.4	3.9	100.0 (1,943)	
3명 이상	28.3	51.0	14.4	2.2	4.2	100.0 (361)	
추가출산계획							
있다	23.8	56.0	14.2	2.2	3.8	100.0 (579)	24.4**
없다	21.5	56.3	17.3	1.4	3.5	100.0 (2,503)	
모르겠음	31.0	48.4	12.8	2.1	5.7	100.0 (281)	
가구평균소득							
60% 미만	21.8	49.5	19.7	2.9	6.1	100.0 (477)	55.8***
60~80%	25.9	53.0	15.9	1.6	3.5	100.0 (853)	
80~100%	21.9	55.9	15.9	1.6	4.7	100.0 (766)	
100~120%	18.4	64.4	13.2	1.6	2.3	100.0 (385)	
120~140%	20.7	58.9	17.7	1.1	1.9	100.0 (526)	
140~160%	18.7	61.2	15.0	2.6	2.6	100.0 (273)	
160% 이상	24.1	51.8	17.9	0.5	5.6	100.0 (195)	
취업여부							
취업	23.2	56.4	16.1	1.4	2.9	100.0 (1,493)	8.9
비취업	21.8	54.7	17.2	1.9	4.5	100.0 (2,078)	
직종							
관리·(준)전문직	24.4	46.3	23.6	2.4	3.3	100.0 (123)	13.4
사무직	23.1	58.5	14.3	0.7	3.4	100.0 (441)	
서비스·판매직	22.2	57.8	15.9	1.4	2.7	100.0 (784)	
생산·단순노무직 등	26.2	52.3	16.9	2.3	2.3	100.0 (130)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제2절 기혼여성의 양육지원주체 및 자원확보에 관한 태도

1.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지원 주체에 관한 태도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2-3>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대부분(95.1%)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세 51.2%, 25~29세 50.7%, 30~34세 45.0%, 35~39세 41.5%, 40~44세 35.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연령층일수록 현재의 자녀가 어리거나, 향후 출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실제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47.1%)가 계획이 없는 경우(39.6%)에 비해 국가적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비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고소득층(월 평균 가구소득 150% 이상)에서 국가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들 계층에서 세금부담이 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기혼여성의 거주지, 교육수준, 현존자녀수, 취업여부 및 직종에 따른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3〉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 지원	어느정도 지원	별로필요 없음	전혀필요 없음	모름	계 (명)	χ^2
전체	41.3	53.8	3.3	0.5	1.1	100.0 (3,571)	
거주지							
동부	40.6	54.4	3.4	0.5	1.0	100.0 (3,064)	5.8
읍·면부	45.7	50.1	2.8	0.2	1.2	100.0 (505)	
연령							
20~24세	51.2	39.0	2.4	4.9	2.4	100.0 (41)	63.1***
25~29세	50.7	45.1	2.1	1.1	1.1	100.0 (375)	
30~34세	45.0	51.5	2.4	0.2	0.8	100.0 (824)	
35~39세	41.5	53.2	3.8	0.4	1.1	100.0 (1,168)	
40~44세	35.1	59.3	4.0	0.4	1.2	100.0 (1,164)	
교육수준							
중졸 이하	50.9	45.5	1.8	-	1.8	100.0 (110)	10.8
고졸	40.5	54.5	3.5	0.4	1.1	100.0 (1,942)	
대졸	41.4	53.7	3.3	0.6	1.0	100.0 (1,475)	
대학원졸이상	51.1	46.7	-	-	2.2	100.0 (45)	
현존자녀수							
0명	40.7	55.2	2.5	0.6	0.9	100.0 (317)	19.1
1명	41.8	53.0	3.9	0.7	0.5	100.0 (949)	
2명	40.2	54.6	3.4	0.3	1.5	100.0 (1,943)	
3명 이상	46.5	50.1	1.9	0.8	0.6	100.0 (361)	
추가출산계획							
있다	47.1	50.3	2.1	0.3	0.2	100.0 (578)	50.4***
없다	39.6	55.3	3.5	0.6	1.0	100.0 (2,503)	
모르겠음	46.8	46.4	2.5	-	4.3	100.0 (280)	
가구평균소득							
60% 미만	53.0	42.3	2.7	0.4	1.5	100.0 (477)	101.8***
60~80%	46.1	49.4	2.8	0.5	1.3	100.0 (851)	
80~100%	40.4	55.6	2.9	0.7	0.5	100.0 (765)	
100~120%	29.1	65.7	4.7	0.0	0.5	100.0 (385)	
120~140%	31.7	60.5	5.7	0.8	1.3	100.0 (527)	
140~160%	41.5	53.8	3.3	0.4	1.1	100.0 (275)	
160% 이상	40.5	57.4	0.5	0.5	1.0	100.0 (195)	
취업여부							
취업	38.8	55.9	3.8	0.4	1.1	100.0 (1,493)	7.7
비취업	43.1	52.2	3.0	0.5	1.1	100.0 (2,078)	
직종							
고위·(준)전문직	46.3	50.4	1.6	-	1.6	100.0 (123)	10.5
사무직	36.1	58.0	4.3	0.5	1.1	100.0 (441)	
서비스·판매직	38.1	56.7	3.7	0.5	1.0	100.0 (785)	
생산·단순노무직 등	45.8	48.9	4.6	-	0.8	100.0 (13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로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직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표 12-4>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 중 96.0%가 직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전적으로 필요 36.6%), 대부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사례수가 적은 20~24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저연령층일수록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직장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연령층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여가 활발 하면서 자녀 출산 전이나 자녀가 어린 상황에서 직장의 지원에 대한 욕구가 보다 강하며, 고연령층 여성일수록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인 경우가 많아 직장 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직장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로는 1명(96.4%), 2명(96.1%), 3명이상(95.0%), 무자녀(94.0%) 순으로 직장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1~2자녀를 둔 경우 직장 지원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이유로는 이들 여성 중 현재 취업 중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추가 출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출산계획에 따른 응답 결과 계획이 있는 경우(96.9%)가 계획이 없는 경우(96.3%)에 비해 직장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상용직, 비임금근로자의 순으로 직장이 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근무형태가 경직되어 있거나 근로조건이 취약한 취업여성들의 직장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거주지, 교육수준, 취업 여부 및 직종(취업시)별로 직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직장지원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적 지원	어느정도 지원	별로필요 없음	전혀필요 없음	모름	계 (명)	χ^2
전체	36.6	59.4	2.3	0.4	1.3	100.0 (3,571)	
거주지							
동부	36.6	59.4	2.2	0.5	1.4	100.0 (3,064)	4.4
읍·면부	36.3	59.4	3.2	-	1.2	100.0 (507)	
연령							
20~24세	26.8	68.3	-	2.4	2.4	100.0 (41)	34.3**
25~29세	42.7	53.6	1.9	0.8	1.1	100.0 (375)	
30~34세	41.5	55.0	2.3	0.4	0.8	100.0 (825)	
35~39세	34.4	61.1	2.8	0.3	1.5	100.0 (1,166)	
40~44세	33.7	62.3	2.1	0.3	1.6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42.7	54.5	0.9	-	1.8	100.0 (110)	14.3
고졸	36.4	59.7	2.2	0.2	1.5	100.0 (1,941)	
대졸	36.0	59.5	2.6	0.7	1.1	100.0 (1,475)	
대학원졸이상	46.7	51.1	-	-	2.2	100.0 (45)	
현존자녀수							
0명	32.1	61.9	4.4	0.6	0.9	100.0 (318)	21.2*
1명	39.0	57.4	2.0	0.3	1.3	100.0 (949)	
2명	35.4	60.7	2.1	0.3	1.5	100.0 (1,944)	
3명 이상	40.0	55.0	2.8	1.1	1.1	100.0 (360)	
추가출산계획							
있다	44.1	52.8	2.8	-	0.3	100.0 (578)	77.7***
없다	34.4	61.9	2.0	0.5	1.1	100.0 (2,504)	
모르겠음	41.6	48.4	3.6	0.7	5.7	100.0 (281)	
가구평균소득							
60% 미만	45.2	50.0	2.5	0.2	2.1	100.0 (476)	70.9***
60~80%	40.1	55.9	2.0	0.1	1.9	100.0 (853)	
80~100%	34.9	61.2	2.2	0.4	1.3	100.0 (766)	
100~120%	30.5	65.0	3.7	0.5	0.3	100.0 (383)	
120~140%	30.0	65.7	2.7	0.4	1.3	100.0 (527)	
140~160%	36.2	59.4	1.4	1.8	1.1	100.0 (276)	
160% 이상	36.4	62.6	1.0	0.0	0.0	100.0 (195)	
취업여부							
취업	35.7	60.7	2.3	0.1	1.3	100.0 (1,492)	5.7
비취업	37.2	58.5	2.4	0.6	1.4	100.0 (2,078)	
직종							
관리·(준)전문직	43.5	53.2	2.4	-	0.8	100.0 (124)	10.7
사무직	36.4	59.7	2.7	0.2	0.9	100.0 (442)	
서비스·판매직	34.9	61.8	1.8	0.1	1.4	100.0 (785)	
생산·단순노무직 등 중사상지위(취업자만)	32.1	61.1	4.6	-	2.3	100.0 (131)	
비임금근로자	30.9	66.0	1.4		1.7	100.0 (350)	18.0*
상용근로자	35.8	60.3	3.1	0.1	0.7	100.0 (763)	
임시일용근로자	40.7	55.7	1.4	0.3	1.9	100.0 (366)	

2.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지원 자원 확보방법에 관한 태도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로 국가 세금을 이용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태도는 <표 12-5>에 제시되어 있다. 조세에 의한 지원방식에 대해 기혼여성의 34.6%는 전적으로 찬성, 54.9%는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89.5%가 찬성하였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4세에서 92.7%가 찬성(매우 찬성+대체로 찬성)하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89%정도가 찬성하였다. 특히,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가 어린 저연령층에서 조세지원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기혼여성(91.5%)이 계획이 없거나(89.7%)나 유보상태(86.1%)인 여성에 비해 세금을 통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찬성하였다.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로 찬성정도는 3명이상(95.3%), 무자녀(89.6%), 2자녀(89.1%), 1자녀(88.3%) 순으로 세금을 통한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기혼여성들 사이에서 조세지원방식에 대한 지지도가 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특성별로는 취업여성의 찬성정도가 90.3%로 비취업여성 89.0%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지원방식을 더 찬성하고 있으나, 매우 찬성 비율은 취업여성보다 비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기혼여성의 직종별로 조세지원방식에 대한 지지정도(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는 생산·단순노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낮을 뿐, 대체적으로 직종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조세지원방식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강한 지지도는 관리·(준)전문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별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조세지원방식에 대한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세금을 통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모름	계 (명)	χ^2
전체	34.6	54.9	7.1	1.2	2.1	100.0 (3,570)	
거주지							
동부	34.5	54.7	7.3	1.3	2.2	100.0 (3,064)	2.4
읍·면부	35.3	56.0	6.1	0.8	1.8	100.0 (507)	
연령							
20~24세	51.2	41.5	4.9	2.4	-	100.0 (41)	27.2*
25~29세	35.7	53.6	5.6	2.4	2.7	100.0 (375)	
30~34세	38.5	50.8	7.0	1.3	2.3	100.0 (824)	
35~39세	34.0	55.5	7.7	1.0	1.7	100.0 (1,167)	
40~44세	31.5	58.1	7.1	0.9	2.3	100.0 (1,163)	
교육수준							
중졸 이하	40.9	53.6	3.6	-	1.8	100.0 (110)	14.0
고졸	34.5	55.8	6.6	0.9	2.1	100.0 (1,940)	
대졸	33.9	54.0	8.1	1.7	2.3	100.0 (1,476)	
대학원졸이상	42.2	51.1	4.4	-	2.2	100.0 (45)	
현존자녀수							
0명	35.8	53.8	6.3	1.6	2.5	100.0 (318)	48.4***
1명	34.0	54.3	8.3	1.3	2.2	100.0 (951)	
2명	32.1	57.0	7.6	1.1	2.3	100.0 (1,943)	
3명 이상	48.8	46.5	2.5	1.4	0.8	100.0 (361)	
추가출산계획							
있다	41.1	50.4	5.7	1.6	1.2	100.0 (579)	44.0***
없다	32.4	57.3	7.2	1.3	1.8	100.0 (2,503)	
모르겠음	41.1	45.0	8.6	0.4	5.0	100.0 (280)	
가구평균소득							
60% 미만	41.5	46.1	8.4	0.8	3.1	100.0 (477)	72.9***
60~80%	39.0	51.6	5.8	0.8	2.8	100.0 (851)	
80~100%	33.3	55.2	7.8	1.8	1.8	100.0 (766)	
100~120%	26.6	62.2	8.1	2.1	1.0	100.0 (384)	
120~140%	29.8	58.3	9.3	0.6	2.1	100.0 (527)	
140~160%	33.0	60.1	4.3	1.8	0.7	100.0 (276)	
160% 이상	29.7	62.6	3.6	1.5	2.6	100.0 (195)	
취업여부							
취업	32.0	58.3	6.8	0.7	2.2	100.0 (1,493)	16.5**
비취업	36.4	52.6	7.3	1.6	2.1	100.0 (2,077)	
직종							
관리·(준)전문직	36.9	54.1	3.3	3.3	2.5	100.0 (124)	25.6*
사무직	29.7	60.8	7.7	0.5	1.4	100.0 (441)	
서비스·판매직	32.4	58.1	6.2	0.5	2.8	100.0 (785)	
생산·단순노무직 등	32.1	55.0	11.5	0.8	0.8	100.0 (13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제3절 기혼여성의 결혼정책 선호도

1. 기혼여성의 결혼정책 필요성에 관한 태도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결혼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2-6>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은 이미 결혼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응답결과를 정확하게 결혼당시의 정책 욕구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들이 실제 결혼과정에서 체험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설계 등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기혼여성의 23.9%는 결혼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56.2%는 다소 필요하다고 각각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80.1%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는 읍면부 거주여성(74.4%)에 비해 동부 거주여성(81.0%)에게서 결혼정책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현거주지가 결혼당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도시지역에서의 결혼비용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결혼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결혼한 연령층일수록 결혼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아주 고소득층인 경우와 아주 저소득층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양극단의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적어도 결혼당시 정책에 관한 욕구가 소득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해서는 소득계층별 결혼정책 유형별 선호도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별로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태도 차이는 무의미하다.

<표 12-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매우 필요함	다소 필요함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전체 (계)
전체	23.9	56.2	16.8	3.1	100.0 (3,574)
거주지($\chi^2=17.6^{**}$)					
동부	24.6	56.4	16.2	2.8	100.0 (3,069)
읍·면부	19.0	55.4	20.6	5.0	100.0 (504)
연령($\chi^2=25.9^*$)					
20~24세	41.5	39.0	17.1	2.4	100.0 (41)
25~29세	23.8	56.1	16.8	3.2	100.0 (374)
30~34세	23.5	53.9	19.6	3.0	100.0 (826)
35~39세	21.4	58.9	17.2	2.5	100.0 (1,167)
40~44세	25.9	56.0	14.4	3.8	100.0 (1,167)
교육수준($\chi^2=10.3$)					
중졸 이하	26.4	58.2	13.6	1.8	100.0 (110)
고졸	25.0	55.6	15.9	3.6	100.0 (1,942)
대졸	22.2	57.1	18.0	2.6	100.0 (1,477)
대학원졸 이상	22.7	52.3	22.7	2.3	100.0 (44)
가구소득수준($\chi^2=35.1^{**}$)					
60%미만	29.3	52.7	15.5	2.5	100.0 (478)
60-80%	22.2	56.3	17.6	3.7	100.0 (854)
80~100%	22.4	55.9	18.8	2.9	100.0 (765)
100-120%	19.9	59.1	17.6	3.4	100.0 (386)
120~140%	21.7	57.6	18.1	2.7	100.0 (526)
140~160%	23.3	61.8	11.3	3.6	100.0 (275)
160%이상	32.7	53.1	11.7	2.6	100.0 (196)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2. 기혼여성의 결혼정책 선호도

기혼여성(20~44세)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결혼정책의 종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12-7>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 기혼여성은 이미 결혼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사결과는 실제 결혼생활 경험을 기반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기혼여성이 필요로 하는 결혼정책은 주택마련 지원(55.2%),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15.9%),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램 제공(11.5%),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상당비율이 결혼당시 주택이나 결혼비용 마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해준다. 이외에도 기혼여성들은 결혼 후 가족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결혼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등을 결혼정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혼정책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도는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등의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12-7〉 기혼여성(20~44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결혼정책 유형

(단위 : %, 점)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택마련 지원	결혼준비 를 위한 휴가제도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	기타	전체 (계)
전체	8.8	5.9	11.5	55.2	2.4	15.9	0.4	100.0 (2,831)
지역($x^2=12.4$)								
동부	8.2	6.0	11.8	55.6	2.3	15.8	0.3	100.0 (2,455)
읍·면부	12.8	5.1	9.9	52.5	2.9	16.0	0.8	100.0 (375)
연령($x^2=28.5$)								
20~24세	15.6	3.1	15.6	53.1	-	12.5	-	100.0 (32)
25~29세	7.7	4.7	9.8	57.6	4.7	14.8	0.7	100.0 (297)
30~34세	8.3	5.9	11.0	57.9	1.6	15.2	0.2	100.0 (627)
35~39세	9.6	4.8	12.7	54.7	2.4	15.2	0.5	100.0 (928)
40~44세	8.6	7.3	11.0	53.2	2.2	17.5	0.2	100.0 (948)
교육수준($x^2=14.6$)								
중졸 이하	6.5	5.4	15.2	46.7	2.2	23.9	-	100.0 (92)
고졸	8.7	6.0	10.8	56.1	2.3	15.7	0.4	100.0 (1,552)
대졸	9.3	5.7	11.8	55.0	2.4	15.3	0.4	100.0 (1,157)
대학원졸 이상	3.1	6.3	21.9	43.8	3.1	21.9	-	100.0 (32)
소득수준($x^2=51.3^*$)								
60%미만	6.8	6.0	15.1	57.1	2.1	13.0		100.0 (385)
60-80%	11.7	4.8	12.6	55.5	2.0	13.2	0.2	100.0 (665)
80~100%	8.2	7.1	10.4	54.6	2.6	16.7	0.5	100.0 (588)
100~120%	7.7	6.1	8.8	52.9	4.4	19.5	0.7	100.0 (297)
120~140%	8.2	6.0	10.8	56.3	1.4	16.8	0.5	100.0 (416)
140~160%	8.1	7.3	9.0	53.0	3.8	18.4	0.4	100.0 (234)
160%이상	7.8	3.6	16.8	53.3	1.2	16.8	0.6	100.0 (16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제4절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경험 실태

1.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인지도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로 주요 저출산대책들에 대한 인지율은 <표 12-8>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정책 인지율은 저출산대책에 따라 아주 다양하여 최고 83.2%에서 최저 23.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모든 정책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주요 수요자인 기혼여성의 인지율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영역별 인지율은 대체적으로 자녀양육비용경감 지원(최소 44.2% ~ 최대 83.2%), 주거지원(42.6%~47.0%), 보건의료지원(41.0%~42.9%), 보육인프라·서비스 확충(36.9%~49.3%), 일·가정양립 지원(26.6%~45.6%), 양성평등문화 조성(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는 자녀 유무, 자녀 연령(영아기, 보육기, 유아교육기, 초등학교 학령기, 중학교 학령기 등), 보건의료적 상황(불임 여부 등), 취업여부 등에 따라 정책에 대한 기혼여성들의 관심도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별정책별로 보면, 인지율이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정책은 자녀보육·교육비 지원(83.2%), 방과후교육 지원(70.7%) 및 다자녀가정 소득공제(65.5%)에 불과하며, 나머지 정책들은 50%미만으로 나타났다. 인지율이 가장 낮은 정책으로는 양성평등문화 조성(23.3%), 근로형태 유연화(26.6%),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29.6%), 유사산 휴가(29.7%),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30.5%)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36.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가정양립지원영역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는 동 영역의 정책 대상이 주로 취업여성에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로 개별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전체 기혼여성의 정책별 인지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녀수가 많은 기혼여성일수록

대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대부분이 다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자녀출산 가정에서 자녀양육관련 지원정책에 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정책의 경우 3자녀 미만을 둔 여성들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자녀를 둔 여성의 인지율이 가장 높은 정책들로는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불임부부 지원 등 주로 보육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자녀를 둔 여성들의 첫 자녀가 주로 보육·유아교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자녀를 둔 여성의 인지율이 가장 높은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이 유일하다. 무자녀 여성의 인지율이 가장 높은 정책들로는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 및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으로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무자녀여성들이 자녀출산의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가정양립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존자녀수 별로 정책에 대한 인지율 내지 관심도가 어느 정도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8〉 기혼여성(20~44세)의 현존자녀수별 정책인지도(0자녀 이상)

(단위: %)

정책 구분	전체	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83.2	73.7	81.0	85.6	85.3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70.7	58.8	66.7	74.1	73.8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65.5	59.4	61.8	67.5	69.6
출산 크레딧	44.2	42.2	42.2	44.9	47.7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등	47.0	41.6	45.4	48.4	48.7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42.6	40.3	43.7	42.4	42.5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2-8〉 계속

정책 구분	전체	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산전 진찰비용 지원	41.3	42.1	41.8	40.1	46.0
불임부부 지원	41.0	40.0	40.8	41.2	41.1
산모도우미 지원	42.9	40.3	41.3	43.5	46.4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49.3	42.5	48.2	51.0	48.6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46.0	37.0	44.7	48.3	44.5
직장보육시설 확충	45.7	41.7	43.1	47.9	44.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45.4	41.9	41.5	47.6	46.5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36.9	35.9	34.3	37.9	39.3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45.6	47.7	43.2	46.6	44.5
육아휴직 활성화	44.0	45.5	42.1	44.8	42.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29.6	28.4	28.4	29.6	33.8
근로형태 유연화	26.6	28.4	24.6	26.7	30.1
유사산 휴가	29.7	31.0	27.1	30.0	33.6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30.5	33.2	28.2	30.8	32.5
양성평등 문화조성	23.3	23.0	21.0	23.4	29.2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수준 및 취업여부별로 저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표 12-9>에 제시되어 있다. 각 특성별 정책 인지도는 전체 여성의 인지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 여성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정책(영역)들은 주거지원, 보육인프라·서비스 확충, 일·가정양립지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가정양립지원 영역 중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에 관한 인지도는 저소득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된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상당비율이 저소득층에 속해있기 때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자녀양육비용 경감 지원(영역)의 경우에는 개별정책별로 인지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자녀보육교육비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국가 구월평균소득 140% 이하 소득계층에서 거의 유사하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40% 이상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과후교육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저소득층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자녀가정 소득공제와 출산크레딧에 대한 인지도는 고소득층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책 영역 또는 개별정책에 대한 소득계층

간 인지도의 차이는 정책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수준에 따른 정책 관심도 내지 욕구를 간접적으로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정책인지도는 보육인프라·서비스 확충과 일-가정양립지원의 두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육인프라·서비스 확충영역에 속한 세부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는 비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취업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인지하고 있었다. 일-가정양립지원 영역에 속한 세부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는 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성들이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정책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용경감지원과 보건의료지원에 속한 세부정책들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취업여부보다는 소득수준 등 다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2-9〉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수준 및 취업여부별 정책인지도(0자녀 이상)

(단위: %)

정책 구분	가구소득수준				취업여부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취업	비취업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83.5	83.1	84.7	81.2	82.4	83.9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72.3	71.8	70.9	66.2	71.4	70.2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59.7	65.0	66.9	69.7	65.0	65.8
출산 크레딧	41.6	42.0	47.0	48.9	44.2	44.2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등	43.7	45.8	48.9	51.4	45.3	48.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38.7	42.7	45.4	42.8	39.9	44.5
산전 진찰비용 지원	44.9	41.8	37.7	42.0	39.6	42.6
불임부부 지원	45.0	40.6	38.9	40.9	40.5	41.3
산모도우미 지원	49.1	42.4	40.8	39.6	42.5	43.1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46.3	48.2	51.2	54.1	48.7	49.7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42.4	44.1	47.9	51.9	44.4	47.1
직장보육시설 확충	41.8	42.6	49.9	52.2	46.0	45.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38.4	43.3	51.2	49.1	44.8	45.8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39.2	34.6	39.6	36.5	35.1	38.1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43.1	44.0	48.8	48.4	47.4	44.3
육아휴직 활성화	43.0	43.5	43.6	49.2	45.2	43.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30.9	28.8	29.1	32.1	29.5	29.6
근로형태 유연화	27.8	25.9	25.7	29.5	26.9	26.5
유사산 휴가	29.8	28.1	31.1	32.8	31.0	28.8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35.1	29.4	29.2	31.9	32.2	29.2
양성평등 문화조성	26.3	23.7	22.4	20.1	23.3	23.3

2.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경험도

1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저출산관련 주요 정책의 경험도(수혜률)는 <표 12-10>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혼여성의 정책인지도에 비해 정책경험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책경험도의 분포는 최대 19.7%에서 최저 0.9%로 정책간 차이가 아주 크다. 정책영역별로 기혼여성의 정책경험도는 대체적으로 자녀양육비용경감지원(최소 3.8%~최대 19.7%), 보건의료지원(2.7%~17.2%), 보육인프라·서비스확충(3.2%~5.8%), 일-가정양립지원(2.2%~5.0%), 양성문화조성(2.7%), 주거지원(0.9%~1.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정책별로 경험도가 10% 이상인 정책으로는 자녀보육교육비지원(19.7%), 산전진찰비용 지원(17.2%) 및 방과후교육 지원(10.1%)에 불과하다. 경험도가 5%~10%미만인 정책으로도 다자녀가정 소득공제(7.5%),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5.8%) 및 산전후휴가 급여지원 확대(5.0%)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 정책들의 경험도는 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지원영역의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용자지원과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의 경우에는 2% 미만으로 아주 저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영역 간 경험도의 차이는 정책 강도(대상범위, 지원수준) 및 지속성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 정책경험도는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나 정책 간 대소의 차이는 전체 여성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책인지도와 달리, 정책경험도는 자녀를 많이 두고 있는 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녀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경우 1자녀를 둔 여성의 정책경험도는 1.4%인데 반해 3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정책경험도는 36.1%로 거의 3배 정도 높다. 산전진찰비용지원정책의 경우 3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경험도가 23.8%로 1자녀를 둔 여성의 15.4%보다 높다.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과 산전후휴가 급여확대의 경우 2자녀를 둔 여성에 비해 1자녀를 둔 여성의 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0〉 기혼여성(20~44세)의 현존자녀수별 정책경험도(1자녀 이상)

(단위: %)

정책 구분	전체	현존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19.7	13.4	19.8	36.1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10.1	6.6	10.0	20.2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7.5	4.4	5.9	24.4
출산 크레딧	3.8	1.7	3.5	11.0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등	1.4	0.9	1.1	4.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0.9	0.8	0.6	2.9
산전 진찰비용 지원	17.2	15.4	16.8	23.8
불임부부 지원	2.7	1.9	2.8	4.6
산모도우미 지원	4.3	3.2	4.0	9.1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5.8	4.6	5.7	9.5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4.7	3.7	4.6	8.0
직장보육시설 확충	3.2	1.9	3.4	5.7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4.3	2.8	4.4	7.9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3.9	2.7	3.4	9.1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5.0	5.6	4.5	6.0
육아휴직 활성화	4.4	3.5	4.6	5.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2.4	1.5	2.5	4.0
근로형태 유연화	2.2	1.5	2.2	4.0
유사산 휴가	3.0	2.3	3.1	4.2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3.0	2.7	3.0	4.0
양성평등 문화조성	2.7	1.6	2.9	4.3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작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나 취업여부별로도 정책경험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정책 간 대소의 차이는 전체 여성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 부정책별로 보면, 자녀보육·교육비지원, 방과후교육지원,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산모도우미지원 등의 경우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과 정책경험도 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정책의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고소득층 여성들도 이들 정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득수준이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불임부부지원과 시설미이용 아동지원 등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소득층에서 동 정책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직장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산전진찰비용지원, 선전후휴가급여확대, 육아휴직활성화, 유사산휴가 등의 경험도는 소득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정책 대부분 소득기준보다 취업여부나 직장형태(공공부문, 대기업, 중소기업 등)와 종사상지위에 따라 대상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맞벌이 혹은 전문직 등의 고소득층에서 정책경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정책들의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정책경험도와 가구소득수준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소득수준 이외 다른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종일제보육서비스 확충이나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여성의 정책경험도가 동시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소득계층의 여성들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장시간 근로형태 등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정책경험도는 현실적으로 취업여부보다는 다른 특성(소득수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정책들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정책 수요가 달라진다. 그러한 정책들로는 종일제보육·육아시설확충과 시간제보육·육아시설확충, 일·가정양립지원정책들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 예외 없이 이들 정책에 대한 경험도는 비취업여성보다 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11〉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소득수준 및 취업여부별 정책경험도(1자녀 이상)

정책 구분	가구소득수준				취업여부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취업	비취업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32.5	22.2	12.2	13.0	18.4	20.6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15.4	10.7	7.5	7.1	11.4	9.2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6.5	6.4	7.3	12.0	7.7	7.4
출산 크레딧	3.6	2.7	4.5	6.7	3.6	4.0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등	1.9	1.1	1.1	1.7	1.3	1.4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1.2	0.9	0.6	0.5	0.8	1.0
산전 진찰비용 지원	15.4	16.5	17.3	19.6	15.0	18.7
불임부부 지원	1.4	3.3	2.2	2.6	2.8	2.7
산모도우미 지원	5.5	4.3	3.0	4.0	4.2	4.4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2-11〉 계속

정책 구분	가구소득수준				취업여부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취업	비취업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7.2	5.9	3.9	7.8	6.8	5.1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5.3	4.4	3.4	7.3	4.9	4.6
직장보육시설 확충	2.2	3.3	2.3	5.4	3.4	3.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4	4.6	4.2	4.7	4.7	4.0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3.6	4.4	2.1	4.7	3.9	3.8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3.1	4.5	4.8	8.0	7.1	3.5
육아휴직 활성화	3.1	4.0	3.7	8.0	5.9	3.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2.2	2.6	1.6	2.6	3.1	2.0
근로형태 유연화	1.4	2.5	1.5	2.1	2.6	1.9
유사산 휴가	1.9	2.8	2.7	4.7	3.8	2.4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3.1	2.9	2.3	4.2	3.8	2.5
양성평등 문화조성	3.1	2.9	1.9	2.8	3.3	2.3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만족도

과거 저출산관련 정책을 경험한 기혼여성(20~44세)의 만족도(매우 만족+만족)는 <표 12-1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정책에 대한 만족도 내지 불만족도 및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혼여성들이 정책을 이용하면서도 만족도가 낮다면, 정책의 효율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별 만족도는 현존자녀수나 가구소득수준별 및 취업여부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정책만족도는 정책 간 편차가 존재하나 대체적으로 자녀양육비용부담 경감 지원(최소 73.9%~최대 80.2%), 보육인프라·서비스 확충(58.5%~83.9%), 주거지원(67.3%~68.2%), 보건의료 지원(50.5%~60.6%), 일·가정양립 지원(43.6%~71.1%), 양성평등문화 조성(39.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정책별로 만족도가 80% 이상인 정책은 종일제보육·육아시설 확충(83.8%),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82.2%) 및 방과후교육 지원(80.2%)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족도가 70~80%미만인 정책으로는 보육교육자녀 보육·교육비 지원(79.4%), 다자녀가정 소득공제(76.8%), 출산 크레딧(74.0%) 및 산전후휴가 급여지원(71.1%)으로 나타났다. 60%대 만족도를 보이는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활성화(69.3%),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68.2%),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67.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64.7%), 직장보육시설 확충(62.4%) 및 산모도우미 지원(60.6%)으로 나타났다. 50% 대 만족도를 보인 정책으로는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산전진찰비용 지원, 불임부부 지원, 유산산 휴가,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등이 해당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형태 유연화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은 50% 미만의 정책만족도를 보였다.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의 만족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균점수를 측정해보면, 만족도(매우 만족+만족 비율)의 순위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정책들의 경우 매우 만족과 만족 간 혹은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간의 분포에 차이가 있어, 만족도(매우 만족+만족 비율)의 순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12-12〉 기혼여성(20~44세)의 정책만족도(1자녀 이상을 둔 정책 유경험여성 대상)

(단위: %)

정책 구분	만족도					만족도	평균점수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28.0	51.4	18.0	2.6	100.0	79.4	3.0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21.8	58.4	14.0	5.8	100.0	80.2	3.0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15.3	61.5	17.0	6.3	100.0	76.8	2.9
출산 크레딧	17.8	56.2	20.3	5.7	100.0	74.0	2.9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등	23.9	43.4	18.5	14.2	100.0	67.3	2.8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23.9	44.3	14.6	17.2	100.0	68.2	2.7
산전 진찰비용 지원	16.1	43.8	26.1	14.0	100.0	59.9	2.6
불임부부 지원	15.2	35.3	20.1	29.4	100.0	50.5	2.4
산모도우미 지원	27.4	33.2	18.8	20.7	100.0	60.6	2.7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35.7	48.1	10.5	5.6	100.0	83.8	3.1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33.2	49.0	13.0	4.8	100.0	82.2	3.1
직장보육시설 확충	29.1	33.3	21.3	16.3	100.0	62.4	2.8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6.4	38.3	18.7	16.7	100.0	64.7	2.7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26.3	32.2	22.3	19.2	100.0	58.5	2.7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29.3	41.8	15.2	13.7	100.0	71.1	2.9
육아휴직 활성화	32.4	36.9	19.2	11.5	100.0	69.3	2.9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7.7	30.5	25.2	26.7	100.0	48.2	2.4
근로형태 유연화	19.8	23.7	26.2	30.2	100.0	43.6	2.3
유산산 휴가	26.8	26.8	18.7	27.7	100.0	53.6	2.5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35.6	23.4	17.8	23.3	100.0	59.0	2.7
양성평등 문화조성	19.7	19.5	22.8	38.0	100.0	39.2	2.2

주 : 평균점수는 4점 척도(매우 만족=4, 만족=3, 불만족=2, 매우 불만족=1)를 이용하여 산정함. 만족도는 매우 만족 + 만족의 합임.

저출산 관련 정책을 경험한 1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정책만족도는 <표 12-13>에 제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만족도는 여성의 여건들과 정책 수준 등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현존자녀수, 가구소득수준, 취업여부 등의 어느 한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패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 정책만족도는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각 정책의 자녀수별 만족도는 자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보육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1자녀를 둔 여성 그리고 방과 후학교지원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가정이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만족도는 2자녀를 둔 경우 상대적으로 높으나, 3자녀 이상을 둔 경우에는 오히려 낮았는데, 이는 공급주택의 공간이나 질적 수준이 자녀수에 반비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종일제보육시설·서비스 확충정책의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은 여성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많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여야 하는 여성 등이 동 정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 미이용아동 지원이나 산모도우미지원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책들의 경우에는 3자녀 이상을 둔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정책들의 특성상 다자녀가정에 보다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전후 휴가급여 확대지원이나 육아휴직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등의 경우에는 1자녀를 둔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가정양립이 첫 자녀 출산시에 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로 만족도가 6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들은 출산크레딧(3자녀 이상의 경우),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3자녀 이상), 신혼부부 특별주택공급(1자녀, 3자녀 이상), 국공립보육시설 확충(2자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1자녀, 2자녀), 산전진찰비용 지원(2자녀), 불임부부 지원(2자녀), 산모도우미 지원(2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1자녀, 2자녀), 근로형태 유연화(2자녀, 3자녀 이상), 노동시장복귀지원(2자녀, 3자녀 이상), 양성평등문화 조성(모든 출산순위)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 유형별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 일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자녀보육교육비 지원, 방과후교육 지원, 시설미이용이동 양육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도우미 지원에 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출산크레딧, 종일제보육시설·서비스 확충, 시간제보육시설·서비스 확충, 산전후휴가 급여지원 확대, 유사산휴가 및 출산육아후 노동시장복귀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외의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는 가구소득수준과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 일부 정책의 경우 고소득층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정책만족도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존재하므로 취업관련 정책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보육인프라·서비스 확충이나 일·가정양립지원 영역의 세부정책 대부분 현재 취업 중인 여성들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국공립보육시설확충과 근로형태유연화의 경우에는 현재 비취업 중인 여성의 만족도가 취업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에는 과거 취업시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2-13〉 기혼여성(20~44세)의 특성별 정책만족도(1자녀 이상의 정책경험 여성 대상)

정책 구분	현존자녀수			가구소득수준				취업여부	
	1명	2명	3명	%				취업	비취업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85.6	76.7	81.3	87.0	83.1	73.0	57.7	79.5	79.5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82.1	77.4	85.5	83.9	85.9	74.1	71.4	81.8	78.8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78.4	83.5	67.5	70.8	75.9	81.1	78.4	78.9	74.8
출산 크레딧	85.7	86.8	50.0	72.7	68.8	74.1	85.2	79.5	69.4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등	66.7	82.4	53.3	37.5	81.3	71.4	60.0	80.0	58.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50.0	100.0	50.0	60.0	84.6	50.0	33.3	100.0	47.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표 12-13〉 계속

정책 구분	현존자녀수			가구소득수준				취업여부	
	1명	2명	3명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취업	비취업
산전 진찰비용 지원	60.8	58.0	62.2	72.0	56.7	73.1	57.9	59.2	60.2
불임부부 지원	61.5	45.8	56.3	50.0	54.3	46.2	50.0	48.4	52.2
산모도우미 지원	60.7	55.9	69.7	68.2	62.3	55.6	50.0	57.1	62.8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82.5	84.0	84.4	72.4	80.5	93.1	96.7	89.3	79.5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78.1	86.1	74.1	76.2	77.0	87.0	96.7	84.7	79.7
직장보육시설 확충	62.5	61.0	65.0	66.7	58.7	68.8	75.0	63.4	61.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75.0	58.4	75.0	70.0	60.6	74.2	62.5	61.1	66.7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57.1	52.4	71.9	73.3	56.5	56.3	64.7	62.5	55.1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86.0	64.6	60.0	61.5	67.7	74.3	83.9	75.9	64.5
육아휴직 활성화	80.6	64.5	68.4	66.7	64.2	73.9	81.8	74.6	63.0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50.0	43.5	64.3	55.6	51.4	45.5	50.0	50.0	45.9
근로형태 유연화	69.2	32.5	50.0	33.3	50.0	40.0	62.5	41.9	44.4
유사산 휴가	65.0	49.1	53.8	37.5	48.6	59.1	72.2	61.7	43.9
출산·육아후 노동시장복귀지원	79.2	50.9	57.1	58.3	53.7	57.9	81.3	65.3	51.2
양성평등 문화조성	50.0	31.3	53.3	42.6	42.1	25.0	42.9	38.9	39.5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4.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경험여부 및 만족도와 추가출산의향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경험도와 만족도가 추가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추가출산의향은 <표 12-1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을 경험하고 만족도를 응답한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하의 분석에서 유의할 점은 각 응답사례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일반화하기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1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은 경험한 정책에 만족한 경우, 경험한 정책에 불만족한 경우, 정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경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았고 이에 만족하였던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은 39.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은 30.7%, 그리고 정책에 불만족한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26.7%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산

진진찰비용 지원,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등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방과후교육 지원의 경우에는 정책을 경험하고 만족한 경우에 오히려 추가출산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 정책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후에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정책을 경험한 기혼여성 대부분은 만족도와 관계없이 대부분 출산을 중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2-14〉 1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정책경험여부 및 정책만족도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단위: %, 명)

정책 ¹⁾	무경험	경험		
		소계	불만족	만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30.7(584)	36.4(110)	26.7(15)	39.8(88)
이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32.3(520)	24.5(49)	22.2(9)	21.6(37)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30.5(492)	51.4(37)	42.9(7)	53.6(28)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29.8(392)	35.9(39)	37.5(8)	40.0(30)
산전 진찰비용 지원	34.2(219)	35.5(138)	40.0(20)	41.4(29)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32.5(329)	50.0(50)	28.6(7)	56.1(41)
육아휴직	34.4(337)	43.8(32)	66.7(6)	36.0(25)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정책 경험 기혼여성 중 만족도를 응답한 사례수가 30이상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

2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의 정책경험 및 만족여부에 따른 추가출산의향은 1자녀 여성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2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들 중 일부는 정책만족도와 상관없이 단산(추가출산의향이 0%)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일부 정책들의 경우에는 정책을 경험하고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출산의향은 제로거나 무경험 혹은 정책불만족 집단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보육·교육비 지원정책,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출산크레딧, 산전진찰비용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등의 경우에는 정책무경험집단보다 만족경험집단의 추가출산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2-15〉 2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정책경험여부 및 정책만족도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단위: %, 명)

정책 ¹⁾	무경험	경험		
		전체	불만족	만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4.3(1,193)	4.7(343)	3.8(78)	4.9(243)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3.8(629)	0.0(63)	0.0(30)	0.0(30)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3.8(1,163)	2.4(170)	2.6(38)	2.4(125)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3.6(1,110)	6.9(102)	0.0(15)	6.3(79)
출산 크레딧	3.8(740)	4.8(62)	0.0(6)	6.8(44)
산전 진찰비용 지원	3.1(421)	5.5(310)	0.0(33)	4.3(46)
불입부부 지원	4.1(700)	1.9(53)	0.0(260)	4.8(21)
산모도우미 지원	4.3(722)	2.7(73)	0.0(29)	5.4(37)
직장보육시설 확충	2.7(812)	0.0(62)	0.0(23)	0.0(34)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3.8(822)	4.2(96)	0.0(15)	3.8(78)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3.8(784)	3.8(79)	0.0(10)	3.2(63)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3.3(766)	1.2(83)	0.0(28)	2.0(50)
육아휴직 활성화	3.6(727)	0.0(84)	0.0(26)	0.0(4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2.8(494)	0.0(48)	0.0(26)	0.0(20)
근로형태 유연화	2.9(448)	0.0(40)	0.0(27)	0.0(13)
유사산 휴가	3.1(487)	1.8(57)	0.0(28)	3.8(26)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3.2(503)	0.0(55)	0.0(27)	0.0(25)
양성평등 문화조성	3.5(369)	0.0(54)	0.0(33)	0.0(15)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정책 경험 기혼여성 중 만족도를 응답한 사례수가 30이상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정책경험 여부나 정책만족도와 상관없이 대부분 추가출산 중단을 계획하고 있어,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을 제외하고는 추가출산의향과의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16〉 3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의 정책경험여부 및 정책만족도에 따른 추가출산의향

(단위: %, 명)

정책 ¹⁾	무경험	경험		
		전체	불만족	만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2.4(165)	0.8(120)	0.0(24)	1.0(96)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1.7(181)	1.5(66)	0.0(10)	1.8(55)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2.0(153)	1.2(82)	0.0(26)	2.0(51)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1.5(132)	3.3(30)	0.0(5)	4.0(25)
산전 진찰비용 지원	2.7(75)	3.7(82)	0.0(14)	0.0(21)
산모도우미 서비스 지원	2.3(129)	0.0(30)	0.0(10)	0.0(20)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정책 경험 기혼여성 중 만족도를 응답한 사례수가 30이상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

이상 저출산관련 정책들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지도, 경험도 및 만족도를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저출산관련 21종 정책들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지도는 3개 정책(보육·교육비 지원, 방과후 교육 지원, 산전진찰비용지원)만이 50% 이상이며, 나머지는 20~5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기혼여성의 정책경험률은 더 낮아 모두 20% 미만이다. 경험률이 10~20%미만인 정책 3종(보육·교육비 지원, 방과후교육 지원, 산전진찰비용 지원), 5~10%미만인 정책은 3종(다자녀가정 소득공제,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산전후휴가 급여지원 확대) 그리고 나머지 15종의 정책만족도는 5% 미만이다. 그러나 일단 정책을 경험한 여성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정책만족도는 자녀양육비용부담 경감 지원, 보육인프라·서비스 확충, 주거지원, 보건의료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양성평등문화 조성 순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부정책별로는 총 21종의 정책들 중 만족도가 80% 이상인 정책은 3종(종일제보육·육아시설 확충,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방과후교육 지원)이며, 만족도가 70~80%미만인 정책은 4종(보육교육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출산크레딧,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확대)이다. 11종의 정책들은 50~70% 미만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3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형태 유연화, 양성평등 문화조성)은 50% 미만의 정책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추가출산중단의 경향이 높은 2자녀 이상 여성집단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1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정책 무경험에 비해 정책 유경험시, 그리고 정책에 불만족한 경우보다 만족하는 경우에 추가출산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향후 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질적 제고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하겠다.

제5절 기혼여성의 출산정책 선호도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본인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질문한 결과는 <표 12-17>에 제시되어 있다. 동 질문에서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 정책 대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간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복응답을 허용하지 않고 정책 간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1순위와 2순위만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로서 나타난 응답비율(1순위)은 각 정책에 대한 욕구의 절대적 크기라기보다 정책 간 중요도를 보여주는 상대적 크기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21개 주요 정책들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자녀보육교육비 지원으로 전체 기혼여성의 절반정도인 53.4%가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응답 비율(선호도)이 높은 정책으로는 방과후교육 지원(8.5%), 다자녀가정 특별주택공급(5.8%), 다자녀가정 소득공제(3.6%), 종일제보육시설·서비스 확충(3.6%),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관련 정부정책을 크게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과 일-가정생활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분할 경우, 전자의 선호도는 83.2%, 후자의 선호도는 16.9%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거주지별로 정책간 선호도 차이는 전국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각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거주지별로 비교해 보면, 다자녀가정 특별주택공급과 신혼부부특별주택공급, 보육을 포함한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선호도는 읍면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 거주 여성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서 주택마련이 어렵고, 일-가정 양립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녀보육교육비용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시간제보육시설·서비스 확충,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 등에 관한 선호도는 동부지역보다 읍면부지역 거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동부지역 여성의 경우 82.6%로 읍면부지역 여성

의 86.5%보다 낮은 반면, 일-가정생활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선호도는 17.5%와 13.4%로 동부지역 거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고,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사일로 분주한 농촌지역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수준별로 정책선호도는 일부 정책들의 경우 일정한 패턴을 보이나, 나머지 정책들의 경우에는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보육교육비지원, 아동의 방과후학교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종일제 보육시설·서비스 확충, 산전후휴가 급여지원 확대, 양성평등문화 조성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전국가구월평균소득수준의 60%미만인 계층의 경우 87.9%, 60~100%미만 계층의 경우 83.6%, 100~140%미만 계층의 경우 81.3%, 140% 이상 계층의 경우 78.5%로 가구소득수준과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와 달리,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에 대한 선호도는 12.0%, 16.4%, 18.8%, 21.3% 등으로 가구소득수준과 정적관계를 보였다. 요컨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은 자녀출산·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그리고 고소득층은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12-17〉 기혼여성(20~44세)의 거주지·가구소득수준별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1순위)

(단위: %, 명)

정책구분	전체	지역($x^2=37.1^*$)		가구소득수준($x^2=113.0^{***}$)			
		동부	읍면부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53.4	52.2	60.5	56.5	54.1	51.8	50.3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1.7	1.8	1.4	1.9	2.1	1.5	0.7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8.5	8.5	8.6	9.2	9.1	7.0	7.6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3.6	3.6	3.6	2.5	3.4	4.5	3.1
출산 크레딧	3.2	3.5	1.4	1.9	2.9	4.6	3.1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등	5.8	5.9	4.8	5.9	5.1	6.6	6.5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3.5	3.8	1.6	4.4	3.8	3.1	2.5
산전 진찰비용 지원	0.8	0.8	0.6	0.6	0.6	0.6	1.6

〈표 12-17〉 계속

정책구분	전체	지역($\chi^2=37.1^*$)		가구소득수준($\chi^2=113.0^{***}$)			
		동부	읍면부	60%미만	60-100%	100-140%	140%이상
불임부부 지원	1.1	1.1	1.4	2.1	0.9	0.9	1.1
산모도우미 지원	1.6	1.4	2.6	2.9	1.6	0.7	2.0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5	2.7	1.0	1.3	2.9	2.5	2.9
직장보육시설 확충	2.6	2.7	2.0	2.5	2.4	3.0	1.8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3.6	3.7	3.0	1.1	3.3	5.2	4.5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1.7	1.7	1.8	1.5	1.7	1.9	1.8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1.0	1.1	0.8	0.8	0.9	1.0	2.2
육아휴직 활성화	1.2	1.3	0.4	1.5	0.8	1.9	0.9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0.3	0.3	-	0.6	0.3	0.2	0.2
근로형태 유연화	1.1	1.1	1.0	0.6	1.1	1.0	1.6
유사산 휴가	0.2	0.2	-	-	0.1	0.1	0.4
출산·육아후 노동시장복귀지원	2.0	2.0	2.4	1.7	2.4	1.3	2.7
양성평등 문화조성	0.5	0.5	0.6	0.2	0.3	0.6	1.6
기타	0.2	0.2	0.4	0.2	0.2	0.1	0.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3,498)	(3,000)	(499)	(476)	(1,596)	(892)	(445)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수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을 활용함.

기혼여성의 현존자녀수별로 정책선호도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부 정책들 중 자녀보육·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소득공제 및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정책들에 대한 기혼여성의 정책선호도는 현존자녀수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산전진찰비용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종일제보육·육아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출산·육아후 노동시장복귀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도는 현존자녀수와 부적관계를 보였다. 나머지 정책들에 대한 선호도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자녀수가 적은 여성들은 일가정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반면, 자녀수가 많은 여성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증적으로 전자의 선호도는 무자녀 77.0%, 1자녀 81.1%, 2자녀 84.0%, 3자녀 이상인 경우 89.0%로 자녀수와 정적관계를 보였다. 반면, 후자의 선호도는 22.8%, 19.1%, 16.1%, 11.2% 등으로 자녀수와 부적관계를 보였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로 정책선호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비취업여성

들은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이와 달리, 취업여성들은 일-가정생활 양립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자녀보육교육비지원이나 다자녀가정 소득공제와 산전진찰비용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비취업여성보다 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일-가정생활양립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며, 동시에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녀들을 보육시설 등에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보육비용부담을 해소해줄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공제와 산전진찰비용지원 정책들은 취업여성에게 기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인다.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근로형태 유연화 및 양성평등문화 조성 정책들에 대한 선호도는 취업여성보다 비취업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근로형태 유연화 정책은 아무래도 취업을 원하는 비취업여성에게 더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취업 기혼여성의 종사상지위별로 정책에 대한 선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8〉 기혼여성(20~44세)의 거주지·가구소득수준별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1순위)

(단위: %, 명)

정책구분	현존자녀수($x^2=157.1^{***}$)				취업여부($x^2=38.6^*$)		종사상지위($x^2=77.5$)			
	0명	1명	2명	3명+	취업	비취업	고용주 지영업 자	무급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44.5	52.1	54.9	56.4	54.1	52.9	58.7	41.8	52.4	57.1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	0.6	2.3	1.5	2.2	1.4	1.9	1.8	1.8	1.6	0.6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7.7	6.9	9.3	9.2	8.2	8.7	6.0	12.7	7.9	10.0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2.6	2.3	3.9	6.1	4.2	3.2	3.2	9.1	3.4	5.8
출산 크레딧	2.3	2.5	3.8	3.1	2.9	3.5	2.5	7.3	2.8	2.8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등	5.2	5.6	5.5	7.8	5.2	6.2	5.0	9.1	5.0	5.0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4.8	4.7	2.8	2.5	2.7	4.0	2.5	-	2.8	3.0
산전 진찰비용 지원	2.3	0.8	0.6	0.3	0.8	0.8	1.4	-	0.9	-
불임부부 지원	3.5	1.6	0.6	0.6	1.0	1.2	1.1	-	0.9	1.1
산모도우미 지원	3.5	2.3	1.1	0.8	1.2	1.9	1.1	-	1.5	0.6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4.2	2.7	2.4	1.1	1.9	2.9	2.5	3.6	1.8	1.1
직장보육시설 확충	1.9	3.4	2.4	2.8	2.8	2.4	2.1	1.8	2.8	3.3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4.8	4.4	3.2	1.9	4.3	3.0	3.6	-	5.1	3.3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	1.0	1.9	1.9	0.8	1.8	1.6	3.2	-	2.2	0.6

〈표 12-18〉 계속

정책구분	현존자녀수($\chi^2=157.1^{***}$)				취업여부($\chi^2=38.6^*$)		종사상지위($\chi^2=77.5$)			
	0명	1명	2명	3명+	취업	비취업	고용주 자영업 자	무급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0.3	1.1	1.1	1.1	1.4	0.8	1.1	1.8	1.4	1.7
육아휴직 활성화	3.2	1.3	0.9	0.3	1.9	0.7	1.4	-	2.4	1.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0	0.2	0.2	0.3	0.3	0.2	-	-	0.5	0.3
근로형태 유연화	1.9	0.8	1.2	0.6	1.0	1.2	1.1	-	1.2	0.8
유사산 휴가	-	0.1	0.3	0.3	0.2	0.1	-	-	0.4	-
출산·육아후 노동시정복귀지원	4.2	2.3	1.7	1.7	2.1	2.0	1.4	9.1	2.2	1.7
양성평등 문화조성	0.3	0.8	0.5	-	0.3	0.6	0.4	1.8	0.4	0.4
기타	-	0.1	0.3	0.3	0.1	0.3	-	-	0.1	-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310)	(929)	(1,901)	(360)	(1,451)	(2,048)	(281)	(55)	(738)	(361)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혼여성의 출산·양육여건에 관한 태도

자녀출산 및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는 <표 12-19>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여건은 사교육비 경감(22.4%), 공교육 강화(13.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3.9%),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11.7%), 경기 활성화(10.3%),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10.0%) 등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일반특성별 출산 및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은 전체적인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도시지역 거주 기혼여성의 경우, 공교육 강화, 학벌위주문화 타파, 경기활성화 등을 더 중시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거주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경감,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등을 더 중시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등을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학벌주의문화 타파 등을 중요한 사회여건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출산 및 양육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표 12-19〉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에 대한 태도

(단위:%, 명)

구분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¹⁾					저렴·균등한 보육·교육기회 제공 ²⁾			출산·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³⁾			기타 ⁴⁾	계 (명)	x ²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5.7	10.0	2.2	2.0	3.8	13.9	22.4	13.9	10.3	11.7	4.1	0.1	100.0	(3,497)		
거주지																
동부	6.1	10.7	2.1	1.9	3.6	14.2	21.5	13.5	10.4	11.7	4.0	0.1	100.0	(2,997)	31.5 **	
읍면부	3.8	5.4	2.6	2.2	5.0	11.8	27.9	16.2	9.4	11.2	4.4	-	100.0	(499)		
연령																
20~24세	7.5	7.5	-	-	2.5	12.5	17.5	35.0	5.0	10.0	2.5	-	100.0	(40)	77.3 **	
25~29세	5.1	6.5	1.6	2.2	3.5	12.2	23.3	18.2	11.4	13.0	3.0	-	100.0	(369)		
30~34세	5.2	8.7	1.7	2.0	4.6	11.9	23.9	15.3	9.6	12.4	4.7	0.1	100.0	(813)		
35~39세	5.6	9.9	2.0	1.9	3.6	14.6	21.9	14.6	12.1	10.0	3.5	0.2	100.0	(1,140)		
40~44세	6.4	12.1	3.1	1.9	3.7	15.1	21.7	10.1	8.8	12.3	4.7	-	100.0	(1,134)		
교육수준																
중졸이하	4.6	7.3	1.8	0.9	0.9	22.0	16.5	15.6	11.9	13.8	4.6	0.0	100.0	(109)	45.7	
고졸	5.6	9.8	2.4	2.2	4.1	15.2	22.5	13.6	9.6	10.9	3.8	0.2	100.0	(1,882)		
대졸	6.2	10.1	1.9	1.6	3.6	11.8	22.4	14.3	11.1	12.7	4.4	-	100.0	(1,461)		
대학원졸이상	0.0	20.9	4.7	2.3	4.7	2.3	27.9	14.0	9.3	7.0	7.0	-	100.0	(43)		
취업여부																
취업	4.8	9.6	3.0	2.5	3.0	14.8	21.8	13.7	9.8	12.3	4.7	-	100.0	(1,452)	25.4 **	
비취업	6.4	10.2	1.7	1.6	4.4	13.2	22.8	14.1	10.6	11.2	3.7	0.1	100.0	(2,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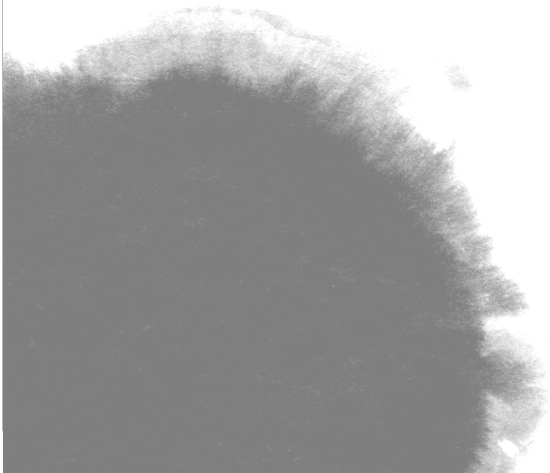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자녀출산·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①양성평등 구현, ②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③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립 ④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등 ⑤자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 2) 저렴·균등한 보육·교육기회 제공-⑥공교육 강화, ⑦사교육비 경감, ⑧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 3) 출산·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⑨경기 활성화(고용안정), ⑩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⑪복지수준의 향상
- 4) 기타-⑫기타.

4부

결론



제13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는 1960년대~1980년대 초 기간에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경험하였다.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기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기를 거친 후,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여 최근에는 세계 최저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초저출산현상의 장기화는 미래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완료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아주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이래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와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인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를 직·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본 조사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전국 가구를 모집단에서 206개 표본조사구 내 10,21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원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20~44세 기혼여성 3,585명과 20~44세 미혼남녀 3,31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원 면접에서는 가구조사표, 기혼자조사표 및 미혼자조사표가 이

용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가구, 가구원)의 일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원수,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자기집 소유여부, 가구소득,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여부, 직업,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직장 형태 및 규모, 근로(사업)소득 등이 포함되었다. 핵심항목으로는 결혼, 임신, 출산, 자녀보육·양육 등과 관련한 가치관, 실태, 향후 계획, 정책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증,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조사의 주요 결과로는 조사대상에 따라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으로 구분하여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주요 조사 결과이다.

첫째, 미혼남녀의 비혼화와 만혼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 근거로 미혼남녀 중 향후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율이 지난 조사결과에 비해 높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혼여성에 비해 미혼남성의 결혼의향 및 필요성 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최근 고용불안정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미혼남녀 본인의 결혼계획 연령이 과거에 비해 더 늦추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연령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늦은 나이에 결혼할 계획이다.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에는 일정한 성차가 있다. 남성의 경우, 고용·소득 불안정, 신혼집이나 결혼비용 마련 곤란 등 경제적 이유가 우세한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시기를 놓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결혼 불원 또는 부담 등 비경제적 이유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미혼남녀의 공간적 독립성(약 20%) 및 경제적 독립성(약 40%)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미혼여성에 비해 미혼남성의 부모로부터 공간적 및 경제적 독립 정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로부터 공간적으로 및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층이 그렇지 않은 미혼층보다 비혼 의향이 높고 만

혼을 더 선호하고 있다. 독립한 미혼층의 경우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 형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소득고용 불안정, 주택 마련 곤란,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미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자발적인 만혼화 내지 비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한 미혼층이라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미혼남녀의 소자녀관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혼남녀의 약 1/4만이 “자녀를 반드시 갖고 싶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출산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1/10에 근접하고 있다. 본인의 향후 기대자녀수로 두 자녀 이상 출산을 희망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대신 1자녀 출산 또는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미혼남녀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인구대치수준 이하로 낮게 나타난다. 1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이유는 미혼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 미혼남성들은 양육·교육비용 부담, 소득·고용불안정, 여가 및 자아성취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미혼여성들은 양육·교육비용 부담, 일·가정양립 곤란, 여가 및 자아성취, 소득·고용 불안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혼남녀들은 출산 및 양육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교육 비용을 체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에서 자녀양육은 고비용이라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특히, 미혼여성들이 일·가정양립을 자녀 출산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은 자녀출산·양육의 기회비용에 대한 체감도가 높음을 의한다. 또한, 고용소득 불안정과 가치관 문제는 젊은층의 결혼 및 출산 선택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미혼남녀의 결혼정책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3/4정도가 결혼정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미혼층이 선호하는 결혼정책으로는 주택마련지원, 결혼비용 융자지원,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 제공,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순이다. 신혼집 마련과 결혼비용의 비용 부담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성을 느끼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바램이 높다.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책도

요구하고 있다. 이성 간 만남의 장을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는 요구도 일부 존재하는데,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장시간 근로시간 등을 이유로 이성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 내지 소통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주요 조사 결과이다.

첫째, 기혼여성(배우자)은 결혼 당시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에 큰 부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혼여성들이 결혼식에 지출한 비용은 평균 이천만원 수준이나, 최근에 결혼할수록 그 비용은 증가한다. 결혼식 비용을 당사자 또는 배우자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반절이나 된다. 기혼여성 대부분 임차(전세, 월세) 형태로 신혼집을 마련하였으며, 1/5 이상이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약 이천만원이다. 신혼집 마련도 반절 이상이 당사자 또는 배우자 본인들이 직접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관련 비용 지출이 크데다가 본인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중 높으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만혼, 비혼)가 클 것이다. 실제 결혼비용 또는 주택대출비용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앞서 미혼층의 신혼집이나 결혼비용 마련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있는 점과 연계해 볼 수 있다.

둘째, 기혼여성(20~44세)은 평균 2.05회 임신을 하고 있으며, 이중 거의 20%가 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소모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공임신중절에 의해 소모되는 비율만 해도 10%에 육박한다. 임신소모율은 현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아, 임신소모가 자녀수 축소(또는 무자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늦게 결혼할수록(초혼연령이 높을수록) 또는 취업 중(특히 임시일용직, 장시간 근로 경우)인 경우 임신소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공임신중절 시기로는 큰 차이가 없어 시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조사대상 기혼여성 중 첫째아 출산 전에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도 약 30%에 이르며, 현재 자녀가 없는 부인 일부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공임신중절 이유는 대부분 추가자녀 불원, 출산 연기 또는 터울조절, 혼전 임신, 본인건강 문제 등의 순이다. 많은 여성이 출산 연기 또는

터울조절로 인공임신중절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 접근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피임미실천 여성의 거의 3/10 정도가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5%가 의료기관에서 불임진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불임진찰 경험은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할수록 높아, 만혼화와 낙태가 불임과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2005년 1.77명에서 2009년 1.6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자녀 또는 한자녀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대신 두 자녀 이상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시 거주, 대졸이상 고학력, 중산층, 전세입자, 무배우, 취업, 고위전문직·사무직종, 상용·임시일용직,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수 적다. 이러한 계층별 차이는 연령표준화 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도시거주 여성의 경우 교육비 포함 생활비용 고가 등에 기인하여 출산수준이 낮다. 고학력 및 취업 여성의 낮은 출산수준은 자녀출산이 기회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고위전문직과 사무직, 상용근로자·임시일용직, 개인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인하여 가구소득 증가에 따라 출생아수가 증가하나, 중산층에서 자녀가치에 비해 기회비용이 더 커 출생아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이혼 등 결혼생활 단절로 출생아수 축소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이와 같은 계층간 출산수준의 차이는 정책적 접근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는 이상자녀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저연령층일수록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 모두 낮아지며, 기대자녀수가 이상자녀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더 커진다. 40대 여성의 실제 출생아수는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 모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도시에서, 고학력층에서, 취업시, 중산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현재 무자녀이거나 한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출산중단 이유는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소득 및 고용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가치관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기혼여성 중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는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10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가 감소하여, 자녀수에 관한 가치관마저 약화되고 있다.

여덟째, 기혼여성의 일-가정생활 실태는 과거와 유사하거나 악화되어, 여전히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전후 경력단절은 약 40%에 이르며, 첫째아 출산시 반절 정도로 나타난다.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경력단절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 탄력근무제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그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출산전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직장복귀 수준은 30% 정도에 그치며, 직업이나 종사상위위가 열악한 하방향으로 경력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그만큼 기회비용이 큼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기혼여성들은 두자녀 이상을 두면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

아홉째, 여성의 일-가정양립 곤란은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가 낮은 데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사는 여성의 약 80%가 그리고 육아는 50~70%가 전담(또는 대체로)하고 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50~60%가 여성이 전담(또는 대체로)하고 있다. 남편의 낮은 육아 및 가사 참여는 결국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을 축소케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열 번째, 영유아 보육형태는 다양하나, 수급일치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영아를 육아지원시설에 맡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반절 정도로 나타난다. 영유아를 가정보육사에 맡기고 싶은 부모의 욕구는 영아의 경우 1/5 미만, 유아의 경우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맡기고 있는 비율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높은 비용부담과 낮은 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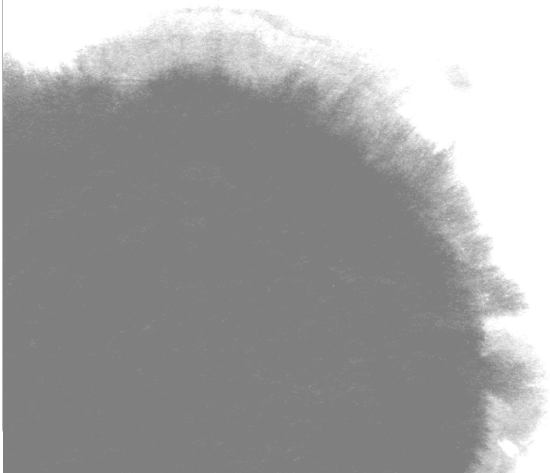
준 및 원하는 서비스형태 부재로 나타난다.

열한번째, 영유아 보육,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사교육 등을 위한 비용지출이 다자녀일수록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육교육비 지출이 많으나, 가구소득 및 가계지출 중 비율은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높아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기혼여성의 저출산대책 인지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정책수혜수준은 대부분 3% 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책을 수혜한 여성들의 정책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 비수혜자보다는 수혜자가, 그리고 수혜자 중 만족도가 높을수록 추가출산의향이 높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 및 합의에 의하면, 경제적 지원 정책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며, 특히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혼층을 위한 결혼비용 및 신혼집 마련, 결혼교육 및 정보 서비스 제공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부록



부록 1 주요 조사결과 부표

〈부표 1〉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부모와 동거 여부

(단위: %, 명)

	동거	비동거	전체 (계)	χ^2
미혼남성	72.4	27.6	100.0 (873)	
직종				
고위전문직	73.4	26.6	100.0 (184)	7.7
사무직	71.0	29.0	100.0 (293)	
서비스판매직	67.9	32.1	100.0 (265)	
생산단순노무직등	81.6	18.4	100.0 (114)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46.9	53.1	100.0 (81)	47.7***
상용직	70.8	29.2	100.0 (575)	
임시일용직	86.7	13.3	100.0 (203)	
근로시간				
36시간미만	66.7	33.3	100.0 (66)	2.9
36~45시간미만	71.3	28.7	100.0 (254)	
45~61시간미만	73.9	26.1	100.0 (487)	
61시간이상	65.2	34.8	100.0 (46)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91.8	8.2	100.0 (49)	34.3***
100~150만원미만	79.0	21.0	100.0 (195)	
150~200만원미만	75.7	24.3	100.0 (247)	
200만원이상	61.3	38.7	100.0 (331)	
미혼여성	74.9	25.1	100.0 (862)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58.5	41.5	100.0 (53)	13.5**
상용직	74.0	26.0	100.0 (639)	
임시일용직	83.2	16.8	100.0 (155)	
직종				
고위전문직	75.4	24.6	100.0 (130)	3.0
사무직	75.4	24.6	100.0 (427)	
서비스판매직	72.1	27.9	100.0 (244)	
생산단순노무직등	84.1	15.9	100.0 (44)	
근로시간				
36시간미만	68.8	31.2	100.0 (77)	4.1
36~45시간미만	77.4	22.7	100.0 (296)	
45~61시간미만	74.2	25.8	100.0 (438)	
61시간이상	64.3	35.7	100.0 (28)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81.2	18.8	100.0 (69)	19.5***
100~150만원미만	83.4	16.6	100.0 (223)	
150~200만원미만	73.2	26.8	100.0 (239)	
200만원이상	66.8	33.2	100.0 (26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2〉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부모와의 비등거 시기

(단위: %, 명, 세)

	19세이하	20~24세	25~29세	30세이상	전체 (계)	χ^2	평균나이
미혼남성	10.5	29.8	30.7	28.9	100.0 (228)		26.7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9.8	31.7	24.4	34.1	100.0 (41)		27.1
상용직	11.2	30.4	31.1	27.3	100.0 (161)	2.7	26.5
임시일용직	11.5	19.2	38.5	30.8	100.0 (26)		28.8
직종							
고위전문직	13.0	34.8	21.7	30.4	100.0 (46)		26.1
사무직	4.8	27.7	39.8	27.7	100.0 (83)	10.9	27.7
서비스판매직	13.9	30.4	30.4	25.3	100.0 (79)		26.8
생산단순노무직등	14.3	23.8	19.0	42.9	100.0 (21)		27.8
근로시간							
36시간미만	9.1	18.2	45.5	27.3	100.0 (22)		28.2
36~45시간미만	13.6	28.8	34.8	22.7	100.0 (66)	14.3	26.2
45~61시간미만	9.8	33.6	27.9	28.7	100.0 (122)		27.0
61시간이상	6.3	12.5	18.8	62.5	100.0 (16)		31.0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	50.0	25.0	25.0	100.0 (4)		27.8
100~150만원미만	21.6	35.1	27.0	16.2	100.0 (37)	17.4*	25.8
150~200만원미만	12.5	26.8	42.9	17.9	100.0 (56)		26.6
200만원이상	7.4	27.9	27.9	36.9	100.0 (122)		30.5
미혼여성	15.2	31.4	36.3	17.2	100.0 (204)		24.9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5.3	26.3	52.6	15.8	100.0 (19)		26.9
상용직	13.8	31.4	36.5	18.2	100.0 (159)	11.2	25.0
임시일용직	33.3	37.5	20.8	8.3	100.0 (24)		22.6
직종							
고위전문직	6.3	37.5	21.9	34.4	100.0 (32)		26.7
사무직	16.8	30.7	40.6	11.9	100.0 (101)	12.5	24.3
서비스판매직	18.0	31.1	36.1	14.8	100.0 (61)		24.8
생산단순노무직등	16.7	33.3	33.3	16.7	100.0 (6)		24.4
근로시간							
36시간미만	12.5	37.5	50.0	-	100.0 (24)		23.8
36~45시간미만	14.1	34.4	35.9	15.6	100.0 (64)	9.9	24.7
45~61시간미만	18.1	28.6	32.4	21.0	100.0 (105)		25.1
61시간이상	-	37.5	37.5	25.0	100.0 (8)		27.0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33.3	50.0	8.3	8.3	100.0 (12)		21.1
100~150만원미만	24.2	42.4	21.2	12.1	100.0 (33)	26.6**	23.6
150~200만원미만	19.4	33.9	38.7	8.1	100.0 (62)		23.7
200만원이상	6.0	25.3	43.4	25.3	100.0 (83)		26.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3〉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 남성결혼연령

(단위: %, 명, 세)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전체 (계)	χ^2	평균나이
미혼남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3.7	7.3	39.0	30.5	19.5	100.0 (82)		32.18
상용직	1.9	7.7	36.5	37.0	16.9	100.0 (573)	14.1	32.23
임시일용직	3.0	14.9	32.2	37.1	12.9	100.0 (202)		31.84
직종								
고위전문직	2.2	9.8	37.0	36.4	14.7	100.0 (184)		32.08
사무직	1.0	5.8	34.7	42.3	16.2	100.0 (291)	18.4	32.38
서비스판매직	4.2	11.3	36.6	31.3	16.6	100.0 (265)		31.94
생산단순노무직등	1.8	12.5	34.8	32.1	18.8	100.0 (112)		32.11
근로시간								
36시간미만	1.6	10.9	39.1	37.5	10.9	100.0 (64)		31.93
36~45시간	2.0	9.4	31.5	40.6	16.5	100.0 (254)	12.2	32.24
45~61시간	3.1	9.2	37.7	33.6	16.4	100.0 (488)		32.05
61시간이상	-	2.2	35.6	37.8	24.4	100.0 (45)		33.00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6.0	14.0	36.0	34.0	10.0	100.0 (50)		31.50
100~150만원	2.6	8.8	35.8	40.4	12.4	100.0 (193)	26.3*	31.98
150~200만원	3.7	11.0	40.4	32.7	12.2	100.0 (245)		31.74
200만원이상	1.2	7.5	36.2	35.2	22.6	100.0 (332)		32.60
미혼여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9	5.7	34.0	34.0	24.5	100.0 (53)		32.79
상용직	1.4	6.7	35.4	41.7	14.7	100.0 (638)	19.1*	32.26
임시일용직	2.6	14.1	36.5	28.8	17.9	100.0 (156)		32.02
직종								
고위전문직	3.1	5.5	31.3	40.6	19.5	100.0 (128)		32.53
사무직	1.2	8.2	33.4	42.5	14.7	100.0 (428)	19.4	32.28
서비스판매직	1.2	10.3	39.3	31.4	17.8	100.0 (242)		32.10
생산단순노무직등	4.4	6.7	42.2	40.0	6.7	100.0 (45)		31.80
근로시간								
36시간미만	1.3	9.0	43.6	25.6	20.5	100.0 (78)		32.13
36~45시간	1.4	7.8	37.2	38.9	14.9	100.0 (296)	13.1	32.25
45~61시간	1.8	7.8	33.3	41.1	16.1	100.0 (436)		32.27
61시간이상	-	10.7	21.4	57.1	10.7	100.0 (28)		32.59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1.4	15.9	44.9	27.5	10.1	100.0 (69)		31.63
100~150만원	1.3	12.1	39.5	34.1	13.0	100.0 (296)	35.7***	31.86
150~200만원	2.5	5.5	31.6	45.6	14.8	100.0 (436)		32.32
200만원이상	0.8	4.6	33.1	41.1	20.5	100.0 (28)		32.6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4〉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이상적 여성결혼연령

	27세이하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전체 (계)	χ^2	평균나이
미혼남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37.0	27.2	29.6	4.9	1.2	100.0 (81)	10.1	28.91
상용직	25.9	36.9	27.4	9.3	0.5	100.0 (572)		29.15
임시일용직	25.4	39.8	27.9	6.0	1.0	100.0 (201)		29.09
직종								
고위전문직	25.9	39.5	29.2	4.9	0.5	100.0 (185)	27.0**	28.46
사무직	19.9	36.3	32.5	11.3	-	100.0 (292)		28.91
서비스판매직	32.0	37.2	22.2	7.9	0.8	100.0 (266)		28.45
생산·단순·노무직등	32.7	34.5	24.5	6.4	1.8	100.0 (110)		28.50
근로시간								
36시간미만	21.2	37.9	30.3	10.6	-	100.0 (66)	18.0	28.69
36-45시간	25.0	38.9	27.8	7.5	0.8	100.0 (252)		28.57
45-61시간	27.0	37.1	27.7	7.6	0.6	100.0 (488)		28.60
61시간이상	40.0	15.6	24.4	17.8	2.2	100.0 (45)		28.99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34.0	34.0	26.0	4.0	2.0	100.0 (50)	30.1**	28.35
100-150만원	28.0	33.7	32.1	6.2	-	100.0 (193)		28.58
150-200만원	31.4	43.3	19.2	5.7	0.4	100.0 (245)		28.23
200만원이상	22.1	34.7	30.8	11.2	1.2	100.0 (331)		28.90
미혼여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9.2	26.9	38.5	9.6	5.8	100.0 (52)	9.4	29.99
상용직	18.1	31.1	37.5	10.7	2.7	100.0 (637)		29.71
임시일용직	20.0	38.1	26.5	12.9	2.6	100.0 (155)		29.53
직종								
고위전문직	19.7	29.9	30.7	18.1	1.6	100.0 (127)	27.0**	29.33
사무직	16.6	30.4	40.7	10.3	2.1	100.0 (428)		29.22
서비스판매직	20.6	33.7	32.1	8.6	4.9	100.0 (243)		29.13
생산·단순·노무직등	20.5	47.7	22.7	9.1	-	100.0 (44)		28.62
근로시간								
36시간미만	21.8	29.5	33.3	11.5	3.8	100.0 (78)	7.9	29.16
36-45시간	18.2	33.8	34.1	12.2	1.7	100.0 (296)		29.14
45-61시간	18.3	31.1	37.8	9.6	3.2	100.0 (437)		29.21
61시간이상	22.2	25.9	29.6	14.8	7.4	100.0 (27)		29.60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24.6	37.7	23.2	11.6	2.9	100.0 (69)	15.2	28.91
100-150만원	20.6	34.5	33.2	9.0	2.7	100.0 (223)		28.98
150-200만원	16.5	32.5	38.8	10.5	1.7	100.0 (237)		29.21
200만원이상	15.2	28.4	39.8	12.9	3.8	100.0 (264)		29.5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5〉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반드시 가져야 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 겠음	전체 (계)	χ^2
미혼남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32.9	53.7	11.0	2.4	100.0 (82)	9.2
상용직	21.4	63.0	13.9	1.7	100.0 (576)	
임시일용직	18.7	64.5	13.3	3.4	100.0 (203)	
직종						
고위전문직	27.0	56.2	13.0	3.8	100.0 (185)	19.1*
사무직	17.5	67.1	14.7	0.7	100.0 (292)	
서비스판매직	15.9	64.6	15.0	4.4	100.0 (265)	
생산단순노무직등	15.9	64.6	15.0	4.4	100.0 (113)	
근로시간						
36시간미만	24.2	57.6	15.2	3.0	100.0 (66)	12.3
36~45시간미만	20.2	59.3	18.6	2.0	100.0 (253)	
45~61시간미만	22.8	64.5	10.3	2.5	100.0 (487)	
61시간이상	21.7	60.9	17.4	-	100.0 (46)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14.0	70.0	12.0	4.0	100.0 (50)	10.9
100~150만원미만	16.9	69.7	11.3	2.1	100.0 (195)	
150~200만원미만	23.2	62.2	13.4	1.2	100.0 (246)	
200만원이상	23.9	58.5	15.5	2.1	100.0 (330)	
미혼여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1.3	81.1	3.8	3.8	100.0 (53)	13.8*
상용직	17.1	63.1	16.0	3.9	100.0 (639)	
임시일용직	21.9	54.2	19.4	4.5	100.0 (155)	
직종						
고위전문직	26.2	47.7	20.8	5.4	100.0 (130)	19.5*
사무직	16.6	65.4	14.3	3.7	100.0 (428)	
서비스판매직	12.8	66.7	16.9	3.7	100.0 (243)	
생산단순노무직등	22.7	59.1	13.6	4.5	100.0 (44)	
근로시간						
36시간미만	17.9	55.1	20.5	6.4	100.0 (78)	8.1
36~45시간미만	17.0	61.9	18.4	2.7	100.0 (294)	
45~61시간미만	18.0	63.9	13.5	4.6	100.0 (438)	
61시간이상	21.4	64.3	10.7	3.6	100.0 (28)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21.7	58.0	13.0	7.2	100.0 (69)	12.7
100~150만원미만	21.1	61.4	15.7	2.2	100.0 (223)	
150~200만원미만	14.3	66.8	16.4	2.5	100.0 (238)	
200만원이상	15.6	62.0	16.7	5.7	100.0 (26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않음	전혀 찬성하지않음	전체 (계)
미혼남성	30.0	56.2	13.0	0.7	100.0 (1,734)
거주지($\chi^2=17.7^{**}$)					
동부	28.9	57.9	12.4	0.8	100.0 (1,539)
읍면부	38.7	43.3	18.0	-	100.0 (194)
연령($\chi^2=40.8^{***}$)					
20~24세	30.2	58.7	10.9	0.1	100.0 (669)
25~29세	33.0	55.1	11.0	0.9	100.0 (563)
30~34세	27.1	58.4	13.1	1.4	100.0 (291)
35~44세	25.7	48.1	25.2	1.0	100.0 (210)
교육수준($\chi^2=26.0^{***}$)					
중졸이하	29.4	35.3	35.3	-	100.0 (34)
고졸	30.4	57.2	12.2	0.2	100.0 (1,013)
대졸이상	29.4	56.0	13.1	1.5	100.0 (687)
취업여부($\chi^2=2.1$)					
취업	31.2	54.5	13.5	0.8	100.0 (873)
비취업	28.9	57.8	12.7	0.6	100.0 (850)
미혼여성	28.7	59.0	11.3	1.0	100.0 (1,578)
거주지($\chi^2=6.5$)					
동부	29.0	59.1	11.0	0.9	100.0 (1,446)
읍면부	26.1	56.7	14.2	3.0	100.0 (134)
연령($\chi^2=44.5^{***}$)					
20~24세	31.7	59.1	8.1	1.2	100.0 (780)
25~29세	26.8	60.2	11.9	1.1	100.0 (522)
30~34세	20.8	64.2	13.8	1.3	100.0 (159)
35~44세	28.8	44.9	26.3	-	100.0 (118)
교육수준($\chi^2=3.0$)					
중졸이하	28.6	64.3	7.1	-	100.0 (14)
고졸	29.8	59.0	10.3	0.9	100.0 (793)
대졸이상	27.7	58.7	12.3	1.3	100.0 (773)
취업여부($\chi^2=3.8$)					
취업	27.8	58.7	12.6	0.9	100.0 (860)
비취업	30.1	59.1	9.7	1.1	100.0 (714)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7〉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
(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않음	전혀 찬성하지않음	전체 (계)
미혼남성	29.2	55.3	14.7	0.8	100.0 (1,733)
거주지($\chi^2=1.5$)					
동부	28.9	55.8	14.6	0.7	100.0 (1,537)
읍면부	32.0	51.5	16.0	0.5	100.0 (194)
연령($\chi^2=15.2$)					
20~24세	31.7	53.6	14.2	0.4	100.0 (668)
25~29세	28.5	57.1	13.9	0.5	100.0 (562)
30~34세	26.6	53.1	14.8	0.7	100.0 (290)
35~44세	26.1	53.1	18.5	2.4	100.0 (211)
교육수준($\chi^2=6.2$)					
중졸이하	28.6	54.3	17.1	-	100.0 (35)
고졸	30.2	53.8	15.5	0.5	100.0 (1,010)
대졸이상	27.8	57.7	13.4	1.2	100.0 (688)
취업여부($\chi^2=2.7$)					
취업	28.2	55.5	15.3	1.0	100.0 (871)
비취업	30.3	54.9	14.3	0.5	100.0 (851)
미혼여성	30.7	54.9	13.4	1.0	100.0 (1,578)
거주지($\chi^2=2.0$)					
동부	31.1	54.6	13.3	1.0	100.0 (1,446)
읍면부	28.0	57.6	14.4	-	100.0 (132)
연령($\chi^2=31.7^{***}$)					
20~24세	34.1	53.0	12.1	0.9	100.0 (778)
25~29세	30.4	55.3	13.8	0.6	100.0 (523)
30~34세	25.9	63.3	8.9	1.9	100.0 (158)
35~44세	17.8	55.9	25.4	0.8	100.0 (118)
교육수준($\chi^2=18.7^{**}$)					
중졸이하	42.9	57.1	-	-	100.0 (14)
고졸	35.3	51.2	12.5	1.0	100.0 (791)
대졸이상	26.1	58.8	14.4	0.8	100.0 (771)
취업여부($\chi^2=3.1$)					
취업	29.1	56.2	14.8	0.8	100.0 (860)
비취업	33.0	53.6	14.0	0.8	100.0 (713)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8〉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않음	전혀 찬성하지않음	전체 (계)
미혼남성	24.3	54.4	18.0	3.3	100.0 (1,732)
거주지($\chi^2=4.4$)					
동부	23.9	55.2	17.5	3.4	100.0 (1,537)
읍면부	28.0	48.2	21.2	2.6	100.0 (193)
연령($\chi^2=24.4^{**}$)					
20~24세	27.7	52.3	16.1	3.9	100.0 (669)
25~29세	23.0	55.9	18.9	2.3	100.0 (562)
30~34세	27.6	51.7	16.9	3.8	100.0 (290)
35~44세	13.3	60.7	22.3	3.8	100.0 (211)
교육수준($\chi^2=8.8$)					
중졸이하	32.4	47.1	20.6	-	100.0 (34)
고졸	26.3	52.6	17.6	3.5	100.0 (1,011)
대졸이상	21.1	57.2	18.3	3.3	100.0 (687)
취업여부($\chi^2=3.6$)					
취업	22.6	55.3	18.9	3.1	100.0 (871)
비취업	26.1	53.5	16.9	3.5	100.0 (852)
미혼여성	23.7	54.6	18.0	3.7	100.0 (1,577)
거주지($\chi^2=15.9^{**}$)					
동부	24.1	54.4	18.3	3.3	100.0 (1,446)
읍면부	18.8	56.4	15.0	9.8	100.0 (133)
연령($\chi^2=21.1^*$)					
20~24세	25.7	55.2	15.8	3.3	100.0 (779)
25~29세	21.1	55.4	19.3	4.2	100.0 (522)
30~34세	24.1	53.8	15.8	6.3	100.0 (158)
35~44세	20.5	49.6	29.1	0.9	100.0 (117)
교육수준($\chi^2=13.1^*$)					
중졸이하	14.3	71.4	7.1	7.1	100.0 (14) *
고졸	24.1	57.2	15.9	2.8	100.0 (792)
대졸이상	23.3	51.7	20.2	4.8	100.0 (772)
취업여부($\chi^2=2.2$)					
취업	22.6	55.2	18.0	4.2	100.0 (860)
비취업	25.1	53.8	17.9	3.2	100.0 (714)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9〉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않음	전혀 찬성하지않음	전체 (계)
미혼남성	11.3	39.2	38.1	11.3	100.0 (1,733)
거주지($x^2=3.7$)					
동부	11.6	39.3	38.1	10.9	100.0 (1,538)
읍면부	8.7	38.5	37.9	14.9	100.0 (195)
연령($x^2=15.5$)					
20~24세	13.5	41.7	34.6	10.2	100.0 (667)
25~29세	9.6	40.2	38.3	11.9	100.0 (562)
30~34세	10.7	36.1	41.2	12.0	100.0 (291)
35~44세	9.5	33.2	44.5	12.8	100.0 (211)
교육수준($x^2=14.5^*$)					
중졸이하	2.9	23.5	58.8	14.7	100.0 (34)
고졸	12.6	40.3	35.7	11.4	100.0 (1,010)
대졸이상	9.7	38.5	40.7	11.0	100.0 (688)
취업여부($x^2=4.8$)					
취업	10.1	38.0	40.0	11.8	100.0 (870)
비취업	12.6	40.3	36.3	10.8	100.0 (851)
미혼여성	10.3	40.4	38.4	10.8	100.0 (1,577)
거주지($x^2=24.1^{***}$)					
동부	10.7	41.4	38.1	9.8	100.0 (1,445)
읍면부	6.1	29.5	42.4	22.0	100.0 (132)
연령($x^2=19.6^*$)					
20~24세	12.7	41.7	36.2	9.4	100.0 (779)
25~29세	7.7	39.8	39.8	12.6	100.0 (522)
30~34세	10.8	39.9	37.3	12.0	100.0 (158)
35~44세	5.9	34.7	49.2	10.2	100.0 (118)
교육수준($x^2=23.7^{**}$)					
중졸이하	-	50.0	35.7	14.3	100.0 (14)
고졸	13.0	42.5	35.9	8.6	100.0 (793)
대졸이상	7.9	38.0	41.1	13.1	100.0 (772)
취업여부($x^2=13.9^{**}$)					
취업	8.4	40.0	38.9	12.7	100.0 (859)
비취업	12.9	40.7	37.9	8.5	100.0 (71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0〉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않음	전혀 찬성하지않음	전체 (계)
미혼남성	13.7	41.0	33.0	12.4	100.0 (1,732)
거주지($\chi^2=5.2$)					
동부	13.9	41.7	32.1	12.3	100.0 (1,538)
읍면부	12.4	35.1	39.7	12.9	100.0 (194)
연령($\chi^2=18.5^*$)					
20~24세	16.6	43.0	30.0	10.3	100.0 (669)
25~29세	12.1	40.4	34.9	12.6	100.0 (562)
30~34세	13.4	39.3	32.4	14.8	100.0 (290)
35~44세	9.0	38.1	38.1	14.8	100.0 (210)
교육수준($\chi^2=7.4$)					
중졸이하	8.6	34.3	37.1	20.0	100.0 (35)
고졸	14.3	42.6	31.6	11.5	100.0 (1,011)
대졸이상	13.1	38.7	34.8	13.4	100.0 (687)
취업여부($\chi^2=2.3$)					
취업	13.1	40.0	33.8	13.2	100.0 (871)
비취업	14.5	41.8	32.2	11.5	100.0 (851)
미혼여성	10.4	38.5	37.3	13.8	100.0 (1,577)
거주지($\chi^2=15.7^{**}$)					
동부	10.9	39.1	37.1	12.9	100.0 (1,446)
읍면부	6.0	31.6	38.3	24.1	100.0 (133)
연령($\chi^2=22.0^{**}$)					
20~24세	11.3	41.0	36.1	11.6	100.0 (778)
25~29세	11.1	33.4	37.8	17.7	100.0 (524)
30~34세	6.3	42.4	36.7	14.6	100.0 (158)
35~44세	6.8	39.0	44.1	10.2	100.0 (118)
교육수준($\chi^2=15.8^*$)					
중졸이하	7.1	57.1	14.3	21.4	100.0 (14)
고졸	12.1	40.4	35.6	11.9	100.0 (792)
대졸이상	8.7	36.3	39.4	15.7	100.0 (772)
취업여부($\chi^2=6.6$)					
취업	9.1	37.7	38.0	15.2	100.0 (860)
비취업	12.0	39.6	36.2	12.2	100.0 (715)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1〉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
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않음	전혀 찬성하지않음	전체 (계)
미혼남성	11.9	43.5	34.5	10.1	100.0 (1,732)
거주지($\chi^2=4.9$)					
동부	12.2	44.1	33.9	9.9	100.0 (1,538)
읍면부	9.8	38.1	40.2	11.9	100.0 (194)
연령($\chi^2=18.3^*$)					
20~24세	13.5	46.3	31.7	8.5	100.0 (668)
25~29세	12.4	40.9	37.1	9.6	100.0 (563)
30~34세	9.7	45.2	32.1	13.1	100.0 (290)
35~44세	8.6	39.0	40.0	12.4	100.0 (210)
교육수준($\chi^2=9.7$)					
중졸이하	12.1	36.4	45.5	6.1	100.0 (33)
고졸	13.5	43.9	33.4	9.3	100.0 (1,010)
대졸이상	9.6	43.2	35.8	11.4	100.0 (687)
취업여부($\chi^2=4.4$)					
취업	11.4	41.6	36.7	10.3	100.0 (871)
비취업	12.4	45.4	32.2	10.0	100.0 (850)
미혼여성	10.7	44.4	34.2	10.8	100.0 (1,578)
거주지($\chi^2=12.0^{**}$)					
동부	10.9	45.3	33.7	10.1	100.0 (1,446)
읍면부	9.1	34.1	38.6	18.2	100.0 (132)
연령($\chi^2=18.3^*$)					
20~24세	10.8	48.4	31.5	9.4	100.0 (779)
25~29세	11.5	40.5	36.1	11.9	100.0 (523)
30~34세	11.9	40.3	34.0	13.8	100.0 (159)
35~44세	5.1	40.2	43.6	11.1	100.0 (117)
교육수준($\chi^2=15.9^*$)					
중졸이하	26.7	26.7	26.7	20.0	100.0 (15)
고졸	11.4	47.6	31.2	9.8	100.0 (792)
대졸이상	9.7	41.4	37.4	11.5	100.0 (771)
취업여부($\chi^2=7.7$)					
취업	11.2	42.0	34.4	12.4	100.0 (860)
비취업	10.1	47.3	33.8	8.8	100.0 (751)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2〉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 않는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않음	전혀 찬성하지않음	전체 (계)
미혼남성	9.5	48.5	34.3	7.7	100.0 (1,734)
거주지($\chi^2=7.5$)					
동부	9.4	49.4	34.1	7.2	100.0 (1,537)
읍면부	10.8	41.8	35.6	11.9	100.0 (194)
연령($\chi^2=20.2^*$)					
20~24세	10.3	50.9	31.0	7.8	100.0 (668)
25~29세	7.1	51.6	34.0	7.3	100.0 (562)
30~34세	11.4	44.1	36.3	8.3	100.0 (290)
35~44세	10.4	38.4	43.1	8.1	100.0 (211)
교육수준($\chi^2=11.2$)					
중졸이하	8.8	29.4	55.9	5.9	100.0 (34)
고졸	9.8	50.4	32.2	7.6	100.0 (1,010)
대졸이상	9.0	46.6	36.4	8.0	100.0 (687)
취업여부($\chi^2=2.4^*$)					
취업	9.2	47.1	35.6	8.2	100.0 (871)
비취업	9.9	50.0	32.8	7.3	100.0 (850)
미혼여성	8.1	47.5	36.1	8.2	100.0 (1,577)
거주지($\chi^2=3.7$)					
동부	8.2	48.1	35.4	8.2	100.0 (1,445)
읍면부	6.8	41.4	43.6	8.3	100.0 (133)
연령($\chi^2=16.2$)					
20~24세	8.9	48.9	35.3	6.9	100.0 (779)
25~29세	8.2	48.5	34.7	8.6	100.0 (524)
30~34세	5.7	46.8	37.3	10.1	100.0 (158)
35~44세	5.9	34.7	46.6	12.7	100.0 (118)
교육수준($\chi^2=4.1$)					
중졸이하	14.3	42.9	35.7	7.1	100.0 (14)
고졸	9.0	48.5	34.4	8.1	100.0 (793)
대졸이상	7.1	46.5	38.0	8.4	100.0 (772)
취업여부($\chi^2=1.0$)					
취업	8.6	47.3	35.5	8.6	100.0 (861)
비취업	7.6	47.6	37.0	7.8	100.0 (714)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3〉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는 견해에 대한 미혼 남녀(20~44세)의 태도

(단위 : %, 명)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않음	전혀 찬성하지않음	전체 (계)
미혼남성	6.9	43.4	36.9	12.8	100.0 (1,732)
거주지($\chi^2=0.4$)					
동부	7.0	43.3	37.1	12.6	100.0 (1,538)
읍면부	6.7	43.8	35.6	13.9	100.0 (194)
연령($\chi^2=9.9$)					
20~24세	7.6	45.2	35.6	11.5	100.0 (668)
25~29세	5.7	44.5	38.1	11.7	100.0 (562)
30~34세	6.5	39.5	37.1	16.8	100.0 (291)
35~44세	8.1	41.0	37.1	13.8	100.0 (210)
교육수준($\chi^2=5.9$)					
중졸이하	-	33.3	51.5	15.2	100.0 (33)
고졸	7.3	44.0	36.4	12.3	100.0 (1,011)
대졸이상	6.7	43.2	36.8	13.2	100.0 (687)
취업여부($\chi^2=1.5$)					
취업	6.7	42.6	37.1	13.7	100.0 (871)
비취업	7.3	44.0	36.9	11.9	100.0 (852)
미혼여성	7.0	47.5	36.5	9.1	100.0 (1,576)
거주지($\chi^2=8.0^*$)					
동부	6.9	46.7	36.7	9.6	100.0 (1,445)
읍면부	7.6	55.3	34.1	3.0	100.0 (132)
연령($\chi^2=11.5$)					
20~24세	6.8	48.1	37.1	8.1	100.0 (780)
25~29세	7.8	46.1	36.5	9.6	100.0 (523)
30~34세	7.5	43.4	34.6	14.5	100.0 (159)
35~44세	4.2	54.2	35.6	5.9	100.0 (118)
교육수준($\chi^2=8.3$)					
중졸이하	-	28.6	64.3	7.1	100.0 (14)
고졸	6.7	47.9	37.5	8.0	100.0 (792)
대졸이상	7.4	47.4	35.0	10.2	100.0 (772)
취업여부($\chi^2=1.9$)					
취업	7.7	47.3	35.6	9.4	100.0 (859)
비취업	6.2	47.8	37.4	8.7	100.0 (714)

* p <0.05, ** p <0.01, *** p <0.001.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4〉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특성별 1자녀만 출산의향 이유(1순위)¹⁾

구분	소득고용 불안정		주택 미련 곤란 ²⁾	자녀 교육· 양육비용 부담 ³⁾	육아 인프라 부족 ⁴⁾	일·가정 양립 곤란 ⁵⁾	여가 및 자아 성취 ⁶⁾	건강 문제 ⁷⁾	기타 ⁸⁾	전체 (명)	
	①	②									
미혼남성											
총사상지위($x^2=49.6^{***}$)											
비임금근로자	25.0	-	-	40.0	5.0	5.0	5.0	10.0	5.0	5.0	100.0 (20)
상용직	13.8	5.3	3.9	21.7	20.4	5.9	9.9	17.8	-	1.3	100.0 (152)
임시일용직	15.4	30.8	7.7	23.1	12.8	-	-	7.7	2.6	-	100.0 (39)
직종($x^2=56.0^{**}$)											
고위(준)전문직	11.9	7.1	9.5	19.0	14.3	2.4	2.4	28.6	2.4	2.4	100.0 (42)
사무직	8.5	3.7	1.2	23.2	22.0	9.8	17.1	13.4	1.2	-	100.0 (82)
서비스판매직	20.0	15.0	5.0	28.3	11.7	3.3	1.7	13.3	-	1.7	100.0 (60)
생산단순노무직등	26.7	20.0	3.3	20.0	20.0	-	-	6.7	-	3.3	100.0 (30)
근로시간($x^2=25.1$)											
36시간미만	18.2	9.1	-	18.2	36.4	-	-	9.1	-	9.1	100.0 (11)
36~45시간	11.8	7.4	2.9	32.4	16.2	5.9	7.4	14.7	1.5	-	100.0 (68)
45~61시간	17.1	11.4	5.7	18.7	14.6	4.9	8.1	17.1	0.8	1.6	100.0 (123)
61시간이상	11.1	-	-	33.3	44.4	-	11.1	-	-	-	100.0 (9)
근로소득($x^2=43.4^*$)											
100만원미만	62.5	12.5	-	12.5	-	-	-	12.5	-	-	100.0 (8)
100~150만원	12.5	6.3	3.1	28.1	18.8	3.1	6.3	15.6	6.3	-	100.0 (32)
150~200만원	13.8	17.2	6.9	20.7	13.8	8.6	8.6	10.3	-	-	100.0 (58)
200만원이상	11.2	5.6	3.7	25.2	20.6	3.7	8.4	18.7	-	2.8	100.0 (107)
미혼여성											
총사상지위($x^2=28.5$)											
비임금근로자	10.0	-	-	35.0	15.0	15.0	-	25.0	-	-	100.0 (20)
상용직	6.1	6.6	3.8	25.8	22.5	3.8	13.6	17.8	-	-	100.0 (152)
임시일용직	2.6	7.7	-	25.6	23.1	2.6	7.7	25.6	2.6	2.6	100.0 (39)
직종($x^2=29.5$)											
고위(준)전문직	9.1	4.5	4.5	15.9	25.0	2.3	13.6	22.7	-	2.3	100.0 (44)
사무직	5.5	9.6	0.7	24.0	26.0	4.8	11.0	18.5	-	-	100.0 (146)
서비스판매직	5.1	2.5	6.3	34.2	15.2	3.8	11.4	20.3	1.3	-	100.0 (79)
생산단순노무직등	-	-	-	33.3	-	-	33.3	33.3	-	-	100.0 (3)
근로시간($x^2=46.2^*$)											
36시간미만	3.8	3.8	3.8	19.2	34.6	11.5	11.5	7.7	3.8	-	100.0 (26)
36~45시간	2.2	14.0	1.1	25.8	23.7	6.5	10.8	15.1	-	1.1	100.0 (93)
45~61시간	8.2	3.4	2.1	27.4	20.5	2.1	12.3	24.0	-	-	100.0 (146)
61시간이상	11.1	-	11.1	33.3	-	-	11.1	33.3	-	-	100.0 (9)
근로소득($x^2=55.2^{**}$)											
100만원미만	-	-	-	20.0	40.0	-	30.0	10.0	-	-	100.0 (10)
100~150만원	6.6	4.9	4.9	42.6	11.5	-	11.5	16.4	1.6	-	100.0 (61)
150~200만원	11.6	12.6	1.1	20.0	22.1	6.3	8.4	16.8	-	1.1	100.0 (95)
200만원이상	-	2.2	1.1	25.0	29.3	3.3	12.0	27.2	-	-	100.0 (9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5〉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 출산의향

(단위: %, 명)

	반드시 가지고 싶다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가지고 싶은 전혀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전체 계	χ^2
미혼남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29.3	57.3	4.9	3.7	4.9	100.0 (82)	13.9
상용직	21.9	64.8	6.8	0.7	5.9	100.0 (576)	
임시일용직	20.8	64.9	8.4	-	5.9	100.0 (202)	
직종							
고위전문직	23.4	63.0	6.5	1.1	6.0	100.0 (184)	11.2
사무직	18.8	69.3	6.1	1.0	4.8	100.0 (293)	
서비스판매직	26.9	58.3	7.2	0.8	6.8	100.0 (264)	
생산단순노무직등	19.5	65.5	9.7	-	5.3	100.0 (113)	
근로시간							
36시간미만	30.8	63.1	3.1	-	3.1	100.0 (65)	12.0
36-45시간미만	17.7	65.4	9.4	0.8	6.7	100.0 (254)	
45-61시간미만	24.3	63.0	6.4	1.0	5.3	100.0 (486)	
61시간이상	20.0	66.7	6.7	-	6.7	100.0 (45)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12.0	74.0	10.0	-	4.0	100.0 (50)	13.2
100-150만원	21.5	64.1	8.2	-	6.2	100.0 (195)	
150-200만원	23.2	65.9	4.1	1.6	5.3	100.0 (246)	
200만원이상	22.1	63.1	8.5	0.6	5.7	100.0 (331)	
미혼여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8.9	67.9	7.5	-	5.7	100.0 (53)	9.9
상용직	21.1	61.8	10.3	1.7	5.0	100.0 (639)	
임시일용직	22.3	57.3	8.3	1.3	10.8	100.0 (157)	
직종							
고위전문직	28.7	49.6	14.0	3.1	4.7	100.0 (129)	29.6**
사무직	19.9	65.8	8.0	1.2	5.2	100.0 (427)	
서비스판매직	16.0	63.4	11.9	1.2	7.4	100.0 (243)	
생산단순노무직등	34.1	50.0	2.3	2.3	11.4	100.0 (44)	
근로시간							
36시간미만	25.6	51.3	9.0	3.8	10.3	100.0 (78)	17.2
36-45시간	19.3	64.2	8.4	1.7	6.4	100.0 (296)	
45-61시간	21.0	62.1	11.2	1.1	4.6	100.0 (438)	
61시간이상	31.0	48.3	6.9	-	13.8	100.0 (29)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23.2	59.4	4.3	-	13.0	100.0 (69)	16.1
100-150만원	21.1	60.5	9.4	2.2	6.7	100.0 (223)	
150-200만원	18.5	64.7	10.9	1.7	4.2	100.0 (238)	
200만원이상	21.2	61.4	12.1	0.8	4.5	100.0 (264)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05, ** p<0.01, *** p<0.001,

〈부표 16〉 미혼남녀(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모르겠음	전체 (계)	x^2	평균
미혼남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1.2	24.7	49.4	18.5	3.7	2.5	100.0 (81)		1.99
상용직	1.2	27.8	53.7	10.8	2.3	4.2	100.0 (575)	15.6	1.85
임시일용직	-	22.4	55.2	16.9	0.5	5.0	100.0 (201)		1.96
직종									
고위전문직	-	23.8	51.4	15.1	3.2	6.5	100.0 (185)		1.98
사무직	1.4	29.0	57.3	7.5	2.4	2.4	100.0 (293)	24.9*	1.80
서비스판매직	1.1	25.2	51.5	16.2	2.3	3.8	100.0 (266)		1.93
생산단순노무직등	0.9	26.5	52.2	13.3	-	7.1	100.0 (113)		1.84
근로시간									
36시간미만	-	18.5	60.0	13.8	4.6	3.1	100.0 (65)		2.05
36~45시간	0.8	28.1	54.9	10.3	2.4	3.6	100.0 (253)	10.2	1.85
45~61시간	1.0	27.4	52.9	13.2	1.4	4.1	100.0 (486)		1.86
61시간이상	-	23.9	50.0	17.4	2.2	6.5	100.0 (46)		1.98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	18.4	53.1	22.4	2.0	4.1	100.0 (49)		2.12
100~150만원	0.5	19.1	58.8	14.4	2.1	5.2	100.0 (194)	21.3	1.99
150~200만원	0.8	25.3	56.3	11.8	1.2	4.5	100.0 (245)		1.86
200만원이상	1.2	33.1	49.8	11.6	1.5	2.7	100.0 (329)		1.79
미혼여성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	-	43.4	41.5	13.2	-	1.9	100.0 (53)		1.67
상용직	1.9	34.8	49.8	7.9	1.0	4.6	100.0 (630)	11.6	1.70
임시일용직	1.9	26.6	52.6	12.3	0.6	5.8	100.0 (154)		1.82
직종									
고위전문직	3.1	36.2	44.9	9.4	2.4	3.9	100.0 (127)		1.70
사무직	1.6	36.2	50.0	7.0	0.2	4.9	100.0 (426)	26.1*	1.66
서비스판매직	1.3	33.1	48.1	11.7	1.3	4.6	100.0 (239)		1.78
생산단순노무직등	2.3	9.3	72.1	9.3	-	7.0	100.0 (43)		1.95
근로시간									
36시간미만	1.3	32.5	41.6	11.7	1.3	11.7	100.0 (77)		1.75
36~45시간	2.1	33.7	50.5	9.6	0.7	3.4	100.0 (291)	24.7	1.72
45~61시간	1.8	34.6	50.2	7.6	0.9	4.8	100.0 (434)		1.70
61시간이상	-	35.7	35.7	25.0	3.6	-	100.0 (28)		1.99
근로소득									
100만원미만	1.4	17.4	59.4	15.9	-	5.8	100.0 (69)		1.95
100~150만원	1.4	28.8	50.7	12.3	0.9	5.9	100.0 (219)	36.2**	1.82
150~200만원	0.8	40.5	48.5	3.8	0.8	5.5	100.0 (237)		1.61
200만원이상	3.4	36.9	49.0	6.5	0.8	3.4	100.0 (263)		1.63

* p <0.05, ** p <0.01, *** p <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7〉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밥먹고 옷 입히는 것

(단위: %, 명)

	전적으로 부인분담	대체로 부인분담	부부 공동	대체로 남편분담	전적으로 남편분담	다른 사람이 도움	자녀 스스로	전체 (계)
전체	23.7	42.3	11.7	1.7	0.1	2.5	18.0	100.0 (2,263)
연령($\chi^2=231.4^{***}$)								
20~24세	29.2	37.5	25.0	8.3	-	-	-	100.0 (24)
25~29세	23.9	50.4	17.8	0.4	-	3.9	3.5	100.0 (230)
30~34세	27.4	45.9	12.9	2.1	-	3.5	8.2	100.0 (658)
35~39세	20.9	44.0	11.5	1.3	0.1	2.1	20.1	100.0 (924)
40~44세	23.8	29.2	6.1	1.9	-	1.4	37.5	100.0 (424)
교육수준($\chi^2=16.9$)								
중졸이하	28.3	43.5	8.7	2.2	-	-	17.4	100.0 (46)
고졸	24.1	42.0	10.6	1.3	-	1.9	20.0	100.0 (1,140)
대졸이상	23.1	42.6	13.0	2.0	0.1	3.2	15.9	100.0 (1,077)
가구소득수준($\chi^2=86.8^{***}$)								
60%미만	24.9	45.0	17.0	2.8	-	0.7	9.7	100.0 (289)
60~80%	24.0	45.5	12.8	2.5	-	1.5	13.7	100.0 (600)
80~100%	25.0	41.4	10.3	1.0	-	1.0	21.3	100.0 (507)
100%~150%	23.1	39.1	9.3	1.1	0.2	4.4	22.9	100.0 (550)
150%이상	19.9	39.8	12.8	1.5	-	6.0	19.9	100.0 (266)
출생자녀수($\chi^2=47.4^{***}$)								
1명	25.9	45.7	12.9	1.6	-	3.5	10.4	100.0 (690)
2명	22.8	39.8	11.5	1.6	0.1	2.0	22.2	100.0 (1,275)
3명이상	22.7	45.5	10.0	2.0	-	2.3	17.4	100.0 (299)
취업여부($\chi^2=184.0^{***}$)								
취업	15.0	35.9	13.9	2.2	-	7.3	25.8	100.0 (729)
비취업	27.9	45.4	10.7	1.4	0.1	0.3	14.3	100.0 (1,53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8〉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함께 놀아주기

(단위: %, 명)

	전적으로 부인분담	대체로 부인분담	부부 공동	대체로 남편분담	전적으로 남편분담	다른 사람도움	자녀 스스로	전체 (계)
	11.2	37.0	31.1	5.9	0.3	3.0	11.5	100.0 (2,260)
연령 ($\chi^2=218.7^{***}$)								
20~24세	24.0	24.0	52.0	-	-	-	-	100.0 (25)
25~29세	16.2	38.4	34.9	3.9	-	3.1	3.5	100.0 (229)
30~34세	12.7	37.8	34.4	6.7	-	4.2	4.1	100.0 (659)
35~39세	8.2	38.5	32.3	6.5	0.7	2.5	11.3	100.0 (922)
40~44세	11.6	32.5	20.0	4.7	-	2.6	28.5	100.0 (424)
교육수준 ($\chi^2=21.0$)								
중졸이하	17.4	34.8	30.4	4.3	-	-	13.0	100.0 (46)
고졸	11.3	37.0	29.3	6.2	0.4	2.3	13.5	100.0 (1,137)
대졸이상	10.9	37.0	33.0	5.7	0.2	4.0	9.3	100.0 (1,078)
가구소득수준 ($\chi^2=68.3^{***}$)								
60%미만	11.5	42.7	33.0	5.2	0.3	0.3	6.9	100.0 (288)
60~80%	11.8	39.5	31.0	7.0	-	1.8	8.8	100.0 (600)
80~100%	10.6	39.1	31.6	3.5	0.4	2.2	12.6	100.0 (509)
100~150%	11.1	33.6	28.6	6.8	0.4	5.3	14.2	100.0 (548)
150%이상	8.9	28.6	34.9	6.7	0.4	6.3	14.1	100.0 (269)
출생아수 ($\chi^2=50.6^{***}$)								
1명	12.0	38.7	35.4	5.3	0.1	3.2	5.2	100.0 (692)
2명	10.2	35.7	30.6	5.9	0.3	2.9	14.4	100.0 (1,270)
3명이상	13.4	38.8	23.4	7.4	0.3	3.3	13.4	100.0 (299)
취업여부 ($\chi^2=183.8^{***}$)								
취업	7.1	26.4	32.7	7.3	0.5	8.1	17.9	100.0 (731)
비취업	13.1	42.1	30.4	5.2	0.1	0.7	8.4	100.0 (1,52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19〉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이플 때 돌봐주기

(단위: %, 명)

	전적으로 부인분담	대체로 부인분담	부부 공동	대체로 남편분담	전적으로 남편분담	다른 사람도움	자녀 스스로	전체 (계)
전체	22.9	45.3	25.9	1.8	0.2	2.3	1.6	100.0 (2,271)
연령 ($\chi^2=37.2^*$)								
20~24세	20.0	36.0	36.0	8.0	-	-	-	100.0 (25)
25~29세	25.7	41.7	27.4	2.2	0.4	1.7	0.9	100.0 (230)
30~34세	23.3	45.3	25.2	2.0	0.2	3.6	0.5	100.0 (662)
35~39세	20.5	47.5	26.4	1.5	0.2	1.7	2.2	100.0 (927)
40~44세	26.3	43.0	24.2	1.9	-	1.9	2.8	100.0 (426)
교육수준 ($\chi^2=10.6$)								
중졸이하	21.3	51.1	27.7	-	-	-	-	100.0 (47)
고졸	24.0	45.6	24.5	1.8	0.4	2.1	1.6	100.0 (1,141)
대졸이상	21.8	44.7	27.2	1.9	-	2.6	1.8	100.0 (1,085)
가구소득수준 ($\chi^2=54.7^{***}$)								
60%미만	25.1	43.6	26.5	3.1	0.7	0.3	0.7	100.0 (287)
60~80%	23.0	48.0	24.3	1.8	0.2	1.7	1.0	100.0 (600)
80~100%	23.9	43.2	28.8	1.0	-	1.0	2.2	100.0 (511)
100~150%	20.9	47.0	24.1	2.2	0.2	4.2	1.5	100.0 (551)
150%이상	21.3	43.7	25.4	1.1	-	4.9	3.7	100.0 (268)
출생아수 ($\chi^2=18.2$)								
1명	25.0	44.8	25.4	1.6	0.1	2.3	0.7	100.0 (696)
2명	20.4	46.4	26.3	2.1	0.2	2.4	2.1	100.0 (1,277)
3명이상	28.5	41.9	24.8	1.3	-	1.7	1.7	100.0 (298)
취업여부 ($\chi^2=130.0^{***}$)								
취업	16.5	42.8	28.4	2.3	0.3	6.6	3.1	100.0 (732)
비취업	26.0	46.5	24.7	1.6	0.1	0.2	0.9	100.0 (1,53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20〉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

(단위: %, 명)

	전적으로 부인분담	대체로 부인분담	부부 공동	대체로 남편분담	전적으로 남편분담	다른 사람도움	자녀 스스로	전체 (계)
전체	23.3	47.1	16.8	3.8	0.4	2.6	5.9	100.0 (2,030)
연령 ($\chi^2=87.7^{***}$)								
20~24세	26.7	20.0	53.3	-	-	-	-	100.0 (15)
25~29세	24.2	45.9	24.2	1.9	1.3	1.9	0.6	100.0 (157)
30~34세	25.0	47.6	18.1	3.4	-	3.2	2.7	100.0 (559)
35~39세	22.0	49.2	15.9	4.1	0.7	2.3	6.0	100.0 (883)
40~44세	23.5	43.4	13.2	4.6	-	3.1	12.2	100.0 (417)
교육수준 ($\chi^2=17.6$)								
중졸이하	15.4	53.8	15.4	5.1		2.6	7.7	100.0 (39)
고졸	23.7	47.3	14.9	3.4	0.6	2.9	7.2	100.0 (1,035)
대졸이상	23.2	46.5	19.1	4.3	0.2	2.3	4.4	100.0 (955)
가구소득수준 ($\chi^2=26.1$)								
60%미만	24.3	47.3	16.9	4.1	0.8	0.8	5.8	100.0 (243)
60~80%	22.4	49.0	16.3	4.6	-	2.7	5.1	100.0 (527)
80~100%	26.9	47.1	16.3	2.6	0.2	2.2	4.8	100.0 (461)
100~150%	20.8	46.3	18.0	4.0	0.8	2.8	7.4	100.0 (501)
150%이상	21.3	45.8	15.8	4.3	0.8	4.7	7.1	100.0 (253)
출생아수 ($\chi^2=26.5^{**}$)								
1명	22.6	48.8	20.4	2.5	0.2	1.9	3.5	100.0 (514)
2명	22.8	47.1	15.7	4.7	0.6	2.7	6.4	100.0 (1,230)
3명이상	26.6	43.6	14.9	2.4	0.3	3.8	8.3	100.0 (289)
취업여부 ($\chi^2=128.7^{***}$)								
취업	16.3	40.4	20.0	6.4	0.7	5.6	10.7	100.0 (676)
비취업	26.8	50.4	15.2	2.5	0.2	1.2	3.6	100.0 (1,354)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21〉 기혼여성의 남편과의 자녀 돌보기 분담 정도 :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등학교

(단위: %, 명)

	전적으로 부인분담	대체로 부인분담	부부 공동	대체로 남편분담	전적으로 남편분담	다른 사람도움	자녀 스스로	전체 (계)
전체	22.4	41.2	12.7	3.3	0.4	2.8	17.3	100.0 (1,989)
연령($\chi^2=166.1^{***}$)								
20~24세	13.3	46.7	40.0	-	-	-	-	100.0 (15)
25~29세	28.2	41.5	20.4	0.7	-	5.6	3.5	100.0 (142)
30~34세	27.5	41.6	12.5	4.0	0.4	3.5	10.6	100.0 (546)
35~39세	19.0	44.8	13.6	3.6	0.7	2.2	16.1	100.0 (877)
40~44세	21.0	32.3	7.6	2.7		2.2	34.2	100.0 (409)
교육수준($\chi^2=30.0^{**}$)								
중졸이하	15.8	44.7	15.8	-	-	-	23.7	100.0 (38)
고졸	21.8	40.6	10.9	2.9	0.6	2.4	20.7	100.0 (1,023)
대졸이상	23.4	41.6	14.4	4.0	0.2	3.2	13.2	100.0 (929)
가구소득수준($\chi^2=66.5^{***}$)								
60%미만	27.2	42.1	12.8	3.4	-	0.9	13.6	100.0 (235)
60~80%	23.2	45.2	12.1	3.9	0.6	1.4	13.6	100.0 (513)
80~100%	23.0	45.0	9.8	2.5	0.2	1.3	18.1	100.0 (447)
100~150%	19.0	38.7	13.3	3.0	0.2	4.6	21.2	100.0 (504)
150%이상	19.3	32.0	16.8	4.5	0.8	6.1	20.5	100.0 (244)
출생아수($\chi^2=46.8^{***}$)								
1명	20.2	47.6	16.0	2.7	-	4.1	9.4	100.0 (489)
2명	23.1	38.4	11.9	3.7	0.5	2.6	19.9	100.0 (1,206)
3명이상	23.1	41.8	10.9	2.7	0.3	1.4	19.7	100.0 (294)
취업여부($\chi^2=203.2^{***}$)								
취업	13.2	31.1	17.8	4.9	0.7	7.1	25.2	100.0 (675)
비취업	27.1	46.4	10.1	2.5	0.2	0.5	13.3	100.0 (1,313)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부표 22〉 출산계획 유배우여성(20~44세)의 지역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양육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난임 출 산지원	방과후 돌봄	조세 지원	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기타	계 (명)
무자녀	48.0	8.8	10.8	5.4	1.5	2.9	22.5	-	100.0 (204)
지역($\chi^2=2.3$)									
동부	46.6	9.7	10.8	5.7	1.7	2.8	22.7	-	100.0 (176)
읍·면부	57.1	3.6	10.7	3.6	-	3.6	21.4	-	100.0 (28)
1자녀	56.5	8.3	6.8	5.0	1.1	2.2	19.8	0.4	100.0 (278)
지역($\chi^2=9.5$)									
동부	55.0	8.7	6.6	5.4	1.2	2.5	20.7	-	100.0 (242)
읍·면부	65.8	5.3	7.9	2.6	-	2.6	13.2	2.6	100.0 (38)
2자녀이상	62.2	10.0	5.6	2.2	-	5.6	14.4	-	100.0 (90)
지역($\chi^2=5.6$)									
동부	59.4	8.7	4.3	2.9	-	7.2	17.4	-	100.0 (69)
읍·면부	71.4	14.3	9.5	-	-	-	4.8	-	100.0 (2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 활용함.

2) 양육교육비지원 : 자녀 교육·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 자금지원

난임및출산지원 : 산전진찰비용 지원 / 불임부부 지원 /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방과후 돌봄 : 아동의 방과후 학교 지원

조세지원 : 다자녀 가정 소득 공제(세금감면)

보험료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출산 크레딧)

일가정양립지원 : 종일제운영 유치원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 직장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도입, 장려) /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출퇴근 등) / 유사산 휴가(급여지원) /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양성평등 문화조성

〈부표 23〉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여성(20~44세)의 가구소득별 사회적지원 선호도

(단위:%, 명)

	양육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난임 출산 지원	방과후 돌봄	조세 지원	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기타	계 (명)
무자녀	48.0	8.8	10.8	5.4	1.5	2.9	22.5	-	100.0 (204)
가구평균소득($x^2=13.3$)									
60%미만	56.0	-	12.0	12.0	-	-	20.0	-	100.0 (25)
60~100%	46.6	10.2	11.4	5.7	2.3	2.3	21.6	-	100.0 (88)
100~140%	52.3	9.2	7.7	4.6	1.5	1.5	23.1	-	100.0 (65)
140%이상	26.1	17.4	17.4	4.3	0.0	4.3	30.4	-	100.0 (23)
1자녀	56.5	8.3	6.8	5.0	1.1	2.2	19.8	0.4	100.0 (278)
가구평균소득($x^2=23.8$)									
60%미만	47.3	10.9	12.7	3.6	-	3.6	20.0	1.8	100.0 (55)
60~100%	60.7	5.2	4.4	6.7	1.5	2.2	19.3	-	100.0 (135)
100~140%	59.6	10.5	5.3	7.0	-	1.8	15.8	-	100.0 (57)
140%이상	38.7	16.1	9.7	-	3.2	3.2	29.0	-	100.0 (31)
2자녀이상	62.2	10.0	5.6	2.2	-	5.6	14.4	-	100.0 (90)
가구평균소득($x^2=17.4$)									
60%미만	73.3	6.7	6.7	-	-	-	13.3	-	100.0 (15)
60~100%	62.5	15.0	2.5	5.0	-	7.5	7.5	-	100.0 (40)
100~140%	68.8	-	-	-	-	6.3	25.0	-	100.0 (16)
140%이상	50.0	12.5	18.8	-	-	-	18.8	-	100.0 (16)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 활용함.

2) 양육교육비지원 : 자녀 교육·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신혼부부 보증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 자금지원

난임및출산지원 : 산전진찰비용 지원 / 불임부부 지원 /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방과후 돌봄 : 아동의 방과후 학교 지원

조세지원 : 다자녀 가정 소득 공제(세금감면)

보험료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출산 크레딧)

일가정양립지원 : 종일제운영 유치원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 직장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도입, 장려) /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출퇴근 등) / 유산산 휴가(급여지원) /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양성평등 문화조성

〈부표 24〉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여성(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연령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양육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난임출 산지원	방과후 돌봄	조세 지원	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지 원	기타	계 (명)
무자녀									
연령($x^2=35.9$)									
20~24세	85.7	-	-	-	-	-	14.3	-	100.0 (7)
25~29세	54.2	8.4	7.2	6.0	-	3.6	20.5	-	100.0 (83)
30~34세	43.8	11.3	11.3	1.3	3.8	2.5	26.3	-	100.0 (80)
35~39세	40.7	7.4	18.5	18.5	-	-	14.8	-	100.0 (27)
40~44세	14.3	-	28.6	-	-	14.3	42.9	-	100.0 (7)
1자녀									
연령($x^2=30.3$)									
20~24세	54.5	-	9.1	9.1	-	9.1	18.2	-	100.0 (11)
25~29세	61.3	10.0	6.3	2.5	-	3.8	15.0	1.3	100.0 (80)
30~34세	55.8	10.0	5.0	5.0	0.8	1.7	21.7	-	100.0 (120)
35~39세	51.9	5.6	11.1	3.7	3.7	-	24.1	-	100.0 (54)
40~44세	57.1	-	7.1	21.4	-	7.1	7.1	-	100.0 (14)
2자녀이상									
연령($x^2=21.0$)									
20~24세	100.0	-	-	-	-	-	-	-	100.0 (1)
25~29세	63.6	-	18.2	-	-	-	18.2	-	100.0 (11)
30~34세	76.7	3.3	3.3	-	-	-	16.7	-	100.0 (30)
35~39세	51.4	18.9	8.1	2.7	-	5.4	13.5	-	100.0 (37)
40~44세	58.3	8.3	-	8.3	-	16.7	8.3	-	100.0 (1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 활용함.

2) 양육교육비지원 :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 자금지원

난임및출산지원 : 산전진찰비용 지원 / 불임부부 지원 /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방과후 돌봄 : 아동의 방과후 학교 지원

조세지원 : 다자녀 가정 소득 공제(세금감면)

보험료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출산 크레딧)

일가정양립지원 : 종일제운영 유치원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 직장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도입, 장려) /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출퇴근 등) / 유사산 휴가(급여지원) /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양성평등 문화조성

〈부표 25〉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여성(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취업여부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단위: %, 명)

	양육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난임출 산지원	방과후 돌봄	조세 지원	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지 원	기타	계 (명)
무자녀									
취업여부($\chi^2=6.3$)									
취업	45.1	10.7	9.8	4.1	0.8	3.3	26.2	-	100.0 (122)
비취업	53.8	6.3	11.3	7.5	2.5	1.3	17.5	-	100.0 (80)
1자녀									
취업여부($\chi^2=11.1$)									
취업	55.4	8.4	2.4	3.6	-	1.2	28.9	-	100.0 (83)
비취업	57.1	8.2	8.7	5.6	1.5	2.6	15.8	0.5	100.0 (196)
2자녀이상									
취업여부($\chi^2=1.5$)									
취업	66.7	8.3	8.3	-	-	4.2	12.5	-	100.0 (24)
비취업	61.5	10.8	4.6	3.1	-	4.6	15.4	-	100.0 (65)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구소득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3,298,903원) 대비 비율(2009년 2/4분기 기준) 활용함.

2) 양육교육비지원 :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 자금지원
난임및출산지원 : 산전진찰비용 지원 / 불임부부 지원 /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방과후 돌봄 : 아동의 방과후 학교 지원

조세지원 : 다자녀 가정 소득 공제(세금감면)

보험료지원 : 다자녀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출산 크레딧)

일가정양립지원 : 종일제운영 유치원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 직장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 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도입, 장려) /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출퇴근 등) / 유산산 휴가(급여지원) /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양성평등 문화조성

부록 2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조사표 양식)



조사주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결과공표(예정시기)	2009년 12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가구조사표)



534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사도	사군구	읍면동 (동=1, 읍=2, 면=3)	거치번호	가구번호	가구조사 일련번호	조사표 종류
1-2	3-4	5	6-7	8-9	10-11	12
						1
주소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	시	·	·	·	· 통 · 반
	도	군	면	리	번지-호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전화	0) -			
		이메일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씀

저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귀댁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이나 가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발주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응답자 가구의 일반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3-15
CARD
105

1. 이 닥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주택 | <input type="checkbox"/> ② 아파트 |
| <input type="checkbox"/> ③ 원룸 | <input type="checkbox"/> ④ 연립주택 |
| <input type="checkbox"/> ⑤ 다세대 주택 | <input type="checkbox"/> ⑥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사무실, 공장 등) |
| <input type="checkbox"/> ⑦ 오피스텔 | <input type="checkbox"/> ⑧ 판잣집, 미널하우스, 움막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무엇: _____) | |

1 16-17

2. 이 집은 자기집입니까? 셋집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자가 ⇒ (필문 3으로 가시오) | ⇒ 2-1.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이외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따로 있습니까? |
| <input type="checkbox"/> ② 전세(월세 없음) | |
| <input type="checkbox"/> ③ 보증금 있는 월세(보증부월세) | |
| <input type="checkbox"/>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무엇: _____) | |
|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 |

2 18
2-1 19

3. 귀 닥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총 _____ 만원

20-23
3 만원

※조사원

- 1) 소득은 세금공제전의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퇴직금, 개인연금, 이자수입 등 가구에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포함함
2) 응답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질문하여 기입함

여기에서 가구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 조사원 확인사항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2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3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전화번호	() -
				E-mail	

기혼자조사표



조사주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결과공표(예정시기)	2009년 12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만 20~44세 기혼여성조사표)



사도	사군구	읍·면·동 동=1 읍=2 면=3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구내 조사원료 가구일련번호	가구내 조사원료 기혼여성가구원번호	조사구내 조사원료 기혼여성 일련번호	조사표 종류
1-2	3-4	5	6-7	8-9	10-11	12	13-14	15
								2
주소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전화	0) _____ -			
				이메일	_____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씀

저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귀하가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이나 가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발주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조사원: 가구조사표의 가구원 사항에서 응답자의 가구원 번호와 출생년월을 옮겨 적으시오

응답자 가구원 번호: _____ 출생년월: _____ 년 _____ 월

모든 만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CARD
201

연도	1. 교육경도/교육상태		2. 결혼상태		3. 거주형태		4. 출생자녀		5. 사망자녀		6. 취업여부		7. 종사상 지위		8. 직종		
	월	구분	구분	월	구분	월	구분	월	구분	명	월	구분	명	월	구분	월	구분
1980년																	
이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 교육정도/교육상태		2. 결혼상태		3. 거주실태		4. 출생자녀		5. 사망자녀		6. 취업여부		7. 종사상 지위		8. 직종		
	월	구분	구분	월	구분	월	구분	월	구분	명	월	구분	명	월	구분	월	구분
연도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석사 ⑥ 석사 ⑦ 박사	① 입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복학 ⑤ 졸업 (학위 취득)	① 첫번째 결혼 ② 첫번째 별거/이혼 ③ 첫번째 사별 ④ 두번째 결혼 ⑤ 두번째 별거/이혼 ⑥ 두번째 사별 ⑦ 세번째 결혼 ⑧ 세번째 별거/이혼 ⑨ 세번째 사별 : : :	① 친정 부모와 동거 ② 시부모와 동거 ③ 양가 부모와 동거 ④ 양가 부모와 비동거	① 첫째출생 ② 둘째출생 ③ 셋째출생 ④ 넷째출생 ⑤ 다섯째출생 ⑥ 여섯째출생 ⑦ 일곱째출생 ⑧ 여덟째출생 ⑨ 아홉째출생 ⑩ 열번째출생 ⑪ 열한번째출생 : : :	① 첫째사망 ② 둘째사망 ③ 셋째사망 ④ 넷째사망 ⑤ 다섯째사망 ⑥ 여섯째사망 ⑦ 일곱째사망 ⑧ 여덟째사망 ⑨ 아홉째사망 : : :	① 취업 ② 비취업 (구직활동) ③ 비취업 (비구직활동)	① 자영업자 ② 고용주 ③ 무급가족 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⑨ 비해당	① 회의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⑨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군인 ⑫ 기타(무엇: _____) ⑬ 비해당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0. (취업중이라면) 귀하가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자녀를(와) 양육, 교육, 대화할 시간이 부족함
- ② 부부간에 대화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함
- ③ 일을 하면서 가사도 해야 하는 부담이 큼
- ④ 직장일에 전념하기 어려움
- ⑤ 직장에서의 차별(승진, 보직 등에서의 불이익)
- ⑥ 문제점 없음
- ⑦ 기타(무엇:_____)

45-46

10

--	--

※조사원: 응답자가 현재 취업중인 경우 ⇒ <질문 12>로 가시오

11. (비취업중이라면) 귀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 ① 하고 싶음
- ② 하고 싶지 않음 ⇒ (질문 12로 가시오)

47

11

--

11-1. (일을 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우리집에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 ② 남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어서
- ③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
- ④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 ⑤ 내 자신을 위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때문에
- ⑥ 일을 해야 가족들로부터 인정(존경)을 받을 수 있어서
- ⑦ 본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 ⑧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 ⑨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서
- ⑩ 기타(무엇:_____)

48-49

11-1

--	--

11-2. (일을 하고 싶은데도)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남편이나 가족들이 반대해서
- ② 가사, 자녀양육과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 ③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 ④ 자녀가 아직 어려서
-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⑥ 가족의 병수발 때문에
- ⑦ 기타(무엇:_____)

50-51

11-2

--	--

12. 귀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였습니까?

(※조사원 : 지출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사교육비포함), 식료품비, 사업자금, 의료비, 의복 및 가사용품 구입비, 교통통신비, 주거비, 비동거 가족 지원 보험료, 이자 등의 모든 지출을 포함)

월 _____ 만원

52-55

12

--	--	--	--

 만원

12-1. 귀댁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자녀의 교육비(공교육, 사교육, 보육비 등)
- ② 본인 또는 남편의 교육비 ③ 식료품비(식비, 부식비, 외식비 등)
- ④ 보건의료비 ⑤ 비동거 가족 지원(자녀양육비 제외)
- ⑥ 의복 및 가사용품 구입비(가구, 식기, 침구, 신발, 의류 등)
- ⑦ 주거비(주택관리비, 집세 및 주택용자금 상환 등)
- ⑧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 ⑨ 기타(무엇: _____)

56-57

12-1			1순위
			2순위

58-59

※조사원: 사교육을 받는 자녀(고등학교 이하)가 있는지 확인하여 몇 명인지 기입하십시오. _____ 명
 사교육을 받는 자녀가 없는 경우 해당 자녀수에 0으로 기입하고 <질문 13>으로 가십시오.

12-2. 사교육을 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얼마입니까?

(※조사원: 이혼 등으로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질문합니다)

구 분	해당 자녀수	사교육비 (학원, 학습지, 과외, 개인교습 등)
1) 미취학 자녀	_____명	월 _____만원
2) 초등학교 자녀	_____명	월 _____만원
3) 중학교 자녀	_____명	월 _____만원
4) 고등학교 자녀	_____명	월 _____만원
계	_____명	월 _____만원

12-2

1)	60			61-63
2)	64			65-67
3)	68			69-71
4)	72			73-75
계	76-77			78-80

모든 만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응답자 부부의 역할분담에
 관해 질문합니다

16-18

CARD
222

※조사원: 응답자가 이혼(별거) 혹은 사별한 경우 ⇒ CARD 223으로 가시오.

다음은 귀하와 남편의 역할분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귀하는 평소 남편과 가정일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9

13	
----	--

18. 귀하와 남편은 다음과 같은 가정일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 부인결정	대체로 부인 결정	부부 공동 결정	대체로 남편 결정	전적으로 남편결정	각자 관리	다른 사람이 결정	해당 없음
1) 자녀양육(돌봄 및 보살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⑨
2) 자녀교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⑨
3) 본인의 직장 이동(취업 및 퇴직포함)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⑨
4) 남편의 직장 이동(취업 및 퇴직포함)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⑨
5) 일상생활비 관리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input type="checkbox"/> ⑦	/
6) 주택구입 및 이사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⑨
7) 투자 및 재산관리(증식)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⑨

- 18
- 1) 62
- 2) 63
- 3) 64
- 4) 65
- 5) 66
- 6) 67
- 7) 68

19. 귀하는 현재 직장 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CARD 223으로 가시오)

69
19-1

19-1. (떨어져 살고 있다면) 월 평균 몇 일 만나고 있습니까?

월 평균 _____ 일

70 71
19-1 일

모든 만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응답자 부부의 결혼당시 상황에 관해 질문합니다

16-18

CARD
223

다음은 귀하의 결혼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 귀하와 남편은 소개로 만났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질문 21로 가시오)

19
20

20-1. (소개로 만났다고 응답한 경우) 누구의 소개로 만났습니까?

- ① 친구 ② 부모 및 친척
③ 결혼정보회사(⇒질문 20-2로 가시오) ④ 기타(누구 : _____)

20
20-1

20-2. (결혼정보회사 이용시) 총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_____ 만원

21-24
20-2 만원

21. 귀하는 남편과 언제부터 함께 사셨습니까?

(※결혼식이나 혼인신고서기와 상관없이 실제로 같이 산 시기)

_____ 년 _____ 월

25-28 29-30
21 년 월

22. 귀하는 남편과 언제 결혼식을 올렸습니까?(※혼인신고시기와 상관없이)

_____ 년 _____ 월

22

--	--	--	--

³¹⁻³⁴년

--	--

³⁵⁻³⁶월

23. 귀하는 남편과 언제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_____ 년 _____ 월

23

--	--	--	--

³⁷⁻⁴⁰년

--	--

⁴¹⁻⁴²월

24. 귀하와 남편이 결혼에 지출한 비용(약혼식, 힘들이, 예식, 예단, 예물, 혼수, 신혼여행 등)은 얼마입니까?(※ 조사원 : 신혼집 마련 비용은 제외합니다.)

총 _____ 만원

24

--	--	--	--	--	--

⁴³⁻⁴⁷만원

24-1. 위 결혼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신부 본인(개인) | <input type="checkbox"/> ② 신랑 본인(개인) |
| <input type="checkbox"/> ③ 신부와 신랑(개인) 반반씩 부담 | <input type="checkbox"/> ④ 친정 |
| <input type="checkbox"/> ⑤ 시댁 | <input type="checkbox"/> ⑥ 양가(시댁·친정) 반반씩 부담 |
| <input type="checkbox"/> ⑦ 신랑과 친정 반반씩 부담 | <input type="checkbox"/> ⑧ 신부와 시댁 반반씩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누구:_____) | |

24-1

--	--

⁴⁸⁻⁴⁹

25.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구입 | <input type="checkbox"/> ② 전세(월세 없음) |
| <input type="checkbox"/> ③ 보증금 있는 월세(보증부 월세) | <input type="checkbox"/>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 <input type="checkbox"/> ⑤ 친정부모 집에 살 | <input type="checkbox"/> ⑥ 시부모 집에 살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필문 26으로 가시오) |

25

--	--

⁵⁰

25-1.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위 신혼집 마련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신부 본인(개인) | <input type="checkbox"/> ② 신랑 본인(개인) |
| <input type="checkbox"/> ③ 신부와 신랑(개인) 반반씩 부담 | <input type="checkbox"/> ④ 친정 |
| <input type="checkbox"/> ⑤ 시댁 | <input type="checkbox"/> ⑥ 양가(시댁·친정) 반반씩 부담 |
| <input type="checkbox"/> ⑦ 신랑과 친정 반반씩 부담 | <input type="checkbox"/> ⑧ 신부와 시댁 반반씩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누구:_____) | |

25-1

--	--

⁵¹⁻⁵²

25-2. 신혼집 마련시 대출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입니까?

- ① 예 ⇒ 총 _____ 만원 ② 아니오

25-2

--	--	--	--	--	--

⁵³ ⁵⁴⁻⁵⁸만원

26. 귀하는 결혼을 결정했다가 사정이 있어 미룬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필문 27로 가시오)

26

--	--

⁵⁹

26-1. (미룬 적이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업상태이어서(사업실패)
- ② 비정규직이어서
- ③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 ④ 직장일이 바빠서
- ⑤ 상대방의 수입이 적어서
- ⑥ 나의 수입이 적어서
-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 ⑧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 ⑨ 집장만 이외의 결혼비용이 여의치 않아서
- ⑩ 학업 때문에
- ⑪ 집안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에
- ⑫ 시택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 ⑬ 건강문제 때문에
- ⑭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 ⑮ 기타(무엇: _____)

26-1

	60-61
--	-------

27. 귀하는 (초혼 당시) 결혼 전 6개월부터 결혼 후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취업 증이었습니까?

- ① 취업 증이었음
- ② 비취업 증이었음 ⇒ (CARD 224로 가시오)

27

	62
--	----

27-1. (취업증이었다면) 그 기간 중 (직장)일을 그만 둔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만둔 적이 있음
- ② 그만둔 적이 없음 ⇒ (CARD 224로 가시오)

27-1

	63
--	----

※조사원: 결혼 전후로 일을 그만둔 경우, CARD 201을 확인하여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기입하시오. **결혼 전** _____ **개월** 또는 **결혼 후** _____ **개월**

27-2.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② 가정일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
- ③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
- ④ 가정일에만 전념하고 싶어서
- ⑤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나 시택에서 반대해서
- ⑥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⑦ 몸이 아파서
- ⑧ 힘들어서(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 ⑨ 거리가 멀어서
- ⑩ 기타(무엇: _____)

27-2

	64-65
--	-------

모든 만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생활에 관해 질문합니다

16-18

CARD

224

다음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28. 친정 부모님 및 시부모님은 몇 세입니까?

(※조사원·응답자가 이혼·사별·별거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질문하십시오)

구 분	부	모
1) 친정부모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_____년)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_____년)
2) 시부모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_____년)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_____년)

28 부 모

1) 19 20-22 23 24-26
 27-30 31-34
 35 36-38 39 40-42
 43-46 47-50
 2) _____년 _____년

28-1. 귀하의 (친정)부모님은 이혼이나 별거 또는 재혼을 경험하셨습니다가?

① 예 ② 아니오

28-1 51

※조사원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는 경우 **질문하지 않습니다**

29. 지난 1년간 친정부모님 또는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을 드리거나 병수발 등으로 보살펴 드린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30으로 가시오)

29 52

29-1. 지난 1년간 (친정·시) 부모님께 다음의 도움을 드리는데 부담이 되었습니까?

구 분	매우 부담	약간 부담	별로 부담되지않음	전혀 부담되지않음	해당없음
1)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1-1) 도움을 드렸다면 얼마나 도움을 드렸습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2) 보살핌, 병수발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29-1 53
 1) 54-56
 1-1) 만원
 2) 57

※조사원: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합니다.**

30. 귀하는 **결혼 전** 언제까지 친정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현금 등)을 받았습니까?

① 결혼했을 때까지 ② 결혼 전 ⇒ _____ 년도까지

30 58 59-62
 _____ 년도까지

※조사원: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은 경우 **질문하지 않습니다**

31. 지난 1년간 (친정·시댁) 부모님께 다음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구분	많이 받음	약간 받음	별로 받지 않음	전혀 받지 않음	비해당
1) 경제적 도움 (생활비, 양육비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⑨
2) 자녀양육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⑨
3) 집안일 등 가사 (식사, 청소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⑨

31

1) 63

2) 64

3) 65

다음은 응답자 부부의 형제·자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32. 귀하의 형제·자매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은 몇 번째입니까?
(※본인과 사망한 형제·자매 포함)

___ 남 ___ 녀 중 ___ 제

32 남 녀 중 제

32-1. 귀하의 형제·자매 중 이혼이나 별거 또는 재혼을 경험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형제·자매가 모두 미혼인 경우,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비해당)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없음

32-1 70

33. 남편의 형제·자매는 총 몇 명입니까? 남편은 몇 번째입니까?
(※본인과 사망한 형제·자매 포함)

___ 남 ___ 녀 중 ___ 제

33 남 녀 중 제

33-1. 귀하의 형제·자매 중 이혼이나 별거 또는 재혼을 경험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형제·자매가 모두 미혼인 경우,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비해당)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없음

33-1 75

다음은 재혼한 부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34. 귀하와 남편 중 한 분이라도 재혼한 경우에 질문합니다.

※조사원: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 ⇒ CARD 225로 가시오

구 분	응답자(부인)	배우자(남편)
1) 재혼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초혼 <input type="checkbox"/> ② 재혼	<input type="checkbox"/> ① 초혼 <input type="checkbox"/> ② 재혼
2)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수	_____명	_____명
3) (재혼인 경우) 이 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수	_____명	_____명
4) (재혼인 경우) 이 택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는 자녀수	_____명	_____명

34		응답자	배우자
1)		76	77
2)		78	79
3)		80	81
4)		82	83

**모든 만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에
관해 질문합니다**

16-18

CARD
225

다음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게 낫다 ⑤ 모르겠다 (경우에 따라서)

35

19

36 귀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1) 남자: 만 _____ 세
2) 여자: 만 _____ 세

36

		20-21
1)		세
2)		세

22-23

37 귀하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다음의 견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남자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9)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7

1)		24
2)		25
3)		26
4)		27
5)		28
6)		29
7)		30
8)		31
9)		32

38 과거에 비해 요즘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의 각 이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시댁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9)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10)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 38
- 1) 33
- 2) 34
- 3) 35
- 4) 36
- 5) 37
- 6) 38
- 7) 39
- 8) 40
- 9) 41
- 10) 42

다음은 국가의 결혼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39 귀하는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② 다소 필요함
- ③ 별로 필요없음 ④ 전혀 필요없음 ⇒ (질문 40으로 가시오)

39 43

39-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②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 ③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④ 주택마련 지원
- ⑤ 결혼준비를 위한 휴가제도 ⑥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
- ⑦ 기타(무엇: _____)

39-1 44-45

다음은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40. 귀하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가져야 함 ② 갖는 것이 좋음 ③ 없어도 무관함 ④ 모르겠음

40 46

41.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0명⇒(결론 42로)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6 모르겠음

41

41-1. (자녀를 둔다면) 딸·아들 구별해서 입니까? 구별없이 입니까?

- 1 딸·아들 구별없이
 2 딸·아들 구별해서(아들__명, 딸__명)
 3 모르겠음
 4 기타(무엇:_____)

41-1 명 명
아들 딸

42. 여성이 직장일과 가정일을 함께 해나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수	일(직장)형태		
	전일제	시간제	일을 하지 않음
자녀를 전혀 두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자녀를 1명만 둬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6
자녀를 2명 이상 둬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9

42

43. 가족내 부부 역할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2)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3)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5)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43
1)
2)
3)
4)
5)

44.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는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결혼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 44
- 1) 58
- 2) 59
- 3) 60
- 4) 61
- 6) 62
- 7) 63
- 8) 64
- 9) 65

45. 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한 다음의 문항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 45
- 1) 66
- 2) 67
- 3) 68
- 4) 69
- 5) 70

46. 오늘날의 부부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에 관한 다음의 이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취업여성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 부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이혼한 부부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의 확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의 확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9)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6	
1)	71
2)	72
3)	73
4)	74
5)	75
6)	76
7)	77
8)	78
9)	79

47. 인생에서 추구해볼만한 다음의 목표들을 실행하는데 자녀의 수가 관계가 있다면, 각 목표에 해당하는 적정 자녀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자녀수				자녀수와 관계없다
	0명	1명	2명	3명 이상	
1)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2)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3) 부부간 가사일을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4)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5) 대의를 실현하는 것(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에 따라 사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6)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7)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8)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47	
1)	80
2)	81
3)	82
4)	83
5)	84
6)	85
7)	86
8)	87

모든 만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실태에 관해 질문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임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48. 각 시기별로 귀하의 임신 횟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각 시기별 임신 횟수를 합하여 총임신 횟수를 기입하시오.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출생으로 파악하시오.

	첫째아 출산 전	첫째아 출산부터 ~둘째아 출산전	둘째아 출산부터 ~셋째아 출산전	셋째아 출산부터 ~넷째아 출산전	넷째아 출산부터 ~다섯째아 출산전	다섯째아 이상 출산부터 ~현재까지
1) 정상출생		25 <input type="text"/>	32 <input type="text"/>	39 <input type="text"/>	46 <input type="text"/>	53 <input type="text"/>
2) 사산	19 <input type="text"/> 회	26 <input type="text"/> 회	33 <input type="text"/> 회	40 <input type="text"/> 회	47 <input type="text"/> 회	54 <input type="text"/> 회
3) 자연유산	20 <input type="text"/> 회	27 <input type="text"/> 회	34 <input type="text"/> 회	41 <input type="text"/> 회	48 <input type="text"/> 회	55 <input type="text"/> 회
4) 인공유산	21 <input type="text"/> 회	28 <input type="text"/> 회	35 <input type="text"/> 회	42 <input type="text"/> 회	49 <input type="text"/> 회	56 <input type="text"/> 회
5) 현임신유무	22 <input type="text"/>	29 <input type="text"/>	36 <input type="text"/>	43 <input type="text"/>	50 <input type="text"/>	57 <input type="text"/>
6) 시기별 총임신횟수	23-24 <input type="text"/> 회	30-31 <input type="text"/> 회	37-38 <input type="text"/> 회	44-45 <input type="text"/> 회	51-52 <input type="text"/> 회	58-59 <input type="text"/> 회

col. 19-59

※조사원: <질문 48>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을 기입하시오.

정상출생	+ 사산	+ 자연유산	+ 인공유산	+ 현임신	= 총임신횟수
60-61 <input type="text"/> 회	62-63 <input type="text"/> 회	64-65 <input type="text"/> 회	66-67 <input type="text"/> 회	68 <input type="text"/> 회	69-70 <input type="text"/> 회

col. 60-70

※조사원: 응답자의 총 출생자녀수를 기입하시오.
 _____ 남 _____ 녀 총 _____ 명

71 72 총 73-74

※조사원: <질문 48>에서 한 번이라도 인공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질문하시오.
 <질문 48>에서 인공유산 경험이 없는 경우 ⇒ <질문 50>로 가시오.
 <질문 48>에서 현재 임신중인 경우 ⇒ <질문 52>로 가시오.

◆50-2. 위 질문에서 출산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7-88

50-2

영역	보기
경제적 이유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⑤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⑥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회적 이유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⑧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⑩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가치관	⑪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⑫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⑬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⑭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⑮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⑯ 남들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⑰ 아이가 많아서
가족	⑱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⑲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⑳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외상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건강	㉑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㉒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㉓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때문에
기타	㉔ 나이가 많아서 ㉕ 기타(무엇: _____)

◆51. 귀하는 피임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피임중단 후 임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89

- ① 예 ② 아니요

51

52. 귀하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1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90

-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55로 가시오)

52

53. 귀하와 남편은 불임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91

-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55로 가시오)

53

53-1. (있다면) 어느 시기에 받았습니까?

92

- ① 첫째아 출산 전 ② 첫째아 출산부터~둘째아 출산전
 ③ 둘째아 출산부터~셋째아 출산전 ④ 셋째아 출산부터~넷째아 출산전
 ⑤ 넷째아 출산부터~다섯째아 출산전 ⑥ 다섯째아 이상 출산부터~현재까지

53-1

53-2. (있다면) 그 동안 불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치료중이다
- ②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다
- ③ 치료를 받지 않았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93
53-2

53-3. 치료를 중단한 이유() 53-4.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보기>	
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②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③ 영구불임 판정을 받아서	④ 자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⑤ 입양을 해서	⑥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⑦ 정보가 없어서(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⑧ 시간이 없어서
⑨ 치료에 성공해서	⑩ 기타(무엇:)

94-95
53-3

96-97
53-4

54. 귀하는 불임시술(시험관 아기, 인공수정)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횟수	비용
1) 시험관 아기	_____ 회	_____ 만원
2) 체외 인공수정	_____ 회	_____ 만원

54 98 99-102

1) 회 만원

2) 회 만원

103 104-107

※조사원: 첫째아 출산전 불임진단을 받은 응답자로서 치료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 **CARD 227 <질문 63>으로 가시오.**
출생아를 둔 이후에 불임진단을 받은 응답자의 경우 해당 출산에 대해서 계속
해서 질문하십시오.

55. 귀하는 쌍생아 등 다태아를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음
- ② 1회
- ③ 2회
- ④ 3회
- ⑤ 4회
- ⑥ 5회 이상

108
55

※조사원: 출생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의 경우 ⇒ **CARD 227로 가시오**
출생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56. 귀하는 자녀 출산전 6개월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직장(일)을 그만두었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인 적이 있습니까? 각 출생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중 막내아
56-1. 귀하는 자녀 출산전 6개월부터 출산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하는 시간을 변경 하셨습니까? ① 평소대로 일했다 ② 시간을 줄여서 일했다 ③ 그만 두었다⇒(결문 56-2로 가시오) ④ 비취업 ⑤ 육아휴직(출산휴가) ⑥ 새로 취업했다	109 <input type="checkbox"/>	112 <input type="checkbox"/>	115 <input type="checkbox"/>	118 <input type="checkbox"/>	121 <input type="checkbox"/>
56-2.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②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③ 아이를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⑤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⑥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⑦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⑧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⑨ 산전·산후조리 ⑩ 경제적 이유 때문에 ⑪ 기타(무엇: _____)	110-111 <input type="checkbox"/>	113-114 <input type="checkbox"/>	116-117 <input type="checkbox"/>	119-120 <input type="checkbox"/>	122-123 <input type="checkbox"/>

col. 109-123

모든 만 20~4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자녀계획 및 출산관련 정책에 관해 질문합니다

16-18

CARD

227

다음은 응답자의 현재 자녀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원 ▲표시가 있는 문항은 이혼(별거)·사별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57. 귀하는 앞으로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조사원 임신 중인 부인은 현재의 임신 외에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인지 여부를 질문하시오.

- ① 있다(____명)
- ② 없다 ⇒ (질문 58로 가시오)
-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 ⇒ (질문 63으로 가시오)

▲57-1. (자녀를 가질 계획이면) 딸·아들 구별해서 입니까? 구별없이 입니까?

- ① 딸·아들 구별없이
- ② 딸·아들 구별해서(아들:____명, 딸:____명)
- ③ 기타(무엇:_____)
- ④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

▲57-2. (자녀를 가질 계획이면) 가능하면 언제쯤 (추가)자녀를 출산할 계획입니까?

- ① 1년 이내
- ② 1년~2년 이내
- ③ 2년~3년 이내
- ④ 3년 이후
- ⑤ 기타(무엇:_____)
- ⑥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

▲57-3. (자녀를 가질 계획이면) (추가)자녀가 보육시설 등에 들어 갈 때까지 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합니까?

- ① 시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②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③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두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④ 어느 분도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 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57-4. (자녀를 가질 계획이면) 남편이 가정일을 많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7

	19		20-21	
--	----	--	-------	--

 명

57-1

	22		23		24
--	----	--	----	--	----

 명

--	--

 명
아들 딸

57-2

	25
--	----

57-3

	26
--	----

57-4

	27
--	----

◆58. 향후 (추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주시시오.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하시오
또한, 2순위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99)로 기입하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58 28-29 30-31
1순위 2순위

영역	보 기
경제적 이유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⑤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⑥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회적 이유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⑧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⑩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가치관	⑪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⑫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⑬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⑭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⑮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⑯ 남들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⑰ 아이가 많아서
가족	⑱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⑲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⑳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건강	㉑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㉒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때문에 ㉓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때문에
기타	㉔ 나이가 많아서 ㉕ 기타(무엇: _____)

◆59. 귀하의 (추가)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준 사람이나 정보매체는 각각 무엇입니까?

59-1. 출산 계획에 영향을 준 사람: _____	59-2. 출산 계획에 영향을 준 매체: _____
① (본인 및 남편의) 부모 ② (본인 및 남편의) 형제자매 ③ (본인 및 남편의) 친인척·가문(집안) ④ (본인 및 남편의) 친구 및 동료 ⑤ 이웃 ⑥ 현 자녀 ⑦ 없음 ⑧ 기타(무엇: _____)	①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② 라디오 ③ TV ④ 인터넷 ⑤ 없음 ⑥ 기타(무엇: _____)

32-33
59-1
34
59-2

※ 조사원: 출산계획이 있는 취업 여성의 경우 ⇒ 계속해서 질문하시오.
출산계획이 없거나 비취업 여성의 경우 ⇒ <질문 63>으로 가시오.

♣60. 자녀를 (추가로) 임신하거나 출산한 후에 양육을 위하여 일(직장)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평소대로 일하겠다 ⇒(질문 61로 가시오)
② 시간을 줄여서 일하겠다
③ 직장(일)을 그만 두겠다

35
60

♣60-1. (그만 둘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②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③ 아이를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⑤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⑥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⑦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⑧ 기타(무엇: _____)

36-37
60-1

♣60-2. (그만 둘 경우) 언제부터 (직장)일을 그만 둘 생각이십니까?

출산 (_____) 개월 전 또는 출산 (_____) 개월 후

38-39 40-41
60-2 전 후

♣60-3. (그만 둘 경우) 가능하다면, 자녀 성장 후 다시 (직장)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있다 ⇒ (자녀가 만 ___세가 될 때부터 다시 시작)
②없다

42 43-44
60-3 세

♣61. (직장)일을 계속 한다면, 자녀는 주로 누가 돌볼 것입니까?

- ① 본인 또는 남편 ② 친정부모 또는 시부모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파출부, 가정부, 베이비시터 등
⑤ 놀이방 등 보육시설 ⑥ 기타(무엇: _____)

45
61

※조사원: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및 고용보험 비대상인 경우
 ⇒ <질문 63>으로 가시오

♣62. (추가) 출산시 육아휴직을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있다(____년 ____개월) ⇒ (질문 63으로 가시오)
② 없다 ⇒ (질문 62-1로 가시오)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모르겠다) ⇒ (질문 63으로 가시오)

46
62
47 48-49
년 개월

◆62-1. (육아휴직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직장 내에서 승진과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염려해서
- ② 수입이 줄어들어서(휴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 ③ 휴가를 이용할 마음은 있으나 상사(고용주)가 원치 않아서
- ④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줄까봐
- ⑤ 일이 많아서
- ⑥ 복직이 어려울까봐(해고 당할까봐)
- ⑦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 ⑧ 기타(무엇:_____)

62-1

--	--

 50-51

출산관련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63. 귀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② 다소 심각한 문제이다
- ③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④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 ⑤ 모르겠다

63

--	--

 52

64. 귀하는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노동력 부족, 노인부양부담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관련(영향)이 있다 ② 대체로 관련(영향)이 있다
- ③ 별로 관련(영향)이 없다 ④ 전혀 관련(영향)이 없다
- ⑤ 모르겠다

64

--	--

 53

65. 귀하는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65

--	--

 54

66. 귀하는 직장(회사, 기업 등)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66

--	--

 55

67. 귀하는 국가가 세금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대체로 찬성
- ③ 별로 찬성하지 않음 ④ 전혀 찬성하지 않음
- ⑤ 모르겠다

67

--	--

 56

70. 다음은 출산 및 양육관련 제도나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제도나 시설의 이용 여부 및 도움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70-1. 인지여부	70-2. 이용경험 유무	70-3. 도움정도 ※조사원: 70-2에서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 항하여 질문합니다.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매우 도움	대체로 도움	별로 도움받지 않음	전혀 도움받지 못함	해당 없음
①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②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③다자녀 가정 소득공제 (세금감면)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④다자녀 가정을 위해 국민 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출산 크레딧)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⑤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⑥신혼부부 대상 아파트·국 민임대주택 등 특별공급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⑦종일제 보육·육아지원 시 설 확충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⑧시간제 보육·육아지원 시 설 확충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⑨직장 내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⑩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⑪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 육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⑫산전 진찰비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⑬불임부부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⑭출산 시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도우미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⑮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⑯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 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도입, 장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⑱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출퇴근 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⑲유사산 휴가(급여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⑳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출산 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㉑양성평등 문화조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70-1	70-2	70-3
1)	65	66	67
2)	68	69	70
3)	71	72	73
4)	74	75	76
5)	77	78	79
6)	80	81	82
7)	83	84	85
8)	86	87	88
9)	89	90	91
10)	92	93	94
11)	95	96	97
12)	98	99	100
13)	101	102	103
14)	104	105	106
15)	107	108	109
16)	110	111	112
17)	113	114	115
18)	116	117	118
19)	119	120	121
20)	122	123	124
21)	125	126	127

CARD
228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보육에 관해 질문합니다

※ 조사원: CARD 101 및 CARD 201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수를 파악하여 기입한 후 해당 자녀수만큼 아래의 설문을 질문하십시오.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없고, 재학 중 자녀가 있는 경우 CARD 229로 가시오.
 ◆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수: _____ 명

19
 취학 전
 자녀수 _____ 명

72. ()째아를 말기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누가(어디서) 살고있습니까?
 1) ()째아는 현재 민으로 몇 세입니까?
 2) 실제 밑은 사람(국): 주간 / 야간(오후 7시 30분 이후)
 3) 비참직한 사람(국): 주간 / 야간(오후 7시 30분 이후)
 (*여러 사람(국)인 경우에는 가장 수된 것을 표시합니다)

보육교육기관	가정보육사	친척	기타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② 사설 어린이집 ③ 놀이방 ④ 직장보육시설 ⑤ 유치원 ⑥ 학원(반일제 이상) ⑦ 기타(어디:)	⑧ 가정에 파견된 베이비시터 ⑨ 본인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보육도 ⑩ 친정부모 ⑪ 시부모님 ⑫ 친가친척 ⑬ 외가친척	⑭ 본인 또는 남편 ⑮ 이 직전 동봉 기타()	

73. ①~⑦의 기관 이용(시)제한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치)는 무엇입니까?(주간/야간)
 ① 아이의 친인척 발달을 위해서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③ 특기교육을 위하여
 ④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지 어려워
 ⑤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⑥ 같이 놀 아이들 없어서
 ⑦ 장래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⑧ 집 근처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여
 ⑨ 기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20 세 1) [] 세 2) 주간 야간 3) 주간 야간	42 세 1) [] 세 2) 주간 야간 3) 주간 야간	64 세 1) [] 세 2) 주간 야간 3) 주간 야간	86 세 1) [] 세 2) 주간 야간 3) 주간 야간	108 세 1) [] 세 2) 주간 야간 3) 주간 야간
21-22 23-24 25-26 27-28	43-44 45-46 47-48 49-50	65-66 67-68 69-70 71-72	87-88 89-90 91-92 93-94	109-110 111-112 113-114 115-116
73 주간 야간	51-52 주간 야간	73-74 주간 야간	95-96 주간 야간	117-118 주간 야간
29-30 31-32	53-54	75-76	97-98	119-120

항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74. ①~②의 기관 미이용 시기만에 다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는 무엇입니까? ①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②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③원하는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없어서 ④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⑤문이 많길 이유가 없어서 ⑤아이가 너무 어려서 ⑦기타(무엇:)	33 □□□□ 월	55 □□□□ 월	77 □□□□ 월	99 □□□□ 월	121 □□□□ 월
75. ()째아의 보육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아 기본보조금은 제외합니다. 월 _____ 만원	34-36 □□□□ 월	56-58 □□□□ 월	78-80 □□□□ 월	100-102 □□□□ 월	122-124 □□□□ 월
75-1 지원 받은 경우 지원받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한부모가족자녀 ③가타 저소득층 ④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대상자 ⑤세 번째 자녀 ⑥두 자녀가 이용 ⑦장애아동 ⑧동어민 자녀 ⑨양육수당 ⑩기타(직장 등)	75-1 □□□□ 월	59-60 □□□□ 월	81-82 □□□□ 월	103-104 □□□□ 월	125-126 □□□□ 월
76. ()째아의 월평균 보육료로 대략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조사원, 보육료뿐만 아니라 각종 반일제 학원 등을 포함하며, 국가 등의 지원비는 포함하지 않음)	39-41 □□□□ 월	61-63 □□□□ 월	83-85 □□□□ 월	105-107 □□□□ 월	127-129 □□□□ 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본 응답자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16-18

CARD
229

col. 19-94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에 관해 질문합니다

※ 조사란: CARD 101 및 CARD 201에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수를 파악하여 기입한 후 해당 자녀수만큼 아래의 설문을 질문하시오

◆ 초등학교 재학 자녀수: _____명

19 재학 자녀수 _____명

항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77. ()째아를 병과후에 맡기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누가(어디서) 맡고있습니까?	20 학년 1) <input type="checkbox"/> 학년 2) 21주에 <input type="checkbox"/> 2주에 <input type="checkbox"/>	35 학년 1) <input type="checkbox"/> 학년 2) <input type="checkbox"/>	50 학년 1) <input type="checkbox"/> 학년 2) <input type="checkbox"/>	65 학년 1) <input type="checkbox"/> 학년 2) <input type="checkbox"/>	80 학년 1) <input type="checkbox"/> 학년 2) <input type="checkbox"/>
1) ()째아는 현재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23-24	38-39	53-54	68-69	83-84
2) 실제 맡은 사람(곳): (가장 주된 것 2가지)	25-26	40-41	55-56	70-71	85-86
3) 바람직한 사람(곳): (가장 주된 것 2가지)	27-28	42-43	57-58	72-73	87-88
모용교육기관	가정교육사				
① 지역아동센터	⑧ 가정에 파견된 베이비시터	친척			기타
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⑨ 본인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교육교	⑩ 친정부모	⑪ 시부모님	⑬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돌봄	
③ 보육시설 방과후보육	⑩ 친정부모	⑫ 친가친척	⑫ 외가친척	⑭ 기타(_____)	
④ 초등학교 방과후보육(교육)	⑪ 본인의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교육교				
⑤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실	⑫ 친가친척				
⑥ 학원	⑬ 시부모님				
⑦ 기타	⑭ 본인 또는 남편이 직접 돌봄				
78. ()째아의 기관 이용 시)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치)는 무엇입니까?	29-30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44-45				
② 특기교육을 위하여	59-60				
③ 사회적 발달을 위하여					
④ 장애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⑤ 기타(_____)					

항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79. (①~⑦의 기관 미이용 시) 가장 주된 이유(1가지)는 무엇입니까? ①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②가까운 곳에 교육시설이 없어서 ③원하는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없어서 ④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⑤문이 닫힐 이유가 없어서 ⑥언어가 너무 어려서 ⑦기타(무엇:)	31 <input type="text"/>	46 <input type="text"/>	61 <input type="text"/>	76 <input type="text"/>	91 <input type="text"/>
80. () 아이의 월평균 평균 교육 등을 위해 대략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조사원: 교육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수고료, 원물제공 등도 포함하며, 국가 등의 지원비는 포함하지 않음)	32-3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7-4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62-6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7-79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2-9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여기에서 본 응답자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사원 확인사항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2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3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전화번호	() -
				E-mail	

미혼자조사표



조사주관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결과공표(예정시기)	2009년 12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만 20~44세 미혼자조사표)



사도	사군구	읍·면·동 동=1 읍=2 면=3	거처번호	가구번호	조사구내조사원료 가구일련번호	가구내조사원료 미혼자가구원번호	조사구내조사원료 미혼자일련번호	조사표 종류
1-2	3-4	5	6-7	8-9	10-11	12	13-14	15
								3
주소	시		구	동	아파트		동-호	
	·		시	·	·		·	동
가구주 성명	도		군	면	리		번지-호	번
응답자 성명	응답자 성명			전화	0) -			
				이메일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씀

저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0,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귀댁이 표본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개인이나 가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발주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모든 만 20-44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경제상황과 가족사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6-18

CARD

322

다음은 귀하의 현재 경제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2. 다음은 귀하의 현재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지난 1개월간) 주당 평균 몇 시간 일(근무)을 하였습니까? 평균 _____ 시간

19-20
2-1

2-2. 현재의 직장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 ① 일반회사(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②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정부채투자기관
-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
- ④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포함)
- ⑤ 기타(무엇: _____)
- ⑧ 잘 모르겠음

21
2-2

2-3.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전체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조사원: 사업장 기준으로 파악하여 기입하십시오)

- ① 1-4인 ② 5-9인 ③ 10-29인 ④ 30-49인
- ⑤ 50-69인 ⑥ 70-99인 ⑦ 100-299인 ⑧ 300-499인
- ⑨ 500-999인 ⑩ 1000인 이상

22-23
2-3

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 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음
- ②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음 => _____ 년 _____ 월부터

24
3
25-28 29-30
 년 월

4. 귀하는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의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전적으로 도움 받음 ② 일부(50%이상)도움 받음
- ③ 일부(50%미만)도움 받음 ④ 전혀 도움받지 않음=>(결론 4-1로 가시오)

31
4

4-1.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언제부터입니까?

_____ 년 _____ 월부터

32-35 36-37
4-1 년 월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5.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몇 세입니까?(※조사일 기준)

1) 아버지	2)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① 생존 만 _____ 세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 (_____ 년)	<input type="checkbox"/> ② 사망 (_____ 년)

5 아버지 어머니
38 39-41 42 43-45
1) 세 2) 세
46-49 50-53
 년 년

5-1. 귀하의 부모님은 이혼이나 별거 또는 재혼을 경험하셨습니다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1

54

6. 귀하의 형제·자매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은 몇 번째 입니까?
(※본인과 사망한 형제·자매 포함)

___ 남 ___ 녀 중 ___ 제

6

55

 남

56

 녀 중

57-58

 제

6-1. 귀하의 형제·자매 중 이혼이나 별거 또는 재혼을 경험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형제·자매가 모두 미혼인 경우,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비해당)

- 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없음

6-1

59

모든 만 20-44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에 관해 질문합니다.

16-18

CARD
323

다음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7.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⑤ 모르겠다 (경우에 따라서)

7

19

8. 귀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1) 남자: _____ 세
2) 여자: _____ 세

8
1)

--	--

 세 20-21
2)

--	--

 세 22-23

9. 귀하는 결혼과 가족에 관한 다음의 견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사별이나 이혼 후에는 재혼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9)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9
1)

--	--

 24
2)

--	--

 25
3)

--	--

 26
4)

--	--

 27
5)

--	--

 28
6)

--	--

 29
7)

--	--

 30
8)

--	--

 31
9)

--	--

 32

10. 과거에 비해 요즘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의 각 이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시댁·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9)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10)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 10
- 1) 33
- 2) 34
- 3) 35
- 4) 36
- 5) 37
- 6) 38
- 7) 39
- 8) 40
- 9) 41
- 10) 42

다음은 귀하 자신의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②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 ③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은 없다
- ④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 (질문 12로 가시오)

11 43

11-1. 귀하가 결혼을 한다면 다음 보기 중에서 '배우자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골라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가입하시오 또한, 2순위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99)로 가입하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1-1 44-45 46-47
1순위 2순위

<보기>

①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② 건강	③ 직업(직종 및 직업)
④ 경제력(소득, 재산 등)	⑤ 연령	⑥ 학력
⑦ 학벌	⑧ 성격	⑨ 신뢰와 사랑
⑩ 종교	⑪ 궁합	⑫ 형제순위(장남, 장녀 등)
⑬ 가정환경(부모님, 형제 및 친척 관계, 성장 배경)		
⑭ 출신지역(배우자 집안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⑮ 조건 없음		
⑯ 기타1(무엇: _____)		
⑰ 기타2(무엇: _____)		

11-2. 귀하가 결혼한다면 몇 세에 할 계획이십니까?

만 _____ 세

11-2 ⁴⁸⁻⁴⁹ 세

12. 귀하의 결혼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이나 정보매체는 각각 무엇입니까?

12-1.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사람: _____	12-2. 결혼태도에 영향을 준 매체: _____
① 부모	①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② 형제자매	② 라디오
③ 친인척·가문(집안)	③ TV
④ 친구 및 동료	④ 인터넷
⑤ 이웃	⑤ 없음
⑥ 없음	⑥ 기타(무엇: _____)
⑦ 기타(무엇: _____)	

12-1 ⁵⁰

12-2 ⁵¹

13. 귀하는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14로 가시오)

13 ⁵²

13-1.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만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13-1 ⁵³⁻⁵⁴ 년 ⁵⁵⁻⁵⁶ 개월

13-2.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과 결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3-2 ⁵⁷

14. 귀하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조사원 응답자가 대담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하시오 또한, 2 순위가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99)로 기입하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영역	보 기
경제적 이유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⑤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⑥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사회적 이유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강제 또는 권고 퇴직,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⑧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⑨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가치관	⑩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⑪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⑫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⑬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와 자기계발을 위해) ⑭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⑮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⑯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가족	⑰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여자가 자녀양육과 집안일 대부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⑱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와상상태 포함)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건강	⑲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기타	⑳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㉑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㉒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㉓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㉕ 부모님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㉖ 형제·자매가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㉗ 친구들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㉘ 기타1(무엇: _____) ㉙ 기타2(무엇: _____)

14 58-59 60-61

1순위 2순위

15. 귀하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가 사정이 있어 미룬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16으로 가시오)

15 ⁶²

15-1. (미룬 적이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업상태이어서(사업실패) ② 비정규직이어서
 ③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④ 직장일이 바빠서
 ⑤ 상대방의 수입이 적어서 ⑥ 나의 수입이 적어서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⑧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⑨ 집장만 이외의 결혼비용이 여의치 않아서 ⑩ 학업 때문에
 ⑪ 집안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에 ⑫ 시택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⑬ 건강문제 때문에 ⑭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⑮ 기타(무엇: _____)

15-1 ⁶³⁻⁶⁴

16. 귀하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 (질문 17로 가시오)

16

16-1.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총 _____ 만원

16-1

--	--	--	--	--

 만원

다음은 국가의 결혼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17. 귀하는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 ② 다소 필요함
 - ③ 별로 필요없음
 - ④ 전혀 필요없음
- ⇒ (질문 18로 가시오)

17

17-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②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 ③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 ④ 주택마련 지원
- ⑤ 결혼준비를 위한 휴가제도
- ⑥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
- ⑦ 기타(무엇:_____)

17-1

--	--

모든 만 20~44세 미혼자를 대상으로 자녀관련 가치 및 태도와 출산관련 정책에 관해 질문합니다

다음은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와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가져야 함
- ② 갖는 것이 좋음
- ③ 없어도 무관함
- ④ 모르겠음

16-18

CARD
324

18

19.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0명 ⇒ (질문 20으로 가시오)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 ⑤ 5명 이상
- ⑥ 모르겠음

19

19-1. (자녀를 둔다면) 딸·아들 구별없이 있습니까? 구별해서 있습니까?

- ① 딸·아들 구별없이
- ② 딸·아들 구별해서(아들 _____명, 딸 _____명)
- ③ 모르겠음
- ④ 기타(무엇:_____)

19-1

--	--	--	--

아들(명) 딸(명)

20. 여성이 직장일과 가정일을 함께 해나가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수	직장형태		
	전일제	시간제	일을 전혀 하지 않음
자녀를 전혀 두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자녀를 1명만 둬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⑥
자녀를 2명 이상 둬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⑧	<input type="checkbox"/> ⑨

20

	24	25

21. 가족내 부부 역할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1

1)		26
2)		27
3)		28
4)		29
5)		30

22.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는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결혼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2

1)		31
2)		32
3)		33
4)		34
5)		35
6)		36
7)		37
8)		38

23. 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한 다음의 문항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이를 키우는 것이 더 쉽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자원이 분산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엄마가 취업한 경우에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3

1)	39
2)	40
3)	41
4)	42
5)	43

24. 오늘날의 부부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를 적게 출산하는 경향에 관한 다음의 이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1)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 취업여성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3)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4)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5)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주거공간 부족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6) 이혼한 부부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7)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의 확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8)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의 확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9)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의 증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24

1)	44
2)	45
3)	46
4)	47
5)	48
6)	49
7)	50
8)	51
9)	52

25. 인생에서 추구해볼만한 다음의 목표들을 실행하는데 자녀의 수가 관계가 있다면, 각 목표에 해당하는 적정 자녀수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자녀수				자녀수와 관계없다
	0명	1명	2명	3명 이상	
1)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2)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3) 부부간 가사일을 보다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4)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5) 대의를 실현하는 것(자신의 신념이나 신앙에 따라 사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6)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7)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8)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25

1)	53
2)	54
3)	55
4)	56
5)	57
6)	58
7)	59
8)	60

26. 일반적으로 미혼 남녀가 결혼전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낳아야 함 ②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함
 ③ 절대로 낳아서는 안 됨 ④ 모르겠음
 ⑤ 기타(어떻게: _____)

26

귀하의 향후 출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27. 귀하는 자녀를 두고 싶습니까?

- ①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음 ② 가능하면 가지고 싶음
 ③ 별로 가지고 싶지 않음 ④ 가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음
 ⑤ 생각해 본 적 없음

27

28. 여건이 허락한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싶으십니까?

- ⑦ 0명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⑥ 모르겠음

28

※ 조사원: 희망 자녀수를 0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 <질문 29>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 <질문 32>

28-1. (자녀를 둔다면) 딸·아들 구별없이 입니까? 구별해서 입니까?

- ① 딸·아들 구별없이 ② 딸·아들 구별해서(아들____명, 딸____명)
 ③ 잘 모르겠음 ④ 기타(무엇: _____)

28-1

64	65	66

아들(명) 딸(명)

29. (질문 28에서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귀하가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두기를 희망하는 이유를 다음의 보기에서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하시오 또한, 2순위는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99)로 기입하시오

29-1. <질문 28>에서 희망 자녀수를 0명이라고 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원: 질문 후 <질문 32>로 가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29-2. <질문 28>에서 희망 자녀수를 1명이라고 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영역	<보기>
경제적 이유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⑤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⑥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사회적 이유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⑧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때문에)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가치관	⑩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⑪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⑫ 부모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
가족	⑬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⑭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외상상태 포함)이 있는 가족 수발 때문에
건강	⑮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포함) 때문에
기타	⑯ 기타(무엇: _____)

29-1
1순위 ⁶⁷⁻⁶⁸ 2순위 ⁶⁹⁻⁷⁰

29-2
1순위 ⁷¹⁻⁷² 2순위 ⁷³⁻⁷⁴

30. 귀하가 자녀를 갖는다면 첫 아이는 언제쯤 가지고 싶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하시오 또한, 2순위는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99)로 기입하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① 안정된 직장을 마련한 이후에	②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③ 집장만을 한 이후에	④ 자신과 배우자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
⑤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	⑥ 배우자가 원할 때
⑦ 자신의 부모님께서 원하실 때	⑧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원하실 때
⑨ 기타(무엇: _____)	⑩ 기타(무엇: _____)

30
1순위 ⁷⁵⁻⁷⁶ 2순위 ⁷⁷⁻⁷⁸

31. 향후 취업 중에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경우 양육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싶으십니까?

- ① 평소대로 일하겠음 →(질문 32로 가시오)
 ② 시간을 줄여서 일하겠음
 ③ 그만 두겠음

79
31

31-1. (그만 둘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을 것 같아서
- ② 아이를 마땅히 맡길 사람이나 시설이 없을 것 같아서
- ③ 아이를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 ⑤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 ⑥ 본인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하여
- ⑦ 자녀양육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 ⑧ 기타(무엇: _____)

31-1

출산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32. 귀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한 문제임
- ② 다소 심각한 문제임
- ③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님
- ④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님
- ⑤ 모르겠음

32

33. 귀하는 저출산현상이 본인에게 얼마나 영향(노동력 부족, 노인부양부담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관련(영향)이 있음
- ② 대체로 관련(영향)이 있음
- ③ 별로 관련(영향)이 없음
- ④ 전혀 관련(영향)이 없음
- ⑤ 모르겠음

33

34. 귀하는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함
-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음
- ⑤ 모르겠음

34

35. 귀하는 직장(회사, 기업 등)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함
-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함
-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음
- ⑤ 모르겠음

35

36. 귀하는 국가가 세금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 ② 대체로 찬성
- ③ 별로 찬성하지 않음
- ④ 전혀 찬성하지 않음
- ⑤ 모르겠음

36

37. 귀하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데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하십시오. 또한, 2순위는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99)로 기입하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 ①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 ② 아동의 방과후 학교 지원
- ③ 다자녀 가정 소득 공제(세금감면)
- ④ 다자녀 가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출산 크레딧)
- ⑤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및 주택자금대출
- ⑥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 및 구입·전세 자금지원
- ⑦ 종일제운영 유치원 확대
- ⑧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 ⑨ 직장 보육시설 확충
- ⑩ 공공립 보육시설 확충
- ⑪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 ⑫ 산전진찰비용 지원
- ⑬ 불임부부 지원
- ⑭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
- ⑮ 산전후휴가(급여지원 확대)
- ⑯ 육아휴직(급여조정, 대체인력지원, 남성참여활성화 등)
- 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도입, 장려)
- ⑱ 근로형태 유연화(시간제, 시차별출퇴근 등)
- ⑲ 유사산 휴가(급여지원)
- ⑳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출산후계속 고용지원금,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㉑ 양성평등 문화조성
- ㉒ 기타(무엇: _____)

37 86-87 88-89
1순위 2순위

38.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응답자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기입하십시오. 또한, 2순위는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고 없는 경우에는 (99)로 기입하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보기>

- ① 양성평등 구현
- ② 학벌 위주 사회문화 타파
- ③ 공교육 강화
- ④ 사교육비 경감
- ⑤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 ⑥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 ⑦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 ⑧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 ⑨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 ⑩ 복지수준의 향상
- ⑪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적 사회 지양
- ⑫ 기타(무엇: _____)

38 90-91 92-93
1순위 2순위

미혼자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원 확인사항**

방문회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2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3	___월 ___일 ___시 ___분 ~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전화번호	() -
				E-mail	